

쓰딸린선집

전 세계 무산자는 련합하라!

쓰딸린선집

(상)

민 족 출 판 사



И. Сталин.

편 집 자 로 부 터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는 광범한 독자들의 수요를 위하여 우리는 이 《쓰딸린선집》을 편집하였다.

이 선집에는 쓰딸린의 매 시기에 있어서의 중요한 로작들이 망라되여있으며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원리를 고수하고 천명한, 그리고 쏘련에서 무산계급독재와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적경험들을 총화하고 론술한 그의 저술들이 주요하게 수록되여있다.

선집은 상, 하 2권으로 나누고 상권에는 1901～1927년기간의 저술을, 하권에는 1928～1952년기간의 저술을 수록하였다. 저서 《쏘련공산당(볼쉐위크)력사간략독본》의 《결속어》를 부록으로 하권의 마지막에 수록하였다.

선집에 수록된 저술들은 대부분이 전문이고 발취한것은 소수의 몇편뿐이다. 모든 저술들은 집필 또는 발표된 시간순으로 배렬하였다.

선집에서는 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한 저서 《쓰딸린전집》, 《레닌주의의 제 문제》, 《쓰딸린선문집》 등의 번역문을 취하면서 원문에 의하여 약간 수정하였다.

매권마다 본문뒤에 주 및 인명색인을 부록으로 넣었다.

중공중앙 맑 스 엥겔스 레 닌 쓰딸린 저작편역국

1979년 12월

차 례

1901～1927년

로씨야사회민주당과 그의 당면과업……1～19
1 ……1
2……10
무산자계급과 무산자당(당규약 제1조에 대하여)……20～30
당내의견상이에 대하여 간단히 론함……31～73
맑스주의와 민족문제 ……74～150
1 민족 ……76
2 민족운동 ……87
3 문제의 설정 ……95
4 민족문화자치 ……103
5 분트, 그의 민족주의, 그의 분리주의……115
6 쌉까즈파, 뷔소파 대표자회의……130
7 로씨야의 민족문제 ……143
10월혁명과 민족문제……151～161
1 2월혁명과 민족문제……151
2 10월혁명과 민족문제 ……154
3 10월혁명의 세계적의의 ……158
동방을 잊지 말라 ……162～164
로씨야공산당의 조직자 및 령도자로서의 레닌 ……165～174

1 로씨야공산당의 조직자로서의 레닌 ……166
2 로씨야공산당의 령도자로서의 레닌 ……170
웨.이.레닌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공산
당(볼쉐위크) 모스크바위원회회의에서 한 연설
(1920년 4월 23일)……175～177
10월혁명과 중간층들에 대한 문제……178～183
당의 과업에 대하여(소조장, 토론구락부 성원들과
세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적색교원스냐구역위원회확대회의에서 한 보고)(1923
년 12월 2일) ……184～200
론쟁은 당이 강유력하다는 표징이다 ……184
론쟁의 원인……186
당내생활의 결함들 ……187
결함의 원인……190
당내생활의 결함들을 어떻게 퇴치할것인가? ……192
론쟁에 관하여, 라파일에 관하여, 쁘레오브라젠
스끼와 싸쁘로노브의 론문에 관하여, 뜨로쯔
끼의 편지에 관하여 ……201～217
론쟁에 관하여 ……201
라파일에 관하여 ……204
쁘레오브라젠스끼의 론문에 관하여……207
싸쁘로노브의 론문에 관하여 ……210
뜨로쯔끼의 편지에 관하여 ……213
레닌의 서거에 즈음하여(1924년 1월 26일 전련맹쏘베트
제2차대회에서 한 연설)……218～223
레닌에 대하여(1924년 1월 28일 크레믈리군관학교
학생야회에서 한 연설) ……224～235

산의 수레……224
겸손성 ……226
론리의 힘……227
락심하지 않는다 ……228
교만하지 않는다 ……229
원칙성 ……229
대중에 대한 신뢰……231
혁명의 천재……233
레닌주의기본에 대하여(스웨르들로브대학에서 한 강연) ……236~351
1 레닌주의의 력사적근원 ……239
2 방법……246
3 리론……255
4 무산계급독재 ……274
5 농민문제 ……288
6 민족문제 ……302
7 전략과 전술……313
8 당 ……331
9 사업작풍 ……348
10월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술 (저서《10월혁명에로 가는 길》의 서문)……352~394
1 10월혁명의 국외정세와 국내정세 ……352
2 10월혁명의 두가지 특성에 대하여 혹은 10월혁명과 뜨로쯔끼의《부단》혁명론 ……356
3 10월혁명준비시기에 볼쉐위크들이 취한 전술의 몇가지 특성에 대하여……374
4 세계혁명의 시초와 전제로서의 10월혁명 ……389

독일공산당의 전망과 볼쉐위크화에 대하여
(독일공산당원 헤르쪼그와의 담화) ……395～401
국제부녀절에 즈음하여……402～403
쏘련무산계급대학생 제1차대표자회의에
보냄(편지) ……404～408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표자회의의 사업
총화에 대하여(1925년 5월 9일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모스크바조직의 열성자들에게 한 보고)……409～450
1 국제정세 ……410
2 자본주의국가내의 공산당들의 당면과업 ……420
3 식민지와 예속국가내의 공산주의자들의 당면과업 ……424
4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운명에 대하여 ……427
5 농촌에서의 당의 정책……439
6 금속공업에 대하여 ……446
질문과 대답(1925년 6월 9일 스웨르들로브대학에서
한 연설)……451～501
1 ……451
2 ……458
3 ……465
4 ……473
5 ……474
6 ……479
7 ……482
8 ……484
9 ……486
10……497
레닌주의의 제 문제에 대하여……502～583

1 레닌주의의 정의……502
2 레닌주의에서 주되는 문제……505
3 《부단》혁명에 관한 문제……508
4 무산계급혁명과 무산계급독재……510
5 무산계급독재체계내에서의 당과 로동계급……522
6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제……551
7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위한 투쟁……568
쏘련의 경제형편과 당정책에 대하여(레닌그라드
당조직열성자회의에서 한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전원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1926년
4월 13일) ……584～614
1 신경제정책의 두 시기……585
2 공업화의 방침……587
3 사회주의적축적의 제 문제……589
4 축적의 옳바른 리용。절약정책 ……596
5 공업건설간부를 양성하여야 한다 ……604
6 로동계급의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606
7 로농동맹을 강화하여야 한다 ……607
8 당내민주주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610
9 당의 통일을 수호하여야 한다……611
10 결론……612
중국혁명의 전도에 대하여(1926년 11월 30일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중국위원회회의에서
한 연설)……615～631
1 중국혁명의 성격……615
2 제국주의와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간섭……617
3 중국의 혁명군대……619
4 중국에서의 미래정권의 성격……621

5 중국의 농민문제……624
6 중국의 무산계급과 무산계급령도권……628
7 중국의 청년문제……629
8 약간의 결론……630
우리 당내의 사회민주주의적편향을 다시한번 론함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제7차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보고와 결론)……632~778
보고(1926년 12월 7일)……632
1 예비적고찰 ……632
(1) 당내발전의 모순 ……632
(2) 당내모순의 근원 ……638
2 쏘련공산당(볼쉐위크)내의 반대파의 특징……641
3 쏘련공산당(볼쉐위크)내의 의견상이 ……649
(1) 사회주의건설의 제 문제 ……649
(2) 《소유식》의 요인 ……654
(3)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와의
공통성과 불가분리성 ……655
(4) 사회주의건설문제의 력사에 대하여……657
(5) 현시기의 쏘련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제의
특히 중요한 의의……663
(6) 혁명의 전망에 대하여 ……666
(7) 사실에 있어서 문제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669
(8) 승리의 가능성에 대하여 ……671
(9) 실지정책에서의 의견상이……673
4 활동하고있는 반대파 ……676
5 무엇때문에 무산계급독재의 적들은 반대파를
찬양하고있는가 ……680
6 반대파동맹의 패배……684

7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의
실제적의의와 중요성 ……688
결론(1926년 12월 13일) ……689
1 몇가지 의견……689
(1)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날조와 중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689
(2) 무엇때문에 무산계급독재의 적들은
반대파를 찬양하고있는가……696
(3) 오유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702
(4) 지노위예브식의 무산계급독재……706
(5) 뜨로쯔끼의 예언자적발언……710
(6) 탑스, 엥겔스, 레닌을 인용하는 소학생의
역할을 하는 지노위예브 ……713
(7) 지노위예브의 견해에 의한 수정주의 ……724
2 개별적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제 ……728
(1) 제국주의시기에 개별적나라들에서의
무산계급혁명의 전제조건……728
(2) 지노위예브는 어떻게 레닌의 말을
《가공》하고있는가……739
3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제 ……744
(1) 반대파의 《책략》과 레닌당의 《민족개량주의》……744
(2) 우리는 쏘련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를
건설하고있으며 또 건설해낼수 있다 ……754
(3) 우리는 세계무산계급과 동맹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766
(4) 변질에 관한 문제……769
4 반대파와 당통일문제 ……771

5 결론……776
제1차 미국로동자대표단과의 담화(1927년 9월 9일)
(발췌)……779~786
1 대표단의 물음과 쏘베트동지의 대답 ……779
10월혁명의 국제적성격(10월혁명 열흘에 즈음하여)……787~797

주해 ……798~846
인명색인 ……847~883

로씨야사회민주당과 그의 당면과업

1

인간의 사유는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론증된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에 많은 곤난과 고통과 변동을 겪게 되였다. 서구라파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길을 개척하고 사회생활의 법칙을 연구론증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류에게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실증하기까지 매우 오래동안 공상적(실현될수 없는, 실천될수 없는)사회주의의 사막에서 맹목적으로 방황하게 되였다. 구라파는 19세기초엽이래 무엇이 상업 및 공업의 발전과 함께 더욱더 악화되여가는 고질로부터 인류를 건져낼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며 해결하려고 하는 용감하고 자기희생적이고 성실한 일군들인 학자를 많이 낳았다. 서구라파에서는 다수인에 대한 소수인의 압박을 폐기하기 위한 수많은 폭풍과 대류혈을 겪었으나 비애는 의연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상처는 여전히 아프며 고통은 나날이 더 참을수 없게 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원인의 하나는 공상적사회주의가 사회생활의 법칙을 천명하지 않고 현실과의 긴밀한 련결이 필요한 때에 생활우에서 배회하였으며 또 더욱 높이 뜨려고 애쓰고있었다는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공상주의자들은 생활에 아직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아무런 지반도 없는 때에 그 실현을 당면목표로 내세웠으며 또—그 결과로 보아

더욱 비참하게도—그들(로버트 오엔, 루이 블랑, 푸리에 등)은 이 세상의 강력한자들에게서 사회주의의 실현을 기대하고 있었는바 이 강력한자들은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리상의 정당성을 용이하게 확신할수 있으리라는것이였다. 이 견해는 사회주의적리상의 유일한 자연적대표자들인 로동자대중과 현실적로동운동을 완전히 간과하는것이였다. 공상주의자들은 이것을 리해할수 없었다. 그들은 인민(로동자)자체의 원조 없이 법률이나 선언으로써 지상에다 행복을 창조하려고 하였다. 로동운동에 대하여는 그들은 특별한 주의를 돌리지 않았으며 지어는 종종 그 의의마저 부정하군 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리론은 로동자대중에게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리론으로만 남아있었으며 로동자대중속에서는 이 리론과는 전혀 독립적으로 위대한 사상이 성숙되였는데 그것은 19세기중엽에 천재적인 칼 맑스의 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졌다.—《로동계급의 해방은 로동계급자신의 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천 세계 무산자는 련합하라!》①

이 말로부터 사회주의적리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로동자들의 자립성이 필요하며 민족별과 국별을 불문한 로동자들의 조직적력량으로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현재에 있어서는 《소경》도 보아낼수 있는 진리가 명백하여졌다. 오늘 구라파자산계급제도우에 불가항력의 숙명처럼 서서 이 제도를 타도하고 그 폐허우에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겠다고 위협하고있는 강력한 사회민주당의 튼튼한 지반을 쌓아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리를 론증하여야 할것이였는데 이것을 맑스와 그의 친우 엥겔스가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

① 《맑스엥겔스전집》, 제1권, 317~318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사상의 발전은 서구라파에서와 거의 같은 길을 걸어왔다. 로씨야에서도 사회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적의식—과학적사회주의에까지 이르기전에 오래동안 맹목적으로 방황하였다. 여기에도 역시 사회주의자도 있고 로동운동도 있었으나 그것은 각각 서로 의존함이 없이 사회주의자는 공상적환상에로(《토지 및 자유》 그루빠1, 《인민의지당》2), 로동운동은 자연발생적소동에로 나가고있었다. 량자는 같은 년대(70~80년대)에 활동하고있으면서도 서로 모르고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은 근로인민속에 지반을 가지고있지 못하였으며 그때문에 그들의 활동은 추상적인것이였으며 공중에 뜬것이였다. 그리고 로동자들은 지도자, 조직자들을 가지고있지 못하였으며 그때문에 그들의 운동은 무질서한 소동으로 되였다. 사회주의를 위한 사회주의자들의 영웅적투쟁이 성과없는 투쟁으로 남아있었으며 그들의 동화같은 용감성이 전제제도의 견고한 성벽에 부닥쳐 깨지게 된 주요원인은 여기에 있었던것이다. 로씨야사회주의자들이 로동자대중과 접근하게 된것은 다만 90년대초부터였다. 당시 그들은 줄로는 로동계급에게서만 얻을수 있으며 이 계급만이 사회주의적리상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보았던것이다. 이제는 로씨야사회민주당은 그 당시 로씨야로동자들속에서 발생하고있던 운동에 그들의 모든 노력과 주의를 집중시켰다. 아직 충분히 자각되지 못하였으며 투쟁에 준비되지 못한 로씨야로동자들은 점차 자기들의 절망적처지에서 벗어나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운명을 개선하려고 애쓰고있었다. 물론 당시의 이러한 운동에는 정연한 조직사업이 없었으며 운동은 자연발생적이였다.

이리하여 사회민주당은 이 무의식적, 자연발생적, 비조직적 운동에 간섭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사회민주당은 로동자들의 의식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개별적인 고용주들에

대한 개별적인 로동자집단들의 분산되고, 분리된 투쟁을 로씨야의 압박계급에 대한 로씨야로동계급의 투쟁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쟁을 단결시켜 그것을 일반적계급투쟁에 합류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투쟁에 조직적성격을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초기에는 사회민주당이 로동자대중속에 그 활동을 보급시킬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는 선전, 선동 소조의 사업에 국한하게 되였다. 그 사업의 유일한 형태는 당시에 소조활동이였다. 이 소조들의 목적은 장차 운동을 지도할 일군들을 로동자들속에서 양성하려는것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이 소조들은 선진로동자들로써 구성되였던것이며 따라서 선발된 로동자들만이 소조에서 학습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소조활동시기는 속히 지나갔다. 사회민주당은 소조의 좁은 범위를 벗어나 광범한 로동자대중에게 자기의 영향을 전파시켜야 하겠다는 필요를 오래지 않아 느끼게 되였다. 외부적조건이 또한 이것을 촉진시켰다. 당시 자연발생적운동은 로동자들사이에서 특히 앙양되고있었다. 거의 전 찌플리스가 이러한 자연발생적운동에 휩쓸려있던 그 년도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당신들가운데서 누가 있겠는가? 비조직적인 파업들은 담배공장과 철도작업소들에서 련속 일어나고있었다. 우리 지대에서는 이러한 운동은 1897～1898년에 있었고 로씨야에서는 좀더 이전에 있었다. 제때에 원조하여줄 필요가 있었던것이여서 사회민주당은 급속히 원조의 손길을 내밀었다. 로동일의 단축, 벌금제의 폐지, 로임의 인상 등을 위한 투쟁이 개시되였다. 사회민주당은 로동운동의 발전이 이러한 사소한 요구에 국한될수 없다는것, 운동의 목적은 이러한 요구가 아니라는것, 이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이 요구들은 사소한것이며 또 개

개의 도시나 지구의 로동자들자체는 현재 분산적으로 투쟁하고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전체 로동계급이 단결되고 공고한 조직적력량으로서 자기의 적을 향하여 총돌격하게 되는 때에라야 비로소 완전한 승리가 달성될수 있다는것을 이 투쟁자체가 로동자들에게 가르쳐줄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로동자들이 자기들의 직접적인 자본가이외에 더 완강한 다른 적 측 전체 자산계급의 조직된 력량과 군대, 재판소, 경찰, 감옥, 헌병을 둔 현대자본주의국가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로동자들에게 보여줄것이다. 서구라파에서조차 자기들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로동자들의 시도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시도일지라도 자산계급정권의 압제에 부닥치고야말며 이미 인권이 쟁취되여있는 서구라파에서 로동자들이 정부와의 직접적투쟁을 수행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은즉 하물며 로씨야로동자들이 그 운동에서 전제정권과 충돌하게 될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제정권이 온갖 로동운동의 완강한 적으로 되는것은 비단 이 정권이 자본가들을 옹호하고있다는 리유에서뿐만아니라 또 그것은 전제정권으로서는 사회적 제 계급의 독자성, 특히 다른 어느 계급보다도 더 압박받고 학대받는 로동계급과 같은 그러한 계급의 독자성을 허용할수 없는것이라는 리유에서도 그러하다. 로씨야사회민주당은 운동과정을 이렇게 리해하고 자기의 모든 노력을 로동자들사이에서의 이 사상의 보급에 경주하였던것이다. 여기에 사회민주당의 힘이 있었으며 또 이것으로써 1896년의 뻬쩨르부르그방직공장 로동자들의 대파업이 보여준바와 같은 당초부터의 사회민주주의의 위대하고 승리적인 발전이 설명되는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승리는 일부 나약한 사람들에게 혼란과 현혹을 일으켰다. 한때에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은 종국적목적에만 주의를 돌리고 또 거기에 눈이 어두워 눈앞에서 전개되고있는

현실적인 로동운동을 전혀 보지 못하였거나 또는 부인하였는데 일부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와는 반대로 자연발생적 로동운동과 그 일상적요구에만 자기들의 모든 주의를 돌렸었다. 당시(5년전) 로씨야로동자들의 계급의식은 매우 낮았다. 로씨야로동자들은 이제 방금 세기적잠속에서 깨여났으므로 암흑에 관습된 그들의 눈은 물론 그앞에 처음으로 벌어진 세계에서 진행되고있는 모든것을 다 볼수는 없었던것이다. 그들에게는 큰 수요라고는 없었으며 그들의 요구는 높지 않았다. 로씨야로동자들은 로임의 약간한 인상이나 로동시간의 단축이상으로는 더 나가지 못하였다. 현존제도를 변경하여야 하겠다든가, 사적소유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든가, 사회주의제도를 조직하여야 하겠다는것 같은 이러한 모든것에 관해서는 로씨야로동자대중은 상상도 못 가졌던것이다. 그들은 전 로씨야 인민을 전제정권하에서 시달리게 하는 그 노예제도의 철폐라든가, 인민의 자유나 인민이 국가관리에 참가하는 문제를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바로 이때에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일부분은 로동운동에다 자기들의 사회주의적사상을 주입하는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하였고 다른 일부분은 경제적투쟁 즉 로동자들의 처지의 부분적개선(례컨대 로동시간의 단축, 로임의 인상)을 위한 투쟁에 열중하면서 자기들의 위대한 의무와 거룩한 리상을 깡그리 잊어버리고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서구라파동지(이른바 베른슈타인파)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운동이면 그만이고 종국적목적은 아무것도 아니다.》[3]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로동계급이 무엇을 위하여 투쟁하는가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다만 투쟁하기만 하면 그만이였다. 이른바 헐값정책이 전개되고있었다. 사태는 어느날인가 베제르부르그의 《로동자사상》[4]이라는 신문이 다음과 같이 언명하게 되기에

까지 이르렀다. 《우리의 정강은 10시간로동일의 실시, 6월 2일 법령5에 의하여 빼앗긴 명절의 회복이다.》(111)①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이 부분은 자연발생적운동을 지도하며 대중속에 사회민주주의적리상을 주입하며 대중을 우리의 종국적목적에로 향도하는 대신에 바로 그 운동의 맹목적인 도구로 되고말았으며 그들은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로동자부분의 뒤를 맹목적으로 따라갔으며 그때에 로동자대중에게 의식되고있던 요구와 그 수요를 정식화하는데 그치고있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집안에는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열려있는 문만 잡아두드리고 서있었다. 그들은 종국적목적인 사회주의나 또는 당면목적인 전제제도의 전복을 로동자대중에게 해설하여줄 능력도 못 가졌거니와 더욱 비참한것은 그들이 이러한 모든것을 무익한것으로, 심지어 유해한것으로까지 생각하고있는것이였다. 그들은 로씨야로동자들을 어린애처럼 보고 이러한 대담한 사상이 그들을 놀래우지나 않을가 하고 두려워하였다. 또 그뿐만아니라 일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주의에는 그 어떠한 혁명적투쟁도 필요치 않으며 필요한것은 다만 경제적투쟁 즉 파업, 직업동맹, 소비조합, 생산조합인데 이것만 있으면 사회주의는 완수될것이라는것이다. 그들은 정권이 무산계급의 수중으로 넘어가기(무산계급독재) 전에는 현존제도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로동자들의 완전한 해방은 불가능하다는것을 립증하는 구국제사회민주주의자들의 학설을 오유라고 인정하였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

① 지적하여야 할것은 최근에 와서 베제르부르그의 《투쟁동맹》파 그 신문 편집부가 그 종래의 순 경제적방향을 포기하고 자기의 활동에다 정치투쟁의 사상을 도입하기에 노력하고있다는것이다.

그자체로서는 아무런 새로운것도 아닌것으로 실지에 있어서 현존자본주의제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것이다. 즉 사회주의는 현존제도안에서도 용이하게 량립될수 있으며 직업동맹이라든가 지어는 소비조합상점이나 생산조합 같은것도 벌써 《사회주의의 일부분》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낡은 옷을 되는대로 기워가지고 고생하는 인류에게 새옷으로 주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런데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이 부분이 서구라파의 자기들의 선생들(베른슈타인일파)의 학설을 발전시켜가지고 정치적자유(파업, 결사, 언론 등의 자유)는 짜리제도와 량립할수 있는것이므로 특별한 정치적투쟁 즉 전제제도의 전복을 위한 투쟁은 전혀 무용한것이라고,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갓 경제적투쟁만으로도 충분하며 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좀더 자주 단행하는 것으로도 충족하며 그리한다면 당국은 파업자들의 처벌에 기진할것이며 따라서 파업이나 집회의 자유는 스스로 오게 될것이라고, 이렇게 파렴치하게도 성명하는 그 사정은 무엇보다 더 비참하며 또 혁명가들에게는 리해할수 없는 일이다.

이리하여 이들 가짜《사회민주주의자들》은, 로씨야로동자들은 그 힘과 정력의 전부를 경제적투쟁에만 허비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원대한 리상》은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론증하려 하였다. 그들의 활동은 그들이 이 도시 또는 저 도시에서의 지방적사업만을 그 의무로 생각하였다는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들에게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조직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었으며 도리여 그들은, 당의 조직은 그들의 직접적《천직》인 경제적투쟁의 수행을 방해하는 우습고 시끄러운 장난이라고 인정하였다. 파업 또 파업 그리고 투쟁기금을 위한 푼돈의 모집—이러한것이 그들의 사업의 전부였다.

그들이 자기들의 파업을 이렇게 좁히고 사회민주주의를

거부한 이상, 이들 자연발생적《운동》의 숭배자들은 적어도 이 운동을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하였으리라고 당신들은 물론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우리가 속히웠다. 이 점에 대해서는 뻬쩨르부르그의 운동의 력사가 우리를 확신시켜준다. 초기 즉 1895~1897년에 있어서의 이 운동의 빛나는 발전과 용감한 전진은 후에 맹목적인 방황으로 교체되였다가 결국 운동은 한자리에 정지되고말았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경제적투쟁을 위한 견고한 조직을 만들려는《경제주의자들》의 모든 노력은 끊임없이 정권의 철벽에 부닥쳤으며 또한 언제나 깨여지고말았기때문이다. 가혹한 경찰의 탄압은 그 어떤 경제적조직도 존재하지 못하게 하였다. 파업도 리득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왜냐 하면 파업은 100번이면 99번은 경찰의 탄압으로 인하여 압살되였으며 로동자들은 뻬쩨르부르그에서 무자비하게 쫓겨났고 감방의 벽과 씨비리의 추위는 그들의 혁명적정력을 무자비하게 짜내버렸기때문이다. 운동의 이러한 정체(물론 상대적인 정체)는 비단 외부적조건, 즉 경찰의 탄압에만 그 원인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보다 못지않게 사상자체 및 계급의식의 정체와 이로 인한 로동자들의 혁명적 정력의 감퇴도 그 원인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우리는 더욱 깊이 확신하는바이다.

로씨야로동자들이 투쟁에서 내든 기치는 푼돈을 위한 경제적투쟁의 표어가 씌여있는 낡고 퇴색한 걸레였기때문에 로동자들이 투쟁의 고상한 목적과 내용을 운동의 발전과 함께 넓리 파악할수 없었으며 따라서 로동자들은 응당 이 투쟁에 정력을 비교적 적게, 취미를 비교적 적게, 혁명적지향을 비교적 적게 경주하였던것이다. 왜냐 하면 위대한 정력은 오로지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만 생길수 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이 결과에 운동을 위협하는 위험성은 만일 우리의

실제생활조건이 로씨야로동자들을 날이 갈수록 더욱더 꾸준히 직접적정치투쟁에로 추동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컸을것이다. 크지 않은 일반적파업까지도 우리가 정치적권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로동자들앞에 강경하게 내세웠으며 그들을 정권 및 무력과 충돌시켰으며 경제적투쟁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것을 똑똑히 증시하였다. 그러므로 투쟁은 이들 《사회민주주의자들》자신의 희망과는 반대로 날로 더 분명히 정치적성격을 띠여갔다. 그 압박하에서 오늘날 로씨야로동자들이 신음하고있는 현 경제, 정치 정세에 대하여 로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려는 각성한 로동자들의 매차의 시도와 그리고 압박에서 해방되려는 매차의 시도가 로동자들을 경제적투쟁의 색채가 점점 더 사라져가는 그런 종류의 시위운동에로 추진시키였다. 로씨야에서의 5.1절은 정치적투쟁과 정치적시위운동의 길을 개척하였다. 그리하여 로씨야로동자들은 자기의 유일한 낡은 투쟁수단인 파업에 새로운 유력한 수단 즉 1900년 하리꼬브에서의 팽장한 5.1절행사시에 처음으로 시험된 정치적시위운동을 첨가하였다.

이와 같이 로씨야로동운동은 소조에서의 선전과 동맹파업에 의한 경제적투쟁으로부터 자기의 내부적발전에 의하여 **정치적투쟁** 및 **정치적선동**의 길로 넘어갔다.

이 이행은 로동계급이 투쟁무대에서 정치적자유를 쟁취하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나가는 로씨야의 다른 사회계급의 요소를 발견하였을 때에 그 속도가 현저히 커졌던것이다.

2

짜리제도의 기반하에서 신음하는것은 로동계급만이 아니

다. 전제제도의 무거운 발밑에서는 다른 사회적계급들도 질식되고있다. 힘에 겨운 파중한 세납으로 인하여 빈궁화하였으며 상인, 자산자와 《고귀한》 지주에게 회생으로 바쳐졌으며 상시적인 기아로 인하여 퉁퉁 부은 로씨야농민이 신음하고있다. 도시빈민, 국가기관과 사인기관의 소사무원, 하급관리—일반적으로 로동계급과 마찬가지로 생활조건의 보장을 받지 못하여 자기의 사회적처지에 불만을 품을수 있는 근거를 가진 수다한 소시민이 신음하고있다. 짜리의 채찍질을 용인할수 없는 소자산계급의 일부와 지어는 중자산계급의 일부까지도 또 특히 자산계급의 유식한 부분 이른바 자유직업의 대표자들(교원, 의사, 변호사, 대학생, 일반학생)이 신음하고있다. 로씨야에 있는 피압박민족 및 교회의 이단들, 그중에는 자기의 조국에서 구축당하고 자기의 신성한 감정에 대하여 모멸을 받고있으며 력사가 준 권리와 자유를 전제제도에 의하여 횡포하게 유린당한 뽈스까인과 핀란드인들도 신음하고있다. 다른 로씨야신민이 향유하는 보잘것없는 권리—어디서든지 거주할수 있는 권리, 배움의 권리, 취업의 권리 등까지도 박탈당한, 항상 박해를 받고 모멸을 받는 유태인들이 신음하고있다. 자기 민족의 학교를 가질 권리와 국가기관에서 일할 권리를 상실하고 전제제도가 발광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수치스럽고도 압박심한 로씨야화정책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루지야인, 아르메니야인, 기타 민족들이 신음하고있다. 희랍정교목사들이 원하는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량심이 암시하는대로 신앙하며 참회하려는 수백만 로씨야교파신자들이 신음하고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있다. 그러나 로씨야전제제도에 의하여 압박받는자, 유린당하는자를 일일이 렬거할수는 없다. 만일 그들전부가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공동한 원쑤가 누구인가를 깨닫는다면 로씨야의 전제정권은 하루동안도 존속될수 없

으리만큼 그들은 많다. 유감스럽게도 로씨야농민은 아직도 세기적노예생활과 빈궁과 암흑에 눌려있어 그들은 겨우 지금에 와서야 잠을 깨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은 자기의 원쑤가 누구인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있다. 로씨야의 피압박민족들은 그들에게 로씨야정부만이 대립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공동의 원쑤가 전제제도라는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있는 로씨야인민까지 대립하고있는 한 자기 혼자의 힘으로써 자기를 해방하려고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남는것은 로동계급, 소시민, 자산계급의 유식한 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자산계급은 남의 승리로써 달성된 성과를 점유할줄을 잘 알며 남의 불에 게잡기를 잘하는것이다. 그들은 비교적 특권적인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강력한 적과의 투쟁 즉 아직 승리하기에 그리 쉽지 않은 투쟁에서 모험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만을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리 못살지도 않는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로동계급이나 일반평민에게 그들이 까자크의 채찍에 잔등을 얻어맞으며 병사의 총탄에 쓰러지는 권리, 바리케트에서 싸우는 권리 등등을 즐겨 양보한다. 자산계급자체는 투쟁을 《동정하며》 기껏해야 잔포한 원쑤들이 인민운동을 탄압하는 그 잔혹성에 대하여 《분개》(내심으로만)할뿐이다. 그들은 혁명적행동을 두려워하며 다만 적의 무능력을 명백히 보게 되는 투쟁의 마지막시각에 이르러서야 혁명적수단에로 넘어가는것이다. 이것을 력사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것이다.… 다만 투쟁에서 자기를 얽어놓은 철쇄밖에는 아무것도 잃어버릴것이 없는 로동계급과 일반평민만이, 다만 그들만이 진정한 혁명적력량인것이다. 로씨야의 경험도, 비록 그것이 아직 빈약하기는 하지만 모든 혁명운동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있는 이 세인이 다 아는 진리를 확증하고있다.

특권적계층중에서는 다만 대학생의 일부분만이 자기의 요구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싸우려는 결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것은 대학생의 일부분도 피압박공민의 아들들로 구성되였으며 학생청년으로서의 대학생대중은 인생의 바다에 잠기여 거기에서 일정한 사회적지위를 차지할 때까지는 누구보다도 자유를 위한 투쟁에로 자기들을 부르고있는 리상적동경에 잘 쏠린다는것이다.

어쨌든 현재에 있어서는 대학생은 《사회인사》의 운동에 있어서 거의 솔선자로서, 선진부대로서 나서고있다. 오늘 그들의 주위에는 각종 사회계급의 불평분자들이 집결되고있다. 처음에 대학생들은 로동자들에게서 모방한 수단인 동맹휴학으로써 투쟁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동맹휴학에 대하여 정부가 야만적인 법령(《잠정법령》6)으로써 대답하여 동맹휴학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징병하게 되자 그들에게는 다만 한가지 투쟁수단 즉 로씨야사회의 원조를 요구하며 동맹휴학으로부터 **가두시위운동**에로 넘어가는 수단밖에 남지 않았다. 대학생들은 이렇게 활약했던것이다. 그들은 무장을 내버린것이 아니라 도리여 더 용감하게 더 단호히 투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주위에는 피압박공민이 집결되고 로동계급이 그들에게 원조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의 운동은 당국을 위협하는 강력한것으로 되였다. 이리하여 로씨야정부는 굴하지 않는 민중을 반대하여 벌써 두해동안이나 수많은 군대, 경찰, 헌병을 리용하여 혹독한, 그러나 성과없는 싸움을 하고있다.

최근의 사건들은, 정치적시위운동은 실패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12월초순 하리꼬브, 모스크바, 니쥬니 노브고로드, 리가 등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현재 민중의 불만이 벌써 의식적으로 로출되며 불만을 가진 이 민중들이 말없는 반항으로부터 혁명적행동에로 넘어가기에 준비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이 내세운 요구 즉 학문의 자유, 대학내부생활의 자유에 대한 요구는 광범한 사회운동에 있어서는 너무나 협소한것이다. 이 운동의 참가자전부를 단합하기 위하여는 누구에게나 명백하고 친절하며 그리고 모든 요구를 체현하는 그러한 기치가 필요한것이다. 이러한 기치는 곧 전제제도의 전복이다. 오직 전제제도를 전복하여야만 인민이 국가관리에 참가하며 학문, 파업, 언론, 신앙, 민족 등등의 자유를 보장하여주는 사회제도를 수립할수 있는것이다. 오직 이러한 제도만이 인민에게 모든 압박자, 장사군, 자본가, 승려, 귀족의 박해로부터 자기를 방어할수 있는 수단을 주며 오직 이러한 제도만이 훌륭한 미래에로, 사회주의제도수립을 위한 자유로운 투쟁에로 나아갈 자유로운 길을 열어주는것이다.

물론 대학생들은 자기의 힘으로써는 이렇듯 광장한 투쟁을 수행할수 없으며 그들의 연약한 손은 이렇듯 무거운 기치를 들고나갈수 없는것이다. 이 기치를 들고나가려면 보다 더 힘있는 손이 요구되는데 지금의 조건에서는 이러한 힘은 오로지 로동자대중의 단결된 력량뿐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은 반드시 대학생들의 연약한 손으로부터 전 로씨야의 기치를 자기의 손에 넘겨쥐고 거기에 《전제제도를 타도하자! 민주주의헌법 만세!》라고 써가지고 로씨야인민을 자유에로 인도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 대학생들에게 사의를 표하여야 할것이다. 그들은 혁명투쟁에 있어서 정치적시위운동이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가를 보여주었다.

가두시위운동은 그것이 광범한 대중을 신속히 운동에 인입하여 우리의 요구를 재빨리 그들에게 알려주며 우리가 사회주의사상의 씨앗 및 정치적자유의 씨앗을 주저없이 심을수 있는 광대하고도 비옥한 지반을 지어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것이다. 가두시위운동은 가두선동을 조성하여 락후하고 과

단성없는 일부 사회층도 이 선동에 끌려들어오지 않을수 없게 하는것이다.① 누구나 시위운동때에 거리에 나서기만 하면 용감한 투사를 볼수 있으며 그들이 무엇때문에 싸우고있는가를 알수 있으며 또 모든 사람을 투쟁에로 부르는 자유로운 연설을 들을수 있으며 현존사회제도를 폭로하고 우리의 사회적상처를 드러내는 투쟁의 노래를 들을수 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정권당국은 무엇보다도 가두시위운동을 두려워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당국은 시위운동참가자들뿐만아니라 그것에 《호기심을 가진자들》까지도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것이다. 인민의 이 호기심은 당국에 대한 중대한 위험성을 품고있다. 그것은 오늘 《호기심을 가진자들》이 래일이면 시위운동참가자로 되여 자기의 주위에 《호기심을 가진자들》의 새 무리를 집결하게 되는 까닭이다. 그런데 이러한 《호기심을 가진자들》은 오늘 대도시들마다 수만명씩이나 된다. 오늘 로씨야의 주민들은 어디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전처럼 숨어버리는것이 아니라(그들이 이전에는 《팬히 야단나겠네, 나까지 끌려들기전에 아예 피해버리자.》라고 말하였다.) 소동이 일어난 곳을 찾아다니며 무엇때문에 이 소동이 일어났는가,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까자크의 채찍에 잔등을 들이대는가 하고 《호기심을 품고 묻는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호기심을 가진자들》이 그 채찍과 군도 소리를 그저 무관심하게 듣고만 있지 않게 되는것이다. 《호기심을 가진자들》은 시위운동참가자들이 자기네들의 지망과 요구를 말하려고 거리에 모였는데 당국은 그들에게 구타와

---

① 비합법적서적이나 선동삐라는 로씨야의 현제조건에서 매개 주민속에까지 전달되기에는 매우 힘들다. 비록 비합법적문헌을 배포한 성과는 크기는 하지만 다수의 경우에는 주민의 소부분에밖에 전달되지 못한다.

야수적탄압으로써 대답한다는것을 보게 된다. 《호기심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채찍바람에 달아나버리고마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까이 다가서게 되므로 채찍은 어디까지가 단순한 《호기심을 가진자들》이며 어디까지가 《폭도》인가 하는것을 가릴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채찍은 《완전한 민주주의적평등》의 원칙에 좇아 성별, 년령 지어 신분까지를 불문하고 그 두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잔등에 다같이 떨어진다. 이리하여 채찍은 《호기심을 가진자들》의 혁명화를 촉진함으로써 우리에게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다. 채찍은 사람들을 놀래우는 무기로부터 사람들을 환기시키는 무기로 바뀌여진다.

따라서 가두시위운동이 아직 우리에게 직접적인 결과는 주지 못하며 또 시위운동자들의 힘이 당국을 강요하여 시급히 인민의 요구에 양보하도록 하기에는 아직 매우 약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두시위운동에서 낸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백배의 보수를 얻게 될것이다. 투쟁에서 전사하였거나 또는 우리의 진영에서 놈들이 빼앗아간 매개 투사는 수백명의 새로운 투사를 궐기시킬것이다. 아직도 우리는 가두에서 거듭 타격을 당하고 정부는 가두의 전투에서 거듭 승리자로 나타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피루스식승리》[7]일것이다. 이러한 승리를 몇번만 더하면 전제제도의 멸망은 불가피하게 될것이다. 전제제도는 오늘의 승리로써 자기의 멸망을 준비하고있다. 따라서 이날이 올것과 이날이 멀지 않다는 확신을 가진 우리는 정치적선동과 사회주의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채찍밑으로 들어가는것이다.

당국측도 가두의 선동은 자기에게 있어서 사형선고이며 2~3년이 불과하여 자기앞에는 인민혁명의 유령이 나타나리라는것을 우리만 못지않게 잘 알고있다. 정부는 최근 예까쩨리노슬라브성 성장의 입을 통하여 《가두시위운동의 조그마한 시도라도 소탕해버리기 위해서는 극단적대책을 취하는것도 주저

하지 않겠다.»는것을 포고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이 성명은 탄환이나 포탄까지도 련상케 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탄환은 체적만 못지않게 불만을 일으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극단적대책》을 쓴다고 하여 오래동안 정치적선동을 압제할수 있으며 그리함으로써 선동의 발전을 저애할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혁명적사회민주당이 자기의 선동을 정부가 이 《극단적대책》의 실시로써 지어놓은 새 조건에 적응시킬것을 기대하는바이다. 어쨌든 사회민주당은 반드시 모든 사건을 경각성있게 살펴야 하며 이 사건들의 교훈을 신속히 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활동을 변화하여가는 조건들에 능란하게 적응시킬줄 알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사회민주당에는 긴밀하게 단합된 조직, 즉 그 명칭에 의해서뿐만아니라 자기의 기본적원칙과 전술상 견해에 의하여도 단합된 **당조직**이 필요한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튼튼한 원칙과 파괴할수 없는 비밀로 무장된 유력한 당의 창건에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사회민주당은 반드시 개시된 새로운 가두운동을 리용하며 반드시 자기의 수중에 로씨야민주주의의 기치를 잡고 그 민주주의를 만인이 원하는 승리에로 인도하여야 할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앞에는 **주로 정치적인 투쟁**의 시기가 열려져있다. 이러한 투쟁은 현 정치적조건하에서는 경제적투쟁(파업)이 하등의 중요한것을 줄수 없기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피적인 투쟁인것이다. 파업은 자유국가들에서도 리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한 무기이다. 로동자들이 정치적자유, 로동자동맹의 튼튼한 조직, 풍족한 기금회 등의 투쟁수단을 가지고있는 자유국가에서조차 파업은 종종 로동자들의 실패로 끝난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파업이 법죄로 취급되여 그 참가자는 검거 및 무력적탄압을 당하며 일체 로동자동맹은 금지를

당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파업이 다만 반항의 의의만을 가지고있다. 그런데 반항에 있어서는 시위운동이 더욱 유력한 무기인것이다. 동맹파업에서는 로동자들의 력량이 분산적이며 그에는 1개 공장 또는 수개 공장의 로동자들, 기껏해야 한 직종의 로동자들이 겨우 참가하는것이며 총파업의 조직은 서구라파에 있어서도 아주 어려운 일이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불가능한것이지만 가두시위운동에서는 로동자들이 즉시로 자기들의 력량을 단합할수 있는것이다.

여기로부터 정치투쟁은 《지식인》, 대학생, 사회인사에 양도하고 로동자에게는 단지 보조력의 역할만을 제공하면서 로동운동을 경제적투쟁과 경제적조직의 범위안에 국한하여버리려는 그러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얼마나 문제를 협소하게 보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력사는, 이러한 조건하에서 로동자는 다만 자산계급을 위하여서만 밥을 굽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자산계급은 보통 전제제도와의 투쟁에서 로동자들의 무쇠팔뚝을 쾌히 리용하며 승리가 이미 쟁취되였을 때에는 그 성과를 자기가 소유하고 로동자는 적수공권으로 남겨두는것이다. 만일 우리 이곳에서도 사태가 이렇게 된다면 로동자는 이 투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것이다. 대학생들과 사회인사들의 다른 반항자들도 역시 자산계급에 속한다. 그들에게 인민에게는 보잘것없는 권리를 부여할뿐 전반에는 아무런 해로움도 없는 《너절한 헌법》을 주기만 해도 그 반항자들은 곡조를 바꾸어 《새》 제도를 찬양할것이다. 자산계급은 언제나 공산주의라는 《붉은 유령》을 무서워하면서 모든 혁명에서 그것을 첫시작에 없애버리려고 애쓴다. 로동자들앞에서 질겁한 자산계급은 자기에게 유리한 약간의 양보라도 받으면 이내 정권당국에 타협의 손길을 내밀고 몰렴치하게도 자유에 대한

위업을 팔아먹는다.①

오직 로동계급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믿음직한 기둥이다. 다만 그들만이 어떠한 양보가 있어도 전제제도와 타협하지 않을것이며 헌법의 비파소리와 달콤한 노래소리에 취해버리지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로씨야의 민주주의사업에서는 로동계급이 전체 민주주의운동의 선두에 서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식인》, 즉 자산계급의 보조력으로서 운동의 꼬리를 따라가느냐 하는것이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경우에 있어서는 전제제도를 전복한 결과로 로동자에게나 학대받는 농민에게나 자본가에게나 다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주는 광범한 **민주주의적헌법**이 있게 될것이며 둘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결과로 가지게 될것은 전제제도만 못지않게 로동자들의 요구를 유린하며 또 **인민**에게는 다만 자유의 유령만을 부여하는 《너절한 헌법》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적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로동계급은 반드시 **자립적당**을 조직하여야 할것이다. 그때에는 전제제도와의 투쟁에서 그의 일시적동맹자인 《사회인사》들의 어떠한 변절과 반역도 두렵지 않을것이다. 그 《사회인사》들이 민주주의적사업을 배반하는 경우에는 로동계급이 자기자신의 힘으로써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시킬것이며 자립적당이 로동계급에게 그에 필요한 힘을 줄것이다.

1901년 11~12월에
《투쟁》지 제2~3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권, 9~25페지

무서명론문

원문은 그루지야어

---

① 여기에서 우리가 념두에 두고있는것은 물론 이미 자기의 계급을 버리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대오에서 투쟁하고있는 지식인은 아니다. 그러한 지식인은 다만 례외이며 《흰 까마귀》라 할것이다.

무산자계급과 무산자당

(당규약 제1조에 대하여)

《통일된 불가분의 로씨야》라고 용감하게 선포하던 그 시기는 지나갔다. 지금은 《통일된 불가분의》 로씨야가 존재하지 않으며 로씨야는 오래전에 벌써 자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대립된 두 계급으로 분렬되였다는것은 삼척동자까지도 알고있다. 이 두 계급간의 투쟁이 우리의 현대생활의 축심으로 되였다는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것이 지금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있었다. 그것은 이때까지는 개별적 도시나 지방에서 개별적집단들이 투쟁하여왔으므로 우리가 투쟁무대에서 본것은 다만 개별적집단들뿐이였으며 계급으로서의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을 보아낼수 없었으며 또 보아내기도 어려웠기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도시와 구역들이 련합하고 각이한 무산계급의 집단들이 서로 손을 잡았으며 총파업과 시위운동이 폭발되여 우리의 앞에는 두 로씨야— 자산계급적로씨야와 무산계급적로씨야가 투쟁하는 굉장한 광경이 벌어졌다. 투쟁의 무대에는 무산자대군과 자산자대군의 두 대군이 진출하였으며 이 두 대군간의 투쟁은 우리의 전체 사회생활에 파급되였다.

대군은 지휘자 없이는 동작할수 없기때문에 또 각 대군은 자기 선두에 서서 나가며 그에게 길을 밝혀주는 선진부대를

가져야 하기때문에 이 대군들과 함께 행동하는 지도자집단, 보통 말하는바와 같이 해당한 당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리하여 사태는 다음과 같이 되였다. 즉 한편에는 자유주의당을 선두로 하는 자산자대군, 다른편에는 사회민주주의당을 선두로 하는 무산자대군 그리고 각 대군은 자기 당의 지도밑에서 계급투쟁을 진행하였다.①

우리가 이 모든것에 언급하는것은 무산자당을 무산자계급과 비교하며 그리함으로써 간단하게 당의 일반적면모를 해명하기 위해서이다.

이상에 말한바에 의하면 무산자당은 지도자들의 투쟁적집단으로서 첫째로는 그 당원수에 있어서 무산자계급보다 훨씬 적어야 하며 둘째로는 그 각성정도와 경험에 있어서 무산자계급보다 높아야 하며 셋째로는 튼튼한 조직이여야 한다는것이 충분히 해명되였다.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이상 말한바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왜냐 하면 인민대중의 빈궁과 락후를 불가피적으로 동반하는 자본주의제도가 존재하고있는 한에 있어서는 전반 무산계급이 요구되는 각성정도에까지 제고될수 없는 까닭에 무산자대군을 사회주의적으로 교육하여 그들을 단합시키며 투쟁시에 그들을 지도하는 각성한 지도자의 집단이 필요하다는것은 자명한것이기때문이다. 또 투쟁하는 무산계급을 지도하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한 당은 개개인의 우연한 집합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을 통일적계획에 의하여 향도할수 있는 튼튼한 중앙

---

① 우리는 우리가 론하는 문제를 밝힘에 있어서 다른 당들에 대하여는 말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로씨야에 있는 다른 당에 대해서는 결혀 언급하지 않는다.

집권적조직이여야 할것이라는것도 명료한 일이다.

우리 당의 일반적면모는 간단히 말해서 이러하다.

이 모든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요한 문제 즉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당원이라 칭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로 넘어가자. 본 론문에서 취급되는 당규약 제1조는 바로 이 문제에 관한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검토하여보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당원이라고 칭할수 있는가? 즉 당원의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의 당은 사회민주주의당이다. 이것은 당이 자기의 고유한 강령(운동의 당면목적과 최종목적)을 가져야 하며 자기의 고유한 전술(투쟁방식)을 가져야 하며 자기의 고유한 조직적원칙(단결형식)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강령상, 전술상, 조직상 견해의 통일은 우리 당이 건립되는 지반이다. 이러한 제 견해의 통일만이 당원들을 중앙집권적유일당에 결속시킬수 있는것이다. 제 견해의 통일이 파탄되면 당도 역시 파탄된다. 때문에 당강령과 당의 전술과 조직적원칙을 완전히 승인하는자만을 당원이라고 칭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강령상, 전술상, 조직상 견해를 충분히 리해하고 완전히 승인하는자만이 우리 당대렬에 들어올수 있으며 또 그와 동시에 무산자대군의 지도자대렬에 들어올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당원으로서 다만 강령상, 전술상, 조직상의 견해만 승인하면 충분한가? 이러한 사람을 무산자대군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칭할수 있는가? 물론 없다! 첫째로, 세상에는 당의 강령상, 전술상, 조직상 견해는 쾌히 《승인》하지만 말공부이외에는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하는 말공부쟁이들이 적지 않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이러한 말공부쟁이를 당원이라고 (즉 무산자대군의 지도자라고) 칭한다는것은 당의 신성한 이

롬에 대한 모독일것이다! 게다가 우리 당은 철학학파나 종교적인 종파가 아니다. 과연 우리 당은 투쟁의 당이 아닌가? 투쟁의 당이 옳다면 우리 당은 그 강령상, 전술상 및 조직상 견해에 대한 추상적인 승인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당원들에게 그가 승인한 견해를 실현할것을 요구한다는것이 과연 자명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 당의 당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당의 강령상, 전술상, 조직상 견해를 승인하는것으로 만족할것이 아니라 이 견해를 실천에 옮기며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면 당의 견해를 실현한다는것은 당원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원은 어떤 경우에 이 견해를 실현할수 있는가? 그가 투쟁하는 경우, 그가 전당과 함께 무산자대군의 출선자로 걸어나가는 경우에라야만 할수 있는것이다. 단독적으로, 분산적으로 투쟁할수 있는가? 물론 없다! 그와 반대로 사람들은 먼저 단결되고 조직된 그다음에야 전투에 뛰여들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투쟁은 성과를 거둘수 없다. 당원들은 그들이 튼튼한 조직에 단결되는 때에라야만 투쟁할수 있으며 따라서 당의 견해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당원들이 더욱더 튼튼히 단합된 조직에 결속되면 될수록 그들은 더욱 잘 투쟁할수 있으며 따라서 당의 강령상, 전술상, 조직상 견해를 더욱 원만하게 실현할수 있다는것도 역시 명백하다. 우리 당이 개개인들의 우연한 집합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조직이라고 말하는것은 옳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 당이 지도자들의 조직인 한, 이 조직에서 일하며 자기의 욕망을 당의 욕망과 합치시키고 당과 함께 행동하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는 그런자들만을 이 당의 당원 즉 이 조직의 성원이라고 칭할수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당원으로 되자면 당의 강령상, 전술상, 조직상의 견해를 실현하여야 하며 당의 견해를 실현하자면 이 견해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이 견해를 위하여 투쟁하자면 당조직내에서, 당과 함께 일하여야 한다. 당원으로 되자면 반드시 당의 어느 한 조직에 가입하여야 한다는것은 명백하다.① 우리는 당의 어느 한 조직에 가입하고 또 그리하여 우리의 개인적리익을 당적리익과 합치시키는 때에라야만 당원이 될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무산자대군의 진정한 지도자가 될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개개인의 말공부쟁이들의 집합이 아니고 중앙위원회의 매개에 의하여 무산자대군을 훌륭히 앞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조직인 한 상술한 모든것은 자명한것이다.

이에 더 지적해야 할것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은 모든 동정자를 다 받아들이는, 인심좋은 가부장제적가족과 흡사하였었다. 그러나 중앙집권적조직으로 된후에는 우리 당은 가부장제적형태를 버리고 다만 상당한자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요새와 완전히 류사하여졌다.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의가 있는것이다. 전제제도가 로동조합주의, 민족주의, 교권주의[8] 등으로써 무산계급의 계급적자각을 타락시키려고 노력할 때 또 타방으로 자유주의적 지식인이 무산계급의 정치적자립성을 말살하며 그들을 통제하려고 노력하고있는 때 이러한 때야말로 우리는 최대의 경각성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당이 오직 시련을 겪은자에게만 문을

---

① 모든 복잡한 유기체가 무수한, 극히 단순한 유기체들로 구성되여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당도 복잡한 조직인만큼 당대회 또는 당중앙위원회에 의하여 당의 조직으로 확정된 많은 구역 및 지방조직들로써 구성되여있다. 보는바와 같이 위원회만을 당조직이라고 칭하는것이 아니다. 만일한 계획으로써 이 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기 위해서 중앙위원회가 존재하며 지방당조직들은 중앙위원회의 매개에 의하여 한개의 커다란 중앙집권적인 조직으로 구성된다.

열어주는 요새라는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우리는 당원으로서의 두개 조건(당강령을 승인하며 당조직내에서 일해야 한다는것)을 해명하였다. 이제 여기에 당원에게 당을 물질적으로 원조할 의무가 있다는 한개 조건을 첨부하면 당원의 명칭을 가질수 있는 권리를 얻을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강령을 승인하며 당을 물질적으로 원조하며 어느 한 당조직에 참가하는자는 이 당의 당원이 될수 있는것이다.

레닌동지①가 제출한 당규약 제1조의 정의는 이러하다.

이 정의는 보는바와 같이 전적으로, 우리 당은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중앙집권적조직이라는 견해로부터 출발하였다.

여기에 이 정의의 위대한 가치가 있는것이다.

그러나 레닌의 정의를 《협소》하고 《타당하지 못한》것이라고 해서 제쳐놓고 《협소》하지도 않고 《미타》하지도 않은것이라고 생각되는 자기들의 정의를 내놓는 동지들이 출현하였다. 우리는 마르또브②의 정의를 두고 말하는것이다. 이제 그것을 해부하여보자.

마르또브의 정의에 의하면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강령을 승인하며 당을 물질적으로 지지하며 그 어느 한 당조직의 지도하에서 상시적으로 당에 협조를 주는자는 누구나 다 이 당의 당원으로 인정된다》. 보는바와 같이 이 정의에는 당원에게 당의 어느 한 조직에 참가할 의무를 지우는, 즉 당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번째 조건이 삭제되여있다. 마르또브는 이 확정적이고 필요한 조건을 무용한것으로 간주하고 그대신 자기의

---

① 레닌은 혁명적사회민주당의 걸출한 리론가이며 실천가이다.
② 마르또브는 신문 《이스크라》지[9]의 편집자의 한사람이다.

정의에다 《어느 한 당조직의 지도하에서…당에 협조를 준다.》라는 막연한 구절을 기입하였다. 그런즉 어느 한 당조직에 속하지 않고도(이것이 무슨 《당》인가!) 당의 의사에 복종해야 할 자기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이것이 무슨 《당의 규률》인가!) 당원이 될수 있다는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당이 어느 한 당조직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자기가 무조건적으로 당규률에 복종해야 한다는것을 인정하지 않는자들을 《상시적》으로 지도할수 있단 말인가?

마르또브가 제출한 당규약 제1조의 정의는 바로 이 점에서 분쇄되고말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레닌의 정의에서 훌륭한 해결을 보았는바 그것은 레닌의 정의가 당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번째 조건으로서 어느 한 당조직에 참가하는것을 결정적으로 인정하였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마르또브의 정의에서 《어느 한 당조직의 지도하에서…당에 협조를 준다.》라는 막연하고 무의미한 구절을 제거해버릴수밖에 없다. 마르또브의 정의에는 이 조건을 제거해버리면 두가지 조건(당강령의 승인과 물질적원조)이 남는데 어떠한 말꽁부쟁이든지 당강령을 《승인》할수는 있으며 당을 물질적으로 원조할수는 있으나 이것은 그에게 당원이 될수 있는 권리를 전혀 주지 못하는만큼 이 조건들은 그자체로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것이다.

《타당한》 정의란 이러한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당원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다만 당강령의 승인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승인한 강령을 꾸준히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마르또브는 대답하기를 당원은 당을 물질적으로 원조하는 등의 조건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가 승인한 강령실현은 그다지 필요한 조건이 아닌데 당신들은 너무나 엄격하다고 한다. 마르또브는 말꽁부쟁이《사회민주주

의자들》을 동정해서인지 그들에게 당의 문을 닫기 싫어하는것이다.

우리는 또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쟁하여야 하며 투쟁하기 위해서는 단결하여야 하기때문에 당원이 되려는 사람은 반드시 당의 어느 한 조직에 가입하여 자기의 욕망을 당의 욕망과 합치시키며 당과 함께 전투적무산자대군을 지도해야 한다고, 다시말하면 중앙집권적당의 정연한 부대들에 집결되여야 한다고 말한다. 마르또브는 대답하기를 당원이 정연한 부대에 집결되거나 조직에 결속되는것은 그다지 필요한 조건이 아니며 개개인이 혼자서 투쟁할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당은 결국 무엇인가고 우리는 묻는다. 개개인들의 우연한 집합인가, 그렇지 않으면 튼튼히 결속된 지도자들의 조직인가? 만일 그것이 지도자들의 조직이라면 그것에 가입치 않고 따라서 그 규률에 복종하는것을 자기의 필요한 의무로 승인하지 않는자를 그 조직의 성원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마르또브는 대답하기를 당은 조직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은 비조직적인 조직이다라고 한다!(보라, 이것이 무슨 《중앙집권주의》인가!)

보는바와 같이 마르또브의 의견에 의하면 우리 당은 중앙집권적조직인것이 아니라 우리 당 강령 및 기타를 승인하는 지방조직들과 《사회민주주의적》개개인의 집합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 당이 중앙집권적조직이 아니라면 그는 시련을 거친자에게만 문을 열어주는 요새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기실 마르또브에게 있어서는 그의 정의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당은 요새인것이 아니라 온갖 동정자가 자유로 출입할수 있는 연회인것이다. 약간의 지식과 상당한 동정과 약간의 물질적원조가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누구나 당원으로 인정될 완전한 권리가 있다. 마르또브는 공포에 싸인 《당원들》에게 용기를 북

돌아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듣지 마시오, 당원은 어느 한 당조직에 가입하고 그리하여 자기의 욕망을 당의 욕망에 복종시키라고 부르짖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마시오! 첫째로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당의 욕망에 복종시키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니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기 어려울것이요! 그리고 둘째로 나는 이미 이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과오라는것을 나의 해석에서 지적하였소. 여러분 어서들…연회에 들어와주시오!

마르또브는 자기의 욕망을 당의 욕망에 복종시키기를 주저하는 약간의 대학교수, 중학생들을 동정하는셈이며 그리하여 우리 당의 요새에 파멸구를 뚫고 이것을 통과하여 이 경애하는 신사들이 우리 당으로 몰래 기여들게 하려는것이다. 그는 기회주의에 문을 열어주고있다. 그것도 무산계급의 계급적 자각을 수천의 원쑤가 압제하고있는 시기에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마르또브의 애매한 정의때문에 우리 당내에 기회주의의 가능성이 다른 면으로부터도 발생된다는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아는바와 같이 마르또브의 정의는 다만 강령의 승인만을 언급하였으며 당의 통일을 위해서는 전술상 및 조직상의 통일이 강령에 대한 그들 견해의 통일과 같은 정도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술과 조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레닌동지의 정의에도 언급되고있지 않다고들 말하는 사람이 있을것이다. 그렇다! 그러나 실로 레닌동지의 정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것이다! 어느 한 당조직에서 일하며 따라서 당과 함께 투쟁하며 당규률에 복종하는자는 당의 전술과 당의 조직적원칙외에 어떤 다른 전술이나 다른 조직적원칙에 추종할수 없다는것은 자

명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당의 강령은 승인하면서도 어느 한 당조직에도 가입하지 않고있는 《당원》에 대하여 당신들은 무엇을 말할수 있는가? 이 《당원》의 전술이나 조직적견해가 다른것이 아니고 당적일것이라는 담보가 무엇인가? 마르또브의 정의가 우리에게 해명하지 못하는것은 바로 이 점이다! 마르또브의 정의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남을것은 《당원》들이 동일한 강령(이것도 아직 의문이다!)은 가지고있으나 상이한 전술상, 조직상 견해를 가지고있는 기이한 《당》일것이다! 아주 기묘하기 짝이 없는 다양성이다! 이러구서야 우리 당이 연회와 다른 점이 무엇이겠는가?

단 한가지만 더 물어보자. 제2차당대회[10]가 우리에게 남겨준, 그리고 마르또브의 정의와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그 사상적 및 실천적 중앙집권제는 어디로 내던져야 할것인가? 만일 꼭 량자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의심할것도 없이 마르또브의 정의를 내던져야 옳을것이다.

마르또브가 레닌동지의 정의에 대립시켜 내놓은 정의가 얼마나 황당한가 보라!

우리는 마르또브의 정의를 채택한 제2차당대회의 결의를 단견의 결과라고 인정하면서 제3차당대회는 반드시 제2차대회의 과오를 시정하고 레닌동지의 정의를 승인하리라는 기대를 표시하는바이다.

상술한것을 간략하게 반복해보자. 투쟁무대에는 무산자대군이 진출하였다. 만일에 어느 군대나 자기의 전위대를 요구한다면 무산자대군도 당연히 그러한 부대가 요구될것이다. 이리하여 무산계급지도자집단인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이 출현된것이다. 이 당은 일정한 군대의 전위대로서 첫째로, 자기의 강령, 전술 및 조직적원칙으로 반드시 무장되여있어야 하며 둘째로, 반드시 한결같이 결속된 조직이여야 한다. 만일 우리

가 누구를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당원이라 칭하여야 할것인가 하고 묻는다면 이 당은 다음과 같은 단 하나의 대답을 줄 수 있다. 즉 당강령을 승인하며 당을 물질적으로 원조하며 어느 한 당초직에서 일하는자를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당원이라고 칭한다.

바로 이 명확한 진리를 레닌동지는 자기의 유명한 정의에 표현하였다.

1905년 1월 1일부
《무산계급의 투쟁》
지 제8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권, 55~64페지

무서명론문

원문은 그루치야어

당내의견상이에 대하여 간단히 론함[11]

《사회민주당은 로동운동과
사회주의와의 결합이다.》
—칼 카우쯔키

우리의 《멘쉐위크들》은 너무나 시끄럽게 군다! 나는 찌플리스의 《멘쉐위크들》을 두고 말한다. 그들은 당내에 의견상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늘 이렇게 되풀이하였다.—당신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간에 우리는 언제나 또 어디서나 의견상이에 대하여 말할것이며 당신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간에 우리는 어쨌든 《볼쉐위크들》을 욕할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신병자처럼 되는대로 욕하고있다. 모든 네거리에서 자기들속에서나 남들속에서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수파》를 조심하라, 그들은 남이며 믿지 못할자들이다라고 되풀이하며 지껄여댄다. 그들은 《일상적》활동무대에만 국한하지 않고 《문제》를 합법적출판물로 옮겨감으로써…시끄럽게 구는 자기 본성을 또한번 세상에 보여주었다.

《다수파》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왜 우리의 《소수파》가 이처럼 《노하고》있는가?

력사를 고찰해보자.

《다수파》와 《소수파》는 제2차당대회[10](1903년)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이 대회에서 우리는 분산된 력량을 통일적

인 강력한 당으로 련합하여야 하였다. 우리 당일군들은 이 대회에 큰 기대를 걸고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이날이 왔구나, 우리는 통일적당에의 련합을 보게 될것이다, 우리는 통일적계획에 의하여 행동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될것이다!…라고 환희에 넘쳐서 웨쳤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도 행동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분산적이였으며 비조직적이였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도 련합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그것을 위해서 제1차당대회[12](1898년)를 소집하였던것이며 지어 마치 《통일된》듯도 하였으나 이 통일은 다만 말뿐이였고 당은 여전히 개개의 집단으로 분산되여있었으며 력량도 분산되였기때문에 통일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제2차당대회야말로 분산된 력량을 련합하여 한덩어리에 결속해야 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통일적인 당을 조직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기대가 어느 정도까지 시기상조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대회는 우리에게 통일된 불가분적당을 주지 못하고 다만 이러한 당의 기초를 닦아주었을뿐이였다. 그 대신에 대회는 당내에 두 류파 즉 《이스크라》(구《이스크라》를 말함.)[9]파와 그 반대파가 있다는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리하여 대회는 《다수파》와 《소수파》의 두 부분으로 분렬되였던것이다. 전자는 《이스크라》파에 가맹하여 그 주위에 결속되였고 후자는 《이스크라》의 반대자로서 대렵되는 립장을 취하였다.

이리하여 《이스크라》는 당의 《다수파》의 기치로 되였으며 《이스크라》의 립장은 곧 《다수파》의 립장으로 되였다.

《이스크라》는 어떤 길을 걸었으며 무엇을 수호하였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크라》가 어떠한 환경에서 력사적활동무대에 출연하였는가를 알아야 할것이다.

《이스크라》는 1900년 12월에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이것

은 로씨야의 산업에 공황이 시작되였을 때이다. 직업별동맹파업(1896~1898)을 동반한 산업의 륭성은 점차 공황으로 바뀌여졌다. 공황은 나날이 첨예화하여 직업별동맹파업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동운동은 자기가 나갈 길을 개척하고 전진하였다. 즉 개개의 개천들이 하나의 대하에 합류되였고 운동은 계급적색채를 띠면서 점차 정치적투쟁의 길에 들어갔다. 로동운동은 놀라운 속도로 장성하였다.…다만 전위대 즉 이 운동에 사회주의적의식을 주입할수 있으며 이 운동을 사회주의와 결합시킴으로써 무산계급의 투쟁에 사회민주주의적성격을 부여할수 있는 사회민주당①이 보이지 않았을뿐이다.

당시의 《사회민주주의자들》(그들은 《경제주의자》라고 불리웠다.)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자연발생적운동을 극구찬양하면서 사회주의적의식은 로동운동에 있어서 그다지 필요치 않으며 운동은 그것이 없어도 자기의 목적을 훌륭하게 달성할것이므로 문제의 본질은 운동자체에 있는것이라고 시름없이 되풀이하였다. 운동이면 그만이고 의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회주의가 없는 로동운동—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목적하는것이였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는 자연발생적운동의 순종적도구가 되여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로동운동에 사회주의적의식을 주입하는것은 우리가 할일이 아니며 이 운동을 지도하는것도 우리가 할일이 아니다. 그것은 헛된 강제일것이다. 우리의 의무는 다만 운동에 귀를 기울이며 사회생활에서 진행되고있는 사변을 정확히 관찰하는것—자연발생적운동의 꼬리를 따라다니

---

① 사회민주당은 무산계급의 전위대이다. 이 부대에는 로동자이든 지식인이든 할것없이 사회민주주의자인 모든 투사가 가입한다.

는것뿐이였다.①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민주당은 운동에 있어서 쓸데없는 중하처럼 표현되였다.

사회민주주의를 승인하지 않는자는 반드시 사회민주당을 승인하지 않을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경제주의자들》은 로씨야에서는 무산계급정당의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강경히 주장해왔던것이다. 그들은 정치적투쟁은 누구보다도 자유주의자들에게 적당한것이니 그들이 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무엇을 할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개별적 소조의 형식으로 존재하며 각자가 자기의 구석에서 고립적으로 행동하여야 된다는것이다.

당이 아니라 소조이다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로동운동이 장성되고 그 운동이 지도적전위대를 요구하고있는데 그 반면에 《경제주의자들》을 대표로 한 《사회민주당》은 운동을 지도할 대신에 자신을 부인하고 운동의 꼬리를 따라가는것이였다.

---

① 우리의 《사회민주주의자》지13에는 《비판》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랐으나 (창간호에 실린 《다수파냐 소수파냐?》란 론문을 보라.) 나는 《사회민주주의자》지가 《경제주의자들》과 《로동자사업파》(그들의 차이는 적다.)를 옳지 않게 평가하고있다는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문제는 그들이 《정치적문제를 무시하였다》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운동의 꼬리를 따라다니면서 이 운동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대로 그것을 반복하는데 있는것이다. 다만 동맹파업만 일으킨 때도 있었다. 그때 그들은 경제적투쟁을 설교하였던것이다. 시위운동의 시기가 닥쳐와(1901년) 피가 흘렸고 실망의 기분이 떠돌았다. 그리하여 로동자는 혁명의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것이 자기를 폭정자들로부터 구원할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그때 《경제주의자-로동자사업파》도 이 합창에 참가하여 뭅시나 장한듯이 혁명적투쟁으로 넘어갈 때가 닥쳐왔다, 감옥을 습격하여 동지들을 해방할 때가 닥쳐왔다느니 뭐니 하고 성명하였다.(잡지 《로동자사업》[14]에 실린 론문 《력사적전환》을 보라.) 보는바와 같이 이것은 결코 그들이 《정치적문제를 무시하였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자는 자기의 《비판》을 마르띄노브에게서 인용하였는데 그보다 오히려 그가 력사를 알았더면 좀더 유익하였을것이다.

사회주의가 없는 자연발생적로동운동은 암흑속에서 방황하는것으로 혹 그 어느때에 목적을 달성하는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떠한 고통의 대가로써 달성할것인지 알수 없는것이므로 사회주의적의식은 로동운동에 있어서 막대한 의의가 있다는 사상을 높이 웨쳐야 할것이였다.

이 의식의 소유자인 사회민주당은 로동운동에 사회주의적 의식을 주입하여야 하며 항상 운동의 선두에 서있어야 하며 또 자연발생적운동을 방관시하지 말며 그 꼬리를 따라가지 말라는것을 또한 말해야 할것이였다.

그리고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직접적인 과업은 무산계급의 개개의 전위대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통일된 당으로 결속함으로써 당의 분산에다 영원히 종치부를 찍는것이라는 사상을 또한 말해야 할것이였다.

《이스크라》는 바로 이러한 과업강구에 착수한것이였다.

《이스크라》는 그 강령적론문(《이스크라》 창간호를 보라.)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사회민주당은 로동운동과 사회주의의 결합이다.》 즉 사회주의가 없는 로동운동이나 로동운동에서 떨어져있는 사회주의는 그릇된 현상인만큼 사회민주당은 그것과 반드시 싸워야 한다. 《경제주의자-로동자사업파》가 자연발생적운동앞에서 굴종하였기때문에, 그들이 사회주의의 의의를 무시하였기때문에 《이스크라》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민주당과 분리된 로동운동은 너절해지며 필연적으로 자산계급성을 띤것으로 되고만다.》 이에 따라 사회민주당의 과업은 《이 운동의 총국적목적과 그의 정치적임무를 지적하여주며 그의 정치적 및 사상적 독립성을 수호하는것

---

① 레닌의 론문 《우리 운동의 긴요한 임무》(《레닌선집》, 제1권, 273~279페지를 보라.)를 가리킨다. —편집자

이다》.

로씨야사회민주당에는 어떠한 과업이 부여되였는가? 《이스크라》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여기에서 자연히 로씨야사회민주당이 실현해야 할 과업이 나오게 된다. 즉 무산계급대중에게 사회주의사상과 정치의식을 주입하며 자연발생적로동운동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된 혁명적당을 조직해야 할것이다.》 다시말하면 그는 항상 운동의 선두에 서야 할것이며 그의 첫째 과업은 로동운동의 사회민주주의적력량을 통일된 당에 결속해야 하는것이다.

《이스크라》 편집부①는 이렇게 자기의 강령을 론증하고 있다.

《이스크라》는 이 훌륭한 강령을 실행하였는가?

《이스크라》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가장 중요한 사상을 실현하였는가 하는것은 일반이 다 아는바이다. 이것은 35명의 다수가결로써 《이스크라》를 당의 중앙기관지로 승인하게 된 제2차당대회가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환거리맑스주의자들이 구《이스크라》를 《질책하기》 시작하는것은 우스운 일이 아닌가?

《이스크라》에 대하여 멘쉐위크의 《사회민주주의자》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 〔《이스크라》〕②는 반드시 〈경제주의〉사상을 해부하고 허위적견해를 배격하고 옳은 견해를 가지게 함으로써 〈경제주의〉를 새로운 방향에로 인도하여야 할것이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경제주의〉와의 투쟁은 다른 극단을 즉

---

① 《이스크라》 편집부는 그때 쁠레하노브, 악셀로드, 자술리치, 마르토브, 스따로웨르 및 레닌 6명으로 구성되여있었다.

② 본 선집 인용문가운데의 꺾어괄호〔 〕안의 말과 문장부호는 쓰딸린이 첨가한것이다. —편집자

경제적투쟁의 과소평가, 그에 대한 경멸의 태도, 정치투쟁에 대한 지배적의의의 승인을 가져왔다. 경제학이 없는〔《경제가 없는》이라고 하여야 할것이다.〕 정치—이것이 새로운 방향이다.》(신문 《사회민주주의자》 창간호에 실린 《다수파냐 소수파냐?》라는 론문을 보라.)

그러나 존경하는 《평론가》여, 어디서 어느때에 어느 나라에서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났는가? 쁠레하노브, 악쎌로드, 자쑬리치, 마르또브, 스따로웨르 등은 무엇을 하였는가? 그들은 편집부에서 다수였는데 어째서 그들은 《이스크라》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는가? 가장 존경하는 《평론가》여, 당신자신은 이때까지 어디에 있었는가? 왜 당신은 제2차당대회를 경고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였다면 대회는 《이스크라》를 중앙기관지로 승인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평론가》에게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하자.

기실 《이스크라》는 《당면문제》를 옳게 지적하였으며 내가 우에서 말한 바로 그러한 길에 들어섰으며 헌신적으로 자기의 강령을 실천하여왔다.

《이스크라》의 립장은 베닌이 자기의 유명한 저서 《무엇을 할것인가?》에서 더욱 명료하고도 확신있게 표현하였다.

이 저서를 보기로 하자.

《경제주의자들》은 자연발생적로동운동을 숭배하였다. 그런데 자연발생적운동은 사회주의가 없는 로동운동이며 그것은 자본주의외에는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 《로동조합주의》① 라는것을 누구나 알고있다. 사회주의가 없는 로동운동, 이것은 자본주의의 범위내에서의 답보이며 사적소유의 주위에서

---

① 베닌의 《무엇을 할것인가?》, 28페지(《베닌선집》, 제1권, 334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의 방황으로서 혹시 사회혁명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언제 어떠한 고통의 대가로써 그것이 이루어질는지 누가 알겠는가? 로동자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땅》으로 들어가는것이 가까운 시일내에나, 장구한 시일을 경과하여서나 혹은 쉬운 방법으로서나, 어려운 방법으로서나 하는것이 과연 마찬가지란 말인가? 자연발생적운동을 찬양하고 이것을 숭배하는 자는 누구나 할것없이 자기의 의사는 여하튼 사회주의와 로동운동간에 심연을 파놓는것이며 사회주의적사상체계의 의의를 감소시키는것이며 그 사회주의적사상체계를 생활에서 몰아내고 자기의 의사는 여하튼 로동자들을 자산계급적사상체계에 복종시키는것임은 분명하다. 왜냐 하면 그러한자는 《사회민주당은 로동운동과 사회주의의 결합》①이라는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로동운동의 자연발생성에 대한 온갖 숭배와 〈의식적요소〉의 역할의 온갖 경시 즉 사회민주당의 역할에 대한 온갖 경시는 동시에—경시하는자가 이것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로동자에 대한 자산계급적사상체계의 영향을 강화하는것》②임을 알지 못하기때문이다.

좀더 자세히 해석해보자. 우리 시대에는 다만 자산계급적사상체계와 사회주의적사상체계의 두가지만 있을수 있다. 그런데 량자간의 차이는 특히 전자가, 즉 자산계급적사상체계가 후자에 비하여 퍽 오래며 더 광범히 전파되여있으며 더 깊이 생활에 뿌리를 박고있으며 또 자산계급적견해와는 자기들중에서나 남들중에서나 어디서나를 물론하고 접촉할수 있는 반면에 사회주의적사상체계는 다만 첫걸음을 내여디디고있을따름

---

① 카우쯔키의 《에르푸르트강령해석》, 중앙위원회판, 94페지

② 레닌의 《무엇을 할것인가?》, 26페지(《레닌선집》, 제1권, 331~332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이며 자기가 나갈 길을 닦고있을따름이라는데 있는것이다. 만일 사상의 보급을 론한다면 자산계급적사상체계 즉 로동조합주의적의식이, 다만 첫걸음을 내여디디고있을따름인 사회주의적사상체계에 비하여 훨씬 용이하게 보급될것이며 자연발생적 로동운동을 보다 더 광범히 퍼싸게 될것은 말할 여지도 없는 일이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운동 즉 사회주의가 없는 로동운동은 그러지 않아도 《바로 이 운동을 자산계급사상체계에 대한 종속에로 이끄는것》①이기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자산계급적사상체계와 사회주의적사상체계는 호상 부정하는 한, 전자에 대한 후자의 복종은 사회주의적사상체계의 배제를 의미하는것이다.

무슨 말인가? 로동계급이 사회주의에 인입되고있지 않단 말인가 하고 우리에게 물을것이다. 옳다. 로동계급은 사회주의에 인입되고있다. 이것이 없다면 사회민주당의 활동은 무효로 될것이다. 그러나 이 인입에는 다른 인입 즉 자산계급적사상체계에의 인입이 대립하여 방해하고있다는것도 또한 사실이다.

나는 우리 나라의 사회생활이 자산계급적사상에 침투되여 있으며 그렇기때문에 자산계급적사상체계의 보급은 사회주의적사상체계의 보급에 비하여 훨씬 용이하다는것을 방금 말하였다. 잊지 말아야 할것은 그와 동시에 자산계급사상가들이 졸고있지 않으며 그들은 제멋대로 사회주의자인체 가장하고 로동계급을 자산계급적사상체계에 복종시키려고 부단히 시도하고있다는것이다. 여기에서 만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경제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멍하니 입을 벌리고 서서 자연발생적

---

① 레닌의 《무엇을 할것인가?》, 28페지(《레닌전집》, 제1권, 334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운동의 교리를 따라가게 된다면(사회민주당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는 때에는 로동운동은 자연발생적인것으로 될것이다.) 자연발생적로동운동은 물론 장구한 방황과 고통이 이 운동으로 하여금 자산계급적사상체계와 관계를 끊고 사회혁명으로 나아가지 않을수 없게 하는 그때까지는 걸어오던 길로 나갈것이며 응당 자산계급적사상체계에 복종할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것을 곧 자산계급적사상체계에로의 인입이라고 칭하는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동계급은 자연발생적으로 사회주의에 끌려간다. 그러나 가장 류행된(그리고 참으로 가지각색 형태로 항상 부활하는) 자산계급적사상체계는 자연발생적으로 그리고 또 가장 심하게 로동자들에게 달라붙는다.》① 바로 그렇기때문에 자연발생적로동운동은 그것이 당분간 자연발생적이며 당분간 사회주의적의식과 결합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자산계급적사상체계에 복종되며 이 복종에로 인입되는것이다②. 만일 이렇지 않다고 하면 사회민주주의적비판이나 사회민주주의적선동은 무용할것이며 《로동운동과 사회주의와의 결합》도 또한 무용할것이다.

사회민주당은 반드시 이 자산계급적사상체계에의 인입과 투쟁하며 또 하나의 다른 인입 즉 사회주의에의 인입을 촉진시켜야 할것이다. 물론 어느때든지 장구한 방황과 고통이 있은후 자연발생적운동은 《로동계급은 자연발생적으로 사회주의

---

① 레닌의 《무엇을 할것인가?》, 29페지(《레닌선집》, 제1권, 336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28페지(《레닌선집》, 제1권, 334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에 끌려가기》①때문에 사회민주당의 원조없이도 자기의 파업을 실행하며 사회혁명의 문전에 다달으게 될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하며 무엇을 하고있을것인가? 《경제주의자들》처럼 팔짱을 끼고 스뜨루웨나 추바또브 일파에게 자리를 내줄것인가? 사회민주주의를 거부하고 그리함으로써 자산계급적, 로동조합주의적 사상체계의 지배를 촉진시킬것인가? 맑스주의를 잊어버리고 《사회주의와 로동운동을 결합시키지》 말것인가?

아니다! 사회민주당은 무산계급의 전위대이며② 그의 파업은 항상 무산계급의 선두에 서서 나가는것이며 그의 파업은 《자산계급의 비호밑에 들어가려는 이 로동조합주의의 자연발생적지향으로부터 로동운동을 끌어내여 그것을 혁명적사회민주당의 날개밑에 끌어들이는데 있는것이다》.③ 사회민주당의 파업은 사회주의적의식을 자연발생적로동운동에 주입시키며 로동운동을 사회주의와 결합시킴으로써 무산계급의 투쟁에 사회민주주의적성격을 부여하는 그것이다.

어떤 국가들에서는 로동계급이 스스로 사회주의적사상체계(과학적사회주의)를 창설하였으며 기타의 국가들에서도 역시 그들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창설할것이며 따라서 외부로부터 사회주의적의식을 로동운동에 주입하려는것은 전혀 무용한 일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유이다. 과학적사회주의를 창설하려면 과학의 선두에 서야 하며 과학적의식으로

---

① 레닌의 《무엇을 할것인가?》, 29페지(《레닌선집》, 제1권, 336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맑스의 《선언》, 15페지(《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343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③ 레닌의 《무엇을 할것인가?》, 28페지(《레닌선집》, 제1권, 334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무장되여야 하며 력사발전법칙을 깊이 연구할줄 알아야 할것이다. 그런데 로동계급은 당분간 그들이 로동계급으로 남아있는 한, 과학의 선두에 서서 그것을 앞으로 전진시키며 력사적 법칙을 과학적으로 연구할만한 능력이 없는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할만한 시간도, 수단도 없는 까닭이다. 카.카우쯔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과학적사회주의는 심오한 과학적지식의 기초우에서만 발생할수 있다.… 그러나 《과학의 대표자는 무산계급이 아니라 **자산계급지식인**〔고시크체는 카.카우쯔키의것〕인것이다. 실로 이 자산계급지식계층의 개개인의 두뇌속에서 현대의 사회주의학설도 발생하였으며 그들에 의하여 그 지적발전이 우수한 무산자들에게 전달되였다.…》①.

이리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연발생적로동운동을 숭배하며 팔짱을 끼고 서서 그것을 방관시하는자, 사회민주당의 의의를 무시하며 스뜨루웨-주바또브일파에게 자리를 내주는자는 모두 이 운동이 저절로 파학적사회주의를 창설할것이라고 환상한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유이다.》② 어떤자들은 90년대에 동맹파업을 단행한 뻬쩨르부르그로동자들은 사회민주주의적의식을 가지고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역시 오유이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의식은 없었으며 《있을수도 없었다.…이 의식〔사회민주주의적의식〕은 오로지 외부로부터만 주입될수 있었다. 모든 나라의 력사는 로동계급이 순전히 자기의 독자적힘으로써 형성할수 있는것은 다만 로동조합주의적 의식뿐이라는것, 즉 로동조합을 결성하며 공장주와 투쟁하며

---

① 레닌의 《무엇을 할것인가?》, 27페지. 거기에 잡지 《신시대》15(그 잡지 1901~1902년, 제3호, 79페지를 보라.)에 발표된 카우쯔키의 유명한 이 한단락의 말이 인용되여있다.(《레닌선집》, 제1권, 333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26페지(《레닌선집》, 제1권, 322페지를 보라.—편집자)

로동자에게 필요한 이런 또는 저런 법률의 발포를 정부에 요구하는 등등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뿐이라는것을 증명하고있다. 그런데 사회주의의 학설은 유산계급중의 교양있는 사람들 즉 지식인들에 의하여 창조된 철학, 력사 및 경제학의 리론으로부터 성장한것이다. 현대의 과학적사회주의의 창시자들인 맑스와 엥겔스 자신들도 그 사회적지위로 본다면 자산계급지식인이였다»①. 레닌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물론《로동자들이 이 사상체계의 창조사업에 참가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동자로서가 아니라 사회주의리론가로서, 프루동이나 와이틀링〔그들은 다 로동자이다.〕 등의 리론가로서 참가한다. 다시말하면 그들이 많게나적게나 자기 시대의 지식을 소유하게 되고 이 지식을 전진시키게 되는 그때에라야만 그리고 이런 한에 있어서만 비로소 이 사상체계의 창조사업에 참가할수 있다»②.

이 모든것은 대략 이렇게 상상할수 있다. 자본주의제도가 있다. 로동자가 있고 공장주가 있다. 그들간에는 투쟁이 진행된다. 과학적사회주의는 아직 아무데서도 보이지 않는다. 로동자들은 이미 투쟁하고있는데 과학적사회주의는 아무데서도 상상조차 되고있지 않다.…그렇다. 로동자들은 투쟁하고있다. 그러나 분산적으로 자기들의 공장주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지방권력과 충돌하여 어떤데서는 동맹파업을 단행하고 어떤데서는 군중대회와 시위운동에로 나가며 어떤데서는 당국으로부터 권리를 요구하고 어떤데서는 보이꼬트를 선언하며 일부는 정

---

① (레닌의《무엇을 할것인가?》, 20～21페지(《레닌선집》, 제1권, 322～323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27페지(《레닌선집》, 제1권, 333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치적투쟁에 대하여 론의하고 다른자들은 경제적투쟁에 대하여 론의하는것 등등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로동자들이 사회민주주의적의식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이것은 아직 그들의 운동의 목적이 자본주의제도의 파멸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해돋는것이 불가피적인것과 같이 자본주의제도의 전복과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을 확신한다든가, 그들이 자기의 정치적지배권(무산계급독재)쟁취를 사회주의의 승리의 불가결한 무기로 간주한다는것 등등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는 동안에 과학은 발전된다. 로동운동은 점차 과학의 관심을 끈다. 학자의 대부분은 로동운동을 채찍으로 해득케 하여도 무방한 불평분자들의 반항이라는 생각에 다달았고 일부의 다른 학자들은 부자들의 임무는 빈궁한자들에게 약간의 부스러기를 분여하는것이라고 즉 로동운동은 구걸을 목적으로 한 거지들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있다. 이런 천명의 과학자중에서 한사람쯤이나 과학적으로 로동운동을 취급하며 온갖 사회생활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며 계급간의 충돌을 주시하며 로동계급의 불평에 귀를 기울여 드디여 자본주의제도는 결코 영원한것이 아니라 봉건제도와 마찬가지로 교체될것이며 그뒤에는 자본주의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제도 즉 사회혁명을 경유하여 무산계급이 수립할수 있는 사회주의제도가 불피코 뒤따르게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자일수 있을것이다. 말하자면 과학적사회주의가 창설된다.

만일 자본주의와 계급투쟁이 없었던들 과학적사회주의가 없었을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례컨대 맑스나 엥겔스와 같은 소수인물들이, 만일 그들이 과학적지식을 갖지 못하였더라면 과학적사회주의를 창설하지 못하였으리라는것도 또한 사실

이다.

로동운동이 없는 과학적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 라침판이다. 그것은 녹이 쓸뿐이며 그렇게 되면 배전밖으로 내버릴수밖에 없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가 없는 로동운동이란 무엇인가? —라침판 없는 배다. 그것이 없어도 피안에 도착할수는 있다. 그러나 지남침만 있으면 훨씬 더 급속히 피안에 도착할수 있으며 위험을 적게 당할수 있을것이다.

량자를 결합시키라. 그러면 당신들은 바로 피안까지 쾌속도로 내달리며 무사히 부두에 닿을수 있는 훌륭한 배를 가지게 될것이다.

로동운동을 사회주의와 결합시키라. 그러면 당신들은 곧추 《행복의 땅》에로 내달릴 사회민주주의적운동을 가지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민주당(지식인사회민주주의자뿐만아니라)의 과업은 사회주의를 로동운동과 결합시키며 로동운동에 사회주의적의식을 주입함으로써 자연발생적로동운동에 사회민주주의적성격을 부여하는 그것이다.

레닌은 이상과 같이 말하였다.

어떤자들은 마치 레닌과 《다수파》의 의견에 의하면 로동운동은 만일 그것이 사회주의적사상체계와 련결되지 않는다면 파멸에 이르며 사회혁명을 달성치 못할것이라는듯이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날조이다. 이것은 한가한자들의 날조로서 안과 같은 우환거리탐스주의자들의 머리속에나 생겨날수 있는 것이다.(잡지 《려행자》16, 제6호에 실린 《당이란 무엇인가?》라는 론문을 보라.)

레닌은 《로동계급은 자연발생적으로 사회주의에 끌려간

다.»①는것을 확실히 주장하고있다. 레닌이 이 점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것은 다만 그러지 않아도 증명된것을 다시 증명하는것은 공연한 일이라고 인정하였기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레닌은 결코 자연발생적운동의 연구를 자기의 목적으로 세우지는 않았던것이며 그는 다만 실천가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반드시 의식적으로 실시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가르쳐주려 하였을뿐이다.

레닌은 마르또브와 론쟁하는 어느 구절에서 또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우리 당은 무의식적과정의 의식적표현자이다.〉 바로 그러하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매개 파업참가자〉가 다 당원으로 자칭할수 있게 하려는 편향은 옳지 않은것이다. 왜냐 하면 〈매개 파업〉이 다만 강력한 계급적본능과 필연적으로 사회혁명을 초래하는 계급투쟁의 자연발생적인 표현일뿐만아니라 이 과정의 의식적인 표현이라면 그때에는…우리 당은 곧…자산계급사회전체를 즉시 소멸하게 될것이기때문이다.»②

보는바와 같이 레닌의 의견에 의하면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칭할수 없는 계급투쟁이나 계급적충돌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불가피적으로 로동계급을 사회혁명에로 인도한다.

만일 당신들이 《다수파》의 다른 대표자들의 의견을 알고 싶다면 들어보라. 그중의 한사람인 고린동지는 제2차당대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무산계급을 하는대로 내버려둔다면 사태는 어떻게

---

① 레닌의 《무엇을 할것인가?》, 29페지(《레닌선집》, 제1권, 336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레닌의 《1보전진 2보후퇴》, 53페지(《레닌선집》, 제1권, 624~625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되겠는가? 사태는 자산계급혁명의 직전에 있었던것과 류사하였을것이다. 자산계급혁명가들에게는 아무런 과학적사상체계도 없었다. 그러나 자산계급제도는 발생하였다. 무산계급은 자신의 사상가들이 없어도 물론 결국은 사회혁명의 방향으로 노력할것이나 그것은 본능적으로써일것이다.…무산계급은 본능적으로도 사회주의를 실천하였을것이나 사회주의적리론은 그에게 없었을것이다. 로정이 다만 완만하고 보다 더 고통스러울뿐일것이다.》①

해석은 불필요하다.

요컨대 **자연발생적로동운동, 사회주의가 없는** 로동운동은 불가피적으로 타락하며 로동조합주의적성격을 띠게 되여 그것은 자산계급적사상체계에 복종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면 그만이고 로동운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지을수 있겠는가? 물론 없다! 이렇게 말하는것은 다만 관념론자들뿐이다. 장구한 시일을 경과한 그 어느때에 가서는 경제적발전이 불가피적으로 로동계급을 사회혁명에로 인도할것이며 따라서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자산계급적사상체계와의 일체 련락을 단절해버리게 할것이다. 문제는 이 길이 아주 멀고 고통스럽다는데 있는것이다.

다른편으로 **로동운동이 없는** 사회주의는 그것이 여하한 과학적기초에서 발생하였을지라도 그것은 공담에 불과하며 의의가 없는것이다. 이로부터 운동이면 그만이고 사회주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지을수 있겠는가? 물론 없다! 의식은 사회생활 그자체에서 발생되는것인만큼 아무런 의의도 없다고 인정하는 우환거리맑스주의자들만이 이렇게 판단한다. 사회주

---

① 《제2차당대회 회의록》, 129페지

의를 로동운동과 결합시킬수 있으며 이리함으로써 그것을 공담으로부터 날카로운 무기로 전화시킬수 있는것이다.

결론은:

결론은 이러하다. 즉 로동운동은 반드시 사회주의와 결합되여야 하며 실천적활동과 리론적사상은 반드시 한데 합류되여야 하며 이리함으로써 자연발생적로동운동에 사회민주주의적성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사회민주당은 로동운동과 사회주의와의 결합》①이기때문이다. 그때에는 로동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는 로동자들의 손에서 공담으로부터 거대한 힘으로 화할것이다. 그때에는 사회민주주의적으로 전화된 자연발생적운동은 속보로 옳바른 길을 따라 사회주의제도에로 나아갈것이다.

그러면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우리의 과업, 사회민주당의 과업은 로동자의 자연발생적운동을 로동조합주의적길에서 리탈시켜 사회민주주의적로정에 서도록 하는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이 운동에 사회주의적의식②을 주입하여 로동계급의 선봉적력량을 한개의 중앙집권적정당에 련합하는것이다. 우리의 과업은 항상 운동의 선두에 서서 나가며 이 과업실행을 방해하는 모든 분자들—원쑤이든, 《친우》이든간에—과 꾸준히 싸우는것이다.

《다수파》의 립장은 대체로 이러하다.

우리의 소수파에게는 《다수파》의 립장이 구미에 맞지 않는다. 그들은 다수파의 립장은 《비맑스주의적》이며 맑스주의

---

① 《에르푸르트강령해석》, 중앙위원회판, 94페지
② 즉 맑스와 엥겔스가 창설한 의식.

에 《근본적으로 모순된다》는것이다! 가장 존경하는 제씨들! 과연 그러한가? 이것은 어디서 어느때에 어느 행성에 있었던 일인가? 그들은, 우리의 론문을 읽으라, 그러면 우리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럼 읽어보자.

우리의 앞에는 《당이란 무엇인가?》라는 론문이 있다.(잡지 《려행자》 제6호를 보라.) 《평론가》 안은 당내의 《다수파》에게 무슨 죄를 씌웠는가? 《그들〔《다수파》〕은…자기를 당수로 선포하며…다른 당원들의 복종을 강요하며…자기의 행위를 변명하려고 가끔 새 리론까지도 생각해내고있다. 례컨대 로동대중은 자력으로써는 〈고상한 리상〉을 **파악**〔고시크체는 나의 것〕할수 없다는 등이다.》①

이제 물어보자. 《다수파》가 이와 류사한 《리론》을 지금 혹은 이전에 제기한적이 있었던가? 언제 어디서도 한번도 없었다! 그와 반대로 《다수파》의 사상적대표자인 레닌동지는 로동계급이 아주 용이하게 《고상한 리상》을 **파악하며** 아주 용이하게 사회주의를 **파악한다**는것을 명확히 말하고있다. 들어보라.

《흔히 로동계급은 **자연발생적으로** 사회주의에 끌려간다고들 말하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리론이 무엇보다도 심오하고 옳바르게 로동계급의 빈곤의 원인을 설명한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옳다. 그렇기때문에…**로동자는 이 사회주의리론을 용이하게 리해하기까지 한다.**》②

보는바와 같이 《다수파》의 의견에 의하면 로동자는 사회주의라고 칭하는 《고상한 리상》을 용이하게 파악한다.

---

① 잡지 《려행자》, 제6호, 71페지

② 레닌의 《무엇을 할것인가?》, 29페지(《레닌선집》, 제1권, 336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그러면 안은 어째서 이런 궤변을 하고있으며 그는 어디서 이 기이한 《발견》을 하였는가? 독자들이여, 문제는 《평론가》 안이 전혀 다른것을 념두에 두고있었다는데 있는것이다. 그가 념두에 두고있은것은 《무엇을 할것인가?》란 저서에서 레닌이 사회주의의 **창설**에 대하여 말한 구절, 로동계급이 자력으로써 과학적사회주의를 **창설할수 없다**①고 주장한 구절이다. 어떻게 그럴수가 있느냐고 당신들은 말할것이다. 사회주의의 **창설**과 그 **파악**은 서로 다른것인데 안은 어째서 레닌이 《고상한 리상》의 **파악**에 대하여 명백하게 언급한 그 구절을 잊어버렸는가? 독자 여러분, 당신들의 말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안은 너무나 《평론가》가 되고싶은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의 《리론》을 꾸며내여 그것을 상대방에 념겨씌우고 그다음에 제손으로 자기 환상의 열매에다 불절하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영용한 일인가를 좀 생각하여보라. 이것이 이른바 평론이다! 여하튼 의심할바없는것은 안이 레닌의 저서 《무엇을 할것인가?》를 《자력으로써 파악할수 없었다》는것이다.

이번에는 소위 《사회민주주의자》지를 펼쳐보자. 《다수파냐 소수파냐?》(《사회민주주의자》지 창간호를 보라.)란 론문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있는가?

그는 레닌의 의견에 의하면 《로동운동의 자연적〔《자연발생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발전은 사회주의에로가 아니라 자산계급적사상체계로 향하여 나간다.》②고 하면서 기운을 내여 요란스레 레닌에게 맞서들었다. 보는바와 같이 저자는 **자연발생적**로동운동은 사회주의가 없는 로동운동이며(저자더러 이것

---

① 레닌의 《무엇을 할것인가? 》, 20~21페지(《레닌선집》, 제1권, 322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신문 《사회민주주의자》, 창간호, 제14면

이 이렇지 않다는것을 증명하게 하라.) 이러한 운동은 필시 자산계급적인 로동조합주의적사상체계에 복종하며 그것에 인입된다는것, 왜냐 하면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다만 두개의 사상체계 즉 사회주의적사상체계와 자산계급적사상체계만 있어서 전자가 없는 곳에서는 필연코 후자가 나타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때문이라는(이와 반대되는것을 증명해보라!)것을 모르고있다. 그렇다. 레닌은 바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레닌은 로동운동에 고유한 다른 인입 즉 다만 일시적으로 자산계급적사상체계에의 인입으로 인하여 희미해지는 사회주의에의 인입을 잊어버리지 않고있다. 레닌은 《로동계급은 자연발생적으로 사회주의에 끌려간다》①고 솔직하게 말하고있으며 사회민주당의 과업은 이 인입의 승리도 역시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경제주의자들》과의 투쟁으로써 촉진시켜야 할것이라고 정당하게 지적하고있다. 존경하는 《평론가》여, 당신은 어째서 자기의 론문에서 레닌의 이 말은 인용하지 않았는가? 이 말은 그래 그 레닌의 말이 아니란 말인가? 당신에게는 이 말을 인용하는것이 불리하였을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레닌의 의견에 의하면…로동자는 그 처지[고시크체는 나의것]로 보아 사회주의자라기보다도 오히려 자산자이다.…》②라고 저자는 계속해 말한다. 이것은 내가 이 저자에게서조차 예기하지 않은 미련한 말이다! 과연 레닌의 론점이 로동자의 처지였던가? 과연 그가 로동자는 그 처지로 보아 자산자라고 하였던가? 어떤 멍청이가 생산도구를 잃고 자기의 로동력을 팔아서 살아가는 로동자를 그 처지로 보아 자산자라고 말할수

---

① 레닌의 《무엇을 할것인가?》, 29페지(《레닌선집》, 제1권, 336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신문 《사회민주주의자》, 창간호, 제14면

있겠는가? 아니다! 레닌은 전혀 다른것을 말하고있다. 문제는 한사람이 그 처지로 보아서는 자산자가 아니라 무산자이지만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자산계급적사상체계에 복종할수 있다는데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로동계급이 바로 이렇게 되여있는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다른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저자는 텅 빈 말로 발언하기를 즐겨하며 생각해보지도 않고 말을 툭 쏘아버린다! 례하면 저자는 《레닌주의가 근본적으로 맑스주의에 모순된다.》①고 고집하는데 그는 이 《사상》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할것인가를 알지 못하고있다. 레닌주의가 사실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맑스주의에 모순된다》고 하는 이 말을 잠간 믿어보자. 더 나아가서는? 이로부터의 결론은? 그것은 이렇다. 즉 《레닌주의가 〈이스크라〉〔구〈이스크라〉〕를 유인했다》.—이것은 저자도 부인하지 않는다.—따라서 《이스크라》도 또한 《근본적으로 맑스주의에 모순된다는것이다》. 제2차당대회는 35명의 다수가결로 《이스크라》를 당의 중앙기관지로 승인하면서 《이스크라》의 공훈을 크게 찬양하였다.② 따라서 이 대회도 그 강령도 그 전술도 역시 《근본적으로 맑스주의에 모순된다》.…독자들이여, 이 아니 우스운 일인가?

저자는 그래도 계속하여 《레닌의 견해에 의하면 자연발생적로동운동은 자산계급과의 결합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저자가 미련한 행위와의 결합에로 향하고있는것은 의심할바없으며 만일 그가 이 길에서 물러나온다면 좋을것이다.

---

① 신문 《사회민주주의자》, 창간호, 제15면

② 《제2차당대회 회의록》, 147페지를 보라. 거기에 《이스크라》를 사회민주주의원칙의 진정한 수호자라고 한 결의문이 있다.

그러나 《평론가》는 그대로 두고 맑스주의에 주의를 돌리자.

존경하는 《평론가》는 《다수파》와 그 대표자 레닌의 립장이 근본적으로 맑스주의에 모순된다고, 왜냐 하면 카우쯔키나 맑스나 엥겔스는 레닌이 주장하는것과 반대의것을 말하기때문이라고 고집을 쓰며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자 보자!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카.카우쯔키는 자기의 〈에르푸르트강령해석〉에다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의 리해관계는 이 두 계급의 욕망이 다소간이라도 오래동안은 결합될수 없으리만큼 서로 상반된다. 자본주의적생산형태를 가진 매개 국가에서는 로동계급의 참정은 **조만간** 그들이 자산계급당에서 분리되여 자립적인 **로동자당**을 형성하는데로 이르게 하는것이다.〉라고 썼다.》

그런데 이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다만 자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리해관계가 상반되며 《조만간》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으로부터 자립적인 **로동자당**으로 (**사회민주**로동당이 아니라 **로동자당**인것을 기억하라.) 분리된다는것뿐이다. 저자는 여기에 카우쯔키와 레닌과의 의견상 상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레닌은 무산계급은 **조만간** 자산계급으로부터 분리될뿐만아니라 사회혁명을 수행할것이라고 즉 자산계급을 전복할것이라고 말하고있다.① 그는 또 사회민주당의 과업은 사회혁명이 가급적으로 **신속히** 실시되며 **자각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는것이라고 보충하여 말하였다. 그렇다. 자연발생적으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이다. 왜냐 하면 레닌이 바로 이 자각성에

---

① 레닌의 《1보전진 2보후퇴》, 53페지를 보라.(《레닌선집》, 제1권, 624~625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대하여 쓰고있기때문이다.

《평론가》는 계속하여 카우쯔키의 저서를 인용한다. 《…사태가 자립적로동자당의 형성에까지 이를 때에 있어서는 로동자당은 설혹 최초부터 사회주의적경향의 격려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초만간 반드시 그 사회주의적경향을 파악하여야 할것이며 필경은 사회주의적로동자당 즉 사회민주당으로 되여야 할것이다.》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다만 로동자당이 사회주의적경향을 파악한다는것뿐이다. 과연 레닌은 이것을 부정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레닌은 로동자당뿐만아니라 전체 로동계급이 사회주의를 파악한다②는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있다. 그런데 이 《사회민주주의자》지와 그의 거짓말쟁이 영웅은 어째서 헛된 소리를 하고있는가? 그들은 어째서 엉터리없는 거짓말을 늘어놓고있는가? 종소리는 들었으되 어데서 들려오는지 모른다더니 착란에 빠진 우리의 저자야말로 그 모양이다.

보는바와 같이 카우쯔키는 여기에서 추호도 레닌과 상위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모든것은 저자의 단견을 여지없이 명백하게 증명하여준다.

카우쯔키는 《다수파》의 립장에 유리한 무엇인가를 좀 말하고있는가? 그는 오지리사회민주당강령초안을 해석하는 자기의 훌륭한 론문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 수정주의평론가들〔베른슈타인의 추종자들〕중의

---

① 신문 《사회민주주의자》, 창간호, 제15면

② 레닌의 《무엇을 할것인가?》, 29페지(《레닌선집》, 제1권, 336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다수는 마치 맑스가 경제적발전과 계급투쟁은 사회주의적 생산의 조건들을 만들어낼뿐아니라 또한 직접적으로 그 필연성에 대한 의식〔고시크체는 카.카우쯔키의것〕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듯이 생각하고있다. 그리하여 바로 이 평론가들은 가장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국가인 영국이 이 의식과 가장 인연이 멀다고 반박하고있다. 초안〔오지리의 초안〕에 의하면 오지리의 강령기초위원회도 역시…이…견해에 동의한다고 생각할수 있다. 초안에는 〈자본주의적발전이 무산계급을 증대시키면 시킬수록 무산계급은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며 또 투쟁할 가능성을 얻는다. 무산계급은〉 사회주의의 가능성과 필연성의 〈의식에 도달한다.〉고 서술되여있다. 이렇게 보면 사회주의적의식은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의 필연적인 직접적 결과인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옳지 않은 견해이다.…현대적사회주의적의식은 심오한 과학적지식의 기초우에서만 발생할수 있다.…과학의 대표자는 무산계급이 아니라 자산계급지식인〔고시크체는 카.카우쯔키의것〕인것이다. 실로 이 자산계급지식계층의 개개인의 두뇌속에서 현대의 사회주의학설도 발생하였으며 그들에 의하여 그 지적발전이 우수한 무산자들에게 전달된 다음 이 무산자들은 그 사회주의학설〔과학적사회주의〕을…무산계급의 계급투쟁속으로 가져온다. 이리하여 사회주의적의식은 외부로부터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속으로 도입된것이고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서 구하인펠드강령[17]도 아주 공정하게 말하기를 사회민주당의 과업은 무산계급의 처지와 무산계급의 과업에 대한 의식을 무산계급의 속으로 도입함에 있다고 하

였다.…》①

독자들은 이 문제에서의 이와 류사한 레닌의 견해를 상기할수 없겠는가? 누구나 다 아는 《다수파》의 립장을 상기할수 없겠는가? 《끄플리스위원회》와 그 《사회민주주의자》지는 어째서 실정을 감추는가? 존경하는 《평론가》는 카우쯔키에 대하여 말하면서 어째서 자기 론문에 카우쯔키의 이 말은 인용하지 않았는가? 가장 존경하는 제씨는 누구를 기만하는가? 왜 그들은 독자들에게 이처럼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는가? 진리를 두려워하며 진리를 피하며 진리도 감출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이기…때문인가? 그들은 머리를 날개밑에 감추고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할것이라고 환상하는 그러한 새와 흡사하다! 그들은 그러한 새와 마찬가지로 아둔하다.

사회주의적의식이 과학적기초우에서 창설되였으며 이 의식이 사회민주당②의 분투노력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로동운동에 도입되는것인 이상 이 모든것은 로동계급이 로동계급대로 있는 한에서는 그가 과학의 선두에는 설수 없으며 자기의 독자적힘으로써는 과학적사회주의를 창설할수 없기때문에 생기는것이 명백하다. 왜냐 하면 로동계급에게는 이에 필요한 시간도, 수단도 없는것이다.

카.카우쯔키는 자기의 《에르푸르트강령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무산자는 한껏해야 자산계급학자들이 창설해놓은 일부의 지식을 소유하거나 이 지식을 자기의 목적과 요구에 적응

---

① 잡지 《신시대》, 1901~1902년, 제20년권, 제3호, 79페지. 카우쯔키의 이 훌륭한 론문은 레닌의 《무엇을 할것인가?》, 27페지에 인용되여있다. (《레닌선집》, 제1권, 332~333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지식인사회민주주의자뿐만아니다.

시킬수 있으나 아직 그들이 무산자로 남아있는 한에서는 그들에게는 독자적으로 과학을 자산계급사상가들이 달성한 한계를 넘어서 연구할만한 여유시간과 수단이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원시적인 로동자의 사회주의는 공상주의〔공상주의란 허위적이며 비과학적인 리론이다.〕의 모든 본질적안 표징을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①

이런 종류의 공상적사회주의는 가끔 무정부주의적성격을 띠게 되는것이라고 하면서 카우쯔키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다 아는바와 같이 무정부주의적운동〔이것을 무산계급적공상주의라고 리해하면서—카.카우쯔키의 주〕이 실지로 대중속에 침투되여 계급적운동으로 된 곳에 있어서는 어디를 물론하고 이 운동은 항상 조만간 그 외관상의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협소한 순 직업동맹운동으로 전화되는것으로 끝을 맺었다》②.

달리말하면 만일 로동운동이 과학적사회주의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타락되며 《협소한 직업동맹》성격을 띠게 되는것이며 따라서 로동조합주의적사상체계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로동자를 멸시하는것이며 이것은 지식인을 높이 받드는것이다!》라고 우리의 《평론가》와 그의 《사회민주주의자》지는 떠들고있다.…불쌍한 《평론가》이며 가련한 《사회민주주의자》이다! 그들은 무산계급을 마치 달아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른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늘 칭찬해주어야 하는 변덕스러운 처녀처럼 생각한다! 가장 존경하는 제씨여! 그렇지 않다! 우리는 무산계급이 당신이 생각하는것보다 더 큰 강의

---

① 《에르푸르트강령해석》, 중앙위원회판, 93페지
② 우와 같은 책, 94페지

성을 발휘할것이라고 확신하는바이다. 우리는 그들이 진리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당신들은…당신들께 말해 무엇하랴! 당신들은 지금 바로 진리가 두려워서 자기의 론문에서 독자들에게 카우쯔키의 견해를 그대로 소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로동운동이 없는 과학적사회주의는 언제나 쉽게 바람에 날려보낼수 있는 공허한 언사이다.

다른편으로 사회주의가 없는 로동운동은 로동조합주의적 방황인데 이 방황은 그 어느때에 가서는 물론 사회혁명에로 이르게 될것이지만 그러나 장구한 고통과 고민의 대가로써 이르게 될것이다.

결론은?

《로동운동은 반드시 사회주의와 결합되여야 한다.》즉《사회민주당은 로동운동과 사회주의의 결합이다》①.

이것은 맑스주의의 리론가 카우쯔키의 말이다.

우리는《이스크라》(구《이스크라》)와《다수파》가 역시 이렇게 말하고있다는것을 보았다.

우리는 레닌동지도 바로 이 립장에 서있다는것을 보았다.

그러므로《다수파》는 맑스주의적립장에 튼튼히 서있는것이다.

《로동자를 멸시한다》느니《지식인을 높이 받드는것》이라느니《다수파의 비맑스주의적립장》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멘쉐위크적《평론가들》이 늘어놓는 망설은 찌플리스《멘쉐위크들》의 란설과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하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찌플리스의《소수파》자신과《찌플리

---

① 《에르푸르트강령해석》, 94페지

스위원회》와 《사회민주주의자》지가 기실은 《근본적으로 맑스주의에 반대되는》것임을 볼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하기로 하고 지금은 당분간 아래와 같은 문제에 주의를 돌리자.

《다수파냐 소수파냐?》라는 론문의 저자는 자기의 론거를 확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맑스(?)의 말을 인용한다. 《어떤 계급의 리론가는 계급자체가 실천적으로 이미 도착한 결론에 리론적으로 도달하는것이다.》①

두가지중의 하나일것이다. 저자가 그루지야어를 알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식자공의 잘못일것이다. 유식한 사람치고는 한사람도 《이미 도착한 결론》이라고는 말하지 않을것이다. 《이미 도달한 결론》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달하고있는 결론》이라고 해야 옳을것이였다. 만일 저자가 두번째의것(도달하고있는 결론)을 념두에 두고있다면 그가 맑스의 말을 옳지 않게 전하고있다는것을 지적해야 할것이니 맑스는 이러한 말을 한 일이 없었다. 만일 저자가 첫번째 정의를 념두에 두고있다면 그가 인용한 문구는 아래와 같이 되여야 할것이다. 즉 《어떤 계급의 리론가는 계급자체가 실천적으로 이미 도달한 결론에 리론적으로 도달하는것이다》. 달리말하면 맑스와 엥겔스가 리론적으로 자본주의의 사멸과 사회주의의 건설이 필연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면 이것은 무산계급이 이미 실천적으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이미 자본주의를 소멸하고 그 자리에 사회주의적생활을 수립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가련한 맑스랄박에! 우리의 우환거리맑스주의자들이 아직도 그에게 엉터리없는 소리를 얼마나 퍼부을지 누가 알랴!

---

① 신문 《사회민주주의자》, 창간호, 제15면

맑스는 정말 이렇게 말하였는가? 기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것이다. 즉 소자산계급의 리론적대표자들은 《소자산계급이 자기의 물질적리해관계와 사회적처지로 하여 실천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과업과 해결책에 그들도 역시 리론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곧 한 계급의 정치적 및 문필적 대표자와 그들이 대표하는 계급간의 일반적관계이다.》①라고.

보는바와 같이 맑스는 《이미 도착한》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이 《철학적》문구는 존경하는 《평론가》가 지어낸것이다.

이 경우에 맑스의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있다.

이상에 인용된 명제에서 맑스는 어떠한 사상을 전개시키고있는가? 다만 어떤 계급의 리론가든지 실제생활에 그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리상을 창조할수는 없다는것, 그는 다만 미래의 요소를 발견할수 있을뿐으로 이것을 기초로 하여 그는 어떤 계급이 실제상으로 도달하려는 리상을 리론적으로 만들어낼수 있다는 사상을 전개시키고있을따름이다. 차이는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리론가가 계급을 앞서가며 그보다 먼저 미래의 맹아를 발견한다는데 있는것이다. 이것을 일러 《어떤것에 리론적으로 도달한다.》고 한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기들의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즉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실천면에 있어서는 각국 로동자당들중의 가장 견결하고 언제나 추동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며 리론면에 있어서는 무산계급운동의 조

---

① 만일 독자의 손에 《안개달18일》(《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803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이 없으면 맑스의 이 문구가 인용되여있는 《제2차 당대회 회의록》, 111페지를 참조하라.

건, 행정 및 일반적결과를 리해하는데 있어서 이여의 무산계급대중들보다 우월한 부분이다.》

그렇다, 사상가들은 《추동적역할을 하며》《이여의 무산계급대중》보다 훨씬 멀리 내다보는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모두 여기에 있는것이다. 사상가들이 추동적역할을 하는바 바로 이 때문에 사상, 즉 사회주의적의식은 운동에 대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존경하는 《평론가》여, 당신은 이것때문에 《다수파》를 공격하고있는가? 그렇거든 맑스주의와 작별해버리라. 그리고 《다수파》는 자기의 맑스주의적립장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는것을 알라.

이 경우에 있어서 《다수파》의 처지는 여러 면에서 90년대의 엥겔스의 처지를 련상케 한다.

관념론자들은 사상이 사회생활의 원천이라고 주창한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적의식은 사회생활이 꾸려지는 토대인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을 관념론자들이라고 부르는것이다.

따라서 사상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생활자체에서 발생된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력사적무대에 출현하여 이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그들은 사회생활이 사상의 원천이며 그렇기때문에 사회생활은 사회적의식이 이루어지는 토대라는것을 증명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관념론을 매장하기 위한 무덤을 파놓고 유물론에로의 길을 닦아놓았다.

약간의 절반맑스주의자들은 마치 의식이나 사상이 실생활에 있어서 전혀 보잘것없는 의의를 가지는것처럼 리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상의 거대한 의의를 증명하여야 하였다.

그리하여 엥겔스는 나섰으며 자기의 서한들에서(1891～

1894년) 이렇게 강조하였다.—사상은 물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자체에서 발생된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발생된후에는 거대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조직하면서 자기를 산생케 한 사회생활에 그 타인을 적는다. 때문에 사상은 력사적운동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이것은 맑스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맑스주의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베른슈타인과 그의 일파들은 웨쳤다. 맑스주의자들은 그에 대하여 조소하였을뿐이다.…

로씨야에도 절반맑스주의자—《경제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상은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것이기때문에 사회주의적 의식은 로동운동에 있어서 보잘것없는 의의밖에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적의식은 로동운동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가 있으며 그것이 없는 운동은 로동조합주의적방황이므로 언제 무산계급이 이 방황에서 벗어나 사회혁명에까지 다달으게 될것인가는 알수 없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하였다.

이리하여 《이스크라》가 나타나 이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무엇을 할것인가?》라는 저서가 나왔다. 거기에서 레닌은 사회주의적의식의 거대한 의의를 강조하였다. 당의 《다수파》가 형성되여 이 길에 튼튼히 들어섰다.

그러나 바로 이때 베른슈타인의 추종자들이 나서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맑스주의에 모순된다》고 웨치기 시작하였다!

《경제주의자들》이여, 그런데 당신들은 맑스주의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가?

이상하다고 독자는 말할것이다. 어찌된 일인가 하고 독자들은 물을것이다. 어째서 쁠레하노브는 레닌을 반대하는 평

론을 썼는가?(신《이스크라》, 제70호와 제71호를 보라.) 그는 무엇때문에 《다수파》를 비난하는가? 찌플리스의 우환거리맑스주의자들과 그들의 《사회민주주의자》지는 쁠레하노브가 론술한 견해를 반복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렇다, 반복하고있다. 그러나 싫증이 나도록 졸렬하게. 그렇다, 쁠레하노브는 비판해 나섰다. 그런데 문제가 어데 있는지를 아는가? 쁠레하노브는 《다수파》 및 레닌과의 사이에 의견상이가 없다. 그러나 쁠레하노브 한사람뿐만아니라 마르또브, 자쑬리치, 악쎌로드도 역시 그러하다. 참말로 우리가 우에서 론한 문제에서는 《소수파》의 수령들과 구《이스크라》와의 사이에 의견상이가 없다. 그런데 구《이스크라》야말로 《다수파》의 기치인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사실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구《이스크라》의 강령적론문을 보았다.(이상에서 보라.) 우리는 이 론문에 《다수파》의 립장이 완전히 표현되였다는것을 안다. 이 론문은 누구의것인가? 당시의 《이스크라》 편집부에 속하는것이다. 이 편집부에는 누가 가입하였던가? 레닌, 쁠레하노브, 악쎌로드, 마르또브, 자쑬리치 및 스따로웨르이다. 이들중에서 현재 레닌만이 《다수파》에 가입하고있으며 그 나머지 5명은 《소수파》를 지도하고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남아있다. 즉 《이스크라》의 강령적론문은 그들의 편집하에 나온것인만큼 그들은 마땅히 자기들의 말을 부인하지 말아야 할것이며 또 그들은 자기들이 쓴것을 필시 믿었을것이다.

그러나 소원대로 《이스크라》에 대해서는 론하지 말자.

그리고 마르또브의 글을 보기로 하자.

《이와 같이 사회주의사상은 최초에 로동자대중속에서가 아니라 자산계급출신의 학자들의 연구실에서 산생하였다.》①

---

① 마르또브의 《붉은기》, 3페지

그리고 웨라 자쑬리치는 이렇게 썼다.

《지어 전체 무산계급의 계급적련대성에 관한 사상도… 매개 로동자의 머리속에서 독자적으로 생겨나게끔 그렇게 쉬운것은 아니다.… 사회주의도… 결코 로동자들의 머리속에서 〈스스로〉 생장하지는 못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적리론은 생활 및 지식의 모든 발전에 의하여 준비되였으며… 이 지식으로 무장된 영재적두뇌에 의하여 창조된것이다. 로동자들속에서의 사회주의사상보급의 기초도 거의 전 구라파대륙을 통하여 상류계급의 학교들에서 교육을 받은 사회주의자들이 닦은것이다.》①

이제 레닌을 반대하여 신《이스크라》(70~71호)에 그럴듯한 존엄성을 가지고나선 쁠레하노브의 말을 들어보자. 제2차 당대회에서 있은 일이다. 쁠레하노브는 마르띄노브와 론쟁하면서 레닌을 옹호하였다. 그는 레닌의 한구절을 틀어잡고 《무엇을 할것인가?》란 책전부를 간과하는 마르띄노브를 질책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했다.

《마르띄노브동지의 방법은 〈《우리의 주》②의 기도문을 나에게 주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한개의 문구를 뽑아내도록 허가해주시오. 그러면 나는 그 한개의 문구에 의하여 본 성경의 저자의 목을 달아야 한다는것을 당신들에게 증명할터입니다.〉라고 말한 출판물검열원을 련상케 한다. 그러나 이 불행한 문구〔레닌의〕에 대한 마르띄노브 한 동지뿐만아니라 기타 수많은 동지들의 비난은 죄다 오해에 의한것이다. 마르띄노브동지는 〈현대의 사회주의는 현대의 로동운동의 리론적표현이다.〉라고 한 엥겔스의 말을 인용하고있다. 레닌동지도 역시 엥겔스의 견해에 동의하고있다.… 그러나 엥겔스의 말은 일반적명제인것

---

① 잡지 《서광》18, 제4호, 79~80페지

② 성경 《신약전서. 마태복음》, 제6장, 제9~13절을 보라. —편집자

이다. 문제는 누가 최초에 이 리론적표현을 정식화하였는가에 있다. 레닌은 력사철학에 대한 론문을 쓴것이 아니라 우리가 〈혁명적병균〉이 없이〔즉 사회민주당이 없이〕 로동계급이 스스로 무엇에 다달을것인가를 반드시 기다리고있어야 할것이라고 말하는 〈경제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론쟁적론문을 쓴것이다. 사회민주당은 〈혁명적병균〉이기때문에, 달리말하면 그에는 리론적의식이 있기때문에, 바로 그때문에 그는 로동자들에게 선전하지 못하게 금지당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병균〉을 제거하게 된다면 외부로부터 의식이 주입되여야 할 무의식적대중만이 남는것이다. 만일 당신이 레닌에 대하여 옳은 태도를 취하려 하였고 또 주의하여 그의 저서전부를 다 읽어보았다면 당신은 레닌이 바로 이것을 말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①

제2차당대회에서 쁠레하노브는 이상과 같이 말하였다.

그런데 마르또브, 악쎌로드, 자쑬리치, 스따로웨르 등의 충동을 받는 쁠레하노브가 바로 수개월을 지나서는 다시 나서서 바로 대회에서 자기가 옹호하던 레닌의 그 구절을 틀어잡고 레닌과 《다수파》는 맑스주의자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만일 《우리의 주》의 기도문에서조차 한개의 문구를 뽑아내여 그것을 다른 구절과의 련계를 떠나서 해석하게 된다면 그 저자는 신을 배반한 죄로 교수대에 목을 달게 되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것과 공정한 평론가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것을 알면서도 레닌의 저서에서 이 문구를 뽑아내며 옳지 못하게 행동하며 자기자신을 대중앞에서 모욕하고있는것이다. 마르또브, 자쑬리치, 악쎌로드 및 스따로웨르는 그를 충동하여 쁠레하노브의 론문을 자기들의 편집

① 《제2차당대회 회의록》, 123페지

하에 신《이스크라》(제70~71호)에 게재함으로써 다시한번 자신을 모욕하고있는것이다.

왜 그들은 이러한 무정견성을 표현하였으며 왜 이《조수파》의 수령들은 자기자신을 모욕하였으며 왜 그들은 자기들의 서명하에《이스크라》에 게재되였던 강령적론문을 부인하였으며 왜 자기의 말을 부인하였는가? 사회민주당내에서 언제 이와 류사한 시비전도를 본 일이 있는가?

제2차대회와 쁠레하노브의 론문이 발표되기까지의 수개월동안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6명의 편집원중에서 제2차대회는《이스크라》편집원으로 쁠레하노브, 레닌 및 마르또브 세사람을 선거하였다. 악쎌로드, 스따로웨르 및 자쑬리치에 대하여서는 대회가 그들을 다른 직무에 배치하였던것이다. 대회는 물론 이러한 권한을 가졌으며 누구나 그에 복종할 의무가 있었다. 왜냐 하면 대회는 당의 의사의 표현자인 동시에 당의 최고기관인 까닭에 대회의 결정을 반대하는자는 당의 의사를 유린하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고집이 센 이 편집원들은 당의 의사, 당의 규률(당의 규률은 바로 당의 의사인것이다.)에 복종하지 않았다. 당의 규률은 우리와 같은 보통일군을 위해서만 고안된것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들은 대회가 자기들을 편집원으로 선거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격분하여 탈퇴하면서 마르또브를 자기들 편에 유인하여가지고 반대파를 구성하였던것이다. 그들은 당에 대해서 보이꼬트를 선언하고 당사업을 거부하면서 우리를 편집부, 중앙위원회, 당총무위원회[19]에 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렬을 일으키겠다고 당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분렬은 시작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또 한번 당의 의사를 유린하였다.

파업한 편집원들의 요구조건은 아래와 같다.

《〈이스크라〉의 구편집부를 회복시킬것〔즉 편집부내에서 우리에게 세 자리를 달라.〕

중앙위원회 성원에 일정한 수의 반대파〔즉 《소수파》〕의 당원들을 넣을것.

당총무위원회에 두 자리를 반대파당원들에게 제공할것 등이다.…

우리는 이 조건들을 당의 존재를 위협하고있는 충돌을 피할수 있는 가능성을 당에 보장하여주는 유일한 조건들로서 제기한다.》(즉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내에 대분렬을 일으키리라.)①

당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당의 대표자인 중앙위원회와 기타 동지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성명하였다. 우리는 당대회의 결정을 반대하여 나갈수 없다. 선거는 대회가 할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평화와 합의를 회복하도록 애쓰겠다. 바른대로 말하면 자리다툼을 하는것만도 부끄러운 일인데 당신들은 자리다툼을 위하여 당을 분렬시키려고 하고있다.…

파업한 편집원들은 노하였으나 실은 자리때문에 싸움을 일으켰던만큼 그들은 좀 창피를 느끼고 쁠레하노브를 자기들 편에 유인하여② 자기들의 영웅적인 일을 시작하였던것이다. 그

---

① 《련맹대회 회의록에 대한 론평》, 26페지

② 독자는 혹시 《다수파》의 열렬한 찬성자이던 바로 그 쁠레하노브가 어떻게 되여 《소수파》의 편으로 넘어갔는가고 물을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메닌과 쁠레하노브사이에 의견상이가 발생하였기때문이다. 《소수파》가 격노하여 보이꼬트를 선언하였을 때 쁠레하노브는 반드시 완전히 양보하여야 하겠다는 견지에 섰던것이다. 메닌은 그에 동의하지 않았다. 쁠레하노브는 점차 《소수파》의 편에 끌리기 시작하였다. 그들간의 의견상이는 더욱더 확대되여 드디여 사태는 쁠레하노브가 결국 메닌 및

들은 《다수파》와 《소수파》사이에서 보다 더 어떤 《뿌리깊은》 《의견상이》를 찾아냄으로써 자기들이 자리다툼을 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찾고찾다가 마침내 만일 한 구절을 원문에서 끄집어내여 다른 문장과 련계없이 고립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사실상 흠을 잡을수도 없지 않은 그러한 구절을 레닌의 저서에서 발견하였던것이다. 이는 아주 좋은 묘안이라고 《소수파》의 수령들은 생각하였다. 레닌은 《다수파》의 지도자인만큼 레닌을 비방함으로써 당을 자기들 편으로 기울어지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레닌 및 그의 추종자들은 비맑스주의자이다.》라고 하는 쁠레하노브의 잡담이 시작되였다. 실로 그들은 레닌의 저서에서 오늘에 와서 자기들이 반대하는 바로 그 사상을 어제까지만 해도 아직 옹호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무슨 수가 있는가—기회주의자는 원칙성을 존중하지 않기때문에 그를 기회주의자라 칭하는것이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그들은 자기자신을 모욕하는것이며 바

《다수파》의 적으로 전락되기에까지 이르렀던것이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아래와 같이 썼다.

《…며칠후 나는 총무위원회 위원 한사람과 함께 쁠레하노브를 방문하였는데 우리와 쁠레하노브와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세상에 말썽부리는 아낙네들〔즉 〈소수파〉〕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대중앞에서 히스테리와 야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네들에게 반드시 양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하고 쁠레하노브가 말하였다.

—그럴수도 있지요. 그러나 양보하더라도 보다 더한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만한 힘이 자기에게 보전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라고 내가 대답하였다.》(레닌의 편지가 인용된 《련맹대회 회의록에 대한 론평》, 37페지를 보라. (《레닌전집》, 한문판, 제7권, 181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레닌과 쁠레하노브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때로부터 쁠레하노브는 《소수파》의 편으로 넘어가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쁠레하노브가 《소수파》도 배반하고 어느덧 자기의 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의 일지》[20]를 간행하기 시작하였음을 알았다.

로 여기에 그들이 시비를 전도하는 근원이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얼마 지난 뒤였다. 그들은 《다수파》와 레닌을 반대하는 자기들의 선동에 대하여 유치한 약간의 사람들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것을 보았으며 《일》이 재미없이 되여감을 보고 한번 더 분장을 바꾸려고 결심하였다. 이 쁠레하노브와 이 마르또브와 악쎌로드는 1905년 3월 10일에 당총무위원회의 명의로 결정을 채택하였는데 거기에는 아래와 같이 씌여있다.

《동지들!〔그들은 《다수파》를 향하여 말하는것이다.〕… 량편〔즉 《다수파》와 《소수파》〕은 현존한 전술상 및 조직상의 의견상이가 그로 말미암아 통일된 당단체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을 불가능케 할 그러한 성질의것이 아니라는 신념을 한두번만 표현하지 않았다.》① 그렇기때문에 동지적재판(베벨 등을 성원으로 하고)을 소집하여가지고 크지도 않은 우리 론쟁을 일소해버리자는것이였다.

말하자면 당내의견상이는 분쟁에 불과한것으로서 동지적재판이 해결해줄것이며 우리는 통일된 전일체라는것이였다.

그러나 어떻게 그럴수 있는가? 《비맑스주의자》인 우리를 당단체에로 부르며 우리는 통일된 전일체라느니 뭐니 하다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소수파》의 수령들이여! 이것은 당신들측의 당에 대한 배반이 아닌가! 어찌 《비맑스주의자들》을 당의 지도자로 내세울수 있는가? 어찌 《비맑스주의자들》이 사회민주당내에 있을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맑스주의를 배반하였으며 그렇기때문에 진영을 바꾼것이나 아닌가?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을 기대하는것은 천진란만한 일일

---

① 신문 《이스크라》, 제91호, 제3면

것이다. 실상 이 훌륭한 수령들의 호주머니속에는 여러개의 《원칙》이 있어서 그들은 때를 맞추어 요구되는것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들은 그야말로 조석변개이다!…

소위 《소수파》의 수령들은 이러하다.

이러한 수령들의 추종자들인 이른바 찌플리스《소수파》가 어떠하리라는것은 쉽게 상상할수 있을것이다.… 때로는 머리가 시키는 말을 꼬리가 듣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것이 또한 난사이다. 례컨대 《소수파》의 수령들이 화평을 가능한것으로 인정하고 당일군들을 합의에로 부르는 때에 찌플리스《소수파》와 그 《사회민주주의자》지는 계속 울부짖어대며 《다수파》와 《소수파》와의 사이의 싸움은 《판가리싸움》①이니 우리는 서로 섬멸해야 할것이다라고 선언한다. 그야말로 각인각색이다!

《소수파》는 우리가 그들을 기회주의자(무원칙한자)라고 부른다고 불평을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한 말을 부인하는 한, 그들은 이편에서 저편으로 넘나드는 한, 그들은 항상 흔들리며 동요하고있는 한 어떻게 달리 이름지을수 있겠는가? 진짜사회민주주의자가 자기의 주견을 이렇게 자주 바꿀수 있는가? 손수건도 이렇게는 자주 바꾸지 않는것이다.

우리의 우환거리맑스주의자들은 《소수파》가 진짜무산계급적성격을 가졌다고 고집한다. 과연 그러한가? 어디 좀 보기로 하자.

카우쯔키는 《무산자는 쉽게 당적원칙으로 일관되며 순간적감정과 개인적 또는 국부적 리해관계에 사로잡히지 않는 원칙적정책에 뜻을 기울이는것이다.》②라고 말하고있다.

---

① 신문 《사회민주주의자》, 창간호를 보라.
② 《에르푸르트강령해석》, 중앙위원회판, 88페지

그러면 《소수파》는 어떠한가? 그들도 순간적감정 및 기타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러한 정책에 뜻을 기울이고있는가? 정반대로 그들은 자주 동요하며 언제나 흔들리며 튼튼한 원칙적정책을 증오하며 무원칙성을 좋아하여 순간적감정에 복종하고있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바이다.

카우쯔키는 무산자가 당적규률을 애호한다고 말하고있다. 《무산자는 그들이 고립된 개개인으로 남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힘과 진보에로의 자기의 모든 능력과 자기의 일체 기대와 희망을 조직에서 찾아낸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개인의 리익도, 개인의 영예도 그들을 유혹하지 못하는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감정과 모든 사상에 침투된 규률에 자원적으로 복종하며 자기에게 맡겨지는 모든 직책에서 자기의 과업을 수행하는것이다》.①

그러나 《소수파》는 어떠한가? 그들도 역시 규률로 침투되여있는가? 반대로 그들은 당의 규률을 무시하며 그것을 조소하고있다②. 당의 규률위반의 첫 실례는 《소수파》의 수령들이 보여주었다. 제2차당대회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은 악셀로드, 자쑬리치, 스따로웨르, 마르또브 및 기타 인물들을 회상하여 보라.

카우쯔키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지식인에게 있어서는 사태가 전혀 다르다.》 그는 자유의사에서가 아니라 강요에 의하여 아주 힘들게 당규률에 복종하는것이다. 《그는 규률의 필요성을 다만 대중에게 대해서만 승인하고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는다. 자기자신을 그는 물론 선

---

① 레닌의 《1보전진 2보후퇴》에서 카우쯔키의 이 구절이 인용되여있는 93페지를 보라.(《레닌전집》, 한문판, 제7권, 316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련맹대회회의록》을 보라.

발된 사람으로 친다.… 지식인의 리상적모범 즉 전적으로 무산계급적감정으로 충만되여있고…임명받은 임의의 직책에서 사업하며 자기를 전적으로 우리의 위업에 복종시키며 지식인들이 소수의 처지에 남아있게 될 때… 그들에게서 가끔 들을수 있는… 그 못난 비명을 멸시하는 그러한 지식인의 리상적모범은… 렙크네히트였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을 헤집고 첫자리에 나가서려고 하지 않았으며 국제당에서도 한두번만 소수의 처지에 남아있지 않았으나 규률에 가장 모범적으로 복종하여온 맑스를 여기에서 또 들수 있는것이다.》①

《소수파》는 어떠하였는가? 그들의 《무산계급적감정》이 어디에서 표현되였는가? 그들의 행동이 렙크네히트나 맑스의 행동과 비슷하기나 한가? 반대이다. 우리는 《소수파》의 수령들이 자기의 《나》를 우리의 신성한 위업에 복종시키지 않는것을 보았으며 바로 이 수령들이 제2차대회에서 《소수에 처하게 되였을 때》 《못난 비명》에 잠겨있던것을 보았으며 대회가 지난 뒤에 바로 그들이 《첫자리》때문에 아우성을 쳤으며 바로 이 자리때문에 당적분렬을 일으키는것을 보았다.…

존경하는 멘쉐위크들이여! 당신들의 《무산계급적성격》이란 그래 이것인가?

그러면 무엇때문에 어떤 도시들에서는 로동자들이 자기네 편에 서있는가고 멘쉐위크들은 우리에게 묻는다.

그렇다, 어떤 도시들에서는 로동자들이 《소수파》의 편에 서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 어떤 도시들의 로동자들이 수정주의자(독일에서는 기

---

① 레닌의 《1보전진 2보후퇴》에서 카우쯔키의 이 구절이 인용되여있는 93페지를 보라.(《레닌전집》, 한문판, 제7권, 316페지와 317페지를 보라.—편집자)

회주의자)의 뒤도 따라가고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아직 수정주의자의 립장이 무산계급적립장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이것은 그들이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는것을 의미하는것도 아니다. 한번 까마귀가 장미꽃을 만나보았다고 해서 까마귀가 꾀꼬리로 되였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쩌다 장미꽃을 얻은 까마귀
꾀꼬리된듯이 거만키 짝없네.

이것은 일리없는 말이 아니다.

* *
*

어떠한 기초우에서 당내의견상이가 발생하였는가 하는것이 이제는 명백하다. 보는바와 같이 우리 당내에는 두개의 경향 즉 무산계급적견결성의 경향과 지식인적동요성의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 지식인적동요성의 표현자가 바로 현재의 《소수파》이다. 쩌플리스《위원회》와 그 《사회민주주의자》지는 이 《소수파》의 유순한 노예이다!

여기에 문제의 전부가 있다.

실로 우리의 우환거리맑스주의자들은 가끔 자기들이 《지식인적심리》를 반대한다고 웨치면서 《다수파》에게 《지식인적동요성》의 죄를 들씌우려 하고있지만 이것은 돈을 훔치고 《도적이야!》 하고 소리치는 도적놈의 경우를 련상케 한다.

그리고 다 알다싶이 저마다 제가슴에 맺힌것을 입에 담는법이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깝까즈동맹위원회에서 1905년 5월에 소책자로 출판

원문은 그루지야어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권, 79~117페지

맑스주의와 민족문제[21]

로씨야에서의 반혁명시기는 《퇴성과 벽력》만을 초래한것이 아니라 또 운동에 대한 실망, 공동력량에 대한 불신임도 초래하였다. 사람들은 《밝은 미래》를 믿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을 가리지 않고 함께 투쟁하였다. 즉 공통한 문제가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던것이다! 그후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별로 각각 제집으로 헤여져가기 시작하였다. 즉 각자가 자신에만 의뢰하라는것이였다! 《민족문제》가 급선무였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는 경제생활의 중대한 변동이 일어나고있었다. 1905년은 헛되이 지나가지 않았다. 농촌에서의 농노제도의 잔재는 또 한번 타격을 받았다. 기근후의 여러해동안의 풍작과 그뒤를 이어 닥쳐온 산업의 앙양은 자본주의발전을 추진시켰다. 농촌에서의 분화와 도시의 장성, 상업 및 교통의 발전은 크게 전진하였다. 이것은 특히 변강지구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로씨야의 여러 민족의 경제적결합과정을 추진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민족들은 움직이지 않을수 없었다.…

이 시기에 수립된 《립헌제도》도 역시 민족들을 같은 방향에서 각성시키는 역할을 놀았다. 신문 및 전반 서적의 증가, 출판 및 문화기관의 약간의 자유, 민족극장의 증가 등등은 의심할바없이 《민족적감정》을 강화시켰다. 국회는 그 선거운동 및 정치적집단들과 함께 민족들이 활기를 띨 새로운 가능성을

주었으며 또 그 민족들이 동원될 새로운 광활한 무대를 열어 주었다.

그런데 우로부터 일어난 호전적민족주의의 파도와 변강지구들에서는 《자유를 애호한다》 하여 《권력자》들이 가한 허다한 탄압은 때때로 험상스러운 배외주의로 넘어가는, 밑으로부터의 민족주의적파도를 일으켰다. 유태인들사이에서의 시온주의[22]의 강화, 뽈스까에서의 장성하는 배외주의, 따따르인들사이에서의 범이슬람주의[23], 아르메니야인, 그루지야인, 우크라이나인들사이에서의 민족주의의 강화, 시정배들의 일반적반유태주의편향—이러한 모든것은 일반이 다 아는 사실들이다.

민족주의의 파도는 더욱더 세차게 일어나 로동자대중을 끌어넣을 추세를 보여주었다. 해방운동이 저락할수록 민족주의의 꽃은 더욱더 만발하였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사회민주당은 민족주의에 반격을 가하여 대중이 일반적《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방지할 고귀한 사명을 띠게 되였다. 왜냐 하면 사회민주당이, 오직 이 당만이 국제주의의 련마된 무기 즉 계급투쟁의 통일성 및 불가분리성을 민족주의에 대립시킴으로써 이 사명을 수행할수 있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주의의 파도가 세찰수록 로씨야의 모든 민족의 무산자들의 형제적친목과 통일을 부르짖는 사회민주당의 목소리는 보다 더 우렁차게 울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면에서 민족주의운동과 직접 접촉하고있는 변강지구의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는 특별한 견결성이 요구되였다.

그러나 모든 사회민주주의자가, 우선 변강의 사회민주주의자가 다 이 과업을 수행할수 있는것은 아니였다. 이전에는 공동적과업을 강조하던 분드[24]가 지금에 와서는 자기의 특수한 순 민족주의적인 목적을 선두에 내세우고있다. 지어 분드는 《안식일을 쉴것》과 《유태어를 시인할것》을 자기의 선거운

동의 전투적조항으로 성명하는데까지 이르렀다①. 깝까즈도 분드의 뒤를 따라갔다. 즉 이전에는 깝까즈의 다른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함께 《민족문화자치》를 부인하던 깝까즈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일부가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절박한 요구로 내세우고있다.② 민족주의적동요를 교묘하게 승인하여준 취소파 대표자회의25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③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민족문제에 대한 로씨야사회민주당의 견해는 아직도 모든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다 명백하게 알려져있는것은 아니다.

확실히 민족문제에 대한 진지하고도 전면적인 토의가 필요하다. 철저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민족주의적안개가 어디서 생겼든지간에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한결같이 꾸준히 사업하여야 한다.

1
민 족

민족(нация)이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보다도먼저 공동체, 사람들의 일정한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는 인종적공동체도 종족적공동체도 아니다. 현재의 이딸리아민족은 로마인, 게르만인, 에트루리아인, 희랍인, 아랍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프랑스민족은 갈리아인, 로마인, 브리텐인, 게르만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영국, 독일 및

---

① 《분드의 제9차대표자회의 문헌집》을 보라.
② 《8월대표자회의의 통보》를 보라.
③ 우와 같음.

기타의 민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이한 인종과 종족의 사람들로 이루어진것이다.

그러므로 민족이란 인종적공동체도, 종족적공동체도 아니며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동체인것이다.

다른 한편 쿠루슈제국 또는 알렉싼드르대제국은 비록 그 국가들이 력사적으로 형성되였으며 각이한 종족들과 인종들로써 형성되였다 하더라도 민족이라고 할수 없었던것은 의심할 바없는 일이다. 그들은 민족이 아니라 이런 또는 저런 정복자의 성패여하에 따라서 흩어지기도 하고 련합하기도 하는 우연하고도 잘 련결되지 못한 집단의 혼합체였다.

그러므로 민족이란 우연하고 일시적인 혼합체인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고한 공동체인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공고한 공동체이든지 다 민족을 이루는것은 아니다. 오지리나 로씨야도 역시 공고한 공동체였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것을 민족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민족적공동체는 국가적공동체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국가에 있어서는 공통어가 필수적인것은 아니지만 민족적공동체는 공통어 없이는 상상할수 없다. 오지리의 체스꼬민족과 로씨야의 뽈스까민족은 그들에게 각기 공통어가 없었더라면 민족이 되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렇지만 로씨야와 오지리의 전일성은 내부에 여러가지 언어가 존재한다고 해서 지장을 받지는 않는다. 물론 여기에서는 공식적관청용언어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민간회화용언어를 두고 말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물론 상이한 민족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한다거나 또는 같은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민족을 이룬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민족마다 공통한 언어를 가지고있지만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언어가

따른것은 아니다! 동시에 여러가지 언어로 말하는 민족은 없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언어로 말하는 두 민족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영국인과 북아메리카인은 동일한 언어로 말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민족이 아니다. 노르웨이인과 단마르크인에 대해서나 영국인과 아일랜드인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면 례컨대 영국인과 북아메리카인은 언어가 공통함에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하는가?

왜냐 하면 무엇보다도먼저 그들은 한곳에서 사는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기때문이다. 민족이란 장구하고도 정상적인 접촉의 결과로서만 그리고 사람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공동생활의 결과로서만 형성된다. 그런데 장구한 공동생활은 공통한 지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영국인과 아메리카인은 이전에는 한 지역인 영국에 살았으므로 한 민족을 이루었었다. 그후 영국인들의 일부가 영국으로부터 새 지역인 아메리카로 이주하였다. 그리하여 그 새 지역에서 그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새로운 북아메리카민족을 형성하였다. 각이한 지역은 각이한 민족을 형성시켰다.

그러므로 **지역의 공통성**은 민족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전부가 아니다. 지역의 공통성만으로써는 아직 민족을 이루지 못한다. 민족을 이루자면 그밖에도 민족의 개개의 부분을 하나의 전일체로 통일시키는 내부적, 경제적 련결이 요구된다. 영국과 북아메리카사이에는 이러한 련결이 없다. 그렇기때문에 이 량자는 두개의 상이한 민족을 이루고있다. 그런데 북아메리카인들자신도 북아메리카 각 지방이 그들사이의 분업, 교통의 발달 등등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전일체로 호상 련결되지 않았더라면 민족으로 불리우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루지야인들을 들어보자. 개혁전시기26의 그루지야인들은 공통한 지역에 살았으며 또 동일한 언어로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밀히 말한다면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하였다. 왜냐 하면 그들은 서로 떨어진 많은 제후국으로 갈라져있어서 공통한 경제생활을 할수 없었으며 여러세기를 내려오면서 페르샤인들과 토이기인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였으며 서로 파멸시키고있었기때문이다. 간혹 어떤 운수좋은 제왕이 달성한 그 제후국들의 일시적이고 우연한 통일은 기껏해서 표면적, 행정적 범위만을 포괄하였을뿐으로 그것은 제후들의 변덕과 농민들의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곧 깨여져버렸던것이다. 경제적으로 분산되여있는 그루지야에서는 달리는 될수도 없었던것이다.… 그루지야는 농노제도의 붕괴와 국내의 경제생활의 장성, 교통의 발달과 자본주의의 발생이 그루지야의 각 지방사이에 분업을 확립하여 마침내 모든 제후국들의 경제적고립성을 깨뜨리고 그것들을 하나의 전일체로 련결하여놓은 19세기 후반기에 와서야 비로소 민족으로서 나타났다.

봉건제도의 단계를 거쳐왔고 자국내에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다른 민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경제생활의 공통성, 경제적련결성은 민족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전부는 아니다. 우에서 말한 모든것이외에도 민족으로 련합되여있는 사람들의 정신적모습의 특성을 또한 고려에 넣어야 한다. 민족들은 그 생활조건에 따라서만 서로 구별되는것이 아니라 민족문화의 특성에 표현되는 정신적모습에 따라서도 서로 구별된다. 만일 영국, 북아메리카, 아일랜드는 동일한 언어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세개의 서로 다른 민족을 이루고있다면 여기에서는 생존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결과로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들에게 생겨진 그 독특한 심리적 성격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있는것이다.

물론 심리적성격자체나 또는 그것의 별칭인 《민족적성격》 자체는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포착할수 없는것으로 다타난다. 그러나 그것이 민족에게 공통한 문화의 특성에 표현되느니만큼 그것은 포착할수 있는것이며 또 무시할수 없는것이다.

《민족적성격》이란것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생활조건과 함께 변화하는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소여의 각 시기마다 존재하고있는 한 그것은 민족의 면모에다 자기의 락인을 찍어놓는다.

그러므로 문화의 공통성에 나타나는 심리적성격의 공통성은 민족의 특징중의 하나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민족의 모든 특징을 다 말하였다.

민족이란 언어, 지역, 경제생활의 공통성의 기초우에서 그리고 문화의 공통성에 나타나는 심리적성격의 공통성의 기초우에서 발생한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공동체이다.

여기에서 명백한것은 민족이란 역시 온갖 력사적현상과 마찬가지로 변화의 법칙에 따르며 자체의 력사, 시초와 종말이 있다는것이다.

상기 제 특징은 그 어느 하나든지 따로 떼여내서는 민족의 정의로서 불충분하다는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이 제 특징중에서 하나라도 결여한다면 민족이 민족으로 되지 못한다.

공통한 《민족적성격》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있다고 하자. 그렇지만 만일 그들이 경제적으로 분리되여있거나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살고있거나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거나 한다면 그들

은 한 민족을 이루고있다고 말할수 없을것이다. 그러한 실례로서는 로씨야, 갈리찌야, 아메리카, 그루지야 및 깝까즈산악지방의 유태인들이 있는데 우리의 의견에는 그들은 단일민족을 이루지 못한다.

지역 및 경제생활의 공통성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있다고하자. 그렇지만 그들은 언어의 공통성과 《민족적성격》의 공통성이 없이는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한것은 례컨대 발찌해연안변강에 사는 독일인들과 라뜨위야인들이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인들과 단마르크인들은 동일한 언어로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기타의 제 특징이 없으므로 한 민족을 이루지 않는다.

모든 특징이 함께 구비되여있을 때라야만 그것을 민족이라고 말하는것이다.

《민족적성격》은 민족의 특징중의 하나인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본질적인 특징이며 이여의 모든 특징들은 실은 민족의 발전의 조건을 이루는것이고 민족의 특징은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을것이다. 례컨대 오지리사회민주당의 민족문제리론가로서 알려져있는 에르.슈프링게르와 특히 오.바우에르가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있다.

그들의 민족리론을 고찰하여보자.

슈프링게르에 의하면 《민족이란 동일하게 사유하며 동일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동맹이다》. 민족은 《현대인간의 집단의 문화적공동체로서 〈지역〉과는 관계없는 공동체이다》.①(고시크체는 우리의것)

그런즉 그들이 아무리 서로 떨어져있든지간에 어디에 살고있든간에 동일하게 사유하며 동일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동맹》이란것이다.

---

① 에르 . 슈프링게르의 《민족문제》, 1909년 공익출판사판, 43페지를 보라.

바우에르는 이보다도 더 나아간다.

《민족이란 무엇인가?》 하고 그는 묻는다. 《그것은 사람들을 민족에로 통일시켜주는 언어의 공통성인가? 그런데 영국인들과 아일랜드인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한 민족은 아니며 유태인들은 전혀 공통한 언어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을 이루고있다.》①

그러면 민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민족이란 상대적인 성격의 공동체이다.》②

그런데 성격(이 경우에 있어서는 민족적성격)이란 무엇인가?

민족적성격이란 《한 민족의 사람들과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여러가지 특징의 총화이며 한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 특질의 총체이다》.③

바우에르는 물론 민족적성격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 아님을 알고있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첨부하여 말한다.

《사람들의 성격은 그들의 운명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지 다른것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은 아니다.》《…민족이란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운명의 공통성이다.》 그리고 이 운명의 공통성은 또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수단을 생산하며 그들의 로동생산물을 분배하는 조건들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④

이리하여 우리는 바우에르가 말하는 민족에 대한 가장 《완전한》 정의에 도달하였다.

《민족이란 운명의 공통성의 기초우에서 성격의 공통성에 의하여 련

---

① 오.바우에르의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 1909년 낫출판사판, 1~2페지를 보라.
② 우와 같은 책, 6페지
③ 우와 같은 책, 2페지
④ 우와 같은 책, 24~25페지

결된 사람들의 총체이다.》①

그런즉 운명의 공통성을 기초로 하는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지역, 언어 및 경제생활의 공통성과의 련결이 무시된 민족적성격의 공통성이란 말이다.

그렇다면 민족이란것에서 남는것이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서로 분리되여있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며 대대로 내려오면서 각이한 언어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민족적공통성이 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바우에르는 《유태인들은 전혀 공통한 언어가 없다.》②고 하면서도 그들은 민족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례컨대 서로 완전히 떨어져있고 서로 다른 령토에서 살고있고 또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루지야, 다게스딴, 로씨야, 아메리카의 유태인들에게 어떠한 《운명의 공통성》과 민족적련결이 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이상에 말한 유태인들은 의심할바없이 그루지야인들, 다게스딴인들, 로씨야인들, 아메리카인들과 공통한 경제적 및 정치적 생활을 하고있으며 그들과 공통한 문화적분위기속에서 살고있는것이다. 이 사정은 그 흔적을 그들의 민족적성격에 남기지 않을수 없다. 만일 그 유태인들에게 공통한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 공통한 기원, 약간의 민족적성격의 잔재일것이다. 이 모든것은 의심할바없는 일이다. 그런데 진부한 종교적의식이나 사라져가는 심리적잔재가 이상에 말한 유태인들의 《운명》에 대하여 그들이 처하고있는 현실적인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환경보다도 더 힘있게 영향을 끼친다고야 어찌 진지하게 말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다만 그와 같은 가정에

---

① 오.바우에르의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 1909년판 낫출판사, 139페지를 보라.

② 우와 같은 책, 2페지

서만 일반적으로 유태인들을 단일한 민족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우에르가 말하는 민족이란것이 유심론자들[27]의 신비적이며 독자적인 《민족정신》과 어떻게 다른가?

바우에르는 민족의 《특징》(민족적성격)과 그들의 생활《조건》과를 서로 분리시키면서 그 량자사이에 통할수 없는 간극을 지어놓는다. 그런데 민족적성격이란것은 생활조건의 반영이 아니고 무엇이며 주위환경에서 받은 인상의 응결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족적성격을 론할 때에 어찌 그 민족적성격을 산생시킨 지반으로부터 그것을 고립분리시키면서 한갓 그 민족적성격에만 국한할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북아메리카를 아직도 《뉴잉글랜드》라고 부르던 18세기말과 19세기초에 영국민족과 북아메리카민족이 어떻게 구별되였는가? 물론 민족적성격은 아니였던것이다. 왜냐 하면 북아메리카인들은 영국으로부터의 이민으로서 그들은 영어이외에 또 영국인의 민족적성격도 아메리카로 가지고갔던것이며 또 새 조건의 영향밑에서 필시 그들에게는 특수한 성격이 형성되기는 하였을것이나 그러나 물론 영국인의 민족적성격을 그처럼 속히 잃어버릴수는 없었기때문이다. 그리고 성격의 공통성이 많든적든간에 역시 그들은 그때에 벌써 영국인과는 다른 특수한 민족을 이루었던것이다! 그때에 민족으로서의 《뉴잉글랜드》인이 민족으로서의 영국인과 구별된것은 확실히 특수한 민족적성격에 의하여서가 아니였던것이다. 달리말하면 민족적성격이라기보다 영국인과는 다른 특수한 환경, 생활조건에 의하여 구별되였던것이다.

이로부터 볼수 있는바와 같이 실제에 있어서 다만 여러 특징들의 종화가 있을뿐 민족의 **유일한** 특징이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여러 민족을 비교할 때에는 그 특징중에서 한 특징

(민족적성격)이 일층 뚜렷하게 나설수도 있고 다른 특징(언어)이 일층 뚜렷하게 나설수도 있고 또 다른 특징(지역, 경제적 조건)이 일층 뚜렷하게 나설수도 있는것이다. 민족이란것은 이 모든 특징들의 결합체이다.

민족과 민족적성격을 동일시하는 바우에르의 견해는 민족을 그 지반과 분리시키며 그것을 어떤 보이지 않는 독자적인 힘으로 전화시키고있다. 결과 산 민족, 활동하고있는 민족이 아니라 신비적인, 포착할수 없는 비현실적인 어떤것이 되고만다. 묻건대(거듭 말하거니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며(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때문에) 지구상 각처에서 살고있으며 한번도 서로 만나지 못하며 평화시에나 전시에나 한번도 행동을 같이 할수 없는 그루지야, 다게스딴, 로씨야, 아메리카 및 기타 지방에 사는 유태인들로 이루어진 유태민족이란 어떠한것이겠는가?!

아니다. 사회민주당은 이와 같은 지상공문적인 《민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의 민족강령을 작성하는것은 아니다. 사회민주당은 활동하고있으며 운동하고있으며 그렇기때문에 민족으로 간주하지 않을수 없는 그러한 진정한 민족들만을 시인할수 있는것이다.

바우에르는 틀림없이 력사적범주인 민족과 인종학적범주인 종족을 혼동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바우에르자신도 아마 자기의 립론의 약점을 느끼고있는 모양이다. 자기 저서의 첫머리에서 유태인들을 단연코 민족이라고① 단언한 바우에르는 그 저서의 끝에 가서는 《대체로 자본주의사회는》 유태인들을 다른 민족들에게 동화시키면서 《그들〔유태인들〕로 하여금 민족으로서 보전되지 못하게

---

① 그의 책, 2페지를 보라,

한다.》①고 주장함으로써 그 견해를 수정하였다. 원인은 레컨대 체스꼬인들에게는 한곳에 모여사는 거주지방이 있으므로 바우에르의 견해에 의하면 그들은 민족으로서 보전될것이지만 《유태인들에게는 한곳에 모여사는 거주지방이 없다.》②는데 있는 모양이다. 간단히 말하면 원인은 지역이 없는데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추론하면서 바우에르는 민족자치가 유태인로동자들의 요구조건이 될수 없다는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다.③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특징중의 하나인 지역의 공통성을 부인하는 자기자신의 리론을 뜻밖에도 반박하여버렸다.

그러나 바우에르는 한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자기 저서의 첫머리에서 《유태인들은 공통한 언어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이루고있다.》④고 단호히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130페지에 이르자마자 방향을 변경하여가지고 《공통한 언어가 없이는 아무러한 민족도 있을수 없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⑤(고시크체는 우리의것)고 역시 단호하게 말하였다.

바우에르는 여기서 《언어는 인간이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⑥라는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와 동시에 그가 증명하려 하지 않은것까지 뜻밖에 증명하였다. 즉 언어의 공통성의 의의를 부인하는 그자신의 민족리론의 파탄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관념론적인 바늘실로 지어놓은 리론은 저절로 파탄되고말았다.

---

① 그의 책, 389페지를 보라.
② 388페지를 보라.
③ 396페지를 보라.
④ 2페지를 보라.
⑥ 130페지를 보라.
⑥ 우와 같은 책, 130페지

2
민 족 운 동

민족은 일반적인 력사적범주인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대 즉 자본주의가 상승하는 시대의 력사적범주이다. 봉건주의가 청산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은 동시에 사람들이 민족으로 형성되는 과정이다. 례컨대 서구라파에서의 사태가 그러하다.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이딸리아인 등은 봉건주의 적분산성을 타승하는 자본주의가 승리적으로 나아가고있을 때에 민족으로 형성되였다.

그런데 서구라파민족들의 형성은 동시에 그 민족들의 독립적민족국가로의 전화를 의미하였다. 영국 및 프랑스 등 민족들은 동시에 영국 등 국가들인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일랜드는 례외로 되여있으나 일반적정경을 변경하는것은 아니다.

동구라파에서의 사태는 약간 다르게 진행되였다. 서구라파에서는 민족들이 국가로 발전하였으나 동구라파에서는 다민족국가들 즉 몇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들이 형성되였다. 오지리-웽그리아제국, 로씨야가 그런 국가들이다. 오지리에서는 정치적면에서 가장 발달된 민족은 독일인이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오지리의 민족들을 국가로 통일시키는 사업을 담당하였다. 웽그리아에서는 국가조직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웽그리아내 여러 민족들의 핵심이였던 마쟈르인이였다. 웽그리아를 통일시킨것은 곧 그들이였다. 로씨야에서는 력사적으로 형성된 힘있고 조직된 귀족적군사관료배를 수위로 하고있던 대로씨야인들이 민족들을 통일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구라파에서는 사태가 이와 같이 진행되였다.

국가형성의 이 독특한 방법은 봉건제도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조건하에서만 그리고 자본주의가 그다지 발달하지 못하고 뒤로 밀리운 민족들이 미처 경제적으로 완전한 민족에로 결합되지 못한 조건하에서만 있을수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동구라파의 국가들에서도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상업과 교통이 날로 발전하고 대도시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민족들은 경제적으로 결합되여갔다. 뒤로 밀리웠던 민족들의 평온한 생활에 뛰여든 자본주의는 그 민족들을 흔들어깨워 그들을 활동하게 하였다. 출판물과 극장의 발전, 라이히스라트의 활동(오지리에서)과 국회의 활동(로씨야에서)은 《민족적감정》을 강화시켰다. 신흥지식인들은 《민족사상》에 감염되여 이와 같은 방향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뒤로 밀리웠다가 자립적생활에로 각성하여나가는 민족들은 이제는 독립적민족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였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나가는 길에서 국가의 관리에 나선지 이미 오랜 지배적민족들의 지도층으로부터의 매우 강력한 대항에 봉착하게 되였다. 그들은 늦었던것이다!…

오지리에서는 체스꼬인, 뽈스까인 등이, 웽그리아에서는 호르와쩌아인 등이 그리고 로씨야에서는 라뜨위야인, 리뜨와인, 우크라이나인, 그루지야인, 아르메니야인 등이 그렇게 민족으로 형성되고있었다. 서구라파에서는 례외로 되였던것(아일랜드)이 동구라파에서는 통례로 되였다.

서구라파에서는 아일랜드는 그 특수한 처지에 대하여 민족운동으로써 대답하였다. 동구라파에서의 각성한 민족들도 역시 그와 같이 대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동구라파의 청소한 민족들을 투쟁에로 충동한 사정은 이와 같이 형성되였다.

투쟁은 전 민족과 전 민족사이에서가 아니라 지배적민족의 지배계급과 뒤로 밀리운 민족의 지배계급과의 사이에 시작

되여 격화되였던것이다. 보통 피압박민족의 도시소자산계급이 지배적민족의 대자산계급에 대항하여 투쟁하든가(체스꼬인들과 독일인들) 피압박민족의 농촌자산계급이 지배적민족의 지주들에 대항하여 투쟁하든가(뽈스까에서의 우크라이나인들) 또는 피압박민족의 전체 《민족》자산계급이 지배적민족의 집권귀족층에 대항하여 투쟁하든가(로씨야에서의 뽈스까, 리뜨와, 우크라이나) 하였다.

자산계급이 곧 주역인물이다.

청소한 자산계급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은 시장이다.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며 다른 민족의 자산계급과의 경쟁에서 승리자로 되는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의》 《본민족》의 시장을 확보하려고 애썼다. 시장은 자산계급이 민족주의를 배우는 첫 학교이다.

그러나 문제는 통례로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배적민족의 반봉건-반자산계급적관료배는 《끌어들이고 내보내지 말라》[28]는 그들의 방법으로써 투쟁에 간섭한다. 이리하여 지배적민족의 자산계급은 그가 소자산계급이건 대자산계급이건간에 《보다 속히》 또 《보다 결정적으로》 자기의 경쟁자를 정복할 가능성을 얻게 된다. 《력량》은 하나로 련합된다. 그리하여 《이민족》의 자산계급을 구속하는 허다한 대책들, 나아가서는 탄압책까지 시작된다. 투쟁은 경제적령역으로부터 정치적령역으로 넘어간다. 이주자유의 제한, 언어사용의 제한, 선거권의 제한, 학교수의 축소, 종교활동의 구속 등등이 《경쟁자》의 머리우에 쏟아진다. 물론 이러한 대책들은 지배적민족의 자산계급의 리익만을 추구하는것이 아니라 또 말하자면 통치관료배의 특권계층의 목적도 추구하는것이다. 그러나 결과로 보아서는 그것은 전혀 차이가 없는것이다. 오지리-웽그리아제국에서나 로씨야에서나를 막론하고 자산계급과 관료배는 이

경우에 있어서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것이다.

여러 면으로 구속받는 피압박민족의 자산계급은 자연히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들은 자기자신의 일을 전 민족의 일인듯이 가장하면서 《본 민족 인민의 하층》에 향하여 호소하며 《조국》에 대하여 부르짖기 시작한다. 그들은 《조국》의 리익을 위하여… 《동포들》속에서 군대를 모집한다. 그런데 《하층》은 언제나 다 그 부르짖음에 응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그들도 그 자산계급의 기치를 중심으로 집합하는것이다. 그것은 우로부터의 탄압이 그들까지도 못견디게 하여서 그들속에서 불만을 일으키기때문이다.

민족운동은 이렇게 시작되는것이다.

민족운동의 힘은 그 민족의 광범한 층인 무산계급과 농민이 그 운동에 참가하는 정도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무산계급이 자산계급민족주의의 기치하에 나서는가 안 나서는가 하는것은 계급적모순의 발전정도여하에, 무산계급의 각성 및 조직성 여하에 달린다. 각성한 무산계급은 그자체의 시련을 겪은 기치가 있으므로 그들은 자산계급의 기치하에 들어설 필요가 없는것이다.

농민들로 말하면 그들이 민족운동에 참가하는것은 무엇보다도먼저 탄압의 성질여하에 달린다. 만일 탄압이 아일랜드에서처럼 《토지》의 리해관계를 저촉하기만 한다면 농민의 광범한 대중은 즉시 민족운동의 기치하에 나서게 된다.

다른 한편 례컨대 그루지야같은 곳에 다소라도 심각한 반로씨야적민족주의가 없는것은 무엇보다도먼저 거기에는 대중속에 그러한 민족주의를 낳게 할수 있는 로씨야지주나 혹은 로씨야대자산계급이 없기때문이다. 그루지야에는 반아르메니야적민족주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그곳에 또한 아르메니야의 대자산계급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튼튼하게 서지 못한 그루지

야의 소자산계급을 유린하여 그들로 하여금 반아르메니야적민족주의에로 나가게 하기때문이다.

이런 요인들의 여하에 따라서 민족운동은 혹은 갈수록 확대되여(아일랜드, 갈리찌야) 대중적성격을 띠게 되기도 하며 혹은 무의미한 말다툼이나 또는 본민족문자의 간판을 위한 《투쟁》에로 퇴화되여가면서(보헤미아의 약간한 소도시들) 사소한 충돌들로 변하기도 하는것이다.

물론 민족운동의 내용이 어디서나 동일할수는 없다. 그 내용은 전적으로 운동이 제기하는 각종 요구조건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아일랜드에서는 운동이 토지문제의 성격을 띠고있으며 보헤미아에서는 《언어문제》의 성격을 가지고있는것이다. 한곳에서는 공민평등권과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고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본민족》관리의 채용 또는 자기들의 국회의 설치를 요구하고있다. 각종 요구조건에는 일반적으로 민족을 특징짓는 여러가지 특징들(언어, 지역 등)이 발현되는 일이 종종 있다. 주목할만한것은 아무데서도 바우에르가 말하는 삼라만상적인 《민족적성격》에 대한 요구조건을 볼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알만한 일이다. 왜냐 하면 **단독으로** 떼여놓은 《민족적성격》이란것은 포착할수 없는것이며 또한 요트. 슈트라쎄르가 옳게 지적한바와 같이 《그것은 정치가가 어찌할수 없는것》①이기때문이다.

민족운동의 형태 및 성질은 대체로 이러하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자본주의상승시기의 민족투쟁은 자산계급들 호상간의 투쟁이다. 간혹 자산계급은 무산계급을 민족운동에 끌어넣는데 성공한다. 그렇게 되면 민족투쟁은 **외관상으로는** 《전 민족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러나 그것

---

① 그의 저서 《로동자와 민족》, 1912년판, 33페지를 보라.

은 오직 외관상으로만 그런것이다. 투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언제나 주로 자산계급에게 유익하며 자산계급에게 필요한 자산계급적투쟁인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산계급은 민족압박정책에 대항하여 투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이주자유의 제한, 선거권의 박탈, 언어사용의 제한, 학교수의 축소 등등의 탄압은 자산계급을 자극하는 정도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은 정도로 로동자들을 자극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압박민족들의 무산계급의 정신적힘의 자유로운 발전을 방해할수 있을따름이다. 따따르인로동자나 유태인로동자에게 집회에서나 강연시에 본 민족어를 쓰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학교를 폐쇄하는 한 그들의 정신적재능의 충분한 발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말할수도 없는것이다.

그리고 민족주의적탄압정책은 무산계급의 사업에 대하여 다른 방면으로도 위험한것이다. 그 정책은 광범한 층의 주의를 사회적문제, 계급투쟁의 문제로부터 민족문제에 즉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과의 《공통적》인 문제에 돌려놓는다. 그런데 이것은 《리해관계의 합치》에 대한 거짓설교, 무산계급의 계급적 리익의 말살 및 로동자들의 정신적노예화를 위하여 좋은 지반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민족의 로동자들을 단결하는 일에 큰 장애를 주게 된다. 뽈스까로동자들의 많은 부분이 지금까지도 자산계급민족주의자들의 정신적예속하에 남아있는것은 또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국제로동운동에서 멀어져있는것은 주로 《집권자》들의 오래전부터의 반뽈스까정책이 그와 같은 예속의 지반을 주며 그와 같은 예속으로부터의 로동자들의 해방을 곤난하게 만드는 까닭이다.

그런데 탄압정책은 이것에 그치는것이 아니다. 그 정책은 흔히 압박하는 《제도》로부터 민족들을 호상 살륙하도록 리간

하는 《제도》로, 살육하며 유린하는 《제도》로 넘어간다. 물론 후자는 어디에서나 또 언제나 가능한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곳에서는 즉 조보적자유도 없는 조건하에서는 흔히 놀랄만한 범위로 확대되여가면서 로동자들의 단결사업을 피와 눈물속에 침몰시킬 위험을 주고있다. 깝까즈와 로씨야남방에 적지 않은 실례가 있다. 《분할하여 통치하라》—이것이 리간정책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정책이 성공하는 날이면 무산계급에게 가장 큰 해독물로 되며 국내의 모든 민족들의 로동자들을 단결하는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로 된다.

그런데 로동자들이 관심하고있는것은 자기들의 동지들전체가 통일된 국제적대군으로 완전히 련합되는것이며 그들이 속히 또 완전히 자산계급의 정신적예속에서 벗어져나오는것이며 또 모든 민족의 형제들의 정신적력량이 완전히 또 자유롭게 발전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로동자들은 가장 교묘한 형태로부터 가장 조포한 형태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형태의 민족압박정책과 온갖 형태의 리간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으며 또 투쟁할것이다.

그러므로 각국의 사회민주당은 민족자결권을 주장한다.

자결권이라는것은 다시말하면 민족자체만이 자체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지 민족의 생활에 강제적으로 간섭하여 그들의 학교 및 기타의 시설들을 파괴하거나 그들의 풍속습관을 파괴하거나 그들의 언어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약화할 권리가 없다는것이다.

이것은 물론 사회민주당은 민족의 모든 풍습과 시설을 다 지지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사회민주당은 민족에 대한 폭압을 반대하여 투쟁할 때 다만 민족자체가 자체의 운명을 결정할수 있다는 권리만을 고수하며 그와 동시에 그 민족의 해로운 풍습과 시설에 대하여 반대선전을 함으로써 그

민족의 근로자층으로 하여금 해로운 풍습과 시설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가지게 한다.

자결권이라는것은 다시말하면 민족이 자기의 소원대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수 있다는것이다. 민족은 자치의 원칙에서 자기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련방적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완전히 분리할 권리가 있다. 민족에는 자주권이 있으며 모든 민족은 평등하다.

이것은 물론 사회민주당이 민족의 어떤 요구든지 다 지지하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민족은 지어는 옛제도로 돌아갈 권리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민주당이 해당 민족의 어느 기관의 이와 같은 결정에 찬동하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무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회민주당의 의무와 여러 계급으로 이루어져있는 민족의 권리—이것은 두개의 서로 다른 사정이다.

사회민주당은 민족자결권을 위하여 투쟁할 때 민족압박정책을 폐절하며 그 정책을 불가능하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들간의 투쟁의 지반을 제거하며 그 투쟁을 약화시키여 그 투쟁을 최소한도에 이르게 하는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바로 각성한 무산계급의 정책과 민족간의 투쟁을 심화시키며 확대하며 민족운동을 촉속시키며 격화시키려고 애쓰고있는 자산계급의 정책과의 본질적인 구별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각성한 무산계급은 자산계급의 《민족적》기치하에 설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바우에르가 내여놓은 소위 《진화적민족적》정책은 무산계급의 정책으로 될수 없다. 자기의 《진화적민족적》정책을 《현대로동계급》의 정책과 동일시하려는 바우에르의 시도①는 로동자들의 계급투쟁을 민족투쟁에 적응시키려

---

① 그의 저서 166페지를 보라.

는 시도이다.

그 본질에 있어서 자산계급적인 민족운동의 운명은 자연히 자산계급의 운명과 련결되여있다. 민족운동의 최후적종식은 다만 자산계급이 몰락되는 때에라야만 가능하다. 다만 사회주의의 세계에서만 완전한 평화가 수립될수 있다. 그러나 민족간의 투쟁을 최소한도에 이르게 하며 그 투쟁의 근원을 없애며 무산계급에 대하여 이 투쟁이 최대한도로 무해하도록 하는것은 자본주의의 범위내에서도 가능하다. 이 점은 스위스와 미국의 실례만으로도 증명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민주주의화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민족들에게 자유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주어야 한다.

3

문제의 설정

민족은 자체의 운명을 자유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민족은 다른 민족들의 권리는 물론 유린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론쟁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만일 민족의 대다수의 리익, 무엇보다도 무산계급의 리익을 고려한다면 민족은 바로 어떻게 자신의 일을 처리해야 할것이며 그 장래의 헌법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여야 할것인가?

민족은 자치적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분리할 권리까지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조건하에서든지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거나 자치나 분리가 어디서든지 또 언제든지 민족에게 즉 그 다수인 근로자층에게 유리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남깝까즈에 사는

따따르민족은 말하자면 자기들의 의회를 소집할수 있으며 자기들의 베크들과 마울라①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옛제도를 복구할수도 있으며 국가로부터의 분리를 결정할수도 있을것이다. 자결권의 조목에 의하여 그들은 이렇게 할 완전한 권리가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것이 과연 따따르민족의 근로자층에게 유리하겠는가? 사회민주당은 베크들과 마울라들이 대중을 이끌고 민족문제를 해결하는것을 무관심하게 보고있을수 있겠는가? 사회민주당은 그 일에 간섭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민족의 의사에 영향을 주어야 할것이 아닌가? 사회민주당은 따따르인대중에게 가장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제안을 내여놓아야 할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떠한 해결이 근로대중의 리익과 제일 합치되겠는가? 자치이겠는가, 련방이겠는가, 분리이겠는가?

이 모든것은 그 민족을 둘러싸고있는 구체적, 력사적 조건에 의하여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조건이라는것은 다른 모든것과 마찬가지로 변하는것이다. 따라서 소여의 시기에 있어서는 옳은 해결방법도 다른 시기에 있어서는 전혀 채납할수 없는것으로 될수 있다.

19세기중엽에 맑스는 로씨야령 뽈스까의 분리를 주장하였는데 그는 옳았었다. 왜냐 하면 그때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를, 그것을 파괴하는 보다 낮은 수준의 문화로부터 해방하는 문제가 서있었던 까닭이다. 당시에 이 문제는 리론상으로만, 학구적으로만 제기된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생활자체

---

① 베크는 남깝까즈, 중앙아세아 및 토이기 등 지구의 제후와 귀족 등 상층인사의 존칭이다. 마울라는 모씨야에서 이슬람교종교의식의 사회자를 가리킨다. --편집자

가운데서 제기되였었다.…

19세기말에 와서 뿔스까맑스주의자들은 뿔스까의 분리를 반대하였는데 그들도 역시 옳았었다. 왜냐 하면 최근 50년간에 로씨야와 뿔스까의 경제적 및 문화적 접근면에 심각한 변동이 일어났기때문이다. 그뿐만아니라 그동안에 분리에 대한 문제는 실천적인 문제로부터 국외의 지식인들이나 격동시킬뿐인 학구적론쟁의 대상으로 전화하여버렸던것이다.

이것은 물론 뿔스까의 분리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일정에 오를수 있는 일정한 내부적 및 외부적 정세가 출현할 가능성을 제외하는것은 아니다.

이로부터 민족문제의 해결은 오직 발전하고있는 력사적조건과의 련관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소여의 민족을 둘러싸고있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조건들이 바로 그 민족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처리해야 하겠는가, 그들의 장래헌법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여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유일한 관건이다. 이에 따라서 각 민족마다 문제의 특수한 해결이 요구될수 있다. 만일 문제의 변증법적설정이 어디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에 즉 민족문제에 필요한것이다.

그러므로 분드에게서 나온것으로서 널리 전파되여있으나 아주 피상적인 민족문제《해결》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히 반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오지리사회민주당과 남슬라브사회민주당①이 민족문제를 이미 해결하였으니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 당들의 민족문제해결을 그저 모방해내야 한다는 그러한 경솔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것이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오지리에서 옳은것은 모두 로씨야에서도 옳다고

---

① 남슬라브사회민주당은 오지리남부에서 사업하고있다.

생각한다. 그들은 이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것이 즉 전반 로씨야의 구체적력사조건 특히 로씨야령역내에 있는 각개 민족의 생활상의 구체적력사조건을 망각하고 있다.

례로서 일반이 다 아는 분드파의 웨. 교쏩스끼의 말을 들어보자.

《분드파의 제4차대회에서 문제의 원칙적면을 토의할 때에〔민족문제를 말하는것이다. —이. 쓰딸린〕 대회의 참석자 한사람이 남슬라브사회민주당의 결정서의 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는데 그 해결책은 만장의 찬성을 받았다.》①

그 결과에 민족자치…를 《대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그뿐이다! 로씨야의 현실을 분석하지도 않고 로씨야에 사는 유태인들의 생활조건을 구명하지도 않고 먼저 남슬라브사회민주당의 해결방법을 차용하고 다음에는 《찬성하고》 그다음에는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던것이다》! 분드파는 로씨야의 민족문제를 이렇게 설정하고 《해결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오지리와 로씨야의 조건은 전혀 다르다. 따라서 브륜(1899년)[29]에서 남슬라브사회민주당결정서의 정신으로 민족강령을 채택한(약간의 사소한 수정을 가한것은 사실이지만) 오지리사회민주당이 말하자면 전혀 비로씨야적으로 문제를 취급하였으며 또 물론 그것을 비로씨야적으로 해결하였다는것은 곧 이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우선 문제의 설정을 보자. 민족문화자치를 주장하는 오지리리론가들이며 브륜민족강령과 남슬라브사회민주당의 결정서의 해설자들인 슈프링게르와 바우에르는 어떻게 문제를 세우

---

① 웨.교쏩스끼의 《민족문제》, 1907년판, 16~17페지를 보라.

는가?

슈프링게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다민족의 국가가 있을수 있겠는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지리의 여러 민족이 부득이 한개의 정치적전일체를 형성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는 여기에서는 대답하지 않고 남겨둔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는 해결된것으로 간주한다. 상술한 가능성과 필연성을 인정하지 않는자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연구는 물론 근거없는것이 될것이다. 우리의 론제는 즉 소여의 민족들은 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과 어떤 법적형태가 그들에게 가장 잘살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되겠는가 하는것이다.》(고시크체는 슈프링게르의것)①

요컨대 오지리의 국가적전일성이 출발점으로 되여있다.

바우에르도 역시 같은 말을 한다.

《우리는 오지리의 여러 민족이 지금 살고있는 그 국가적동맹에 남아있으리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맹범위안에서 민족들의 호상관계는 어떠할것이며 그들전체의 국가에 대한 관계는 어떠할것인가고 묻는다.》②

역시 오지리의 전일성이 첫째이다.

로씨야사회민주당은 문제를 이와 같이 설정할수가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 그것은 로씨야사회민주당은 민족으로 하여금 분리할 권리를 가지게 하는 민족자결을 처음부터 주장하고있기때문이다.

분드파의 골드블라트조차 로씨야사회민주당 제2차대회[10]에서 로씨야사회민주당은 자결의 견해를 포기할수 없다는것을 시인하였다. 그때에 골드블라트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자결권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대할수 없는것이다. 만일 어떤 민족

---

① 슈프링게르의 《민족문제》, 14페지를 보라.
② 바우에르의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 399페지를 보라.

이 독립을 위하여 투쟁한다면 그를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뿔스까가 로씨야와 〈합법적결혼〉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모두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오지리사회민주주의자와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의 출발점은 동일하지 않을뿐만아니라 도리여 정반대라는것이다. 이러한 이상 오지리인들에게서 민족강령을 차용해올수 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오지리인들은 《각 민족의 자유》를 미소한 개량의 방법으로 느린 걸음으로 실현하려고 생각하고있다. 그들은 민족문화자치를 실천적대책으로서 제의하면서 근본적변경, 그들의 전망에 들어있지 않는 민주주의적해방운동은 전혀 예기되지 않고있다. 그렇지만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은 개량을 예기할 근거가 없으므로 《각 민족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가능한 근본적변경 및 민주주의적해방운동과 련결시키고있다. 그런데 이것은 로씨야에 있는 민족들에게 가능한 운명의 견지로 보아서 사태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것이다.

바우에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물론 민족자치가 중대한 결정의 결과로 용감하고 단호한 행동의 결과로 생기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것이다. 오지리는 한걸음한걸음 더디고도 괴로운 과정을 밟아 곤난한 투쟁을 하여가면서 민족자치로 향해 나가게 될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으로 말미암아 법법과 행정은 만성적마비상태에 빠지게 될것이다. 아니다. 중요한 법법적문헌으로써가 아니라 각 지방과 각 공동체를 위하여 제정하는 개개의 법률을 많이 제정하는것으로써 새로운 국가적-법률적 제도가 수립될것이다.》①

슈프링게르도 역시 그와 같이 말한다.

---

① 바우에르의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 422페지를 보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이런 시설들〔민족자치의 기관들.—이. 쓰딸린〕이 한해동안이나 10년동안에 창설되는것이 아님을 잘 안다. 프로씨아의 행정기관 하나만을 재조직하는데도 장구한 시일을 요하였던것이다.… 프로씨아에서는 그 기본적행정기관을 완전히 수립하는데 20년이 걸렸다. 그러므로 오지리가 이것을 하는데 얼마마한 시일이 필요하며 얼마마한 난관에 봉착하겠는가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①

이 모든것은 아주 명백하다. 그런데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은 민족문제를 《용감하고 단호한 행동》과 련결시키지 않을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부분적개량이나 《개개의 법률을 많이 제정하는것》을 《각 민족의 자유》의 전취방법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대할수 있겠는가? 그들이 이렇게 할수 없으며 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면 이로부터 오지리인들과 로씨야인들의 투쟁방법과 전망은 전혀 다르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이러한 형편에서 어떻게 오지리인들의 일면적이고 중도반단적인 민족문화자치에 국한할수 있겠는가? 두가지중에서 하나일것이다. 즉 차용론자들이 로씨야에서 《용감하고 단호한 행동》을 예기하지 않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것을 예기하지만 《무엇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있든가일것이다.

마지막으로 로씨야와 오지리 앞에는 전혀 상이한 당면과업이 나서고있다. 그러므로 민족문제의 해결방법도 서로 다르게 된다. 오지리는 의회제도의 조건밑에서 살고있는만큼 거기에서는 의회 없이는 현하조건에서는 발전할수가 없다. 그러나 오지리의 의회생활과 법률제정은 흔히 민족적당들의 격심한 충돌로 인하여 완전히 중지되고있다. 오지리가 오래전에 걸린

---

① 슈프링게르의 《민족문제》, 281~282페지를 보라.

그 만성적정치위기병은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이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는 민족문제는 정치생활의 중심으로, 존망의 문제로 되여있다. 그러므로 오지리사회민주당정치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충돌문제를 현존하는 의회제도의 기초우에서 의회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있는것은 놀랄 일이 아닌것이다.…

로씨야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첫째로 로씨야에는 《다행히도 의회가 없다》.[30] 둘째로—이것은 또한 주요한것인데—로씨야의 정치생활의 중심은 민족문제인것이 아니라 토지문제이다. 그러므로 로씨야문제의 운명, 즉 민족《해방》의 운명은 로씨야에서는 토지문제의 해결, 즉 농노제도잔재의 청산 다시말하면 나라의 민주주의화와 련결되고있다. 이것으로써 곧 로씨야에서는 민족문제가 독립적이며 결정적인 문제로 나서는것이 아니라 나라를 해방하는 총적이고 보다 중요한 문제의 한 부분으로 나선다는것이 설명된다.

슈프링게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지리의회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것은 개량이 있을 때마다 민족적당들의 내부에서 그 만결을 파괴하는 모순이 발생하기때문에 그 정당들의 수령들이 개량의 냄새가 나는 모든것을 애써 회피하고있다는 그 사실에 의하여 초래되였을따름이다. 오지리의 진보는 오직 여러 민족들에게 필수적인 법적지위를 주는 경우에 있어서만 생각할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의회안에다 상비적 전투부대들을 보존하여둘 필요가 없게 할것이며 또 경제적 및 사회적 과업을 해결함에 착수할 가능성을 그들에게 주게 될것이다.》①

바우에르도 역시 같은 말을 하였다.

《민족적평화는 무엇보다도먼저 국가에 필요하다. 국가는 그야말로

---

① 슈프링게르의 《민족문제》, 36페지를 보라.

무의미한 언어문제로 인하여, 어느 민족적경계에서 일어나는 홍분한 사람들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하나의 새 학교로 인하여 법법행위가 중지되는것을 전혀 용인할수 없다.》①

이 모든것은 아주 명백하다. 그러나 로씨야에서는 민족문제가 전연 달리 서있다는것도 아주 명백하다. 로씨야에서는 민족문제가 아니라 토지문제가 진보의 운명을 결정하는것이다. 민족문제는 종속적문제이다.

이와 같이 문제의 설정이 각각 다르며 전망과 투쟁방법이 각각 다르며 당면과업이 각각 다르다. 이러한 형편에서 오지리를 본받으며 강령을 차용해오는것을 일삼는다는것은 다만 공간과 시간을 떠나서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지상공론가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거듭 말하거니와 구체적력사적조건이 출발점이며 문제의 변증법적설정이 유일하게 옳은 설정이다. 이와 같은것이 곧 민족문제의 해결의 관건이다.

4
민 족 문 화 자 치

우에서 우리는 오지리민족강령의 형식면을 론하였으며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이 그저 오지리사회민주당에서 본을 받아가지고 그 강령을 자기들의 강령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그 방법론적근거를 론하였다.

이제는 이 강령의 본질을 말하여보자.

그러면 오지리사회민주당의 민족강령은 어떠한것인가?

---

① 바우에르의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 401페지를 보라.

그 강령은 민족문화자치라는 한마디로 표현된다.

이것은 첫째로 자치를 주되 례컨대 주로 체스쯔인들이나 뽈스까인들이 거주하고있는 체스쯔나 또는 뽈스까에 주는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지리의 어느 지방에 거주하고있든지간에 지역에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체스쯔인들과 뽈스까인들에게 자치를 준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렇기때문에 이 자치는 지역자치라고 부르지 않고 **민족자치**라고 부른다.

이것은 둘째로 오지리의 방방곡곡에 널려있는 체스쯔인들, 뽈스까인들, 독일인들 등등이 한사람한사람 개별적으로 모여서 전일적인 민족에로 조직되고있다는것, 또 그런 민족으로서 오지리국가의 구성부분에 가입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오지리는 이런 경우에는 자치지방들의 동맹이 될것이 아니라 지역에 관계없이 구성된 자치민족들의 동맹이 될것이다.

이것은 셋째로 이러한 목적으로 뽈스까인들, 체스쯔인들 등등을 위하여 건설되여야 할 전 민족적 시설이 《정치적》문제를 취급하게 될것이 아니라 다만 《문화적》문제만을 취급하게 되리라는것을 의미한다. 순 정치적인 문제들은 전 오지리의회(라이히스라트)에 집중될것이다.

그러므로 이 자치는 또한 **문화자치**, 민족문화자치라고 부른다.

오지리사회민주당이 1899년에 브륜대회에서 채택한 강령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①

이 강령은 《오지리에서의 민족적갈등은 정치적진보를 방해

---

① 이 강령을 찬성하여 남슬라브사회민주당의 대표자들도 투표하였다. 《브륜당대회에서의 민족문제에 대한 토론》, 1906년판, 72페지를 보라.

한다》는것, 《민족문제의 종국적해결은…무엇보다도 문화상의 필수조건》이라는것, 《이 문제의 해결은 다만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선거권의 기초우에 건설된 진정한 민주주의적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것을 지적하고나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있다.

《오지리의 여러 민족의 민족적특성①을 보존발전시키는것은 다만 완전한 평등권이 있고 온갖 압박이 없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먼저 국가의 관료주의적중앙집권제와 개별적령지의 봉건적특권이 반드시 배격되여야 한다.

이런 조건하에서, 다만 이런 조건하에서만 오지리에서는 민족들의 분쟁 대신에 민족적질서가 바로 다음과 같은 원칙우에 수립될수 있다.

1. 오지리는 반드시 민족들의 민주주의적동맹인 국가로 재조직되여야 한다.

2.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제후령지 대신에 민족적으로 다뉘여진 자치적집단들이 조직되여야 하며 그 각 집단에서의 립법권과 행정권은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투표의 기초우에서 선거된 민족의회들의 수중에 장악되여야 한다.

3. 동일한 민족의 자치지방들이 단일한 민족동맹을 형성하며 그 동맹은 자기의 민족사업을 완전히 자치적으로 결정한다.

4. 소수민족들의 제 권리는 제국의회에서 발포하는 특별법령으로써 보장된다.》

강령은 오지리의 모든 민족들을 련대성에 호소하는것으로써 끝을 맺고있다.②

이 강령에 《지역주의》의 약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는것은

---

① 엠. 파닌의 로씨야문번역본에는 《민족적특성》이라는 말 대신에 《민족적개성》이라고 되여있다(파닌이 번역한 바우에르의 저서를 보라). 파닌은 이 말을 잘못 번역하였다. 독일어 원문에는 《개성》이라는 말이 없다. 거기에는 《nationalen Eigenart》 즉 민족적특성이라고 되여있는데 이것은 결코 《민족적개성》과 동일하지 않다.

② 1899년 브륜 《당대회의사록》을 보라.

보아내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은 민족자치에 대한 강령이다. 민족문화자치의 첫 선전자인 슈프링게르가 이 강령을 기쁨으로 맞이하는것은 리유없는 일이 아니다.① 바우에르도 역시 이 강령을 민족자치의 《리론적승리》②라고 칭하면서 이 강령에 찬동한다. 다만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그는 학교 및 기타의 문화사업을 꾸려나갈 목적으로《각 자치지방의 내부에 있는 각 소수민족을 공법적집단에로 조직》할 필요를 말하는 일층 명확한 조문으로써 제4항을 바꾸라고 제의하고있을뿐이다.③

이와 같은것이 오지리사회민주당의 민족강령이다.

그 강령의 과학적근거를 고찰하여보자.

오지리사회민주당은 그가 설교하는 민족문화자치를 어떻게 론증하는가를 고찰하여보자.

민족문화자치의 리론가인 슈프링게르와 바우에르의 견해를 들어보자.

민족이란것은 일정한 지역과 관계없는 개인들의 동맹이라는 개념이 민족자치의 출발점이다.

슈프링게르의 견해에 의하면《민족이란 지역과는 아무런 본질적관련도 없다. 민족이란 자치적인 개인적동맹이다》.④

바우에르도 역시 민족이란것은《어떤 일정한 지방에서 독점적지배권을 가지고있지 않는》《개인적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다.⑤

---

① 슈프링게르의《민족문제》, 286페지를 보라.
②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 549페지를 보라.
③ 우와 같은 책, 555페지를 보라.
④ 슈프링게르의《민족문제》, 19페지를 보라.
⑤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 286페지를 보라.

그러나 한 민족의 사람들은 언제나 꼭 한곳에 집중하여 살고있는것은 아니다. 그들은 종종 많은 집단으로 나뉘여져서 다른 민족적유기체속에 끼여들기도 하는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그들을 품팔이하도록 각 지방과 각 도시로 몰아내기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민족이 사는 지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소수를 이루고있는 이러한 집단들은 언어, 학교 등 면에서 그 지방의 다수민족에게서 구속을 받게 된다. 이로부터 민족적충돌이 생긴다. 이로부터 지역적자치의 《무용성》이 증명된다. 슈프링게르나 바우에르의 견해에 의하면 이런 형편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은 국내의 각 지방에 널려있는 이러한 소수민족들을 각 계급을 망라하는 공통적인 한개의 민족동맹으로 조직하는데 있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오직 이와 같은 동맹만이 소수민족의 문화적리익을 수호할수 있으며 오직 그것만이 민족적분쟁을 제거할수 있다.

슈프링게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족들에게 옳은 조직체를 주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게 하여야 한다.…》① 물론 《법률을 제정하기는 쉬운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은 소기의 효력을 내고있는가?…》. 《민족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려면 무엇보다도먼저 민족자체를 이루어놓아야 할것이다.…》② 《민족을 이루지 않고는 민족의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민족적분쟁을 제거한다는것은 불가능한것이다.》③

바우에르도 《로동계급의 요구》를 구실로 《개인적원칙의 기초우에서 각 소수민족을 공법적집단에로 조직할것》을 제의하면서 역시 그와 같은 의미로 말하고있다.④

---

① 《민족문제》, 74페지를 보라.
② 우와 같은 책, 88~89페지
③ 우와 같은 책, 89페지
④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 552페지를 보라.

그런데 민족을 어떻게 조직할것인가? 어떤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하는가 하는것을 어떻게 결정할것인가?

슈프링게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족등록부에 의하여 어느 민족에 속하는가를 결정한다. 지방에 사는 사람은 각자가 자기는 어느 민족에 속하여있는가를 반드시 언명하여야 한다.》①

바우에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개인적원칙은 성년공민들의 자유언명을 기초로 하여… 주민이 민족별로 구분되는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각 민족의 민족등록부를 만들어놓아야 할것이다》.②

그다음,

바우에르는 계속하여 말한다. 《단일민족지구의 모든 독일인들, 다음으로는 잡거지구의 각 민족의 민족등록부에 등록되여있는 모든 독일인들은 독일민족을 이루며 그리하여 민족평의회를 선거한다.》③

체스꼬인, 뽈스까인 등에 대해서도 역시 그와 같이 말하여야 할것이다.

슈프링게르에 의하면 《민족평의회란것은 민족문화의회로서 이 의회에 민족학교사업과 민족적 문학, 예술, 과학의 보호에 대한 또는 대학, 박물관, 미술품전시관, 극장의 설립에 대한 원칙을 제정하며 또 그 사업에 요구되는 경비를 비준하는 등등의 의무가 부여된다》.④

이러한것이 민족의 조직체이며 민족의 중앙기관이다.

바우에르의 견해에 의하면 오지리사회민주당은 각 계급을 망라하는 이러한 기관들을 설치함으로써 《민족문화를…전 민족의 소유로 만들며 그리하여 이와 같은 유일하게 가능한 방

---

① 《민족문제》, 226페지를 보라.
②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 368페지를 보라.
③ 우와 같은 책, 375페지
④ 《민족문제》, 234페지를 보라.

법으로써 민족의 모든 성원을 민족문화공동체에로 결속시키기에》① 노력한다는것이다.(고시크체는 우리의것.)

이 모든것은 오지리에만 관계되는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바우에르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민족자치는 오지리와 같이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여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것을 결정적으로 주장하고있다.

바우에르의 견해에 의하면 《유산계급들의 민족정책에, 다민족국가에서의 주권전취정책에 모든 민족의 무산계급은 민족자치에 대한 자기의 요구를 대립시켜야 한다.》②

다음에는 민족자결을 민족자치로 슬그머니 바꾸어놓으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여 말한다.

《이처럼 민족자치, 민족자결은 불가피적으로 다민족국가에서 사는 모든 민족의 무산계급의 립헌적강령으로 된다.》③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그는 그와 슈프링게르에 의하여 《규정》된 각 계급을 망라하는 《민족동맹》이 미래의 사회주의사회의 어떤 원형이 될것이라고 깊이 믿고있다. 왜냐 하면 그는 《사회주의적사회제도는… 인류를 민족적으로 나눈 여러 단체로 갈라놓으리라는것》④, 사회주의하에서는 《인류가 여러 민족자치단체로 나뉘게》⑤ 되리라는것, 이와 같이 하여 사회주의사회는 의심할바없이 개인적인 민족적동맹들과 지역적집단들의 울긋불긋한 화폭을 이루리라는것》⑥, 따라서 《민족에 대한 사회주의적원칙은 민족원칙 및 민족자치의

---

①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 553페지를 보라.
② 우와 같은 책, 337페지
③ 우와 같은 책, 333페지
④ 우와 같은 책, 555페지
⑤ 우와 같은 책, 556페지
⑥ 우와 같은 책, 543페지

최고종합체가 된다는것》①을 알고있기때문이다.

아마 이만하면 충분할듯하다.…

이와 같은것이 바우에르와 슈프링게르의 저서에 나타난 민족문화자치에 대한 론증이다.

무엇보다도먼저 눈에 뜨이는것은 민족자결을 민족자치로 바꾸어놓은것인데 이것은 도무지 리해할수 없는것이며 또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는것이다. 두가지중의 하나이다. 즉 혹은 바우에르가 민족자결을 리해하지 못하였다든가 혹은 리해하고도 어째서인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축소시켰다든가 한것이다. 왜냐 하면 (1) 민족문화자치는 다민족국가의 전일성을 전제로 하는것이지만 자결은 그런 전일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2) 자결은 일체 권리를 민족에게 넘겨주는것이지만 민족자치는 《문화적》권리만을 넘겨준다는것은 의심할바없는 일이기때문이다. 이것이 첫째이다.

둘째로는 장래에 있어서 어떤 민족이 다민족국가로부터 (례컨대 오지리로부터) 탈리하려고 할 내외정세의 결합이 완전히 있을수 있는것이다. —루쎈사회민주주의자들은 브륜당대회에서 자기 민족의 《두 부분》을 한개의 단일체로 련합하려고 한다는것을 성명하였었다.② 그때에 《모든 민족의 무산계급에게 불가피적인》 민족자치는 어찌하겠는가? 민족들을 국가의 전일성이라는 테두리에 기계적으로 틀어넣은 이것이 무슨 문제《해결》이란 말인가?

다음으로 민족자치는 민족발전의 전 행정에 모순된다. 민족자치는 민족을 조직하는 구호를 내놓는다. 그러나 실생활과 경제적발전이 그 민족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분리시켜가지고

---

①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 542페지를 보라.
② 《브륜당대회에서의 민족문제에 대한 로론》, 48페지를 보라.

여러 지방에 흩어놓는데야 어찌 그들을 인위적으로 결속시킬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의 첫단계에 있어서 민족이 결속되는것은 의심할바없는 일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높은 단계에 있어서 민족들이 흩어지는 과정, 민족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리하여 생계를 찾아나가며 다음에는 국내의 다른 지방으로 아주 이주하는 과정이 시작되는것도 의심할바없는 사실이다. 여기에 있어서 이주자들은 이전의 련계를 잃어버리고 새 지방에서 새 련계를 맺으며 대대로 내려가면서 새 풍습과 새 취미를 습득하며 어찌하면 새 언어까지도 습득할수 있는것이다. 묻노니, 호상 고립하여있는 이러한 집단을 통일된 민족적동맹에로 결속시킬수 있겠는가? 통일시킬수 없는것을 통일시키는 그러한 기적적인 고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례컨대 발찍해연안의 독일인과 남깝까즈의 독일인들을 《한 민족으로 결속시킬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만일 이러한 모든것이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며 불가능한 일이라면 이 경우에 이 민족자치는 력사의 바퀴를 역전시키려고 애쓰던 이전의 민족주의자들의 공상과 다른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민족의 통일은 다만 이주로 인해서만 사라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내부에서 계급투쟁이 첨예화하는것으로 인해서도 사라진다. 자본주의의 첫단계에 있어서는 아직도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의 《문화적공통성》을 말할수 있다. 그러나 대공업이 발전되고 계급투쟁이 첨예화함에 따라서 이런 《공통성》은 소멸되기 시작한다. 독일민족내에서 경영주와 로동자가 서로 리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민족의 《문화적공통성》에 대해서는 운운할수도 없다. 자산계급은 전쟁을 갈망하고 무산계급은 《전쟁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때에 무슨 《운명의 공통성》을 운운할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정반대되는 요소들로써 각 계급들을 포괄하는 통일된 민족동맹을 조직할수 있

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모든 성원을 민족문화공동체에로 결속시킨다.》①고 말할수 있겠는가? 이로부터 민족자치가 계급투쟁의 전 행정에 모순된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그러나 《민족을 조직하라》는 구호가 실현될수 있는 구호라고 잠시 가정하여보자. 선거표를 더 얻기 위하여 민족을 《조직》하려고 애쓰고있는 자산계급민족주의적의원들이라면 그래도 리해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언제부터 민족을 《조직하는 일》, 민족을 《구성하는 일》, 민족을 《창조하는 일》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는가?

계급투쟁이 극히 첨예화하고있는 시기에 있어서 각 계급들을 포괄하는 민족동맹을 조직하고있는자들이 무슨 사회민주주의자들이란 말인가? 지금까지 오지리사회민주당은 다른 모든 사회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무산계급을 조직할 한가지 과업을 가지고있다. 그런데 이 과업은 아마 《낡아버린》 모양이다. 그래서 슈프링게르와 바우에르는 민족을 《창조하며》 《조직할》 일층 흥미있는 《새》 과업을 제우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론리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즉 민족자치를 접수한자는 반드시 그 《새》 과업도 접수하여야 할것인데 이 《새》 과업을 접수한다는것은 곧 계급적립장에서 물러서서 민족주의의 길에 들어선다는것을 의미한다.

슈프링게르와 바우에르의 민족문화자치란 교묘한 형태의 민족주의이다.

그런데 오지리사회민주주의자들의 민족강령이 《여러 민족의 민족적특성을 보존발전시키는것》에 대하여 배려할 의무를 부담시키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생각만이라도 하여

---

① 바우에르의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 553페지를 보라.

보라! 남깝까즈에 사는 따따르족이 《샤흐쎄이-와흐쎄이》라는 명절31날에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것과 같은 그런 《민족적특성》을 《보존》한다는것을! 그루지야인들의 《복수권》과 같은 그런 《민족적특성》을 《발전》시킨다는것을!…

이와 같은 조항은 빤박이자산계급민족주의강령에나 있을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와 같은 조항이 오지리사회민주당의 강령에 있다면 그것은 민족자치란것이 이러한 조항들을 용인하기 때문이며 민족자치가 이러한 조항들에 모순되지 않기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사회에서 부적당한 민족자치는 미래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일층더 부적당할것이다.

《인류를 민족적으로 구분된 여러 집단들로 갈라놓는다.》① 는 바우에르의 예언은 현대인류의 발전의 전 행정에 의하여 반박되고있다. 민족적장벽은 공고하여지는것이 아니라 파괴되여가고있으며 무너져가고있다. 맑스는 일찌기 19세기 40년대에 이렇게 말하였다. 《각국 인민들간의 민족적 격리와 대립은 점점 더 소멸되고있다.》 《무산계급의 통치는 이 상태의 소멸을 더욱더 촉진시킬것이다.》② 인류의 그후 발전과 자본주의적생산의 거대한 장성과 여러 민족들의 잡거와 점점 더 광대한 지역에서의 사람들의 결합은 맑스의 사상을 결정적으로 확인하여주고있다.

바우에르가 사회주의사회를 《개인적인 민족적동맹들과 지역적집단들의 울긋불긋한 화폭》의 모양으로 표현하려고 하는것은 사실상 사회주의에 대한 맑스의 견해를 바꾸닌의 수정된 견해로써 슬그머니 바꾸어놓으려는 시도인것이다. 사회주의의 력사는 이와 같은 모든 시도는 자체내에 피치못할 파탄의 요

---

① 이 장의 첫머리를 보라.

②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350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소들을 포함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바우에르가 애써 숭상하는 그 어떤 《사회주의적민족원칙》이라는것에 대하여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 《원칙》은 우리가 볼 때는 사회주의적인 계급투쟁원칙을 자산계급적인 《민족원칙》으로써 바꾸어놓는것이다. 만일 민족자치가 이와 같은 모호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는것이라면 그 민족자치는 로동운동에 다만 해독을 가져올수 있을따름이라는것을 시인하여야 할것이다.

이 민족주의가 그다지 명백하지 못한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묘하게 사회주의적언사로 분식되여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것은 무산계급에게 더욱 해롭다. 공공연한 민족주의는 언제든지 극복할수가 있다. 왜냐 하면 그것은 알아보기 어렵지 않기때문이다. 은폐된, 알아볼수 없게 은폐된 민족주의와 투쟁하는것은 훨씬 더 어려운것이다. 사회주의의 갑옷으로써 몸을 쌌기때문에 그것은 적게 상처를 입게 되는것이며 보다 더 생활력이 강하게 되는것이다. 로동자들속에 존재하는 이런 민족주의는 각 민족 로동자들의 호상간의 불신임과 고립화의 유해한 사상을 전파하면서 분위기를 중독시킨다.

그러나 민족자치의 해독은 여기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다. 민족자치는 민족들을 따로 분립시키기 위한 지반뿐만아니라 또 통일된 로동운동을 분산시키기 위한 지반까지 준비한다. 민족자치의 사상은 통일된 로동자당으로 하여금 민족별로 조직된 개개의 당으로 갈라지게 하는 심리적전제조건을 만들어준다. 당이 갈라지는데 따라서 직업동맹들이 갈라지게 된다. 그리하여 완전한 분렬이 생긴다. 통일된 계급운동은 이렇게 개개의 민족적인 세류로 나뉘게 된다.

《민족자치》의 고향인 오지리는 이런 현상에 대한 가장 비

참한 실례를 보여주고있다. 한때에는 통일된 당이였던 오지리 사회민주당은 1897년부터(윔베르그당대회32) 여러개의 당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민족자치를 채택한 브륜당대회(1899년)이후로 그 분렬은 일층더 심하여졌다. 드디여 사태는 여러 민족의 통일적인 당 대신에 지금 여섯개의 민족당이 있게까지 되였다. 그리고 그중에서 체스꼬인사회민주당은 독일인사회민주당과는 관계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직업동맹은 당과 련결되여있는것이다. 오지리에서는 당내에서나 직업동맹내에서나 주요한 사업은 그 사회민주당의 로동자당원들이 하고있다. 그러므로 당내의 분리주의는 직업동맹내의 분리주의를 초래하게 되며 그 직업동맹들도 역시 분렬하게 될 위험이 있었던것이다.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 그와 같이 되였다. 즉 직업동맹들도 역시 민족별로 갈라지고 말았다. 지금에 와서는 체스꼬인로동자들이 독일인로동자들의 동맹파업을 깨뜨린다든가 또는 시기관의 선거에서 체스꼬인 자산자들과 함께 독일인로동자들을 반대하여나선다든가 하는 일까지 자주 일어나고있다.

이로부터 명백한것은 민족문화자치는 민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것이다. 그뿐만아니다. 민족자치는 로동운동의 통일을 파괴하며 로동자들을 민족별로 분렬되게 하며 그들사이의 갈등을 심하게 하는데 유리한 지반을 만들어주면서 민족문제를 첨예화시키며 혼잡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것이 민족자치의 수확이다.

5
분드, 그의 민족주의, 그의 분리주의

체스꼬인, 뽈스까인 등등에 대해서는 민족자치를 필요한

것으로 시인하는 바우에르가 유태인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자치를 반대한다는것을 우리는 우에서 말하였다. 《로동계급은 유태민족의 자치를 요구하여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바우에르는 《민족자치가 유태인로동자들의 요구조건이 될 수 없다.》①고 대답한다. 그 리유는 바우에르의 견해에 의하면 《자본주의사회가 그들〔유태인들.—이.쓰딸린〕로 하여금 민족으로서 보존되지 못하게 하는》② 거기에 있다는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유태민족은 없어져간다는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위하여 민족자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다. 유태인들은 동화되고있다는것이다.

유태민족의 운명에 대한 이 견해는 새로운것이 아니다. 맑스가 이미 40년대에 주로 독일유태인들을 념두에 두고 그와 같은 견해를 말하였다.③ 1903년에 카우쯔키는 로씨야의 유태인들을 념두에 두고 그와 같은 견해를 되풀이하였다.④ 지금은 바우에르가 오지리의 유태인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견해를 되풀이하고있는데 그 차이점은 그는 유태민족의 현재를 부인하는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장래를 부인하는데 있다.

바우에르는 《유태인들에게는 한곳에 모여사는 거주지방이 없다.》⑤는것으로써 유태인들의 민족으로서의 존속의 불가능을 설명한다. 이 설명은 대체로 옳은것이나 그러나 진리의 전부를 말하지는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문제로 되는것은 유태인들에게는 민족의 골간으로서뿐만아니라 그 《민족적》시장으로서 자연히 민족을 고정시켜주는, 토지와 련결된, 광범하고 확

---

①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 381, 396페지를 보라.
② 우와 같은 책, 389페지
③ 그의 《유태인문제에 대하여》, 1906년판(《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1권, 419~451페지를 보라. —편집자)을 보라.
④ 그의 《끼쉬뇨브학살과 유태인문제》, 1903년판을 보라.
⑤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 388페지를 보라.

고한 층이 없는것이다. 500~600만명이나 되는 로씨야의 유태인중에서 다만 3~4%만이 이렇게나저렇게나 농업과 련결되여있다. 나머지 96%는 상업, 공업, 또시기관에서 일하고있으며 또 대체로 도시에 살고있는데 그들은 전 로씨야에 널려있어서 어느 성에서나 다수를 이루지 못하고있다.

이렇게 다른 민족의 지역에 소수민족으로서 끼여들어있는 유태인들은 공업가로서, 상인으로서 또는 자유직업을 영위하고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타》민족들에게 봉사하면서 언어 등등에 있어서도 자연히 《이민족》에 적응하고있다. 이 모든것,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민족들의 잡거생활은 유태인들로 하여금 동화되게 하는것이다. 《유태인정착구역》을 없애는것은 동화과정을 촉진시킬수 있을따름이다.

이렇기때문에 로씨야의 유태인의 민족자치문제는 다소 가소로운 성격을 띠게 된다. 즉 그 장래성이 부인되고있으며 그 현재의 존재도 아직 증명을 요하는 그 민족에게 자치를 제의하고들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드는 그 제6차대회에서(1905년) 민족자치의 정신으로 《민족강령》을 채택함으로써 이 가소롭고도 불확고한 립장에 선것이다.

분드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한데는 두가지 사정이 있었다.

첫째 사정—이것은 분드가 유태인들의, 오로지 유태인들의 사회민주주의적인 로동자단체로 존재하고있다는 사정이다. 유태인로동자가운데서 사업하는 사회민주주의적소조들은 이미 1897년이전에 《순수한 유태인로동자단체》①를 조직할 목적을 세웠었다. 1897년에 그들은 분드로 련합됨으로써 그와 같은

---

① 까스펠란스끼가 편찬한 《민족운동의 제 형태》(《현대국가의 민족운동의 형태》를 가리킨다. —편집자), 772페지를 보라.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것은 아직도 로씨야사회민주당이 사실상 전일체로서 존재하고있지 않던 그때에 있은 일이다. 그때부터 분드는 부단히 장성확대되여 로씨야사회민주당의 불리한 처지를 배경으로 하여 점점 더 뚜렷이 나타나게 되였다. … 그러나 20세기가 닥쳐왔다. 대중적로동운동이 시작되였다. 뿔스까사회민주당이 자라나 유태인로동자들을 대중적투쟁에 끌어들였다. 로씨야사회민주당이 장성하여 자기 편에로 《분드》의 로동자들을 끌어들였다. 지역적토대를 가지지 못한 분드의 민족적틀은 점점 협소하여졌다. 분드의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서게 되였다. 즉 공통한 국제적물결에 용해되여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초지역적단체로서의 자체의 독자적존재를 고수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분드는 둘째 길을 택하였다.

분드가 《유태인무산계급의 유일한 대표자》라는 《리론》은 이렇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괴상한 《리론》을 《간단하게》 정당화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였다. 어떤 《원칙적》근거, 《원칙적》리유가 필요하였던것이다. 민족문화자치가 곧 이와 같은 근거로 되였다. 분드는 오지리사회민주당에서 그 민족문화자치를 차용하여다가 그것에 꼭 매달렸다. 설사 오지리인들에게 그와 같은 강령이 없었더라도 분드는 자기의 독자적존재를 《원칙적으로》 변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강령을 꾸며내였을것이다.

이리하여 분드는 1901년(제4차대회)의 비겁한 시도가 있은후 1905년(제6차대회)에는 마침내 《민족강령》을 채택하였다.

둘째 사정—이것은 한 지방에서 조밀하게 살고있는 다른 다수민족들속에서 개개의 소수민족을 이루고있는 유태인들의 특수한 형편이다. 이와 같은 형편은 유태인의 민족으로서의 존재를 파탄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동화의 길에 들어서게 한다는것은 우리가 이미 말한바이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과정이

다。 주관적으로는 유태인들의 머리속에서 이 과정은 반작용을 일으켜 소수민족의 권리보장에 대한 문제, 동화방지의 보장에 대한 문제를 세우게 한다。 분드는 유태《민족》의 생명력을 선전하면서 《보장》의 견지에 립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립장에 선 분드는 민족자치를 채택하지 않을수 없었다。 왜냐 하면 분드가 어떤 자치를 불잡을수 있었다면 분드는 다만 민족자치 즉 민족문화자치만을 불잡을수 있었기때문이다。 즉 유태인들에게는 일정한 전일적인 지역이 없는 까닭에 그들의 지역적, 정치적 자치에 대하여서는 운운할수도 없었던것이다。

분드가 최초부터 민족자치의 특성을 소수민족의 권리보장이라느니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의 보장이라느니 뭐니 하고 강조한것은 특징적이다。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제2차대회에서 분드의 대표자인 골드블라트가 민족자치는 《문화발전의 완전한 자유를 그들에게〔민족들에게。 —이。쓰딸린〕 보장하여주는 기관》①이라고 규정한것도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분드사상의 찬동자들은 역시 그와 같은 주장을 가지고 제4차국회의 사회민주당 의원단에 들어갔던것이다。…

분드는 이와 같이 유태인민족자치를 주장하는 가소로운 립장에 선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민족자치를 검토하였다。 이 검토는 민족자치는 민족주의를 초래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아래에서 우리는 분드가 파연 그와 같은 결말에 도달하였다는것을 보게 될것이다。 그런데 분드는 또한 특수한 면으로부터 즉 소수민족의 권리보장의 면으로부터 민족자치를 고찰하고있다。 우리도 이 특수한 면으로 문제를 검토하여보자。 이것은 소수

---

① 《제2차대회 회의록》, 176페지를 보라。

민족(비단 유태인만은 아니다.)에 대한 문제가 사회민주당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가 있기때문에 더욱 필요한것이다.

요컨대 《문화발전의 완전한 자유》를 민족들에게 《보장하여주는 기관》이라는것이다.(고시크체는 우리의것. —이.쓰딸린)

그런데 《보장하여주는…기관》이니 무엇이니 하는것은 어떠한것인가?

이것은 무엇보다도먼저 슈프링게르와 바우에르의 소위 《민족평의회》로서 그것은 문화사업을 관할하는 의회와도 같은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민족의 《문화발전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여줄수 있겠는가? 문화사업을 관할하는 어떤 의회가 민족들을 민족주의적탄압을 면하게끔 보장하여줄수 있겠는가?

분드는 그렇게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력사는 그와 반대의것을 말하고있다.

로씨야령 뽈스까에는 한때 의회 즉 정치적의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뽈스까인들의 《문화발전》의 자유를 보장하기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하였을뿐만아니라 도리여 로씨야의 전반 정치정세와의 어림없는 투쟁에서 멸망하고말았다.

핀란드에도 오래전부터 의회가 있었는데 이 역시 핀란드 민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주기에 노력하고있다. 그러나 이 의회가 이 면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있는가는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물론 의회라고 다 같은것은 아니다. 민주주의적으로 조직된 핀란드의회를 뽈스까의 귀족적의회와 같이 그렇게 쉽게 처치하지는 못할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것은 의회 그자체인것이 아니라 로씨야의 일반제도인것이다. 과거에

뿔스까의회를 폐지하던 때와 같은 그런 란폭한 아세아식사회정치제도가 지금도 로씨야에 있다면 핀란드의회는 훨씬 더 견디여나가기 어려울것이다. 그뿐만아니라 핀란드에 대한 《침해》정책은 강화되여가고있다. 그리고 그 정책이 실패를 당하였다고는 말할수 없는것이다.…

만일 력사적으로 형성된 낡은 기관인 정치적의회들이 이와 같은 형편에 있다면 새 의회들이나 새 기관들, 더우기 《문화적》의회들과 같은 그런 무력한 기관들은 더구나 민족들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지 못할것이다.

문제는 《기관》에 있는것이 아니라 국내의 일반제도에 있다는것이 명백하다. 국내에 민주주의가 없으면 민족들의 《문화발전의 완전한 자유》도 보장될수 없다. 나라가 민주주의적일수록 《민족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적으며 《침해》를 막을수 있는 보장도 더 크다는것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수 있다.

로씨야는 절반아세아식국가이다. 그러므로 《침해》정책은 그곳에서 왕왕 가장 란폭한 형태, 학살의 형태를 띠게 된다. 로씨야에서의 《보장》이 최소한도에까지 이르렀다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독일은 벌써 다소의 정치적자유를 가지고있는 구라파식국가이다. 그러기에 《침해》정책이 그곳에서는 결코 학살의 형태를 띠고있지 않는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물론 《보장》이 더 크다. 왜냐 하면 프랑스는 독일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까닭이다.

스위스는 더 말할것도 없다. 그곳에서는 비록 자산계급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고도의 민주주의이므로 여러 민족들은 그들이 소수이거나 다수이거나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있다.

그러므로 분드가 《기관》 그자체가 민족들의 완전한 문화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고 주장하는것은 아주 황당한것이다.

분드자신도 로씨야의 민주주의화를 《기관창립》과 자유보장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인정하고있다고 말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분드의 제8차대표자회의 문헌집》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분드는 로씨야에 있는 현제도의 기초우에서 유태인자치회를 《개량하는》 방법으로써 《기관》들을 확보하려고 생각한다.

분드의 수령의 한사람은 그 대표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태인자치회는 장래의 민족문화자치의 핵심이 될수 있다. 민족문화자치는 민족들의 자체봉사의 형태이며 민족적요구를 만족시키는 형태이다. 유태인자치회형태에도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이 잠재하고있다. 이것은 동일한 현세의 고리들이며 동일한 진화의 제 단계이다.》①

이로부터 출발하여 대표자회의는 《유태인교회를 개량하기 위하여 또는 립법적절차를 밟아 그것을》 민주주의적으로 조직된 《세속적기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② 투쟁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고시크체는 우리의것. —이.쓰딸린)

분드가 조건과 보장으로 인정하는것은 로씨야의 민주주의화가 아니라 《유태인자치회를 개량하는》 방법으로써 얻는, 말하자면 《립법적》절차를 밟아 국회를 거쳐서 얻는 유태인들의 미래의 《세속적기관》인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국가전체에 민주주의적제도가 없이는 《기관》 그 자체는 《보장》의 의무를 다할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다.

그러면 장래에 있을 민주주의하에서는 어떻게 될것인가? 민주주의하에서도 《…보장하여주는》 특수한 《문화기관》이 필

---

① 《분드의 제8차대표자회의 문헌집》, 1911년판, 62페지를 보라.
② 우와 같은 책, 83~84페지

요하지 않겠는가? 레컨대 민주주의적스위스에서는 이 점에 있어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곳에는 슈프링게르의 《민족평의회》와 같은 그런 특수한 문화기관들이 있는가? 그곳에는 그런 기관은 없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레컨대 소수를 이루고있는 이딸리아인들의 문화적리익이 이 사정때문에 장애를 받지 않는가? 아직 그런 말은 들은적이 없다. 그런데 그것은 알만한 일이다. 그것은 스위스에서의 민주주의는 《…보장하여준다》는 그런 종류의 온갖 특수한 문화《기관》들을 불필요한것으로 만들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에 있어서는 무력한것이고 장래에 있어서는 무용한것—이와 같은것이 민족문화자치의 기관이며 이와 같은것이 민족자치이다.

그런데 그 존재와 그 장래가 다 문제로 되고있는 그런 《민족》에게 우에서 말한 그런 민족자치를 강요하는 때에는 더욱 해로운것으로 된다. 이 경우에 민족자치의 찬성자들은 다만 어쨌든 동화를 방지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민족을 《보전》하기 위해서 《민족》의 모든 특성을, 리로운 특성뿐만아니라 또 해로운 특성까지도 모조리 보존하고 유지하게 된다.

분드는 불가피적으로 이 위험한 길에 들어서지 않을수 없게 되였던것이다. 그리고 분드는 실지로 이 길에 들어섰다. 우리는 분드의 최근의 여러 대표자회의에서의 《안식일》, 《유태어》 등에 대한 일반이 다 아는 결정들을 념두에 두고 말하는것이다.

사회민주당은 모든 민족들에게 본 민족어 사용권을 확보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분드는 이것으로써 만족하지 않는다. 분드는 《유태어사용권》을 《특히 강경하게》 고수할것을 요구한다.①(고시크체는 우리의것. —이.쓰딸린) 그리하여 분드는 그

① 《분드의 제8차대표자회의 문헌집》, 85페지를 보라.

자체가 제4차국회선거때에 《그들〔즉 제2차선거인들〕중에서 유태어사용권을 고수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거하였던》것이다①.

본 민족어 사용의 일반적권리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유태어, 유태어사용의 개별적권리를 요구하는것이다! 각개 민족의 로동자들은 무엇보다도먼저 본 민족어를 위하여 투쟁하라는것이다. —유태인들은 유태어를 위하여, 그루지야인들은 그루지야어를 위하여 등등. 모든 민족들의 일반적권리를 위한 투쟁은 2차적인 일이다. 여러분은 모든 피압박민족들의 본 민족어 사용권을 승인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유태어사용권을 승인한다면 분드는 여러분에게 투표할것이며 분드는 여러분을 《택하리라》는것을 믿으라.

그렇다면 분드는 자산계급민족주의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사회민주당은 한주일에 하루의 필수적인 휴식일을 제정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분드는 그것으로써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립법적절차를 밟아서》《안식일을 휴식일로 하는 권리를 유태인무산계급에게 보장하여주고 다른 날을 휴식일로 하도록 강제하지 못하게 할것》②을 요구하고있다.

분드는 《일보 전진》하여 유태인의 모든 옛명절을 쇠게 하는 권리를 요구하게 되리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일 분드에게 있어서 불행하게도 유태인로동자들이 편견을 버리고 그런 명절을 쇠기를 원치 않는다면 분드는 《안식일을 휴식일로 하는 권리》에 대한 자기의 선전으로써 그들에게 안식일을 상기시키게 될것이며 그들에게 《안식일정신》을 배양시키게 될것이다.…

---

① 《분드의 제9차대표자회의 문헌집》, 1912년판, 42페지를 보라.
② 《분드의 제8차대표자회의 문헌집》, 83페지를 보라.

그러므로 분드의 제8차대표자회의에서 《유태인병원》을 요구한 발언자들의 《열렬한 연설》은 충분히 리해할만한것이다. 그런데 그 요구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것이다. 즉 《환자는 동족인들가운데 있으면 기분이 더 유쾌하여진다.》느니 《유태인로동자는 뽈스까로동자들속에서는 기분이 매우 불쾌해지며 유태인상점에 들어가면 기분이 매우 유쾌하여진다.》①느니 뭐니 하는것이다.

유태적인것은 모두다 보존할것, 유태인들의 민족적특성은 무산계급에게 분명히 해로운것까지도 모두 보유할것, 유태인을 모든 비유태인적인것과 격리시킬것, 지어는 특별한 병원까지 설치할것—분드는 이러한데까지 전락하였다!

뿔레하노브동지가 분드는 《사회주의를 민족주의에 적응시키고있다.》고 한것은 천만번이나 옳았던것이다. 물론 울. 끄쏩스끼 및 기타 그와 류사한 분드파들은 뿔레하노브를 《악선동가》②33라고(종이에다는 무엇이나 다 쓸수 있으니까) 욕설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분드의 활동을 아는 사람들은 그 용감한 사람들이 그저 자기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하기를 두려워하면서 《악선동》이라는 신랄한 말로써 은폐하고있다는것을 리해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분드는 민족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립장을 취하고있는만큼 조직문제에 있어서도 자연히 유태인로동자들을 분립시키는 길에, 사회민주당내에 민족적유권자단체를 두는 길에 들어서지 않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자치의 론리인것이다!

그리하여 과연 분드는 《유일한 대표기관》론으로부터 로동

---

① 《분드의 제8차대표자회의 문헌집》, 68페지를 보라.
② 잡지 《우리의 서광》[34], 1912년, 제9~10호, 120페지를 보라.

자들의 《민족적회분》론에로 넘어가고있다. 분드는 로씨야사회민주당에 대하여 《자체의 조직적구조에 있어서 민족별로 회분을 실시할것》①을 요구하고있다. 그리고 《회분》론으로부터 《분립》론에로 《일보 전진》하였다. 분드의 제8차대표자회의에서 《민족적존재는 분립에 있다》②는 말이 났던것은 리유없는 일이 아니다.

조직상의 련방주의는 분산 및 분리주의의 요소들을 자체에 내포하고있다. 분드는 분리주의로 나아가고있다.

사실 분드는 막다른골목에 이르렀다. 초지역적조직으로서의 그 존재자체가 곧 그들을 분리주의의 길로 몰아넣는것이다. 분드에게는 일정한 전일적인 지역이 없다. 그들은 《남의》 지역에서 활동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그와 접촉하는 뽈스까사회민주당이나 라뜨위야사회민주당이나 로씨야사회민주당은 여러 민족을 망라하는 지역적단체들이다. 그렇기때문에 그 단체들이 확대될 때마다 분드는 《손실》을 당하고 분드의 활동무대는 축소된다. 두가지중의 하나이다. —즉 전로씨야사회민주당이 민족적련방주의의 원칙우에서 재조직되지 않으면 안되든가(그때에는 분드는 유태인무산계급을 자기에게 《보장》할 가능성을 얻게 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들의 여러 민족을 망라하는 지역적원칙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든가(그때에는 분드는 뽈스까사회민주당이나 라뜨위야사회민주당과 같이 여러 민족을 망라하는 원칙우에서 재조직될것이다.) 할것이다.

《로씨야사회민주당을 련방주의적원칙우에서 재조직할것》③을 분드가 최초부터 요구한것은 곧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

① 《분드의 제7차대회에 대한 보도》, 7페지를 보라.
② 《분드의 제8차대표자회의 문헌집》, 72페지를 보라.
③ 《민족자치문제와 련방주의원칙우에서의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재조직문제에 대하여》, 1902년, 분드판을 보라.

1906년에 분드는 하부에서 일어나는 련합열에 양보하면서 중간길을 선택하여 로씨야사회민주당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분드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갔는가? 뽈스까사회민주당이나 라뜨위야사회민주당이 평화적인 공동사업을 위하여 들어간것에 반하여 분드는 련방주의를 위하여 투쟁할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 당시 분드파의 수령인 메멤은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안락을 위하여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하여 들어간다. 안락은 없는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그것을 기대하는것은 다만 마닐로브35같은자나 할수 있는 일이다. 분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여 가지고 이 당으로 들어가야 한다.》①

이것을 메멤의 악의로 간주하는것은 오해이다. 문제는 악의에 있는것이 아니라 분드의 특수한 립장에 있는것으로 분드는 그 립장으로 인하여 국제주의적원칙우에서 건설된 로씨야사회민주당과 투쟁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분드는 로씨야사회민주당과 투쟁함으로써 자연히 통일의 리익을 해치게 되였다. 마침내 사태는 분드가 당규약을 위반하고 제4차국회의 선거에서 뽈스까민족주의자들과 련합하여 뽈스까사회민주주의자들을 반대하였으며 따라서 정식으로 로씨야사회민주당과 인연을 끊는데까지 이르렀다.

분드는 분명히 분렬이 그 자주적활동에 대한 가장 좋은 보장이라고 생각하는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상의 《획분》의 《원칙》은 분리주의에로, 완전한 분렬에로 이르게 하였다.

분드는 련방주의에 대하여 구《이스크라》9와 론쟁하면서 아래와 같이 썼다.

---

① 1906년에 윌나에서 발간된 잡지 《우리의 언론》[36], 제3호, 24페지를 보라.

《〈이스크라〉는 분드와 로씨야사회민주당과의 련방적관계가 량자간의 련계를 반드시 약화시키게 된다고 우리를 설복하려 한다. 우리는 로씨야사회민주당이 련방주의적련합체가 아니라는 그 단순한 리유에서 그 견해를 로씨야의 실천을 들어서 론박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1897년의 당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련방주의적성격을 가지게 된 오지리사회민주당의 비상히 교훈적인 경험을 인증할수 있다.》①

이것은 1902년에 쓴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1913년이다. 지금은 우리에게 로씨야의 《실천》도 있고 《오지리사회민주당의 경험》도 있다.

이 《실천》과 《경험》들은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오지리사회민주당의 비상히 교훈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자. 1896년까지는 오지리에는 아직 통일된 사회민주당이 있었다. 이해에 국제당런던대회37에서 체스꼬인들이 처음으로 독립적대표권을 요구하여 그 권리를 얻었다. 1897년에 윈(윔베르그)당대회에서 통일당은 정식으로 해체되고 그대신에 여섯개의 민족적 《사회민주주의적집단》의 련맹이 수립되였다. 그후 이 《집단》들은 모두 독립적당들로 되였다. 이 당들은 점차 상호간의 련결을 끊어버리고말았다. 당이 분렬됨에 따라서 국회내의 의원단도 분렬되여 민족적《구락부》들이 조직되였다. 그다음 차례는 직업동맹들이였는데 그것들도 역시 민족별로 갈라졌다. 나중에는 협동조합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그래서 체스꼬분리주의자들은 로동자들에게 그 협동조합을 분립시키라고 부르짖었다.② 분리주의적선동은 로동자들의 단결정신을 약화시키면서 그들로 하여금 종종 파업을 파괴하는 길에 들어

---

① 《민족자치…문제에 대하여》(《민족자치문제와 련방주의원칙우에서의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재조직문제에 대하여》를 가리킨다.—편집자), 1902년 분드판, 17페지를 보라.

② 《분리주의의 문건》, 29페지에 와네크의 소책자에서 인용한 말을 보라.

서게 하는데 대하여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요컨대 《오지리사회민주당의 비상히 교훈적인 경험》은 분드가 옳지 못하고 구《이스크라》가 옳다는것을 증실하고있다. 오지리당내의 련방주의는 가장 악렬한 분리주의에 이르게 하였으며 로동운동의 통일을 파괴하게 하였다.

우리는 앞에서 《로씨야의 실천》도 역시 그와 같은것을 증실하여준다는것을 보았다. 분드의 분리주의자들도 또한 체스교의 분리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통일적인 로씨야사회민주당과의 인연을 끊어버렸다. 직업동맹 즉 분드파의 직업동맹으로 말하면 그것은 최초부터 민족별의 원칙우에 조직되여있었다. 다시말하면 다른 민족의 로동자들과는 갈라져있었다.

완전한 분립, 완전한 분렬—이러한것이 련방주의의 《로씨야의 실천》이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로동자들의 단결정신을 약화시키고 로동자들의 사기를 저락시키는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 저락에 분드도 또한 감염되고있다. 우리는 실업으로 인하여 유태로동자들과 뽈스까로동자들사이에 더욱더 빈번히 일어나고있는 충돌을 념두에 두고 말하는것이다. 이에 관하여 분드의 제9차대표자회의에서 있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보기로 하자.

《…우리는 우리를 구축하고있는 뽈스까로동자들을 폭도, 황색파로 간주하며 그들의 동맹파업을 지지하지 않을것이며 그들의 동맹파업을 파괴해버릴것이다. 둘째로 구축에 대하여서는 구축으로써 대답하자. 즉 유태인로동자들을 공장에 받아들이지 않는데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뽈스까로동자들을 수공업작업소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자.… 만일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수중에 틀어쥐지 않는다면 로동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될것이다.》①(고시크체는 우리의것.—이.쓰딸린)

---

① 《분드의 제9차대표자회의 문헌집》, 19페지를 보라.

분드의 대표자회의에서는 단결정신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고들 있다.

《구분》이나 《분립》이 이보다는 더 나갈데가 없는것이다. 분드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즉 분드는 각 민족 로동자들로 하여금 서로 싸우며 파업을 파괴하게까지 해놓았다. 달리는 할 수가 없었던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수중에 틀어쥐지 않는다면 로동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될것》이였으니…

로동운동을 해체시키는것, 사회민주당대렬에서 사기를 저락시키는것—이것이 바로 분드의 련방주의가 빚어놓은 악과이다.

여기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민족문화자치의 사상, 그 사상이 만들어놓은 분위기는 오지리에서보다 로씨야에서 일층 더 유해하다.

6
깝까즈파, 취소파 대표자회의

우리는 우에서 민족주의적《류행병》에 견디여내지 못한 일부 깝까즈사회민주주의자들의 동요를 말하였다. 이 동요는 이상에 말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민족문화자치를 선언하고 분드의 발자취를 따라간(이것이 아주 괴상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표현되여있다.

깝까즈전체에는 지방자치를, 그리고 깝까즈를 구성하고있는 각 민족들에게는 민족문화자치를—이렇게 이 사회민주주의자들(그들은 로씨야취소파에 가담한자들이란것을 부언한다.)은 그들의 요구를 정식화하고있다.

그들의 공인된 수령이며 그렇게 무명하지 않은 엔.의 말을 들어보자.

《깝까즈는 그 주민의 인종적구성으로 보든지 또는 지역 및 농산물을 보든지 중앙지대의 여러 성에 비하여 훨씬 다르다는것은 일반이 다 아는바이다. 이런 변강지구의 개발과 물질적발전은 그 지방의 풍토와 문화에 익숙한 사람으로 지방특성을 잘 아는 지방일군들을 요구한다. 지방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모든 법률은 반드시 그 지방에서 제정되여야 하며 또 그 지방일군들에 의하여 실시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깝까즈중앙자치기관의 권한에는 지방문제에 관한 법률제정의 권리가 부여되여야 한다.… 이리하여 깝까즈중앙기관의 직능은 지방지역의 경제적개발과 변강지구의 물질적장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있다.》①

요컨대 깝까즈의 지방자치란 말이다.

만일 엔.의 다소간 애매하고 또 조리없는 론증을 젖혀놓고 말한다면 그의 결론은 옳다는것을 시인하여야 할것이다. 전국적헌법의 범위내에서 실시하게 되는(이것은 엔.도 부인하지 않는다.) 깝까즈의 지방자치는 실은 깝까즈의 주민구성과 생활조건의 특성으로 인하여 필요한것이다. 이것은《그 주민의 생활조건과 구성부분으로 보아서 로씨야본토와는 다른 그런 변강지구의 지방자률》을 제2차대회에서 선언한 로씨야사회민주당도 시인한것이다.

이 조항을 제2차대회의 토의에 붙이면서 마르또브는《로씨야의 광활한 지역과 우리 나라의 중앙집권적관리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핀란드, 뽈스까, 리뜨와, 깝까즈와 같은 그런 큰 지역을 위해서는 지방자률을 두는것이 필요하며 적당하다

---

① 그루지야어신문《우리의 생활》[38], 1912년, 제12호를 보라.

는것을 인정할 리유가 있다.》는것으로써 그것을 론증하였다.

이로부터 지방자룖은 지방자치로 리해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엔.은 한걸음 더 나아간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깝까즈의 지방자치는 《문제의 일면만을》 포괄한다는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방생활의 물질적발전에 대하여서만 말하였다. 그러나 변강지구의 경제적발전은 경제적활동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활동에 의해서도 촉진된다.…》《문화적으로 유력한 민족은 경제적령역에서도 유력한것이다.…》《그러나 민족들의 문화적발전은 오직 그 민족의 언어로만 가능한것이다.…》《그러므로 본 민족어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민족문화의 문제들인것이다. 교육, 재판수속, 교회, 문학, 예술, 과학, 회곡 등에 대한것이 곧 그러한 문제들이다. 만일 변강지구의 물질적발전사업이 민족들을 련결하여준다면 민족문화사업은 그들을 분리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각각 딴 무대에 나서게 한다. 첫째 종류의 활동은 일정한 지역과 련결된것이다.…》《민족문화사업은 그렇지 않다. 그 사업은 일정한 지역과 련결되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민족의 존재와 련결된다. 그루지야인들은 어느곳에 살고있든지간에 그루지야어의 운명에 대하여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있다. 그루지야문화가 그루지야에 살고있는 그루지야인에게만 관계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무지한 말인것이다. 례컨대 아르메니야의 교회를 물어보자. 그 교회의 사업을 처리하는데는 각 지방 및 각 국가에 사는 아르메니야인들이 참여하고있다. 여기에서는 지역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는 례컨대 그루지야박물관을 창립하는데는 찌플리스에 사는 그루지야인이나 바꾸, 꾸따이스, 례제르부르그 및 기타 지방에 사는 그루지야인이나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있다. 그런즉 모든 민족문화사업을 관리하며 지도하는것은 그것에 직접 관심을 가지고있는 민족자체에 맡겨야 한다. 우리는 깝까즈민족들의 민족문화자치를 주장한다.》①

---

① 그루지야어신문 《우리의 생활》, 1912년, 제12호를 보라.

간단히 말하면 문화는 지역이 아니며 지역은 문화가 아니기때문에 민족문화자치가 필요하다. 이것이 엔.이 민족문화자치를 위하여 론증할수 있는 전부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민족문화자치일반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에서 우리는 벌써 그 부정적인 정견을 말하였다. 우리는 다만 일반적으로 무용한것인 민족문화자치는 깝까즈의 조건에서는 더우기 무의미하며 허황하다는것을 지적하려고 할뿐이다.

그 리유는 이러하다.

민족문화자치는 발달된 문화와 문학①을 가지고있는 다소라도 발달된 민족을 전제로 하는것이다. 이런 조건들이 없이는 이 자치는 온갖 의미를 잃어버리며 황당한것으로 변하여버린다. 그런데 깝까즈에는 원시적문화와 특이한 언어는 가지고있으나 본 민족어로 된 문학이 없으며 게다가 그 민족들은 일부는 동화되고 일부는 계속 발전하고있는 과도기에 처하여있다. 그들에 대하여 민족문화자치를 어떻게 적용할것인가? 이런 민족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가? 이 민족들을 민족문화자치가 결정적인 전제로 하는 개개의 민족문화동맹으로 어떻게 《조직》할것인가?

각이한 언어로 말은 하지만 자기들의 문학이 없는 메그렐리야인, 아브하지야인, 아쟈리야인, 스완인, 레즈긴인 등등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들을 어떤 민족에 편입시켜야 하겠는가? 이들을 민족적동맹으로 《조직》할수 있겠는가? 어떠한 《문화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을 《조직》할것인가?

---

① 여기에서 말하는 《문학》은 로어의 《литература》로서 일반출판물을 가리킨다. —편집자

오쎄찌야인들은 남깝까즈에 사는 부분은 그루지야인에게 동화되고있으며(그러나 아직 다 동화될 날은 멀었다.) 북깝까즈에 사는 부분은 일부는 로씨야인들에게 동화되고있고 일부는 본민족의 문학을 만들어내면서 계속 발전되고있는데 이 오쎄찌야인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단일한 민족적동맹으로 《조직》할것인가?

말은 그루지야말을 하고 살기는 토이기문화로 살며 이슬람교를 믿고있는 아쟈리야인들은 어느 민족적동맹에 넣어야 할것인가? **종교적사업을 기준으로** 그들은 그루지야인들과 갈라내여 따로 《조직》하며 동시에 **다른 문화적사업을 기준으로** 그루지야인들과 함께 《조직》하는것이 좋겠는가? 그러면 꼬불레트인은 어떻게 하며 인구슈인은 어떻게 하며 인길로이인은 어떻게 하겠는가?

많은 종족을 명부에서 제거하여버리는 그런 민족자치가 무슨 민족자치란 말인가?

아니다. 이것은 민족문제의 해결인것이 아니라 부질없는 환상의 산물인것이다.

그러면 안될 가정을 해보자. 가령 우리의 엔.의 민족문화자치가 실현되였다고 하자. 그 자치는 무엇에 이르게 되며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례컨대 남깝까즈에 사는 따따르인들을 들어보자. 그들은 최소한도의 프로의 문자해득자를 가지고있으며 만능의 마울라들의 지도하에 있는 학교를 가지고있으며 종교적정신으로 일관되여있는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있다.… 그들을 민족문화동맹으로 《조직한다》는것은 그들의 머리우에 마울라들을 앉힌다는것을 의미하며 반동적마울라들이 그들을 삼켜먹게 내버려둔다는것을 의미하며 따따르인대중의 가장 악한 적에게 그들을 정신적으로 노예화시킬 새로운 보루를 쌓아둔다는것을 의미한다는것을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어느때부터 반동파들의 기염을 돋구어주기 시작하였던가?

가장 악한 반동파들에게 대중을 예속시키는 민족문화동맹에 의하여 남깝까즈의 따따르인들을 갈라놓는것.—깝까즈의 쥐소파들은 이보다 더 나은 무엇을 《선언》할수가 없었던가? …

아니다. 이것은 민족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깝까즈에서의 민족문제는 오직 뒤떨어진 민족들을 높은 문화의 공통한 궤도에로 끌어올려야만 해결될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해결만이 진보적이고 또 사회민주당이 용인할수 있는것이다. 깝까즈의 지방자치가 용인되는것은 그것이 뒤떨어진 민족들을 공통한 문화발전에로 끌어들이는 까닭이며 그 민족들이 소민족적폐쇄상태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져나오는데 도움을 주는 까닭이며 그 민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추동하여주는 까닭이며 그 민족들로 하여금 높은 문화의 복리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까닭이다. 민족문화자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하고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민족들을 낡은 협소한 범위안에 가두어두며 그들을 문화발전의 낮은 단계에 고정시켜두며 그들이 문화의 높은 단계에로 향상하는것을 방해하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민족자치는 지방자치의 긍정적면을 말살시키며 그 지방자치를 무로 돌아가게 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엔.이 제의하는 그 민족문화자치와 지방자치를 결합하는 혼합된 형태의 자치도 무용한것이 된다. 이 비정상적인 결합은 사태를 좋게 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악화시킨다. 왜냐 하면 이 결합은 뒤떨어진 민족들의 발전을 지연시키는외에 또 지방자치를 민족적동맹에 조직된 민족들의 호상충돌의 무대로 전화시키는 까닭이다.

이리하여 전적으로 무용한 민족문화자치는 깝까즈에서는 무의미한 반동적기도로 전화되고말것이다.

이와 같은것이 엔.과 그의 깝까즈동지들의 민족문화자치이다.

깝까즈의 취소파들이 《일보 전진》하여 조직문제에서도 분드를 따라가지 않겠는가 하는것은 미래가 보여줄것이다. 지금까지 사회민주당의 력사에는 조직상의 련방주의가 항상 강령상의 민족자치에 선행하였다. 오지리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미 1897년부터 조직상의 련방주의를 실시하였는데 2년이 지나서(1899년) 민족자치를 채용하였던것이다. 분드파는 1901년에 처음으로 민족자치에 대하여 명확히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직상의 련방주의는 벌써 1897년부터 실천하여왔다.

깝까즈의 취소파는 일을 끝으로부터 즉 민족자치로부터 시작하였다. 만일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분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된다면 그들은 이미 90년대말에 국제주의적원칙우에서 건설된 현존하는 모든 조직기구를 먼저 파괴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아직 미처 로동자들에게 리해되지도 못한 민족자치를 채용하기는 용이하지만 그대신 몇해를 내려오면서 세워진, 깝까즈의 모든 민족로동자들이 노력을 들여 바꾸어온 기구를 파괴하기는 매우 어려울것이다. 이 헤로스트라트39적시도에 착수하기만 한다면 로동자들은 눈을 뜨게 될것이며 그리하여 민족문화자치의 민족주의적본질을 리해하게 될것이다.

만일 깝까즈인들이 보통방법으로 즉 구두상의 로론이나 지상의 토론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하고있다면 취소파들의 전로씨야대표자회의는 아주 비상한 방법을 생각하여내였다. 그 방법은 쉽고도 단순한것이다. 들어보기로 하자.

《민족문화자치의 요구를 내세울 필요에 대한…깝까즈대표단의 보고를 청취하고 대표자회의는 이 요구의 본질에 대해서는 견해를 말하지 않으면서 각 민족에게 자결권을 인정하는 강령조항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당강령의 본래의 의미에 배치되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견해를 말하지 않고》 뒤이어 《확인한다》는것이다. 신기한 방법이다.…

이 신기한 대표자회의는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였는가》?

민족문화자치의 《요구》는 민족자결권을 시인하는 강령의 《본래의 의미에 배치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 명제를 검토하여보자.

민족자결에 대한 조항은 민족들의 권리를 말하는것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민족들은 다만 자치권만이 아니라 분리권까지 가진다. 론의되고있는것은 정치적자결이다. 취소파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체 국제적사회민주주의조직들에 의하여 결정되여있는 이 정치적민족자결권을 외곡하여 해석하려고 시도하면서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가?

혹시 취소파는 민족문화자치가 민족들의 권리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궤변으로 자신을 변명하면서 슬쩍 피하려는것인가? 다시말하면 이것은 소여의 국가의 모든 민족이 민족문화자치의 원칙우에서 살아가기에 동의한다면 그들 즉 그 민족전체는 그에 대한 완전한 권리가 있는것으로 아무도 그들에게 정치생활의 다른 형태를 강제적으로 씌우지는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새롭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다. 민족들, 오직 민족들자체만이 그자체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민족들은 자국내에서 헌법을 폐지하는 권리, 그 헌법을 폭정의 체제로써 바꾸어놓는 권리, 낡은 제도로 돌아가는 권리가 있다는것을 첨부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거듭 말하거니와 이런 의미에서는 민족문화자치건 어떠한 민족의

반동적조치이건 민족들의 권리에는 《배치되지 않는것이다》.

존경할만한 대표자회의는 이런것을 말하려 한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런것을 말하려 한것은 아니다. 그 대표자회의는 민족문화자치는 민족들의 권리가 아니라 강령의 《본래의 의미》에 《배치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말하고있다. 여기에서는 민족들의 권리가 아니라 강령이 론의되고있는것이다.

그것도 알만한 일이다. 만일 취소파의 대표자회의에 어떤 민족이 문의하였다면 대표자회의는 민족들에게는 민족문화자치권이 있다는것을 직접 확인하였을것이다. 그러나 대표자회의에 문의한것은 민족인것이 아니라 비록 좋지 못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회민주주의자들인 깝까즈사회민주주의자들의 《대표단》이였다. 그리고 또 그들이 물은것은 민족들의 권리에 대한것이 아니라 민족문화자치가 사회민주당의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가, 사회민주당강령의 《본래의 의미》에 《배치》되지 않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러므로 민족들의 권리는 사회민주당강령의 《본래의 의미》와 동일한것은 아닌것이다.

민족들의 권리에는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강령의 《본래의 의미》에는 배치될수 있는 그러한 요구조건들도 있는것은 명백하다.

례컨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강령에는 신앙의 자유에 대한 조항이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어떠한 집단의 사람들이나 어떠한 종교든지 즉 천주교든지 희랍정교든지 기타 어느 종교든지 마음에 드는것을 믿을 권리가 있는것이다. 사회민주당은 어떠한 종교에 대한 탄압이나 희랍정교도, 천주교도, 신교도들에 대한 박해를 반대하여 투쟁할것이다. 이것은 천주교나 신교나 기타 종교가 강령의 《본래의 의미에 배치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아니다. 그런것을 의미하는것은 아

니다. 사회민주당은 천주교나 신교에 대한 탄압을 언제나 반대할것이며 또 어떠한 종교든지 제마음대로 믿을 민족들의 권리를 언제나 옹호할것이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은 동시에 무산계급의 정당한 리익에서 출발하여 사회주의적세계관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천주교, 신교, 회랍정교를 반대하여 선전할것이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이 이렇게 하는것은 신교나 천주교나 회랍정교나 기타 종교들이 의심할것없이 강령의 《본래의 의미에 배치되는》 다시말하면 무산계급의 정당히 리해된 리익에 배치되는것이기때문이다.

자결권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각 민족들은 자기의 소원대로 제일을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은 해로운것이나 리로운것이나 자기의 온갖 민족적기구를 보전할 권리가 있는것으로 아무도 민족들의 생활에 **강제로** 간섭할수는 없는것이다.(그럴 권리가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민주당이 민족들의 유해한 기관을 반대하여, 민족들의 불합리한 요구들을 반대하여 선전하지 않거나 투쟁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반대로 사회민주당에는 민족들이 무산계급의 리익에 가장 적당한 형태로 본민족의 일을 처리하도록 선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 그렇게 꾸려가도록 민족들의 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무가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사회민주당은 민족자결권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그와 동시에 말하자면 따따르족의 분리도 반대하며 깝까즈의 민족들의 민족문화자치도 반대하여 선전할것이다. 왜냐 하면 이 량자가 다 이 민족들의 **권리**에는 배치되지 않으나 **강령의 《본래의 의미》**에는 즉 깝까즈무산계급의 리익에는 배치되기때문이다.

《민족들의 권리》와 강령의 《본래의 의미》는 전혀 다른것임은 명백하다. 강령의 《본래의 의미》는 무산계급의 강령에

과학적으로 정식화된 무산계급의 리익을 표현하는것이지만 민족들의 권리는 여러 계급들의 세력과 영향에 따라서 자산계급, 귀족층, 승려층 등등의 어느 계급의 리익이든지 표현할수 있는것이다. 일방은 맑스주의자의 **의무**이지만 타방은 각종 계급으로 이루어진 민족들의 **권리**인것이다. 민족들의 권리가 사회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론의하는것은 쿠푸의 금자탑40이 악명높은 취소파들의 대표자회의에 《배치》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론의하는것과 같은것으로서 그것들은 기본상 비교할수 없는것이다.

이로부터 볼수 있는바와 같이 이 존경할만한 대표자회의는 전혀 다른 두가지 사물을 그야말로 용서할수 없이 혼동한 것이다. 그 결과 민족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망설을 가져왔는바 이 망설로 말미암아 민족들의 권리와 사회민주당의 원칙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족의 매개 요구가 무산계급의 리익과 합치되며 따라서 자결을 지향하는 민족들의 어떤 요구든지 다 강령의 《본래의 의미에 배치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들은 론리를 람용하고있다.…

이러한 망설에 기초하여 취소파대표자회의의 악명높은 결정이 나왔다. 그 결정에 의하면 민족문화자치에 대한 요구는 강령의 《본래의 의미에 배치되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취소파대표자회의는 론리의 법칙만을 위반한것이 아니다.

이 대표자회의는 민족문화자치를 승인함으로써 또한 로씨야사회민주당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 대표자회의는 강령의 《본래의 의미》를 확실히 위반하였다. 왜냐 하면 일반이 다 아는바와 같이 강령을 채택한 제2차대회에서는 민족문화자치를 **단호히 거부**하였기때문이다. 그 대회에서는 이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하였었다.

《꿀드뿔라트〔분드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나는 민족들의 문화발전의 자유를 보장하여줄수 있는 그런 특수한 기관을 창설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그러므로 〈문화발전의 완전한 자유를 그들에게 보장하여주는 기관의 창설〉이라는 말을 제8항에 첨부할것을 제의한다。〔다 아는바와 같이 이것이 민족문화자치에 대한 분드파적정식화이다。—이。쏘딸린〕

마르띠노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공동기관은 그것이 특수한 리익도 보장하여주도록 설립되여야 한다。민족의 문화발전의 자유를 보장하여줄 어떠한 특설기관도 창립할수는 없는것이다。

예고로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민족문제에서 우리는 한갓 소극적제의만을 채택할수 있는것이다。다시말하면 우리는 민족에 대한 온갖 구속을 반대한다。그러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인 우리에게는 어느 민족이 민족으로서 발전되겠는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것은 관계없는것이다。그것은 자연발생적과정인것이다。

쁠리쪼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분드의 대표들은 그들의 민족주의가 론의될 때에는 항상 모욕감을 느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드의 대표가 제출한 수정안은 순전히 민족주의적성격을 띤것이다。지어는 쇠망하고있는 그런 민족들까지 지원하는 아주 적극적인 대책을 우리에게서 요구하는것이다。》

…결국 《끌드뿔라트의 수정안은 3표의 찬성, 대다수의 반대로써 부결되였다》。

요컨대 취소파대표자회의는 강령의 《본래의 의미에 배치되게》 나갔던것이 명백하다。취소파대표자회의는 강령을 위반하였다。

지금에 와서 취소파들은 마치 스록홀름대회41가 민족문화자치를 승인한듯이 그것에 빙자하면서 변명하려고 시도하고있다。울。교쏩스끼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스록홀름대회에서 채택된 협약에 의하여 분드는

자기의 민족강령을 보류하게 되였다.(전당대회에서 민족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대회는 민족문화자치가 여하튼 전반적당강령에 배치되지 않는다는것을 시인하였다.》①

그러나 취소파들의 시도는 헛된것이다. 스톡홀름대회는 분드의 강령을 승인하려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대회는 문제를 미해결인채로 일시 남겨두는데 동의하였을따름이다. 담대한 표쏩스끼는 모든 진상을 다 말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사실자체가 스스로 당시의 사실을 말하여주고있다. 그것은 이러하다.

《갈린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의하였다. —〈민족강령에 대한 문제는 대회에서 심의되지 않은것만큼 미해결인채로 류안할것.〉(찬성투표 50, 반대투표 32)

질문—미해결이란 무엇인가?

의장—민족문제를 미해결로 류안한다고 우리가 말하는것은 분드가 이 문제에 관한 자기의 결의를 다음대회때까지 보류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②(고시크체는 우리의것.—이.쓰딸린)

보는바와 같이 대회는 분드의 민족강령에 대한 문제는 지어 《심의하지도 않았다》. 대회는 그것을 그저 《미해결》로 류안하고서 분드에게 다음 전당대회까지 그 강령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것을 일임하였던것이다. 달리말하면 스톡홀름대회는 민족문화자치를 아무 방면으로도 평가하지 않고 그 문제를 회피하였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파대표자회의는 아주 확정적으로 사태를 평가하고 민족문화자치를 용인할수 있는것으로 인정하

---

① 잡지 《우리의 서광》, 1912년, 제9~10호, 120페지를 보라.
② 잡지 《우리의 언론》, 1906년, 제8호, 53페지를 보라.

였으며 그리하여 그것을 당강령이란 명목으로 승인하였다.

차이점은 보는바와 같다.

이와 같이 취소파대표자회의는 온갖 교활한 술책을 썼으나 민족문제를 한걸음도 전진시키지 못하였다.

분드와 깝까즈민족주의자적취소파들앞에서 꼬리를 흔드는것—이것이 그 대표자회의가 할수 있는 전부였다.

7
로씨야의 민족문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민족문제의 긍정적해결을 시도하는것이 남아있다.

우리는 민족문제가 로씨야의 현정세와의 불가분적인 련결에서만 해결될수 있다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한다.

로씨야는 《정상적》, 《립헌적》 생활이 아직도 수립되지 않았고 정치적위기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있는 과도기에 처하여있다. 폭풍우와 《분규》의 날이 아직 우리앞에 있다. 따라서 현하의 운동과 미래의 운동은 완전한 민주주의화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민족문제는 이 운동과 관련시켜 고찰되여야 한다.

요컨대 국가의 완전한 민주주의화는 민족문제의 해결의 기초이며 조건이다.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내부정세뿐만아니라 외부정세도 또한 고찰하여야 한다. 로씨야는 구라파와 아세아, 오지리와 중국사이에 처하여있다. 아세아에서의 민주주의의 장성은 불가피적이다. 구라파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의 장성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구라파에서 자본은 그 지반의 협착함을 느끼게 되

였다. 그러므로 새 시장, 값싼 로동력, 새로운 투자지를 찾으면서 남의 나라들에 덤벼드는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대외적 분규와 전쟁을 초래하게 되는것이다. 발칸전쟁42이 그 분규의 시초가 아니라 끝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로씨야의 어느 민족이 그 독립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그것을 해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될 그런 내외정세의 배합이 충분히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장애물을 내세우는것은 물론 맑스주의자로서 할일이 아닌것이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와 같이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은 민족자결권을 주장하지 않을수 없다.

요컨대 **민족자결권은** 민족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다음으로 어떤 원인으로 하여 차라리 전일체의 범위안에 그냥 남아있는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는 민족문화자치가 무용하다는것을 보았다. 첫째로, 그것은 인위적이며 무기력한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실생활이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분산이동시켜놓은 그런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한 민족에 끌어넣으려고 하기때문이다. 둘째로, 그것은 민족주의에로 나아가게 한다. 왜냐 하면 그것은 사람들을 민족별로 《획분》할것을 주장하며 민족들을 《조직》하고 《민족적특성》을 《보존》배양할것을 주장하는바 이것은 전혀 사회민주당에 합당하지 않은것이기때문이다. 오지리국회에서 모라위아인분리주의자들이 독일인사회민주당 의원들에서 갈라져나와 모라위아인자산계급의원들과 말하자면 한 모라위아적《의원단》에 련합되였던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분드의 분리주의자들이 《안식일》과 《유태어》를 찬양하면서 민족주의에 빠진것도 역시 우연한 일이 아니다. 국회에는 아직 분드파의 의원은

없다. 그러나 분드가 활동하고있는 지대에는 교권주의적반동적유태인자치회가 있는데 이 교회의《지도기관》내에서 분드는 지금 유태인 로동자들과 자산자의《련합체》를 조직하고있다①. 이러한것이야말로 민족문화자치의 론리인것이다.

요컨대 **민족**자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출로는 어디에 있는가?

유일하게 옳은 해결은 뽈스까, 리뜨와, 우크라이나, 깝까즈 등 그런 일정한 단위의 자치 곧 **지방**자치이다.

지방자치의 우월성은 우선 그 자치가 지역이 없는 허구를 상대로 하게 되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에 살고있는 일정한 주민을 상대로 하게 되는 거기에 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는 사람들을 민족에 따라서 갈라놓거나 민족적장벽을 공고히 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은 다르게 갈라놓는 즉 계급별로 갈라놓는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그 장벽을 깨뜨리고 주민을 련합시킨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전 중앙기관의 결의를 기다리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지방의 자연부원을 리용하며 또 생산력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주는것으로 이것은 민족문화자치에는 없는 직능이다.

요컨대 **지방자치는** 민족문제해결에 있어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어떠한 지방도 전부가 다 민족적으로 단일하지 못한것은 의심할바없는 일이다. 왜냐 하면 어떠한 지방에나 소수민족들이 끼여있기때문이다. 뽈스까에는 유태인이 있고 리뜨와에는 라뜨위야인이 있고 깝까즈에는 로씨야인이 있고 우크라이나에는 뽈스까인이 있는 등등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소수민족들이

---

① 《분드의 제8차대표자회의 문헌집》에서 유태인자치회에 관한 결정서의 결말부분.

다수민족들에게 압박을 당하게 될 위구가 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구는 나라가 낡은 제도하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있을수 있다. 나라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수립되면 이 위구는 온갖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

각처에 널려있는 소수민족을 단일한 민족적동맹에 결합하자고 제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들은 인위적동맹을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있는 그 지방에서의 실제적권리를 필요로 한다. 완전한 민주주의화가 없고서야 그와 같은 동맹이 그들에게 무엇을 줄수 있겠는가? 또 완전한 민주주의화가 있다면 민족적동맹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소수민족들의 각별한 관심을 끄는것은 무엇인가?

소수민족은 민족적동맹이 없다는데 불만을 가지는것이 아니라 본민족어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데 불만을 가진다. 소수민족으로 하여금 본민족어를 쓰게 하면 그 불만은 스스로 없어진다.

소수민족은 인위적동맹이 없다는데 불만을 가지는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본 민족 학교가 없다는데 불만을 가진다. 그들에게 그런 학교를 세워주면 그 불만은 온갖 근거를 잃어버리게 된다.

소수민족은 민족적동맹이 없다는데 불만을 가지는것이 아니라 신앙(교를 믿는것)의 자유, 이주의 자유 등등이 없다는데 불만을 가진다. 그들에게 그런 자유를 주면 그 불만은 없어지게 된다.

요컨대 모든 면(언어, 학교 등등)에서의 민족적평등은 민족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완전한 민주주의화의 기초우에서 제정되였으며 모든 민족적특권을 례외없이 금지하며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방해나 제한이든지 모조리 금지하는 그런 전 국가적 법률이

필요하다.

여기에 오직 여기에만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한 지상공담식의 담보가 아니라 진정한 담보가 있을수 있다.

조직상의 련방주의와 민족문화자치와의 사이의 론리적련결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론쟁할수도 있고 론쟁하지 않을수도 있는것이다. 그러나 완전한 분렬로, 분리주의로 넘어가는 제한없는 련방주의에 대하여 민족문화자치가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것만은 론쟁할 여지가 없는것이다. 오지리의 체스꼬인들이나 로씨야의 분드파가 자치로부터 출발하여 다음에는 련방제를 거쳐서 분리주의로써 끝을 맺었다면 이에 있어서 민족문화자치에 의하여 자연히 형성되는 민족주의적분위기가 큰 역할을 한것은 의심할것도 없다. 민족자치와 조직상의 련방제가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명백한 일이다. 이 두가지가 다 민족별로 획분하는것을 요구하며 민족별로 조직하는것을 전제로 하기때문이다. 류사점은 의심할것도 없는 일이다. 차이는 다만 민족자치는 일반적으로 주민을 갈라놓으며 조직상의 련방제는 사회민주당의 로동자당원들을 갈라놓는다는데 있을뿐이다.

우리는 로동자들을 민족별로 갈라놓는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알고있다. 통일된 로동자당의 분렬, 직업동맹의 민족별로의 분리, 민족적갈등의 첨예화, 한 민족에 의한 로동자들의 동맹파업의 파괴, 사회민주당대렬내에서의 사기의 완전한 저락—이와 같은것이 조직상에서의 련방주의의 결과이다. 오지리사회민주당의 력사와 로씨야에서의 분드의 활동이 이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하고있다.

이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 민족을 망라하는 원칙에 기초한 조직이다.

로씨야의 모든 민족의 로동자들을 각 지방에서 통일된 전

일적집단에로 결속시키고 그와 같은 집단들을 통일된 당에로 결속시키는것—이와 같은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이와 같은 당건설은 통일적인 당의 내부에서의 광범한 지방자치를 제외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그것을 전제로 하는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깝까즈의 경험은 이런 형태의 조직체가 적당하다는것을 전적으로 증명하고있다. 깝까즈인들이 아르메니야로동자들과 따따르로동자들과의 사이에 있는 민족적갈등을 제거하는데 성공한것, 그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서로 학살하고 사격하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것, 그 민족적집단들의 잡거지인 바꾸에서 지금은 이미 민족적충돌이 있을수 없게 된것, 그곳에서 로동자들을 힘찬 운동의 통일적인 궤도에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한것—이렇게 된데는 깝까즈사회민주당의 여러 민족을 망라하는 그 조직원칙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것이다.

조직형태는 실제사업에만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라 로동자들의 모든 정신적생활에 사라질수 없는 락인을 찍어준다. 로동자들은 자기 조직에서 생활하고있으며 그 조직에서 정신적으로 자라나며 또 교양을 받는다. 그리하여 자기 조직에서 생활하면서, 또 그곳에서 항상 다른 민족에 속하는 동지들과 접촉하면서, 공동집단의 지도밑에서 그들과 함께 공동투쟁을 수행하면서 그는 무엇보다도먼저 로동자들은 한 계급적가정의 일원이라는 사상, 통일적사회주의군대의 일원이라는 사상에 깊이 침투된다. 그런데 이것은 로동계급의 광범한 층을 교양하는데 거대한 의의를 가지지 않을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 민족을 망라하는 조직형태는 동지적감정을 배양하는 학교이며 국제주의를 위한 가장 유력한 선전이다.

민족별로 되는 조직체는 그렇지 못하다. 민족별로 조직된 로동자들은 민족적범위안에 국한되여 조직적장벽으로써 서로

격리되여있다. 이리하여 로동자간의 공통한 점이 강조되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구분되는 점이 강조된다. 여기에서는 로동자들은 무엇보다도먼저 자기 민족 즉 유태인, 뽈스까인 등등의 성원이 된다. 조직상에서의 민족적련방주의가 로동자들을 민족적고립의 정신으로 교양하게 되는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인 조직형태는 민족적 편협성과 보수성의 학교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앞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두가지 조직형태 즉 여러 민족을 결속시키는 형태와 로동자들을 민족별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획분하는》 형태가 있는것이다.

이 두가지 형태를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성공을 보지 못하였다. 1897년에 윕베르그에서 작성된 오지리사회민주당의 타협적인 당규약은 무용지물로 되였다. 오지리당은 산산이 흩어졌으며 직업동맹에까지 그 화가 미쳤다. 《타협》은 공상적일뿐만아니라 또한 해로운것이 되였다. 슈트라쎄르가 《분리주의는 윕베르그의 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승리하였다.》① 고 말한것은 옳은 말이다. 로씨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스톡홀름대회에서의 분드의 련방주의와의 《타협》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분드는 스톡홀름타협을 파탄시켰다. 분드는 스톡홀름대회후의 첫날부터 모든 민족의 로동자들을 포괄하는 통일된 조직체에다 각 지방 로동자들을 련합시키는 길의 장애물로 되였다. 그리하여 1907년 및 1908년에 로씨야사회민주당이 모든 민족의 로동자들의 통일을 하부로부터 실현하자고 여러 번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43] 분드는 자기의 분리주의적전술을 완고히 계속하였다. 조직상의 민족자치로부터 출발한 분드는 사실에 있어서는 완전한 분렬, 분리주의로써 결말을 짓기 위하

---

① 그의 《로동자와 민족》, 1912년판을 보라.

여 련방제로 넘어갔다. 로씨야사회민주당과 분리하면서 분드는 그 사회민주당내에서 혼란과 불통일을 초래하였다. 야겔로사건44을 회상하여보라.

그러므로 《타협》의 길은 공상적이고 해로운것이므로 반드시 포기하여야 한다.

둘중의 하나이다. 즉 혹은 분드의 련방주의를 따라감으로써 로씨야사회민주당이 로동자들을 민족별로 《획분하는》 원칙우에서 재조직되거나 혹은 여러 민족을 망라하는 조직형태를 취함으로써 분드로 하여금 깝까즈사회민주당, 라뜨위야사회민주당, 뽈스까사회민주당의 본을 따라서 지방자치의 원칙우에서 재조직하게 하여 유태인로동자들과 로씨야의 다른 민족들의 로동자들과의 직접적련합의 길을 열어주거나 하는것이다.

중간의 길은 없다. —원칙은 승리하는 법이지 《타협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로동자들의 민족간의 결속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에 있어서 필수적조건이다.

1913년 1월, 윈

잡지 《계몽》 1913년 3~5월의 제3~5호에 처음으로 게재

서명: 까.쓰딸린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2권, 289~358페지

10월혁명과 민족문제

민족문제를 어떤 독자적인것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민족문제는 현존제도를 개혁한다는 일반적문제의 한 부분이기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사회정세의 제반 조건과 국가정권의 성격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말하여 사회발전의 전반적인 행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사실은 로씨야에서 각 변강 민족문제와 민족운동이 혁명행정과 그 결말여하에 따라 급속히 또 누구에게나 명확하게 자기의 내용을 바꾸군 하던 혁명시기에 특히 뚜렷이 나타났다.

1
2월혁명과 민족문제

로씨야의 자산계급혁명시기(1917년 2월)에는 변강민족운동이 자산계급해방운동의 성격을 띠고있었다. 여러 세기에 걸쳐 《낡은 제도》의 압박과 착취를 받아온 로씨야의 여러 민족들은 처음으로 자기의 힘을 자각하고 압박자들과의 투쟁에 궐기하였다. 《민족적압박의 청산》—이것이 이 운동의 구호였다. 로씨야의 각 변강들은 순식간에 《전 민족적》 기관들로 뒤덮이였다. 운동은 자산계급민주주의적인 민족지식인들이 지도하였다. 라뜨위야, 에스또니야 변강지방, 리뜨와, 그루지야, 아르메니야, 아제르바이쟌, 북깝까즈, 끼르기즈, 볼가강중류지역

의 《민족쏘베트》, 우크라이나와 백로씨야의 《라다》①, 베싸라비야의 《스파뚤-께리》②, 크림과 바슈끼르의 《꾸룰따이》③, 뚜르께스딴의 《자치정부》—이것들은 민족자산계급의 여러 세력들을 집결한 《전 민족적》 기관들이였다. 당시의 과제는 민족적압박의 《기본원인》인 짜리제도하에서 해방되여 자산계급민족국가를 세우는것이였다. 민족자결권은 변강의 민족자산계급이 정권을 장악하며 2월혁명을 《자기》의 민족국가수립에 리용하는 권리로 해석되였다. 혁명을 더한층 발전시킨다는것은 상술한 자산계급기관들의 념두에 없었으며 또 그들은 그런것을 생각할수도 없었다. 그리고 짜리제도는 물러가도 그대신 가면을 벗은 로골적인 제국주의가 나타난다는것, 이 제국주의는 더 강하고 더 위험한 민족의 원쑤라는것, 그것은 또다시 민족적압박의 기초로 된다는것을 보지 못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짜리제도가 전복되고 자산계급이 정권을 장악하였지만 민족적압박은 청산되지 않았다. 낡고 조포한 민족적압박형태는 새롭고 세련된, 그러나 더욱 위험한 압박형태로 바뀌여졌다. 리워브-밀류꼬브-께렌스끼정부는 민족적압박정책을 내버리지 않았을뿐만아니라 핀란드(1917년 여름에 있은 국회의 해산)와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문화기관의 파괴)에 대한 새로운 진공을 또다시 조직하였다. 그뿐만아니라 제국주의본성을 가진 이 정부는 새로운 령토, 새로운 식민지, 새로운 민족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계속할것을 주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정부의 이 조치는 비단 제국주의의 내적본성에만 기인하는것이 아니라 서방에서 구제국주의국가들이 새로운 령토와 새로운

---

① 라다는 회의, 대표자회의라는 뜻이다.—편집자
② 스파뚤-께리는 변강대표자회의라는 뜻이다.—편집자
③ 꾸룰따이는 대회, 대표자대회라는 뜻이다.—편집자

민족의 예속화에 눈이 어두워 날뛰면서 로씨야정부의 세력범위를 축소할 위험이 있었다는데도 기인하는것이다. 제국주의국가들이 자기의 존립조건으로서 약소민족을 예속시키기 위하여 진행하는 투쟁—이것이 제국주의전쟁행정에서 드러난 광경이다. 짜리제도가 전복되고 밀류꼬브-께렌스끼정부가 등장하였지만 추잡한 이 광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변강의 《전 민족적》 기관들이 국가적독립을 지향하는 한 로씨야제국주의 정부의 단호한 반격을 받게 된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민족자산계급의 정권을 수립하면서 《자기의》 로동자, 농민의 근본적리익은 돌보지 않았기때문에 로동자, 농민들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이른바 《민족군대》는 붙는 불에 키질하는 격으로밖에 되지 않았다. 즉 그들은 우로부터 오는 위험을 막는데는 무력하였으며 밑으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해서는 다만 그것을 증대시키고 격화시켰을뿐이였다. 또한 《전 민족적》 기관들은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혁명이 폭발되는데 대해서도 무방비상태에 있었다. 방금 탄생된 자산계급민족국가는 꽃도 피기전에 시들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자결원칙에 대한 자산계급민주주의적인 낡은 해석은 허구로 되였으며 그 혁명적의의를 상실하였다. 그와 같은 조건하에서 민족적압박을 청산하고 약소민족국가의 독립을 달성한다는것은 운운할 여지조차 없다는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와 관계를 끊지 않고 《자기의》 민족자산계급을 전복하지 않고 근로대중자신이 정권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피압박민족의 근로대중의 해방과 민족적압박의 제거는 생각조차 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하여졌다.

이것은 10월혁명이후에 특히 명백하게 나타났다.

2
10월혁명과 민족문제

2월혁명은 비타협적인 내적모순을 가지고있었다. 혁명은 로동자, 농민(병사)들의 노력으로 수행되였으나 혁명의 결과 정권은 로동자, 농민에게가 아니라 자산계급에게로 넘어갔다. 로동자, 농민은 혁명을 수행함으로써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권을 장악한 자산계급은 대중의 혁명적열정을 리용하여 전쟁을 계속하며 평화를 반대하려 하였다. 국내의 파괴된 경제와 식량위기는 로동자들을 위하여 자본과 공업기업소들을 수탈하며 농민들을 위하여 지주의 토지를 몰수할것을 요구하였으나 밀류꼬브-께렌스끼자산계급정부는 지주와 자본가들의 리익을 수호하면서 로동자, 농민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단호히 보호하여주었다. 이것은 힘은 로동자, 농민이 들이고 열매는 착취자들이 거두게 된 자산계급혁명이였다.

그런데 나라는 제국주의의 전쟁과 경제적파국과 식량위기의 중압으로 계속 신음하고있었다. 전선은 파괴되고 와해되였다. 공장은 조업을 중지하였다. 국내에서는 기근이 우심해져갔다. 2월혁명은 그 내적모순으로 하여 《나라를 구원》할 힘이 확실히 없었다. 밀류꼬브-께렌스끼정부는 혁명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확실히 무능력하였다.

나라를 제국주의전쟁과 경제적파국의 막다른골목에서 구출하자면 새로운 사회주의혁명이 필요하였다.

이 혁명은 10월혁명의 결과 도래하였다.

10월혁명은 지주와 자산계급의 정권을 전복하고 로동자, 농민의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2월혁명의 온갖 모순을 단번에

해결하였다. 지주-부농의 전제정권을 폐지하고 토지를 농촌의 근로대중이 리용하도록 넘겨주었으며 공장들을 수탈하여 로동자들의 관리에 넘겨주었으며 제국주의와 인연을 끊고 략탈전쟁을 중식시켰으며 비밀조약을 공포하고 타국령토에 대한 침략정책을 폭로하였으며 끝으로 피압박민족의 근로대중의 자결을 선포하고 핀란드의 독립을 승인한것—이것이 쏘베트정권이 쏘베트혁명초기에 실시한 기본조치들이다.

이것은 참으로 사회주의적인 혁명이였다.

중앙에서 시작된 혁명이 그 좁은 지역에 그대로 오래동안 머물러있을수는 없었다. 혁명은 중앙에서 승리한후 불가피적으로 변강에로 타번지였다. 사실상 혁명의 파도는 혁명의 첫날부터 각 변강을 련달아 휩쓸면서 북쪽에서부터 전 로씨야로 파급되였다. 그러나 변강에 이르자 혁명의 파도는 이미 10월혁명전에 수립되였던 《민족쏘베트》나 지방《정부》(돈, 꾸반, 씨비리)와 같은 제방에 부딪쳤다. 이 《민족정부》들은 사회주의혁명에 귀도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던것이다. 자산계급적본성을 가진 이 정부들은 결코 낡은 자산계급제도를 파괴하려 하지 않았으며 도리여 전력을 다하여 그것을 보존하고 강화하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생각하였다. 본질상 제국주의적인 이 정부들은 결코 제국주의와 인연을 끊으려 하지 않았으며 도리여 기회만 있으면 《다른》 민족의 령토를 한조각이라도 략탈하고 정복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변강《민족정부》들이 중앙의 사회주의정부에 선전을 포고한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선전을 포고함으로써 이 정부들은 당연히 반동의 기지로 되여 로씨야의 모든 반혁명세력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켰다. 로씨야에서 추방당한 모든 반혁명분자들이 이 기지에 모여들어 여기를 중심으로 백위군《민족》군대를 조직하였다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변강에는 《민족정부》이외에 여러 민족의 로동자와 농민들도 있다. 10월혁명전에 벌써 로씨야중앙의 로동자병사농민대의원쏘베트를 본받아 혁명적인 로동자병사농민대의원쏘베트에 조직된 그들은 결코 북방에 있는 자기 형제들과의 련계를 끊지 않았었다. 그들도 역시 자산계급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려 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러므로 《자기의》 민족정부와 그들간의 충돌이 날로 격화된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0월혁명은 오직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변강 로동자, 농민들의 신심을 고무함으로써 그들과 로씨야 로동자, 농민간의 동맹을 공고히 하였을뿐이였다. 그런데 쏘베트정권과의 《민족정부》들의 전쟁은 각 민족의 대중이 《정부》들과 충돌하게 함으로써 도리여 이 《정부》들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고 그들을 반대하여 공개적인 폭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리하여 로씨야변강의 민족자산계급《정부》들의 반혁명적 동맹에 대치되는 전체 로씨야 로동자, 농민들의 사회주의적동맹이 형성되였다.

어떤 사람들은 변강《정부》들의 투쟁을 쏘베트정권의 《랭혹한 중앙집권제》를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인듯이 묘사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세계에서 어느 한 정권도 로씨야의 쏘베트정권처럼 광범한 지방분권을 허용한 정권은 없으며 또 세계에서 어느 한 정부도 여러 민족들에게 그처럼 충분한 민족적자유를 준 정부는 없다. 과거나 현재나 변강《정부》들의 투쟁은 자산계급반혁명세력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민족자산계급이 민족적기치를 내거는것은 그것이 자기들의 반혁명적시도를 감추는데 편리한 인기있는 기치이므로 그것을 리용하여 대중을 기만하자는데 목적이 있을뿐이다.

그러나 《민족정부》들이나 지방《정부》들의 투쟁은 승산이 없는 투쟁이였다. 두 방면의 공격 즉 밖으로는 로씨야쏘베트

정권의 공격을 받고 안으로는 《자기의》 로동자, 농민의 공격을 받은 《민족정부》들은 첫전투에서 퇴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핀란도의 로동자와 또르빠리①들의 폭동과 자산계급적《원로원》의 패주, 우크라이나 로동자, 농민의 폭동과 자산계급적《라다》의 패주, 돈지방, 꾸반, 씨비리의 로동자, 농민의 폭동과 깔레친, 꼬르닐로브 및 씨비리《정부》의 붕괴, 뚜르께스딴빈민들의 폭동과 《자치정부》의 패주, 깝까즈의 농업혁명과 그루지야, 아르메니야 및 아제르바이쟌의 《민족쏘베트》들의 완전한 고립 등—누구나 다 알고있는 이 모든 사실은 변강《정부들》이 《자기의》 근로대중과 완전히 유리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여지없이 분쇄된 《민족정부》들은 《자기의》 로동자, 농민을 반대하기 위하여 전 세계 각 민족들의 세기적압박자이며 착취자인 서방제국주의자들에게 《부득이》 원조를 청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외국의 간섭과 변강점령의 시기 즉 《민족정부》와 지방《정부》들의 반혁명적성격을 다시한번 폭로하는 시기가 시작되였다.

민족자산계급은 《자기 인민》을 민족적압박에서 해방시키려는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리윤을 짜낼 자유를 얻으며 자기의 특권과 자본을 보존할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는것이 이제야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명백하여졌다.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은 제국주의와 관계를 끊지 않고 피압박민족의 자산계급을 전복하지 않고서는, 또 그 민족의 근로대중의 수중에 정권이 넘어오지 않고서는 생각할수 없다는것이 이제야 비로소 명백해졌다.

---

① 또르빠리는 핀란드의 땅없는 농민들이다.—편집자

이리하여 《모든 정권은 민족자산계급에게》라는 구호를 내건 자결원칙에 대한 자산계급적인 낡은 견해는 혁명행정자체에 의하여 폭로되고 포기되였다. 《모든 정권은 피압박민족의 근로대중에게》라는 구호를 내건 자결원칙에 대한 사회주의적 견해가 전면적으로 승인되였고 적용할 가능성을 얻게 되였다.

이리하여 10월혁명은 낡은 자산계급민족해방운동을 종결짓고 피압박민족의 로동자, 농민의 새로운 사회주의적운동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이 운동은 민족적압박도 포함한 온갖 압박을 반대하며 《자기》와 다른 민족의 자산계급정권을 반대하며 제국주의일반을 반대한다.

3
10월혁명의 세계적의의

로씨야의 중앙에서 승리하고 여러 변강을 휩쓴 10월혁명은 로씨야령토의 범위에 머물러있을수 없었다. 제국주의의 세계전쟁과 대중의 불만으로 가득찬 분위기속에서 10월혁명은 린접국들에로 타번지지 않을수 없었다. 제국주의와 인연을 끊고 략탈전쟁에서 로씨야를 해방한것, 비밀조약을 공포하고 타국령토에 대한 략탈정책을 엄숙히 폐기한것, 민족적자유를 선언하고 핀란드의 독립을 시인한것, 로씨야를 《쏘베트민족공화국련방》으로 선포한것, 그리고 제국주의와 결정적으로 투쟁하라는 전투적호소를 전 세계에 보낸것—이 모든것은 예속받고있는 동방과 피를 흘리고있는 서방에 거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10월혁명은 동방피압박민족의 근로대중을 세기적인 잠에서 깨워 세계제국주의와의 투쟁에 끌어들인 세계 최초의 혁명이다. 로씨야의 쏘베트를 본받아 페르샤, 중국 및 인도에

서 로동자농민쏘베트가 수립된 사실은 이것을 잘 말하여준다.

10월혁명은 서방의 로동자와 병사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산 모범으로 되였으며 전쟁과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실제로 해방되는 길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세계 최초의 혁명이다. 오지리-웽그리아와 독일에서 로동자와 병사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로동자병사쏘베트가 수립되고 오지리-웽그리아에서 완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민족들이 민족적압박을 반대하는 혁명적투쟁을 전개하고있는 사실이 이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문제는 결코 동방이나 지어 서방에서까지 진행되는 투쟁이 자산계급민족주의적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제국주의와의 투쟁이 개시되였다는데 있으며 그 투쟁이 계속되여 마침내는 그 론리적귀결에 반드시 도달하리라는데 있는것이다.

외국의 간섭과 《외래》제국주의자들의 강점정책은 더 많은 민족들을 투쟁에 끌어들여 제국주의와의 혁명적격투지대를 확대함으로써 혁명적위기를 첨예화시킬따름이다.

이와 같이 10월혁명은 락후한 동방인민들과 선진적인 서방인민들간의 련계를 맺어줌으로써 그들을 제국주의와의 공동투쟁의 진영에 끌어들이고있다.

이리하여 민족문제는 민족적압박과의 투쟁이라는 부분적문제로부터 민족과 식민지 및 반식민지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일반적문제로 발전하고있다.

제2국제당과 그 두목 카우쯔키의 씻을수 없는 죄악은 특히 그들이 민족자결문제에서 항상 자산계급적해석에 빠져 그 문제의 혁명적의의를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민족문제를 제국주의와 공개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적지반우에서 제기할줄 몰랐거나 또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민족문제를 식민지해방

문제와 련결시킬줄 몰랐거나 또는 련결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바우에르나 렌네르따위의 오지리사회민주주의자들이 우둔하다는것은 실은 그들이 제국주의나 그에 예속된 식민지와 같은 《사소한것》의 존재를 망각하고 또 정권문제와 민족문제와의 불가분적련관을 리해하지 못하고 민족문제를 정치와 분리하여 문화계몽문제의 범위에 국한시키려고 하였다는데 있다.

사람들은 자결원칙과 《조국보위》의 원칙이, 앙양되고있는 사회주의혁명의 정세하에서 사변의 행정자체에 의하여 포기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포기된것은 자결원칙과 《조국보위》의 원칙인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자산계급적해석이다. 제국주의의 압박에 견디다못해 해방을 갈망하고있는 피강점지방들, 제국주의야수들로부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혁명전쟁을 진행하고있는 로씨야를 보라. 또 현재 오지리-웽그리아에서 벌어지고있는 사변, 이미 자기 나라에 쏘베트를 조직한 예속적인 식민지와 반식민지들(인도, 페르샤, 중국)을 보라. 이상의 모든 사실을 보면 사회주의적으로 해석된 자결원칙이 가지는 혁명적의의가 충분히 리해될수 있을것이다.

10월혁명의 위대한 세계적의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1) 민족문제의 범위를 확장하여 이것을 구라파에서의 민족적압박과의 투쟁이라는 부분적문제로부터 피압박민족과 식민지 및 반식민지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일반적문제로 전화시켰으며,

(2) 동방과 서방의 피압박민족을 제국주의와의 승리적투쟁의 공동궤도에 끌어들이여 그들의 해방을 위한 광범한 가능성과 현실적인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그들의 해방위업을 대단

히 쉽게 하여주었으며,

(3)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적서방과 예속된 동방간에 다리를 놓았으며 서방의 무산자들로부터 로씨야혁명을 거쳐 동방의 피압박민족들에 이르는 세계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새로운 혁명전선을 결성하였다.

동방과 서방의 피착취근로대중이 현재 로씨야의 무산계급을 그렇듯 뜨거운 열정으로 대하고있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전 세계의 제국주의적야수들이 오늘 쏘베트로씨야에 대하여 그렇듯 발악적으로 달려들고있는것도 주로 이때문인것이다.

1918년 11월 6일과 19일부
《프라우다》 제241호와 제
250호에 게재

서명: 이.쓰딸린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4권, 140~149페지

동방을 잊지 말라

구라파에서 혁명운동이 앙양되는 시기 즉 낡은 왕좌와 왕관이 혁명적인 로동자병사쏘베트에 그 자리를 내주며 붕괴되고 점령된 지방들이 자기의 지역으로부터 제국주의의 앞잡이를 몰아내고있는 이때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히 서방으로 향하게 된다. 구라파에서 단조되여 전 세계를 교살하고있는 제국주의의 철쇄는 우선 서방에서 반드시 짓부셔질것이다. 먼저 서방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이 샘솟을것이다. 이러한 시기에는 제국주의에 예속된 수억만의 인구를 가진 먼 동방은 안계에서 《자연히》 사라져 망각되고있다.

그러나 동방은 그것이 세계제국주의의 《무진장》한 예비이며 《가장 믿음직한》 후방인것으로 보아서도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항상 동방을 자기의 행복의 토대로 보았다. 동방 각국의 무진장한 자연부원(면화, 석유, 금, 석탄, 광석)—이것이 과연 전 세계 제국주의자들의 《불화의 사과》45로 되지 않았던가? 제국주의자들이 구라파에서 싸우며 또 서방에 대하여 지껄이면서도 언제나 중국, 인도, 페르샤, 애급, 마로크를 념두에 두지 않은 때가 없다는 리유는 사실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왜냐 하면 사실상 항상 동방이 문제로 되였던 까닭이다. 그들이 동방 각국에서 《질서와 치안》을 열심히 유지하려는것은 주로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왜냐 하면 그것이 없이는 제국주의의 이 대후방이 보장될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에게 필요한것은 동방의 부원만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동방의 식민지와 반식민지에 얼마든지 있는 그 《온순한》 《인적자원》이 요구된다. 그들에게는 동방민족들의 《순직》하고 값싼 《로력》이 요구된다. 그밖에 또 그들에게는 동방 각국의 《유순》한 《청년》들이 요구되는바 그들은 이들중에서 소위 《유색》부대를 모집하여 《자국내》의 혁명적로동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내몰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동방 각국을 자기의 《무진장한》 예비라고 부른다.

공산주의의 파업은 동방피압박민족들을 세기적인 잠에서 깨우며 이 나라들의 로동자와 농민을 혁명의 해방정신으로 감염시켜 그들을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궐기시킴으로써 세계제국주의로 하여금 그 《가장 믿음직한》 후방과 《무진장한》 예비를 상실하게 하는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와 제국주의에 대한 철저한 승리는 상상할수도 없는것이다.

로씨야에서의 혁명은 처음으로 동방피압박민족들을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궐기시켰다. 페르싸, 인도, 중국에 수립된 대의원쏘베트는 동방의 로동자와 농민들이 세기적인 잠에서 깨여났다는 뚜렷한 표징이다.

서방에서의 혁명은 물론 동방의 혁명운동을 추동할것이며 또 그 운동에 용기와 승리의 신념을 줄것이다.

제국주의자들자신이 감행하는 령토합병은 동방의 혁명화를 크게 추진하게 될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더욱 많은 국가들을 끌어들이며 세계혁명의 기지를 확대할것이기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의 파업은 동방에서 장성하고있는 자연발생적운동에 개입하여 그 운동을 앞으로 밀고나아감으로써 제국주의와의 자각적투쟁에까지 발전시키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얼마전에 소집되였던 회교도인-공산주의자 대표자회의46에서 페르싸, 인도, 중국 등 동방 각국에서 선동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채택한 결의문은 의심할것없이 심각한 혁명적의의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회교도인동지들이 극히 중요한 자기들의 결정을 수행할것을 기대하는바이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의 승리를 원하는자는 동방을 잊을수 없다는 그 진리를 영원히 마음속깊이 명기하고있어야 되기때문이다.

1918년 11월 24일부 《민족생활》지 제3호의 사설로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4권, 152~154페지

로씨야공산당의 조직자 및 령도자로서의 레닌

두 부류의 맑스주의자가 있다. 이 두 부류의 맑스주의자들은 모두 맑스주의의 기치하에서 활동하고있으며 《진정한》 맑스주의자로 자처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을 결코 동일시할수는 없다. 그뿐만아니라 그들사이에는 건늘수 없는 심연이 있다. 왜냐 하면 그들의 활동방법이 정반대이기때문이다.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보통 맑스주의를 외견상으로 승인하며 그것을 엄숙하게 선포하는데 그치고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맑스주의의 본질을 깊이 탐구할줄 모르거나 또는 탐구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또 맑스주의를 실천할줄 모르거나 또는 실천하려고 하지 않고 맑스주의의 생생하고 혁명적인 명제들을 생기없고 무의미한 공식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들은 자기활동을 경험이나 실지사업의 타산에 립각하는것이 아니라 맑스의 인용문에 립각하고있다. 그들은 지시와 지령을 산 현실의 분석속에서가 아니라 류추와 력사적대비속에서 얻어내고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이것이 이 부류의 사람들의 주되는 병집이다. 이때문에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을 난처하게 하며 《우롱》하고있는 운명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끊임없이 원망하고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의 명칭은(로씨야에서는) 멘쉐위크주의, (구라파에서는) 기회주의라고 한다. 띄슈까(요기헤스)동지는 런던대회[47]에서 이 부류의 사람들을 아주 적절하게 특징지어 말하기를 이 부류의 사람들은 맑스주의의

견지에 서있는것이 아니라 누워있다고 하였다.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문제의 중심을 맑스주의의 외견상의 승인으로부터 맑스주의를 실천에로, 그것을 실현하는데로 옮긴다. 정세에 알맞는 맑스주의의 실현의 방법 및 수단의 수립, 정세의 변화에 따르는 이 방법과 수단의 변경—이 부류의 사람들은 주로 이런 면에 자기의 주의를 돌린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지령과 지시를 력사적 류추와 대비속에서 얻어내는것이 아니라 주위의 조건들을 연구하는데서 얻어낸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인용문과 격언에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실천적경험에 의거하며 자기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경험에 비추어 검열하며 자기 오유에서 배우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활의 건설을 가르쳐준다. 이것으로써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의 활동에 있어서는 어째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또한 맑스의 학설이 자기의 산 혁명적인 힘을 완전히 보존하고있는가 하는것이 사실상 설명되는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은 세계를 해석하는데만 그칠수 없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를 변혁하여야 한다①는 맑스의 말은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들어맞는다. 이 집단의 명칭은 볼쉐위크주의, 공산주의라고 한다.

웨. 이. 레닌은 이 집단의 조직자이며 령도자이다.

1

로씨야공산당의 조직자로서의 레닌

로씨야에서 무산계급당의 형성은 서구라파에서 로동자당이 조직되던 시기의 조건과는 다른 특수한 조건하에서 진행되

---

①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24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였다. 서구라파 즉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자산계급혁명후 자산계급국회가 존재하며 정권에 기여든 자산계급이 무산계급과 직접 대립하여있는 환경속에서, 직업동맹들과 당들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로동자당이 직업동맹들로부터 출현하였다. 이와 반대로 로씨야에서는 혹독한 전제제도하에서,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을 기다리고있는 환경속에서 무산계급의 당이 형성되였다. 그 당시 일방으로는 로동계급을 자산계급혁명에 리용하려고 갈망하는 자산계급적《합법적맑스주의》분자[48]들이 당조직들에 가득차있었으며 타방으로는 짜리의 헌병들이 우수한 당일군들을 당대렬에서 빼앗아가고있었는데 자연발생적인 혁명운동의 발전은 전제제도를 전복하는 방향에로 이 운동을 이끌수 있는 견실하고 단결되고 비밀이 충분히 보장된 전투적인 혁명가들의 핵심을 요구하였다.

당시의 파업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며 이색분자들을 갈라내며 지방들에서 경험있는 혁명간부들을 묶어세우며 그들에게 명확한 강령과 확고한 전술을 제시하는데 있었으며 헌병의 습격을 막아낼만큼 비밀이 충분히 보장되고 그와 동시에 대중을 필요한 때에 투쟁에로 인도할수 있도록 대중과 충분히 련결된 직업적혁명가들의 통일된 전투적조직체에 이 간부들을 결속시키는데 있었다.

멘쉐위크들, 바로 맑스주의의 견지에《누워있는》그 멘쉐위크들은 문제를 단순히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다. 즉 서구라파에서는 로동자당이 로동계급의 경제적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투쟁하는 비당적인 직업동맹들로부터 출현하였기때문에 로씨야에서도 역시 가능한 정도로 그와 같이 하여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다시말하면 당분간은 전 로씨야적인 전투적조직체는 창설하지 말고 각 지방에서《고용주들과 정부에 대한 로동자들의 경제투쟁》에만 국한하여야 할것이며 그후에…그후에, 그

때까지도 직업동맹들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비당적인 로동자대회를 소집하고 그것을 당이라고 선언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멘쉐위크들의 이 《맑스주의적》《계획》이 로씨야의 조건하에서는 공상적인것이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성의 사상을 저하시키며 당간부들을 소멸시키며 무산계급이 당을 가지지 못하게 하며 로동계급을 자유주의자들에게 희생물로 넘겨주기 위한 광범한 선동사업을 전제로 하고있다는데 대해서는 그 당시에 멘쉐위크들과 아마 볼쉐위크들중 많은 사람들까지도 알지 못하였을것이다.

로씨야무산계급과 그 당에 대한 레닌의 위대한 공로는 그가 멘쉐위크들의 조직적《계획》이 겨우 생겨나고있을 때에, 즉 이 《계획》의 작성자들자신도 그 륜곽을 명백히 상상하기 어렵던 그때에 이 《계획》의 온갖 위험성을 폭로한 점에 있으며 그리고 이 계획을 폭로하고나서 실천가들의 전체 주의력을 이 문제에 집중시켜 멘쉐위크들의 조직적해이성을 반대하여 맹렬한 공격을 전개한 점에 있는것이다. 그것은 문제가 당의 존재에, 당의 생사존망에 관계되는것이였기때문이다.

당의 력량을 집결시키는 중심으로 전 로씨야적인 정치신문을 창간하며 각 지방에 있는 견실한 당간부들을 당의 《정규부대》로 조직하며 신문을 통하여 이 간부들을 한덩어리로 집결시키며 또한 그들을 뚜렷한 한계와 명확한 강령과 확고한 전술 및 통일된 의지를 가진 전 로씨야적인 전투적당으로 결속시키는것—바로 이러한 계획을 레닌은 자기의 유명한 저서 《무엇을 할것인가?》①, 《1보전진 2보후퇴》② 가운데서 전개하였다. 이 계획의 진가는 그것이 로씨야의 현실에 완전히 부합

---

① 《레닌선집》, 제1권, 289~508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7권, 189~420페지를 보라.—편집자

되며 또한 우수한 실천가들의 조직적경험을 능란하게 일반화한데 있다. 이 계획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로씨야의 실천가의 다수는 분렬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결히 레닌의 뒤를 따라갔다. 이 계획의 승리는 세계에서 그 류례가 없는 단결되고 련마된 공산당의 기초를 닦았다.

가끔 우리 동지들은(멘쉐위크들뿐만아니다!) 레닌을 론쟁과 분렬에 너무나 치우친다거나 타협분자들과의 투쟁을 비타협적으로 진행한다는 등으로 비난하였다. 한때 그러한 일들이 있은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 당이 자기 대렬내에서 비무산계급적인 기회주의분자들을 축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당은 내부적 취약성과 산만성을 제거하지 못하였을것이며 또한 우리 당에 고유한 힘과 공고성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리라는것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자산계급이 지배하고있는 시기에는 무산계급당은 오직 그가 자기 대렬과 로동계급속의 기회주의분자, 반혁명분자 및 반당분자들과 투쟁해야만 발전 강화될수 있다. 라쌀이 《당은 자신을 깨끗이 하는데 의하여 공고화된다.》[49]고 한것은 옳은 말이다.

비난자들은 그 당시 《통일》이 전성하고있던 독일의 당을 흔히 인증하였다. 그러나 첫째로, 어떠한 통일이든지 모두다 힘의 표징으로 되는것은 아니며 둘째로, 샤이데만 및 노스케와 렙크네히트 및 룩셈부르그간의 《통일》이 전혀 기만이며 허위라는것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독일당이 지금 세개의 당[50]으로 분렬된 사실을 보기만 하면 충분하다. 만일 독일당의 혁명분자들이 제때에 당내의 반혁명분자들과 분렬하였더라면 독일무산계급에게 더 좋지 않았을가… 그렇다. 레닌이 반당 및 반혁명분자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의 길로 당을 인도한것은 천만번 정당하였다. 왜냐 하면 우리 당은 오직 그러한 조직적인 정책의 결과로써만 당내의 통일과 놀랄만한 단결을

이룩할수 있었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통일과 단결에 의해서 께렌스끼통치시기의 7월위기[51]로부터 무난히 벗어났고 10월폭동의 중책을 다하였으며 동요없이 브레스트시기의 위기[52]를 겪어내고 련합국에 대한 승리를 조직하였으며 또한 당이 어떠한 시기에나 당내에 혼란을 조성함이 없이 자기 대오를 재편성하며 수십만의 자기 당원들을 어떠한 큰 사업에라도 집중할수 있는 류례없는 신축성을 획득하였다.

2
로씨야공산당의 령도자로서의 레닌

그런데 로씨야공산당의 조직상의 우월성은 다만 문제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만일 당사업의 정치적내용과 당의 강령 및 전술이 로씨야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았더라면, 당의 구호가 로동자대중을 궐기시키며 혁명운동을 앞으로 추진시키지 않았더라면 당은 그처럼 급속히 장성강화되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러면 문제의 이 측면에 대하여 언급해보자.

로씨야의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1905년)은 혁명적변혁시기의 서구라파 즉 프랑스와 독일에서의 조건과는 다른 조건하에서 진행되였다. 서방에서는 혁명이 자본주의의 공장제수공업시기에 계급투쟁이 발전하지 못한 조건하에서 폭발하였는데 당시 무산계급은 미약하였고 수적으로 적었으며 자기들의 요구를 정식화할수 있는 자기자체의 당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자산계급은 로동자와 농민의 신뢰를 받으며 그들을 귀족과의 투쟁에로 인도할만큼 매우 혁명적이였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로씨야에서는 혁명이 자본주의의 기계시기에, 계급투쟁이 발전한 조건하에서 개시되였는데(1905년) 그 당시 수효가 비교적 많고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단결된 로씨야의 무산계급

은 이미 자산계급과 여러 번 전투한 경험이 있었고 자산계급당보다도 더욱 단결된 자기의 당을 가지고있었으며 자기의 계급적요구를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로씨야의 자산계급은(정부의 주문으로 생활하고있은 자산계급은 더구나 그러하였다.) 무산계급의 혁명성에 너무 질겁하여 로동자, 농민을 반대해서 정부 및 지주들과의 동맹을 찾고있었던것이다. 로씨야의 혁명이 만주전선에서의 군사적실패의 결과로 폭발하였다는 그 사실은 다만 사변을 촉진시켰을따름이지 문제의 본질은 추호도 변경하지 못하였다.

당시의 정세는 무산계급이 혁명의 선두에 서서 자기 주위에 혁명적농민을 결속시키고 나라의 완전한 민주주의화와 자기의 계급적리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짜리제도를 반대하는 동시에 자산계급을 반대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멘쉐위크들, 바로 맑스주의의 견지에 《누워있는》 그자들은 문제를 자기 식으로 해결하였다. 즉 로씨야혁명은 자산계급적이며 또 자산계급혁명에서는 자산계급의 대표자들이 령도하는만큼(프랑스 및 독일 혁명의 《력사》를 보라.) 무산계급은 로씨야혁명의 령도자로 될수 없으며 령도권은 로씨야의 자산계급에게(바로 혁명을 배반하는 그 자산계급에게) 넘겨주어야 하며 농민도 역시 자산계급에게 맡겨두어야 하며 무산계급은 다만 극좌익적인 반대파의 립장을 취하고있어야 한다는것이다.

너절한 자유주의자들이 되풀이하는 이런 비속한 주장을 멘쉐위크들은 《진정한》 맑스주의의 정수처럼 내세웠던것이다!…

로씨야혁명에 대한 레닌의 위대한 공로는 그가 멘쉐위크들이 하고있는 력사적류추의 공허성과 그리고 로동자의 위업을 자산계급이 망쳐먹게 내버려두는 멘쉐위크들의 《혁명계획》

의 온갖 위험성을 철저히 폭로한데 있다. 자산계급의 독재 대신에 무산계급과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 국회참가와 그 내부에서의 합법적활동 대신에 불리긴국회[53]에의 참가 거부 및 무장폭동, 그래도 국회가 성립된다면 그후에는 《좌익동맹》을 결성한다는 사상, 그리고 립헌민주당[54]의 조각과 국회의 반동적인 《보호》 대신에 국회외의 투쟁을 위한 국회연단의 리용, 립헌민주당파의 동맹 대신에 반혁명력량인 립헌민주당과의 투쟁—바로 이러한 전술적계획을 레닌은 자기의 유명한 소책자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두가지 전술》①과 《립헌민주주의자들의 승리와 로동자당의 과업》②에서 전개하였다.

이 계획의 진가는 그것이 로씨야의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 시기에 있어서 무산계급의 계급적요구를 단적으로 또 결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이행을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무산계급독재**사상의 맹아를 내포하고있은 점에 있다. 이 전술적계획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로씨야실천가들의 대다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레닌의 뒤를 따라갔다. 이 계획의 승리는 현재 우리 당이 세계제국주의의 기초를 뒤흔들어놓을수 있는 그 혁명적전술의 토대를 닦아놓았다.

제 사건의 그후의 발전, 4년간의 제국주의전쟁과 전반 인민경제의 파탄, 2월혁명과 유명한 이중정권, 자산계급반혁명의 근원으로서의 림시정부 그리고 탄생하고있던 무산계급독재의 한 형태인 뻬쩨르부르그대의원쏘베트, 10월혁명 및 헌법제정회의[55]의 해산, 자산계급의회제도의 폐지 및 쏘베트공화국의 선포, 제국주의전쟁의 국내전쟁에로의 전화, 무산계급혁명을 반대하여 말공부만 하는 《맑스주의자들》과 함께 세계제국

---

① 《레닌선집》, 제1권, 675~822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10권, 170~247페지를 보라.—편집자

주의의 진출, 그리고 헌법제정회의에 매달렸다가 무산계급이 바다속에 내던지자 혁명의 파도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의 해변으로 밀려간 멘쉐위크들의 가련한 처지—이 모든것은 《두가지 전술》에서 레닌이 정식화한 혁명적전술의 원리가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여줄뿐이였다. 이러한 유산을 가지고있는 당은 암초를 접내지 않고 용감하게 앞으로 항행할수 있었다.

당의 배개 구호나 령도자의 매마디 말이 사실에 의하여 검열되는 우리 무산계급혁명시기에 무산계급은 자기의 수령들에게 특별한 요구를 제기하는것이다. 력사는 헌신적이며 용감하기는 하나 리론에 있어서는 약한 무산계급의 수령들, 폭풍시기의 수령들, 실천가로서의 수령들을 알고있다. 대중은 이러한 수령들의 이름을 쉽사리 잊지 않을것이다. 례컨대 독일의 라쌀, 프랑스의 블랑끼가 그러한 수령들이다. 그런데 전반 운동은 다만 추억 하나로써는 존재할수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운동에는 명백한 목적(강령)과 확고한 로선(전술)이 요구된다.

전자와는 다른 종류의 수령들 즉 리론에 있어서는 강하나 조직과 실천적 사업에 있어서는 약한 평화기의 수령들도 있다. 그러한 수령들은 다만 무산계급의 상층에서만 인기를 끄는것인데 그것도 일정한 시기까지만이다. 수령들에게 혁명적인 실천적구호들을 요구하는 혁명의 시기가 닥쳐옴과 아울러 이러한 리론가들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여주고 무대에서 물러나간다. 례컨대 로씨야의 쁠레하노브나 독일의 카우쯔키가 그러하다.

무산계급혁명과 무산계급당의 령도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론적력량과 더불어 무산계급운동의 실천적-조직적 경험을 반드시 겸비하여야 한다. 뻬. 악셀로드는 그가 맑스주의자였을 때에 레닌에 관하여 쓰기를 그는 《훌륭한 실천가의

경험과 아울러 리론적교양과 넓은 정치적시야를 훌륭히 겸비하고있다.》(레닌의 소책자《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의 과업》56에 대한 뻬. 악쎌로드의 서문을 보라.)고 하였다. 《문명한》 자본주의의 사상가인 악쎌로드씨가 레닌에 대하여 지금에는 무엇을 말할것인가 하는것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레닌을 잘 알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줄 아는 우리들로서는 레닌에게 그 옛자질이 완전히 보존되여있다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런데 레닌이, 바로 그이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련마된 무산계급당의 령도자라는 사실은 이것으로 설명해야 할것이다.

1920년 4월 23일부 《쁘라우다》 제86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4권, 272~279페지

서명: 이. 쓰딸린

웨. 이. 레닌의 탄생 5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모스크바위원회 회의에서 한 연설

(1920년 4월 23일)

여러 동지들의 연설과 회상담이 있었으므로 나는 할말이 별로 없다. 나는 누구도 아직 말하지 않은 하나의 특징만을 말하려 한다. 그것은 곧 레닌동지의 겸손성과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는 그의 용감성이다.

나는 레닌이, 이 위인이 두번 자기가 범한 과오를 인정하던 일이 생각난다.

한번은 1905년 12월에 핀란드 탐메르포르스에서 소집되였던 전로볼쉐위크대표자회의[57]에서 위폐국회[58]를 보이꼬트할데 대한 결정을 지을 때의 일이다. 그때에 위폐국회를 보이꼬트하는 문제가 제기되였었다. 우리들 지방대표들의 존경을 받던 7거두—즉 레닌동지와 가장 친근하던 사람들은 일리이치가 보이꼬트를 반대하면서 국회선거를 지지한다고 단언하였다. 그 후에 해명된바와 같이 그것은 사실이였다. 그러나 토론이 전개되여 각 지방에서 온 보이꼬트주장자들 즉 뻬쩨르부르그대표, 모스크바대표, 씨비리대표 및 깝까즈대표들이 공격을 들이대였다. 우리들의 연설이 끝난 다음 레닌이 연단에 올라 자기는 선거에 참가하려는 편이였으나 이제는 그것이 자기의 과

오라는것을 알았기때문에 지방대표들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언명하였다. 그때에 우리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정말 우리는 경탄하였다. 그것은 마치 전격을 맞은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 우리는 레닌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또 한번은 이러한 일이 있었다. 1917년 9월, 께렌스끼 시기에 민주주의협의회가 소집되고 멘쉐위크들과 사회혁명당원59들이 쏘베트로부터 헌법제정회의55로의 이행을 준비할 사명을 가진 새 기관 즉 예비국회를 창설하던 바로 그때에 뻬뜨로그라드에서 우리 중앙위원회는 민주주의협의회를 해산하지 말고 쏘베트를 공고히 하는 길로 나아가며 쏘베트대회를 소집하고 폭동을 일으켜 쏘베트대회를 국가정권기관으로 선언할데 대한 결정을 지었다. 그때에 뻬뜨로그라드에 있지 않고 지하에 있던 일리이치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그 악당(민주주의협의회)을 즉시 해산하고 그들을 체포하라는 편지를 중앙위원회에 보냈다.

우리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협의회가 반수 혹은 적어도 그 3분의 1은 전선대표로 구성되였으므로 그들을 해산하고 그들을 체포한다면 사업을 망치게 될것이며 전선과의 관계를 불리하게 할수 있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이다. 우리의 앞길에 있는 골짜기와 구렁과 홈타기는 우리 실천가들이 더욱 잘 보아낼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일리이치는 위대하다. 그는 자기의 앞길에 있는 구렁도 홈타기도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서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들, 실천가들은 당시에 그렇게 행동하는것이 불리하므로 그 장애물을 피하고 요해를 적중하여 용감히 행동해야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일리이치의 온갖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시를 듣지 않고

10월25일쏘베트대회60까지, 폭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까지 쏘베트를 공고히 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때에 일리이치는 벌써 뻬뜨로그라드에 있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띠우고 우리를 익살스럽게 쳐다보면서 《아마 당신들이 옳았던가 보오.》 하고 말하였다.

이것은 또다시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레닌동지는 자기의 과오를 시인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겸손성과 용감성이 특히 우리를 탄복케 하였다.(박수)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울리야노브-레닌의 탄생 50돐기념문집》, 1920년 모스크바판에 처음으로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4권, 280~282페지

10월혁명과 중간층들에 대한 문제

중간층들에 대한 문제는 로동자혁명의 근본문제들중의 하나이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중간층들이란 곧 농민, 도시소로력자들이다. 10분의 9가 중간층들로써 구성되여있는 피압박민족도 여기에 귀속시켜야 한다. 여러분이 보는바와 같이 이것은 그 경제적지위로 보아 무산계급과 자산계급과의 중간에 서있는 층들이다. 이 층들의 중요성은 두가지 사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첫째로, 이 층들은 현존국가들의 주민의 다수거나 혹은 적어도 수효가 많은 소수이다. 둘째로, 이 층들은 자산계급이 거기에서 무산계급을 반대하여 자기의 군대를 모집하는 중대한 예비군으로 되여있다. 특히 우리 공화국련맹과 같은 나라에서는 무산계급은 중간층들, 무엇보다도먼저 농민들의 동정과 지지가 없이는 정권을 유지할수 없는것이다. 만일 이 층들이 적어도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만일 이 층들이 자본가계급으로부터 아직도 분리되여있지 않는다면, 만일 그들 다수가 아직도 자본의 군대를 이루고있다면 무산계급은 정권을 장악한다는것을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이렇기때문에 중간층들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 농민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1905년부터 1917년까지의 우리 혁명전체를 시종일관하고있은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있으며 앞으로도 또한 계속 전개될것이다.

1848년의 프랑스혁명이 패배를 당한것은 기실 이 혁명이 프랑스농민들속에서 동정과 반향을 얻지 못하였기때문이였다.

빠리꼼뮨이 실패로 돌아간것은 바로 중간층, 우선 농민들의 저항에 부닥치게 되였었기때문이였다. 1905년의 로씨야혁명의 형편도 역시 그러하였다.

구라파혁명들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카우쯔키를 수위로 한 약간의 속류맑스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중간층, 우선 농민은 로동자혁명의 거의 천성적인 적이라는것, 그렇기때문에 보다 장구한 발전의 방침을 취해야 한다는것, 그 결과로서 무산계급이 국민의 다수가 될것이며 또 그렇게 됨으로써 로동자혁명의 승리를 위한 현실적인 조건들이 조성될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결론에 기초하여 이 속류맑스주의자들은 《시기상조》한 혁명을 피하라고 무산계급에 경고하였다. 이 결론에 기초하여 그들은 《원칙적고려》끝에 중간층들을 전적으로 자본의 지배에 넘겨주었다. 이 결론에 기초하여 그들은 무산계급이 로씨야에서는 소수를 이루고있다는것, 로씨야는 농민국가라는것, 그렇기때문에 로씨야에서는 로동자혁명이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론거로 하여 로씨야10월혁명의 실패를 우리에게 예언해주었던것이다.

맑스자신은 중간층, 우선 농민을 이와는 아주 다르게 평가하였었다는것은 특징적인것이다. 속류맑스주의자들이 농민을 포기하고 그들을 자본의 정치적지배에 전적으로 넘겨주고서는 자기의 《철저한 원칙성》을 구구히 자랑하였었지만 전체 맑스주의자들중에서도 가장 원칙적인 맑스주의자인 맑스는 농민을 망각하지 말며 그들을 무산계급의 편에 쟁취하며 이리하여 닥쳐오는 무산계급혁명에서 그들의 원조를 받도록 할것을 공산주의자들의 당에 간곡히 권고하였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50년대 즉 프랑스와 독일의 2월혁명이 실패당한후 맑스는 엥겔스에게 그리고 또 그를 통하여 독일공산당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보냈다.

《독일에서의 모든 문제는 무산계급혁명을 농민전쟁의 그 어떤 재판으로서 지지할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렸것입니다.》①

이것은 50년대의 독일에 대해서 쓴 글이다. 당시 독일은 농민의 나라이였던것으로 무산계급은 보잘것없는 소수였고 1917년의 로씨야에 비하여 그 조직정도가 미약하였으며 그리고 독일농민은 그 처지에 의해서 1917년의 로씨야농민보다는 무산계급혁명을 지지하는 경향이 적었던것이다.

의심할바없이 10월혁명은 맑스가 온갖 《원칙적》인 말공부쟁이들의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고 론술한, 《농민전쟁》과 《무산계급혁명》과의 훌륭한 결합이였다. 10월혁명은 이와 같은 결합이 가능하며 또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주었다. 10월혁명은 만일 무산계급이 중간층, 우선 농민을 자산계급에서 분리시킬수 있고 만일 그가 이 층들을 자본의 후비군으로부터 무산계급의 후비군으로 전환시킬수 있다면 무산계급은 정권을 장악하고 그것을 유지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주었다.

요컨대 10월혁명은 세계의 모든 혁명들중에서 처음으로 중간층에 대한, 우선 농민에 대한 문제를 제1차적인 위치에 내세웠으며 또 이 문제를 제2국제당의 영웅들의 온갖 《리론》과 비탄에도 불구하고 승리적으로 해결하였다.

이 경우에 만일 공적이라고 말할수 있다면 10월혁명의 첫째 공적은 바로 이 점에 있는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이것에 그치지는 않았다. 10월혁명은 한걸음 더 나아가 피압박민족들을 무산계급의 주위에 결속시키려고 시도하였던것이다. 피압박민족은 그 10분의 9가 농민과 도시소로력자로써 구성되여있다는것은 우에서 이미 말한바이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피압박민족》이란 개념이 완전히 개괄된것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34페지를 보라.—편집자

은 아니다. 피압박민족들은 보통 농민과 도시소로력자로서만 압박을 받는것이 아니라 또한 민족으로서도 다시말하면 일정한 민족성으로서의 언어, 문화, 생활양식, 풍속, 습관을 가진 근로자로서도 압박을 받게 된다. 이 이중의 압박은 피압박민족들의 근로대중들을 혁명화시키지 않을수 없으며 또 그들을 압박의 기본세력과 투쟁하도록 즉 자본과 투쟁하도록 추동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 사정은 무산계급이 그우에서 《무산계급혁명》과 《농민전쟁》과의 결합만이 아니라 《무산계급혁명》과 《민족전쟁》과의 결합도 또한 실현할수 있는 기초로 되였던것이다. 이 모든것은 무산계급혁명의 활동범위를 멀리 로씨야의 국외에로 뻗치게 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자본의 가장 심원한 예비군으로 하여금 타격을 당하게 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던것이다. 만일 해당 지배민족의 중간층들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자본의 가까운 예비군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라면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자본의 개별적인 가장 심원한 예비군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식민지의 민족들과 완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민족들을 자본의 압박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투쟁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이 해방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있을뿐만아니라 그것은 지어 최초의 결정적인 성과까지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심원한 예비군을 쟁취하기 위한 이 투쟁은 10월혁명을 계기로 시작되였으며 그리고 그것은 물론 제국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 공화국련맹의 위력이 장성함에 따라, 서방에서의 무산계급혁명이 발전함에 따라 일보일보 확대되여나갈것이다.

요컨대 10월혁명은 실제에 있어서 피압박국가 및 완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국가들의 인민대중으로부터 자본의 심원한 예비군을 쟁취하기 위한 무산계급의 투쟁의 발단으로 되였으며 10월혁명은 이 예비군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의 기치를

처음으로 들었던것이다. 여기에 10월혁명의 둘째 공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기치하에서 농민을 쟁취하였다. 무산계급의 손으로부터 토지를 받고 무산계급의 원조밑에 지주들을 타승하고 무산계급의 령도밑에 정권에 참여하게 된 농민들은 자기네들의 해방과정이 이전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앞으로도 무산계급의 기치하에서, 무산계급의 붉은 기발아래에서 진행된다는것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으며 리해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사정은 이전에는 농민들에게 괴물로 되여있던 사회주의의 기치를 그들의 주목을 끄는 기치로, 천대, 빈궁, 압박으로부터의 그들의 해방을 촉진시켜주는 기치로 되게 하지 않을수 없었다.

피압박민족들에 대해서도 역시 이와 같이, 아니 더욱더 이렇게 말해야 할것이다. 민족해방투쟁의 웨침 즉 핀란드의 해방, 페르쌰와 중국에서의 군대철거, 공화국련맹의 형성, 토이기, 중국, 힌두스탄, 애급 인민들에게 준 공개적인 정신적 원조와 같은 그러한 사실들에 의하여 실증된 민족해방투쟁의 웨침—이 웨침은 10월혁명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울려나왔다. 이전에는 피압박민족들의 눈에는 압박의 기치로 되여있던 로씨야가 지금에 있어서는, 그가 사회주의국가로 된후에 있어서는 해방의 기치로 되였다는 이 사실은 우연한 일이라고 할수 없다. 10월혁명의 수령인 레닌동지의 이름이 지금 식민지 또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국가들의 천대받고 억압받는 농민들과 혁명적지식인들이 가장 애대하는 이름으로 되여있는것도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다. 만일 과거에 있어서는 기독교가 광활한 로마제국의 압박받고 유린당하는 노예들사이에서 구성으로 인정되고있었다면 현재에 있어서는 사태는 바야흐로 사회주의가 제국주의의 광활한 식민지국

가들의 수백수천만 인민대중에게 있어서 해방의 기치로 될수 있는(벌써 그렇게 되기 시작하고있는것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이 사정이 반사회주의적편견들과의 투쟁을 크게 촉진하였으며 사회주의사상에 피압박국가들의 방방곡곡에까지 전파되는 길을 개척하여주었다는것은 전혀 의심할수 없는 사실이다. 만일 이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자들이 피압박국가 또는 압박국가의 비무산계급적인 중간층들사이에서 공공연히 나타나기 어려웠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자들은 10월혁명과 같은 그런 유력한 론거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이 층들이 자기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리라는, 또는 아마 들어보려고는 할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이 층들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사회주의사상을 선전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도 또한 10월혁명의 성과이다.

요컨대 10월혁명은 사회주의사상이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의 중간층, 비무산계급층, 농민층들에로 전파되는 길을 개척하여주었으며 사회주의의 기치를 그들에게 인기있는 기치로 만들었다. 여기에 10월혁명의 셋째 공적이 있는것이다.

1923년 11월 7일부 《쁘라우다》 제253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5권, 279~283페지

서명: 이. 쓰딸린

당의 과업에 대하여

(소조장, 토론구락부 성원들과 세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적색쁘레스냐구역위원회확대회의에서 한 보고)

(1923년 12월 2일)

동지들! 나는 우선 여기서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나자신의 명의로써 보고한다는것을 말해두어야 하겠다. 만일 이 회의에서 이러한 보고를 청취하려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청중속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에서 중앙위원회와 어떤 의견상이를 갖고있는것은 아니다. 절대 그런것은 아니다. 내가 나자신의 명의로써 말하게 되는 리유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을뿐이다. 중앙위원회의 당내형편개선방법제정위원회61가 최근에 자기의 사업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할것인데 아직 이 사업결과들이 중앙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나는 비록 지금 여러분들앞에서 하게 되는 이 보고가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태도를 표명하리라는것을 확신하지만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말할 공식적권리는 아직 가지지 못하고있다.

론쟁은 당이 강유력하다는 표징이다

내가 여기서 제기하려는 첫째 문제는 출판물과 세포들에

서 진행되고있는 론쟁의 의의에 대한 문제이다. 이 론쟁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무엇을 표징하는가? 이것은 당의 평온한 생활에 돌연히 침입해온 폭풍우가 아닌가? 이 론쟁은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바와 같이 당의 와해 및 붕괴의 징조가 아닌가? 혹은 다른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바와 같이 당의 변질의 징조가 아닌가?

동지들,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라고, 즉 변질의 징조도 아니고 와해의 징조도 아니라고 본다. 실상 당은 최근에 장성하였으며 많은 부용지물들을 제거해버렸으며 보다 더 무산계급화하였다. 다 알다싶이 2년전에 우리 당에는 적어도 70만의 당원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수만명의 당원들이 당에서 나갔거나 혹은 출당을 당했다는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있는 바이다. 다음으로, 이동안에 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로동계급의 물질적생활형편이 개선되고 농촌으로부터 오랜 숙련공들이 되돌아오고 산업로동자들사이에서 문화적앙양의 새로운 고조가 일어난데서 당은 성원구성이 개선되고 질적으로 높아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조건들에 의하여 당은 장성하였으며 질적으로 더 높아졌으며 그 요구가 높아지고 보다 엄해졌다. 당은 이때까지 알고있던것보다 더 많이 알기를 원하게 되였으며 또 당은 이때까지 해결한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게 되였다.

이미 벌어지고있는 론쟁은 당이 연약하다는 표징이 아니며 당의 와해 또는 변질의 표징은 더구나 아니다. 그와는 달리 그것은 당이 유력하다는 표징이며 당이 튼튼하다는 표징이며 당의 성원구성이 질적으로 개선되였다는 표징이며 당의 활약성이 제고되였다는 표징이다.

론쟁의 원인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둘째 문제는 무슨 리유로 바로 지금 즉 금년가을에 당내정책에 관한 문제가 첨예한 성격을 띠게 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동지들, 나는 여기에 두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 원인은 금년 8월에 우리 나라의 일부 지방들에서 로임문제때문에 일어난 불만과 파업의 파도인것이다. 이 파업의 파도는 우리의 일부 조직들에 결함이 있다는것과 우리의 일부 당조직들과 직업동맹조직들이 기업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묵과하고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으며 또 이 파업의 파도는 우리 당내에 당을 극력 와해시키려는, 실질에 있어서는 반공산주의적인 비밀조직들이 존재한다는것을 폭로하였다. 파업의 파도에 의하여 폭로된 이 모든 결함들은 당으로 하여금 당내의 상태를 개변할 필요성을 느끼게 할만큼 그렇게 눈부신 섬광으로써,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그러한 광선으로써 당을 비쳐주었던것이다.

바로 이 시기에 당내정책에 관한 문제가 첨예하게 된 둘째 원인은 수많은 우리 당원동지들이 휴가하게 된 그것이다. 물론 휴가는 전적으로 합리한것이다. 그러나 휴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때문에 바로 공장들에서 불만정서가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당내생활의 박자가 현저히 굼떠지게 되였으며 따라서 이미 오래 쌓여오던 결함들이 바로 이러한 시기, 즉 금년가을에 폭로되도록 극력 촉진하게 되였던것이다.

당내생활의 결함들

나는 금년가을에 폭로된, 그리고 당내생활을 개선할데 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 우리 당내생활의 결함들에 대하여 이미 말하였다. 당내생활의 이런 결함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일부 동지들이 생각하는바와 같이 당의 로선이 옳지 못하였다는데 있는가? 아니면 당의 로선은 옳았는데 그것이 실천가운데서 옳은 길로부터 벗어났으며 어떤 주관적 및 객관적 조건들로 말미암아 외곡되였다는데 있는가?

우리 당내생활의 주되는 결함은 우리의 력차의 대회의 결정들에 구현된 당의 로선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물론 어디서나 다 그런것이 아니라 일부의 구역들에서)의 실천이 옳지 못하였다는데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당의 무산계급적-민주주의적로선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들에서는 실천행정에서 이 로선을 관료주의적태도로 외곡하였다.

여기에 주되는 결함이 있다. 력차의 대회(제10차, 제11차, 제12차)들에서 확정된 당의 기본로선과 우리의 지방조직들에서 이 로선을 실시하는 실천과의 사이에 모순들이 존재한다는것—여기에 당내생활에서의 모든 결함들의 근원이 있는것이다.

우리 당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물론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혹은 군사적비밀과 외교적비밀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제외하고—반드시 당회의에서 토의되여야 한다는것을 당의 로선은 말하여주고있다. 당의 로선은 바로 이렇게 말해주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물론 어느 지방에서든지 다 그런것은 아니다.)의 당의 실천에서는 당내실

천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당회의에서 토의할 필요성이 사실에 있어서는 별로 없다고 인정하였다. 그것은 중앙위원회와 기타 령도조직자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당의 로선은, 만일 당령 등등과 같은 극복할수 없는 장애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의 책임일군들은 반드시 선거에 의하여 산생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여러분이 알다싶이 당규약에 규정된데 의하면 성위원회 비서는 반드시 10월혁명이전에 입당한 사람이여야 하며 현위원회 비서는 반드시 3년이라는 당령을 가지고있어야 하며 세포비서는 반드시 1년이라는 당령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의 실천에서는 흔히 당령이 필요하다면 진정한 선거는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고있다.

당의 로선은, 당원대중들로 하여금 경제기관, 기업소 및 트레스트들의 사업을 잘 알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왜냐 하면 우리의 당세포는 기업소내의 결함들에 대하여 비당원대중들앞에서 도의상의 책임을 져야 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실천에서는 중앙위원회가 경제기관들에 지시를 주고 또 경제기관들이 이 지시의 제약을 받고있는 이상 아래로부터 우로의 당원대중의 감독이 없어도 이 지시들이 집행될수 있을것이라고 인정하고있다.

당의 로선은, 각 부문의 책임일군들은—그들이 당일군이든 경제일군이든 직맹일군이든 군사일군이든—비록 그들자신의 사업에서 각각 전문화되여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로 련계를 가지고있으며 한 전일체의 불가분의 부분을 이루고있다고 인정한다. 왜냐 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여러 부분으로 쪼갤수 없는 무산계급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일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 당의 실천에서는 사업의 전문화 즉 당자체의 사업, 경제

사업, 군사사업 등등의 분공이 있는 이상 당일군들은 경제일군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수 있고 경제일군들은 당일군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들사이의 관계가 약하여지고 지어는 상실되기까지 하는것이 필연적이라고 여기고있다.

동지들, 우리의 력차의 대회(제10차대회로부터 시작하여 제12차대회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결정들에 확정되여있는 당의 로선과 당의 실천과의 사이에 있는 모순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다.

나는 결코 당의 로선에 대한 이러한 외곡을 가지고 지방조직들을 비난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분석하여볼 때 여기에서 우리의 지방조직들에는 잘못보다 오히려 불행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불행은 어디에 있으며 또 어쩌하여 사태가 이렇게 전변될수 있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래에서 말하려 한다. 그런데 나는 이 모순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개선할 방법들을 제의하려는 생각에서 이 사실을 긍정하려고 한다.

나는 또한 우리 중앙위원회에 잘못이 없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모든 기관이나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위원회에도 자그마한 과오가 좀 있는것이다. —중앙위원회에도 부분적과오와 부분적불행이 있는데 중앙위원회의 이 부분적과오는 적어도 그가 이런 또는 저런 원인들때문에 이 결함들을 제때에 드러내지 못하였고 또 이 결함들을 극복할 대책들을 대지 않았다는데서 표현되고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다. 지금의 문제는 내가 방금 말한 이 결함이 산생된 원인을 해명하는데 있다. 그러면 이 결함들은 어디에서 생겼으며 어떻게 퇴치할것인가?

결함의 원인

첫째 원인은 우리의 당조직들이 전쟁시기 즉 지나간 시기—지나가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일군들의 머리속에 당내에서의 군인작풍의 잔재를 남겨준 시기—의 약간의 잔재들을 아직 또는 지금까지도 퇴치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이러한 잔재는 당에 대한 아래와 같은 견해들에서 표현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즉 당은 독자적인 유기체가 아니며 또 독자적인 무산계급의 전투적조직이 아니라 기관체계 비슷한 그 어떤것이며 하급사무원과 고급사무원들로 구성된, 많은 기관들의 결합체 비슷한 그 어떤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들이다. 동지들, 이것은 맑스주의와는 추호의 공통점도 없는 극히 그릇된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가 당을 군사화하였고 당원대중의 독자적활동문제를 부득이 차요한 자리에 놓았고 전투명령이 결정적의의를 띠고있었던 그 전쟁시기가 우리에게 넘겨준 잔재이다. 나는 이러한 견해가 어느때 완비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였는지는 기억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견해나 이런 견해의 요소들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있다. 동지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이러한 견해와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이 견해들은 본질적으로 옳바른 우리 당의 로선이 실천에서 외곡되는데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위험성의 하나이기때문이다.

둘째 원인은 우리의 국가기관(현저한 정도로 관료주의적인 기관)이 당과 당일군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데 있다. 우리가 앞을 향해 즉 10월혁명을 향해 매진하던 1917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상상하였다. 즉 우리에게

는 꼼뮨이 있게 될것인데 이 꼼뮨은 근로자들의 련합체로 될 것이며 우리자신이 기관내의 관료주의를 근절할것이며 최근시기에는 불가능하더라도 2~3개의 짧디짧은 시기를 경과한다면 국가가 근로자들의 련합체로 변하게 될것이라고 상상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실천은,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머나먼 앞날의 리상이라는것, 국가에 관료주의분자들이 없게 하며 쏘베트사회를 근로자들의 련합체로 되게 하려면 인민들이 고도의 문화수준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거액의 지출과 방대한 기구를 요구하는 대량의 상비군—그 존재는 국가의 기타 모든 기관에 영향을 준다.—을 둘 필요가 없게끔 그 주위에 완전히 보장된 평화적환경이 갖추어져있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국가기관은 매우 큰 정도로 관료주의적이며 오래동안은 여전히 그와 같은 기관으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이 기관에서는 우리의 당원동지들이 일하고있는데 이 기관의 환경—나는 분위기라고 말하고싶다.—은 우리 당일군들과 우리 당조직들의 관료주의화를 촉진하게 되는 그러한 환경일것이다.

동지들, 결함의 셋째 원인은 우리의 일부 세포들이 적극성이 부족하고 뒤지고있으며 지어는 어떤 세포들이 완전히 문맹상태에 있는데(벤강지구는 더구나 그러하다.) 있다. 이러한 지방들의 세포는 적극성이 매우 적으며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몹시 뒤지고있다. 이러한 사정도 당의 로선이 외곡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있다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없다.

넷째 원인은 지방에 훈련된 충족한 수효의 당원동지들이 없는 그것이다. 얼마전에 나는 중앙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조직의 한 대표자의 보고를 들었다. 보고를 한 동지는 대단히 유능하며 유망하다. 그는 130개의 세포중 80개 세포의 비서는 성위원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다. 이 동지는 세포들에 글아는 사람이 없으며 당령이 요구에 부합되는 사람이

없으며 그리고 세포들자체가 비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등등의 리유로써 이 조직이 옳지 못하게 처사하였다는 의견을 론박하였다. 이 동지가 50%는 과장해서 말하였다는것, 사실 문제는 세포내에 훈련된 사람이 없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성위원회가 낡은 전통에 사로잡혀 너무 지나치게 한데 있다는것을 단정할수 있다. 그러나 만일 성위원회가 50%는 옳게 하였다면 우크라이나에 이와 같은 세포들이 있는 이상 우크라이나보다 조직들이 더 어리고 당원간부와 글아는 사람이 적은 변강지구에는 이런 세포들이 있게 되는것이 더구나 응당하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이것도 역시 본질적으로 옳바른 우리 당의 로선이 실천에서 외곡되는데 대하여 유리한 조건들을 지어주는 원인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원인은 통보사업이 미약한 그것이다. 우리의 통보사업, 우선 중앙의 통보사업이 잘되지 못하였다. 아마도 중앙위원회의 사업이 너무 분망한탓인것 같다. 지방에서도 우리에게 회보를 잘해주지 않는다. 이런 폐단을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도 역시 우리 당내에 결함들이 쌓이게 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당내생활의 결함들을 어떻게 퇴치할것인가?

이 결함들을 퇴치하자면 어떠한 대책들을 취하여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 당내에 있는 전쟁시기의 잔재와 관습들을 반대하며 또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사고하며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활기있게 생활하며 낡은것을 파괴하고 새로운것을 창조하는 무산계급의 전투적조직이 아니라 마치 기관의 계통인것

같이 간주하는 옳지 못한 견해를 반대하여 백방으로 게으름없이 투쟁하여야 한다.

둘째로, 당원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모든 문제들을 그들앞에 내놓아 토의하게 하며(이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토의할수 있는것이기만 하다면) 또 각급 당기관들의 온갖 건의를 자유롭게 비판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줌으로써 당원대중들의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 왜냐 하면 오직 이러한 방법으로써만 당의 규률을 참으로 자각적인 규률로, 참으로 강철같은 규률로 만들수 있을것이기때문이며 오직 이러한 방법으로써만 당원대중들의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의 경험을 풍부히 할수 있을것이기때문이며 오직 이러한 방법으로써만 당원대중들에게 기층으로부터 적극적인 새 일군들과 새 지도자들을 점차 선발해내는데 필요한 조건을 준비해줄수 있을것이기때문이다.

셋째로, 가령 당령이 모자라는 등등과 같은 극복 못할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당조직들과 책임일군들은 실지로 선거에 의해서 산생되여야 한다. 어떤 동지를 당의 책임적지위에 등용할 때에는 반드시 조직내의 다수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향을 실천에서 없애버리고 참답게 선거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넷째로, 중앙위원회와 성위원회, 주위원회 밑에 각 부문 책임일군들(경제일군들, 당일군들, 직맹일군들, 군사일군들)의 상설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이런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하며 회의에서는 협의회가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내놓아야 하며 각 부문 일군들사이의 련계가 끊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자기가 당이라는 이 대가정속의 한 성원이며 하나의 공통적이고 불가분적인 사업, 즉 무산계급의 사업을 위해 일한다는것을 자각하게 해야 하며 중앙위원회와 지방조직들의 주위에다 당으로 하여금 우

리 각 부문 책임일군들의 사업경험을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검증할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지어주어야 한다.

다섯째로, 우리 생산부문의 당세포들을 기업소와 트레스트내의 사업과정과 관계되는 문제들의 주위에 끌어와야 한다. 당세포가 우리 기업소와 련합기업소의 관리기관의 사업을 료해하고 그 사업에 영향을 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은 세포의 대표자들인것만큼 우리의 생산부문의 세포가 기업소의 사업과 정면에서 비당원대중들앞에 짊어지고있는 도의상의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것을 반드시 잘 알고있을것이다. 세포자체가 공장내에서 비당원대중들을 령도하고 이끌자면, 또 기업소내의 사업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자면(기업소내의 결함에 대해 세포는 비당원대중들앞에 무조건적으로 도의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반드시 이 사업을 료해하고있어야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에 영향을 줄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반드시 세포를 기업소와 관계되는 경제문제의 토의에 인입하여 트레스트내의 각 기업소의 세포대표자들이 참가한 경제회의를 수시로 열고 트레스트의 각항 사업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토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경제면에서의 당원대중들의 경험을 풍부히 하고 아래로부터 우로의 감독을 조직하는데 필요하고도 믿음직한 방법의 하나이다.

여섯째로, 우리 당세포들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노위에브는 자기의 론문에서 우리의 일부 지방의 당세포들은 질적면에서 그 주위에 있는 비당원대중들보다 뒤떨어져있다고 쓰고 있다.

이 말은 물론 모든 세포를 개괄할수 없으며 모든 세포들에 적용될수 없는것이다.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대체로 이러하다. 즉 만일 우리가 우리의 당세포들을 허약하게 만들어놓지 않았다면, 만일 우리가 이러한 세포들로부터 사람을 뽑아

내여 경제, 행정, 직맹 사업과 기타 각 방면의 사업을 담임시키지 않았다면 이런 세포들이 문화면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을것이며 비당원들사이에서도 훨씬 더 높은 위신을 가지고있을것이다. 만일 근 6년동안에 우리가 세포들에서 뽑아온 모든 로동자동지들과 간부들이 모두 자기 세포로 돌아간다면 이 세포들이 모든 비당원로동자들보다—비록 대단히 진보한 로동자들이라 할지라도—몇배나 더 높은 수준에 서있으리라는것을 구태여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당에는 국가기관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간부들이 없으며 당은 앞으로도 부득이 이 원천을 리용하게 될것이기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세포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 세포들의 문화수준은 재빨리 제고되지 못할것이다. 우선 세포들에서의 당교양사업을 최대한도로 강화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조직들에서 로동자동지들을 입당시킬 때에 가끔 보여주고있는 쓸데없는 형식주의를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 나는 형식주의에 매혹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당은 로동계급의 대오에서 신당원들을 받아들일 조건들을 헐하게 할수 있으며 또 반드시 헐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이 사업은 이미 지방조직들에서 시작하였다. 당은 산업로동자들을 입당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사업을 자기의 손에 틀어쥐고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것이다.

일곱째로, 비당원로동자들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것도 또한 당내상태를 개선하며 당원대중의 적극성을 높일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다. 나는 우리 당조직들이 아직도 비당원로동자들을 우리 쏘베트기관들에 인입하는데 주의를 적게 돌리고있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지금 진행되고있는 모스크바쏘베트선거를 례로 들어보자. 나는 이 선거의 큰 결함중의 하나는 비당인사들이 너무도 적게 선거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듣는 말에 의하면 적어도 일정한 수효의 비당인사들이 선거되여야 하며 그들이 일정한 비률을 차지해야 한다는 조직의 결정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보건대 실제에 있어서는 그들이 훨씬 적게 선거되고있다. 듣건대 대중들이 순전히 공산당원들만 선거하기를 열망한것처럼 말하고들 있다. 동지들, 나는 이에 대하여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어떤 최저한도의 신임이라도 비당인사들에게 표시하지 않는다면 비당인사들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의 조직에 대하여 커다란 불신임을 표시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동지들, 비당인사들에 대한 이런 신임은 절대로 필요한것이다. 공산당원들로 하여금 자기의 립후보자자격을 취소하게 하는것이 필요하다. 언제나 공산당원들만 선거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할것이며 비당인사들을 격려하여야 하며 그들을 국가관리사업에 끌어들여야 할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좋은 점을 얻을것이며 우리의 조직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비당인사들의 신임을 받게 될것이다. 모스크바의 선거는 우리의 조직들이 자기의 주위에 비당인사들을 점차적으로 단결시키면서 자기의 활동무대를 넓힐 대신에 폐문자수하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실례인것이다.

여덟째로, 농민들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의 일부 지방의 농촌세포들은 허약해졌고 때로는 그 성원들이 달아나고있으며 농민들속에서 커다란 신임을 얻지 못하고있는데(이 점은 승인하여야 할것이다.) 어째서 이러한 세포들에 향하여 례컨대 두가지 실제과업 즉 첫째로는 농민생활과 관련된 쏘베트법률을 해석하고 선전하며 둘째로는 제때에 밭을 갈며 종자를 알뜰히 골라야 한다는 등등과 같은 초보적농학지식을 선전하고 보급할 실제과업을 제기하지 못하는지 나는 알수 없다. 동지들, 만일 모든 농민들이 종자를 알뜰히 고르는데

자그마한 노력이라도 들이려고 결심한다면 토양을 개량하지 않고도 또 새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도 매제싸찌나①에서 약 10뿌드②의 수확고를 높일수 있다는것을 여러분들은 아는가? 그런데 매제싸찌나에서 10뿌드의 수확고를 높인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총수확고가 해마다 10억뿌드씩 늘어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것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달성할수 있는것이다. 어째서 우리 농촌세포들이 이 사업에 종사할수 없는가? 이것이 과연 키즌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보다 중요하지 못하단 말인가?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농민들은 공산당원들이 공담을 걷어치우고 실지사업에 착수하였다는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며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 농촌세포들이 농민들의 커다란 신임을 얻게 될것이다.

새 간부들을 제공할수 있는 청년들가운데서, 붉은군대내에서, 녀성대표자들가운데서 그리고 일체 비당인사들가운데서 당교양사업과 정치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 당의 생활을 개선하고 활약시킴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나는 언급하지도 않겠다.

내가 우에서 말한 통보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우로부터 아래로의 또 아래로부터 우로의 통보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데 대하여서도 나는 많이 말하지 않겠다.

동지들, 이것이 중앙위원회가 금년 9월에 이미 규정한, 그리고 아래로부터 우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그

---

① 제싸찌나는 로씨야의 토지면적의 단위이다. 1제싸찌나는 1.09헤타르에 해당하며 16.35무에 해당한다. —편집자

② 뿌드는 로씨야의 무게의 단위이다. 1뿌드는 16.38키로그람에 해당한다. —편집자

개선방법, 다시말하면 당내민주주의에 대한 방침이다.

이제 나는 로동자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프라우다》62의 론쟁적인 론설들에서 발로된 극단적이고 지나친 두가지 견해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

첫째 극단은 선거문제에서 표현되였다. 이 극단은 일부 동지들이 《철저한》 선거를 극력 주장하는데 있다. 선거하려는 이상 온 힘을 다해서 선거하라! 당령은? 당령은 해서 뭘 하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거하라. 동지들, 이런 견해는 그릇된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당은 접수할수 없다. 물론 우리에게는 지금 전쟁이 없으며 우리는 평화적발전의 시기에 처하여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경제정책이 있다. 동지들, 이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청당은 전쟁시기가 아니라 전쟁후에 진행되였던것이다. 그것은 무슨 리유에서인가? 그것은 전쟁시기에 패배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생사존망문제에 직면하고있는 당을 하나의 통일체로 단결시켰으며 그래서 당내부의 약간의 부패한 분자들까지도 당의 총로선을 집행하지 않을수 없었기때문이다. 지금은 우리의 머리를 졸라매는 이런 테가 없게 되였다. 왜냐 하면 전쟁이 이미 없어졌으며 지금 우리 나라는 신경제정책을 실시하고있고 우리가 자본주의의 존재를 허용하였고 자산계급이 지금 소생되고있기때문이다. 물론 이 모든것은 당을 순결화하고 공고화할것이지만 한편 발생성장하고있는 자산계급의 새로운 분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있는데 이 자산계급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대하지는 못하나 벌써 국내상업분야에서 우리의 일부 협동조합들과 상업기관들을 격패시킬수 있게 되였다. 바로 신경제정책이 실시된후에 당은 청당을 진행하여 당원수를 절반 줄어들게 하였으며 바로 신경제정책이 실시된후에 당은 우리 조직들이 신경제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비무산계급분자들의 입당조건을 더 엄

격히 하고 당의 책임일군들에 대하여 당령을 규정할것 등등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던것이다. 당이 《확대된》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예방대책을 제정한것이 옳았는가? 나는 옳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며 선거가 필요하지만 제11차 및 제12차 대회들에서 규정한 제한대책들은, 적어도 그중 중요한 대책들은 아직도 여전히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극단은 론쟁의 범위문제에서 표현되였다. 이 극단은 일부 동지들이 문제를 토의하는것을 당사업의 전부로 보면서 당사업의 다른 면 즉 당결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그 적극적인 면에 대해서는 망각하고서 무제한한 론쟁을 극력 주장하는것이다. 뜨로쯔끼가 말하였다고 하는 《당이란 일치한 의사를 가진자들의 자원적동맹이다.》라는 말을 따다가 무제한한 론쟁의 원칙을 론증하려고 애쓴 라드진의 론설은 적어도 바로 이와 같은 인상을 나에게 주었다. 나는 뜨로쯔끼의 저서들에서 이 문구를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뜨로쯔끼가 이것을 당에 대한 정의의 완미한 공식으로서 말할수 있었겠는가 하는것이 의문이다. 또 만일 그가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아마 이 말만 하고 그치지는 않았을것이다. 당은 일치한 의사를 가진자들의 동맹일뿐만아니라 일치한 행동을 하는자들의 동맹 즉 공통한 사상기초(강령, 전술)우에서 투쟁하는, 일치한 행동을 하는자들의 전투적동맹인것이다. 나는 뜨로쯔끼의 말을 이렇게 따다 옮기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나는 뜨로쯔끼를 당사업의 적극적인 면을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중앙위원회의 한사람으로 알고있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라드진의 정의에 대해서는 라드진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정의는 어떤 후과를 초래할것인가? 다음의 두가지 가능성중의 하나이다. 즉 흑은 당이 종파로,

철학상 학파로 변하든가—왜냐 하면 오직 이러한 협소한 조직 내에서만 완전한 사상일치가 가능하기때문이다.—혹은 당이 파벌로 형성될 그때까지, 당이 분열될 그때까지 항상 론쟁하며 항상 론의하는 계속적인 론쟁구락부로 변하든가 할것이다. 우리 당은 이 두가지 가능성중의 어느것도 접수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문제들을 토의하는것이 필요하며 론쟁이 필요하나 무산계급의 전투적부대인 당을 론쟁구락부로 전락시키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론쟁의 한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지들, 나는 나의 보고를 끝마치면서 이 두가지 극단으로 나가지 말것을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가 만일 이 두가지 극단에서 벗어나 금년 9월에 벌써 중앙위원회에서 세운 그 당내민주주의에 대한 방침을 성실하게 또 견결히 관철한다면 우리는 우리 당사업에서 틀림없이 개선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박수)

1923년 12월 6일부 《쁘라우다》 제277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5권, 289~302페지

론쟁에 관하여, 라파일에 관하여, 쁘레오브라젠스끼와 싸뻐로노브의 론문에 관하여, 뜨로쯔끼의 편지에 관하여

론쟁에 관하여

모스크바와 뻬뜨로그라드 두곳의 정황을 본다면 몇주일전에 벌어진 당내정세에 관한 론쟁은 인차 끝날것 같다. 다 아는바와 같이 뻬뜨로그라드에서는 당의 로선을 옹호하고있다. 모스크바의 주요구역들에서도 중앙위원회의 로선을 옹호하고 있다. 12월 11일에 있은 전모스크바시당조직열성자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조직로선과 정치로선을 전적으로 찬성하였다. 곧 열리게 될 전모스크바당조직대표자회의가 모스크바 여러 구역들의 뒤를 따라가리라는데 대해서는 의심할 리유가 없는것이다. 일부 《좌익》공산주의자들[63](쁘레오브라젠스끼, 스뚜꼬브, 빠따꼬브 등등)과 소위 민주주의중앙집권파[64](라파일, 싸뻐로노브 등등)간의 동맹을 대표하고있는 반대파는 이미 뿔뿔이 흩어졌다.

론쟁의 과정과 또 론쟁기간의 반대파들의 그 변화들은 주의를 돌릴만한것이다.

시초에 반대파들은 바로 최근 2년동안의 즉 신경제정책의

전반 기간의 당내건설과 당내정책 면에 있어서의 당의 기본로선을 재심사하자는 요구를 들고나왔다. 반대파들은 당내민주주의에 관한 제10차대회의 결의를 철저히 집행할것을 요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당의 제10차, 제11차, 제12차 대회에서 규정한 제한대책들(파벌활동의 금지, 당령규정 등등)을 취소할것을 고집하였다. 그렇지만 반대파들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반대파들은 당이 실제에 있어서 군대식의 조직으로 변하였고 당의 규률이 군사적규률로 변하였다고 억설하면서 당기관의 전체 성원을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재심사하고 정돈하며 주요한 일군들을 해임시킬것 등등을 요구하였다. 중앙위원회에 대한 악담과 욕설은 물론 많기도 하였다. 《쁘라우다》62는 갖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중앙위원회를 고발하는 글들로 가득찼었다. 다만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난것을 중앙위원회의 죄라고 들씌우지 않았을뿐이다.

이 시기에 중앙위원회전체는 《쁘라우다》의 론쟁에 간섭하지 않고 당원들에게 완전한 비판의 자유를 주었다. 당원들에게 토론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할만한 충분한 자각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지어 비평가들이 노상 지껄이는 그 황당무계한 비난을 반박하는것조차 필요없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말하자면 론쟁의 제1기였다.

그후 악담에 싫증이 나고 욕설이 효력을 내지 못하게 되고 당원들이 문제의 참다운 토론을 요구하게 되자 론쟁은 제2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 시기는 당건설에 관한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열위원회의 결의65가 공포되면서부터 시작되였다. 중앙정치국과 중앙검열위원회주석단은 당내민주주의에 대한 방침을 찬성한 중앙위원회 10월전원회의66의 결정에 립각하여 당내민주주의를 실시할 조건들을 규정한 유명한 결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로 하여 론쟁의 진전에 전환이 일어났다. 이제는

벌써 일반적인 비판에만 국한될수 없게 되였다.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열위원회에서 내놓은 구체적계획은 반대파들에게 이 계획을 접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계획과 병행되는 당내민주주의의 실시에 대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획을 따로 내놓을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반대파들은 각급 당조직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중앙위원회의 계획과 맞설수 있는 자기들의 계획을 내놓을 능력이 없었다. 반대파들은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벌써 반대파들의 무기고에서는 최근 2년동안 당의 건설에 있어서의 당의 기본로선을 취소하라던 요구가 없어졌다. 당의 제10차, 제11차, 제12차 대회에서 규정한, 민주주의제한대책을 취소하라던 요구는 희미해졌고 퇴색하였다.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기관을 재심사하고 정돈하자던 요구를 그들은 완화시키고 뒤로 밀어버렸다. 반대파들은 이 모든 요구 대신에 《파벌조직문제를 정확히 천명할것》, 《이전에 임명한 모든 당기관들을 개선할것》, 《임명제를 폐지할것》 등등의 제의를 들고나오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런데 주의할만한 점이라면 몇배나 완화된 반대파들의 이런 제의조차도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열위원회의 결의를 그 절대다수가 옹호하고있는 적색쁘레스냐구역과 모스크바강남구역의 당조직에 의하여 부결당하였다는 그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론쟁의 제2기였다.

지금 우리는 제3기에 들어섰다. 이 시기의 특징은 반대파들이 계속 뒤로 물러나는것인데 이것은 불끌없는 퇴각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들의 결의안에서는 벌써 퇴색하였고 몇배나 완화된 요구까지도 빼버렸다. 쁘레오브라젠스끼는 최근 모스크바당조직열성자대회(1,000여명이 참석)에 내놓은 결의안(아마 세번째인듯한)에 다음과 같이 썼다.

《오직 정치국의 결의를 동심협력하여 그리고 진심으로 신속히 집행하는것만이, 특히는 당의 기관을 개선에 의하여 혁신하는것만이 우리 당이 동란과 내부투쟁이 없이 새로운 방향에로 나아가도록 담보할수 있으며 당대오의 진정한 단결과 통일을 강화할수 있다.》

해로운 점이라곤 전혀 없는 반대파들의 이런 제의까지도 대회에서 부결당하였다는 이 사실을 결코 우연한 일로 볼수 없다. 그리고 대회에서 《중앙위원회의 정치로선과 조직로선을 찬성한다.》는 결의를 압도적다수로써 채택한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라파일에 관하여

나는 라파일이 지금의 반대파의 또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지금의 반대파동맹의 가장 충실하고 가장 전형적인 대표자라고 생각한다. 어떤 변론회에서 라파일은 우리 당이 실제에 있어서 군대식의 조직으로 변하였고 당의 규률이 군사적규률로 변하였으므로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전체 당기관을 재심사하고 정돈하며 쓸모없고 진정한 당성에 배치되는 이 기구를 재심사하고 정돈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상 또는 이와 류사한 사상들이 지금 반대파분자들의 머리속에 존재하고있으나 여러가지 고려로 하여 그들이 이러한 사상을 감히 내놓지 못하고있다고 나는 생각된다. 이 점에 있어서 라파일이 그의 반대파동료들보다 퍽 용감하였다는것을 승인하여야 할것이다.

어쨌든 라파일의 이런 론법은 전혀 옳지 못한것이다. 그의 론법은 형식상에서 옳지 못할뿐만아니라 우선 본질상에서 옳지 못하다. 왜냐 하면 만일 우리 당이 확실히 군대식의 조직으로 변하였거나 변하기 시작만이라도 하였다면 우리들에게

명실이 부합되는 당도, 무산계급독재도, 혁명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자못 명백하기때문이다.

군대란 무엇인가?

군대란 우로부터 건립되는 폐쇄적인 조직이다. 군대의 본질은 우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령부가 군대를 지휘하며 강제적 원칙에 좇아 군대를 편성하는데 있다. 사령부는 군대를 편성할뿐만아니라 량식, 피복, 신발 등등을 군대에 공급한다. 전체 군대는 물질상에서 전적으로 사령부에 의존하고있다. 군대규률도 이 기초우에 세워졌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때에는 특수하고도 제일 엄격한 처벌인 총살까지 당하게 된다.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사령부는 다만 자기의 전략적계획에 따라서 어느때 어느곳으로든지 마음대로 군대를 이동시킬수 있는것이다.

당이란 무엇인가?

당이란 자원의 원칙에 립각하여 아래로부터 우로 건립되는 무산계급의 전위대이다. 당에도 역시 자기의 사령부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로부터 임명되는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전체 당에 의하여 선거되는것이다. 사령부가 당을 편성하는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당이 자기의 사령부를 편성하는것이다. 당 그자체는 자원의 원칙에 따라 편성된다. 당의 사령부와 전체 당 사이에는 앞에서 군대에 관하여 말한바와 같은 그러한 물질상에서의 의존관계가 없다. 당의 사령부는 량식, 식료품 및 피복을 당에 공급하지 않는다. 역시 이러하기때문에 당의 사령부는 당의 대오를 어느때 어느곳으로든지 마음대로 이동시킬수 없으며 오직 본 계급(당단체가 바로 이 계급의 일부분이다.)의 경제적 및 정치적 리익에 의해서만 전당을 지도할수 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당의 규률은 주요하게 강제적 방법을 기초로 한 군대규률과는 달리 주요하게 설복의 방법을 기초로 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당내의 가장 엄격한 처벌(출당)과 군대내의 가장 엄격한 처벌(총살)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것이다.

이 두가지 정의를 비교하기만 하면 라파일의 오유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곧 알수 있다.

그는 당이 군대식조직으로 변하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이 물질적으로 자기의 사령부에 의존하지 않는 이상, 당이 자원의 원칙에 의하여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이상, 당자체가 자기의 사령부를 편성하는 이상 당이 어떻게 군대식조직으로 변할수 있겠는가? 만일 당이 군대식조직으로 변하였다면 로동자들이 계속부단히 당에 들어오는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비당원군중들가운데서 당의 영향력이 날로 커가는것을 어떻게 해석하며 전 세계 근로계층가운데서 당이 위망을 가지고있는것을 어떻게 해석할것인가?

두가지중의 어느 하나일것이다. 즉

혹은 당이 극히 소극적이고도 수동적이거나—그렇다면 이와 같이 소극적이고도 수동적인 당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무산계급을 령도하며 또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나라를 몇해동안이나 줄곧 다스려나가고있는가를 해석할 방법이 없다.

혹은 당이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이거나—그렇다면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당이 어찌하여 그 시기내에 당내의 군대제도(가령 당내에 정말 이런 제도가 있다면)를 폐지하지 않았는가 하는것을 리해할수 없다. —이 두가지중의 어느 하나일것이다.

우리 당은 세차례의 혁명을 수행하였고 뿔챠크와 제니낀을 격파하였으며 지금은 세계제국주의의 기초를 뒤흔들어놓고있다. 이러한 당은 라파일이 주책없이 말한 그런 군사제도와 명령제도를 일주일도 묵과하지 않았으리라는것, 라파일이 호

소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이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였으리라는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꿈은 사납지만 하느님은 인자스러운것이다. 문제는 첫째로는 라파일이 필시 당도 잘 알지 못하거니와 군대도 잘 알지 못하기때문에 당과 군대를 서로 혼동시한데 있다. 둘째로는 분명 라파일자신도 자기의 발견을 믿지 않는다는데 있다. 라파일이 당내에 명령제도가 있다는 이런 《무서운》 말을 꺼내게 된것은 반대파의 당면의 기본구호들 즉 (ㄱ) 파벌활동의 자유를 줄것, (ㄴ) 우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당의 령도자들을 바꿀것이라는 구호를 론증하기 위한것이였다.

라파일은 이런 《무서운》 말을 꺼내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구호들을 내걸지 못하리라는것을 느낀것 같다.

모든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쁘레오브라젠스끼의 론문에 관하여

쁘레오브라젠스끼는 당내생활의 결함의 주요원인은 당건설면에서의 당의 기본로선이 옳지 못한데 있다고 여긴다. 쁘레오브라젠스끼는 《당은 벌써 이태동안이나 당내정책면에서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로선을 실시하고있다.》고 주장하며 《신경제정책시기 당내건설과 당내정책 면에서의 당의 기본로선》은 옳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신경제정책시기의 당의 기본로선은 어떠한것인가? 당은 제10차대회에서 로동자민주주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당이 이러한 결의를 채택한것이 옳았던가? 쁘레오브라젠스끼는 옳았다고 생각한다. 당은 그 대회에서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엄격한 제한방법(파벌활동금지)을 규정하였다. 당이 이러

한 제한방법을 규정한것이 옳았던가? 쁘레오브라젠스끼는 옳지 않았다고 본다. 그것은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제한이 당의 독자적인 사고력을 구속하기때문이다. 당은 제11차대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제한방법(일정한 당령을 규정하는 등등)을 규정하였다. 당의 제12차대회에서는 이 제한들을 확인하였을따름이였다. 당이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 소자산계급적편향의 침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한방법을 규정한것이 옳았던가? 쁘레오브라젠스끼는 옳지 않았다고 본다. 그것은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제한이 각급 당조직의 주동성을 구속하기때문이다. 결론은 자못 명백한바 쁘레오브라젠스끼는 신경제정책의 정황하에서 당의 제10차, 제11차 대회에서 채택된 당내건설과 당내정책 면에서의 당의 기본로선을 취소할것을 제의하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당의 제10차, 제11차 대회는 레닌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진행되였던것이다. 파벌활동금지에 관한 결의(통일에 관한 결의)는 제10차대회에서 레닌동지에 의하여 제의되고 채택된것이다. 민주주의를 가일층 제한할데 관한(일정한 당령을 규정하는 등등) 결의는 레닌동지가 친히 참석한 제11차대회에서 채택된것이다. 쁘레오브라젠스끼는 자기가 실제상에서는 레닌주의와 유기적으로 련결된 신경제정책조건하에서의 당의 로선을 취소할것을 제의하고있다는것을 생각해보았는가? 쁘레오브라젠스끼는 신경제정책조건하에서의 당건설에 관한 당의 기본로선을 취소할데 대한 자기의 제의가 실제에 있어서는 레닌주의의 수정을 요구한 악명높은 《닉명강령》[67]중의 몇가지 제의의 반복으로 된다는것을 알기 시작했는가?

이 문제를 제기만 하여도 당이 쁘레오브라젠스끼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리라는것을 리해할수 있는것이다.

쁘레오브라젠스끼는 도대체 무엇을 제의하였는가? 그는

바로 《1917～1918년식의》 당내생활을 에누리없이 복구할것을 제의하고있는것이다. 1917～1918년의 당내생활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가? 우리 당내에 파벌집단이 존재하고있으며 파벌투쟁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고있으며 당이 생사존망의 위급한 고비에 처해있은것이 당시의 특징이였다. 쁘레오브라젠스끼는 제10차대회에서 이미 폐기된 그런 당내제도를 적어도 《국부적》이나마 복구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이 그 길을 걸을수 있겠는가? 천만에, 그렇게는 할수 없다. 왜냐 하면 첫째로, 신경제정책을 실시하기전인 1917～1918년식의 당내생활을 복구하는것은 신경제정책을 실시한후인 1923년도 조건하에서의 당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으며 또 부합될수도 없기때문이다. 둘째로, 과거의 파벌투쟁제도를 복구하는것은 특히 레닌동지가 사업하지 못하는 오늘에 와서는 필연코 당의 통일을 파괴할것이기때문이다.

쁘레오브라젠스끼는 1917～1918년의 당내생활상태를 념원에 맞는 리상적인것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우리는 당을 심히 뒤흔들었던 이 시기 당내생활의 많은 암흑면들을 알고있다. 볼쉐위크의 당내투쟁이 이 시기 즉 브레스트강화시기[52]처럼 그렇게 치렬한적은 종래로 없었던것 같다. 례를 들면 다 아는바와 같이 그 당시 이미 독자적인 파벌로 형성된 《좌익》공산주의자들은 새로운 인물 즉 《좌익》공산주의자파벌내의 인물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인민위원회로 당시의 인민위원회를 대체하자고 미친듯이 공공연하게 떠벌리는데까지 이르렀던것이다. 지금의 반대파들의 일부(쁘레오브라젠스끼, 빠따꼬브, 스뚜꼬브 등등)는 바로 그 당시 《좌익》공산주의자파벌의 성원들이였다.

쁘레오브라젠스끼는 《리상적》인 이 낡은 제도를 우리 당

내에 《복구》시키려고 하는것이 아닌가?

어쨌든 당이 이런 《복구》에 동의하지 않을것은 명백한 일이다.

싸쁘로노브의 론문에 관하여

싸쁘로노브는 당내생활의 결함의 주요원인은 《학교방법》대로 《당원을 교육함》으로써 투쟁과정에서 당원들이 진짜교육을 받는것을 저애하는 《당학구》와 《녀학감》들이 당기관에 존재하고있는데 있다고 여긴다. 싸쁘로노브는 이렇게 우리 당 기관의 일군들을 《녀학감》이라 이름짓고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당학구》가 우리 당 사업에서 어떻게 우세를 차지하게 되였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싸쁘로노브는 극히 위험하고도 악선동적인 이런 론점을 다 실증된것으로 내세움에 있어서 맑스주의자는 간단한 격언에 만족할수 없고 무엇보다먼저 현상(만일 사실에 있어서 확실히 이런 현상이 있다면)을 료해하고 현상을 설명하며 나아가서 실제적인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싸쁘로노브는 맑스주의를 상관치 않는 모양이다. 그는 어쨌든 모두가 다 당의 기관을 욕하면 다른 모든것들이 잘되리라고 생각하고있다. 싸쁘로노브의 견해에 의하면 《당학구》들의 악의가 바로 우리 당내생활의 결함의 원인이다. 이 해석이 얼마나 옳은가 하는데 대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는것이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에 대해서는 해득할수 없다. 즉

(1) 이러한 《녀학감》과 《당학구》들이 어찌하여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무산계급에 대한 지도권을 견지해올수 있었는가?

(2) 《녀학감》의 교육을 받는 우리 《당의 학생》들이 어찌하여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나라에 대한 지도권을 견지해올 수 있었는가?

어쨌든 《당학구》에 대하여 공담하는것이 우리 당 기관의 극히 큰 우첨을 료해하고 평가하기보다 퍽 쉬우리라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싸뻐로노브는 우리 당내생활의 결함을 어떻게 고치려고 생각하고있는가? 그의 약처방은 그의 진단과 마찬가지로 간단한것이다. 《우리의 군관들을 재심사할것》, 지금의 일군들을 해임시킬것—이것이 바로 싸뻐로노브의 약처방이다. 그는 당내민주주의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담보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적견지에서 볼 때 개선이 우리 당내생활을 개진함에 있어서 가지는 의의를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기본적담보가 있다고 보는것은 당내생활을 알지 못하는것이며 당내생활의 결함도 알지 못하는것이다. 반대파의 대렬가운데는 벨로보로도브, 로젠홀쯔, 빠따쁘브, 알리스끼, 뵈크와 같은자들이 있다. 벨로보로도브의 《민주주의》는 지금까지도 로스또브로동자들의 기억속에 남아있으며 로젠홀쯔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해원들과 철도종업원들을 고생시켰으며 빠따쁘브의 《민주주의》는 전 돈바쓰를 소리치게 한것이 아니라 통곡하게 하였으며 알리스끼의 《민주주의》는 모두다 아는바이며 뵈크의 《민주주의》는 호레즘을 지금까지도 통곡하게 하고있다. 싸뻐로노브는 우에 렬거한 《존경하는 동지》들로 지금의 《당학구》들을 대신하면 당내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할줄로 생각하고있는가? 이 점에 대하여 나로서는 좀 의혹을 품게 된다.

보건대 다음과 같은 민주주의가 있다. 즉 하나는 주동성을 적극 발휘하고저 하는 동시에 당의 지도사업에 적극 참가

하고저 하는 당원대중들의 민주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사람들로 다른 일부 사람들을 대신하는데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보는 불만정서를 가진 당내요인들의 《민주주의》이다. 당은 틀림없이 첫째 종류의 민주주의를 찬성할것이며 또 그것을 견결히 실현할것이다. 당은 불만정서를 가진 당내요인들의 《민주주의》는 틀림없이 배격할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당내의 로동자들의 참다운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기때문이다.

당내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을 독자적인 유기체로서가 아니라 기관계통으로 보고있는 우리의 일부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그 전시의 잔재와 관습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잔재를 단시일내에는 없애버릴수 없는것이다.

당내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근 백만명의 사무원을 가지고있는 우리의 관료주의적국가기관이 단지 2만~3만명의 일군들을 가지고있는 당기관에 가하는 압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번중한 기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며 국가기관을 자기에게 복종시킨다는것은 단시일내에는 불가능한것이다.

당내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끝으로 우리의 많은 락후한 세포의 문화수준을 높이며 적극적인 일군들을 련맹의 모든 지구들에 합리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이것 역시 단시일내에는 불가능한것이다.

여기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충분한 민주주의—물론 싸쁘로노브의 그 텅 빈 형식상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로동자들의 참다운 민주주의를 두고 말한다면—를 보장한다는것은 싸쁘로노브가 상상하는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닌것이다.

당내의 참다운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아래로부터 우에 이르기까지의 전당의 의사를 집중시켜야 한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뜨로쯔끼의 편지에 관하여

12월 7일에 공포된 당내민주주의에 관한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열위원회의 결의는 만장일치로 채택된것이다. 뜨로쯔끼는 이 결의에 찬성하였던것이다. 그러니만큼 중앙위원들(뜨로쯔끼를 망라함.)이 틀림없이 당원들에게 중앙과 중앙의 결의를 일심협력하여 지지할것을 다같이 호소하리라고 예견할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며칠전에 뜨로쯔끼는 각지에서 열린 당의 회의에 편지를 보내였는데 이 편지는 중앙과 중앙의 립장을 한결같이 지지하는 당원들의 립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밖에는 달리 해석할수 없는것이다.

당신들스스로 판단하여보라.

뜨로쯔끼는 당기관의 관료주의에 관하여, 로근위대 즉 우리 당의 기본핵심인 레닌주의자들의 변질할 위험성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로근위대〉의 변질은 력사적으로 한번만 있은것이 아니다. 가장 새롭고 가장 확연한 력사적사실인 제2국제당의 수령과 정당의 사실을 례로 들어보자. 우리는 윌헬름 립크네히트, 베벨, 징게르, 빅토르 아들레르, 카우쯔키, 베른슈타인, 다파르그, 게드 등등이 모두다 맑스와 엥겔스가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였다는것을 잘 알고있는바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수령들이—일부는 부분적으로, 일부는 완전히—변질하여 기회주의측으로 넘어갔다는것을 알고있다.…》《우리는, 즉 우리〈늙은이들은〉 우리 세대가 당내에서 자연히 지도적역할을 놀고있기는 하지만 만일 당내에서 청년들을 소극적인 교양대상으로 만들며 따라서 기관과 대중간에, 로인들과 청년들간에 필연적으로 간극을 두게 하는 그러한

기관—관료주의적방법에 의하여 정책을 실시할것을 계속 고집하며 그렇게 실시하는것을 허용한다면 무산계급의 혁명정신을 점차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약화되지 않도록 독자적으로 담보할수가 전혀 없다는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당의 가장 믿음직한 청우계인 청년들은 당의 관료주의에 대하여 반응이 제일 민감하다.…》《청년들은 반드시 견투에 의하여 혁명적공식들을 체득해야 한다.…》

첫째로, 나는 가능하게 있을수 있는 오해를 풀어주어야 하겠다. 뜨로쯔끼의 편지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그는 볼쉐위크의 로근위대로 자처하고있으며 그것으로써 만일 로근위대가 정말 변질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면 로근위대의 머리우에 떨어질수 있는 비난들을 자기가 접수할 결심이 있다는것을 표명하고있다. 자기를 희생시키려는 이러한 결심은 물론 고결한 우점이라는것을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나는 뜨로쯔끼가 스스로 자신을 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여야 하겠다. 그 리유는 매우 간단하다. 즉 그는 볼쉐위크의 로근위대골간들이 변질될수 있는 책임을 질수 없을뿐더러 또 져서는 안되는것이다. 희생하는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로볼쉐위크들에게 이러한 희생이 필요한가? 나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기회주의, 멘쉐위크와 제2국제당을 줄곧 반대하여왔고 또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반대할 볼쉐위크의 로근위대를 어찌 베른슈타인, 아들레르, 카우쯔키, 게드 등과 같은 기회주의자 및 멘쉐위크들과 동일시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일이다. 만일 로근위대를 옹호하는 목적을 결코 가지지 않는 그 어떤 다른 심보에서가 아니라 당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였다면 이런 혼란과 혼동이 어떻게 생길수 있으며 또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할것인가? 기회주의와의 투쟁에서 성장된 로볼쉐위크들이 이미 기회주의에 감염되였다

는 그러한 암시는 또 어떻게 리해할것인가?

셋째로, 우리 고장에는 절대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언할 리유가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로볼쉐위크들에게 변질의 위험성이 절대 없다고는 결코 생각지 않는다. 그러한 위험성이 있을수 있다고 상상할수 있으며 또 상상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 위험성이 현실적이며 이미 발생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뜨로쯔끼 자신도 변질의 위험성이 현실적인것이라고 설명할만한 아무런 재료도 내놓지 못하고있다. 그렇지만 우리 당내에는 우리 당의 일부 대렬에 실제적변질의 위험성을 산생시킬수 있는자들이 있는것이다. 나는, 우리 당에 부득이 들어왔으며 또 아직도 기회주의의 낡은 습성을 버리지 못한 멘쉐위크들의 일부를 두고 말하는것이다. 레닌동지는 청당시기에 이런 멘쉐위크와 그 위험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모든 기회주의자는 적응성이 특징적이다.… 기회주의자로서의 멘쉐위크는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로동자사이의 지배적인 류파에 적응하며 토끼가 겨울에는 흰색으로 변하는것과 같이 보호색으로 변장하는것이다. 멘쉐위크의 이 속성을 알아야 하며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고려한다는것은 1918년이후에 즉 볼쉐위크의 승리가 처음에는 있음직한것으로 되였고 그후에는 의심할바없는것으로 되였을 때에 로씨야공산당에 들어온 전체 멘쉐위크중에서 대략 100분의 99까지를 당으로부터 숙청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13페지를 보라.)①

뜨로쯔끼는 어찌하여 실지로 존재하고있는 이런 위험성을 홀시하고 가능하게 생길수 있는 위험성을 즉 볼쉐위크의 로군위대가 변질할 위험성을 앞에 내세울수 있는가? 만일 중앙위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563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원회의 대다수 즉 볼쉐위크의 로근위대의 지도적핵심의 위신을 훼손할 의향에서가 아니라 당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였다면 어찌하여 현실적위험성은 보지 않고 실제에 있어서는 비현실적인, 가능하게 생길수 있는 위험성을 앞에 내세울수 있는가? 이러한 《견해》는 반대파에 유리할따름이라는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넷째로, 뜨로쯔끼는 어찌하여 변질될수 있는 《늙은이》들을 당의 《가장 믿음직한 청우계》인 《청년》들과 대립시키며 관료주의화할수 있는 《로근위대》를 《전투에 의하여 혁명적공식들을 체득해야 할》 《청년근위대》와 대립시킬수 있는가? 무엇때문에 그들을 대립시키는가? 그래 청년들과 로근위대들이 줄곧 한사람같이 단합되여 국내외의 원쑤들을 물리치지 않았단 말인가? 그래 《늙은이》들과 《청년》들의 단합이 우리 나라 혁명의 기본력량이 아니란 말인가? 어찌하여 로근위대를 모욕하고 미혹적으로 청년들에게 아부하면서 우리 당의 이 두 기본대오사이에 간극을 조성하고 그것을 넓힐수 있는가? 만일 반대파들에게 유리하게 당의 통일을 동요시키려는 수작에서가 아니라 당의 리익, 당의 통일과 당의 단결로부터 출발하여본다면 이렇게 하는것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그래 중앙위원회 및 만장일치로 채택된 당내민주주의에 관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이렇게 옹호한단 말인가?

그런데 뜨로쯔끼는 각지 당조직의 회의에 편지를 보낼 때 자기에게 이러한 과업을 규정하여주지는 않았다는것이 명백하다. 여기에는 딴심보가 있다는것, 즉 당중앙위원회를 반대하는 반대파들을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옹호한다는 간판밑에서 외교적수단으로 지지하려 한다는것이 명백하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뜨로쯔끼의 편지에는 량면성의 혼적이 있는것이다.

뜨로쯔끼는 민주주의중앙집권파 및 일부분 《좌익》공산주의자들과 동맹을 맺고있다. —바로 여기에 뜨로쯔끼의 언론의 정치적의의가 있는것이다.

1923년 12월 15일부 《쁘라우다》 제285호에 게재

서명: 이. 쓰딸린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5권, 303~316페지

레닌의 서거에 즈음하여

(1924년 1월 26일 전련맹쏘베트
제2차대회68에서 한 연설)

동지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특수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특수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위대한 무산계급전략가의 군대, 레닌동지의 군대를 이루고있는 사람들이다. 이 군대에 들어있다는 영예보다 더 고귀한 영예는 없다. 레닌동지를 그 창건자로, 지도자로 모시고있는 당의 당원이라는 칭호보다 더 고귀한 칭호는 없다. 이러한 당의 당원으로는 누구나 다 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이러한 당의 당원들이 겪는 고난과 풍파는 누구나 다 견디여낼수 있는것이 아니다. 로동계급의 아들들, 빈궁과 투쟁 속에서 자란 아들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궁핍속에서 영웅적로력으로 살아온 아들들—우선 이들이 이러한 당의 당원으로 되여야 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레닌주의자들의 당, 공산주의자들의 당은 동시에 로동계급의 당이라고도 불리워지는것이다.

레닌동지는 우리의 곁을 떠나면서 당원의 위대한 칭호를 소중히 간직하고 순결하게 보존할것을 우리에게 유언하였다. 레닌동지여, 우리는 당신의 이 유훈을 영예롭게 실천할것을 당신앞에 맹세한다!

레닌동지는 25년동안이나 우리 당을 키워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단련된 로동계급의 당으로 길러내였다. 짜리제

도와 그 친위병들의 공격, 자산계급과 지주들의 폭행, 뽈챠크와 제니낀의 무장공격, 영국과 프랑스의 무력간섭, 모든 자산계급출판물의 날조와 중상—이 모든 악랄한 공격이 25년동안 끊임없이 우리 당에 들씌워졌다. 그러나 우리 당은 철벽처럼 서서 원쑤들의 무수한 공격을 물리치고 로동계급을 앞으로, 승리에로 인도하여왔다. 가렬한 전투속에서 우리 당은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이룩하였다. 이 통일과 단결에 의하여 당은 로동계급의 원쑤들에 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레닌동지는 우리의 곁을 떠나면서 우리 당의 통일을 눈동자와 같이 고수할것을 우리에게 유언하였다. 레닌동지여, 우리는 당신의 이 유훈도 영예롭게 실천할것을 당신앞에 맹세한다!

로동계급의 운명은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것이다. 근로자들의 고난은 괴롭고 쓰라린것이다. 노예와 노예주, 농노와 농노주, 농민과 지주, 로동자와 자본가, 피압박자와 압박자—세계는 예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있었으며 지금도 대다수의 나라들은 의연히 이러하다. 수세기동안 근로자들은 압박자들을 타도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려고 수십수백번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격파되고 수치를 당한 그들은 가슴속에 울분과 치욕, 원한과 절망을 품고 망망한 하늘을 우러러 구원을 바라면서 부득이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노예의 쇠사슬은 그대로 남아있거나 혹은 낡은 쇠사슬이 역시 그처럼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새로운 쇠사슬로 바뀌여지거나 하였다.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 억눌리고 짓밟힌 근로대중이 지주와 자본가의 지배를 타도하고 그대신에 로동자와 농민의 지배를 확립하였다. 동지들, 동지들이 알고있고 또 지금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바와 같이 이 위대한 투쟁을 지도한것은 레닌동지와 그의 당이다. 레닌의 위대성은 우선 그가 쏘베트공화국

을 창건함으로써 전 세계 피압박대중에게 구원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지주, 자본가의 지배는 영원한것이 아니며 로동의 왕국은 근로자들자신의 노력으로 창건할수 있으며 또한 로동의 왕국은 하늘에가 아니라 지상에 세워야 한다는것을 실지로 보여주었다는데 있다. 이리하여 그는 전 세계 로동자, 농민의 심장에 해방의 희망이 불타오르게 하였다. 레닌의 이름이 찬취받는 근로대중의 가장 사랑하는 이름으로 된 사실도 바로 이것으로써 설명되는것이다.

레닌동지는 우리의 곁을 떠나면서 무산계급독재를 고수하고 강화할것을 우리에게 유언하였다. 레닌동지여, 우리는 당신의 이 유훈도 영예롭게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을 아끼지 않을것을 당신앞에 맹세한다!

우리 나라에서 무산계급독재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수립되였다. 이것은 쏘베트공화국의 첫째 가는 근본적초석이다. 이러한 동맹이 없었더라면 로동자와 농민은 자본가와 지주를 타승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로동자는 농민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자본가를 격파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농민은 로동자의 령도가 없었더라면 지주를 격파하지 못하였을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국내전쟁의 전 력사가 말해주고있다. 그러나 쏘베트공화국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다만 새로운 형태를 취하였을뿐이다. 이전에는 로농동맹이 군사적 동맹의 형태를 취하고있었다. 그것은 이 동맹이 끌착크와 제더깐을 반대하는데 돌려져있었기때문이다. 지금은 로농동맹이 도지와 농촌, 로동자와 농민간의 경제적협조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이 동맹은 상인과 부농들을 반대하는데 돌려지고있기때문이며 또 이 동맹의 목적은 농민과 로동자가 필요한 모든것을 서로 공급하자는데 있기때문이다. 동무들이 알다싶이 레닌동지처럼 이 과업을 완강하게 실천한 사람

은 없다.

레닌동지는 우리의 곁을 떠나면서 전력을 다하여 로농동맹을 강화할것을 우리에게 유언하였다. 레닌동지여, 우리는 당신의 이 유훈도 영예롭게 실천할것을 당신앞에 맹세한다!

쏘베트공화국의 두번째 초석은 우리 나라 각 민족 근로자들의 동맹이다. 로씨야인과 우크라이나인, 바슈끼르인과 벼로씨야인, 그루지야인과 아제르바이쟌인, 아르메니야인과 다게스딴인, 따따르인과 끼르기즈인, 우즈베크인과 뚜르크메니야인—이들은 모두가 무산계급독재를 강화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산계급독재가 이 인민들을 예속과 압박에서 구원할뿐만아니라 이 인민들도 쏘베트공화국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과 쏘베트공화국을 위해 헌신하려는 자기들의 각오로써 우리 쏘베트공화국을 로동계급의 원쑤들의 간계와 습격으로부터 구원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레닌동지는 우리 나라 민족들의 자원적인 동맹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화국련맹내에서의 그들의 형제적인 협조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꾸준히 교시하였던것이다.

레닌동지는 우리의 곁을 떠나면서 공화국련맹을 강화하고 확대할것을 우리에게 유언하였다. 레닌동지여, 우리는 당신의 이 유훈도 영예롭게 실천할것을 당신앞에 맹세한다!

무산계급독재의 세번째 초석은 우리의 붉은군대와 우리의 붉은해군이다. 레닌은 우리가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전취한 휴식기는 오래 가지 못할수 있다고 여러 번 우리에게 지적하였다. 레닌은 붉은군대를 강화하며 그 상태를 개선하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라고 여러 번 교시하였다. 커즌의 최후통첩[69]이나 독일의 위기[70]와 관련한 사변들은 항상 그러하였던것처럼 레닌의 말이 옳았다는것을 다시한번 증명하여주었다. 동지들, 우리는 우리의 붉은군대, 우리의 붉은해군

을 강화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을것을 맹세하자!

우리 나라는 자산계급국가들의 대양에 포위되여있지만 거대한 철벽파도 같이 서있다. 파도는 우리 나라를 삼킬듯, 휩쓸어갈듯 련달아 밀려들고있다. 그러나 철벽은 계속 거연히 서있다.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 힘은 비단 우리 나라가 로동자, 농민의 동맹에 기초하고있고 자유로운 민족들의 동맹을 구현하고있으며 또 붉은군대와 붉은해군의 강력한 손이 그것을 수호하고있다는 거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의 힘, 그 확고성, 그 견고성은 우리 나라가 전 세계 로동자, 농민의 가슴속 깊은 동정과 확고부동한 지지를 받고있는데 있다. 전 세계의 로동자와 농민은 쏘베트공화국을 레닌동지가 적진을 겨누어 정확히 쏜 화살로서, 압박과 착취에서 벗어날 자기들의 희망의 기둥으로서, 자기들에게 해방의 길을 가리켜주는 믿음직한 등대로서 수호하려 한다. 그들은 쏘베트공화국을 수호하려 하며 지주와 자본가들이 이를 파괴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다. 여기에 전 세계 근로자들의 힘이 있다. 바로 여기에 전 세계 자산계급의 취약성이 있다.

레닌은 결코 쏘베트공화국을 목적 그자체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항상 쏘베트공화국을 서방과 동방의 각국에서 혁명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고리로 보았으며 자본에 대한 전 세계 근로자들의 승리를 촉진하는 필수적고리로 보았다. 레닌은 오직 이러한 리해만이 국제적견지에서뿐만아니라 쏘베트공화국자체를 수호하는 견지에서도 정확하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레닌은 오직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전 세계 근로자들의 심장을 불타오르게 하여 해방을 위한 결전에로 나아가게 할수 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무산계급의 천재적수령중에서도 가장 천재적수령인 그는 무산계급독재를 수립한 그다음날에 로동자국제당의 기초를 닦았던것이다. 바로 그

령기때문에 그는 피로를 모르고 전 세계 근로자들의 동맹인 국제공산당을 확대강화하였다.

동지들은 이 며칠동안에 수만, 수십만의 근로자들이 레닌동지의 령구를 참배하러 오는것을 보았을것이다. 얼마후이면 동지들은 수백만 근로자의 대표들이 레닌동지의 묘를 참배하러 오는것을 보게 될것이다. 의심할바없이 그다음에는 수백만 근로자대표들의 뒤를 이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수천만, 수억만 근로자의 대표들이 찾아와 레닌은 로씨야무산계급의 수령, 구라파로동자들의 수령, 동방식민지의 수령이였을뿐만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전체 근로자들의 수령이였다는것을 증명할것이다.

레닌동지는 우리의 곁을 떠나면서 국제공산당의 원칙에 충실할것을 유언하였다. 레닌동지여, 우리는 전 세계 근로자들의 동맹인 국제공산당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것을 당신앞에 맹세한다!

1924년 1월 30일부 《쁘라우다》
제23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6권, 42～46페지

레닌에 대하여

(1924년 1월 28일 크레믈리군관학교
학생 야회에서 한 연설)

동지들! 나는 여러분이 레닌에 대한 추억의 밤을 가지고 나를 보고자의 한사람으로 이 모임에 초대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레닌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인간으로서의, 또 활동가로서의 레닌의 몇가지 특성을 말해주는 일련의 사실들을 말하는데 그치는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사실들사이에는 혹 내부적련관이 없을는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레닌에 대한 일반적개념을 얻는데 방해로 되지 않을것이다. 어쨌든 이번에 나는 여러분께 우에서 약속한것 이상은 더 말할수 없다.

산의 수리

내가 처음으로 레닌을 알게 된것은 1903년이였다. 그것은 직접으로가 아니라 서신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것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당에서 사업하는 동안 언제나 나의 기억에서 사라질수 없는 감명을 남겨주었다. 나는 당시 씨비리에서 류형살이를 하였다. 19세기 90년대말엽부터 그리고 특히 1901년후 즉 《이스크라》[9]가 발간된후에 레닌의 혁명적활동을 알게

되면서부터 나는 레닌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당시 나에게는 그가 당의 평범한 지도자로서가 아니라 당의 사실상의 창건자로 보이였다. 왜냐 하면 그이만이 우리 당의 내적본질과 절박한 요구를 리해하고있었기때문이다. 그를 우리 당의 다른 지도자들과 비교하여볼 때 항상 나에게는 레닌의 전우이던 쁠레하노브, 마르또브, 악쎌로드 등등이 레닌에 비하면 소인이며 그들에 비하여 레닌은 단순히 지도자의 한사람인것이 아니라 투쟁에서 두려움을 모르며 로씨야혁명운동의 전인미답의 길로 대담히 우리 당을 이끌고나아가는 최고형의 지도자, 산의 수리로 생각되였다. 이 인상은 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박혔던지 나는 당시 망명중에 있던 나의 어떤 친우에게 이 사연을 써보내여 그의 평가를 들어볼 필요를 느끼게까지 되였다. 그후 얼마 지나서 내가 씨비리에서 류형살이를 할 때에—그것은 1903년말이였다. —나는 나의 친우의 반가운 회답과 아울러 간단하나마 내용이 풍부한 레닌의 서한을 받았다. 후에 안바이지만 나의 친우는 내가 보낸 편지를 레닌에게 보였던것이다. 레닌의 이 서한은 비교적 짧았으나 우리 당의 활동에 대하여 과감하고 대담하게 비판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하여야 할 당사업의 전 계획을 매우 명료하고 간결하게 설명한것이였다. 오직 레닌만이 가장 복잡한 일에 대하여 그렇게도 간단명료하게, 간결하고 대담하게 쓸수 있었던것이다.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탄환이였다. 이 간단하고도 대담한 서한은 우리 당에서 레닌은 산의 수리라는 나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였다. 나는 오랜 지하운동가의 습관대로 이 레닌의 서한을 다른 많은 서한들처럼 불살라버렸는데 이것은 자기를 용서할수 없는 일이다.

이때로부터 나는 레닌과 알게 되였다.

겸 손 성

나는 1905년 12월 탐메르포르쪼(핀란드)에서 진행된 볼쉐위크대표자회의57에서 처음으로 레닌과 만났다. 나는 우리 당의 산의 수리를, 위대한 인물을, 비단 정치적으로 위대할뿐아니라 지어는 체구도 웅장한 인물을 보게 되리라고 기대하였던것이다. 왜냐 하면 나의 상상에는 레닌은 풍채좋고 위풍당당한 거인으로 그려져있었기때문이다. 보통키보다도 작고 보통사람과 조금도, 문자그대로 조금도 다른 점이 없는 가장 평범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나는 얼마나 실망하였던가…

《위대한 인물》은 의례히 회의에 늦게 와서 회의참가자들로 하여금 초조한 마음으로 그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게 하며 또 그 《위대한 인물》이 회장에 나타날 때에는 회의참가자들은 《쉬!…조용하십시오…오십니다.》라고 주의시키는것이 통례로 되여있다. 나에게는 이러한 의례가 쓸데없는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경모감을 자아내며 존경심을 일으키게 하는것이기때문이다. 레닌이 다른 대표들보다도 먼저 회장에 나타나 한구석에 앉아서 순박하게 대표자회의의 가장 평범한 대표들과 더불어 가장 평범한 담화를 하고있는것을 보았을 때 나는 얼마나 실망하였던가. 숨김없이 말하면 그때 나에게는 레닌이 이와 같이 하는것은 어떤 필요한 규례를 좀 위반하는것 같이도 보였다.

그후에야 비로소 나는 레닌의 이러한 순박성과 겸손성,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는 노력, 혹은 어쨌든 남의 눈에 특별한 사람으로 나타나려 하지 않으며 를을 차리지 않는것—이 특징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낮은 《하층》의 순박하고 평범한 대

중, 새로운 대중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레닌의 가장 훌륭한 면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론 리 의 힘

이 대표자회의에서 진술한 레닌의 두 연설, 즉 현정세에 관한 연설과 토지문제에 관한 연설은 훌륭한것이였다. 유감스럽게도 이 연설문은 보존되여있지 않다. 그것은 전 대표자회의를 무한한 감격속에 잠기게 한 감동적인 연설이였다. 비상한 설복력, 론중의 간단명료성, 간단하고도 누구나 다 리해할 수 있는 말, 수식이 없고 청중의 감명을 자아내려는 현혹적인 몸짓과 효과를 높이려는 미사려구가 없는것—이 모든것은 레닌의 연설을 보통《의회》연사의 연설보다 특이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때 나를 황홀하게 한것은 레닌의 연설의 이러한 면이 아니였다. 나를 황홀하게 한것은 레닌의 연설가운데 있는 이겨낼수 없는 론리의 힘이였다. 그 론리의 힘은 약간 건조하기는 하나 그러나 청중을 완전히 틀어쥐고 점점 감동시키다가 마침내 청중은 그야말로 남김없이 몽땅 사로잡고마는것이였다. 나는 그때 대표들중 많은 사람들이《레닌의 연설의 론리는 사람을 사방으로 꼼짝못하게 틀어쥐는 그 어떤 강유력한 촉수여서 누구도 그 촉수로부터 빠져나갈수 없는바 항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실패를 당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하던것을 기억하고있다.

레닌의 연설에서의 이 특성은 그의 웅변술의 가장 힘있는 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락심하지 않는다

내가 레닌을 두번째로 만난것은 1906년 우리 당의 스톡홀름대회[41]에서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 대회에서는 볼쉐위크가 소수였기때문에 패배를 당하였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패배자의 처지에 있는 레닌을 보았다. 레닌은 패배한 뒤에 락심하고 침울해하는 그런 지도자들과는 조금도 비슷한 점이 없었다. 도리여 패배는 레닌으로 하여금 새로운 전투와 장래의 승리에로 자기의 지지자들을 고무하는 힘을 주었다. 나는 레닌의 패배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패배였던가? 레닌의 반대자들 즉 스톡홀름대회의 승리자들인 쁠레하노브, 악쎌로드, 마르또브 등의 꼴은 볼만하였다.—그들은 진짜승리자와는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레닌은 멘쉐위크주의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으로써 그들을 그야말로 만신창으로 만들었기때문이다. 나는 우리 볼쉐위크대표들이 한데 모여 레닌을 쳐다보면서 그의 조언을 바라던 일이 생각난다. 몇몇 대표의 말에는 피로와 락담의 빛이 보이였다. 레닌이 이런 말에 대하여 《동지들, 락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옳으니만큼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라고 신랄하게 말하던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다. 락심하는 지식인에 대한 혐오, 자기 힘에 대한 자신, 승리에 대한 확신—이러한것이 그때 레닌이 우리들에게 말한것이였다. 우리는 볼쉐위크들의 패배는 일시적이며 볼쉐위크들은 가까운 장래에 반드시 승리하리라는것을 감촉하였다.

《패배하였다고 락심하지 않는다.》—이것이 레닌의 활동의 특성이였다. 이 특성으로 하여 그는 끝까지 충실하며 자기의 힘을 믿는 군대를 자기 주위에 결속시킬수 있었던것이다.

교만하지 않는다

1907년 런던에서 열린 다음대회47에서는 볼쉐위크들이 승리자로 되였다. 나는 그때 승리자의 위치에 있는 레닌을 처음으로 보았다. 어떤 지도자들은 보통 승리에 도취하여 불손하고 교만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흔히 승리를 자랑하며 방심하기 시작하는 법이다. 그러나 레닌은 이러한 지도자와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았다. 도리여 그는 승리한후에 더욱더 경각성을 높이고 신중하여졌다. 레닌이 당시에 대표들에게 재삼 간곡히 교시하던 말이 지금도 생각난다. 《첫째로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것, 둘째로 자기의 승리를 공고히 할것, 셋째로 적을 격멸할것이다. 왜냐 하면 적은 격파되였을뿐이고 아직 격멸되기까지는 멀었기때문이다.》 레닌은 《이제는 멘쉐위크들이 끝장났다.》고 경솔하게 단언하는 대표들을 신랄하게 조소하였다. 레닌은 멘쉐위크들이 로동운동내에 의연히 뿌리를 박고있다는것, 자기의 력량에 대한 과대평가와 특히 적의 력량에 대한 과소평가를 배방으로 피하면서 그들과 totalitarian 싸워야 한다는것을 매우 쉽게 증명하였다.

《승리로 해서 교만하지 않는다.》—이것이 레닌의 성격의 특성이였다. 이 특성으로 하여 그는 적의 력량을 옳게 헤아리여 있을수 있는 불의의 사건으로부터 당을 보호할수 있었던것이다.

원 칙 성

당의 수령들은 당내의 다수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수 없다. 다수—이것은 수령들이 고려에 넣지 않을수 없는 힘

이다. 레닌은 당의 다른 어느 지도자보다도 못지않게 이것을 리해하고있었다. 그러나 레닌은 다수의 포로로 된적은 결코 없었는바 특히 다수가 원칙적견지에 서지 못하였을 때에 그러하였다. 우리 당의 력사에는 다수의 견해 또는 당의 일시적리익이 무산계급의 근본적리해관계와 충돌되는 때도 있었다. 그러한 경우에 레닌은 서슴지않고 단호히 당내 다수를 반대하여 원칙을 견지하는 편에 섰던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그는—그가 늘 말한바와 같이—《원칙적정책만이 유일하게 옳은 정책이다.》라는것을 믿고 혼자서 전체를 반대하여나서는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점에 있어서 다음의 두 사실은 특히 특징적이다.

첫째 사실. 당이 반혁명에게 분쇄되여 완전한 와해상태에 빠졌던 1909~1911년의 시기였다. 그것은 당에 대한 불신임의 시기였으며 지식인뿐만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로동자들까지도 당에서 탈퇴하는것이 전반적인 현상으로 되였던 시기였으며 지하운동을 부인하는 시기였으며 취소주의와 와해의 시기였다. 당시는 멘쉐위크들뿐만아니라 볼쉐위크들중에서도 많은 분파와 조류가 나타나고있었는데 그 대부분은 로동운동에서 리탈된것이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하운동을 완전히 취소하고 로동자들을 합법적인 자유주의적, 스똘르삔당[71]으로 조직하자는 사상이 바로 이 시기에 발생하였다. 그때에 오직 레닌한사람만이 조수에 휘말려들지 않고 당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놀랄만한 인내력과 비상한 견인성으로써 사분오렬되고 파괴된 당의 힘을 집결하였으며 로동운동내의 일체 반당적조류와 투쟁하였으며 비상한 용기와 비할데 없는 견인성으로써 당성을 고수하였다.

당성을 위한 이 론쟁에서 결국 레닌이 승리자로 된것은 다 아는바이다.

둘째 사실. 1914~1917년의 시기, 즉 제국주의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그때 사회민주당이나 사회당은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류행적인 애국주의적광증에 걸려 자국의 제국주의에 봉사하는데 급급하고있었다. 이것은 제2국제당이 자본앞에 자기의 기발을 숙이였으며 쁠레하노브, 카우쯔키, 게드등등과 같은 그런 사람들조차 모두 배외주의적파도에 견디여내지 못한 시기였다. 당시 사회배외주의와 사회평화주의에 대하여 견결한 투쟁을 일으키고 게드일파와 카우쯔키일파의 배신적행위를 폭로하였으며 동요하는《혁명가》의 불철저성에 락인을 찍은 유일한, 거의 유일한 사람은 레닌이였다. 레닌은 극소수만이 자기를 따르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것이 결정적의의를 가지는것은 아니였다. 왜냐 하면 레닌은 철저한 국제주의적정책만이 장래성있는 유일하게 옳은 정책이며 또 원칙적인 정책만이 유일하게 옳은 정책이라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이다.

새 국제당을 위한 이 론쟁에서도 레닌이 승리자로 되였다는것은 다 아는바이다.

《원칙적정책만이 유일하게 옳은 정책이다.》—이것은 레닌이 무산계급의 우수한 분자들을 혁명적맑스주의의 편으로 전취하면서 많은《난공불락의》새 진지를 점령할 때 적용한 바로 그 공식이다.

대중에 대한 신뢰

각 민족 인민의 력사를 잘 알며 혁명의 력사를 철두철미하게 연구한 당의 리론가나 지도자들이 왕왕 한가지 못된 병에 걸리는 일이 있다. 이 병은 대중을 두려워하며 대중의 창조력

을 믿지 않는것이다. 이로 인하여 혁명의 력사에 정통하지는 못하였으나 낡은것을 파괴하고 새로운것을 건설할 사명을 지닌 대중에 대한 지도자의 일종의 귀족적태도가 왕왕 발생한다. 자연발생적힘이 사나와질가봐 또 대중이 《너무 지나치게 파괴》할가봐 두려워하는것, 책대로 대중을 가르치려 하며 대중에게서 배우려고는 하지 않고 보모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것—이러한것이 이런 귀족적태도의 기본이다.

레닌은 이러한 지도자들과는 정반대였다. 나는 레닌처럼 그렇게 굳게 무산계급의 창조력을 믿으며 그렇게 굳게 무산계급의 계급적본능의 혁명적정당성을 믿는 다른 어떤 혁명가를 알지 못한다. 나는 《혁명의 혼란》, 《대중의 문란한 행동》을 운운하는 독선적인 비판가들을 레닌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내리친 다른 어떤 혁명가를 알지 못한다. 어느 한 담화시에 한 동지가 《혁명후에는 정상적인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한데 대하여 레닌은 《혁명가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력사상에서 가장 정상적인 질서는 혁명의 질서라는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불행이다.》라고 신랄하게 말하던것이 아직도 기억된다.

대중을 멸시하며 그들을 책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레닌의 경멸적태도는 여기서부터 나온것이다. 대중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행동을 리해하며 대중의 실천적투쟁경험을 면밀히 연구하여야 한다는 레닌의 꾸준한 가르침은 이로부터 나온것이다.

대중의 창조력에 대한 신뢰—그것은 레닌의 활동의 특성으로서 이 특성으로 하여 레닌은 자연발생적힘을 리해하였으며 이 자연발생적운동을 무산계급혁명의 궤도에로 올릴수 있었던것이다.

혁명의 천재

레닌은 혁명을 위하여 탄생하였다. 그는 참으로 혁명의 폭발을 조직하는 천재이며 혁명을 령도하는 가장 위대한 명수였다. 그는 혁명적동란의 시대에서처럼 그렇게 자유롭고 유쾌하게 느끼는 때는 없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레닌이 온갖 혁명적동란을 똑같이 찬성하였다거나 또는 언제나 어떤 정세하에서나 혁명의 폭발을 주장하였다고 말하려는것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하려는것은 다만 레닌의 천재적통찰력이 혁명의 폭발시기에서처럼 그렇게 충분히 뚜렷하게 나타난 때는 없었다는것이다. 혁명적전환의 시기에 레닌은 문자그대로 재화가 꽃피고 천리안이 되여 계급들의 동향과 있을 수 있는 혁명의 우여곡절을 손금보듯이 내다보고있었다. 우리 당원들사이에서 《일리이치는 물고기가 물에서 헤염치듯이 혁명의 파도속에서 헤염친다.》고 말하는것은 리유없는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레닌의 전술적구호는 《놀랄만큼》 명확하였고 혁명적계획은 《기막히게》 대담하였던것이다.

레닌의 이 특성을 잘 보여주는 아주 특징적인 두가지 사실이 생각난다.

첫째 사실. 이것은 10월혁명전야에 있은 일이다. 당시 수백만의 로동자, 농민, 병사는 후방과 전선에서 위기에 몰려 평화와 자유를 요구하고있었는데 장군들과 자산계급은 《최후까지의 전쟁》을 위하여 군사적독재를 준비하고있었으며 소위 《여론계》와 소위 《사회주의정당》들은 모두 볼쉐위크들을 반대하여 볼쉐위크들을 《독일의 간첩》이라고 비방하였으며 또 당시 께렌스끼는 볼쉐위크당을 지하로 몰아넣으려고 시도하였으며

(부분적으로는 몰아넣는데 성공하고있었다.) 그리고 당시 아직도 강력하고 규률있는 오지리-독일련합군이 피폐하고 와해된 로씨야군대와 대치하고있었고 한편 서구라파의 《사회주의자》들은 《완전한 승리까지의 전쟁》을 위하여 태연히 자기 나라의 정부와 동맹을 맺고있었던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봉기를 일으킨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이였는가? 이러한 형편에서 봉기를 일으키는것은 단판걸이의 모험을 의미하는것이였다. 그러나 레닌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그는 봉기는 불가피적이며 또 봉기는 승리하리라는것, 로씨야의 봉기는 제국주의전쟁의 종식을 준비하리라는것, 로씨야의 봉기는 도탄에 빠진 서방의 대중을 궐기시킬것이며 제국주의전쟁을 국내전쟁으로 전화시키리라는것, 봉기는 쏘베트공화국을 낳을것이며 쏘베트공화국은 전 세계 혁명운동의 성새로 되리라는것을 알고있었으며 자기의 천리안으로써 내다보았기때문이다.

레닌의 이 혁명적예견이 그후에 아주 정확하게 실현되였다는것은 다 아는바이다.

둘째 사실. 이것은 10월혁명후의 며칠사이에 있은 일이다. 당시 인민위원회는 반란장군인 두호닌총사령관으로 하여금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독일과 휴전교섭을 개시하게 하려고 하였다. 레닌과 크릴렌꼬(후의 총사령관)와 나 세사람이 두호닌과 담판하기 위하여 뻬뜨로그라드에 있는 총사령부로 직통전신을 하러 갔던 일이 기억된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순간이였다. 두호닌과 대본영은 모두 인민위원회의 명령을 수행할것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군대의 지휘관들은 완전히 대본영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었다. 병사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쏘베트정권을 적대시하는 소위 군대조직들에 소속되여있는 1,400만의 군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할는지 알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뻬

쯔로그라드에서는 다 아는바와 같이 당시 사관학교학생들의 폭동72 이 온양되고있었다. 뿐만아니라 께렌스끼는 뻬쯔로그라드를 향하여 진군하고있었다. 전신기옆에 잠간 서있던 레닌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던 일이 기억된다. 그가 이미 결단을 내렸다는것은 틀림없었다. 《무선전신국으로 갑시다. 무선전신국은 우리를 도와줄것입니다. 우리는 특별명령으로 두호닌장군을 해임시키고 크릴렌꼬동지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합시다. 그리고 장군들을 포위하고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오지리-독일군병사들과 손을 잡고 평화사업을 자기자신의 손에 틀어쥐라고 지휘관을 거치지 말고 병사들에게 호소합시다.》라고 레닌이 말하였다.

이와 같이 하는것은 《모험적인 도약》이였다. 그러나 레닌은 이 《도약》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도리여 이 《도약》을 즐겨 맞이하였다. 왜냐 하면 레닌은 군대가 평화를 갈망하며 평화에로의 도상에 놓인 일체 장애물을 물리치면서 평화를 전취하리라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이며 평화확립의 이러한 방법이 반드시 오지리-독일군병사들에게 영향을 주고야말것이며 례외없이 모든 전선에서 평화열을 일으키리라는것을 알고있었기 때문이다.

레닌의 이 혁명적예견도 역시 그후에 아주 정확하게 실현되였다는것은 다 아는바이다.

천재적통찰력, 다가오는 사변의 내재적의미를 급속히 파악하며 판단하는 능력—이것이 레닌으로 하여금 혁명운동의 전환점에서 능히 옳바른 전략과 명확한 행동방침을 세울수 있게 한 레닌의 특성이였다.

1924년 2월 12일부 《쁘라우다》 제34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6권, 47～57페지

레닌주의기본에 대하여

(스웨르들로브대학73에서 한 강연)

레닌을 기념하여 입당시킨
당원들에게 드린다

이·쓰딸린

레닌주의기본—이것은 큰 제목이다.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자면 책을 웅근 한권은 써야 할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책을 여러 권 써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강연이 레닌주의를 충분히 설명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의 강연은 기껏해서 레닌주의의 기본을 간명하게 추리는것으로 될뿐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것이 레닌주의를 잘 연구하는데 필요한 몇가지 기본출발점을 주는데 좋을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레닌주의의 기본을 설명한다는것—이것은 아직 레닌의 세계관의 기본을 설명하는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레닌의 세계관과 레닌주의의 기본은 그 범위가 다르다. 레닌은 맑스주의자이므로 그 세계관의 기본 역시 맑스주의인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레닌주의를 설명하자면 반드시 맑스주의의 기본부터 설명해야 한다는것은 결코 아니다. 레닌주의를 설명한다는것은 레닌이 자기 로작들에서 맑스주의의 총보물고에 기여한것으로서 응당 그의 이름과 관련되여있는 그 특수하고 새로운것을 설명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내가 강연에서 말하

려는 레닌주의의 기본이란 결국 이러한 의미의것이다.

그러면 레닌주의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레닌주의란 맑스주의를 로씨야의 특수한 제 조건에 적용한것이라고 한다. 이 정의에는 한가닥의 진리가 있지만 그것이 진리의 전부는 결코 아니다. 레닌은 사실상 맑스주의를 로씨야의 현실에 적용하였으며 아주 솜씨있게 적용하였다. 그러나 만일 레닌주의가 한갓 맑스주의를 로씨야의 특수한 실정에 적용한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순전히 일국적인, 오로지 일국적인 현상일것이며 순전히 로씨야적인, 오로지 로씨야적인 현상일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레닌주의가 한갓 로씨야적현상만인것이 아니라 국제적발전전반에 뿌리를 박고 있는 국제적현상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나는 이 정의가 일면성을 띠고있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레닌주의란 후기에 와서 보게 된, 소위 온화하고 비혁명적인 맑스주의와는 다른 19세기 40년대의 맑스주의의 혁명적요소들을 부활시킨것이라고 한다. 만일 맑스의 학설을 이와 같이 혁명적인것과 온화한것 두 부분으로 나누는 어리석고 비속한 분류방법을 젖혀놓고본다면 전혀 충분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한 이 정의에도 한가닥의 진리가 있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이 한가닥의 진리라는 점은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자들이 파묻어버린 맑스주의의 혁명적내용을 레닌이 실지로 부활시켰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가닥의 진리에 불과하다. 레닌주의의 진짜진리는 그것이 맑스주의를 부활시켰을뿐만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의 재 조건과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의 재 조건하에서 맑스주의를 일층더 발전시켰다는데 있는것이다.

그러면 레닌주의란 결국 무엇인가?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무산계급혁명시대의 맑스주의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레닌주의는 일반적으로는 무산계급혁명의 리론과 전술이며 특수적으로는 무산계급독재의 리론과 전술이다. 맑스와 엥겔스가 활약하던 당시는 발전된 제국주의가 아직 없었던 혁명(우리는 무산계급혁명을 두고 말한다.)전시기, 즉 무산계급에게 혁명을 준비시키던 시기로서 무산계급혁명이 아직 직접 실천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지는 않았던 그런 시기였다. 그런데 맑스와 엥겔스의 학생인 레닌이 활약하던 당시는 발달된 제국주의시기, 즉 무산계급혁명이 전개되는 시기로서 무산계급혁명이 이미 한 나라에서 승리하여 자산계급민주주의를 타도하고 무산계급민주주의의 시대, 쏘베트의 시대를 열어놓은 시기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레닌주의란 맑스주의를 가일층 발전시킨것이다.

흔히 지적하기를 레닌주의는 류달리 전투적이고 류달리 혁명적이라고들 한다. 이것은 지극히 옳은 말이다. 그런데 레닌주의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된데는 두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로 레닌주의는 무산계급혁명속에서 자라나온만큼 그 흔적을 지니지 않을수 없으며, 둘째로 레닌주의는 자본주의와 성과적으로 투쟁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였고 또 그러한것으로 되여있는,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와의 격투속에서 자라나고 견고해진것이다. 맑스와 엥겔스를 한편으로 하고 레닌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이 어간에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가 지배하는 오랜 시기가 놓여있었는데 이것과 무자비하게 투쟁하는것이 레닌주의의 가장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1
레닌주의의 력사적근원

레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도에 달하여 무산계급혁명을 직접 실천하는것이 문제로 되였으며 또한 로동계급에게 혁명을 준비시키던 옛시기가 절정에 달하여 자본주의를 직접 습격하는 새시기에 들어선 제국주의의 조건하에서 자라나 성숙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를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라고 불렀다. 왜 그런가? 그것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절정에까지 즉 그다음에는 혁명이 시작되는 고러한 극단에까지 이르게 하기때문이다. 이 모순들중 다음의 세가지 모순을 가장 중요한것으로 간주해야 할것이다.

첫째 모순은 로동과 자본간의 모순이다. 제국주의란 공업국들에서의 독점적트레스트와 신디케이트, 은행과 금융과두정치의 전능이다. 이 전능과의 전투에서는 로동계급의 보통방법들—로동조합과 협동조합, 의회정당과 의회투쟁—이 전혀 불충분한것으로 되였다. 자본앞에 무릎을 꿇고 예나 다름없이 날로 하강하는 비인간적생활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 무기를 잡으라.—이와 같이 제국주의는 수백만 무산계급대중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제국주의는 로동계급을 혁명에로 나아가게 한다.

둘째 모순은 원료산지와 타국령토를 략탈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각종 재벌들간이나 제국주의렬강간의 모순이다. 제국주의란 원료산지로 자본을 수출하는것이며 그 원료산지를 독점하려는 발광적인 투쟁이며 이미 분할된 세계를 재분할하려는 투쟁이며 이미 략탈한것을 틀어쥐고 놓지 않으려는 기성재벌

과 렬강을 반대하여 신흥 재벌과 렬강이 《해비치는 곳》74 을 찾아서 전개하는 특히 첨예한 투쟁이다. 각종 자본가집단들의 이와 같은 발광적인 투쟁의 특징은 제국주의전쟁, 즉 타국령토를 략탈하려는 전쟁이 불가피한 요소로 되여있다는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의 특징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을 서로 약화시키고 자본주의의 진지전반을 약화시키며 무산계급혁명의 기회를 접근시키고 그 혁명을 필연적인 실천적문제로 만드는것이다.

셋째 모순은 극소수의 지배적《문명》민족들과 세계의 수억만 식민지 및 예속국 인민들간의 모순이다. 제국주의란 광대한 식민지 및 예속국들의 수억만 주민에 대한 가장 파렴치한 착취이며 가장 비인간적인 억압이다. 초과리윤을 짜내는것—이것이 곧 그러한 착취와 그러한 억압의 목적이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그 나라들을 착취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다 철도, 공장, 공상업 중심지들을 건설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무산자계급의 출현, 토착지식인의 산생, 민족적의식의 각성, 해방운동의 강화—이것은 그러한 《정책》의 필연적산물이다. 례외없이 모든 식민지와 예속국들에서 혁명운동이 강화되고있는 사실이 이것을 잘 말하여준다. 이와 같은 사정은 식민지 및 예속국들을 제국주의의 후비군으로부터 무산계급혁명의 후비군으로 전화시키면서 자본주의의 진지를 뿌리채 헐어버리기때문에 무산계급에게는 중요한것이다.

이와 같은것들이 대체로 종래의 《번영하여가는》 자본주의를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로 전화시킨 제국주의의 주되는 모순들이다.

10년전에 있은 제국주의전쟁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모순을 한데 묶어 저울판 한쪽에 올려놓음으로써 무산계급의 혁명적전투를 촉진시키며 용이하게 해준데 있다.

달리말하면 제국주의는 비단 혁명을 필연적인 실천적문제

로 만들었을뿐만아니라 자본주의의 아성을 직접 습격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놓았다.

이러한것이 레닌주의를 낳은 국제정세이다.

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것이다. 그건 그렇지만 전형적인 제국주의국가가 아니였고 또 될수도 없었던 로씨야가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엇보다도먼저 로씨야에서, 로씨야를 위하여 일한 레닌이 여기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슨 까닭에 다름아닌 로씨야가 레닌주의의 발원지로 되였으며 무산계급혁명의 리론과 전술의 고향으로 되였는가?

그것은 로씨야가 제국주의의 이 모든 모순의 집결점이였기때문이다.

그것은 로씨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혁명을 더 배태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오직 로씨야만이 혁명적방법으로 이 모순들을 해결할수 있였기때문이다.

첫째로, 짜리로씨야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온갖 종류의 억압 즉 자본주의적, 식민지적 및 군사적 억압의 발원지였다. 로씨야에서는 자본의 전능이 짜리제도의 폭정과 융합되였고 로씨야민족주의의 침략성이 비로씨야인민에 대한 짜리제도의 잔인무도한 행위와 융합되였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여러 지역—토이기, 페르샤, 중국—에 대한 착취는 이 지역들에 대한 짜리로씨야의 강점과 또 이 강점을 위한 전쟁과 융합되였던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레닌이 짜리제도는 《군사-봉건적제국주의》라고 한것은 옳은 말이였다. 짜리제도는 제국주의의 가장 부정적인 면들을 더 집중시키고 더 악랄하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짜리로씨야는 외국자본이 연료 및 금속 공업과 같은 로씨야국민경제의 결정적부문들을 틀어쥐고 자유로이 침투하도록 하였다는 의미에서뿐만아니라 서방제국주의자들을

위하여 수백만 병사들을 제공하였다는 의미에서도 서방제국주의의 가장 큰 후비군이였다. 영국, 프랑스의 자본가들에게 엄청난 리윤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제국주의전선에서 1,400만의 로씨야군대가 피흘린 사실을 상기하여보라.

그다음으로, 짜리로씨야는 비단 동구라파에서의 제국주의의 개였을뿐만아니라 빠리, 런던, 베를린, 브류쎌에서 짜리로씨야에 제공된 차관에 대한 수억루블의 리자를 주민들에게서 짜내는 서방제국주의의 대리인이였다.

마지막으로, 짜리로씨야는 토이기, 페르쌰, 중국 등등을 분할하는데 있어서 서방제국주의의 가장 충실한 동맹자였다. 짜리정부가 련합국제국주의자들과 동맹하여 제국주의전쟁을 하였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로씨야가 이 전쟁의 중대한 요소였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바로 이러한것으로 해서 짜리로씨야와 서방제국주의의 리해관계는 서로 얽혀 마침내 하나의 제국주의적리해관계로 융합되였던것이다.

과연 지난날의 짜리적-자산계급적로씨야와 같은, 동방의 강대한 기둥이며 병력과 재부가 풍부한 저장고를 잃어버리게 되여도 서방제국주의는 있는 힘을 다하여 로씨야에서의 혁명과 결사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그 짜리제도를 고수보전하려고 하지 않을수 있었겠는가? 물론 그럴수 없었다!

그런데 이로부터는 짜리제도를 치려는자는 불가피하게 제국주의를 치게 되고 짜리제도를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킨자는 반드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서도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 하면 짜리제도를 전복하려고 한자가 참으로 짜리제도를 격파할뿐만아니라 그것을 여지없이 소탕하려고 생각하였다면 제국주의도 역시 전복하지 않으면 안되였기때문이다. 이리하여 짜리제도를 반대하는 혁명은 제국주의를 반대하

는 혁명, 무산계급혁명에로 접근하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 무산계급혁명으로 전환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 로씨야에서 있은 그 위대한 인민혁명은 로씨야의 혁명적농민과 같은 견실한 동맹자를 령솔한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무산계급의 지도하에 진행되였던것이다. 이러한 혁명이 중도에서 머물수 없었다는것, 이러한 혁명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폭풍의 기치를 높이 들고 앞으로 더욱 전진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을 구태여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로 그렇기때문에 로씨야는 제국주의의 모순들의 집결점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는데 그것은 비단 이 모순들이 다름아닌 로씨야에서는 특히 추악하고 특히 참을수 없는것이여서 그것들이 발로되기가 지극히 용이하였다는 의미에서뿐만도 아니며 또 로씨야가 서방금융자본을 동방의 식민지와 련결시켜주는, 서방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였다는 리유에서뿐만도 아니다. 제국주의의 모순을 혁명적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실재적력량이 오로지 로씨야에만 존재하고있었다는 리유에서도 로씨야는 제국주의의 제 모순의 집결점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바로 이때문에 로씨야혁명은 무산계급혁명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으며 그 발전의 첫날부터 국제적성격을 띠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리하여 그것은 세계제국주의의 지반을 뒤흔들어놓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사업에서 로씨야혁명의 협소한 일국적범위내에 머물수 있었겠는가? 물론 그럴수 없었다! 그와 반대로 모든 정세는 국내정세(심각한 혁명적위기)나 국제정세(전쟁)나 할것없이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사업에서 일국적범위를 벗어나 투쟁을 국제적

무대에 옮기며 제국주의의 고질을 해부해서 자본주의의 파멸의 불가피성을 증명하며 사회배외주의와 사회평화주의를 분쇄하며 끝으로 자기 나라에서 자본주의를 전복한데 기초해서 무산계급을 위한 투쟁의 새 무기, 즉 무산계급혁명의 리론과 전술을 마련함으로써 전 세계 무산자가 자본주의를 쉽사리 전복하게끔 추동하였던것이다.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은 달리는 행동할 수 없었다. 왜냐 하면 오직 이와 같은 방도로써만 로씨야에서의 자산계급제도의 복구를 막을수 있게 하는, 국제정세에서의 일정한 변화를 기대할수 있었기때문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로씨야는 레닌주의의 발원지로 되였으며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수령인 레닌이 레닌주의의 창시자로 된것이다.

로씨야와 레닌의 《운명》은 19세기 40년대에 독일과 맑스-엥겔스의 《운명》과 거의 같다. 그 당시 독일은 20세기초의 로씨야와 마찬가지로 자산계급혁명을 배태하고있었다. 맑스는 당시 《공산당선언》에 다음과 같이 썼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주요한 주의견을 독일에 돌린다. 그것은 독일이 자산계급혁명의 전야에 처하여있기때문이며 또 독일은 17세기의 영국이나 18세기의 프랑스보다 구라파문명일반이 한층더 발전한 조건밑에서 훨씬 더 발전한 무산계급을 가지고 이 변혁을 실현할것이며 따라서 독일의 자산계급혁명은 오직 무산계급혁명의 직접적인 서막으로 될수밖에 없기때문이다.》①

달리말하면 혁명운동의 중심이 독일로 옮겨간것이다.

우의 인용문에서 맑스가 지적한 바로 그러한 정세가 다름아닌 독일을 과학적사회주의의 고향으로 만들었으며 독일무산계급의 수령인 맑스와 엥겔스를 과학적사회주의의 창시자로

---

①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368페지를 보라.—편집자

되게 한 거의 의심할바없는 원인이 되였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20세기초의 로씨야도 그렇다고, 그것도 더 강조해서 말하여야 할것이다. 로씨야는 그 당시 자산계급혁명의 전야에 있었고 19세기 40년대의 독일보다(영국과 프랑스는 말할것도 없고) 무산계급이 더욱 발전하고 구라파가 더욱 진보한 조건하에서 그 혁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였었는데 이 모든 사정은 그 혁명이 무산계급혁명의 효모로 또 그 서막으로 되지 않으면 안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였다.

레닌은 로씨야혁명이 겨우 태동하고있던 때인 1902년에 벌써 자기의 소책자 《무엇을 할것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는것은 우연한 사실로 생각할수 없다.

《력사는 지금 우리〔즉 로씨야맑스주의자.—이.쓰딸린〕앞에 그 어떠한 다른 나라의 무산계급이 직면한 온갖 과업보다도 더 혁명적인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 과업의 실현, 즉 구라파의 반동뿐만아니라 또한(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말할수 있다.) 아세아의 반동의 가장 강력한 아성을 파괴하는 일은 로씨야의 무산계급으로 하여금 국제적혁명적무산계급의 선봉대로 되게 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4권, 382페지를 보라.)①

달리말하면 혁명운동의 중심은 로씨야로 옮겨져야 하였던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로씨야혁명의 행정은 레닌의 이 예언을 확증하여주고도 남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혁명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무

---

① 《레닌선집》, 제1권, 319~320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산계급을 가진 나라가 무산계급혁명의 리론과 전술의 고향으로 된것이 기이한 일이겠는가?

로씨야무산계급의 수령인 레닌이 동시에 그 리론과 전술의 창시자로 되였고 국제무산계급의 수령으로 된것이 기이한 일이겠는가?

2
방 법

우에서 나는 맑스와 엥겔스를 한편으로 하고 레닌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이 어간에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가 지배하던 오랜 시기가 가로놓여있었다고 말하였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마디 부언해야 할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의 지배가 형식상의 지배인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라는 그것이다. 형식상 제2국제당을 지도한것은 소위 《정통적인》 맑스주의자이며 《정통파》인 카우쯔키 등이였다. 그러나 사실상 제2국제당의 기본사업은 기회주의적로선을 집행하는것이였다. 기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아부하는 소자산계급본성으로 말미암아 자산계급에게 아부하였는데 《정통파》는 또 《정통파》대로 기회주의자들과의 《통일유지》요, 《당내평화》요 하면서 기회주의자들에게 아부하였다. 그 결과 기회주의가 지배하게 되였다. 그것은 자산계급의 정책과 《정통파》의 정책이 서로 완전히 결합되였기때문이다.

그 시기는 자본주의가 비교적 평화롭게 발전하던 시기, 말하자면 전쟁전시기로서 제국주의의 파국적 제 모순이 아직 날날이 드러나지 않았고 로동자들의 경제적파업과 로동조합들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발전하였고 선거투쟁과 의회의원단

이 《현훈증이 날만치》 성공을 거두었고 합법적투쟁형태가 칠찬을 받은 까닭에 합법적인 수단으로 자본주의를 《소멸하려》고 생각하던 시기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2국제당의 여러 당들은 너무나 살이 쪄서 혁명에 대하여, 무산계급독재에 대하여, 대중의 혁명적교양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그들은 정연한 혁명적리론을 내세울 대신에 대중의 산 혁명적투쟁과 유리되고 낡아빠진 교조로 화한 모순투성이의 명제들과 단편적인 리론을 내세웠다. 물론 겉치레로 맑스의 리론을 상기하군 하였지만 목적은 맑스의 리론에서 혁명적인 산 정신을 거세하자는데 있었다.

그들은 혁명적인 정책을 실시할 대신에 맥빠진 속물적우유부단, 좀스러운 술책, 의회적외교, 의회적책동을 실시하였다. 물론 겉치레로 《혁명적인》 결의와 구호를 내놓기는 하였지만 목적은 그 결의와 구호를 파묻어버리자는데 있었다.

그들은 자체의 파오를 교훈으로 삼아 옳은 혁명적전술로 당을 교양하고 훈련할 대신에 절실한 문제를 조심스럽게 피하고 감추며 말살해버렸다. 물론 겉치레로 긴절하고 어려운 문제를 론하기를 마다하지는 않았으나 목적은 말하자면 《고무줄 같은》 결의문으로 문제를 처리해버리자는데 있었다.

이러한것이 바로 제2국제당의 정체였고 사업방법이였으며 무기고였다.

이런 가운데서 제국주의전쟁과 무산계급의 혁명적전투의 새시기가 닥쳐오고있었다. 낡은 투쟁방법은 금융자본의 전능 앞에서는 확실히 불충분하였고 무력하였다.

제2국제당의 모든 사업과 모든 사업방법을 재검토하고 속물적인 견해, 편협성, 권모술수, 변질행위, 사회배외주의, 사회평화주의를 몰아내는것이 필요하였다. 제2국제당의 무기고

를 모두 점검하고 녹쓸고 낡은것은 모조리 내버리고 새로운 무기를 벼려야 하였다. 이러한 준비사업이 없이 자본주의와의 전쟁에 나선다는것은 그야말로 무모한것이였다. 이러한 준비사업이 없이는 새로운 혁명전투에 직면했을 때 무산계급이 무장부족을 느끼거나 지어는 전혀 비무장상태에 빠질수도 있었다.

제2국제당의 아우기아스의 외양간75을 총검열하고 대청소하는 영광은 레닌주의가 지니게 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레닌주의의 방법이 생겨났고 련마되였다.

이 방법이 요구하는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대중의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산 실천의 불길속에서 제2국제당의 교조적인 리론을 검토하는것, 다지말하면 리론과 실천의 통일이 파괴된것을 다시 이어주어 이것들이 서로 유리되지 않게 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여야만 혁명적리론으로 무장된 진짜무산계급적인 당을 창건할수 있기때문이다.

둘째로, 제2국제당의 여러 당들의 정책을 그 당들의 구호나 결의(그들의 결의나 구호는 믿을수 없다.)를 볼것이 아니라 그 당들의 사업, 그들의 행동을 보고 검토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여야만 무산계급대중의 신임을 얻을수 있으며 또 신임을 받을수 있기때문이다.

셋째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교양, 준비하는 방향에서 모든 당사업을 혁명적인 새 기풍에 맞게 재건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여야만 대중을 무산계급혁명에로 준비시킬수 있기때문이다.)

넷째로, 무산계급당들이 자기비판을 하는것, 즉 그 당들을 그자체의 과오를 교훈으로 삼아 훈련, 교양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여야만 당의 참된 간부들과 참된 지도자들을

육성할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것이 레닌주의의 방법의 기본이며 본질이다.

이 방법이 실지 어떻게 적용되겠는가?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이 늘 매여달리는 일련의 교조적리론이 있다. 그중에서 몇가지를 들어보자.

첫째 교조. 무산계급이 정권을 잡는 조건들에 대한것이다. 기회주의자들은, 무산계급은 만일 그가 자기 나라에서 다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권을 잡을수 없으며 또 잡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을 론증할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 하면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이 황당무계한 명제를 립증해낼 도리는 없기때문이다. 레닌은 제2국제당의 제씨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가령 그렇다고 하자, 그렇지만 만일 주민중의 소수를 이루는 무산계급이 대다수의 근로대중을 자기 주위에 결속시킬수 있게 하는 력사적정세(전쟁, 농업공황 등등)가 조성되였을 경우에 왜 그들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되는가? 왜 무산계급은 자본의 전선을 돌파하고 전반적종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유리한 국제, 국내 정세를 리용해서는 안되는가? 일찌기 맑스는 19세기 50년대에, 만일 이를테면 《농민전쟁의 재판》① 으로 무산계급혁명을 지지할수 있었더라면 독일의 무산계급혁명은 《훌륭하게》 되였을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당시 독일의 무산자수가 레컨대 1917년 로씨야의 무산자수보다 비교적 적었던것은 누구나 다 아는바가 아닌가? 로씨야무산계급혁명의 실천은 제2국제당의 영웅들이 즐기는 이런 교조가 무산계급에게는 하등의 실제적의의도 없다는것을 증시하지 않았던가? 대중의 혁명투쟁의 실천이 이 낡아빠진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34페지를 보라.—편집자

교조를 쳐부셔버릴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둘째 교조. 나라를 관리해갈만한 준비된 문화간부와 행정간부를 충분히 가지고있지 않고서는 무산계급은 정권을 유지할수 없으니 우선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이러한 간부들을 육성한 다음에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것이다. 레닌은 이렇게 대답한다. 가령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선 정권을 장악하고 무산계급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다음에 근로대중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로동자출신의 수다한 지도간부 및 행정간부를 육성하는 일을 급속히 추진시켜서는 왜 안되는가? 파연 로씨야의 실천은 로동자출신의 지도간부들이 자본의 정권하에서보다 무산계급의 정권하에서 백배나 더 빨리 또 견실하게 자라난다는것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대중의 혁명투쟁의 실천은 기회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교조적리론도 사정없이 분쇄해버리고있는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셋째 교조. 정치적총동맹파업의 방법은 무산계급이 접수할수 없는 방법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리론적으로는 무근거하고(엥겔스의 비판을 보라.) 실천적으로는 위험하며(국가경제생활의 정상적인 진행을 혼란시킬는지도 모르며 로동조합의 금고를 말려버릴는지도 모른다.) 또 무산계급의 주되는 계급투쟁형태인 의회투쟁형태를 대신할수는 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 레닌주의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좋다, 그런데 첫째로, 엥겔스는 온갖 총동맹파업을 모두 비판한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종류의 총동맹파업 즉 무정부주의자들이 무산계급의 정치투쟁 대신에 내세운 그러한 경제적총파업①만을 비판하였다. 이것과 정치적총동맹파업방법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둘째로, 의회

① 엥겔스의 론문 《활동중의 바꾸닌주의자들》(《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561~579페지를 보라.)을 가리킨다.—편집자

투쟁형태가 무산계급의 주되는 투쟁형태라는것을 누가 어디서 증명하였던가? 혁명운동의 력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의회투쟁은 무산계급의 의회밖에서의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학교이거나 보조수단에 불과하며 또 자본주의하에서 로동운동의 기본문제는 폭력으로써, 무산계급대중의 직접적인 투쟁으로써, 그들의 총동맹파업으로써, 그들의 폭동으로써 해결되는것이 아닌가? 셋째로, 정치적총동맹파업의 방법이 의회투쟁을 대신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것인가? 어디서 언제 정치적총동맹파업지지자들이 의회밖에서의 투쟁형태로써 의회투쟁형태를 대신하려고 시도하였던가? 넷째로, 파연 로씨야의 혁명은 정치적총동맹파업이 무산계급혁명의 가장 위대한 학교이며 자본주의의 아성을 습격하는 전야에 무산계급을 가장 광범하게 동원하고 조직할수 있게 하는 불가결의 수단이라는것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이것이 경제생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데 혼란을 일으킨다느니 로동조합의 금고를 어떻게 만든다느니 하는 속물적한탄과 무슨 인연이 있는가? 혁명투쟁의 실천은 기회주의자들의 이 교조도 역시 분쇄해버리고있는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기타도 역시 이러한것들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레닌은 《혁명리론은 교조가 아니며》, 그것은 《참으로 대중적이고 혁명적인 운동의 실천과의 긴밀한 련결속에서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소아병》①)고 말하였다. 왜냐 하면 리론은 실천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리론은 실천이 제기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어야 할것이기》때문이며(《인

---

① 레닌의 저서 《공산주의운동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82페지를 보라.)—편집자

민의 벗》①) 리론은 반드시 실천의 결과를 통하여 검열하여야 할것이기때문이다.

제2국제당의 여러 당들의 정치책구호와 정치적결의에 대해서 말한다면 《전쟁에는 전쟁으로》라는 구호의 경위 하나만 돌이켜보더라도 화려한 혁명적 구호나 결의로 자기의 반혁명적행동을 엄폐하고있는 이 당들의 정치적실천의 모든 허위성과 모든 부패성을 충분히 알수 있다. 누구나 다 기억하고있는바와 같이 제2국제당 바젤대회76에서는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감히 전쟁을 시작한다면 무시무시한 폭동으로 대답하겠노라고 제국주의자들을 위협하면서 《전쟁에는 전쟁으로》라는 공갈적인 구호를 내걸고 떠들썩했던것이다. 그러나 그후 얼마 안 지나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르러서는 이 바젤결의는 파묻히고 로동자들은 자본주의조국의 영예를 위하여 서로 살륙하라는 새 구호를 받게 된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혁명적 구호나 결의에 행동이 안받침되지 못할 때 그것이 한푼의 가치도 없다는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기회주의적정객들은 너절하고 레닌주의방법은 위대하다는것은 제국주의전쟁을 국내전쟁으로 전화시키라는 레닌의 정책과 전쟁당시의 제2국제당의 반역적정책만 비교하여보아도 능히 알수 있다.

나는 여기서 레닌의 저서 《무산계급혁명과 변절자 카우쯔키》에서 한구절을 인용하지 않을수 없다. 거기서 레닌은, 그 당이 어떤 당인가 하는것을 행동을 보지 않고 종이장에 씌여있는 구호나 문서를 보고 판단하려는 제2국제당의 수령 카. 카우쯔키의 기회주의적시도를 무자비하게 규탄하였다.

---

① 레닌의 저서 《〈인민의 벗〉이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떻게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공격하는가?》. (《레닌선집》, 제1권, 102~103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카우쯔키는 마치 구호만 내놓으면 사태가 변하는듯이 생각하면서 …전형적으로 소시민적이며 속물적인 정체을 실시하고있다. 자산계급민주주의의 전 력사가 이 환상을 깨뜨려버렸다. 즉 인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자산계급민주주의자들은 어떠한 〈구호〉든지 항상 내놓았으며 또한 항상 내놓고있다. 문제는 그들의 성의를 검토하며 말과 행동을 대비하여 보며 관념론적이며 또 기만적인 공담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계급적현실을 구명하는데 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377페지를 보라.)①

나는 제2국제당의 여러 당들이 자기비판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잘못을 숨기는 태도, 절박한 문제를 덮어버리고는 만사가 잘되여간다고 하는 속임수—이것은 생기있는 사상을 무디게 하며 자기 잘못을 교훈으로 삼아 당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저해한다.—로 자기의 부족점을 가리우는 태도, 레닌이 조소하고 치욕스러운 락인을 찍은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서는 말하지도 않겠다. 레닌은 자기의 소책자 《소아병》에서 무산계급당들의 자기비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자기의 오유에 대한 당의 태도여하는 그 당의 진실성여하와 당이 자기의 계급과 근로대중에 대하여 그가 지닌 의무를 진정으로 리행하는가 안하는가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척도의 하나이다. 오유를 공공연히 시인하며 그 오유의 원인들을 밝혀내며 오유를 낳게 한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며 오유를 시정할 방법을 상세히 론의하는것—이것이야말로 진실성있는 당의 표징이며 이것이야말로 당이 자기의 임무를 리행하는것으로 되는것이며 이것이야말로 계급을, 나아가서는 대중을 교양하며 훈련하는것으로 되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200페지를 보라.)②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667～668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13페지를 보라.—편집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드러내고 자기비판을 하면 무산계급당의 적들이 그것을 리용할수 있기때문에 당에는 위험한것이라고 한다. 레닌은 이런 반대의견은 진지하지 못한것이며 또 전혀 옳지 못한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레닌은 우리 당이 아직 약하고 청소한 때인 1904년에 이미 자기의 소책자 《1보전진 2보후퇴》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그들〔즉 맑스주의자들의 적들. —이. 쓰딸린〕은 우리의 론쟁을 보고 심술궂게 좋아하면서 흐뭇거린다. 물론 그들은 우리 당의 결함과 단점을 취급한 나의 소책자에서 개별적인 개소를 뽑아내여 자기들의 목적에 리용하려고 노력할것이다. 그러나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교접음에 당황하지 않을수 있게끔 그리고 그러한것을 무시하면서 자기비판사업과 자체의 결함을 무자비하게 폭로하는 사업을 계속 전개할수 있게끔 이미 충분히 전투에서 단련되여있다. 이 결함들은 로동운동의 장성에 의하여 반드시 또 불가피적으로 극복되고야말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6권, 161페지를 보라.)①

대체로 이상과 같은것이 레닌주의의 방법의 특징들이다.

레닌의 방법에 있는 그러한것들은 기본상 맑스의 학설에도 이미 있는것이며 맑스의 말대로 《그 본질상 비판적이며 혁명적인》②것이다. 바로 이 비판적이며 혁명적인 정신이 레닌의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있다. 그러나 레닌의 방법이 맑스의 방법의 단순한 부활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옳지 못할것이다. 사실 레닌의 방법은 맑스의 비판적이며 혁명적인 방법, 그의 유물변증법을 부활시켰을뿐만아니라 그것을 구체화하고 더욱 발전시킨것이다.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7권, 192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218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3
리 론

나는 이 제목에서 세가지 문제를 들려고 한다.

(ㄱ) 무산계급운동에서의 리론의 의의.

(ㄴ) 자연발생성《리론》의 비판.

(ㄷ) 무산계급혁명의 리론.

(1) 리론의 의의. 어떤 사람들은 레닌주의에서 주요한것은 맑스주의의 명제를 실현하는것이며 그 명제를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레닌주의는 리론보다 실천을 첫자리에 놓으며 그리고 리론으로 말하면 레닌주의는 이 점에 매우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 레닌이 리론, 특히 철학에 《무관심》하다고 쁠레하노브가 여러 번 조롱한 사실은 다 아는바이다. 현재의 많은 레닌주의적실천가들이 특히 정세로 말미암아 무한히 방대한 실천적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리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것도 역시 다 아는바이다. 나는 레닌과 레닌주의에 대한 이런 괴상한 의견은 전혀 옳지 않고 또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으며 실천가들이 리론을 무시하려는 경향은 레닌주의의 정신전반에 모순되며 사업에 대단히 위험하다는것을 말하여야 하겠다.

리론이란 여러 나라의 로동운동의 경험을 일반화한것이다. 물론 혁명적실천을 떠난 리론은 내용없는 리론이며 혁명적리론의 지도를 떠난 실천은 맹목적인 실천일것이다. 그런데 만일 리론이 혁명적실천과의 불가분리적인 련결가운데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로동운동의 위대한 힘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왜냐 하면 리론이, 오직 리론만이 운동이 신심을 가지고 방향을 결정할수 있게 하며 주위의 사건들의 내적련관을 알수 있

게 하기때문이며, 리론이, 오직 리론만이 실천으로 하여금 계급들이 현재 어떻게, 어디로 움직이는가 하는것뿐만아니라 그 계급들이 가까운 장래에 어떻게, 어디로 움직이게 되겠는가 하는것도 알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다름아닌 바로 레닌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명제를 말하였으며 수십번이나 반복하였다.

《혁명적리론이 없이는 혁명적운동도 있을수 없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4권, 380페지를 보라.)②

우리 당이 수행하게 된, 국제무산계급의 선진전사의 역할에 비추어 또 우리 당을 둘러싼 국내외정세의 복잡성에 비추어 레닌은 특히 우리 당과 같은 그런 당에서 리론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었다. 레닌은 벌써 1902년에 우리 당의 이 특수한 역할을 예견하고 다음과 같은것을 주의시켜야 하겠다고 인정하였다.

《선진적리론에 의하여 지도되는 당만이 선진전사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4권, 380페지를 보라.)③

우리 당의 역할에 대한 레닌의 예견이 이미 실현된 지금에 와서 레닌의 이 명제가 각별한 힘과 각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증명할 필요는 아마 없을것이다.

레닌이 리론에 부여한 큰 의의를 가장 명백히 표현한것은 아마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다름아닌 바로 레닌이 엥겔스로부터 그에 이르는 시기에 과학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것을 유물론적철학에 기초하여 일반화하며 또 맑스주의자들내의 반유물론적조류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가장 중대한 과업을 실행

---

① 고시코체는 나의것.—이. 쓰딸린

② 《레닌선집》, 제1권, 315페지를 보라.—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316페지—편집자

하였다는 사실일것이다. 엥겔스는 《자연과학분야에서 획기적인 발견이 있을 때마다 유물론은 그 형태를 불가피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였다.》①고 말하였다. 자기 시대의 이 과업을 다름아닌 바로 레닌이 그의 특출한 저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②에서 수행하였다는것은 다 아는바다. 그리고 철학에 《무관심》하다고 레닌을 조롱하기를 좋아한 쁠레하노브는 그러한 과업의 수행에 진지하게 착수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것도 다 아는바이다.

(2) 자연발생성《리론》의 비판 또는 운동에서의 전위대의 역할에 대하여. 자연발생성《리론》은 기회주의의 리론이며 로동운동의 자연발생성앞에 굴복하는 리론이며 로동계급의 전위대, 즉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적역할을 사실상 부정하는 리론이다.

자연발생성앞에 굴복하는 리론은 로동운동의 혁명적성격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는것이며 운동이 자본주의의 기초와 투쟁하는 길로 나아가는것을 반대하는것이며 운동이 단지 자본주의가 《실행할수 있고》《용납할수 있는》 요구들을 제기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도록 하려는것이며 전적으로 《저애력이 가장 작은 로선》을 찬성하는것이다. 자연발생성리론은 로동조합주의사상이다.

자연발생성앞에 굴복하는 리론은 자연발생적운동에 의식적, 계획적 성격을 부여하는것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는것이며 당이 로동계급의 선두에 서서 나아가며 당이 대중을 의식적인 수준에 올려세우며 당이 운동을 끌고나아가는것을 반대하며 운동의 의식적요소들이 운동의 자연발생적인 전진을 방해하지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24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12~368페지를 보라. —편집자

말것을 주장하며 당이 자연발생적운동에 순응하여 뒤꼬리만 따라다닐것을 주장한다. 자연발생성리론은 운동에서 의식적요소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리론이며 《추미주의》의 사상이며 온갖 기회주의의 론리적기초이다.

제1차로씨야혁명전에 벌써 무대에 나타난 이 리론은, 사실상 이 리론의 추종자들인 소위 《경제주의자》들이 로씨야에서의 독자적로동자당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짜리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적투쟁을 반대하며 운동에서 로동조합주의적정책을 설교하며 일반적으로 로동운동을 자유주의적 자산계급의 령도하에 내맡기게 하였다.

구《이스크라》의 투쟁과 그리고 레닌의 소책자 《무엇을 할것인가?》에 서술된, 《추미주의》리론에 대한 그 훌륭한 비판은 소위 《경제주의》를 격파하였을뿐만아니라 로씨야로동계급의 참으로 혁명적인 운동의 리론적기초를 쌓아놓았다.

당시에 이 투쟁이 없었더라면 로씨야에서의 독자적로동자당의 창설이나 혁명에서의 그 당의 지도적역할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것이다.

그러나 자연발생성앞에 굴복하는 리론은 로씨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 형태는 좀 달라도 례외없이 제2국제당의 여러 당들에 가장 널리 보급되여있는것이다. 나는 제2국제당의 지도자들이 비속화한 소위 《생산력》리론을 두고 말하는데 그것은 모든것을 정당화하며 모든 사람을 화해시키며 사람들이 벌써 어떤 사실들에 십중이 난후에야 그것을 확인하고 설명하는데 그것도 확인만 하면 안심하고마는것이다. 맑스는 유물론적리론은 세계를 해석하는데 그칠수 없는것이며 그것은 또 세계를 변혁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① 그러나 카

---

① 맑스의 《포이에르바흐에 관한 제강》.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21~24페지를 보라.)—편집자

우쯔키일파는 이에는 아랑곳없고 맑스의 공식의 첫부분에 머무르는것을 낫게 여긴다.

이 《리론》을 적용한 실례가 많은데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즉 어떤 사람들은, 제국주의전쟁이 일어나기전에는 제2국제당의 여러 당들이 만일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쟁에는 전쟁으로》를 선언하겠다고 위협하였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그 당들이 《전쟁에는 전쟁으로》라는 구호는 걷어치우고 《제국주의적조국을 위하여 싸우자》라는 정반대의 구호를 실천하였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구호를 바꾼 결과 수백만의 로동자가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죄질 사람들이 있다거나 어느 누가 변절하였다거나 로동계급을 배반하였다고 생각하는것은 잘못일것이다. 결코 그렇지는 않았다! 모든것은 다 당연히 일어날것이 일어난것이다. 왜냐 하면 첫째로는 국제당이 원래 전쟁의 도구인것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이기때문이며, 둘째로는 그때에 존재하던 《생산력의 수준》에서는 별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죄》는 《생산력》에 있는것이다. 이것은 카우쯔키씨의 《생산력리론》이 《우리에게》 주는 설명이다. 그런즉 이 《리론》을 믿지 않는자는 맑스주의자가 아니다. 당의 역할이라고? 운동에서의 당의 의의라고? 그러나 《생산력의 수준》과 같은 그러한 결정적요인을 당이 어찌할수 있겠는가?…

맑스주의를 이와 같이 위조한 실례는 무수히 들수 있다.

기회주의의 정체를 가리워줄 사명을 지닌 이 위조된 《맑스주의》는 레닌이 벌써 제1차로씨야혁명전에 반대하여 싸운 그 《추미주의》리론의 구라파식변종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아마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이 리론적위조를 깨뜨리는것이 서방에 진정한 혁명적당들을 창건하는 전제조건이라는것은 아마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

이다.

(3) **무산계급혁명의 리론.** 무산계급혁명에 관한 레닌의 리론은 3개의 기본명제에서 출발한다.

첫째 명제. 선진적자본주의나라들에서 금융자본이 지배하는것, 유가증권을 발행하는것이 금융자본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는것, 원료산지로 자본을 수출하는것이 제국주의의 기초의 하나라는것, 금융파두정치가 무제한한 권력을 가지는것은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결과라는것—이 모든 사실은 독점자본주의의 심한 기생적성격을 폭로하며 자본주의적 트레스트와 신디케이트의 압박을 백배나 더 느끼게 하며 자본주의의 기초에 대한 로동계급의 분노를 더 크게 하며 대중을 그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무산계급혁명으로 이끈다.(레닌의 《제국주의론》①을 보라.)

여기서는, 자본주의나라들 내부에서 혁명적위기가 첨예화되며 《종주국》의 내부의 무산계급전선에서 폭발의 요소가 자라난다는 첫째 결론이 나온다.

둘째 명제. 식민지와 예속국들로 자본수출이 격증되는것, 전 지구를 포괄할만큼 《세력범위》와 식민지령토가 확장되는것, 자본주의가, 극소수의 《선진》국들이 지구상의 압도적다수의 주민을 금융적으로 예속화하고 식민지적으로 압박하는 **전세계적 체계**로 전화되는것—이 모든 사실은 한편으로는 개개의 민족경제와 민족의 령토를 세계경제라는 단일한 련쇄의 고리로 만들었으며 다른편으로는 전 지구상의 주민을 두 진영으로, 즉 광대한 식민지예속국들을 착취하며 압박하는 극소수의 《선진》자본주의나라들과 제국주의적압박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

① 레닌의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30~845페지를 보라.)—편집자

투쟁하지 않을수 없게 된 대다수의 식민지 및 예속국들로 갈라놓았다.(《제국주의론》을 보라.)

여기서는, 식민지나라들에서 혁명적위기가 갈수록 첨예화되며 국외의 식민지전선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의 요소들이 자라난다는 둘째 결론이 나온다.

셋째 명제. 《세력범위》와 식민지를 독점하는것, 자본주의나라들이 불균등적으로 발전한 결과 이미 령토를 획득한 나라들과 자기의 《몫》을 받으려고 하는 나라들간에 세계를 재분할하려는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는것, 파괴된 《균형》을 회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제국주의전쟁이 일어나는것—이 모든 사실은 셋째 전선 즉 자본주의나라들간의 전선을 격화시키는데 이 전선은 제국주의를 약화시키며 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첫 두 전선, 즉 혁명적무산계급전선과 식민지해방전선이 쉽게 결합되게 한다.(《제국주의론》을 보라.)

여기서는, 제국주의하에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며 구라파의 무산계급혁명과 동방의 식민지혁명이 필연코 제국주의의 세계적전선을 반대하는 혁명의 단일한 세계적전선으로 련합된다는 셋째 결론이 나온다.

레닌은 이 모든 결론을 《**제국주의는 사회주의혁명의 전야**》①라는 하나의 총괄적결론으로 묶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9권, 71페지를 보라.)②

이에 따라서 무산계급혁명문제, 혁명의 성격, 그 규모, 그 깊이에 대한 취급자체도 달라지며 혁명일반의 도식이 달라진다.

전에는 무산계급혁명의 전제조건을 보통 이러저러한 개별

---

① 고지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30페지를 보라. —편집자

적나라의 경제형편을 보고 분석하였다. 지금은 이 취급방법이 벌써 불충분하여졌다. 지금은 모든 또는 대다수의 나라들의 경제형편을 보고, 세계의 경제형편을 보고 문제를 취급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개개의 나라들, 개개의 민족들의 경제는 자립적인 단위에서 벗어나 세계경제라는 단일한 련쇄의 고리로 되였기때문이며 또 낡은《문명한》자본주의는 제국주의로 장성전화하였는데 제국주의란 극소수의《선진》국가들이 지구상의 압도적다수의 주민을 금융적으로 예속화하며 식민지적으로 압박하는 전 세계적 체계이기때문이다.

전에는 개개의 나라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러저러한 발전된 나라에 무산계급혁명의 객관적조건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는것이 례사였다. 지금은 이 견해가 벌써 불충분하게 되였다. 지금은 단일한 전일체로서의 세계제국주의경제체계전체에 혁명의 객관적조건들이 있다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만일 체계전체가 이미 혁명을 할수 있을만큼 성숙되였다면, 또는 더 정확히 말해서 체계전체가 이미 혁명에로 나아갈만큼 성숙되였기때문에 이 체계내에 공업이 원만하게 발전하지 못한 나라가 몇개 있다 해도 혁명에 극복할수 없는 장애로는 될수 없는것이다.

전에는 이러저러한 발전된 나라의 무산계급혁명을 대립물인 개개의 민족적인 자본의 전선에 대립한 개개의 독자적인것으로서 말하는것이 례사였다. 지금은 이 견해가 벌써 불충분하게 되였다. 지금은 세계무산계급혁명에 대하여 말하여야 할것이다. 왜냐 하면 개개의 민족적인 자본의 전선들은 세계제국주의전선이라는 단일한 련쇄의 고리들로 전화되여 모든 나라의 혁명운동의 총전선이 이에 대립하지 않을수 없었기때문이다.

전에는 무산계급혁명을 순전히 그 나라의 내적발전의 결과로 보았다. 지금은 이러한 견해가 벌써 불충분하게 되였다.

지금은 무산계급혁명을 우선 세계제국주의체계에서 모순이 발전한 결과로, 세계제국주의전선의 련쇄가 이러저러한 나라에서 끊어진 결과로 보아야 할것이다.

어디서 혁명이 시작되겠는가? 어디서, 어떤 나라에서 제일 먼저 자본의 전선이 돌파될수 있겠는가?

보통 공업이 더 발달된데서, 무산계급이 다수를 이루고있는데서, 문화수준이 더 높은데서, 민주주의가 더 보급된데서 일어난다고 대답하는것이 전에는 례사였다.

아니다. 공업이 더 발달되였다든가 기타 이러저러한 곳에서 반드시 일어나는것은 아니다라고 레닌의 혁명리론은 반대한다. 자본의 전선은 제국주의의 련쇄가 보다 약한 곳에서 돌파된다. 왜냐 하면 무산계급혁명은 세계제국주의전선의 련쇄가 가장 약한 곳에서 끊어진 결과이기때문이다. 그리고 혁명을 시작한 나라, 자본의 전선을 돌파한 나라는 자본주의가 덜 발달된 나라이고 자본주의가 보다 발달한 나라가 그냥 자본주의의 테두리안에 남아있을수도 있다.

1917년에는 세계제국주의전선의 련쇄가 다른 나라들에서보다도 로씨야에서 더 약하였다. 련쇄는 곧 로씨야에서 끊어져 무산계급혁명이 발발하였다. 어째서인가? 그것은 로씨야에서는 지주들에게 압박받고 착취당하는 수백만의 농민과 같은 그런 성실한 동맹자를 가진 혁명적무산계급이 선두에 선 가장 위대한 인민혁명이 진행되였기때문이다. 또 그것은 로씨야에서는 도덕적으로 위신을 다 잃었고 또 전체 인민이 증오하는 짜리제도와 같은 그러한 제국주의의 추악한 대표자가 혁명을 반대하고있었기때문이다. 로씨야에서는, 자본주의적관계는 현대 프랑스나 독일, 영국이나 미국보다 덜 발전하였지만 련쇄는 더 약하였다.

가까운 장래에 련쇄가 어디서 끊어질것인가? 역시 련쇄가

비교적 약한 곳에서일것이다. 례컨대 인도에서 련쇄가 끊어질 수도 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인도에는 민족해방운동과 같은 의심할바없이 위대하고 또 의심할바없이 성실한 그런 동맹자를 가지고있는 청소하고 전투적인 혁명적무산계급이 있기때문이다. 또 그것은 인도에는 압박받고 착취당하는 인도의 대중이 모두다 증오하고있고 또 도덕적으로 신용을 잃은 외래제국주의와 같은 그러한, 누구나 다 아는 적이 혁명을 반대하고있기때문이다.

련쇄가 독일에서 끊어질 가능성도 십분 풍부하다. 왜 그런가? 왜냐 하면 례컨대 인도에서 작용하고있는 요인들이 독일에서도 작용하기 시작한 까닭이다. 동시에 인도와 독일이 발전수준상 큰 차이가 있기때문에 물론 그 흔적이 독일혁명의 진행과 결말에 나타나지 않을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이 사회주의에로의 그들의 발전을 완성할 때까지 …그들은 그들 내부에서의 사회주의의 균등적〈성숙〉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착취하는 방법으로, 제국주의전쟁시기에 패전한 나라들중에서 첫번째 나라를 착취하며 게다가 동방전체를 착취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에로의 발전을 완성할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동방은 바로 이 제1차제국주의전쟁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혁명운동에 들어섰으며 또 결정적으로 전 세계 혁명운동의 전반적소용돌이에 인입되였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415～416페지를 보라.)①

간단히 말하면 제국주의전선의 련쇄는 통례로 련쇄의 고리들이 보다 더 약한 곳에서는 반드시 끊어질것이며 어쨌든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709페지를 보라.—편집자

자본주의가 보다 더 발달하였고 무산자가 몇프로이고 농민이 몇프로이고 또 무엇이 얼마이고 한 그러한 곳에서만 반드시 끊어지는것은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를 리해하지 못하고있고 또 혁명을 혹사병처럼 무서워하는 제2국제당의 독경쟁이들이 즐겨 비상한 의의를 부여하였지만 무산계급혁명문제를 결정할 때 개개 나라의 인구중 무산계급성분이 몇프로인가고 통계만 따지는것은 의의가 없다.

그리고 또 제2국제당의 영웅들은 주장하기를(지금도 계속 주장하고있다.)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을 한편으로 하고 무산계급혁명을 다른편으로 하는 그사이에는 전자와 후자를 갈라놓는 일정한 긴 기간이라는 심연, 어쨌든 만리장성이 있으며 그 기간에 정권을 잡은 자산계급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무산계급은 힘을 축적하면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결정적투쟁》을 준비한다고 한다. 그 기간은 보통 적어도 수십년이나 된다. 이 만리장성《리론》은 제국주의의 환경에서는 아무런 과학적의미도 없으며 또 그것은 다만 자산계급의 반혁명적열망을 은폐하고 미화하는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 그렇게 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충돌과 전쟁을 배태한 제국주의의 환경에서, 《사회주의혁명의 전야》의 환경에서, 《번영하여가는》 자본주의가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레닌)로 변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혁명운동이 장성할 때, 제국주의가 짜리제도와 농노제도를 포함한 례외없이 모든 반동세력과 결합되였기때문에 서방의 무산계급운동과 동방의 민주해방운동을 포함한 모든 혁명적세력이 련합하여야 할 때, 제국주의와의 혁명적투쟁이 없이는 봉건적농노제적잔재를 전복할수 없게 될 때에—이러한 조건하에서 다소라도 발전된 나라에서의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은 반드시 무산계급혁명에 접

군하리라는것, 전자는 반드시 후자로 전화하리라는것은 아마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로씨야혁명의 력사는 이 명제가 옳고 또 론쟁할 여지가 없다는것을 똑똑하게 보여주었다. 레닌이 벌써 1905년 제1차로씨야혁명의 전야에 그의 소책자 《두가지 전술》에서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한 련쇄의 두 고리로서, 로씨야혁명의 전개력을 보여주는 단일하며 완전한 정경으로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것은 리유없는 일이 아니다.

《무산계급은 폭력으로써 전제제도의 반항을 분쇄하며 자산계급의 불견실성이 맥을 추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농민대중을 자기 편에 끌어넣으면서 민주주의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무산계급은 폭력으로써 자산계급의 반항을 격파하며 농민과 소자산계급의 불견실성이 맥을 추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중의 반무산자대중을 자기 편에 끌어넣으면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것이 무산계급의 임무인데 혁명의 규모에 관한 모든 론의와 결정서에서 신이스크라파는 이 임무를 매우 협소하게 제기하였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8권, 96페지를 보라.)①

나는 레닌의 혁명리론의 초석의 하나인, 자산계급혁명을 무산계급혁명으로 전화시킬데 대한 사상이 《두가지 전술》에서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 그 후기의 그의 로작들에 대하여서는 말하지도 않겠다.

어떤 동지들은, 레닌이 1916년에야 비로소 이 사상에 도달하였고 그이전에는 마치 로씨야혁명은 자산계급혁명의 테두리안에 머무를것이며 따라서 정권은 무산계급과 농민의 독재기관의 수중에서 무산계급의 수중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산계

---

① 《레닌선집》, 제1권, 776~777페지를 보라.—편집자

급의 수중으로 넘어갈것이라고 간주한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다. 듣자니 이러한 주장은 우리 공산주의적출판물에까지 퍼졌다고 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전혀 옳지 않으며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하여야 하겠다.

나는 제3차당대회(1905년)[77]에서 무산계급과 농민의 독재, 즉 민주주의혁명의 승리를 《〈칠서〉의 초적》이 아니라 《전쟁의 조직》이라고 평가한 레닌의 유명한 연설을 인증할수 있을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7권, 264페지를 보라.)①

나는 또한 림시정부(1905년)에 관한 유명한 레닌의 론문②들을 인증할수 있을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로씨야혁명이 앞으로 전개될 전망을 묘사하면서 《로씨야혁명이 수개월의 운동이 아니라 다년에 걸치는 운동이 되며 그것이 단지 주권당국으로부터 사소한 양보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주권의 완전한 전복을 달성》할 과업을 당앞에 제기하고있으며 또 이 전망을 더 전개하고 그것을 구라파혁명과 결부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그때에는…그때에야말로 혁명의 불길은 구라파를 휩쓸것이며 자산계급적반동세력밑에서 신음하는 구라파로동자들이 이번에는 궐기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것을 보여줄것이며 그때에는 구라파의 혁명적앙양이 로씨야에 반작용을 하여 몇년간의 혁명의 시기로부터 수십년간의 혁명의 시기를 조성할것이다.…》(우와 같은 책, 191페지)③

나는 또한 1915년 11월에 발표된 레닌의 유명한 론문을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8권, 355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레닌의 《사회민주당과 림시혁명정부》,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 《림시혁명정부에 관하여》(《레닌전집》, 한문판, 제8권, 247~262, 263~273, 430~449페지를 보라.)를 가리킨다. —편집자

③ 《레닌전집》, 한문판, 제8권, 257페지를 보라.—편집자

인증할수 있을것이다. 거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무산계급은 정권을 전취하기 위하여, 공화국을 창설하기 위하여, 토지몰수를 위하여…군사-봉건적〈제국주의〉(=짜리제도)로부터 자산계급적로씨야를 해방하는데 〈비무산계급인민대중〉이 참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자기희생적으로 투쟁할것이다. 그리고 무산계급은 부유한 농민들이 농업로동자들과 투쟁하는것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라파 각국의 무산자와의 동맹하에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짜리통치로부터의, 지주들의 토지와 권력으로부터의 자산계급적로씨야의 이와 같은 해방을 즉시① 리용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8권, 318페지를 보라.)②

나는 마지막으로, 레닌이 그의 소책자 《무산계급혁명과 변절자 카우쯔키》에서 로씨야혁명의 전개력에 관한 《두가지 전술》에서의 상기인용문을 자신이 인증하면서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있는 유명한 구절③을 인증할수 있을것이다.

《바로 우리가 말한대로 되였다. 혁명의 행정은 우리의 론단이 정당하였음을 확증하였다. 처음에는 〈전체〉 농민과 함께 군주제도를 반대하였으며 지주들을 반대하였으며 중세기제도를 반대하였다.(그런것만큼 혁명은 의연히 자산계급적, 자산계급민주주의적인것이다.) 다음에는 빈농과 함께, 반무산계급과 함께, 모든 피착취자들과 함께 농촌의 부자, 부농 및 투기업자를 포함한 자본주의를 반대하였다. 그런것만큼 혁명은 사회주의적인것으로 된다. 두 혁명사이에다 인공적만리장성을 쌓아놓으며 무산계급의 혼련정도와 빈민과의 그의 련합정도이외의 다른 무엇으로써 이 두 혁명을 갈라놓으려고 시도하는것은 맑스주의를 극심하게 외곡하고 비속화하며 그것을 자유주의와 바꾸어놓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391페지를 보라.)④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 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399페지를 보라.—편집자
③ 이 책, 266페지를 보라.—편집자
④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684~685페지를 보라.—편집자

이만하면 충분할것 같다.

좋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레닌은 《부단혁명》의 사상과 싸웠는가고 우리에게 말할것이다.

왜냐 하면 레닌은 짜리제도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하여, 무산계급혁명에로 넘어가기 위하여 농민의 혁명적능력을 《남김없이 리용하며》 농민의 혁명적정력을 몽땅 리용할것을 제의하였는데 《부단혁명》론의 지지자들은 로씨야혁명에서 농민이 노는 중대한 역할을 몰랐으며 농민의 혁명적정력을 하찮게 보고 농민을 이끌고나갈수 있는 로씨야무산계급의 힘과 능력을 과소평가하였으며 이리하여 농민을 자산계급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업, 농민을 무산계급의 주위에 결속시키는 사업에 지장을 주었기때문이다.

왜냐 하면 레닌은 무산계급에게 정권을 넘겨가지고 혁명위업을 완성할것을 제기하였는데 《부단》혁명론의 지지자들은 바로 무산계급의 정권장악으로부터 그 위업을 시작하려 하였고 그렇게 하는것은 그들이 농노제도의 잔재와 같은 그런 《자질구레한것》에 대하여 눈을 감는것임을 몰랐으며 또 로씨야농민과 같은 그런 중요한 력량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정책은 무산계급의 편으로 농민을 전취하는 사업을 방해할수 있을뿐이라는것을 몰랐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레닌자신이 부단혁명의 견지에 서있었던만큼 그가 《부단》혁명론의 지지자들과 싸운것은 부단성문제때문인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산계급의 최대의 에비군인 농민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였기때문이며 무산계급의 령도권사상을 알지 못하였기때문이다.

《부단》혁명의 사상을 새로운 사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 사상은 맑스가 19세기 40년대말에 유명한 《공산주의자동맹에 보내는 호소문》(1850년)에서 처음으로 내세운것이다. 우리

의 《부단론자》들은 부단혁명의 사상을 바로 이 문헌에서 취한 것이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것은 우리의 《부단론자》들이 그 사상을 맑스에게서 취하여 좀 고쳤는데 고친 결과 《나쁘게 만들었고》 실지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 오유를 시정하고 맑스의 부단혁명의 사상을 그 순수한 형태로 취하여 그것을 자기의 혁명리론의 초석의 하나로 만드는데는 레닌의 능숙한 솜씨가 필요하였던것이다.

맑스는 자기의 《공산주의자동맹에 보내는 호소문》에서 일련의 혁명적—민주주의적요구를 렬거하고 그것을 관철할것을 공산주의자들에게 호소한후 부단혁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주주의적소자산자는 극상해서 상술한 요구들을 실현하고서는 되도록 속히 혁명을 끝내고저 한다. 그런데 우리의 리익과 우리의 과업은 모든 대소유산계급의 지배를 폐절할 때까지, 무산계급이 국가정권을 쟁취할 때까지, 무산자의 련합이 한 나라에서뿐만아니라 전 세계의 지배적국가들에서 충분히 발전하여 그 나라들의 무산자사이의 경쟁이 없어지게 되고 적어도 결정적인 생산력이 무산계급의 수중에 집중되게 될 때까지 계속 혁명을 추진하는것이다.》①

다시말하면,

(ㄱ) 맑스는 결코 19세기 50년대의 독일에서의 혁명위업을 직접 무산계급정권으로부터 시작하라고 제의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로씨야《부단론자》들의 계획과는 반대이다.

(ㄴ) 맑스는 다만 무산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모든 나라에서 혁명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자산계급의 분파들을 권력의 지위에서 하나하나 밀어떨어뜨리면서 무

---

①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492페지를 보라. —편집자

산계급의 국가정권에 의하여 혁명위업을 완성하라고 제의하였을뿐이다. 이것은 레닌이 가르쳤으며 또 그가 제국주의의 환경하에서 자기의 무산계급혁명리론에 따라 우리 혁명의 행정에서 실시한 그 모든것과 완전히 부합되는것이다.

그런즉 우리 로씨야《부단론자》들은 로씨야혁명에서의 농민의 역할과 무산계급의 령도의 사상의 의의를 과소평가하였을뿐만아니라 《부단》혁명에 대한 맑스의 사상을 고친(나쁘게) 결과 실천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레닌은 우리 《부단론자》들의 리론을 《독창적》이고 《탁월한》것이라고 부르고 《무슨 원인으로 long 10년동안이나 실생활이 이 탁월한 리론과는 관계없이 지나왔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기를》 원치 않는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리론을 조소하였던것이다.(레닌의 이 론문은 《부단론자》들의 리론이 로씨야에 나타난후 10년이나 지나간 1915년에 집필되였다. 《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8권, 317페지를 보라.)①

또 바로 그렇기때문에 레닌은 이 리론은 《볼쉐위크에게서는 무산계급의 결정적혁명투쟁에로의 호소 및 무산계급에 의한 정권전취에로의 호소를 취하고있으며 멘쉐위크에게서는 농민의 역할의 〈부정〉을 취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반멘쉐위크적리론이라고 인정하였던것이다.(레닌의 론문 《혁명의 두 로선에 대하여》를 보라. 우와 같음.)

무산계급혁명에로의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의 전화에 관한, 무산계급혁명에로 《즉시》 이행하기 위하여 자산계급혁명을 리용할데 관한 레닌의 사상은 이러하다.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398페지를 보라. —편집자

다음으로 전에는 자산계급을 타승하려면 선진적인 모든 나라에서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러한 대다수 나라들에서 무산계급이 공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한 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불가능한것으로 되였다. 지금은 이러한 견해가 벌써 현실과 맞지 않게 되였다. 지금은 그러한 승리가 가능하다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제국주의환경하에서는 각이한 자본주의나라들의 발전이 불균등적이며 비약적인 성격을 띤다는것, 제국주의내부의 파국적인 모순들이 발전하여 불가피하게 전쟁을 일으킨다는것, 세계의 모든 나라 혁명운동이 장성한다는것—이 모든 사실은 개별적인 나라에서 무산계급이 승리할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또 필연적으로 승리하게 하기때문이다. 로씨야혁명의 력사는 이것을 직접 실증하였다. 다만 여기에서 잊어서는 안될것은 자산계급의 전복은 절실히 필요한 몇개 조건이 갖추어져있는 경우에라야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는것이다. 이 조건들이 없이는 무산계급의 정권장악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레닌은 그의 소책자 《소아병》에서 이 조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혁명에 의하여, 특히는 20세기의 3차에 걸친 로씨야혁명에 의하여 실증된 혁명의 기본법칙은 다음과 같다. 즉 혁명을 위하여서는 피착취대중 및 피압박대중이 옛날 그대로 살아갈수 없다는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변혁할것을 요구하는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혁명을 위하여서는 착취자들이 옛날 그대로 살아갈수 없게 되고 통치할수 없게 되는것을 필요로 한다. 오직 〈하층〉이 옛날 그대로 살아갈것을 원치 않을 때, 〈상층〉도 옛날 그대로 살아가고 통치할수 없게 될 그때라야만 혁명은 승리할수 있는것이다. 이 진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할수 있다. 즉 혁명은 전국적(피착취자나 착취자가 모두다 맛보게 되는)위기가 없

이는 불가능하다①. 그러므로 혁명을 위하여서는 첫째로 로동자의 다수가(혹은 적어도 의식있고 사고력있고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로동자의 다수가) 혁명의 필요성을 완전히 리해하며 또 혁명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각오를 가지게 되여야 하며 둘째로 통치계급이 정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여야 한다. 그 위기는 가장 락후한 대중까지도 정치운동에 이끌어들이게 되여…정부를 무력하게 하며 혁명가들로 하여금 그 정부를 급속히 전복할수 있게 하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222페지를 보라.)②

그러나 한 나라에서 자산계급의 정권을 전복하고 무산계급의 정권을 수립한다는것—이것은 아직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승리한 나라의 무산계급은 자기의 정권을 튼튼히 하고 농민을 이끌고나가면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는것이며 또 건설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산계급이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다시말하면 무산계급이 한 나라의 힘만으로 사회주의를 종국적으로 확립하고 외래무장간섭으로부터, 따라서 또 구제도의 복구로부터 나라를 완전히 수호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을 위하여서는 적어도 몇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들의 혁명을 발전시키며 지지하는것은 승리한 혁명의 중대한 과업인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에서 승리한 혁명을 독자적인 단위로 볼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의 무산계급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방조자이며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레닌은 이 사상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승리한 혁명의 과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39페지를 보라. —편집자

업은 《모든 나라의 혁명을 발전시키며 지원하며 고무하기 위하여 한 나라에서 할수 있는바를 최대한으로 실행하는》데 있다고 하였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385페지를 보라.)①

레닌의 무산계급혁명리론의 특징은 대개 이러하다.

4
무산계급독재

나는 이 제목에서 세가지 기본문제를 들려고 한다.

(ㄱ) 무산계급혁명의 도구로서의 무산계급독재.

(ㄴ) 자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지배로서의 무산계급독재.

(ㄷ) 무산계급독재의 국가형태로서의 쏘베트정권.

(1) **무산계급혁명의 도구로서의 무산계급독재.** 무산계급독재에 관한 문제는 우선 무산계급혁명의 기본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무산계급혁명, 그 운동, 그 규모, 그 성과는 오직 무산계급독재를 거쳐야만 비로소 구체화되며 실현된다. 무산계급독재는 첫째로, 전복된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자기의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둘째로, 무산계급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긴 무산계급혁명의 도구이며 그 기관이며 그 가장 중요한 거점이다. 혁명은 무산계급독재가 없이도 자산계급을 타승하고 그 정권을 전복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만일 혁명이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자기의 기본지주로서의 무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677페지를 보라. —편집자

산계급독재라는 특수한 기관을 창설하지 않는다면 그 혁명은 자산계급의 반항을 진압할수 없고 승리를 보존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수 없는것이다.

《정권에 관한 문제는 온갖 혁명의 근본문제이다》(레닌).

이것은 문제가 정권을 장악하며 그것을 탈취하는데 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권을 장악한다는것은 일의 시작일따름이다. 자산계급은 한 나라에서 전복된후에도 여러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오래동안 그들을 전복한 무산계급보다 여전히 더 강하다. 그렇기때문에 문제의 요점은 정권을 유지하며 공고히 하며 불패의것으로 만드는데 있는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여야 할것인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승리한 《그다음날》에 무산계급독재앞에 나서는 적어도 세가지 주요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ㄱ) 혁명에 의하여 전복당하고 수탈당한 지주들과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자본의 정권을 복구하려는 그들의 일체 시도를 근절할것.

(ㄴ) 모든 근로자들을 무산계급의 주위에 묶어세우는 정신으로 건설사업을 조직하며 또 이 사업을 계급들의 청산과 폐절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것.

(ㄷ) 외적들과 투쟁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와 투쟁하기 위하여 혁명을 무장시키며 혁명군대를 조직할것.

무산계급독재는 이러한 과업을 실현하며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과도는 한개의 완전한 력사적시기이다. 이 시기가 끝날 때까지는 착취자들에게는 불가피적으로 복구의 희망이 남아있으며 또 그 희망은 복구의 기도로 변한다. 그러므로 엄중한 패배를 당하자 자기들의 전복을 에기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믿지도 않았으며 그에 대하여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견복당한 착취자들은 10배의 정력과 광포한 분격과 백배의 증오심을 가지고 빼앗긴 〈천국〉을 회복하기 위하여, 또 그렇듯 달콤한 향락을 누려왔으나 지금은 〈비천한 평민들〉로 말미암아 령락과 빈궁에(또는 《천한》 로동에…) 빠지게 된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싸움에 덤벼드는것이다. 그리고 착취자—자본가들의 뒤에는 광범한 소자산계급대중이 늘어서있는데 이 대중은 모든 나라의 수십년의 력사적경험이 증시하는바와 같이 갈팡질팡 동요하며 오늘은 무산계급을 따라가나 래일은 혁명의 난관에 겁을 먹고 로동자들이 한번 실패하거나 또는 실패하는듯만 하여도 당황하여 신경과민이 되며 조바심을 나타내고 우는소리를 하면서 이 진영에서 저 진영으로 넘어간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355페지를 보라.)①

자산계급은 복구를 기도할만한 자기의 근거를 가지고있다. 왜냐 하면 자산계급은 전복된후에도 오래동안 그들을 전복한 무산계급보다 여전히 더 강하기때문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착취자들이 단지 한 나라에서만 격멸되였을 경우—이것은 물론 전형적인 경우이다. 왜냐 하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혁명이 일어나는것은 보기 드문 례외이기때문이다.—에 그들은 피착취자들보다 여전히 더 강하다.》(우와 같은 책, 354페지)②

전복된 자산계급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 《국제자본의 힘 즉 자산계급의 각종 국제적련결의 힘과 견고성에 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73페지를 보라.)③

둘째로, 《착취자들은 혁명이 있은후에도 필연적으로 여러가지의 거대한 실제적우세를 오래동안 보유한다. 즉 그들에게는 돈(돈을 당장에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640~641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제3권, 639~640페지—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제4권, 181페지—편집자

없앨수는 없다.)과 이것저것 흔히는 적지 않은 동산이 남아있으며 교제나 조직 및 관리의 기능이나 관리의 모든 〈비결〉(관례, 방법, 수단, 능력)에 대한 지식이 남아있으며 일층 고등한 교육과 고급(자산계급식으로 생활하며 사색하는)기술자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남아있으며 군사상의 비상히 숙련된 기능(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등등이 남아있다.》는데 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354페지를 보라.)①

셋째로, 《관습의 힘과 소생산의 힘에도 의존하고있는것이다. 왜냐하면 소생산은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세계적으로 극히 많이 남아있을뿐더러 그 소생산은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자연발생적으로 또 대량적으로 자본주의와 자산계급을 낳고있기때문》이며 《계급들을 소멸한다는것은 지주와 자본가들을 구축하는것을 의미할뿐만아니라—이것은 우리가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하였다.—소상품생산자들을 소멸하는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구축할수도 없고 진압할수도 없으며 그들과는 화목하게 살아야 하는것이며 다만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침침히 신중한 조직적사업으로써 그들을 개조하며 재교양할수 있기(또 하여야 하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73페지와 189페지들 보라.)②

바로 그렇기때문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산계급독재는 보다 더 강한 적인 자산계급에 대한 새 계급의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무자비한 전쟁이다. 자산계급의 반항은 그가 전복됨으로 말미암아…10배나 더하여진다.》

《무산계급독재는 낡은 사회의 세력들과 그 전통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이며 류혈적 및 비류혈적, 폭력적 및 평화적, 군사적 및 경제적, 교육적 및 행정적인 투쟁이다.》(우와 같은 책, 173페지와 190페지)③

이러한 과업들을 짧은 기간에 수행하며 이 모든것을 몇해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639페지—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제4권, 181페지와 200페지—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제4권, 181페지와 200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동안에 실행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렇기때문에 무산계급독재,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일련의 《가장 혁명적인》 법령이나 포고를 발포하는 순간적인 시기로 간주할것이 아니라 국내전쟁과 대외적충돌, 꾸준한 조직사업과 경제건설, 진공과 퇴각, 승리와 패배로 가득찬 하나의 완전한 력사적시기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력사적시기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경제적 및 문화적 전제를 마련하는데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에게 첫째로는 나라를 관리할만한 힘을 가지게끔 자체를 교양하며 단련할 가능성을 주고 둘째로는 사회주의적생산조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소자산계급을 재교양하며 개조할 가능성을 주는데도 필요하다.

맑스는 로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현존하는 관계를 변경할뿐만아니라 자기자신을 변경하며 자신이 정치적지배능력을 가지게 되자면 15년, 20년, 50년의 국내전쟁과 국제적충돌을 겪어야 할것이다.》(《맑스엥겔스전집》, 로문판, 제1판, 제8권, 506페지를 보라.)①

레닌은 맑스의 사상을 계승하여 일층 발전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무산계급독재하에서 수천수백만 농민과 수천수백만 소경영주와 수십만의 사무원과 관리, 자산계급지식인을 재교양하며 이들 모두를 무산계급국가와 무산계급의 지도에 복종시키며 그들의 자산계급적관습과 전통을 극복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산자자신 역시 무산계급독재의 기초우에서의 장구한 투쟁가운데서 재교양되여야 하는바… 무산자들은 그자신의 소자산계급적편견에서 즉시로 해방되는것도 아니고 신기

①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8권, 465페지를 보라. —편집자

한 술법이거나 또는 성모 마리아의 계시에 의하여 해방되는것도 아니며 구호와 결의문과 포고로써 해방되는것도 아니며 오직 광범한 소자산계급적영향과의 장구하고 곤난한 대중적투쟁에 의하여서만 해방되는 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248페지와 247페지를 보라.)①

(2) 자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지배로서의 무산계급독재. 상술한것에서 명백해진것처럼 무산계급독재는 낡은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를 절대 다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조건하에서 단순히 정부인원들만 바꾸거나 《내각》을 바꾸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독재를 불명이처럼 무서워하며 놀란 나머지 독재의 개념을 《정권을 잡는것》이라는 개념으로 슬쩍 바꿔버리는 모든 나라의 멘쉐위크들과 기회주의자들은 《정권을 잡는것》을 《내각》을 바꾸는것, 샤이데만과 노스케, 맥도날드와 헨더슨따위의 인물들로 구성된 새 내각이 정권을 잡는것으로 보는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또는 이와 류사하게 내각을 바꾸는것이 무산계급독재, 진정한 무산계급이 진정한 정권을 잡는것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는것은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낡은 자산계급제도를 그대로 남겨두고 정권을 잡은 맥도날드일파와 샤이데만일파, 그들의 소위 정부들은 다름아닌 자산계급의 어용기관이며 제국주의의 종처의 엄폐물이며 자산계급의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혁명운동을 반대하는데 쓰는 도구인것이다. 이러한 정부들은, 자본이 대중을 압박하며 착취하는데 병풍이 없어 불편하고 불리하고 곤난한 때에는 병풍으로서 자본에 필요한것이다. 물론 그러한 정부들이 나타나는것은 《그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67페지와 266페지를 보라. ―편집자

들이 있는》(즉 자본가들이 있는) 《쉽까산78이》 무사치 못하다는 정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부들은 의연히 분장한 자본의 정부로 불가피하게 남아있게 된다. 맥도날드의 정부나 사이데만의 정부는 무산계급이 정권을 잡는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가 있다. 무산계급독재는 정부를 바꾼것이 아니라 새 중앙정권기관과 새 지방정권기관들을 가진 새 국가이며 낡은 국가, 즉 자산계급국가의 폐허우에 발생한 무산계급의 국가이다.

무산계급독재는 자산계급제도의 토대우에서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자산계급제도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자산계급을 천복한후에 지주와 자본가들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무산계급의 폭력적혁명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무산계급독재는 자산계급에 대한 폭력에 의거하는 혁명적정권이다.

국가는 지배계급이 자기의 계급적원쑤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하여 자기 수중에 틀어쥐고있는 기구이다. 이 점에서는 무산계급독재가 본질상 다른 온갖 계급의 독재와 하등의 차이가 없다. 왜냐 하면 무산계급국가는 자산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구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가지 본질적차이가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계급적국가는 피착취자인 다수에 대한 착취자인 소수의 독재였지만 무산계급독재는 착취자인 소수에 대한 피착취자인 다수의 독재라는데 있다.

요컨대 무산계급독재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으며 폭력에 의거하며 피착취근로대중의 동정과 지지를 받는, 자산계급에 대한 무산계급의 지배이다.(레닌 《국가와 혁명》)

이로부터 두가지 기본적결론이 나온다.

첫째 결론. 무산계급독재는 《완전한》 민주주의 즉 부자나 빈자나 할것없이 모든 사람의 민주주의일수는 없다. 무산계

급독재는 《새로운 형의 민주주의적인(무산자와 가난뱅이 일반에게①는) 국가로 그리고 새로운 형의 독재적인(자산계급에게①는) 국가로 되지 않을수 없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1권, 393페지를 보라).② 전반적평등이니 《순수한》 민주주의니 《완성된》 민주주의니 뭐니 하고 카우쯔키와 그 동료들이 지껄이는것은 피착취자들과 착취자들과의 평등이 도저히 있을수 없다는 의심할바없는 사실을 자산계급적으로 은폐하는 것이다. 《순수한》 민주주의리론은 제국주의략탈자들이 길들이고 먹여살리는 로동계급상층분자의 리론이다. 이 리론은 자본주의의 종처를 감싸주며 제국주의를 미화하며 피착취대중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정신적힘을 제국주의에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생긴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피착취자들에게 진정한 《자유》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왜냐 하면 적어도 《자유》를 누리자면 가옥, 인쇄소, 종이창고 기타가 필요한데 자본주의하에서는 그것들을 착취자들이 독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피착취대중이 진정으로 나라의 관리에 참가하는 일이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조건하에서의 가장 민주주의적인 제도하에서도 정부가 인민에 의하여 수립되는것이 아니라 로트쉴드일가와 슈린비스일가, 로케펠러일가와 모르간일가에 의해서 수립되기때문이다. 자본주의하에서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민주주의이고 피착취자인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기초하며 또 그 다수를 반대하는 착취자인 소수의 민주주의이다. 오직 무산계급독재하에서만 피착취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수 있으며 또 무산자와 농민들이 나라의 관리에 진정으로 참가할수 있다. 무산계급독재하에서의 민주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200페지를 보라. —편집자

주의는 무산계급적민주주의이고 착취자인 소수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기초하며 또 그 소수를 반대하는 피착취자인 다수의 민주주의이다.

둘째 결론. 무산계급독재는 자산계급사회와 자산계급민주주의가 평화적으로 발전된 결과로서는 발생할수 없다. 그것은 오직 자산계급적국가기구, 자산계급적군대, 자산계급적관료기구, 자산계급적경찰을 파괴한 결과로서만 발생할수 있다.

맑스와 엥겔스는《공산당선언》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동계급은 기성국가기구를 그저 그대로 장악하여 그것을 자기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수는 없다.》① 맑스는 1871년에 쿠겔만에게 보낸 서한에서 무산계급혁명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관료군사기구를 한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쇄하는것이며 또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대륙에서의 온갖 진정한 인민혁명의 선결조건입니다.》②라고 하였다.

맑스가 대륙에서라고 국한하여 쓴 말은, 모든 나라의 기회주의자와 멘쉐위크들이 적어도 구라파대륙에 들지 않는 몇개 나라(영국, 미국)에서는 자산계급민주주의가 무산계급민주주의로 평화적으로 발전할수 있다는것을 맑스가 용인한듯이 떠들어댈수 있는 구실로 되였다. 맑스는 사실 그러한 가능성을 가설하였으며 또 그가 19세기 70년대의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그러한 가능성을 가설한데는 근거가 있었다. 왜냐 하면 당시에 아직 독점자본주의가 없었고 제국주의가 없었으며 이 두 나라에는 그 발전의 특수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아직 발전된 군벌이나 관료제도가 없었기때문이다. 발전된 제국주의가 나타나기전까지는 사태가 이러하였다. 그러나 그후 30～40년

---

①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298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한문판, 제4권, 392페지—편집자

이 지나서 이 두 나라에서 사태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제국주의가 발전하여 예외없이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을 포괄하고 군벌과 관료 제도가 영국과 미국에도 나타나고 영국과 미국의 평화적발전의 특수한 조건들이 없어진 때에 와서는 이 나라들에 국한하는것은 자연히 실제성을 잃어버리게 될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 즉 제1차제국주의대전시기인 1917년에 와서는 맑스의 이 제한이 의의가 없게 된다. 군벌과 관료기구가 없다는 의미에서 앵글로쌕쏜적〈자유〉의 가장 큰 마지막의—전 세계에서—대표자인 영국과 미국은 모든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모든 것을 억압하는 관료-군사적기구라는 전 구라파적인 더럽고 피비린내나는 진창속에 아주 굴러떨어지고말았다. 이제는 영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온갖 참다운 인민혁명의 선결조건〉은 〈기성〉(이 두 나라에서 1914~1917년사이에 《구라파적》이며 일반제국주의적인 수준에까지 완성된) 〈국가기구〉를 짓부시고 마스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1권, 395페지를 보라.)①

다시말하면 무산계급의 폭력혁명에 관한 법칙, 그러한 혁명의 선결조건으로서의 자산계급국가기구의 파괴에 관한 법칙은 세계제국주의국가들에서의 혁명운동의 필연적법칙이다.

물론 먼 장래에 무산계급이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승리하게 되고 지금의 자본주의적포위가 사회주의적포위로 바꾸어지게 된다면 《불리한》 국제정세로 말미암아 《자진하여》 무산계급에게 중대한 양보를 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자본가들이 있는 어떤 자본주의국가들에서는 《평화적인》 발전의 길이 완전히 있을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다만 있을수 있는 먼 장래에 관한것이다. 이러한 예상은 가까운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러한, 전혀 아무러한 근거도 가지지 못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203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한다.

그렇기때문에 레닌이 다음과 같이 말한것은 정당하다.

《무산계급혁명은 자산계급국가기구를 폭력적으로 파괴하지 않고서는, 그 기구를 새 기구와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342페지를 보라.)①

(3) 무산계급독재의 국가형태로서의 쏘베트정권. 무산계급독재의 승리는 자산계급을 진압하며 자산계급국가기구를 파괴하며 자산계급민주주의를 무산계급민주주의로 바꾸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어떠한 조직의 도움으로 이 거대한 사업을 수행할수 있는가? 자산계급의회제도의 토대우에서 자라난 무산계급의 낡은 조직형태들은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산계급국가기구의 무덤을 파는자의 역할을 할수 있으며 이 기구를 파괴하고 자산계급민주주의를 무산계급민주주의로 바꾸어놓을뿐만 아니라 무산계급국가정권의 기초로 될수 있는 그런 무산계급조직의 새로운 형태는 무엇인가?

무산계급조직의 그러한 새로운 형태는 쏘베트이다.

낡은 조직형태보다 쏘베트가 우월한 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쏘베트가 무산계급의 가장 **포괄적인** 대중적조직이라는데 있다. 왜냐 하면 쏘베트가, 오직 쏘베트만이 례외없이 모든 로동자들을 망라하기때문이다.

그것은 쏘베트가 모든 피압박자와 피착취자를, 로동자와 농민, 병사와 해병을 망라하고있는 **유일한** 대중적조직이라는데 있다. 때문에 거기에서는 대중의 전위대, 즉 무산계급이 대중의 투쟁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가장 쉽게, 가장 완전하게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624페지를 보라. —편집자

실현할수 있다.

그것은 쏘베트가 대중의 혁명투쟁, 대중의 정치적진출, 대중의 폭동의 **가장 강력한 기관**이며 금융자본과 그 정치적부속물의 전능을 파괴할수 있는 기관이라는데 있다.

그것은 쏘베트가 대중자신의 **직접적인** 조직, 즉 **가장 민주주의적인** 조직이며 따라서 가장 위신있는 대중의 조직이라는데 있다. 거기에서는 대중이 새 국가의 건설 및 그의 관리에 참가하는것을 최대한으로 쉽게 하며 낡은 제도를 파괴하는 투쟁과 무산계급의 새 제도를 확립하는 투쟁에서 대중의 혁명적정력과 창발성 및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킬수 있다.

쏘베트정권은 지방쏘베트들이 하나의 전 국가적조직으로 즉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전위대로서의 또는 지배계급으로서의 무산계급의 국가적조직으로 통합형성된것, 즉 쏘베트공화국으로 통합된것이다.

쏘베트정권의 본질은 자본가와 지주들의 압박을 받던 바로 그 계급들의 가장 대중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조직들이 지금에는 《전체 국가정권, 전체 국가기관의 **고정적인 유일한 기초**》로 되여있는데 있으며 《심지어 가장 민주주의적인 자산계급공화국에 있어서도》 법률상으로는 평등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수천가지 방법과 간책에 의하여 정치생활과 민주주의적 권리 및 자유로부터 배제되여온 다름아닌 그 대중이 오늘날 민주주의적인 국가통치에 인입되여 거기에 **정상적으로** 편합없이 참가하며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놀고있다.》는데 있다①. (《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13페지를 보라.)②

바로 그렇기때문에 쏘베트정권은 낡은 자산계급민주주의

---

① 고지크체는 나의것.—이.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724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적 또는 의회제적형태와는 원칙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국가조직이며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파업에 적응시킨것이 아니라 온갖 압박과 착취에서 그들을 완전히 해방하는 파업, 무산계급독재의 파업에 적응시킨 새로운 형의 국가이다.

쏘베트정권이 나타난 때부터 《자산계급민주주의적의회제도의 시대는 끝났고 세계사의 새 장, 즉 무산계급독재의 시대가 시작되였다.》라고 레닌이 말한것은 정당하다.

쏘베트정권의 특징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쏘베트정권이 계급들이 존재하고있는 조건하에서 있을수 있는 모든 국가조직중에서 가장 대중적이며 가장 민주주의적인 국가조직이라는데 있다. 왜냐 하면 쏘베트정권은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로동자와 피착취농민들의 련계와 협조의 무대로 되며 자기의 사업에서 이 련계와 이 협조에 의거하며 그리하여 주민의 소수에 대한 다수의 권력, 이 다수의 국가, 다수의 독재의 표현으로 되기때문이다.

그것은 쏘베트정권이 계급사회의 모든 국가조직중에서 가장 국제주의적조직이라는데 있다. 왜냐 하면 쏘베트정권은 온갖 민족적압박을 분쇄하며 민족들의 근로대중의 협조에 의거하며 그리하여 이 대중들을 쉽사리 통일적인 국가적련맹에 련합하기때문이다.

그것은 쏘베트정권이 그자체의 구조로 말미암아 피압박, 피착취 대중의 전위대 즉 가장 단결되고 가장 각성한 쏘베트의 핵심인 무산계급이 이 대중들을 지도하기 쉽게 한다는데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피압박계급들의 모든 혁명과 모든 운동의 경험, 전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경험은 오직 무산계급만이 피착취근로주민의 분산적이고 락후한 층들을 단합시키며 인도할 능력이 있다는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있다.》

(《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14페지를 보라.)① 문제는 쏘베트정권의 구조가 이 경험이 제시하는것을 쉽사리 실현되게 한다는데 있다.

그것은 쏘베트정권이 립법권과 행정권을 단일한 국가조직에 통합하며 지역적선거구를 생산단위, 즉 공장으로 바꾸어놓음으로써 로동자와 일반근로대중을 국가관리기구와 직접 련결시키고 그들에게 국가를 관리하는것을 가르쳐준다는데 있다.

그것은 오직 쏘베트정권만이 군대를 자산계급지휘부에 대한 복종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 군대를 자산계급제도하에서처럼 인민을 압박하는 도구로부터 자국과 타국의 자산계급의 기반에서 인민을 해방하는 도구로 만들수 있다는데 있다.

그것은 《오직 쏘베트국가조직만이 낡은, 즉 자산계급적인 관료 및 재판 기구를 실제로 즉시 분쇄하며 철저히 파괴할수 있다.》(우와 같음)는데 있다.

그것은 근로자, 피착취자들의 대중적조직들을 국가관리에 부단히, 철대적으로 참가시키는 쏘베트적국가형태만이 능히 장래의 국가없는 사회, 공산주의사회의 기본요소의 하나인 국가의 조락을 준비할수 있다는데 있다.

이리하여 쏘베트공화국은 오래동안 탐구되여오다가 마침내 발견된 정치형태로서 그 형태의 범위안에서 무산계급의 경제적해방,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실현되여야 할 정치형태이다.

빠리꼼뮨은 이 형태의 맹아였다. 쏘베트정권은 이 형태의 발전이며 완성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725페지를 보라. —편집자

《로동자병사농민대의원쏘베트의 공화국은 민주주의적기관의 일층 높은 형태…일뿐만아니라 사회주의에로의 가장 고통없는 이행을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① 형태이기도 하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2권, 131페지를 보라.)②

5
농민문제

나는 이 제목에서 네가지 문제를 취급하려고 한다.

(ㄱ) 문제의 설정.

(ㄴ)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시기의 농민.

(ㄷ) 무산계급혁명시기의 농민.

(ㄹ) 쏘베트정권이 공고화된 이후시기의 농민.

(1) **문제의 설정.** 어떤 사람들은 레닌주의의 기본은 농민문제이며 레닌주의의 출발점은 농민문제, 즉 농민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 레닌주의의 기본문제, 그의 출발점은 농민문제가 아니라 무산계급독재문제, 즉 그 독재를 전취하는 조건에 관한 문제, 그 독재를 공고화하는 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농민문제는 정권을 위한 무산계급의 투쟁에서 그 동맹자에 관한 문제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파생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이렇다 하여 의심할바없이 무산계급혁명에서 농민문제가 가지고있는 그 중대하고도 긴절한 의의가 조금이라도 상실되는것은 아니다. 다 알다싶이 로씨야맑스주의자들사이에서 농민문제가 진지하게 연구되기 시작한것은 바로 제1차 혁명(1905년)의 전야였는데 이 시기는 짜리제도를 전복하고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377페지를 보라. —편집자

무산계급령도권을 실현하는 문제가 전면적으로 당앞에 제기된 시기이며 또한 절박한 자산계급혁명에서 무산계급동맹자에 관한 문제가 긴절하게 제기된 시기였다. 또 로씨야농민문제가 무산계급혁명시기에 와서 일층더 철실하게 제기되였다는것도 력시 주지하는 사실인데 이 시기 무산계급독재에 관한 문제, 즉 그 독재를 전취하고 유지하는 문제는 당면한 무산계급혁명에서의 그의 동맹자에 관한 문제와 직접 련결되였던것이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 하면 정권을 잡고저 하는자는 누구나 자기의 진정한 동맹자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민문제는 무산계급독재에 관한 일반적 문제의 한부분이며 따라서 레닌주의의 가장 긴절한 문제중의 하나인것이다.

제2국제당의 여러 당들이 농민문제에 무관심하거나 전혀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는것은 서방에서의 발전이 특수하다는 조건만 가지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선 그 당들이 무산계급독재를 믿지 않으며 혁명을 두려워하며 무산계급이 정권을 잡도록 도와주려 하지 않고있다는데 기인한다. 그런데 혁명을 두려워하며 무산계급이 정권을 잡도록 도와주려 하지 않는자가 혁명에서의 무산계급의 동맹자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리가 만무한것이다. 그들에게는 동맹자에 관한 문제가 하등 관계없고 철실하지 않은 문제로 되는것이다. 제2국제당의 영웅들은 농민문제에 관한 자기들의 조소적태도를 점잖은 태도의 표정으로, 《진정한》 맑스주의의 표정으로 간주하고있다. 사실 여기에는 맑스주의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다. 왜냐 하면 무산계급혁명의 전야에 농민문제와 같은 그런 중요한 문제에 무관심하는것은 무산계급독재를 부정하는것이며 또 맑스주의를 직접 배반하는 뚜렷한 표징이기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서는것이다. 즉 농민의 일정한 생활조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는 혁명적가능성이 이미 다 없어졌는가? 만일 없어지지 않았다면 무산계급혁명을 위하여 그 가능성을 리용할 가망과 근거가 있으며 서방의 자산계급혁명당시에 자산계급의 예비군으로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되고있는 농민을, 착취받는 농민의 다수를 무산계급의 예비군, 그의 동맹자로 전화시킬 가망과 근거가 있는가?

레닌주의는 이 문제에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즉 농민의 다수가 혁명적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인정하며 무산계급독재를 위하여 그 능력을 리용할수 있다고 인정한다.

로씨야의 세차례 혁명의 력사는 이에 대한 레닌주의의 결론을 전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여기서 예속과 착취를 반대하는 근로농민대중의 투쟁, 압박과 빈궁에서 해방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실천적결론이 나온다. 그렇다고 하여 무산계급이 온갖 농민운동을 다 지지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물론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것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무산계급의 해방운동을 촉진하며 어쨌든 무산계급혁명에 도움을 주며 농민을 로동계급의 예비군과 동맹자로 더 빨리 전화시키는 그러한 농민운동과 그러한 농민투쟁을 지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2)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시기의 농민.** 이 시기는 제1차 로씨야혁명(1905년)으로부터 제2차로씨야혁명(1917년 2월)까지의 기간을 포괄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농민이 자유주의자산계급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된것, 농민이 립헌민주주의자54들로부터 **물러난것**, 농민이 무산계급의 편으로, 볼쉐위크당의 편으로 **돌아선것** 등이다. 이 시기의 력사는 농민을 전취하기 위하여 립헌민주주의자(자유주의자산계급)들과 볼쉐위크(무산계급)들간에 진행된 투쟁의 력사이다. 이 투쟁의 운명을 결정

한것은 의회시기였다. 그것은 네차례의 의회시기가 농민들에게 실제교훈으로 되였으며 그 교훈은 농민들이 립헌민주주의자에 의해서는 토지도 자유도 얻지 못한다는것, 짜리는 전적으로 지주들의 편이고 립헌민주주의자들은 짜리를 지지한다는것, 그리고 농민들에게 원조를 줄수 있는 유일한 력량은 도시로동자들, 즉 무산계급이라는것을 농민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었기때문이다. 제국주의전쟁은 자산계급에게서 농민을 떼여내고 자유주의자산계급을 고립시킴으로써 의회시기의 교훈을 확증하였을따름이다. 왜냐 하면 전쟁기간은 짜리와 그 동맹자인 자산계급에게서 평화를 바라는것은 그림속의 떡으로 배를 채우려는것이나 다름없다는것을 보여주었기때문이다. 의회시기의 실제교훈이 없었더라면 무산계급의 령도권은 불가능하였을것이다.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은 이렇게 이루어진것이다. 짜리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공동투쟁에서 무산계급의 령도권, 즉 1917년 2월혁명을 일으키게 한 그 령도권은 이렇게 이루어진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서방(영국, 프랑스, 독일, 오지리)의 자산계급혁명은 다른 길을 밟았다. 서방에서는 혁명의 령도권을 장악한것은 무산계급이 아니라 자유주의자산계급이였는데 그것은 무산계급이 자체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자립적인 정치세력이 되지 못하였고 또 될수도 없었기때문이다. 거기에서는 농민들이 농노제도로부터 해방을, 수량상 적고 아직 조직되지 못한 무산계급에게서 얻은것이 아니라 자산계급에게서 얻었다. 거기에서는 농민들이 자유주의자산계급과 함께 낡은 제도를 반대하여나섰다. 거기에서는 농민이 자산계급의 예비군으로 되여있었다. 때문에 거기에서는 혁명이 자산계급의 정치적 비중을 극히 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는 달리 로씨야의 자산계급혁명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로씨야혁명은 정치세력으로서의 자산계급을 강화한것이 아니라 약화시켰고 그의 정치적예비군을 증대시킨것이 아니라 그의 기본적예비군인 농민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로씨야자산계급혁명은 자유주의자산계급을 전면에 내세운것이 아니라 혁명적무산계급을 내세우고 그 주위에 수백만 농민을 결속시켰다.

그러므로 로씨야의 자산계급혁명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무산계급혁명으로 전화한 그 사실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것이다. 무산계급령도권은 무산계급독재의 맹아이며 과도적단계였다.

로씨야혁명이 서방자산계급혁명력사에 그 전례가 없는 이러한 독특한 현상을 띠게 된 사실을 무엇으로써 설명할것인가? 이 독특성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로씨야의 자산계급혁명이 서방에서보다 비교적 더 발전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였고 로씨야의 무산계급은 이때에 와서 이미 자립적인 정치세력으로 되였는데 한편 자유주의 자산계급은 무산계급의 혁명성에 놀라 혁명성을 깡그리 잃어버리고(특히 1905년의 교훈이 있은후에) 혁명을 반대하여, 로동자와 농민을 반대하여 짜리 및 지주와 동맹하게 되였다는 그것으로써 설명된다.

로씨야의 자산계급혁명의 독특성을 결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ㄱ) 혁명전야에 로씨야의 산업이 전례없이 집중된것이다. 례를 들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로씨야에서는 전체 로동자의 54%가 500명이상의 로동자를 가진 기업소들에서 일하였는데 미국과 같은 발전된 나라라고 하여도 그러한 기업소에서 일한 로동자는 전체 로동자의 겨우 33%밖에 안되였다. 불쉐

위크당과 같은 혁명적당이 있는 조건에서는 벌써 이 한가지 사정만으로도 로씨야로동계급이 나라의 정치생활의 위대한 힘으로 전화될수 있다는것을 구태여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ㄴ) 기업소들에서 착취가 아주 혹심한데다가 잔혹한 짜리친위병들의 경찰제도까지 겹친것이다. 이 사정은 로동자들의 중대한 파업 하나하나를 거대한 정치적행동으로 전화시키고 로동계급을 철저한 혁명력량으로 단련시켰다.

(ㄷ) 로씨야자산계급이 정치적으로 취약하다는것이다. 자산계급은 1905년혁명이후에 짜리제도에 굴종하여 로골적인 반혁명으로 떨어졌는데 이 반혁명성은 비단 로씨야자산계급을 짜리제도의 품안에 안기게 한 무산계급의 혁명성에만 기인하는것이 아니라 이 자산계급이 짜리정부의 여러가지 주문에 직접 의존하고있는데도 기인한다.

(ㄹ) 가장 란폭하고 가장 견딜수 없는 농노제의 잔재가 농촌에 있는데다가 지주들의 전제가 덧붙은것이다. 이 사정은 농민을 혁명의 품안에 안기게 하였다.

(ㅁ) 짜리제도가 생명체란 생명체는 죄다 억누르고 자기의 전횡으로써 자본가와 지주의 압박을 더욱 심하게 한것이다. 이 사정은 로동자와 농민의 투쟁을 혁명적격류속에 하나로 합류시켰다.

(ㅂ) 제국주의전쟁이 로씨야의 정치생활의 이 모든 모순을 심각한 혁명적위기에 집중시켰으며 혁명에 비상한 공세력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민은 어느쪽에 서야 하겠는가? 그들은 지주의 전제를 반대하며 짜리의 전횡을 반대하며 농민경제를 파괴한 파멸적전쟁을 반대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는가? 자유주의자산계급인가? 그런데 그들은 적이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네차례의 의회에서 맛본 다년간의 경험이 말하여

주었다. 사회혁명당원들[59]인가? 사회혁명당원들은 물론 립헌민주주의자보다는 《나은》자였고 그들의 강령은 《괜찮은》것이였으며 또한 거의 농민적인것이였다. 그러나 사회혁명당원들은 한갓 농민에게만 의거하려고 하였고 또 적들의 주요한 력량원천지로 되여있는 도시에서는 힘이 약하였으니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수 있었겠는가?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어떠한것이 부닥쳐도 주저하지 않으며 짜리 및 지주들파의 투쟁에서 용감하게 앞장서나아가며 농민을 예속과 무토지, 압박과 전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그러한 새 힘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그러한 힘이 로씨야에 있었는가? 물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힘과, 끝까지 싸울수 있는 능력, 용감성과 혁명성을 이미 1905년에 보여준 로씨야무산계급이였다.

어쨌든 그와 같은 힘은 다른데는 없었고 그것을 다른데서는 얻을수 없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농민은 립헌민주주의자들로부터 멀어져나와 사회혁명당원들에 붙었다가 드디여 로씨야무산계급과 같은 용감한 혁명의 수령의 령도를 받을 필요성을 깨닫게 되였다.

이러한것이 로씨야자산계급혁명의 독특성을 결정한 사정이다.

(3) **무산계급혁명시기의 농민.** 이 시기는 2월혁명(1917년)에서 10월혁명(1917년)까지의 기간을 포괄한다. 이 시기는 불과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기이다. 그러나 이 8개월은 대중의 정치적계몽과 혁명적교양의 견지로 보아 보통 립헌적발전의 수십년동안과 같다고 할수 있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 시기는 **혁명의** 8개월인 까닭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농민이 일층더 혁명화한것, 농민이 사회혁명당원에게서 실망을 느끼고 그들에게서 **떨어져나온것**, 나라의 평화를 가져올수 있는 유일

하게 철저한 혁명적세력인 무산계급의 주위에 직접 뭉치는 방향으로 농민이 새로이 전환한것이다. 이 시기의 력사는 농민을 전취하기 위한, 농민의 다수를 전취하기 위한 사회혁명당원(소자산계급민주주의자)과 볼쉐위크(무산계급민주주의자)간의 투쟁의 력사이다. 이 투쟁의 운명을 규정한것은 련합정부의 시기, 께렌스끼집권시기,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이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것을 거절한것,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이 전쟁을 계속하려고 투쟁한것, 전선에서의 6월공세, 병사들에 대한 사형제, 꼬르닐로브반란[79] 등이다.

이전, 지난 시기에는 짜리를 타도하고 지주권력을 전복하는것이 혁명의 기본문제였지만 이미 짜리는 없어졌고 끝없는 전쟁이 농민을 완전히 령락시키고 국내경제를 극도로 곤경에 빠지게 한 지금, 2월혁명후의 시기에는 전쟁을 종식시키는 문제가 혁명의 기본문제로 되였다. 중심은 순전한 국내적성질의 문제로부터 기본문제인 전쟁에 대한 문제로 분명히 옮겨졌다. 《전쟁을 끝내자》, 《전쟁에서 벗어나자》—이것이 지칠대로 지친 나라의, 그리고 우선 농민의 공통한 부르짖음이였다.

그런데 전쟁에서 벗어나려면 림시정부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자산계급의 정권을 전복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사회혁명당과 멘쉐위크의 정권을 전복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왜냐하면 전쟁을 《최후의 승리》까지 끌고가려고 한것은 그들이였으며 오직 그들만이였기때문이다. 전쟁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실 자산계급을 전복하는것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이것은 새로운 혁명, 즉 무산계급혁명이였다. 왜냐 하면 이 혁명은 제국주의적자산계급의 최후의 극좌적분파인 사회혁명당과 멘쉐위크파들을 정권에서 구축하고 새로운 무산계급정권, 쏘베트정권을 수립하였으며 혁명적무산계급의 당인 볼쉐위크당, 즉 제국주의전쟁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평화를 쟁

취하기 위하여 혁명적으로 투쟁하는 당이 정권을 잡게 하였기 때문이다. 절대다수 농민은 평화와 쏘베트정권을 전취하기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농민에게는 다른 출로가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었다.

이와 같이 께렌스끼집권시기는 근로대중에게 거대한 실제적교훈이 되였다. 왜냐 하면 이 시기는 사회혁명당과 멘쉐위크의 정권하에서는 나라가 전쟁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 농민들은 토지도 자유도 얻을수 없다는것,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이 립헌민주주의자와 다른 점은 단지 달콤한 말과 거짓약속을 하는데 있을뿐이지 실지는 꼭같은 제국주의적립헌민주당적정책을 실시한다는것, 그리고 나라를 바른길로 인도할수 있는 유일한 정권은 오직 쏘베트정권뿐이라는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기때문이다. 전쟁이 그후에 더 지속된것은 이 교훈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혁명을 촉진하고 수백만 농민과 군인 대중을 무산계급혁명주위에 직접 결속하는 길로 추동하였을따름이다. 사회혁명당과 멘쉐위크가 고립된것은 움직일수 없는 사실로 되였다. 련합정부시기의 이 명백한 교훈이 없었던들 무산계급독재는 불가능하였을것이다.

이것이 자산계급혁명이 무산계급혁명으로 전화하는 과정을 촉진시킨 사정들이다.

로씨야에서 무산계급독재는 이렇게 수립되였다.

(4) 쏘베트정권이 공고화된 이후시기의 농민. 이전, 혁명초기에는 문제가 주로 짜리제도를 전복하는데 있었고 또 그다음 2월혁명이후에는 문제가 우선 자산계급을 전복하고 제국주의전쟁에서 벗어나는데 있었지만 국내전쟁이 끝나고 쏘베트정권이 공고화된 이후인 오늘에 와서는 경제건설문제가 전면에 나서게 되였다. 국유화된 공업을 강화발전시키며, 그리기 위하여 국가의 통제를 받는 상업을 통하여 공업과 농민경제를

련결시키며, 량곡징수제를 현물세제로 바꾼 다음 점차로 현물세액을 낮추면서 농산물과 공업제품을 교환하는데 이르게 하도록 하며, 상업을 발전시키고 협동조합을 발전시켜 그곳에 수백만 농민을 망라시키는것 등이 바로 사회주의경제의 토대를 축성하는 도상에서의 경제건설의 당면과업들이라고 레닌은 서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업은 로씨야와 같은 농업국으로서는 힘에 겨운것일수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어떤 회의론자들은, 이 과업은 순전히 공상이고 실행될수 없는 일이다, 왜냐 하면 농민은 어디까지나 농민인것이며 그들은 소생산자들로 이루어진것만큼 그들을 리용하여 사회주의적생산의 토대를 축성할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 회의론자들은 오유를 범하고있다. 왜냐 하면 그들이 이 경우에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몇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있기때문이다. 그중 주요한것을 고찰하여보자.

첫째로, 쏘련의 농민을 서방의 농민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세차례의 혁명의 경험을 쌓았으며 무산계급과 함께 또 그를 선두로 하고 짜리와 자산계급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한 농민, 무산계급혁명에 의하여 토지와 평화를 얻었고 그러한 까닭에 무산계급의 예비군이 된 농민—바로 이 농민이 자산계급혁명시기에 자유주의자산계급을 선두로 하여 투쟁하였고 그 자산계급에게서 토지를 얻었으며 그러한 까닭에 자산계급의 예비군이 된 서방의 농민과 구별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무산계급과의 정치적친선 및 정치적협조를 중하게 여기는데 습관되였고 또한 그 친선과 그 협조의 덕택에 자기의 자유를 얻은 쏘련농민이 무산계급과 경제적으로 협조하는데 훌륭한 상대로 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당의 정권쟁취는

가까운 장래의 문제로 되였다.》《정권을 쟁취하자면 이 당은 우선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가야 하며 농촌에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어야 한다》(엥겔스의 《농민문제》, 1922년판을 보라).① 엥겔스는 서방의 농민을 념두에 두고 19세기 90년대에 이렇게 썼던것이다. 세차례의 혁명기간에 이 점에서 굉장한 사업을 해놓은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은 서방의 우리 동지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만한 그런 세력과 그런 거점을 농촌에 이미 축성하여놓았다는것을 구태여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러한 사정이 로씨야의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경제적협조를 근본적으로 촉진시키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어떻게 부정할수 있겠는가?

회의론자들은, 소농은 사회주의건설과 상용될수 없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엥겔스가 서방의 소농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를 들어보라.

《우리는 단연 소농의 편에 선다. 우리는 할수만 있다면 모든것을 다하여 그들의 운명을 보다 견딜수 있게 하여줄것이며 그들이 결심만 한다면 그들에게 협동조합에로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여줄것이며 심지어 그들이 아직 결심하지 못하고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분할지에 대하여 좀 생각하여볼 여유를 줄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것은 비단 우리가 자기 로동으로 살아가는 소농을 우리 편으로 삼을수 있다고 볼뿐만아니라 또한 당의 직접적리익으로도 된다고 보기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을 받아서 무산자로 현실적으로 전락하지 않고 아직 농민인채로 우리 편에 끌어올수 있는 농민들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변혁은 그만큼 더 빨리 그리고 쉽게 수행될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적생산발전의 후과가 도처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표현될 때까지, 수공업자와 소농의 마지막 한사람도 자본주의적대생산에 희생될 때까지 이 변혁을 기다리고있을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96페지를 보라.—편집자

필요는 없는것이다. 농민의 리익을 위하여 사회적자금에서 이러한 의미로 바쳐야 할 물질적희생은 자본주의적경제의 견지에서 본다면 순전히 내버리는 돈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훌륭한 투자일것이다. 왜냐 하면 그와 같은 물질적희생으로 전반적사회개조를 위한 비용은 아마도 10배나 절약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농민에게 매우 후하게 대할수 있다.》(우와 같음)①

엥겔스는 서방의 농민을 념두에 두고 이렇게 말한것이다. 그런데 엥겔스가 말한 그것이 무산계급독재의 나라에서처럼 그렇게 쉽게 또 완전하게 실현될수 있는 곳은 전혀 없다는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오직 쏘베트로씨야에서만 《자기 로동으로 살아가는 소농을 우리 편으로 삼을수 있다.》고 하는것도, 거기에 필요한 《물질적희생》을 하는것도, 그렇게 하려고 《농민에게 후하게 대하는것》도 지금 꼳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는것과 또 로씨야에서는 이 여러가지 조치와 그와 류사한 대책들이 농민에게 유리하게 벌써 실시되고있다는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자연 쏘베트국가의 경제건설사업을 용이하게 하며 또 추진시키리라는것을 어떻게 부인할수 있겠는가?

둘째로, 로씨야의 농업을 서방의 농업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서방의 농업은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길을 따라 한쪽에서는 대규모의 소유지와 사적자본주의의 대령지, 다른쪽에서는 대중의 극빈상태, 빈궁, 임금노예제—이러한 심각한 농민의 분화가 일어나는 환경속에서 발전되는것이다. 때문에 거기에서는 해체와 분화가 아주 당연한것이다. 그러나 로씨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나라의 농업은 쏘베트정권이 존재하며 기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11~312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본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였기에 그러한 발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 리유만으로도 그러한 길을 밟아 발전해나갈 수 없는것이다. 로씨야에서는 농업의 발전이 반드시 다른 길, 수백만 중소농민의 협동화의 길, 낮은 리자의 신용대부제로 국가의 원조를 받는 대중적협동조합이 농촌에서 발전되는 길을 밟아나가게 될것이다. 레닌이 협동조합에 관한 여러 론문에서 정당하게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농업은 반드시 새로운 길, 협동조합을 통하여 대다수 농민을 사회주의건설사업에 끌어들이는 길, 집단주의의 원칙을 농업에, 처음에는 농산물의 판매면에, 그다음에는 농산물의 생산면에 점차 도입하는 길을 밟아 발전해나아가야 할것이다.

여기서 매우 흥미있는것은 농업협동조합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에서 나타나고있는 몇가지 새 현상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련맹[80]내에는 아마, 감자, 식물유 등 농업부문별로 되는 새로운 대규모의 조직체들이 생겼는데 그것은 전망성이 매우 크다. 그중에서 례컨대 아마재배업자전로중앙련맹에는 아마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수많은 생산조합들이 망라되고있다. 아마재배업자전로중앙련맹은 농민들에게 종자와 생산도구를 공급하고 그후에는 그들에게서 아마생산물전부를 사들여 그것을 대량으로 시장에서 판매하며 농민들이 리익배당에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주며 전로농업협동조합련맹을 통하여 농민경제를 국영공업과 련결시키고있다. 이러한 생산조직형태를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것인가? 이것은 농업부문에서의 대규모의 국가-사회주의적생산의 가내수공업제도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여기서 국가-사회주의적생산의 가내수공업제도라고 말하는것은 례컨대 직물생산부문에서의 자본주의의 가내수공업제도와 비유해서 하는 말인데 후자의 경우에 수공업자들은 자본가에게서 원료와 도구를 받는 한편 자기들의 생산물전

부를 자본가에게 바치는, 사실상 반고용가내로동자들인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농업이 어떠한 길로 발전해나가야 하는가를 말하여주는 여러 표징중의 하나이다. 나는 다른 농업부문들에 관한 그와 같은 다른 여러가지 표징은 여기서 더 말하지 않겠다.

대다수 농민이 사적자본주의의 대령지와 임금노예제의 길, 빈궁과 령락의 길을 버리고 이러한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나서리라는것은 구태여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레닌은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길에 대하여 바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체의 대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권력, 무산계급의 수중에 있는 국가권력, 이러한 무산계급과 수백만의 소농 및 령세농과의 동맹, 농민에 대한 이들 무산계급의 지도의 확보 등등—이 모든것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 협동조합으로써, 오직 협동조합으로써만(우리는 이전에 이 협동조합을 소상인적이라고 멸시했던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신경제정책하의 지금도 역시 그렇게 멸시할 권리가 있다.)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부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아직 사회주의사회의 완전한 건설은 아니나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전부인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92페지를 보라.)①

레닌은 무산계급독재하에서의 《주민조직의 새로운 원칙이며》 또 새로운 《사회제도》인 협동조합을 재정적 및 기타 방법으로써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하였다.

《어떤 사회제도나 그것은 오로지 일정한 계급의 재정적지원밑에서만 발생하는것이다. 〈자유로운〉 자본주의의 탄생에 소용되였던 수억만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2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루블에 대하여서는 더 말할것도 없다. 우리가 오늘날 보통정도이상으로 지원하여야 할 사회제도는 협동조합제도라는 점을 우리는 지금 인식하고 그것을 실지로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지원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에서 이 제도를 지원하여야 할것이니 즉 이 지원을 임의의 협동조합거래에 대한 지원이라고 리해하는것은 불충분하며 이 지원은 현실적인 주민대중이 실지로 참가하는 그러한 협동조합거래의 지원을 의미하는것이라고 리해하여야 한다.》(우와 같은 책, 393페지)①

이 모든 사정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은 회의론자들이 옳지 않다는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근로농민대중을 무산계급의 예비군으로 보는 레닌주의가 옳다는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정권을 잡은 무산계급이 이 예비군을 리용할수 있으며 또 마땅히 리용하여 공업과 농업을 련결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또 사회주의경제로 이행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토대를 무산계급독재하에 두어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6
민 족 문 제

나는 이 제목에서 두가지 주요한 문제를 취급하려고 한다.

(ㄱ) 문제의 설정.

(ㄴ)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과 무산계급혁명.

(1) 문제의 설정. 민족문제는 최근 20년동안에 극히 중대한 여러가지 변화를 겪었다. 제2국제당시기의 민족문제와 레닌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3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주의시기의 민족문제는 결코 같은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 범위에 있어서뿐만아니라 그자체의 내재적성격에 있어서도 서로 현저하게 다르다.

이전에는 민족문제는 보통 주요하게 《문명한》 민족에 관한 문제라는 좁은 범위에 국한되여있었다. 아일랜드인, 웽그리아인, 뽈스까인, 핀란드인, 쎄르비야인, 기타 몇개의 구라파민족들—이러한것이 제2국제당의 활동가들이 그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있던,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 민족들이였다. 민족적압박을 가장 란폭하고 잔혹하게 받고있는 수천수억만의 아세아와 아프리카 민족들은 통례로 그들에 의하여 도외시되고있었다. 백인종과 흑인종, 《문명한 민족》과 《미개한 민족》들을 감히 동등지하지 못하였다. 식민지해방에 대한 문제를 애써 피하는 공허하고 애매한 몇개의 결의문—이것이 제2국제당의 활동가들이 자랑할수 있는 전부였다. 지금은 민족문제의 이러한 량면성과 불철저성은 청산되였다고 할수 있다. 레닌주의는 이 놀랄만한 부당성을 폭로하고 백인종과 흑인종, 구라파인과 아세아인, 제국주의의 《문명한》 노예와 《미개한》 노예들사이의 장벽을 허물어버렸으며 그리하여 민족문제와 식민지문제를 련결시켰다. 따라서 민족문제는 부분적이며 국내적인 문제로부터 일반적인 국제적문제로, 예속국과 식민지의 피압박민족들을 제국주의기반에서 해방하는 세계적문제로 되였다.

이전에는 민족자결의 원칙은 보통 외곡되여 흔히 민족자치권으로 좁혀지기까지 하였다. 제2국제당의 어떤 지도자들은 자결권을 지어는 문화자치권으로, 즉 모든 정권을 지배민족의 수중에 남겨둔채로 피압박민족이 자기의 문화시설만을 가지는 권리로 바꾸어버리는데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에서 민족자결의 사상은 합병을 반대하여 싸우는 도구로부터 합병을 정

당화하는 도구로 될 위험이 있었다. 지금은 이 혼란은 극복되였다고 할수 있다. 레닌주의는 민족자결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예속국과 식민지의 피압박민족들이 완전히 분립하는 권리로, 민족이 독립국가로서 존재하는 권리로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자결권을 자치권으로 해석함으로써 합병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리하여 제국주의전쟁당시에는 사회배외주의자들의 수중에서 의심할바없이 대중을 기만하는 도구로 되였던 바로 그 민족자결의 원칙이 온갖 제국주의적야망과 배외주의적음모를 폭로하는 도구로,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대중에게 정치적교양을 하는 도구로 되였다.

이전에는 피압박민족에 관한 문제를 보통 순전한 법적인 문제로 보았었다. 《민족적평등권》을 장엄히 선포하고 《민족의 평등》에 대한 무수한 선언을 내는것—한부분의 민족(소수)이 다른 부분의 민족을 착취함으로써 살아나가고있는 제국주의하에서는 《민족의 평등》이란 피압박민족을 조롱하는것일뿐이라는 사실을 말살하고있는 제2국제당의 당들은 이러한 성명과 선언에만 그쳤다. 지금은 민족문제에서 이러한 자산계급법적 견지가 폭로되였다고 할수 있다. 레닌주의는 민족문제를 과장된 선언의 허공에서 땅우에 내려놓고 피압박민족의 해방투쟁을 무산계급당들이 직접 지지하지 않는 그런 《민족의 평등》이라는 선언들은 공허한 기만적선언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피압박민족에 관한 문제는 그들이 실제적인 민족평등을 위하여, 독립적국가의 존재를 위하여 제국주의와 싸우는것을 지지하고 원조하는, 실제로 부단히 원조하는 문제로 되였다.

이전에는 민족문제를 자본의 권력에 대한, 제국주의의 전복에 대한, 무산계급혁명에 대한 일반적문제와 관계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문제인것처럼 개량주의적으로 보고있었다. 구라파에서의 무산계급의 승리는 식민지의 해방운동과의 직접적동

맹이 없이도 가능하며 민족-식민지문제의 해결은 무산계급혁명의 큰길에서 떨어져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진행하지 않고도 조용히, 《저절로》 실현될수 있는것이라고 묵인하여왔었다. 지금은 이 반혁명적견해는 폭로되였다고 할수 있다. 레닌주의가 론증하고 제국주의전쟁과 로씨야혁명이 실증하다싶이 민족문제는 무산계급혁명과 련결되여야만 또 그 기초우에서만 해결될수 있으며 서방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식민지와 예속국들의 해방운동과의 혁명적동맹을 거쳐야만 이루어진다. 민족문제는 무산계급의 혁명의 일반적문제의 한부분이며 무산계급독재에 관한 문제의 한부분이다.

문제는 이렇게 선다. 즉 피압박국가들의 혁명적해방운동내부에 있는 혁명적가능성은 벌써 없어졌는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무산계급혁명을 위하여 그 가능성을 리용함으로써 예속국과 식민지들을 제국주의적자산계급의 예비군에서 혁명적무산계급의 예비군으로, 그의 동맹자로 전화시킬 가망과 근거가 있는가?

레닌주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즉 피압박국가들의 민족해방운동내부에 혁명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며 공동의 적을 전복하기 위하여, 제국주의를 전복하기 위하여 그 능력을 리용할수 있다고 대답한다. 제국주의발전의 내막과 제국주의전쟁과 로씨야혁명은 이에 대한 레닌주의의 결론을 전적으로 확증하고있다.

여기에서 《지배권을 가진》 민족의 무산계급이 피압박 및 예속국 민족들의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해야 할, 결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필요성이 나온다.

물론 이것은 무산계급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개별적,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 온갖 민족운동을 다 지지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제국주의를 강화하며 유지하기 위한 민

족운동이 아니라 그것을 약화시키며 전복하기 위한 그러한 민족운동을 지지할데 대하여 말하는것이다. 개별적피압박국가의 민족운동이 무산계급운동의 발전의 리해관계와 충돌되는 경우가 있는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지에 대하여 운운할수도 없다는것이 자명하다. 민족의 권리에 대한 문제는 고립된 독자적문제인것이 아니라 전체에 종속된, 그리고 전체의 견지에서 관찰할것을 요구하는 무산계급혁명에 관한 전반적문제의 한부분인것이다. 19세기 40년대에 맑스는 뽈스까인과 웽그리아인의 민족운동을 찬성하였고 체스꼬인, 남슬라브인의 민족운동을 반대하였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그때에 체스꼬인과 남슬라브인은 《반동적민족》이고 구라파에서의 《로씨야의 전초》, 전제제도의 전초였으며 뽈스까인과 웽그리아인은 전제제도를 반대하여 싸우는 《혁명적민족》이였기때문이다. 그것은 그때에 체스꼬인과 남슬라브인의 민족운동을 지지하는것은 구라파의 혁명운동의 가장 위험한 적인 짜리제도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것을 의미하였기때문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결도 포함한 민주주의운동의 개별적인 요구는 절대적인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일반민주주의(현재는 일반사회주의)운동의 일소부분인것이다. 개별적인 구체적경우에는 부분이 일반에 모순될수도 있다. 그때에는 이 부분을 거부하여야 한다.》(《레닌전집》, 모문판, 제3판, 제19권, 257~258페지를 보라.)①

개별적인 민족운동에 대한 문제와 그 운동들이 가질수 있는 반동적성격에 대한 문제는(만일 그것을 물론 형식적견지, 추상적법의 견지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혁명운동에 대한 리해관계의 견지에서 평가한다면) 이러하다.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863페지를 보라.—편집자

민족운동일반의 혁명적성격에 대하여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말해야 한다. 약간한 개별적인 민족운동에 있을수 있는 반동성이 상대적이고 또 특수적인것처럼 압도적다수의 민족운동의 의심할바없는 혁명성도 상대적이고 또 특수적인것이다. 제국주의가 압박하는 정세하에서의 민족운동의 혁명적성격은 그 운동속에 무산계급적요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것, 그 운동의 혁명적 또는 공화주의적 강령이 존재한다는것, 그 운동의 민주주의적기초가 존재한다는것을 전제로 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독립을 위한 아프가니스탄 에미르의 투쟁은 그와 그의 전우들의 견해가 군주제적형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혁명적**투쟁인것이다. 왜냐 하면 그 투쟁은 제국주의를 약화시키며 와해시키며 파괴하기때문이다. 그런데 폐컨대 께렌스끼와 쩨레쩰리, 러노델과 샤이데만, 체르노브와 단, 헨더슨과 클라인즈 같은 《맹렬한》 민주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 《혁명가》들과 공화주의자들의 제국주의전쟁당시의 투쟁은 **반동적**투쟁이였다. 왜냐 하면 그 투쟁은 제국주의를 미화하며 강화하며 승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때문이다. 애급의 독립을 위한 애급상인들과 자산계급지식인들의 투쟁도 역시 이러한 리유로 인하여 그 애급민족운동의 지도자들이 자산계급출신이며 자산계급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사회주의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는 **혁명적**투쟁인것이다. 그런데 애급의 예속상태를 유지하려는 영국《로동자》정부의 투쟁은 그 정부성원들이 무산계급출신이며 무산계급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사회주의를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러한 리유로 인하여 **반동적**투쟁인것이다. 해방의 길로 나가는 매걸음이 지어 형식적민주주의의 요구를 위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제국주의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고있는, 다시말하면 의심할바없이 **혁명**

적인 걸음으로 되고있는 인도와 중국 같은 비교적 큰 기타의 식민지와 예속국들의 민족운동에 대하여서는 나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피압박국가들의 민족운동을 형식적, 민주주의적 견지에서가 아니라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의 총결산에 주는 실제적결과의 견지에서, 다시말하면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세계적규모에서》 평가하여야 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9권, 257페지를 보라.)①고 레닌이 말한것은 옳은 말이다.

(2)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과 무산계급혁명. 민족문제를 해결할 때 레닌주의는 다음과 같은 명제에서 출발한다.

(ㄱ) 세계는 두 진영으로, 즉 금융자본을 소유하고 지구상의 주민의 대다수를 착취하는 극소수의 문명한 민족들의 진영과 대다수를 이루는 식민지 및 예속국들의 피압박 및 피착취 민족들의 진영으로 나뉘여졌다.

(ㄴ) 금융자본의 압박과 착취를 당하는 식민지와 예속국들은 제국주의세력의 가장 큰 예비이며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ㄷ)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예속국과 식민지의 피압박민족의 혁명적투쟁은 그들이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

(ㄹ) 가장 중요한 식민지와 예속국들은 전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수 없는 민족해방운동의 길에 벌써 들어섰다.

(ㅁ) 발전된 나라들의 무산계급운동과 식민지들의 민족해방운동의 리해관계로 보아 이 두가지 형태의 혁명운동은 공동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862페지를 보라. —편집자

의 적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전선에 련합되여야 한다.

(ㅂ) 발전된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이 승리하며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피압박민족들이 해방되자면 공동혁명전선을 결성하고 그것을 공고화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ㅅ) 공동혁명전선을 결성하자면 압박민족들의 무산계급이 《자국》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을 결정적으로 직접 지지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타민족을 압박하는 민족은 자유로울수 없기》(엥겔스)때문이다.

(ㅇ) 이런 지지는 민족의 분립권, 민족의 독립적국가로서의 존재권의 구호를 고수하고 옹호하며 실천하는것을 의미한다.

(ㅈ) 이 구호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세계사회주의가 승리할수 있는 물질적기초로 되는 통일적인 세계경제내에서 여러 민족이 련합하고 협조할수 없다.

(ㅊ) 이러한 련합은 오로지 민족들의 호상신임과 우애관계의 기초우에서 나오는 자연적련합이여야 한다.

이로부터 민족문제의 두가지 측면, 두가지 경향이 나온다. 즉 하나는 제국주의적기반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해방되며 독립적민족국가를 형성하려는 경향으로서 이는 제국주의적 압박과 식민지적착취에 기초하여 발생하며 다른 하나는 민족들이 경제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으로서 이는 세계시장과 세계경제가 형성됨에 따라 발생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본주의의 발전행정에서 민족문제의 두가지 력사적경향을 볼수 있다. 첫째 경향은 민족적생활 및 민족운동의 각성, 온갖 민족적억압을 반대하는 투쟁, 민족국가의 창건이다. 둘째 경향은 민족들간의 온갖 종류의 교제의 발전과 빈번화, 민족적장벽의 파괴, 자본, 전반 경제생활, 정치, 과학 등등의 국제적통일의 형성이다.

이 두 경향은 자본주의의 세계적법칙이다. 첫째 경향은 자본주의발전의 초기에 우세하였고 둘째 경향은 자본주의가 성숙한, 그리고 사회주의사회로의 전화의 길을 밟고있는 표징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7권, 139~140페지를 보라.)①

제국주의에 대하여 말하면 이 두가지 경향은 조화할수 없는 모순이다. 왜냐 하면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착취하며 그것을 폭력으로 《통일적인 전일체》의 틀안에 가두어두지 않고서는 존재할수 없기때문이며, 또한 제국주의는 합병과 식민지강점의 방법으로써만 민족들을 접근시킬수 있으며, 이러한 합병과 식민지강점이 없이는 제국주의란 일반적으로 말해서 상상할수도 없기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공산주의에 대하여 말하면 이 두가지 경향은 한가지 사업, 즉 피압박민족들을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해방하는 사업의 두 측면일따름이다. 왜냐 하면 공산주의는, 민족들은 오직 그들사이의 호상신임과 자원적협정의 원칙우에서만 통일적인 세계경제체계에 련합될수 있다는것, 민족들이 자원적련합을 형성하는 길은 《통일적인》 제국주의《전일체》에서 식민지를 분립케 하며 그것을 독립국가로 전변시키는데로 나아간다는것으로 리해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국의 제국주의정부와 투쟁하려고 하지 않으며, 압박에서 해방되여 국가적으로 분립하려는 《그들의》 식민지 피압박민족들의 투쟁을 지지하려고 하지 않는 지배민족들(영국, 프랑스, 미국, 이딸리아, 일본 등)의 《사회주의자》들의 대국배외주의와 완강하게 부단히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국제주의정신으로,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0권, 10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예속국과 식민지들의 근로대중과 접근하는 정신으로, 무산계급혁명을 실제로 준비하는 정신으로 지배민족들의 로동계급을 교양할수 없다. 만일 로씨야무산계급이 구로씨야제국에 속하였던 피압박민족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면 로씨야혁명은 승리하지 못하였을것이며 끌챠크와 제니낀은 격파되지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그 민족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자면 로씨야의 무산계급은 우선 로씨야제국주의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그 민족들을 민족적압박에서 해방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쏘베트정권을 공고히 하며 진정한 국제주의를 배양하며 장차 통일적인 세계경제에서 민족들이 이룩할 련합의 산 원형인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이라고 부르는 각 민족 협조의 훌륭한 조직을 창건할수 없었을것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좁은 민족적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으며 또 자기 나라의 해방운동과 지배국의 무산계급운동과의 련계를 리해하지 못하는 피압박국가사회주의자들의 민족적 폐쇄성, 편협성, 고립성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쟁이 없이는 공동의 적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제국주의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피압박민족무산계급의 독자적정책을 고수하며 이 무산계급과 지배국무산계급과의 계급적련대성을 고수할수 없다.

이러한 투쟁이 없이는 국제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이러한것이 지배민족과 피압박민족의 근로대중을 혁명적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길이다.

국제주의의 정신으로 로동자들을 교양하는 공산주의사업의 이 두 측면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교양…은 과연 큰 압박민족과 작은 피압박민족에 있어서, 합병민족과 피합병민족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동일할수 있겠는가?

없을것은 명백하다. 모든 민족이 완전한 평등권을 가지며 매우 긴

빌히 접근하며 나아가서는 뭄합되게 하는 공동의 목적을 이룩하자면 확실히 각이한 구체적인 길로 나아가게 된다. 말하자면 한장의 종이복판에 있는 점에로 가는 길이 그 종이의 한쪽 끝으로부터는 왼편을, 그 반대끝으로부터는 바른편을 통과하는것과 같다. 만일 타민족을 압박하고 합병하는 대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가 일반적으로 민족의 융합만 고취하면서 〈자국의〉 니꼴라이2세, 〈자국의〉 윌헬름, 죠지, 뿌앵까레 등등도 역시 소민족과의 뭄합(합병에 의한)믈 주잠한다는것—니꼴라이2세는 갈리찌야와의 〈융합〉을, 윌헬름2세는 벨지끄와의 〈융합〉을, 기타 등등을 주장한다는것—을 잠시라도 망각한다면 이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자는 리론면에서는 가소로운 교조주의자로 되며 실천면에서는 제국주의의 방조자로 될것이다.

압박하는 나라에 있어서 로동자들의 국제주의적교양의 중점은 반드시 압박받는 나라의 분리의 자유를 선전하며 로동자들이 그것을 고수하도록 하는데 두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국제주의는 없다. 만일 압박민족의 그 어떤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이러한 선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제국주의자로, 무용지물로 취급할 권리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설혹 분리의 기회가 사회주의실현이전에 있어서는 천분의 1밖에 가능하지 못하며 천분의 1밖에 〈실현될〉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무조건적인 요구인것이다.…

반대로 소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기의 선동의 중점을 우리의 일반적 정식의 둘째 문구 즉 제 민족의 〈자원적련합〉에다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는 국제주의자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위반함이 없이 자기 민족의 정치적독립도 찬성할수 있고 또 어느 린접국가에 자기 민족을 가입시키는것도 찬성할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그는 전체적이며 전반적인 리익을 고려하며 전반적리익에다 부분적리익을 복종시키기 위하여 소민족적 편협성, 폐쇄성, 고립성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압박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는 〈분리의 자유〉를 주장하며 피압박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는 〈련합의 자유〉를 주장하는것이 〈모순〉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면 국제주의와 각 민족의 융합에로 가는 길, 현재의 상태로부터 이 목적에

로 가는 다른 길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것을 알게 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9권, 261～262페지를 보라.)①

7

전략과 전술

나는 이 제목에서 여섯가지 문제를 취급하려고 한다.

(ㄱ)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의 지도에 관한 과학으로서의 전략과 전술.

(ㄴ) 혁명의 단계와 전략.

(ㄷ) 운동의 만조 및 퇴조와 전술.

(ㄹ) 전략적지도.

(ㅁ) 전술적지도.

(ㅂ) 개량주의와 혁명주의.

(1)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의 지도에 관한 과학으로서의 전략과 전술. 제2국제당이 지배하던 시기는 주로, 얼마간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정세하에서 무산계급의 정치적군대를 편성하며 훈련하는 시기였다. 그것은 의회제도를 계급투쟁의 주되는 형태로 간주하던 시기였다. 그때에는 계급들간의 대충돌에 대한 문제, 무산계급을 혁명적전투에 나서도록 훈련하는 문제, 무산계급독재를 전취하는 방도에 대한 문제는 당면한 문제가 아닌듯싶었다. 당시의 과업은 무산계급의 군대를 편성하고 훈련하기 위하여 합법적발전의 모든 방도를 리용하는것이였으며 무산계급이 반정부당의 립장에 있었고 또 반정부당의 립장에 있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생각된 그런 제 조건에 맞게끔 의회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867～868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제도를 리용하는것이였다. 이러한 시기에는, 또 무산계급의 과업을 이렇게 리해하고있던 때에는 완전한 전략도, 세밀한 전술도 있을수 없었던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그때에는 전술과 전략의 토막들과 개개의 사상은 있었으나 전술과 전략은 없었다.

제2국제당의 치명적죄행은 그 당시에 의회적투쟁형태를 리용하는 전술을 쓴데 있는것이 아니라 이 형태를 거의 유일한 것인듯이 여기면서 이 형태의 의의를 지나치게 평가한데 있으며 또 공개적혁명투쟁의 시기가 닥쳐오고 의회밖에서의 투쟁형태문제가 선결문제로 되였을 때에도 제2국제당의 여러 당들이 새로운 과업을 거부하고 그것을 접수하지 않은데 있는것이다.

다음시기 즉 무산계급이 공개적으로 진출하는 시기, 무산계급혁명시기, 자산계급의 전복문제가 직접적실천문제로 되고 무산계급의 예비군에 대한 문제(전략)가 가장 긴절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 투쟁과 조직의 모든 형태들—의회적형태와 의회밖에서의 형태(전술)—이 완전히 명확하게 나타난 시기, 이 시기에 와서 비로소 무산계급의 투쟁에 대한 완전한 전략과 세밀한 전술이 규정될수 있었던것이다.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자들에 의하여 파묻혀버린 전술과 전략에 대한 맑스와 엥겔스의 천재적사상을 레닌이 날날이 발굴해놓은것은 바로 이 시기였다. 그런데 레닌은 맑스와 엥겔스의 개개의 전술적명제들을 부활시키는데 그치지는 않았다. 그는 그 모든것을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을 지도하는 정치과 지도원칙의 체계에 결합하면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또 새로운 사상과 명제들로 보충하였다. 《무엇을 할것인가?》, 《두가지 전술》, 《제국주의론》, 《국가와 혁명》, 《무산계급혁명과 변절자 카우쯔키》, 《소아병》과 같은 레닌의 소책자들은 의심할바없이 가장 고귀한 기여로서 맑

스주의의 총보물고에, 맑스주의의 혁명적무기고에 들어갈것이다. 레닌주의의 전략과 전술은 무산계급의 혁명투쟁의 지도에 관한 과학이다.

(2) **혁명의 단계와 전략.** 전략은 혁명의 주어진 단계의 토대우에서 무산계급이 가할 주되는 타격방향을 규정하는것이며 혁명력량(주되는 예비군과 부차적예비군)을 배치할 적절한 계획을 작성하는것이며 혁명의 주어진 단계의 전 기간에 걸쳐서 그 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우리의 혁명은 이미 두 단계를 거쳤고 10월혁명후에는 셋째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서 전략도 바뀌여졌다.

첫째 단계. 1903~1917년 2월. 목적은 짜리제도를 전복하고 중세기제도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자는것이였다. 혁명의 기본력량은 무산계급이였다. 가장 가까운 예비군은 농민이였다. 주요타격방향은, 농민을 전취하려고 하며 짜리제도와의 타협에 의하여 혁명을 청산하려고 하는 자유주의적-군주주의적자산계급을 고립시키는것이였다. 력량배치계획은 로동계급이 농민과 동맹하는것이였다. 《무산계급은 폭력으로써 전제제도의 반항을 분쇄하며 자산계급의 불견실성이 백을 추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농민대중을 자기 편에 끌어넣으면서 민주주의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8권, 96페지를 보라.)①

둘째 단계. 1917년 3월~1917년 10월. 목적은 로씨야의 제국주의를 전복하고 제국주의전쟁에서 벗어져나오는것이였다. 혁명의 기본력량은 무산계급이였다. 가장 가까운 예비군은 빈농이였다. 린접국가들의 무산계급은 예상할수 있는 예비군이

---

① 《레닌선집》, 제1권, 776~777페지를 보라.—편집자

였다. 오래 지속된 전쟁과 제국주의의 위기는 유리한 계기였다. 주요타격방향은 근로농민대중을 전취하려고 하며 제국주의와 타협하여 혁명을 끝장내려고 하는 소자산계급민주파(멘쉐위크, 사회혁명당)를 고립시키는것이였다. 력량배치계획은 무산계급이 빈농과 동맹하는것이였다. 《무산계급은 폭력으로써 자산계급의 반항을 격파하며 농민과 소자산계급의 불견실성이 백을 추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중의 반무산자대중을 자기 편에 끌어넣으면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우와 같음.)

셋째 단계. 이 단계는 10월혁명이후에 시작되였다. 목적은 한 나라에서 무산계급독재를 공고히 하여 그것을 모든 나라에서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거점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혁명이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났고 세계혁명의 시대가 시작되였다. 혁명의 기본력량은 한 나라의 무산계급독재와 모든 다른 나라의 무산계급의 혁명운동이다. 주요예비군은 발전된 나라들의 반무산계급대중과 소농민대중이며 식민지 및 예속국들의 해방운동이다. 주요타격방향은 소자산계급적민주파를 고립시키는것, 제국주의와 타협하는 정책의 주요거점으로 되고있는 제2국제당의 여러 당들을 고립시키는것이다. 력량배치계획은 무산계급혁명과 식민지 및 예속국들의 해방운동과의 동맹이다.

전략은 혁명의 기본력량 및 그 예비군과 관련된다. 전략은 주어진 단계의 전 기간내에는 기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혁명이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달라진다.

(3) 운동의 만조 및 퇴조와 전술. 전술은 운동의 만조 및 퇴조, 혁명의 앙양과 쇠퇴의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무산계급의 행동방침을 결정하는것이며 투쟁과 조직의 낡은 형태를 새 형태로 바꾸며 낡은 구호를 새 구호로 바꾸며 또 그 형태들을

결합하는 등으로 그 방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이다. 전략이 이를테면 짜리제도나 자산계급파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짜리제도나 자산계급파의 투쟁을 끝까지 수행하는것을 목적으로 삼는것이라면 전술은 이보다 덜 중요한 목적을 내세우는것이다. 왜냐 하면 전술은 전체로서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전역, 어떤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는것이며 혁명의 어떤 앙양기 또는 쇠퇴기의 구체적정세에 맞는 어떤 운동과 어떤 행동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것이기 때문이다. 전술은 전략의 일부분이며 전략에 종속되며 전략에 복무한다.

전술은 만초와 퇴조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 혁명의 첫단계의 시기(1903~1917년 2월)에는 전략적계획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전술은 그동안에 여러 번 달라졌다. 1903~1905년시기의 당의 전술은 진공이였다. 왜냐 하면 그 시기는 혁명의 만조기였으며 운동의 고조에 달하였으므로 전술은 이 사실에서 출발하여야 하였기때문이다. 여기에 알맞는 투쟁형태도 혁명의 만조의 요구에 맞는 혁명적형태였다. 지방적정치파업, 정치적시위, 정치적총파업, 의회보이꼬트, 폭동, 혁명적-전투적구호—이러한것이 이 시기에 서로 엇바뀐 투쟁형태였다. 당시 조직형태도 투쟁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달라졌다. 공장위원회, 농민혁명위원회, 파업위원회, 로동자대의원쏘베트, 어느 정도 공개적인 로동자당—이러한것이 이 시기의 조직형태들이였다.

1907~1912년시기에는 당은 부득이 퇴각전술로 넘어가게 되였다. 왜냐 하면 우리는 그 당시 혁명운동의 쇠퇴, 혁명의 퇴조기에 처하였기때문이며 따라서 전술은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기때문이다. 여기에 알맞게 투쟁형태도 조직형태도 달라졌다. 의회를 보이꼬트할 대신에 의회에 참가하고 의회밖에서의 공개적인 혁명적활동을 할 대신에 의회내에서의

활동과 의회내에서의 사업을 하고, 정치적총파업을 단행할 대신에 부분적인 경제적파업을 진행하거나 지어는 침묵을 지켰다. 이 시기에는 물론 당이 지하로 들어가야 하였고 그리고 혁명적 대중단체들이 문화계몽단체, 협동조합, 보험 기타의 합법적단체들로 바뀌여졌다.

혁명의 둘째 단계와 셋째 단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말하여야 할것이다. 즉 이 전 기간을 통하여 전략적계획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전술은 수십번이나 달라졌다.

전술은 무산계급의 투쟁형태 및 조직형태, 그 형태들의 교체, 그 형태들의 결합과 관련된다. 전술은 혁명의 주어진 단계의 기초우에서 혁명의 만조와 퇴조, 앙양과 쇠퇴에 따라 여러 번 달라질수 있다.

(4) **전략적지도.** 혁명의 예비군에는 두가지가 있다.

직접적예비군. (ㄱ) 자국내의 농민과 모든 중간층들, (ㄴ) 린접국들의 무산계급, (ㄷ) 식민지 및 예속국들의 혁명운동, (ㄹ) 무산계급독재의 전리품과 성과들—무산계급은 강력한 적을 매수하고 숨돌릴 시간을 얻기 위하여 자체의 우세를 확보하는 조건에서 그 전취물과 성과중에서 일부분을 일시 포기할 수도 있다.

간접적예비군. (ㄱ) 무산계급의 적을 약화시키며 자기의 예비군을 강화하기 위하여 리용할수 있는 자국내의 비무산계급들사이의 여러가지 모순과 충돌, (ㄴ) 무산계급이 공격하거나 또는 부득이 퇴각하게 되는 경우에 기동작전에 리용할수 있는 무산계급국가에 적대되는 자산계급국가들간의 모순, 충돌 및 전쟁(레컨대 제국주의전쟁)이다.

첫째 종류의 예비군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다 그 의의가 명백한것이므로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의의가 언제나 명료하다고는 할수 없는 둘째 종류의 예비군이 혁명행정에

있어서 때로는 제1차적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말해야 하겠다. 례컨대 제1차혁명당시와 그 혁명후에 소자산계급민주파(사회혁명당)와 자유주의적-군주주의적자산계급(립헌민주당)간에 있은 충돌의 거대한 의의를 부인할수는 없을것이다. 그 충돌은 의심할바없이 자산계급의 영향에서 농민을 해방하는 사업에서 자기의 역할을 놀았다. 10월혁명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주요 집단들간에 결사적전쟁이 있은 그 사실의 거대한 의의를 부인할 근거는 더욱 없다. 이때에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사이의 전쟁에 몰두하여 청소한 쏘베트정권을 반대해서 힘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무산계급은 자기의 력량을 조직하며 자기의 정권을 공고히 하는데 전력하여 끌챠크와 제니낀을 박멸할 준비를 할수 있었던것이다. 제국주의집단들간의 모순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들사이의 새 전쟁이 불가피한것으로 된 지금 이러한 종류의 예비군은 무산계급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전략적지도의 과업은 혁명발전의 주어진 단계에서 혁명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모든 예비군을 옳게 리용하는데 있다.

예비군을 옳게 리용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몇가지의 필요한 조건들을 실행하여야 하는데 그중에서 주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첫째, 혁명이 이미 성숙되고 공격이 전력으로 진행되고 폭동이 박두하고 예비군을 전위대에 집결시키는것이 성공의 결정적인 조건으로 된 그러한 결정적순간에 혁명의 주력을 적의 가장 약한 점에 집중하여야 한다. 1917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당의 전략은 예비군을 이와 같이 리용한 실례라고 볼수 있다. 의심할바없이 그 시기의 적의 가장 약한 점은 전쟁이였다. 의심할바없이 당은 기본문제인 바로 이 문제에서 무산계급전

위대의 주위에 아주 광범한 대중을 집결시켰다. 그 시기의 당의 전략은, 시위운동으로써 전위대에게 가두진출의 훈련을 시키면서 동시에 후방에서는 쏘베트를 거쳐서, 전선에서는 병사위원회를 거쳐서 예비군을 전위대에 집결시켰다. 혁명의 결말은 예비군을 옳게 리용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레닌은 폭동에 관한 맑스와 엥겔스의 유명한 명제를 다른 말로 설명하면서 력량을 전략적으로 리용하는 그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결코 폭동을 희롱하지 말며 폭동을 개시하면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는것을 확고하게 알아야 한다.

(2) 결정적지점에는 결정적순간에 훨씬 더 우세한 력량을 집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는다면 보다 우수한 준비와 조직을 가지고있는 적은 폭동자들을 절멸시킬것이기때문이다.

(3) 일단 폭동이 개시된 이상은 최대의 결단성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하며 기어이 무조건적으로 공격으로 넘어가야 한다. 〈방어는 무장폭동의 죽음이다.〉

(4) 적군이 분산되여있는 틈을 포착하여 불의에 적을 습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반드시 〈사기의 우세〉를 유지하면서 아무리 사소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나날이(한 도시가 문제로 되고있다면 시시각각으로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겨두어야 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1권, 319~320페지를 보라.)①

둘째, 위기가 극도에 달하고 끝까지 싸우려는 전위대의 각오, 전위대를 지지하려는 예비군의 각오, 적의 대렬내에서 극도로 당황해하는 상태가 이미 현존하는것 등을 타산하여 결정적타격의 시기, 폭동을 개시할 시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343페지를 보라. —편집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우리에게 적대되는 일체 계급 세력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고 그들간에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있으며 힘에 넘치는 투쟁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기진해》졌다면, 《(2) 주저하고 동요하고 불견고한 모든 중간분자들, 즉 자산계급과는 구별되는 소자산계급과 소자산계급적민주파가 인민앞에서 자신을 충분히 폭로하고 그의 실제적파산으로써 형편없이 수치를 당하였》다면, 《(3) 무산계급가운데서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가장 결정적이며 한없이 과감한 혁명적행동을 지지할만큼 대중의 기분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또 더욱 힘차게 고조되게 되였다》면 《바로 이런 때라야만 혁명은 성숙된것이며 또 이런 때에 만일 우리가 우에서 지적한…일체 조건을 정확히 타산하며 시기를 정확히 선택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229페지를 보라.)①

10월폭동의 수행을 이러한 전략의 모범으로 볼수 있다.

이런 조건을 위반하는 때에는 당은 운동행정에서 뒤떨어지든지 또는 앞으로 너무 나가 실패의 위험을 조성함으로써 《속도의 상실》이라고 하는 위험한 오유를 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속도의 상실》의 실례, 폭동의 시기를 옳게 선택할줄 모르는 실례는 쏘베트내에서는 아직 동요가 나타나고있었고 전선은 아직 갈림길을 벗어나지 못하였고 예비군은 아직 전위대에게로 집결되여있지 않았던 때인 1917년 9월에 민주주의협의회[81] 성원들을 체포함으로써 폭동을 개시하려고 한 일부 동지들의 시도이다.

셋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앞길에 가로놓여있는 모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면서 이미 채택된 방침을 꾸준히 실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전위대가 투쟁의 기본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대중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목적을 향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48페지를 보라. —편집자

해 나아가면서 전위대의 주위에 결속되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 조건을 위반하는 때에는 《방향상실》이라는 말로써 배군들에게 잘 알려져있는 큰 오유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방향상실》의 실례로는 민주주의협의회직후에 예비의회에 참가할 결정을 채택한 우리 당의 그릇된 행동이다. 예비의회는 우리 나라를 쏘베트의 길에서 자산계급의회제도의 길로 넘어가게 하려고 자산계급이 꾸며낸것이며 당이 그러한 기관에 참가하는것은 전 계획을 혼란에 빠뜨릴수 있는것이며 《모든 정권을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밑에서 혁명투쟁을 진행하는 로동자, 농민을 탈선하게 할수 있다는것을 당은 이 순간에 잊어버린셈이다. 이 오유는 예비의회로부터 볼쉐위크들이 탈퇴하는것으로써 시정되였다.

넷째, 적이 강할 때, 퇴각이 불가피할 때, 적이 강요하는 전투에 응하는것이 불리할 때, 퇴각이 그때의 력량관계로 보아 전위대를 타격으로부터 빼여내며 전위대를 위하여 예비군을 보전해두는 유일한 수단으로 되는 때에는 예비군으로써 기동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정확히 퇴각하여야 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혁명적당들은 끝까지 배워야 한다. 이 당들은 공격하는것을 배웠다. 이제는 이 지식은 어떻게 하면 보다 옳게 퇴각할것인가 하는 지식으로써 보충될 필요가 있다는것을 리해하여야 한다. 옳게 공격하며 옳게 퇴각하는것을 배우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것을 리해하여야 한다. —혁명계급은 그자신의 쓰라린 경험에 의하여 이것을 깨닫게 되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77페지를 보라.)①

이러한 전략의 목적은 시간적여유를 얻으며 적을 와해시킨 다음에 공격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힘을 축적하는데 있는것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85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다.

이러한 전략의 모범으로 볼수 있는것은 브레스트강화조약82의 체결이다. 이 조약은 당으로 하여금 시간적여유를 얻으며 제국주의진영내의 충돌을 리용하며 적의 력량을 와해시키며 농민을 자기 편에 보전해두며 그리고 뻘챠크와 제나낀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기 위하여 힘을 축적할수 있게 하여주었다.

레닌은 당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단독강화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는 이 시기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도에서 적대적인 두 제국주의적그루빠로부터 해방되며 그들의 상호간의 적대시와 전쟁을 리용하여—이런 적대시와 전쟁은 우리를 반대하기 위하여 그들이 결탁하는것을 방해한다.—사회주의혁명을 계속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일정한 시기의 행동자유를 얻을수 있게 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2권, 198페지를 보라.)①

레닌은 브레스트강화조약을 체결한후 3년이 지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에 있어서는 최대의 머저리들조차도 〈브레스트강화〉가 우리의 힘을 강화하였으며 국제제국주의의 력량을 분산시킨 양보였다는것을 본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7페지를 보라.》②

전략적지도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주는 주요조건들은 이러하다.

(5) **전술적지도.** 전술적지도는 전략적지도의 일부분으로서 전략적지도의 과업과 요구에 종속되는것이다. 전술적지도의 과업은 해당 력량관계에서 전략적성공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결과들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하여 무산계급의 모든 투쟁형태와 조직형태를 파악하며 그것을 옳게 리용하도록 보장하는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415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제4권, 556페지—편집자

데 있다.

어떻게 하여야 무산계급의 투쟁형태와 조직형태들을 옳게 리용할수 있는가?

그것은 몇가지 필요한 조건을 실행하여야 하는데 그중에서 주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의 해당한 단조 또는 퇴조의 조건들에 가장 알맞게 대중을 혁명적진지에로 끌고나가며 수백만 대중을 혁명전선에로 끌고나가며 그들을 혁명전선에 배치하는것을 촉진하고 보장할수 있는 바로 그러한 투쟁형태와 조직형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문제는 전위대가 낡은 제도는 유지될수 없으며 낡은 제도는 불가피하게 전복된다는것을 의식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대중, 수백만 대중이 이 불가피성을 리해하고 전위대를 지지할 각오를 표시하는데 있다. 그런데 대중은 다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그것을 리해할수 있다. 파업은 수백만 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구정권전복의 불가피성을 알아차릴수 있게 하며 대중이 경험에 의하여 혁명적구호의 정당성을 깨닫는것을 용이하게 할 그러한 투쟁방법과 그러한 조직형태들을 내세우는것이다.

만일 당이 제때에 의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당이 의회내의 활동에 력량을 집중하여 그 활동에 립각해서, 대중자신이 의회가 아무 쓸모 없는것이라는것, 립헌민주당의 약속이 거짓이라는것, 짜리제도와의 타협이 불가능하다는것, 농민과 로동계급과의 동맹이 불가피하다는것 등을 경험을 통하여 쉽게 깨닫도록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전위대는 로동계급과 리탈되였을것이며 로동계급은 대중과의 련계를 잃어버렸을것이다. 의회시기의 대중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립헌민주당을 폭로할수 없었을것이며 무산계급

은 령도권을 장악할수 없었을것이다.

소환주의[83]적전술의 위험성은 그것이 전위대를 그 수백만의 예비군과 리탈되게 한다는데 있었다.

만일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으로 하여금 전쟁과 제국주의의 지지자로서의 정체를 폭로하게 할수 없었고 평화, 토지, 자유에 대한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의 언사가 허위라는것을 대중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미처 깨닫지 못한 때인 1917년 4월에 폭동을 일으키라고 호소한 《좌익》공산주의자[84]들을 무산계급이 본받았더라면 당은 로동계급과 리탈되였을것이며 로동계급은 광범한 농민 및 병사 대중속에 가지고있던 영향력을 상실하였을것이다. 께렌스끼집권시기의 대중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은 고립되지 않았을것이며 무산계급독재는 불가능하였을것이다. 그러므로 소자산계급당들의 오유를 폭로하는 《인내성있는 해설》과 쏘베트내에서의 공개적투쟁의 전술은 유일하게 옳은 전술이였다.

《좌익》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의 위험성은 그것이 당으로 하여금 무산계급혁명의 수령으로부터 실속없는, 그리고 근거없는 음모자들의 조그마한 무리로 변하게 할수 있다는데 있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위대만으로써는 승리할수 없다. 아직 전체 계급이 그리고 광범한 대중이 전위대를 직접 지지하거나 혹은 적어도 전위대에 대하여 호의적중립의 태도를 취하는…때에 오직 전위대만을 결정적전투로 내모는것은 어리석은 일일뿐만아니라 또한 범죄적인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전체 계급이 그리고 자본의 압박을 받는 참으로 광범한 근로대중이 그러한 립장에까지 이르도록 하자면 한갓 선전과 선동만으로는 부족한것이다. 그렇게 되자면 그 대중자신의 정치적경험이 필요한것이다. 이것이 지금 로씨야에서뿐만아니라 독일에서도 놀랄만큼 힘차게 또 명백히 실증된 모든 대혁명의 기본법칙이다. 로씨야

의 문명하지 못한 흔히는 전혀 무식한 대중뿐만아니라 고도로 문명하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읽고 쓸줄 아는 독일의 대중에게도 그들이 결정적으로 공산주의에로 전환하기 위하여서는 제2국제당의 기사들로 이루어진 정부의 온갖 무기력, 온갖 무정견, 온갖 무능력, 자산계급에 대한 온갖 굴종과 온갖 비열성을 몸소 체험하는것이 필요하였으며 또 무산계급독재가 아니라면 전혀 불가피적으로 극단적반동들의(로씨야에서 쯔르닐로브, 독일에서 카프일파의) 독재를 대하는수밖에 없다는것을 몸소 체험하는것이 필요하였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228페지를 보라.)①

둘째, 소여의 매 시기에 전 과정의 련쇄중에서 어느 한 고리를 틀어쥠으로써 전 련쇄를 틀어쥘수 있으며 전략적성과를 얻기 위한 조건들을 준비할수 있는 그러한 특수한 고리를 얻어내여야 한다.

문제는 당앞에 나서는 여러가지 과업중에서 해결의 중심점이 되고 그것을 수행하면 기타의 당면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당면과업을 하나 선택하여내는데 있다.

이 명제의 의의는 두가지 실례를 들어 설명할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오랜 과거(당이 형성되던 시기)에서 취할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현재(신경제정책시기)에서 취할수 있다.

무수한 소조와 조직들은 아직 서로 련계를 맺지 않았고 수공업적방식과 소조기풍이 우에서 아래까지 당을 침식하고있었으며 사상적혼란이 당의 내부생활의 특징으로 되여있던 때인 당의 형성기, 이 시기에는 전 로씨야적 비합법신문(《이스크라》9)을 창간하는것이 당시 당앞에 나서고있던 여러가지 과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46~247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업중에서 기본과업이였으며 련쇄중에서 기본고리였다. 어째서 그런가? 그것은 당시의 조건에서는 다만 전 로씨야적 비합법 신문을 통하여서만 무수한 소조와 조직들을 한덩어리로 묶어 세우고 사상적, 전술적 통일의 조건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당을 결성할 토대를 쌓을수 있는 당의 하나로 뭉친 핵심을 육성할수 있었기때문이다.

공업은 붕괴될 지경으로 침체상태에 있었고 농업은 도시 제품의 부족으로 인하여 곤난을 겪고있었으며 국영공업을 농민경제와 련결시키는것이 성과적인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조건으로 되였던, 전쟁에서 경제건설로 이행하는 시기, 이 시기에는 상업의 발전이 사변행정의 련쇄중에서 기본고리였고 다른 많은 과업중에서 기본과업이였다. 어째서 그런가? 그것은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는 상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공업을 농민경제와 련결시킬수 없기때문이며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는 판로가 없는 생산은 공업을 파멸시키기때문이며 상업을 발전시켜 판로를 확장함으로써만 공업을 확장할수 있기때문이며 오직 상업부문이 공고하게 되고 상업을 틀어쥐고 그 고리를 틀어쥐여야만 비로소 사회주의경제의 토대를 건설할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업을 농민시장과 결합시키며 기타의 당면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것을 기대할수 있을것이기때문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혁명가나 사회주의의 지지자 또는 공산주의자로 되는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련쇄전체를 틀어잡고 다음고리에로의 확고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는 전력을 다하여 잡아쥐여야 할 특별한 고리를 매시기마다 발견할줄 알아야 한다.…》

《현재…그러한 고리는 국가의 옳바른 조절(지휘)하에서 국내상업을 활발화하는 그것이다. 상업—이것은 제 사건의 력사적련쇄에서, 즉 1921~1922년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의 과도적형태에서…〈전력을 다

하여 잡아쥐여야 할 > 그런 <고리>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82페지를 보라.)①

이러한것이 전술적지도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주는 주요조건들이다.

(6) 개량주의와 혁명주의. 혁명적전술은 개량주의적전술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레닌주의는 온갖 개량을 반대하며 온갖 조화와 타협을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전혀 옳지 않다. 볼쉐위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는거라면 무엇이고 좋다.》는것, 어떤 조건하에서는 개량이, 부분적으로는 조화 및 타협이 필요하며 유익하다는것을 어느 누구에 못지않게 잘 알고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제자산계급을 전복하기 위한 전쟁, 즉 국가들간에 보통 있는 그런 전쟁중의 가장 격렬한 전쟁보다 백배나 더 어렵고 장구한 시일을 요하는 복잡한 전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동적방법, 적들사이에 있는 리해관계의 모순(비록 일시적인것일지라도)의 리용, 가능한 동맹자(비록 일시적이고 불견고하고 불안정하고 조건부적일지라도)와의 조화와 타협을 미리부터 거부한다는것, 이것은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이것은 실로 지금까지 탐사되지 않았고 종래로 사람이 올라가본적이 없는 대단히 험악한 산을 오르면서 어떤 때는 우회도 하고 어떤 때는 뒤걸음도 치며 이미 선택한 방향을 버리고 다른 여러 방향을 잡아 시험해보는것을 미리부터 거부하는것과 같지 않은가?》(《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210페지를 보라.)②

문제는 분명히 개량에나 또는 조화와 타협에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개량과 타협을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있는것이다.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577페지와 578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225페지를 보라. —편집자

개량주의자에게는 개량이 전부이며 혁명사업은 이야기거리, 눈가림으로나 되는 보잘것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자산계급정권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개량주의적전술에 의한 개량은 불가피적으로 자산계급정권을 공고히 하는 무기, 혁명을 와해시키는 무기로 되고만다.

혁명가에게는 그와 반대로 주되는것이 혁명사업이지 개량은 아니다. 그에게는 개량은 혁명의 부산물인것이다. 그러므로 자산계급정권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혁명적전술에 의한 개량은 자연히 그 정권을 와해시키는 무기, 혁명을 공고히 하는 무기, 혁명운동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거점으로 되는 것이다.

혁명가는 개량을 합법적사업과 비합법적사업을 이어주는 고리로 리용하기 위하여, 자산계급을 전복하게끔 대중을 혁명적으로 훈련할 목적으로 비합법적사업을 강화하는데 엄폐물로 리용하기 위하여 그것을 용납하는것이다.

여기에 제국주의의 조건하에서 개량과 타협을 혁명적으로 리용하는 전술의 본질이 있다.

그와 반대로 개량주의자들은 온갖 비합법적사업을 거부하며 대중을 혁명에로 훈련하는 사업을 파괴하며 《은사된》 개량의 비호밑에서 안식하기 위하여 개량을 용납한다.

여기에 개량주의적전술의 본질이 있다.

제국주의의 조건하에서의 개량과 타협에 대한 문제는 이러하다.

그러나 제국주의를 전복한후 무산계급독재하에서는 문제가 약간 달라진다. 무산계급정권은 일정한 조건과 일정한 정세하에서는 현존제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길로부터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조하는 길로, 레닌의 유명한 론문 《금의 의의에

관하여》① 가운데서 말한바와 같이 《개량주의적길로》, 우회운동의 길로, 비무산계급들을 와해시키고 혁명에 숨돌릴 시간을 주어 력량을 집중하여가지고 새로운 공격을 할 조건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개량의 길로, 비무산자계급들에 양보하는 길로 부득이 일시 넘어가게 될수도 있다. 이 길이 어떤 의미에서는 《개량주의적》길이라는것을 부인할수 없다. 다만 명심해두어야 할것은, 여기에는 하나의 근본적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개량이 이 경우에는 무산계급정권으로부터 출발하는것이며 무산계급정권을 공고히 하며 그 정권에 필요한 숨돌릴 시간을 주는것이며 혁명을 와해시키려는것이 아니라 비무산계급들을 와해시키려는 사명을 띤것이라는것이다.

이와 같이 개량은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그 대립물로 전화한다.

무산계급정권이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는것은 그 이전 시기에 혁명의 규모가 상당히 컸고 이리하여 공격전술을 일시적인 퇴각전술로, 우회운동의 전술로 바꾸어 퇴각할수 있으리만큼 상당히 광대한 무대를 주었기때문에, 오직 그렇기때문에 가능한것이다.

이와 같이 종전에 자산계급정권하에서는 개량이 혁명의 부산물이였지만 오늘에 와서, 무산계급독재하에서는 무산계급의 혁명적전취물과 또 이 전취물로써 이루어졌고 무산계급의 수중에 축적되여있는 예비가 개량의 원천으로 되는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혁명과 개량과의 관계는 오직 맑스주의에 의해서만 정확하게 또 정당하게 규정되였다. 그러나 맑스는 이 관계를 다만 한 측면으로부터만, 즉 비록 단 한 나라에서만이라도 무산

---

① 레닌의 《현재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후의 금의 의의에 관하여》.(《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574~581페지를 보라.)—편집자

계급이 최초의 어느 정도 견고한, 그리고 어느 정도 영속적인 승리를 달성하지 못한 환경하에서만 볼수 있었던것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의 정당한 관계의 기본은 다음과 같은것이였다. 즉 개량도 무산계급의 혁명적인 계급투쟁의 부산물이다.… 비록 한 나라에서만이라도 무산계급이 승리한후에는 혁명과 개량과의 사이에 있어서 새로운것이 나타난다. 원칙적으로는 사태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형식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그리고 이 변화는 맑스가 직접 예견할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오직 맑스주의의 철학과 정치학의 기초우에서만 인식할수 있는것이다. … 승리후에는 개량은(국제적규모에서는 여전히 《부산물》이지만) 무산계급이 승리를 얻은 나라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들의 최고도의 긴장한 투쟁이 있은후 어떠한 이행을 혁명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확실히 힘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필요하며 정당한 휴식인것이다. 승리는 심지어 부득이한 후퇴를 단행하는 경우에서도 유지될수 있는—물질적의미에서도 정신적의미에서도 유지될수 있는—그러한 〈힘의 저장〉을 준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84～85페지를 보라.)①

8
당

혁명전 시기 즉 제2국제당의 여러 당들이 로동운동에서 지배적세력으로 되였고 의회투쟁형태가 투쟁의 기본형태로 인정되였던 다소간 평화적인 발전의 시기에는—그러한 조건하에서는 당이 후에 공개적인 혁명적전투의 조건하에서 가지게 된것과 같은 그러한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고 또 가질수도 없었다. 카우쯔키는 제2국제당에 대한 공격을 변호하면서 말하기를 제2국제당의 여러 당들은 평화의 도구이지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580페지와 581페지를 보라. —편집자

전쟁의 도구는 아니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 당들은 전쟁시기, 무산계급의 혁명적진출의 시기에는 아무러한 중대한 대책도 취할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아주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것은 제2국제당의 여러 당들이 무산계급의 혁명적투쟁에는 소용이 없으며 그 당들은 로동자들을 정권전취에로 인도하는 무산계급의 전투적당들인것이 아니라 의회선거와 의회투쟁에 적응한 선거기관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자들이 지배하던 시기에는 무산계급의 기본적정치조직이 당이 아니라 의회의원단이였다는 사실도 바로 이것에 기인하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실상 이 시기에 당은 의회의원단의 부속물이였고 심부름군이였다. 그러한 조건하에서 또 그러한 당을 선두로 하여가지고는 무산계급을 혁명에로 준비시킨다는것이 운운될수도 없었다는것은 구태여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새시기가 닥쳐옴에 따라서 사태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새시기는 계급간에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시기이며 무산계급이 혁명적으로 진출하는 시기이며 무산계급혁명의 시기이며 무산계급이 제국주의를 전복하고 정권을 잡기 위한 력량을 직접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새로운 혁명적방법에 기초하여 모든 당사업을 개조하며 정권을 잡기 위한 혁명투쟁의 정신으로 로동자들을 교양하며 예비군을 준비하고 인입하며 린접국의 무산자와 동맹하며 식민지, 예속국들의 해방운동과 튼튼한 련계를 맺는 등등의 새로운 과업들을 무산계급앞에 내세웠다. 이 새로운 과업들이 의회주의의 평화로운 환경하에서 교양된 낡은 사회민주주의적당들의 힘으로 해결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절망과 피할수 없는 실패의 운명에 자신을 내맡긴다는것으로 된다. 이러한 과업들을 짊어지고서도 낡은 당들의 지도하에 그대로 남아있다는것은 완전한 무장해제

상태에 처하는것이다. 무산계급이 이러한 상태를 참을수 없었던것은 구태여 증명할 필요도 없다.

이로부터 무산계급을 정권을 위한 투쟁에로 인도할수 있을만큼 용감하고 혁명적정세의 복잡한 조건들을 리해할만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있고 목적에 도달하는 길에 놓인 온갖 암초를 에돌아나갈만큼 충분한 신축성을 가진 새로운 당, 전투적당, 혁명적당이 필요하게 되였다.

이러한 당이 없이는 제국주의의 전복과 무산계급독재의 전취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

이 새로운 당이란 레닌주의의 당이다.

이 새로운 당의 특성은 무엇인가?

(1) 당은 로동계급의 선봉적부대이다. 당은 무엇보다도먼저 로동계급의 선봉적부대로 되여야 한다. 당은 로동계급의 모든 우수한 분자들을 흡수하며 그들의 경험, 그들의 혁명성, 무산계급의 위업에 대한 그들의 무한한 헌신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당이 참으로 선봉적부대가 되려면 반드시 혁명적리론, 운동의 법칙에 대한 지식, 혁명의 법칙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당이 무산계급의 투쟁을 령도하며 무산계급을 이끌고나갈수 없다. 만일 당이 로동계급대중이 체험하고 생각하고있는것을 기록하는데만 그친다면, 만일 당이 자연발생적운동의 뒤꼬리를 따라간다면, 만일 당이 자연발생적운동의 보수성과 정치적무관심을 극복할줄 모른다면, 만일 당이 무산계급의 일시적리해관계를 초월할줄 모른다면, 만일 당이 무산계급의 계급적리해관계를 인식하는 수준에까지 대중을 끌어올릴줄 모른다면 당은 진정한 당으로 될수 없다. 당은 로동계급의 선두에 서야 하며 로동계급보다 멀리 내다보아야 하며 자연발생적운동의 뒤꼬리를 따를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을 이끌고나가야 한다. 《추미주의》를 설교하는

제2국제당의 여러 당들은 무산계급을 자산계급의 손아귀에 든 도구의 역할밖에 못하게 하는 자산계급정책의 전파자들이다. 무산계급의 선봉적부대의 견지에 섰고 또 대중을 무산계급의 계급적리해관계를 인식하는 수준에까지 끌어올릴줄 아는 당만이 로동계급을 조합주의의 길에서 떼여내여 독자적인 정치적 력량으로 만들수 있다.

당은 로동계급의 정치적수령이다.

나는 우에서 로동계급의 투쟁의 난관, 투쟁환경의 복잡성, 전략과 전술, 예비군과 기동성, 공격과 퇴각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 조건들은 적어도 전쟁의 조건들에 못지않게 복잡하다. 누가 이 조건들을 판단할수 있으며 누가 수백만의 무산자대중에게 옳은 방향을 가리켜줄수 있는가? 어떠한 군대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경험있는 사령부를 꼭 가져야 한다. 만일 무산계급이 자기의 불구대천의 적에게 먹히우지 않으려면 더구나 그러한 사령부가 없어서는 안된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그러면 그 사령부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사령부로 될수 있는것은 오로지 무산계급의 혁명적당이다. 혁명적당이 없는 로동계급은 사령부가 없는 군대이다.

당은 무산계급의 전투적사령부이다.

그러나 당은 한갓 선봉적부대만으로는 될수 없다. 동시에 당은 자기 계급과 밀접하게 련결된 자기 계급의 부대, 자기 계급의 한부분이 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선봉적부대와 이여의 대중간의, 당원들과 비당원들간의 차이는 아직 계급이 없어지지 않고 무산계급이 다른 계급출신으로써 보충되고 로동계급전체가 선봉적부대의 수준에까지 올라설 가능성을 못 가지는 한 없어질수 없다. 그러나 만일 이 차이가 장벽이 되여버리거나 당이 문을 걸고 들어앉아 비당원대중으로부터 떨어져 버린다면 그 당은 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것이다. 만일

당이 비당원대중과 련결되지 않고 당과 비당원대중간의 련계가 없고 그리고 그 대중이 당의 지도를 접수하지 않으며 당이 대중속에서 도덕적 및 정치적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그 당은 계급을 지도할수 없다.

얼마전에 로동자들중에서 20만명을 새로 우리 당에 받아들였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 사람들스스로가 당에 들어왔다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비당원대중이 그들을 당에 파견하였다는 그 점이다. 즉 비당원대중은 신입당원을 받아들이는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그들의 동의를 받고 신입당원들을 받아들였던것이다. 이 사실은 광범한 비당원로동자대중이 우리 당을 **자기의 당**으로, 자기에게 **친근한 혈연적인 당**으로 간주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이며 그들이 당의 확대와 공고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으며 자기의 운명을 당의 지도에 자진하여 내맡긴다는것을 말한다. 당을 비당원대중과 련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정신적실오리가 없이는 당이 자기 계급의 결정적력량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당은 로동계급의 떼여낼수 없는 한부분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계급의 당이기때문에 거의 **전체 계급**이(그리고 전쟁시기, 국내전쟁시대에는 완전히 전체 계급이) 우리 당의 령도하에서 행동해야 하며 될수 있는데로 긴밀히 우리 당에 접근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거의 전체 계급 또는 전체 계급이 아무때나 자기의 선봉적부대 즉 자기의 사회민주당의 각성정도와 적극성의 정도에까지 제고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닐로브정신35이며 〈추미주의〉일것이다. 사리에 밝은 사회민주주의자치고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짐지어 로동조합조직(비교적원시적이며 그리고 락후한 계층의 의식수준에 비교적 쉽게 접수될수 있는 조직)까지도 거의 전체 로동계급이나 또는 전체 로동계급을 망라할수 없다는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선봉적부대와 그들을 따라가는 전체 군

중과의 차이를 망각하며 이러한 선봉적수준에까지 더욱더 광범한 계층을 제고시켜야 할 선봉적부대의 경상적인 책임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끝자기를 기만하는것이며 우리의 거대한 파업에 대하여 눈을 감는것이며 이 파업을 축소하는데 지나지 않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6권, 205~206페지를 보라.)①

(2) 당은 로동계급의 조직된 부대이다. 당은 다만 로동계급의 선봉적부대일뿐만이 아니다. 당이 자기 계급의 투쟁을 참으로 지도하려면 동시에 자기 계급의 조직된 부대로 되여야 한다.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당의 파업은 아주 방대하고도 다양하다. 당은 국내외의 발전이 아주 어려운 조건하에서 무산계급의 투쟁을 령도하여야 하며 정세가 공격을 요구할 때에는 무산계급을 공격으로 이끌어야 하며 정세가 퇴각을 요구할 때에는 적의 강력한 타격으로부터 무산계급을 건져내야 하며 수백만의 조직되지 않은 비당원로동자대중에게 투쟁에서의 규률성, 계획성, 조직성과 인내성의 정신을 주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은 그자체가 규률성, 조직성의 구현자이며 그자체가 무산계급의 조직된 부대인 경우에라야만 이 파업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조건들이 없이는 당이 수백만의 로동자대중을 참으로 지도한다는것은 운운할수도 없다.

당은 로동계급의 조직된 부대이다.

조직된 전일체로서의 당에 관한 사상은 우리 당 규약 제1조에 있는 레닌이 제기한 유명한 조목에 규정되여있는데 거기에서는 당을 조직들의 총화로 보고 당원을 당의 한 조직의 일원으로 보고있다. 이미 1903년에 이 조목을 반대한 멘쉐위크들은 이 조목 대신에 자유입당《제도》, 즉 일정하게 당을 지지하기는 하나 당의 어느 한 조직에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

---

① 《레닌선집》, 제1권, 605~606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기를 원치도 않는 매개《교수》와《중학생》, 매개《동정자》와《파업자》에게 당원이라는《칭호》를 주자는《제도》를 내놓았다. 만일 이 괴상한《제도》가 우리 당내에 자리잡게 되였더라면 당은 불가피하게 교수들과 중학생들로 가득찼을것이며 그리하여《동정자》들의 바다속에서 녹아버리며 당과 계급사이의 한계를 지워버리며 비조직대중을 선봉적부대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당의 과업을 포기하는 그러한 분산적이고 무정형하고 혼란된《구성물》로 퇴화하였을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이러한 기회주의적《제도》하에서는 우리 당이 우리 혁명의 행정에서 로동계급을 조직하는 핵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을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마르또브동지의 견해에 의하면 〈매개의 파업참가자〉들이 다 〈자기를 당원으로 선언〉할수 있기때문에 당의 한계는 극히 불명확하다. 이와 같은 불명확한 한계에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그저 〈칭호〉를 널리 전파하는것뿐이다. 그대신에 그것은 당과 계급을 혼동하는, 조직을 해체시키는 사상을 조성시키는 악과를 가져온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6권, 211페지를 보라.)①

그러나 당은 당조직들의 총화만이 아니다. 동시에 당은 상급과 하급의 지도기관을 가지며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 모든 당원이 수행해야 할 실제적결정을 가지고있는 이 조직들의 하나의 체계이며 그 조직들이 하나의 전일체에 정식으로 망라된 결합체이다. 이 조건들이 없이는 당은 로동계급의 투쟁을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하나의 조직된 전일체로 될수 없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우리 당이 이전에는 정식으로 조직

① 《레닌선집》, 제1권, 613~614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된 전일체가 아니고 개별적인 집단들의 총화에 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집단들사이에는 사상적작용이외에 다른 아무런 관계도 있을수 없었다. 지금 우리들은 조직된 당으로 되였다. 그리고 이것은 권력을 창설하며 사상상의 권위를 권력의 권위로 전화시키며 당의 하급기관이 당의 상급기관에 복종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6권, 291페지를 보라.)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과 중앙에서 당사업을 지도하는 원칙은 견실하지 못한 분자들의 공격, 《관료주의》니 《형식주의》니 무엇이니 하는 비난을 종종 일으킨다. 이 원칙들을 실시함이 없이는 전일체로서의 당이 계획적인 사업을 할수 없으며 로동계급의 투쟁을 지도할수 없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조직문제에서의 레닌주의는 이 원칙들을 꾸준히 실시한다. 레닌은 이 원칙들을 반대하는것을 마땅히 조소하고 규탄하여야 할 《로씨야허무주의》, 《귀족적무정부주의》라고 하였다.

레닌은 자기의 저서 《1보전진》에서 이러한 견실하지 못한 분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귀족적무정부주의는 로씨야허무주의자에게 특유한것이다. 당조직은 허무주의자에게는 기괴한 〈공장〉으로 생각되며 부분이 전체에 복종하며 소수가 다수에 복종한다는것이 그들에게는 〈농노제〉로 보이며… 중앙의 지도하에서 분공을 한다는 말만 들으면 그들은 사람을 〈작은 차륜이나 나사못〉으로 만드는것이라고 반대하여 희비극적인 소리를 지르며…당의 조직규약에 대한 말만 들으면 그들은 경멸한다는듯이 얼굴을 찡그리며 규약이 전혀 없어도 좋을것이라고 모멸적인…언사를 던진다.》

《생각컨대 그 소위 관료주의를 떠들어대는것은 분명히 중앙기관의 인원구성에 대한 불만을 엄폐하는것에 지나지 않으며…추행을 엄폐하려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7권, 360페지를 보라. —편집자

는데 지나지 않는다. 너는 관료주의자다. 왜냐 하면 너는 나의 의사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도리여 나의 의사에 반하여 당대회에서 임명되였기 때문이다. 너는 형식주의자다. 왜냐 하면 너는 나의 동의에 립각하지 않고 당대회의 형식적인 결정서에 립각하고있기때문이다. 너의 행동은 심히 기계적이다. 왜냐 하면 너는 당대회의 〈기계적〉인 다수에 의거하고있으며 보선에 의하여 보충되고싶다는 나의 희망을 무시하고있기때문이다. 너는 전제군주이다. 왜냐 하면 너는 오랜 정든 동료들①에게 권력을 양도하기 싫어하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6권, 310페지와 287페지를 보라.)②

(3) 당은 무산계급의 계급적조직의 최고형태이다. 당은 로동계급의 조직된 부대이다. 그러나 당은 로동계급의 유일한 조직은 아니다. 무산계급에게는 또한 다른 여러 조직들이 있다. 그것은 직업동맹, 협동조합, 공장내의 조직, 의회의원단, 비당녀성단체, 출판기관, 문화계몽단체, 청년동맹, 혁명적전투조직(공개적인 혁명적활동시기의), 국가적조직형태로서의 대의원쏘베트(무산계급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 등등인데 이 조직들이 없이는 무산계급은 자본을 반대하여 성과적으로 투쟁할수 없다. 이 조직들의 대다수는 당밖에 있는 조직으로 그중 일부분만이 당과 직접 련결되고있거나 당의 결가지를 이루고 있을뿐이다. 이 모든 조직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로동계급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왜냐 하면 이 조직들이 없이는 다양한 투쟁령역에서 무산계급의 계급적진지를 강화할수 없으며 자산계급제도를 사회주의제도로 바꿀 사명을 띤 력량으로서의 무산계급을 련마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조직이 이렇게 많은

---

① 여기서는 제2차당대회의 결정에 복종하지 않고 레닌에게 《관료주의》가 있다고 비난한 악쎌로드, 마르또브, 뽀뜨레쏘브 등 《동료》들을 말한다. —이. 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7권, 386페지와 356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경우에 통일적지도를 어떻게 실현할것인가? 조직들이 많다 해도 지도상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 있는가? 이 조직들은 각각 자기의 특수한 령역에서 활동하므로 서로 지장이 될수 없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그것은 물론 옳다. 그러나 이 모든 조직이 한 방향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도 옳다. 왜냐 하면 이들 조직은 한 계급 즉 무산자계급에게 봉사하기때문이다. 문건대 이 모든 조직들이 활동할 때 의거해야 할 그 로선, 그 총적방향을 누가 규정하는가? 필요한 경험을 가지고있어서 이 총적로선을 작성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또 이에 필요한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있어서 이 모든 조직들이 이 로선을 실현하도록 함으로써 령도상에서 통일을 가져오고 혼란을 없앨수 있는 가능성까지 가진 그러한 중앙조직이 어디 있는가?

그러한 조직은 무산계급의 당이다.

당은 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있다. 왜냐 하면 첫째로 당은 무산계급의 비당적조직들과 직접 련결되여있고 또 일상적으로 그 조직들을 령도하고있는 로동계급의 가장 우수한 분자들의 집합처이기때문이며, 둘째로 로동계급의 가장 우수한 분자들의 집합처로서의 당은 자기 계급의 모든 형태의 조직들을 령도할줄 아는 로동계급의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가장 훌륭한 학교이기때문이며, 셋째로 로동계급의 지도자들의 가장 훌륭한 학교로서의 당은 그 경험과 권위로 보아 무산계급의 투쟁에 대한 령도를 집중하며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일체 비당적조직을, 당과 계급을 련결하는 봉사기관과 뉴대로 만들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기때문이다.

당은 무산계급의 계급적조직의 최고형태이다.

이것은 물론 비당적조직들 즉 직업동맹, 협동조합 등등이 공식상으로 당의 령도에 복종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오직 이 조직들에 들어있는 당원들은 의심할 바없이 권위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비당적조직들이 자기들의 활동에서 무산계급의 당과 접근하며 또 자발적으로 당의 정치적령도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모든 방책을 취한다는데 있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레닌은 당은 《무산자의 계급적단결의 **최고**형태》이며 그의 정치적령도는 무산계급의 기타 모든 형태의 조직에 미쳐야 한다고 말하였던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94페지를 보라.)①

바로 그렇기때문에 비당적조직들의 《독립》과 《중립》이라는 기회주의적리론은 **무소속**의회 의원들이나 당을 **떠난** 출판계 활동가들, **식견이 좁은** 로동조합운동자들이나 **너절한** 협동조합일군들을 새끼치는 리론인데 이 리론은 레닌주의의 리론 및 실천과는 전혀 상용될수 없다.

(4) **당은 무산계급독재의 도구이다.** 당은 무산계급조직의 최고형태이다. 당은 무산자계급내에서 또 이 계급의 각 조직들중에서 주되는 지도적핵심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을 목적자체로, 독자적힘으로 간주할수 있다는것은 결코 아니다. 당은 무산자의 계급적단결의 최고형태일뿐만아니라 동시에 아직 독재가 전취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독재를 전취하기 **위한** 그리고 이미 독재가 전취된 경우에는 그 독재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무산계급의 수중에 있는 **도구**이다. 만일 무산계급이 정권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만일 제국주의의 조건, 전쟁의 불가피성, 공황의 현존이 자산계급을 전복하고 무산계급독재를 전취하기 위하여 무산계급의 모든 력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06페지를 보라, —편집자

량을 한곳에 집중하며 혁명운동의 모든 실오리를 한곳에 집결할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당은 그 의의를 그처럼 제고하지 못하였을것이며 무산계급의 다른 모든 조직형태들을 자기 산하에 망라하지 못하였을것이다. 당은 무엇보다도먼저 정권을 성과적으로 전취하는데 필요한 전투적사령부로서 무산계급에게 필요한것이다. 자기 주위에 무산계급의 대중적조직들을 묶어세우며 투쟁행정에서 운동전체에 대한 령도를 집중할수 있는 당이 없이는 로씨야무산계급이 자기의 혁명적독재를 실현할수 없으리라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그러나 당은 독재를 전취하기 위해서만 무산계급에게 필요한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독재를 유지하며 그 독재를 강화하고 확대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무산계급에게 필요한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우리 당에 극히 엄격하고 참으로 강철같은 규률이 없었더라면, 만일 우리 당이 전체 로동계급대중의, 즉 로동계급중 의식있고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유력하며 또 뒤떨어진 층을 지도하여 이끌어들일 능력이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우리 당에 대한 전폭적이며 열성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면 볼쉐위크들은 2개년 반은 고사하고 2개월 반도 주권을 유지할수 없었으리라는것은 아마 지금에 와서는 이미 일반이 거의다 깨달았을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73페지를 보라.)①

그런데 독재를 《유지》하며 《확대》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수백만의 무산자대중에게 규률성과 조직성을 주입하는것을 의미하며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성과 소자산계급적습관의 부식적인 영향을 막는 방패와 방벽을 무산자대중속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80~181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에 만들어놓는것을 의미하며 소자산계급층들을 재교양하고 개조하기 위한 무산자의 조직자적사업을 지지하는것을 의미하며 계급들을 소멸하며 사회주의적생산을 조직하기 위한 조건들을 준비할수 있는 력량으로서 자신을 육성하도록 무산자대중을 도와주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모든것을 수행하려면 단결되고 규률있는 강력한 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산계급독재는 낡은 사회의 세력들과 그 전통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이며 류혈적 및 비류혈적, 폭력적 및 평화적, 군사적 및 경제적, 교육적 및 행정적인 투쟁이다. 수백수천만 사람들의 관습의 힘이란 가장 무서운 힘이다. 투쟁에서 단련된 강철같은 당이 없이는, 그 계급의 모든 성실한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당이 없이는, 대중의 기분을 살피며 대중에게 영향을 줄줄 아는 당이 없이는 이런 투쟁을 성과있게 진행할수 없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90페지를 보라.)①

당은 독재를 전취하며 유지하기 위하여 무산계급에게 필요하다. 당은 무산계급독재의 도구이다.

여기서는 계급이 없어지고 무산계급독재가 없어지면 당도 반드시 없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5) 당은 분파의 존재와는 상용할수 없는 의지의 통일체이다. 무산계급독재를 전취하고 유지하자면 단결되고 강철같은 규률이 있는 강력한 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내의 강철같은 규률은 의지의 통일이 없이는, 모든 당원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행동통일이 없이는 상상할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 물론 당내에서의 의견투쟁의 가능성이 이때문에 없어진다는것은 아니다. 반대로 강철같은 규률은 당내에서의 비판과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00페지를 보라.—편집자

의견 투쟁을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한다. 더우기 이것은 규률이 《맹목적》이여야 한다는것은 아니다. 반대로 강철같은 규률은 자각적이며 자발적인 복종을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한다. 왜냐 하면 다만 자각적규률만이 참으로 강철같은 규률로 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의견투쟁이 끝나고 비판이 충분히 되고 결정이 채택된후에는 모든 당원들의 의지의 통일과 행동통일이 필수적조건으로 되며 그것이 없이는 통일적인 당도 당내의 강철같은 규률도 상상할수 없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치열한 국내전쟁의 현시기에 있어서 공산당은 그가 가장 철저한 중앙집권제로 조직되고 당내에 군사적규률에 가까운 강철의 규률이 지배하며 그의 당중앙이 당원들의 전반적신임을 받으며 광범한 권한을 가지고있는 권력있고 권위있는 기관으로 되는 그러한 경우에라야만 자기의 의무를 수행할수 있을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282~283페지를 보라.)①

바로 이러한것이 독재를 전취하기 이전에 투쟁할 때의 당내규률에 대한 문제이다.

독재를 전취한후의 당내규률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일층 더 강조하여야 할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무산계급당의 강철같은 규률을 약화시킨다면(특히 무산계급독재시기에) 그는 실제에 있어서 무산계급을 반대하여 자산계급을 돕는자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90페지를 보라.)②

여기에서 종파의 존재는 당의 통일과도 당의 강철같은 규률과도 상용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종파가 존재하면 중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312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201페지를 보라. —편집자

앙이 여러개 존재하게 되고 중앙이 여러개 존재한다는것은 당내에 총적인 중앙이 없고 통일된 의지가 분산되며 규률이 약화되고 파괴되며 독재가 약화되고 파괴된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물론 무산계급독재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무산자들을 정권장악에로 이끌려고 하지 않는 제2국제당의 여러 정당들은 종파의 자유와 같은 그러한 자유주의를 허용할수 있을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에게는 강철같은 규률이 전혀 요구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나 무산계급독재를 전취하며 강화하는 과업에 기초하여 자기 활동을 진행하는 국제공산당의 여러 정당들은 《자유주의》나 종파의 자유를 허용할수 없다.

당은 온갖 종파적활동과 당내권력의 분산이 없는 의지의 통일체이다.

《당의 통일에 관하여》라는 우리 당 제10차대회85의 특별결정서에서 확인된 레닌의 설명, 즉 《무산계급독재가 승리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서의 당의 통일과 무산계급선봉대의 의지의 통일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종파적활동의…위험성》을 지적한 설명은 여기에서 나온것이다.

그러므로 《온갖 종파적활동을 완전히 소탕》하며 《이러저러한 강령에 기초하여 형성된 종파집단들을 례외없이 즉시로 해산》시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하고 즉시로 출당》시키라고 레닌은 요구하였다.(《당의 통일에 관하여》라는 결정서를 보라.)①

(6) 당은 자기 대렬에서 기회주의분자들을 제거함으로써 공고하여진다. 당내에서의 종파적활동의 근원은 당내의 기회주의분자들이다. 무산계급은 외계와 동떨어진 계급이 아니다.

---

① 《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정서집》, 1964년 인민출판사판, 제2분책, 64페지와 65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무산계급화한 농민, 소시민, 지식인 출신들이 끊임없이 이 계급으로 흘러들어온다. 동시에 주로 식민지의 초과리윤으로 자산계급이 길러낸 로동조합활동가와 의회의원으로 이루어진 무산계급상층의 부화타락과정이 일어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자산계급화한 로동계층 즉 〈로동귀족〉계층은 그 생활방식에 있어서, 그 임금액에 있어서, 그의 전체 세계관에 있어서 완전히 소시민적인바 그들은 제2국제당의 주요한 기둥이며 또 오늘에 있어서는 **자산계급의 주요한 사회적기둥**(군사적기둥이 아닌)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로동운동내부에 있어서의 자산계급의 진정한 대리인**이며 로동자속에서의 자본가계급의 사환군…이며 개량주의와 배외주의의 진정한 전파자이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9권, 77페지를 보라.)①

이 모든 소자산계급적집단은 이러저러하게 당내에 기여들어와서 동요와 기회주의의 기분, 부화와 불신임의 기분을 당내에 끌어들인다. 그들이 바로 종파활동과 분렬의 주요근원이며 당을 분산시키며 내부로부터 당을 파괴하는 근원이다. 이러한 《동맹자들》을 후방에 두고 제국주의와 싸우다가는 량면으로 즉 전선과 후방으로 협공을 당하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분자들과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그들을 당에서 쫓아내는것은 제국주의와 성과적으로 투쟁하는 전제조건이다.

당내의 사상투쟁으로 기회주의분자들을 《타승》한다는 리론, 한 당의 범위내에서 기회주의분자들을 《제거》한다는 리론은 부패하고도 위험한 리론으로서 그것은 당을 마비중과 만성병에 걸리게 하며 당을 기회주의의 롱락물로 만들며 무산계급으로 하여금 혁명적인 당을 잃어버리게 하며 무산계급으로 하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36~737페지를 보라. —편집자

여금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주요한 무기를 잃게 할 위험이 있었다. 만일 우리 당이 자기 대렬내에 마르또브일파나 단일파, 뽀뜨레쏘브일파나 악쎌로드일파를 남겨두었더라면 우리 당은 큰길에 나서지 못하였을것이며 정권을 전취하고 무산계급독재를 조직하지 못하였을것이며 국내전쟁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였을것이다. 우리 당이 내부적통일과 자기 대렬의 전례없는 단결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무엇보다도먼저 기회주의의 쓰레기를 제때에 청소할수 있었고 취소파와 멘쉐위크들을 당에서 내쫓을수 있었기때문이다. 무산계급당들이 발전하고 강화되는 길은 기회주의자와 개량주의자, 사회제국주의자와 사회배외주의자, 사회애국주의자와 사회평화주의자들을 당내에서 깨끗이 청소하는 길이다.

당은 자기 대렬에서 기회주의분자들을 제거함으로써 공고하여진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기 대렬에 개량주의자들, 멘쉐위크들을 가지고서는 무산계급혁명에서 승리할수 없으며 무산계급혁명을 고수할수 없다. 이것은 원칙상으로 보아 명백한 일이다. 이것은 로씨야와 웽그리아의 경험에 의해서 확증되였다. … 로씨야에는… 곤난한 정세가 여러차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만일 우리 당내에 멘쉐위크들, 개량주의자들, 소자산계급민주주의자들이 남아있었더라면…틀림없이 쏘베트제도는 전복되였을것이다. …공인되여있는바와 같이 이딸리아에서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의 결전문제가 일정에 오르고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당에서 멘쉐위크들, 개량주의자들, 뚜라띠분자를 숙출하는것은 무조건 필요할뿐만아니라 지어는 우수한 공산주의자들이라 해도 개량주의자들과 〈통일〉하는데로 동요할수 있거나 동요를 보이고있는자들까지도 온갖 책임적직책에서 숙출하는것이 유익하다고 할수 있다. …혁명의 전야에 또 그 승리를 위한 가장 치렬한 투쟁의 시기에는 당내의 극히 사소한 동요도 모든것을 파멸시키며 혁명을 파괴하며 무산계급으로 하여금 정권을 잃어버리게 할수 있는것이다. 왜

냐 하면 이 정권은 아직 공고하지 못하며 이 정권에 대한 공격이 아직도 너무나 강하기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동요하는 지도자가 물러나간다 해도 그것은 당도 로동운동도 혁명도 약화시키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강화하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462, 463, 464페지를 보라.)①

9
사 업 작 풍

여기서 말하는것은 문풍이 아니다. 나는 사업작풍 즉 레닌주의적일군이라는 독특한 형을 만들어내는 레닌주의의 실천상의 특수하고도 특별한 요소를 두고 말한다. 레닌주의는 특수한 형의 당일군과 국가일군을 길러내며 특수한 레닌주의적인 사업작풍을 수립하는 리론적 및 실천적 학교이다.

이 작풍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 특성은 어떠한것인가?

그 특성은 두가지다.

(ㄱ) 로씨야인의 혁명적기백과

(ㄴ) 미국인의 실무성이다.

레닌주의의 작풍은 당 및 국가 사업에서의 이 두가지 특성의 결합이다.

로씨야인의 혁명적기백은 낡은 인습, 구습묵수, 보수주의, 사상의 침체, 낡은 전통에 대한 맹종적태도를 없애는 소독제이다. 로씨야인의 혁명적기백은 사상을 각성시키고 전진을 추동하며 낡은것을 파괴하고 전망을 열어주는 그러한 생기를 북돋아주는 힘이다. 이것이 없이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1권, 345, 346, 347페지를 보라. —편집자

그러나 만일 로씨야인의 혁명적기배이 사업에서의 미국인의 실무성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천에서 텅 빈 《혁명적》마닐로브주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된 실례는 얼마든지 들수 있다. 《혁명적인》 허풍치기와 《혁명적인》 계획작성병을 누가 모르겠는가? 이러한 병의 근원은 법령의 힘으로 모든것을 만들어낼수 있고 또 모든것을 개조할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있다. 로씨야의 한 작가인 이.에렌부르그는 《완성된 공산주의적인간》이라는 단편소설에서 이 병에 걸린 《볼쉐위크》의 전형을 묘사하였는데 그 볼쉐위크는 리상적으로 완성된 사람의 도식을 그려낼것을 목적하다가…그 《사업》에 《빠져버렸다》. 이 단편소설에는 상당한 과장이 있지만 이 소설이 그 병을 옳게 포착하고있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그러한 병에 걸린자들을 레닌처럼 혹독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조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레닌은 허풍치기와 법령주의에 대한 그 병적신앙을 《공산주의자의 자만》이라고 멸시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산주의자의 자만이란 공산당에 들어있으며 아직 거기서 숙청되지 않고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임무를 공산주의자의 법령으로써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을 의미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50~51페지를 보라.)①

레닌은 보통 평범한 일상적인 사업을 《혁명적인》 호언장담에 대치시켰고 그것으로써 《혁명적인》 허풍치기가 진정한 레닌주의의 정신에도, 진의에도 반대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번지르르한 말은 좀 적게 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을 많이 하며…》

《정치적공담은 좀 적게 하고 극히 평범하면서도 약동적이며…공산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59페지를 보라. —편집자

주의건설의 사실에 좀더 주의를 돌리자.…》(《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343페지와 335페지를 보라.)①

이와 반대로 미국인의 실무성은 《혁명적인》 마닐로브주의와 허황한 허풍치기를 없애버리는 소독제이다. 미국인의 실무성은 장애를 알지 못하며 또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온갖 장애물을 그 실무적완강성으로써 뚫고나가며 비록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일단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그러한 꺾을수 없는 힘이다. 이러한 힘이 없이는 중대한 건설사업은 생각할수도 없다.

그러나 미국인의 실무성은 만일 그것이 로씨야인의 혁명적기백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편협하고도 무원칙한 실무주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편협한 실용주의병과 무원칙한 실무주의병이 흔히 일부 《볼쉐위크들》을 변절하게 하고 혁명사업으로부터 물러서게 한다는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이 독특한 병은 베.뻴리냐크의 《흉년》이라는 단편소설가운데 반영되였는데 거기에는 의지와 실천적결단성을 충분히 가지였고 비상히 《정력적으로》 《활동》하나 전망을 잃어버리고 《무엇때문에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혁명사업의 길에서 탈선하는 로씨야《볼쉐위크》의 전형이 묘사되여있다. 이 실무주의병에 대하여 레닌처럼 신랄하게 조소한 사람은 없다. 레닌은 이 병을 《편협한 실용주의》, 《두뇌없는 실무주의》라고 멸시하였다. 레닌은 보통 생동한 혁명적사업과 우리의 모든 일상사업에서 혁명적인 전망을 가질 필요성을 이 병에 대치시키고 그것으로써 무원칙한 실무주의는 《혁명적인》 허풍치기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레닌주의에 전적으로 반대된다는것을 강조하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7페지와 8페지를 보라. —편집자

였다.

로씨야인의 혁명적기백과 미국인의 실무성의 결합—여기에 당 및 국가 사업에 있어서의 레닌주의의 본질이 있다.

오직 이 량자를 결합하여야만 완성된 레닌주의적일군의 전형과 레닌주의적사업작풍이 있을수 있다.

1924년 4월 26, 30일 및 5월 9, 11, 14, 15, 18일부 《쁘라우다》 제96, 97, 103, 105, 107, 108, 111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6권, 62~165페지

10월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술

(저서 《10월혁명에로 가는 길》의 서문[86])

1

10월혁명의 국외정세와 국내정세

세가지 국외사정이 로씨야무산계급혁명으로 하여금 비교적 용이하게 제국주의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그리하여 자산계급의 정권을 전복하게끔 하였다.

첫째로, 영국-프랑스와 독일-오지리의 두 주요한 제국주의집단의 치렬한 투쟁시기 즉 이 집단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결사전을 하느라고 10월혁명과의 투쟁에 신중한 주의를 돌릴 시간도, 수단도 가지지 못하였을 때에 10월혁명이 시작되였다는 그 사정이다. 이 사정은 10월혁명에 대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었다. 왜냐 하면 이 사정은 10월혁명에 자체의 힘을 강화하며 조직하기 위하여 제국주의내부의 격렬한 충돌을 리용할수 있게 하였기때문이다.

둘째로, 전쟁에 피로하였고 평화를 갈망하는 근로대중이 사물의 론리자체에 의하여 전쟁으로부터의 유일한 출로로서의 무산계급혁명에 접근하였을 때인 제국주의전쟁의 행정에서 10

월혁명이 시작되였다는 그 사정이다. 이 사정은 10월혁명에 대하여 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있었다. 왜냐 하면 이 사정은 10월혁명에 강력한 평화의 도구를 주었으며 10월혁명으로 하여금 쏘베트혁명과 저주로운 전쟁의 종결을 쉽게 련결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혁명으로 하여금 서방의 로동자들과 동방의 피압박민족들사이에서 대중적 공명을 얻게끔 하였기때문이다.

셋째로, 구라파에서의 강력한 로동운동이 존재하고있었다는것과 오래 계속된 제국주의전쟁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서방과 동방에서의 혁명적위기가 성숙되였다는 그 사정이다. 이 사정은 로씨야혁명에 대하여 한없이 큰 의의를 가지고있었다. 왜냐 하면 이 사정은 10월혁명이 세계제국주의와 투쟁함에 있어서 로씨야경외에 성실한 동맹자들을 가지고있도록 보장하여 주었기때문이다.

그러나 10월혁명은 국외사정들 이외에도 그로 하여금 쉽게 승리하도록 한 많은 유리한 국내조건들을 가지고있었다.

이 조건들중에서 주요한것으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첫째로, 10월혁명은 로씨야로동계급의 절대다수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것이다.

둘째로, 10월혁명은 평화와 토지를 갈망하는 빈곤한 농민과 대다수 병사들의 가장 믿음직한 지지를 받았던것이다.

셋째로, 10월혁명은 그 선두에 령도적력량으로서 볼쉐위크당과 같은 시련을 겪은 당을, 비단 그 경험과 여러해동안에 이루어낸 규률에 의하여서뿐만아니라 근로대중들과의 광범한 련결에 의하여서도 강력한 그러한 당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넷째로, 10월혁명은 어느 정도 약한 로씨야 자산계급과 농민《소동》으로 말미암아 아주 의기저상된 지주계급과 전쟁행정에 완전히 파산된 타협적인 당들(멘쉐위크당과 사회혁명당[59])

과 같은 비교적 쉽게 타승할수 있는 적들을 상대하고있었다.

다섯째로, 10월혁명은 자유로이 기동할수 있으며 정세가 요구할 때에는 퇴각할수 있고 당분간 휴식할수 있으며 힘을 집결할수 있는 그러한 청소한 국가의 광대한 지역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있었던것이다.

여섯째로, 10월혁명은 반혁명과의 투쟁에서 국내에 충족한 식량, 연료, 원료 등을 공급받을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수 있었던것이다.

이러한 국외사정과 국내사정이 결합되여 10월혁명의 승리를 비교적 쉽게 한 그 독특한 정세를 조성하였다.

이것은 물론 10월혁명이 내외정세에 있어서 불리한 점을 가지지 않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례컨대 10월혁명이 어느 정도 고립상태에 있은것, 그결에 또 그와 린접하여 10월혁명이 의거할만한 그러한 쏘베트나라가 없은것과 같은 불리한 점이 어찌 중대한것이 아니겠는가? 의심할바없이 례컨대 독일에서의 장래의 혁명은 이 점에 있어서 퍽 유리한 상태에 처하게 될것이다. 왜냐 하면 그 혁명은 우리 쏘베트련맹과 같은 강유력한 쏘베트나라를 린접국가로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나는 무산계급이 국내에서 다수가 되지 못한것과 같은 10월혁명의 불리한 점에 대하여서는 말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이 모든 불리한 점은 우에서 말한 10월혁명의 국내 및 국외 조건의 그 특수성의 커다란 의의를 강조해주었을 따름이다.

이 특수성에 대하여서는 일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1923년 가을의 독일사변[70]을 분석할 때 이 특수성을 특히 기억하여야 할것이다. 10월혁명과 독일혁명을 무턱대고 류추하며 독일공산당의 실제적인 또는 가상적인 오유를 제멋대로 공박하는 뜨로쯔끼가 누구보다도 먼저 이 특수성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17년의 력사적으로 극히 독특한 구체적인 정세하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시작하는것은 로씨야로서는 용이한 일이였으나 이 혁명을 지속하며 그것을 끝까지 진행하는데는 로씨야는 구라파 각국보다 더 곤난할것이다. 나는 이미 1918년초에 이 사정을 지적한 일이 있는데 그후 2년동안의 경험은 그러한 나의 판단이 정당하였다는것을 완전히 립증하였다. 로씨야의 당시의 특수한 조건들, 즉 (1) 쏘베트혁명을 로동자와 농민을 극도로 피폐케 한 제국주의전쟁의 종결(이 쏘베트혁명을 통하여)과 결부시킬 가능성이 있었다는것, (2)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두개 제국주의적강도집단들간의 필사적투쟁을 일정한 기간 리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것(이 두 집단들은 그들의 적인 쏘베트를 반대하여 단결할수 없었던것이다.), (3) 비교적 장기간 국내전쟁을 견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것(로씨야의 국토가 광활하고 교통수단이 불비한것이 그 원인의 하나이다.), (4) 농민속에서 극히 심각한 자산계급민주주의적혁명운동이 존재하고있었다는것, 그리하여 무산계급의 당은 농민의 당(이것은 사회혁명당인데 그 대다수는 볼쉐위크주의에 대하여 극히 적대적이였다.)의 혁명적요구를 채납하였고 무산계급의 정권쟁취에 의하여 즉시 이 요구를 실현하였다는것 등이다. 이러한 특수조건들은 지금 서구라파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조건 혹은 이와 류사한 조건들의 재출현도 그다지 용이한것이 아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기타 원인은 고사하고—서구라파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시작한다는것은 우리 나라에서보다 곤난한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205페지를 보라.)①

레닌의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19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2

10월혁명의 두가지 특성에 대하여 혹은 10월혁명과 뜨로쯔끼의 《부단》혁명론

10월혁명에는 두가지 특성이 있는바 이것을 구명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이 혁명의 내용과 력사적의의를 리해함에 필요한 것이다.

그 특성이란 어떠한것인가?

첫째로,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탄생된 무산계급독재는 근로농민대중에 대한 무산계급의 령도하에 무산계급과 근로농민대중의 동맹을 기초로 하고 성립된 그러한 정권이라는 사실이다. 둘째로, 그것은 자본주의가 더 발전된 다른 나라들에 자본주의가 유지되고있는 때에 자본주의가 덜 발전된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결과로서 무산계급독재가 확립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물론 10월혁명에 다른 특성들이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 두가지 특성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것은 그것이 10월혁명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줄뿐만아니라 또한 그것이 《부단혁명》론의 기회주의적본성을 뚜렷이 폭로하기때문이다.

간단하게 이 두가지 특성을 검토하여보자.

도시 및 농촌의 소자산계급근로대중에 관한 문제, 또 무산계급의 편으로 이 대중을 전취하는 문제는 무산계급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정권을 전취하는 투쟁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근로인민이 누구를 지지하는가 즉 자산계급을 지지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무산계급을 지지하는가 또 그들이 누구의 예비군으로 되는가 즉 자산계급의 예비군으로 되는

가 무산계급의 예비군으로 되는가 하는데에 혁명의 운명과 무산계급독재의 견고성이 달려있다. 1848년 및 1871년의 프랑스 혁명은 주로 농민예비군이 자산계급의 편에 가담하였기때문에 실패하였다. 10월혁명이 승리한것은 그것이 자산계급에게서 그들의 농민예비군을 떼여내고 그 예비군을 무산계급의 편으로 전취할수 있었으며 또 무산계급이 이 혁명에서 도시와 농촌의 수백만 근로인민의 유일한 령도적력량으로 되였기때문이다.

이것을 리해하지 못한자는 10월혁명의 성격도, 무산계급독재의 본질도, 우리 무산계급정권의 국내정책의 특성도 결코 리해하지 못할것이다.

무산계급독재는 《경험있는 전략가》의 용의주도한 수완에 의하여 《교묘하게》 《선택》되여 어떠한 주민층에 《합리하게 의거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정부의 수뇌부가 아니다. 무산계급독재는 무산계급이 령도적력량으로 되는 그런 조건하에서 자본의 전복과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무산계급과 근로농민대중의 계급적동맹인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제로 되는것은 외교적수단을 피우는 일부 《부단혁명》론자들이 지금 즐겨 말하는바와 같이 농민운동의 혁명적가능성을 《조금》 낮게 평가한다거나 또는 《조금》 높이 평가한다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10월혁명의 결과로 생긴 새로운 무산계급국가의 본질에 대한것이다. 문제는 무산계급정권의 성격, 무산계급독재자체의 기초에 대한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산계급독재는 근로자들의 전위대인 무산계급과 수많은 비무산계급근로자층(소자산계급, 소경영자, 농민, 지식인 등등)과의 또는 그들의 대다수와의 계급적동맹, 자본을 반대하는 동맹, 자본의 완전한 전복과 자산계급의 반항 및 그들의 복고적 시도에 대한 완전한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동맹, 사회주의의 종국적건

설과 공고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맹의 특수한 형태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311페지를 보라.)①

그리고 또

《무산계급독재라는 이 력사적, 철학적, 과학적인 라틴어명사를 보통말로 번역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것을 의미한다.

오직 일정한 계급 즉 도시로동자와 일반적으로 공장로동자, 다시말하면 산업로동자만이 자본의 압박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러한 압박을 전복하는 행정에서, 승리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사회제도를 창건하는 사업에서, 계급의 완전폐절을 위한 전반 투쟁에서 전체 피착취근로대중을 지도할수가 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336페지를 보라.)②

레닌이 내놓은 무산계급독재의 리론은 이러하다.

10월혁명의 특성중의 하나는 이 혁명이 무산계급독재에 대한 레닌의 리론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는 그 점에 있다.

어떤 동지들은 이 리론을 한갓 로씨야의 현실에만 관계되는 순수한 《로씨야적》리론이라고 생각하고있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전혀 옳지 못하다. 레닌은 무산계급이 령도하는 비무산계급근로대중에 대하여 말할 때에 로씨야의 농민들뿐만아니라 얼마전까지도 로씨야의 식민지로 있던 쏘베트련맹 변경지구의 근로분자들까지도 념두에 두고 말하였다. 레닌은 로씨야의 무산계급이 이러한 다른 민족의 대중과 동맹을 맺지 않고서는 승리할수 없다는것을 항상 주장하였다. 레닌은 민족문제에 대한 그의 론문과 국제공산당대회들에서 진술한 연설가운데서 세계혁명의 승리는 선진국가들의 무산계급과 예속화된 식민지의 피압박민족들의 혁명적동맹, 혁명적련맹이 없이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343~344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0페지를 보라. —편집자

는 불가능하다는것을 재삼 말하였다. 그런데 식민지라는것은 피압박근로대중,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농민대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식민지해방의 문제는 **그 본질상** 금융자본의 압박과 착취로부터 비무산자계급들의 근로대중을 해방하는 문제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로부터 무산계급독재에 대한 레닌의 리론은 순수한 《로씨야적》리론인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되는 리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볼쉐위크주의는 한갓 로씨야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볼쉐위크주의》는 《**모든 나라의 전술의 모범으로 될수 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386페지를 보라.)①

10월혁명의 첫째 특성의 특징들은 이러하다.

뜨로쯔끼의 《부단혁명》론은 10월혁명의 이 특성의 견지로 보면 어떠한가?

우리는 뜨로쯔끼가 1905년에 취한 립장 즉 그때에 그가 《짜리를 없애고 로동자정부를 세우자》라는 구호, 다시말하면 농민이 없는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혁명적력량인 농민을 《그저》 잊어버렸던 그 립장에 대하여서는 론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어는 외교적수단을 피우는 《부단혁명》론자인 라데크도 지금에 와서는 1905년의 《부단혁명》이 현실을 떠난 《공중으로의 비약》을 의미하였던것이라고 하는수없이 승인하게 되였다. 지금에 와서는 아마도 누구나 다 이 《공중으로의 비약》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것을 승인하는 모양이다.

우리는 역시 뜨로쯔끼가 전쟁시기 페컨대 1915년에 《정권을 위한 투쟁》이라는 그의 론문에서 《우리는 제국주의시대에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678페지를 보라. —편집자

사는것이다.》, 제국주의는 《낡은 제도에 자산계급적민족을 대립시키는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을 자산계급적민족에 대립시킨다.》는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농민의 혁명적역할은 반드시 축소될것이고 토지의 몰수라는 구호는 이미 이전에 가지고있던 그러한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그때의 그의 립장에 대해서도 론하지 않으려고 한다. 레닌은 당시 뜨로쯔끼의 이 론문을 검토비판하면서 《농민의 역할》을 《부정》하는것으로 하여 뜨로쯔끼를 비난하고 《사실에 있어서 뜨로쯔끼는 농민의 역할의 〈부정〉을 농민을 혁명에로 궐기시키기를 원치 않는것으로 리해하는 로씨야의 자유주의적로동자정치가들을 도와주고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8권, 318페지를 보라.)①고 말한것은 다 아는바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뒤 후에 쓴 뜨로쯔끼의 저작, 즉 무산계급독재가 이미 확립되였으며 또 뜨로쯔끼가 실제에서 자기의 《부단혁명》론을 검토하며 자기의 과오를 시정할 가능성을 가졌던 때에 쓴 저작에 대하여 말하여보는것이 더 좋을것이다. 그가 1922년에 쓴 《1905년》이라는 책의 《서문》을 들어보자. 뜨로쯔끼는 이 《서문》에서 《부단혁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부단혁명〉론이라는 명칭을 받은 로씨야혁명발전의 성격에 대한 저자의 그 견해는 바로 1905년 1월9일사변부터 10월파업까지의 기간에 형성되였다. 이 기묘한 명칭은 자산계급적목표가 직접 서고있는 로씨야혁명이 아무리하여도 그 자산계급적목표에만 멈추고있을수 없다는 그러한 사상을 표현한것이다. 혁명은 무산계급으로 하여금 정권을 잡게 하지 않고서는 그 당면한 자산계급적과업을 해결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수중에 정권을 장악한 이 무산계급은 혁명에 있어서 자산계급적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399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한계에만 국한할수 없을것이다. 도리여 무산계급의 전위대는 바로 자기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미 자기의 지배의 첫시기에 봉건적소유뿐만아니라 또한 자산계급적소유에 대하여서도 가장 심각한 공격을 단행하게 될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무산계급의 전위대는 그 혁명적투쟁의 초기에 자기를 지지한 자산계급의 모든 집단들뿐만아니라 자기와 협력하여 자기로 하여금 정권을 장악하게 한 그 광범한 농민대중과도 적대적충돌을 일으키게 될것이다. 농민인구가 압도적다수인 뒤떨어진 나라에서 로동자정부의 처지에 있어서의 모순들은 그 해결을 다만 국제적범위 즉 무산계급의 세계혁명의 무대에서만 얻을수 있는것이다.》①

뜨로쯔끼는 자기의 《부단혁명》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말하였다.

무산계급독재에 대한 레닌의 리론을 《부단혁명》에 대한 뜨로쯔끼의 리론과 갈라놓는 그 심연전부를 보아내기 위하여서는 뜨로쯔끼의 이 인용문을 레닌의 저작에서 우에 인용한 무산계급독재에 대한 그 인용문과 비교하기만 하여도 충족하다.

레닌은 무산계급과 근로농민층과의 **동맹**을 무산계급독재의 기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뜨로쯔끼가 말하는것은 《무산계급전위대》와 《광범한 농민대중》과의 《**적대적충돌**》이다.

레닌은 피착취근로대중에 대한 무산계급의 **령도**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뜨로쯔끼가 말하는것은 《농민인구가 압도적다수인 뒤떨어진 나라에서 로동자정부의 처지에 있어서의 **모순들**》이다.

레닌의 견해에 의하면 혁명은 무엇보다도 로씨야자체의 로동자와 농민들 속에서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뜨로쯔끼에게 있어서는 그 필요한 힘을 **오직** 《무산계급의 세계혁명의 무대》

---

① 고시코제는 나의것, 一이, 쓰딸린

에서만 얻을수 있다는것이다.

그런데 만일 국제혁명이 늦게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우리 나라의 혁명에는 어떠한 광명이 있는가? 뜨로쯔끼의 견해에 의하면 아무런 광명도 없다. 왜냐 하면 《로동자정부의 처지에 있어서의 모순들은 그 해결을 다만…무산계급의 세계혁명의 무대에서만 얻을수 있는것》이기때문이다. 이 계획안에 의한다면 우리 나라의 혁명에는 오직 한가지 전망만이, 즉 그 자체의 모순속에서 시들어가며 또한 세계혁명을 기다리느라고 제 뿌리에서 썩어빠질 전망만이 남아있을따름이다.

레닌의 견해에 의하면 무산계급독재란 어떠한것인가?

무산계급독재란 《자본의 완전한 전복》과 《사회주의의 종국적 건설과 공고화》를 위한 무산계급과 근로농민대중과의 동맹에 의거하는 정권이다.

뜨로쯔끼의 견해에 의하면 무산계급독재란 어떠한것인가?

무산계급독재란 《광범한 농민대중》과 《적대적충돌》을 일으키며 또한 《모순들》의 해결을 다만 《무산계급의 세계혁명의 무대에서》만 얻을수 있는 정권이다.

이 《부단혁명론》은 무산계급독재의 사상을 부정하는 멘쉐위크주의의 유명한 리론과 무엇이 다른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다른것이 없다.

의심할바없다. 《부단혁명론》은 농민운동의 혁명적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과소평가가 아니다. 《부단혁명론》은 무산계급독재에 대한 레닌의 리론을 부인하게 되는, 농민운동에 대한 그런 과소평가이다.

뜨로쯔끼의 《부단혁명론》은 멘쉐위크주의의 변종이다.

10월혁명의 첫째 특성은 이러하다.

10월혁명의 둘째 특성의 특징은 어떠한것인가?

레닌은 제국주의를, 특히는 전쟁시기의 제국주의를 연구

하면서 자본주의국가의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형성과 비약성에 관한 법칙을 발견하게 되였다. 이 법칙의 의미에 의하면 기업소들, 트레스트들, 산업부문들 및 각국의 발전은 불균형적이다. 즉 한개의 트레스트, 한개의 산업부문, 또는 한 나라가 항상 앞서나가고 다른 트레스트나 다른 나라들은 차례차례로 뒤떨어져서 나가는 식으로 일정한 순서로 발전되는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들의 발전은 중단되고 다른 어떤 나라들이 그것을 앞서는 식으로, 비약적으로 진행되는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종래의 지반을 유지하려는 뒤떨어지고있는 나라들의 《십분 정당한》 지향과 새로운 지반을 탈취하려는 약진한 나라들의 역시 그러한 《정당한》 지향은 제국주의국가들사이의 군사적충돌을 피치못할 필연적인것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례컨대 반세기전에는 프랑스와 영국에 비하여 뒤떨어진 나라이던 독일이 그러하였다. 로씨야와 비교할 때에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20세기초기에는 이미 독일과 일본은 훨씬 비약적으로 전진하여 전자는 프랑스를 따라 넘을수가 있었고 세계시장에서 영국을 배제하기 시작하였으며 후자는 로씨야에 대해서 그러하게 된것은 다 아는바이다. 누구나 다 아는바와 같이 바로 이러한 모순에서 최근의 제국주의전쟁이 발생하였던것이다.

이 법칙은 다음과 같은것으로부터 출발하는것이다.

(1) 《자본주의는 극소수 〈선진〉국가들이 세계의 대다수 주민을 식민지적으로 억압하고 금융적으로 교살하는 세계적체계로 되였다.》(레닌의 《제국주의론》의 프랑스문판에 대한 서문, 《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9권, 74페지를 보라.)①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33페지를 보라. —편집자

(2) 《이 〈획득물〉은 세계적으로 강대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2~3개의 강도들(미국, 영국, 일본)사이에 분배되는바 이 강도들은 자기네의 획득물을 분배하기 위한 자기네의 전쟁에 전 세계를 끌어넣는것이다.》(우와 같음.)①

(3) 금융적압박의 세계적체계의 내부에 있는 모순의 장성과 군사적충돌의 불가피성은 제국주의의 세계전선으로 하여금 혁명에 의하여 쉽게 깨뜨려질수 있는것으로 되게 하며 또 개별적나라들에 의한 이 전선의 돌파를 개연적인것으로 되게 한다.

(4) 이 돌파는 제국주의전선의 련쇄에서 비교적 약한, 다시말하면 제국주의의 방비가 가장 약하며 혁명이 가장 쉽게 전개될수 있는 그러한 개소와 그러한 나라들에서 가장 개연적으로 일어날수 있는것이다.

(5) 그렇기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비록 이 나라들이 자본주의적으로 더 발전되였을지라도) 자본주의가 유지되고있는 경우에도 비록 자본주의적으로 덜 발전된 나라이라 할지라도 그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다는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또 확정적인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무산계급혁명에 대한 레닌의 리론의 기초는 이러하다.

10월혁명의 둘째 특성은 무엇에 있는가?

10월혁명의 둘째 특성은 이 혁명이 무산계급혁명에 대한 레닌의 리론을 실천에 모범적으로 적용한데 있다.

10월혁명의 이 특성을 리해하지 못한자는 이 혁명의 국제적성격도 그 거대한 국제적위력도 그 독특한 대외정책도 결코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33~734페지를 보라, —편집자

리해하지 못할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형성은 자본주의의 절대적법칙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의 승리는 처음에는 소수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또 지어는 개별적인 한 자본주의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나라의 승리한 무산계급은 자본가를 수탈하고 자국에 사회주의적생산을 조직한후에는 다른 자본주의세계를 반대하여 일어나 다른 나라들의 피압박계급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며 이 나라들에서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키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에 의해서라도 착취계급과 그들의 국가를 반대하여 행동할것이다.》 왜냐 하면 《여러 사회주의공화국이 락후한 국가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완강한 투쟁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각 민족의 자유로운 련합은 불가능하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8권, 232~233페지를 보라.)①

각국의 기회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무산계급혁명은(만일 그들의 리론에 의하여 혁명이 대체 어디선가 반드시 시작되게 된다면) 오직 산업이 발달된 나라들에서만 시작될수 있는것이며 산업방면에서 이 나라들이 발달되면 될수록 사회주의가 승리할 가망이 더 많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한 나라에 있어서의, 더우기 자본주의적으로 덜 발달된 한 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전혀 사리에 맞지 않으며 불가능하다고 간주한다. 레닌은 이미 전쟁당시에 제국주의국가들의 불균형적 발전법칙에 의거하여 한 나라에 있어서의(설사 그 나라가 자본주의적으로 덜 발달된 나라일지라도)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자기의 무산계급혁명리론을 내놓고 기회주의자들을 론박하였다.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09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다 아는바와 같이 10월혁명은 무산계급혁명에 대한 레닌의 리론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실증하였다.

뜨로쯔끼의 《부단혁명》은 한 나라에 있어서의 무산계급혁명의 승리에 대한 레닌의 리론의 견지로부터 볼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혁명》(1906년)이라는 뜨로쯔끼의 소책자를 들어보자.

뜨로쯔끼는 다음과 같이 썼다.

《로씨야의 로동계급은 구라파무산계급의 직접적인 국가적지지가 없이는 정권을 유지할수 없으며 자기의 일시적지배를 장기적인 사회주의적독재로 전환시킬수 없는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일순간이라도 의심하여서는 안될것이다.》

이 인용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한 나라에 있어서의,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구라파무산계급의 직접적인 국가적지지가 없이는》, 다시말하면 구라파의 무산계급이 정권을 전취하기전에는 불가능하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이 《리론》과 《개별적인 한 자본주의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레닌의 명제와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여기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는것이 명확하다.

그런데 가령 우리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웠던 때인 1906년에 발행된 뜨로쯔끼의 이 소책자가 뜻하지 아니한 오유를 가지고있으며 그리하여 비교적 후기의 뜨로쯔끼의 견해와 완전히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뜨로쯔끼의 다른 소책자 즉 1917년 10월혁명직전에 발표되였고 지금(1924년) 《1917년》이라는 책에 수록된 《평화의 강령》이라는 그의 소책자를 검토하여보자. 이 소책자에서 뜨로쯔끼는 한 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레닌의 무산계급혁명리론을 비판하고 구라파련방이라는 구호로 레닌의 리론에 대립시켰다. 뜨로쯔끼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불가능한것이며 사회주의의 승리는 다만 구라파련방으로 련합된 구라파의 몇개의 주요한 나라(영국, 로씨야, 독일)들의 승리로써만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로씨야에서나 혹은 영국에서의 승리적혁명은 독일에서의 혁명이 없이는 생각할수도 없는 일이며 또한 이와 반대의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였다.

뜨로쯔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련방이라는 구호를 반대하여내놓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유일한 력사적견해는 스위스의 〈사회민주주의자〉87〔그 당시의 볼쉐위크들의 중앙기관지.—이. 쓰딸린〕의 아래와 같은 문구에, 즉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형성은 자본주의의 절대적법칙이다.〉라는 문구에 규정되였었다. 이로부터 〈사회민주주의자〉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가능하며 그렇기때문에 매개 개별적국가에서의 무산계급독재는 구라파련방의 창건을 그 선결조건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지었다. 각국의 자본주의적발전이 불균형적이라는것은 론쟁할 여지 없는 견해이다. 그러나 그 불균형성자체가 극히 불균형적이다. 영국, 오지리, 독일 및 프랑스의 자본주의적수준은 동일하지 않다. 그렇지만 아프리카와 아세아에 비하면 이 모든 나라는 사회적혁명을 할만큼 성숙된 자본주의적〈구라파〉로 되여있는것이다. 어떠한 나라든지 그 투쟁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을 〈기다려〉서는 안된다는것은 상식적인 도리로서 병행적인 국제적행동의 사상이 대기적인 국제적수수방관의 사상으로써 바뀌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반복하여 말하는것이 유익하며 또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창의가 다른 여러 나라들의 투쟁을 추동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본국의 지반에서 투쟁을 시작하며 또한 계속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례컨대 혁명적인 로씨야가 보수적인 구라파앞에서 견디여낼수 있다든가 혹은 사회주의적인 독일이 자본

주의세계가운데 고립되여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가망없는—력사의 경험도 리론적판단도 이것을 립증하여준다.—일일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우리앞에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라는 레닌의 혁명리론을 통째로 제외하는 리론 즉 구라파의 주요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동시적승리라는 그 리론이 놓여있는것이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낡은 제도의 복구에 대한 완전한 저지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몇개 나라의 무산자들의 일치협력이 필요하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는것이다. 구라파의 무산계급이 우리의 혁명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면 로씨야의 무산계급은 그 총공격을 견디여내지 못하였을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로씨야혁명이 서방의 혁명운동을 지지하지 않았더라면 이 운동은 로씨야에서 무산계급독재가 수립된후에 발전하게 된 그러한 속도로 발전되지 못하였을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우리에게 지지가 필요한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서방의 무산계급이 우리 혁명을 지지한다는것은 어떠한것인가? 우리나라 혁명에 대한 구라파로동자들의 동정, 제국주의자들의 무력간섭계획을 파탄시키려는 그들의 용의—이 모든것은 지지이며 진실한 원조인가? 물론 그렇다. 구라파로동자들뿐만아니라 또한 식민지 및 예속국들로부터의 이러한 지지와 원조가 없었더라면 로씨야의 무산계급독재는 곤경에 빠졌을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붉은군대의 위력과 또한 사회주의조국을 사수하려는 로씨야의 로동자와 농민들의 용의와 결합된 그 동정 및 그 원조—이 모든것이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을 물리치며 진지한 건설사업에 필요한 환경을 전취하기에 충분하였는가? 그렇다, 충분하였다. 이런 동정은 커지고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줄어지고있는가? 물론 커지고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사회주의경제를 조직하는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뿐만아니라 또

한 서구라파의 로동자들이나 동방의 피압박민족들이나 다 지지하여줄만한 유리한 조건들이 있는가? 그렇다,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로씨야에서의 무산계급독재의 7년동안의 력사가 웅변적으로 말하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이미 기세찬 로동열정앙양이 시작되였다는것을 부인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부인할수 없다.

혁명적인 로씨야가 보수적인 구라파앞에 견디여낼수 없으리라는 뜨로쯔끼의 성명은 이 모든 론증이 있은후에 어떠한 의의를 가질수 있는가?

이 성명은 다만 한가지 의의를 가질수 있을뿐이다. 첫째로, 뜨로쯔끼는 우리 나라 혁명의 내재적위력을 느끼지 못하는것이고 둘째로, 뜨로쯔끼는 서방의 로동자들과 동방의 농민들이 우리 나라 혁명에 주는 그 정신적지지의 무한한 의의를 리해하지 못하는것이고 셋째로, 뜨로쯔끼는 현재 제국주의를 침식하고있는 그 내적질환을 발견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뜨로쯔끼는 무산계급혁명에 대한 레닌의 리론을 비판하는데 열중하여 1917년에 발행되였고 또 1924년에 재판된 《평화의 강령》이라는 자기의 소책자에서 부지중에 자기자신을 스스로 때려부시였다.

그러나 뜨로쯔끼의 이 소책자도 어떤 리유에서 그의 현재의 견해와 맞지 않게 되였고 낡아진것이나 아닌가? 그러면 한 나라에서 즉 로씨야에서 무산계급혁명이 승리한후에 쓴 뜨로쯔끼의 최근의 저서를 들어보자. 례컨대 《평화의 강령》이라는 소책자의 재판에 대하여 1922년에 쓴 뜨로쯔끼의 《발문》을 들어보자. 그는 그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무산계급혁명이 한 나라의 범위내에서는 승리적으로 완성될수 없다고 〈평화의 강령〉에서 여러 번 반복한 그 주장은 어떤 독자들에게는 아마도 우리 쏘베트공화국의 거의 5년동안의 경험에 의하여 론박된것으

로 보일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은 무근거한것이다. 로동자국가가 전 세계에 대립하여 한 나라에서, 더우기 뒤떨어진 나라에서 유지되였다는 그 사실은 무산계급에게는 거대한 위력이 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인바 이 위력이 보다더 선진적인, 보다더 문명한 다른 나라에서는 참으로 기적을 창조해낼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로서 정치적 및 군사적 의미에 있어서 자체를 고수하였지만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접근하지도 못하였다.… 이여의 구라파국가들에서 자산계급이 정권을 잡고있는 동안은 우리가 경제적고립상태와 투쟁하기 위하여 부득이 자본주의세계와의 타협을 구하게 될것이다. 동시에 이 타협들은 기껏해야 일부의 경제적상처를 치료하며 일정하게 전진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지만 그러나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경제의 진정한 앙양은 구라파의 가장 주요한 나라들에서 무산계급이 승리한 이후 메라야① 비로소 가능하게 되리라는것은 확신있게 말할수 있다.》

쯔로쯔끼는 명백히 현실에 어긋나는 과오를 범하면서 또한 종국적파탄으로부터 《부단혁명론》을 건져내려고 꾸준히 애써가면서 이렇게 말한것이다.

결국은 아무리 한다고 하여도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에 《이르지 못하였을》뿐만아니라 《접근하지도 못하였다》는것이다. 결국 어떤자는 《자본주의세계와의 타협》을 바라고있는데 그 타협으로써도 역시 아무것도 되지 않는것이다. 왜냐 하면 《구라파의 가장 주요한 나라들에서》 무산계급이 승리할 때까지는 아무리 한다고 하여도 《사회주의경제의 진정한 앙양》은 얻지 못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니 서방이 아직 승리하지 못하였으니만큼 로씨야혁명은 제뿌리에서 썩어빠지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산계급국가로 변질하든가 하는 《두가지중의 하나를 선택》할수 있을뿐이다.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 쓰딸린

뜨로쯔끼가 벌써 2년동안이나 우리 당의 《변질》에 대하여 말하는것은 리유없이 하는 말이 아니다.

뜨로쯔끼가 작년에 우리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것은 리유없이 한 말이 아니다.

어떻게 이 괴이한 《리론》과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레닌의 리론이 조화될수 있겠는가?

어떻게 신경제정책은 우리에게 《사회주의경제의 토대를 건설》할 가능성을 줄것이라고 한 레닌의 견망과 이 괴이한 《전망》이 조화될수 있겠는가?

이 《부단적》인 절망이 례컨대 레닌의 다음과 같은 말과 어떻게 조화될수 있겠는가?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벌써 오늘날 사회주의는 먼 장래의 문제이거나 또는 어떤 추상적인 화폭이거나 그 어떤 성상의 문제가 아니다. 성상에 관하여는 우리는 지금도 종전대로 매우 좋지 못하다는 견해를 가지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일상생활속에 끌어들였는데 여기서 그것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과업이며 이것이 곧 우리 시대의 과업이다. 나는 이 과업이 아무리 힘든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의 우리의 과업에 비하여 아무리 새로운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허다한 곤난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함께, 례일로가 아니라 수년동안에 모두가 함께 기어코 이 과업을 해결하고야말것이며 그리하여 신경제정책의 로씨야가 사회주의적인 로씨야로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말을 끝마치고저 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66페지를 보라.)①

뜨로쯔끼의 그 《부단적》절망이 례컨대 레닌의 다음과 같은 말과 어떻게 조화될수 있겠는가?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실 일체의 대생산수단에 대한 국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400~401페지를 보라.—편집자

가의 권력, 무산계급의 수중에 있는 국가권력, 이러한 무산계급과 수백만의 소농 및 령세농과의 동맹, 농민에 대한 이들 무산계급의 지도의 확보 등등—이 모든것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건부, 협동조합으로써, 오직 협동조합으로써만(우리는 이전에 이 협동조합을 소상인적이라고 명시했던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신경제정책하의 지금도 역시 그렇게 명시할 권리가 있다.)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부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아직 사회주의사회의 완전한 건설은 아니나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건부인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92페지를 보라.)①

여기에는 아무러한 조화도 없으며 또한 있을수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뜨로쯔끼의 《부단혁명》론은 무산계급혁명에 대한 레닌의 리론을 부인하는것이고 그와 반대로 무산계급혁명에 대한 레닌의 리론은 《부단혁명》론을 부인하는것이다.

우리 나라 혁명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 않으며 로씨야무산계급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 않는 그것이 곧 《부단혁명》론의 기본토대이다.

지금까지는 보통 《부단혁명》론의 **한개** 면, 즉 농민운동의 혁명적능력을 믿지 않는것만을 지적하였다. 이제는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 면에 대하여 로씨야무산계급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다른 한개** 면을 보충하여야 할것이다.

《서구라파의 주요한 나라들에서》 무산계급혁명이 먼저 승리하지 않고서는 한개 나라에서, 더우기 뒤떨어진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멘쉐위크주의의 일반적리론과 뜨로쯔끼의 리론이 어떻게 다른가?

본질상 아무것도 다른것이 없다.

여기에는 아무 의심도 있을수 없다. 뜨로쯔끼의 《부단혁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2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명》론은 멘쉐위크주의의 변종인것이다.

최근 우리 출판물에는 레닌주의와 상용될수 있는듯이 《부단혁명》론을 들고나오려고 애쓰는 부패한 외교가들이 많이 생겼다. 물론 1905년에는 그 리론이 타당치 못한것이였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런데 뜨로쯔끼의 과오는 그가 1905년의 환경에는 적용될수 없었던 그것을 그때에 적용하려고 시도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나아간데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후 레칸대 혁명이 이미 완전히 성숙된 때인 1917년 10월에 와서는 뜨로쯔끼의 리론은 완전히 타당하게 된것이였다고 그들은 말한다. 이 외교가들중에서 라데크가 가장 주요한 인물이라는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이제 그의 말을 들어보자.

《전쟁은 토지의 획득과 평화를 갈망하는 농민과 소자산계급당들과의 사이에 심연을 파놓았다. 전쟁은 농민을 로동계급과 그의 전위대인 볼쉐위크당의 령도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과 농민의 독재가 아니라 농민에 의거하는 로동계급의 독재가 가능하게 되였다. 1905년에 로자 룩쎔부르그와 뜨로쯔끼가 레닌을 반대하여 내여놓았던 그 주장〔즉 《부단혁명》.—이. 쓰딸린〕은 사실에 있어서는 력사적발전의 제2단계였던것이다.》

여기에서는 말마디마다 거짓말뿐이다.

전쟁당시에 《로동계급과 농민의 독재가 아니라 농민에 의거하는 로동계급의 독재가 가능하게 되였다.》는것은 옳지 않다. 1917년의 2월혁명은 사실에 있어서는 자산계급의 독재와 독특하게 뒤엉킨 무산계급과 농민의 독재의 실현이였다.

라데크가 무안하여 말하지 않고있는 그 《부단혁명》론을 1905년에 로자 룩쎔부르그와 뜨로쯔끼가 내여놓았다고 하는것은 옳지 않다. 사실에 있어서는 이 리론은 빠르부스와 뜨로쯔끼가 내여놓은것이다. 라데크는 10개월을 경과한 지금에 와서 《부단혁명》론에 대하여 빠르부스를 비난하여야 될것으로 인정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치려고 한다. 그러나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라데크는 빠르부스의 동배인 쯔로쯔끼를 비난하여야 될것이다.

1905년혁명에 의하여 포기된 《부단혁명》론이 《력사적발전의 제2단계》 즉 10월혁명당시에 와서는 정당한것으로 되였다고 하는것은 옳지 않다. 10월혁명의 모든 행정과 그의 모든 발전은 《부단혁명》론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것이며 그것은 레닌주의의 기본과 전혀 상용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립증하였다.

감언리설이나 부패한 외교적수단으로써는 《부단혁명》론과 레닌주의와의 사이에 놓여있는 큰 심연을 가리울수 없다.

3

10월혁명준비시기에 볼쉐위크들이 취한 전술의 몇가지 특성에 대하여

10월혁명준비시기의 볼쉐위크들의 전술을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그 전술의 극히 중요한 몇가지 특성을 리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볼쉐위크들의 전술을 론한 허다한 소책자들에서 바로 이 특성들이 흔히 언급되여있지 않으므로 더욱 필요한것이다.

그 특성들이란 어떠한것인가?

첫째 특성. 쯔로쯔끼의 말을 들으면 10월혁명준비의 력사에는 오직 두 시기 즉 정찰시기와 폭동시기가 있었고 그이외의것은 도깨비장난이였다고 생각할수 있다. 1917년의 4월시위운동[88]은 무엇이였던가? 《예상이상으로 〈좌경〉적이였던 4월시위운동은 대중의 기분과 또한 대중과 쏘베트내의 다수파와의

호상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정찰적출동이였다.》 그러면 1917년의 7월시위운동[89]은 무엇이였던가? 뜨로쯔끼의 견해에 의하면 《본질상 사태는 이번에도 운동의 일층 높은 새로운 단계에서 보다더 광범하게 진행한 새로운 정찰에 지나지 않았다》. 두말할것도 없이 우리 당의 요구에 의하여 조직된 1917년의 6월 시위운동[90]도 뜨로쯔끼의 견해에 의하면 더구나 《정찰》이라고 불리워야 할것은 물론이다.

이리하여 볼쉐위크들에게는 1917년 3월에 벌써 로동자와 농민으로 이루어진 기성의 정치적군대가 있었는데 볼쉐위크들이 4월에도, 6월에도, 7월에도 폭동을 위하여 이 군대를 출동시키지 않고 다만 《정찰》만 일삼은것은 《정찰의 자료》가 그때에 유리한 《증언》을 주지 못하였기때문이며 또 오직 그때문만이였다.

두말할것도 없이 우리 당의 정치적전술에 대한 이러한 비속화된 관념은 볼쉐위크들의 혁명적전술을 일반적인 군사적전술과 혼동하는데 지나지 않는것이다.

사실상 이 모든 시위운동은 무엇보다도 대중의 자연발생적압력의 결과였고 전쟁을 반대하는 대중의 분격이 거리로 터져나온 결과였다.

사실상 여기에서 당의 역할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대중의 진출을 볼쉐위크들의 혁명적구호에 따라 나아가도록 조직하며 지도하는데 있었다.

사실상 1917년 3월에는 볼쉐위크들에게 기성의 정치적군대가 없었고 또한 있을수도 없었다. 볼쉐위크들은 다만 1917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있은 투쟁과 계급충돌의 과정에서 그러한 군대를 편성하여가고있었으며(마침내 1917년 10월에 이르러 그것을 편성하여놓았다.) 4월의 시위운동을 통하여서도, 6월 및 7월의 시위운동을 통하여서도, 각 구역 및 시

의회선거를 통하여서도, 프르닐로브반란79과의 투쟁을 통하여서도, 쏘베트의 전취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군대를 편성하여가고있었다. 정치적군대는 군사상의 군대와는 다른것이다. 군사사령부는 기성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천하지만 당은 바로 투쟁의 과정에서, 계급충돌의 과정에서 대중자체가 자기들의 경험에 의하여 당의 구호가 정당하다는것과 당의 정책이 정당하다는것을 확신함에 따라서 그 군대를 편성하게 되는것이다.

물론 이러한 매개 시위운동은 동시에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력량관계를 얼마간 밝혀주었으며 일정한 정도의 정찰을 하는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찰은 시위운동의 동기인것이 아니라 그의 자연적결과였다.

레닌은 10월폭동직전의 사변들을 분석하며 그 사변들을 4~7월의 사변들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때의 사태는 4월 20~21일, 6월 9일, 7월 3일건과 같지는 않다. 왜냐 하면 당시에 있었던것은 자연발생적흥분으로서 우리 당이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였거나(4월 20일) 혹은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에 평화적시위운동의 형태를 부여하거나(6월 9일과 7월 3일) 하였기때문이다. 왜냐 하면 그 당시는 쏘베트가 아직 우리의것이 아니라는것, 농민들이 아직 리베르, 단, 체르노브의 길을 믿고있고 볼쉐위크들의 길(폭동)을 믿지 않고있다는것, 따라서 우리들의 편에는 인민의 대다수가 있을수 없다는것, 따라서 폭동은 시기상조하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었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1권, 345페지를 보라.)①

《정찰》만으로는 더 앞으로 나갈수 없다는것이 명백하다.

문제는 분명히 《정찰》에 있은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 있었다.

(1) 당은 10월혁명의 전반 준비시기의 투쟁에서 대중적혁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6권, 190페지를 보라.—편집자

명운동의 자연발생적앙양에 시종 의거하였으며,

(2) 당은 자연발생적앙양에 의거하면서 운동에 대한 유일적령도를 자기 손에 장악하였으며,

(3) 운동에 대한 그러한 령도는 당의 10월폭동을 위하여 대중적인 정치적군대를 편성하는 사업을 쉽게 하였으며,

(4) 그러한 정책은 10월혁명의 모든 준비가 하나의 당, 즉 볼쉐위크당의 령도밑에서 진행되지 않을수 없게 하였으며,

(5) 10월혁명의 이러한 준비는 또한 10월폭동의 결과 정권이 하나의 당 즉 볼쉐위크당의 수중에 장악되게 하였다.

그런즉 10월혁명준비와 기본적요인으로서의 하나의 당 즉 공산당의 유일적령도—이것이 10월혁명의 특징이며 이것이 10월혁명준비시기에 볼쉐위크들이 취한 전술의 첫째 특성이다.

볼쉐위크들의 전술의 이러한 특성이 없이는 제국주의의 환경하에서 무산계급독재의 승리가 불가능하였으리라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이 유리한 점에서 10월혁명은, 어느 한 당도 공산당이라고 불리울수 없는 두개 당이 혁명의 령도권을 나누어가졌던 1871년의 프랑스혁명과 구별되는것이다.

둘째 특성. 이와 같이 10월혁명은 하나의 당 즉 볼쉐위크당의 령도하에서 준비되였다. 그러면 이런 령도가 당에 의하여 어떻게 수행되였으며 또 어떠한 로선으로 실시되였는가? 이런 령도는 혁명이 한창 전개될 때에 가장 위험한 집단들인 타협적당들을 고립시키는 로선으로 즉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을 고립시키는 로선으로 실시되였다.

레닌주의의 기본적인 전략상 규준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것을 인정하는데 있다.

(1) 닥쳐오는 혁명의 전개시기에 있어서 혁명의 원쑤들의 사회적기둥으로서 가장 위험한것은 타협적당들이라는것,

(2) 그 당들을 고립시키지 않고서는 적(짜리제도 또는 자산계급)을 전복할수 없다는것,

(3) 그러므로 혁명의 준비시기에 이러한 당들을 고립시키며 이러한 당들로부터 광범한 근로대중을 떼여내는것을 목표로 하여 주요한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짜리제도와의 투쟁시기 즉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의 준비시기(1905~1906년)에 짜리제도의 사회적기둥으로서 가장 위험한것은 자유주의적군주주의당인 립헌민주당54이였다. 어째서 그런가? 그것은 그 당이 타협적인 당, 다시말하면 짜리제도와 인민의 다수 즉 농민전체와의 타협을 주장하는 당이기때문이다. 당시에 당이 립헌민주당원들에게 주요한 타격을 돌린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왜냐 하면 립헌민주당원들을 고립시키지 않고서는 짜리제도와의 농민의 결렬을 기대할수 없었으며 그 결렬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승리를 기대할수 없었기때문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볼쉐위크적전략의 이 특성을 리해하지 못하고 립헌민주당원들과의 투쟁은 볼쉐위크들에게 있어서 주되는 적인 짜리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 《지장을 준다》고 단언하면서 볼쉐위크들이 지나친 《립헌민주당원중오병》에 걸렸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아무 근거도 없는것으로서 그것은 주되는 적에 대한 승리를 촉진시키며 또한 앞당기기 위하여 타협적인 당을 고립시킬것을 요구하는 볼쉐위크적전략을 전혀 리해하지 못한다는것을 폭로하였다.

이러한 전략이 없이는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에서 무산계급의 령도권이 불가능하였으리라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10월혁명준비시기에는 투쟁력량들의 중심이 새곳으로 옮겨졌다. 짜리가 없어졌다. 립헌민주당이 타협적력량으로부터 통치적력량으로, 제국주의의 지배적력량으로 전환되였다. 투쟁은 이미 짜리제도와 인민사이에서가 아니라 자산계급과 무

산계급사이에서 진행되였다. 이 시기에 제국주의의 사회적기둥으로서 가장 위험한것은 소자산계급적민주주의당들인 사회혁명당과 멘쉐위크당이였다. 어째서 그런가? 그것은 당시 그 당들이 타협적인 당 즉 제국주의와 근로대중사이의 타협을 주장하는 당이였기때문이다. 당시 볼쉐위크들의 주요한 타격이 이 당들을 반대하는데 돌려진것은 당연한 일이였다. 왜냐하면 이 당들을 고립시키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와의 근로대중의 결렬을 기대할수 없었으며 그 결렬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쏘베트혁명의 승리를 기대할수 없었기때문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볼쉐위크적전술의 이 특성을 리해하지 못하고 볼쉐위크들이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을 《지나치게 증오하며》 주되는 목적을 《망각》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10월혁명의 전반 준비기간은 볼쉐위크들이 오직 이러한 전술로써만 10월혁명의 승리를 보장할수 있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하여준다.

이 시기의 특징은 근로농민대중이 보다더 혁명화되였으며 그들이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 당들에서 멀어져나온것이며 그들이 나라를 평화에로 인도할수 있는 유일하게 철저한 혁명력량인 무산계급의 주위에 직접 결속하는 방향으로 전환한것이다. 이 시기의 력사는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을 한편으로 하고 볼쉐위크들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근로농민대중을 쟁탈하기 위하여 즉 이 대중을 전취하기 위하여 진행한 투쟁의 력사이다. 이 투쟁의 운명을 결정한것은 련합정부의 시기, 즉 께렌스끼집정시기,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이 지주의 토지몰수를 거절한것,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이 전쟁을 계속하려고 투쟁한것, 전선에서의 6월공세, 병사들에 대한 사형선고, 꼬르닐로브의 반란 등이였다. 그리하여 이 모든것은 투쟁의 운명을 순전히 볼쉐위크적 전략에 유리하게 결정하였다. 왜냐 하면 사회혁명당원과 멘쉐

위크들을 고립시키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정부를 전복할 수 없었을것이며 그 정부를 전복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벗어날수 없었기때문이다.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을 고립시키는 정책은 유일하게 옳은 정책이였다.

요컨대 10월혁명의 준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령도로선으로서 멘쉐위크당과 사회혁명당을 고립시키는것—이러한것이 볼쉐위크들의 전술의 둘째 특성이다.

볼쉐위크들의 전술의 이 특성이 없이는 로동계급과 근로농민대중의 동맹이 허공에 떠있었으리라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볼쉐위크적전술의 이 특성에 대하여 뜨로쯔끼가 《10월혁명의 교훈》이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아무것도 또는 거의 아무것도 론술하지 않은것은 특징적이다.

셋째 특성. 이리하여 10월혁명의 준비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는 사회혁명당과 멘쉐위크당을 고립시키는 로선에 따라, 그들로부터 광범한 로동자, 농민 대중을 떼여내는 로선에 따라 진행되였다. 그런데 당이 이 고립화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또 어떠한 구호하에서 실현하였는가? 그것은 쏘베트정권을 위한 대중의 혁명운동의 형태로, 《모든 정권을 쏘베트에로!》라는 구호하에서 쏘베트를 대중동원의 기관으로부터 폭동기관, 정권기관, 새로운 무산계급적국가기구로 전화시키기 위한 투쟁으로써 실현하였다.

어찌하여 볼쉐위크들은 쏘베트를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을 고립시키는 사업을 촉진시킬수 있으며 무산계급혁명사업을 추진시킬 능력을 가졌으며 수백만 근로대중을 무산계급독재의 승리에로 인도할 사명을 띤 기본적인 조직상의 공간으로서 틀어쥐였는가?

쏘베트란 무엇인가?

레닌은 이미 1917년 9월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쏘베트는 새 국가 기구이다. 첫째로, 이 기구는 로동자와 농민의 무력을 제공한다. 그런데 그 무력은 낡은 상비군의 무력처럼 인민과 멀어진것이 아니라 그들과 가장 밀접하게 련결된것이며 또 군사적면에서는 이 무력이 종래의 무력과 비교할수 없이 위력있는것이며 혁명적면에서는 이 무력이 다른 어떠한것과도 바꿀수 없는것이다. 둘째로, 이 기구는 용이하게 검열할수 있으며 또 쉽게 갱신할수 있고 대중과 즉 인민의 대다수와 아주 긴밀한 불가분의 련계를 맺고있는데 과거의 국가기구에는 이와 비슷한것조차 전혀 없었던것이다. 셋째로, 이 기구는 관료주의적수속이 없이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그 성원이 선거되고 또 갱질되기때문에 종래의 기구들보다는 훨씬 더 민주주의적인것이다. 넷째로, 이 기구는 온갖 종류의 직업들과 튼튼한 련계를 가지고있다. 그럼으로써 관료제도가 없이 가장 심각한 여러가지 개혁들을 용이하게 하여준다. 다섯째로, 이 기구는 전위대의, 즉 피압박계급들인 로동자와 농민의 가장 자각적이며 가장 정력적인 선진적부분의 조직형태를 보장해준다. 그리함으로써 그것은 피압박계급들의 전위대가 그것을 통하여 지금까지 전혀 정치생활밖에, 력사밖에 서있던 그 계급들의 거대한 대중전체를 끌기시키며 교양하며 훈련하며 이끌고나갈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 되는것이다. 여섯째로, 이 기구는 의회제도의 우점을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우점과 결합시킬수 있는 가능성, 즉 선거를 받은 인민의 대표자들을 거쳐서 립법적기능과 법률집행의 기능을 결합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것이다. 이것은 자산계급의회제도에 비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전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그러한 일보전진인것이다.…

만일 혁명적계급들의 인민적창조력이 쏘베트를 만들어내지 않았더라면 무산계급혁명은 로씨야에서 희망없는 일로 되였을것이다. 왜냐 하면 무산계급이 낡은 기구로써는 의심할바없이 정권을 유지할수 없을것이며 새로운 기구는 당장에는 조직할수 없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1권, 258～259페지를 보라.)①

바로 이렇기때문에 볼쉐위크들은 10월혁명의 조직과 무산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308～310페지를 보라. —편집자

계급국가제도의 강력한 새 기구의 창설을 용이하게 할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상의 고리로서 쏘베트를 틀어쥔것이다.

《모든 정권을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는 그의 내적발전의 견지로 보아 두 단계, 즉 첫째 단계(볼쉐위크들의 7월실패이전, 즉 이중정권시기)와 둘째 단계(끄르닐로브반란의 실패이후)를 경과하였다.

첫째 단계에서 이 구호는 멘쉐위크 및 사회혁명당원들과 립헌민주당원들과의 동맹의 결렬, 또한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로 이루어진 쏘베트정부의 수립(왜냐 하면 그때에 쏘베트는 사회혁명당적-멘쉐위크적이였기때문이다.)과 반정부당(즉 볼쉐위크들)의 자유로운 선동의 권리와 쏘베트내에서의 당들의 자유로운 투쟁—이러한 투쟁으로써 볼쉐위크들은 혁명의 평화적발전을 거쳐 쏘베트를 전취하며 쏘베트정부의 구성을 변경하는데 성공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을 의미하였다. 이 계획은 물론 무산계급독재를 의미한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의심할바없이 독재의 확보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을 쉽게 준비할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이 계획이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로 하여금 정권을 장악하게 하고 그들이 실지로 그 반혁명적정강을 실행하지 않을수 없게 하면서 그 당들의 진상을 폭로하고 그들을 고립시키며 대중에게서 그들이 멀어져나가도록 촉진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볼쉐위크들의 7월실패는 장군-립헌민주당적반혁명이 우세하게 하였으며 또 사회혁명당과 멘쉐위크를 반혁명들의 품속에 내던짐으로써 그 발전을 중단시켰다. 이러한 사정은 당으로 하여금 혁명이 새로 앙양되는 조건하에서 다시 내세우기로 하고 《모든 정권을 쏘베트에로!》라는 구호를 일시 취소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끄르닐로브반란의 실패는 둘째 단계를 열어놓았다. 《모든 정권을 쏘베트에로!》라는 구호가 다시 일정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구호가 이미 첫째 단계에 있었던 그러한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였다.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지금에 와서는 대다수의 쏘베트가 이미 볼쉐위크들의것으로 되였으므로 이 구호는 제국주의와의 완전한 결렬과 볼쉐위크들에게로의 정권의 이행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이제는 이 구호가 폭동의 방법으로써 혁명이 무산계급독재에 직접 접근하는것을 의미하였다. 그뿐만아니라 지금에 와서 이 구호는 무산계급독재를 조직하고 그것을 국가형태로 되게 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쏘베트를 국가권력의 기관으로 전화시킨 전술의 극히 중대한 의의는 그 전술이 수백만 근로대중을 제국주의로부터 분리시켰고 제국주의의 도구로서의 멘쉐위크당 및 사회혁명당의 진면모를 발가놓았으며 또한 수백만 근로대중을 직접 무산계급독재에로 인도한데 있다.

요컨대 타협적인 당들의 고립화와 무산계급독재의 승리의 극히 중요한 조건으로서 쏘베트를 국가권력의 기관으로 전화시키는 정책—이것이 10월혁명준비시기에 있어서의 볼쉐위크들의 전술의 셋째 특성이다.

넷째 특성. 볼쉐위크들이 어떻게 무엇때문에 자기의 당의 구호를 수백만 대중의 구호로, 혁명을 추진시키는 구호로 전화시키는데 성공하였는가 또 어떻게, 무엇때문에 볼쉐위크들이 전위대와 로동계급의 대다수에 대해서뿐만아니라 인민의 대다수에 대해서까지도 자기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케 할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취급하지 않는다면 사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할것이다.

문제는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는(만일 그 혁명이 참으로 수백만 대중을 망라하는 인민적혁명이라면) 한갖 당의 구호의 정당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것이다.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서

는 또 한가지 필요한 조건이 요구된다. 그것은 즉 대중자체가 자기들의 체험에 의하여 이 구호들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그때에야 비로소 당의 구호가 대중자신의 구호로 된다. 오직 그때에야 비로소 혁명이 진정한 인민적혁명으로 된다. 10월혁명준비시기의 볼쉐위크들의 전술의 한가지 특성은 그 전술이 자연적으로 대중을 당의 구호에로, 즉 말하자면 바로 혁명의 문앞에까지 이끌어가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의 체험에 의하여 이 구호의 정당성을 쉽게 느끼며 검열하며 인식하도록 하는 그러한 길과 전환을 옳게 결정할줄 알았다는 거기에 있다. 다시말하면 볼쉐위크들의 전술의 한가지 특성은 그 전술이 당에 대한 령도와 대중에 대한 령도를 혼동하지 않는것이고 그 전술이 첫째 종류의 령도와 둘째 종류의 령도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는것이며 그리하여 그 전술이 당에 대한 령도의 과학일뿐만아니라 또한 수백만 근로대중에 대한 령도의 과학이기도 하다는데 있다.

볼쉐위크적전술의 이런 특성을 표시하는 뚜렷한 실례는 헌법제정회의55를 소집하고 해산한 경험이다.

볼쉐위크들이 쏘베트공화국이라는 구호를 이미 1917년 4월에 내세웠다는것은 다 아는바이다. 헌법제정회의가 쏘베트공화국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자산계급적의회란것도 다 아는바이다. 볼쉐위크들이 쏘베트공화국을 목적하고 나아가면서 그와 동시에 헌법제정회의를 즉시 소집할것을 림시정부에 요구한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볼쉐위크들이 선거에 참가하였을뿐만아니라 그들자신이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한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볼쉐위크들이 폭동에 이르기 한달전에 낡은것으로부터 새것에로 넘어감에 있어서 쏘베트공화국과 헌법제정회의의 일시적결합의 가능성을 허용한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리유에 의하여 《된》것이다.

(1) 헌법제정회의의 사상은 당시 광범한 주민대중사이에 가장 보편화된 사상중의 하나였으며,

(2) 헌법제정회의를 즉시 소집하자는 구호는 림시정부의 반혁명적정체를 쉽게 드러낼수 있었으며,

(3) 헌법제정회의의 사상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망을 분쇄하기 위하여서는 그 대중으로 하여금 토지, 평화, 쏘베트정권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가지고 헌법제정회의문앞에 이르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실재적인 헌법제정회의와 실지로 대면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며,

(4)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만 헌법제정회의의 반혁명성과 그것을 해산하여야 할 필요성을 대중으로 하여금 그들자신의 경험에 의하여 쉽게 깨닫게 할수 있었으며,

(5) 이 모든것은 헌법제정회의를 말살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쏘베트공화국과 헌법제정회의의 일시적결합을 허용할 가능성을 자연히 예측하였던것이며,

(6) 이러한 결합은 만일 그것이 모든 정권이 쏘베트에 이행하는 조건하에서 실현된다면 그것은 오직 쏘베트에 대한 헌법제정회의의 종속과 쏘베트의 부속물에로의 그의 전화와 그의 고통없는 소멸을 의미하게 될수 있었기때문이다.

볼쉐위크들의 이러한 정책이 없이는 헌법제정회의의 해산이 그렇게 순조로이 진행되지 못하였을것이며 또한 《모든 정권을 헌법제정회의에로!》라는 구호하에서 나아간 사회혁명당원과 멘쉐위크들의 그후의 진출이 그처럼 창피스럽게 실패하지 않았으리라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1917년 9~11월에 로씨야의 자산계급의회, 즉 헌법제정회의선거에 참가하였었다. 그때 우리의 전술은 옳았던가 글렀던가?… 우리 로씨야의 볼쉐위크들은 1917년 9~11월

에 서구라파의 어느 나라의 공산주의자들보다도 로씨야에서는 의회제도가 정치적으로 이미 낡아버린것이라고 간주할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있지 않았던가? 물론 가지고있었다. 왜냐 하면 문제는 본래 자산계급의회의 존속기간의 장단여하에 있는것이 아니라 광범한 근로대중이 쏘베트제도를 접수하고 자산계급민주주의적의회를 해산시키기 위하여(혹은 해산을 허용함에 있어) 얼마나 준비(사상적, 정치적, 실천적으로)되여있는가에 있기때문이다. 로씨야에서는 1917년 9~11월에 일련의 특수한 조건들에 의하여 도시의 로동계급과 병사와 농민들이 쏘베트제도를 접수하며 가장 민주주의적인 자산계급의회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매우 충분히 준비되여있었다. 이것은 론쟁할 여지 없는, 완전히 확정적인 력사적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쉐위크들은 헌법제정회의를 보이꼬트하지 않았고 무산계급이 정권을 잡기전에 있어서나 또 그후에 있어서나 헌법제정회의의 선거에 참가하였던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201~202페지를 보라.)①

무엇때문에 볼쉐위크들은 헌법제정회의를 보이꼬트하지 않았는가? 그 리유는 다음과 같다고 레닌은 말하였다.

《심지어 쏘베트공화국이 승리하기 몇주일전에도 그리고 그러한 승리가 있은후에도 자산계급민주주의적의회에 참가하는것은 혁명적무산계급에게 해롭지 않을뿐만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락후한 대중에게 어째하여 그러한 의회는 해산하여야 하는가를 증명하기 쉽게 하며 그러한 의회의 해산을 용이케 하며 자산계급의회제도를 〈정치적으로 이미 낡아버린것〉으로 되게 하는것을 용이케 하여주는것이다.》(우와 같음)②

또로쯔끼가 볼쉐위크적전술의 이 특성을 리해하지 못하고 쏘베트와 헌법제정회의의 결합의 《리론》을 힐페르딩주의91라고 코웃음을 치고있는것은 특징적이다.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14페지와 215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215페지—편집자

그는 폭동의 구호가 제출되였고 쏘베트의 승리가 자못 유망한 환경하에서 헌법제정회의의 소집과 관련된 이러한 결합을 허용하는것은 쏘베트를 헌법정제회의의 부속물로 만들어버리는 멘쉐비끼주의의 전술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지 않는 유일한 혁명적전술이라는것을 리해하지 못하며 또한 이 문제에서의 몇몇 동지들의 오유는 일정한 조건하에서의 《련합된 국가제도》에 대한 레닌과 당의 절대로 옳은 립장을 비방할 아무 근거도 그에게 주지 않는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체3판, 제21권, 338페지를 참조하라.)①

그는 헌법제정회의와 관련하여 볼쉐위크들이 취한 독특한 정책이 없이는 볼쉐위크들은 수백만의 인민대중을 자기의 편으로 전취하지 못하였을것이며 또한 그 대중을 전취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10월폭동을 심각한 인민혁명으로 전환시키지 못하였으리라는것을 리해하지 못한다.

뜨로쯔끼가 지어는 볼쉐위크들의 론문들에 종종 나오는 《인민》, 《혁명적민주주의파》 등등의 어구에 대하여서까지도 그것을 맑스주의자들의 체면이 깎이는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코웃음치는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뜨로쯔끼는 레닌, 즉 이 의심할바없는 맑스주의자가 무산계급독재의 승리의 한달전인 1917년 9월에 있어서도 《모든 정권을 혁명적무산계급이 령도하는 혁명적민주주의파의 수중에 즉시로 넘겨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론술한것을(《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1권, 198페지를 보라.)② 아마 잊어버리고있는 모양이다.

뜨로쯔끼는 레닌, 즉 이 의심할바없는 맑스주의자가 관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6권, 180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281페지를 보라. —편집자

료-군사적국가기구를 파괴하는것은 대륙에 있어서의 온갖 진정한 인민혁명의 전제조건으로 된다고 한 맑스가 쿠겔만에게 보낸 유명한 서한①(1871년 4월에 씀)을 인증하면서 명백하게 다음과 같은 구절을 쓴것을 아마 잊어버리고있는 모양이다.

《관료-군사적국가기구를 마스는것이 〈온갖 참다운 인민혁명의 선결조건〉이라는 극히 심오한 맑스의 지적은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인민〉혁명이라는 개념은 맑스가 한 말로서는 이상한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맑스주의자이노라고 하는, 스뜨루웨의 추종자인 로씨야의 뿔레하노브파나 멘쉐위크들은 맑스의 이 표현을 아마 〈실언〉이라고 할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맑스주의를 얼마나 빈약하게, 자유주의적으로 외곡하여버렸던지 자산계급혁명과 무산계급혁명의 대립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 게다가 그들은 이 대립조차도 더없이 딱딱하게 리해하고 있다.…

1871년에 구라파대륙에서는 무산계급이 인민의 다수를 이룬 나라가 하나도 없었다. 〈인민〉혁명은 무산계급과 농민을 끌어들여야만 실지 인민의 대다수를 끌어들인 혁명으로 될수 있었다. 그때에는 바로 이 두 계급이 〈인민〉을 이루고있었다. 이 두 계급은 〈관료-군사적국가기구〉의 압박과 유린과 착취를 당한다는것으로 하여 단합되여있었다. 이 기구를 마스고 짓부시는것—이것이 〈인민〉의, 그 대다수의, 로동자와 대다수 농민의 참다운 리익이며 이것이 빈고한 농민과 무산자의 자유로운 동맹의 〈선결조건〉이다. 이러한 동맹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견고하지 못하며 사회주의적개조가 불가능하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1권, 395~396페지를 보라.)②

레닌의 이 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즉 수백만의 근로자들을 당의 편으로 전취하는 가장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92~393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203페지와 204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중요한 조건으로서 혁명적진지에로 그 대중을 인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의 구호들이 정당하다는것을 대중으로 하여금 그들자신의 경험으로써 확신할수 있도록 하여주는 그 능력—이것이 10월혁명준비시기에 있어서의 볼쉐위크들의 전술의 넷째 특성이다.

나는 이 전술의 특징들을 명백히 알기 위하여서는 우에서 말한것으로써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4

세계혁명의 시초와 전제로서의 10월혁명

구라파의 주요한 나라들에서 혁명이 동시적으로 승리한다는 만능의 리론,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리론은 인공적이며 생명력없는 리론이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로씨야무산계급혁명의 7년간의 력사는 이 리론을 지지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박하고있다. 이 리론은 명백한 사실들에 모순되기때문에 세계혁명발전의 도식으로서 접수할수 없을뿐만아니다. 그것은 더우기 구호로서 접수할수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일정한 력사적조건들에 의하여 자본전선을 독립적으로 돌파할수 있는 개별적나라들의 창발성을 발휘하게 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속박하기때문이며 개별적나라들로 하여금 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도록 격려하는것이 아니라 《전반적해결》의 시기를 소극적으로 기다리게 하기때문이며 개별적나라들의 무산자사이에 혁명적결단성의 정신을 배양하는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다른 나라들이 후원하지 않으면 어찌할가》 하는 햄리트92식의 회의적정신을 배양하기때문이다. 레닌이 한 나라에서의 무산계급의 승리는 《전형적인 경우》이고 《여러 나라에서의 동시적혁명》은 다만 《희유한 례외》

일수 있다고 말한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354페지를 보라.)①

그런데 다 아는바와 같이 레닌의 혁명리론은 문제의 이 한 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와 동시에 세계혁명의 발전에 대한 리론인것이다②.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독자적인 과업이 아니다. 한 나라에서 승리한 혁명은 독자적인것으로 간주할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의 무산계급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조력으로, 수단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한 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이 경우에 있어서는 로씨야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제국주의의 불균형적발전과 갈수록 더 심하여가는 퇴폐의 산물일뿐만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세계혁명의 시초이며 전제이기때문이다.

세계혁명의 발전의 로정들이 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기전에, 《사회주의혁명의 전야》인 발전된 제국주의가 나타나기전에 생각할수 있었던것과 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것은 의심할바도 없다. 왜냐 하면 군사적충돌의 불가피성과 자본의 세계전선의 전반적약화와 개별적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을 말하여주는, 발전된 제국주의의 조건하에서 작용하는 자본주의나라들의 불균형적발전법칙과 같은 그러한 새 요인이 나타났기때문이며 또 서방과 동방사이에 놓여있으며 세계의 금융적착취의 중심과 식민지적압박의 무대사이에 놓여있어 한갓 그자체의 존재만으로써도 전 세계를 혁명화하는 거대한 쏘베트나라와 같은 그러한 새 요인이 나타났기때문이다.

이 모든 요인은(나는 덜 중요한 다른 요인들에 대하여서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639~640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레닌주의기본에 대하여》를 보라. —이. 쓰발린

는 말하지 않는다.) 세계혁명의 로정을 연구함에 있어서 참작하지 않을수 없는 그러한 요인들이다.

이전에는 사회주의의 요소들이 균등하게 《성숙》되는데 의하여 우선 보다더 발전된 《선진》국가들에서 혁명이 발전되리라고 보통 생각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견해는 본질적으로 변경되여야 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재 조성되여있는 국제관계를 보면 구라파에서 한 나라가 전승국가들에게 예속되여있는데 그것은 곧 독일이다. 그리고 서구라파의 일련의 국가들, 특히 가장 낡은 국가들은 승리로 인하여 자국의 피압박계급들에 대하여 일련의 대수롭지 않은 양보—비록 대수롭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나라들에 있어서의 혁명운동을 지연시키며 그 어떤 〈사회적평화〉와 류사한 정세를 창조하게 하는 양보—를 위해서 이 승리를 리용할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되였다.》

《이와 동시에 동방의 일련의 나라들 즉 인도, 중국 등등은 바로 지난 제국주의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기 궤도에서 탈선하게 되였다. 이 나라들의 발전은 전적으로 전 구라파적인 자본주의적길을 따라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전 구라파적파동이 이 나라들에서 시작되였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세계자본주의전반에 위기를 초래하지 않을수 없는 발전과정에 들어섰다는것은 오늘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리하여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이 사회주의에로의 그들의 발전을 완성할 때까지…우리가 이전에 기대한것과 같이 되지는 않을것이다. 그들은 그들내부에서의 사회주의의 균등적〈성숙〉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략취하는 방법으로, 제국주의전쟁시기에 패전한 나라들중에서 첫번째 나라를 략취하며 게다가 동방전체를 략취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에로의 발전을 완성하고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동방은 바로 제1차제국주의전쟁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혁명운동에 들어섰으며 또 결정적으로 전 세계 혁명운동의 전반적소용돌이에 인입되였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415~416페지를 보라.)①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708~709페지를 보라. —편집자

이밖에도 전패국과 식민지들이 전승국들에게 착취를 당할 뿐만아니라 전승국들의 일부도 역시 가장 세력있는 전승국인 미국과 영국의 금융적착취의 권내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 모든 나라들사이의 모순들은 세계제국주의의 해체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는 사실, 이 모순들 이외에도 이 나라들의 내부에는 극히 심각한 다른 모순들이 또 존재하고 발전한다는 사실, 이 모든 모순은 이 나라들과 병렬하여 위대한 쏘베트공화국이 존재하는데서 심각화하며 첨예화한다는 사실—만일 이 모든것을 념두에 둔다면 국제정세의 특징은 어느 정도 완전하게 보여질것이다.

아마도 세계혁명은 일련의 새 나라들이, 제국주의국가들의 무산계급이 이 새 나라들의 무산자를 지지하여주는 조건하에서 혁명적수단으로 제국주의국가들의 체계로부터 리탈함으로써 발전되리라는것이 무엇보다도 더 가능한 일이다. 첫번째로 리탈한 나라가, 첫번째로 승리한 나라가 이미 다른 나라들의 로동자 및 근로대중의 지지를 받고있다는것을 우리는 보고있다. 이러한 지지가 없이는 그 나라는 지속하여갈수 없을것이다. 그러한 지지가 더 강화되며 더 발전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이와 동시에 처음 승리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철저히 공고하게 되면 될수록 또 그 나라가 세계혁명을 앞으로 더 전개하는 근거지로, 제국주의를 가일층 와해시키는 공간으로 보다더 신속히 전화되면 될수록 세계혁명의 발전자체와 일련의 새 나라들이 제국주의체계로부터 리탈하는 과정자체는 더욱 신속히, 더욱 철저히 진행되리라는것도 또한 의심할바없다.

만일 몇개 나라의 무산자들의 공동한 노력이 없이는 처음 해방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가 불가능하다는 명제는 정당하다. 이와 동시에 모든 이여의 나라들의 로동자 및

근로대중에 대한 첫 사회주의나라의 원조가 효과적이면 효과적일수록 세계혁명이 더 신속히, 또 더 철저히 전개된다는 명제도 역시 정당한것이다.

그 원조는 무엇에 표현되여야 할것인가?

첫째로, 그것은 승리한 나라가 《모든 나라의 혁명을 발전시키며 지원하며 고무하기 위하여 한 나라에서 할수 있는바를 최대한으로 실행》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385페지를 보라.)①

둘째로, 그것은 한 나라에서 《승리한 무산계급은 자본가를 수탈하고 자국에 사회주의적생산을 조직한후에는 다른 자본주의세계를 반대하여일어나 다른 나라들의 피압박계급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며 이 나라들에서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키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에 의해서라도 착취계급과 그들의 국가를 반대하여 행동…》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8권, 232～233페지를 보라.)②

승리한 나라의 이러한 원조의 특징은 그 원조가 다른 나라들의 무산자의 승리를 가속화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또한 그 승리를 촉진하여줌으로써 첫번째로 승리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보장한다는데도 있는것이다.

세계혁명의 발전행정에서 개개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제국주의의 발원지 및 전 세계에서의 이 나라들의 체계와 아울러 개개의 쏘베트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발원지와 또한 전 세계에서의 그 발원지들의 체계가 생겨나올것은 아주 가능한 일인바 이에 따라서 이 두가지 체계사이의 투쟁이 세계혁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677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제2권, 709페지를 보라. —편집자

명발전의 력사를 가득채우게 될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왜냐 하면《여러 사회주의공화국이 락후한 국가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완강한 투쟁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각 민족의 자유로운 련합은 불가능하기》때문이다.(우와 같음)

10월혁명의 세계적의의는 그것이 제국주의체계를 돌파하는 사업에 있어서 한 나라의 위대한 단서로 되며 제국주의국가들의 대양에서 사회주의의 첫 발원지로 된다는 그 점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은 세계혁명의 첫단계로 되며 또 세계혁명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강력한 근거지로 된다는데도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10월혁명의 국제적성격을 잊어버리고 한 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를 순전히 일국적, 오직 일국적현상이라고 말하는자들만이 옳지 않은것이 아니다. 10월혁명의 국제적성격을 기억하면서도 그 혁명을 다만 외부의 지지를 받아야 할 운명을 가진 어떤 소극적인것으로 간주하려는자들도 옳지 않다. 사실상 10월혁명만이 다른 나라들의 혁명의 지지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혁명도 세계제국주의를 전복하는 사업을 촉진하며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10월혁명의 지지를 요구하는것이다.

1924년 12월 17일

1925년 국가출판사에서 출판한 쓰딸린의 저서《10월혁명에로 가는 길》에 발표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6권, 310~348페지

독일공산당의 전망과 볼쉐위크화에 대하여

(독일공산당원 헤르쪼그와의 담화)

물음 1 (헤르쪼그): 당신은 독일자본주의적민주주의공화국의 정치 및 경제 관계가 로동계급이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정권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게 할것이라고 보는가?

답(쓰딸린): 만일 경향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기한에 대하여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하여 엄밀히 확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현정세가 국제적조건에서나 국내적조건에서나 1923년의 정세70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외부정세의 중대한 변화로 말미암아 정세가 가까운 장래에 혁명에 유리하게 급변할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것은 아니다.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은 이러한 예상이 현실성이 매우 크다는 담보로 된다.

물음 2: 현재의 경제형편과 현재의 세력관계로 보아 무산계급의 다수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이것은 정권을 전취하기 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서 레닌이 각국 공산당에 제기한 요구이다.) 보다 긴 준비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답: 경제형편에 대해서 묻는 한 나는 사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자료에 의해서밖에 평가할수 없다. 도즈안93은 이미 사태를 상대적으로 안정시키는 약간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나는 본다. 독일산업에의 미국자본의 침투, 통화의 온정,

독일산업의 일부 중요부문의 호전(이것은 결코 독일경제의 근본적호전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끝으로 로동계급의 물질적형편의 약간한 개선—이러한 모든것은 독일자산계급의 진지를 어느 정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수 없었다. 이것은 말하자면 도즈안의 《긍정적》인 면이다.

그러나 도즈안은 또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있는바 그것은 일정한 시기에 불피코 드러나고야말것이며 그것은 이 안의 《긍정적》결과를 파괴하고야말것이다. 의심할바없이 도즈안은 독일무산계급에게 있어서는 국내자본과 국외자본의 이중적 억압을 의미하는것이다. 독일산업의 확장과 이 산업의 국외시장범위의 축소사이의 모순, 련합국의 과분한 요구와 독일국민경제가 이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최고가능성사이의 불일치—이러한 모든것은 불피코 무산계급, 소농, 사무원 및 지식인의 처지를 악화시키면서 혁명의 폭발을, 즉 정권획득을 위한 무산계급의 직접적인 투쟁을 일으키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독일혁명의 유일하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이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밖에도 공산당이 로동계급의 다수를 대표하게 되며 그것이 로동계급내에서 결정적력량으로 되는것이 필요하다. 사회민주당을 폭로, 분쇄하여 그것이 로동계급내에서 보잘것없는 소수의 처지에까지 전락되게 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산계급의 독재는 생각할수도 없다. 로동자들이 승리하게 하자면 반드시 통일적인 의사로써 그들을 고무하여야 하며 로동계급의 대다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있는 하나의 당이 그들을 령도하여야 한다. 만일 로동계급내부에 동일한 세력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두개의 당이 있다면 비록 외부조건은 유리하다 할지라도 확고한 승리는 불가능하다. 레닌은 이 점을 10월혁명전시기에 무산계급의 승리의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특히 강

조한 첫사람이였다.

혁명에 가장 유리한 정세는 독일의 국내적위기와 공산당의 력량의 대폭적인 장성이 독일의 외적물의 진영내의 심각한 분규와 때를 같이하게 되는 그러한 정세라고 생각할수 있다.

나는 1923년의 혁명시기에는 이러한 정세의 마지막조건이 없었던 관계로 부정적역할이 아주 컸다고 생각한다.

물음 3: 당신은 독일공산당이 로동자의 다수를 자기 편에 결속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금까지는 이 목표에 대하여 너무나 적게 주의를 돌렸다. 그런데 독일공산당을 힘차게 자라나는, 동원력을 가지고있는 그러한 생명력있는 당으로 만들자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답: 어떤 동지들은 당을 공고화하며 그것을 볼쉐위크화한다는것은 곧 온갖 견해를 달리하는자들을 죄다 당에서 축출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이것은 물론 옳지 않다. 사회민주당을 폭로하며 그것을 로동계급내에서 보잘것없는 소수의 처지에까지 전락시키는 일은 오직 로동계급의 구체적인 요구를 위한 일상적인 투쟁과정에서만 가능하다. 사회민주당의 죄악을 드러내놓아야 하되 그것은 추상적인 큰 문제에 기초해서 할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물질적 및 정치적 형편의 개선을 위한 그들의 일상적인 투쟁에 기초해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로임, 로동일, 주택조건, 보험, 세금, 실업, 생활비의 등귀 등등의 문제는 결정적역할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기초하여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배신적행위를 폭로하면서 그들에게 일상적으로 타격을 주는것—이것이 과업이다.

그러나 이 과업은 만일 일상적인 실지문제가 독일의 국제 국내정세와 관련된 근본적인 제 문제와 련결되여있지 않다면 또 만일 그러한 일상적인 활동전체가 혁명의 견지와 무산계급

의 정권전취의 견지로 보아서 당의 모든 활동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오직 사회민주당의 온갖 결함을 자기 당의 강화를 위하여 리용할만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있고 또 부분적성과로 말미암아 혁명발전의 전망을 잃어버리지 않을만큼 리론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여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지도적간부로 가지고있는 당만이 수행할수 있다.

독일공산당도 포함한 공산당일반의 지도간부문제가 볼쉐위크화사업의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로 된다는것은 주로 이러한 사실로써 설명된다.

볼쉐위크화를 실시하자면 적어도 몇가지의 기본조건, 즉 그것이 없이는 공산당의 볼쉐위크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조건들이 구비되여야 한다.

(1) 당은 사회민주당이 사실상 자체를 그렇게 간주하고있듯이 자체를 의회선거기구의 한 부속물로 간주하거나 또 어떤 무정부주의적급진로동조합주의분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있듯이 자체를 직업동맹의 무료부속물로 간주할것이 아니라 직업동맹으로부터 의회의원단에 이르기까지의 무산계급조직의 이 여의 모든 형태를 령도할 사명을 띠고있는 무산계급의 계급적 단결의 최고형태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당 특히 그 지도자들은 혁명적실천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여있는 혁명적맑스주의리론을 잘 알아야 한다.

(3) 당은 구호와 지령을 작성함에 있어서 암기해둔 공식이나 력사적류추에 기초할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혁명의 경험을 반드시 참작하여 혁명운동의 구체적인 국내, 국제적 조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에 근거하여야 한다.

(4) 당은 대중의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그 구호 및 지령의 정확여부를 검열하여야 한다.

(5) 당의 모든 활동은(특히 사회민주당적전통이 당내에서 아직 근절되여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의 일거일동이 필연적으로 대중을 혁명화하며 로동계급의 광범한 대중을 혁명적정신으로 훈련교양하는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혁명적궤도우에 재건되여야 한다.

(6) 당은 그 활동에 있어서 최고도의 원칙성(종파주의와 혼동하지 말라!)을 대중과의 최대한의 련결 및 접촉(추미주의와 혼동하지 말라!)과 결합시킬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은 비단 대중을 가르치지 못할뿐만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울수도 없으며 또 대중을 인도하여 당의 수준에까지 그들을 끌어올리지 못할뿐만아니라 대중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절실한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내지도 못할것이다.

(7) 당은 그 활동에 있어서 비타협적혁명성(혁명적모험주의와 혼동하지 말라!)을 최대한의 신축성 및 림기응변성(순응성과 혼동하지 말라!)과 결합시킬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은 온갖 투쟁형태와 조직형태를 적용할수 없으며 무산계급의 일상적리익을 무산계급혁명의 근본적리익과 련결시킬수 없으며 그 활동에 있어서 합법적투쟁을 비합법적투쟁과 결합시킬수 없다.

(8) 당은 자체의 과오를 숨기지 말고 비판을 겁내지 말아야 하며 자체의 간부들을 자체의 과오에 기초하여 양성, 교양할줄 알아야 한다.

(9) 당은 혁명적무산계급의 지향의 진정한 표현자로 될만큼 헌신적이며 또 레닌주의의 전략전술을 적용할줄 아는 무산계급혁명의 참다운 지도자로 될만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선진적투사들중에서 가장 우수한 분자들을 기본적지도집단에 선발할줄 알아야 한다.

(10) 당은 최대한의 단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기 조직들

의 사회적성분을 일상적으로 개선하며 기회주의적부패분자들을 일소하여야 한다.

(11) 당은 사상적일치성, 운동목적의 명확성, 실지활동의 통일성 또한 당의 제 과업에 대한 광범한 당원대중의 자각적 태도 등의 지반우에 세워진 강철같은 무산계급적규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12) 당은 자기자신의 결정 및 지령의 집행여하를 일상적으로 검열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결정 및 지령은 당에 대한 광범한 무산계급대중의 신임을 저하시키기나 하는 빈 약속으로 전화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또는 이와 류사한 제 조건이 없이는 볼쉐위크화란 유명무실한 공론이다.

물음 4: 당신은 말하기를 도즈안의 부정적인 면과 아울러 독일공산당의 정권전취를 위한 두번째 조건으로 되는것은 사회민주당이 대중앞에서 완전히 폭로되여 그것이 더는 로동계급속에서 이렇다 할 세력으로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사태라고 하였다. 그런데 실정으로 보아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여기에 당측의 오늘날의 활동방법의 결점과 약점이 명백히 나타나있다. 이러한 결점과 약점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는가? 1924년 12월의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완전히 매수된 부패한 당—은 아무것도 상실하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약 200만표를 획득하였는데 당신은 이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 여기서는 문제가 독일공산당의 활동의 결점에 있는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차관과 미국자본의 침투와 아울러 통화안정이 정세를 약간 호전시킴으로써 독일의 정세와 련결되여있는 국내외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제거할수 있는듯한 착각을 자아냈다는데 있다. 독일사회민주

당은 바로 이러한 착각을 리용하여 배마를 탄듯[94] 현국회에 들어갔다. 지금 웰스는 선거에서 자기가 승리하였다고 자부하고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남의 승리를 가로채고있다는것을 아마 모르고있을것이다. 승리한것은 독일의 사회민주당인것이 아니라 모르간첩단이다. 웰스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다만 모르간의 앞잡이에 불과한것이다.

1925년 2월 3일부 《붉타우다》 제27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7권, 32~37페지

국제부녀절에 즈음하여

인류력사에서 피압박자들의 위대한 운동으로서 근로녀성들의 참가없이 진행된것은 하나도 없었다. 근로녀성들, 모든 피압박자들중에서 최대의 피압박자인 근로녀성들은 결코 해방운동의 한길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또 물러설수도 없었다. 노예해방운동은 다 아는바와 같이 수백수천의 위대한 녀성렬사와 녀성영웅들을 배출시켰다. 농노해방을 위한 투사들의 대렬에는 수만의 근로녀성들이 있었다. 피압박대중의 모든 해방운동중에서 가장 강력한 운동인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이 수백만 근로녀성을 그 기발밑에 끌어들였다는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국제부녀절은 로동계급해방운동의 불패성에 대한 표징이며 그 운동의 위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다.

근로녀성, 즉 녀성로동자와 녀성농민은 로동계급의 최대의 예비군이다. 이 예비군은 인구의 반수나 차지하고있다. 녀성예비군이 로동계급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여기에 무산계급운동의 운명, 무산계급혁명의 승패, 무산계급정권의 존망이 달려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무산계급과 그 전위대인 공산당의 첫째 과업은 녀성을, 녀성로동자와 녀성농민을 자산계급의 영향으로부터 해방하며 그들을 정치적으로 계몽하며 또 무산계급의 기발밑에 결속시키기 위하여 단호히 투쟁하는것이다.

국제부녀절은 근로녀성예비군을 무산계급측으로 전취하기

위한 한가지 수단이다.

그러나 근로녀성은 예비군일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로동계급의 옳바른 정책밑에서는 자산계급을 반대하여 싸우는 로동계급의 정규군으로 될수 있으며 또 되여야 한다. 근로녀성 예비군으로부터 위대한 무산계급군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는 녀성로동자와 녀성농민의 군대를 훈련해내는것—이것이 로동계급의 결정적인 둘째 과업이다.

국제부녀절은 녀성로동자와 녀성농민을 로동계급의 예비군으로부터 무산계급의 해방운동의 현역군으로 전화시키는 수단으로 되여야 한다.

국제부녀절 만세!

01. 쓰딸린

1925년 3월 8일부 《쁘라우다》 제56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7권, 43~44페지

쏘련무산계급대학생 제1차대표자회의[95]에 보냄

(편 지)

동지들! 여러분의 대표들은 당의 과업과 무산계급대학생 속에서의 당사업의 과업에 대하여 말하여달라고 나에게 제의하였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몇마디 말하려 한다.

현시기의 정세의 특성은 우리 나라의 무산계급이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환경을 자기 나라에 조성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미 자본가와 지주를 타승하고 구축하여버린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다고 하는것은 옳지 않다. 무산계급독재를 확립하였으며 풍부한 자원을 소유하고있으며 또 전 세계 무산자들의 지지를 받고있는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를 능히 건설할수 있으며 또 반드시 건설하여야 한다. 레닌이 우리 나라는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온갖 조건이 구비되여있다고 말한것은 옳은 말이다. 현시기의 특성은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 이미 중대한 성과를 이루어 사회주의를 공상으로부터 일상적인 실지사업의 실천적인 목표로 전화시켰다는 점에 있다.

이 건설사업에서 무산계급대학생들의 역할은 어떠한것으로 되여야 할것인가?

그들의 역할은 비록 제일 중대한것은 아닐지라도 중대한

것만은 의심할바없다. 대학, 공산주의대학96, 로동학부, 중등 전문학교—이것은 경제 및 문화 부문의 지휘원들을 양성하는 학교들이다. 의학자 및 경제학자, 협동조합일군 및 교육가, 광산기사 및 통계학자, 기술자 및 화학자, 농업일군 및 철도기사, 수의 및 림업일군, 전기기술자 및 기계기술자—이들은 모두 새사회를 건설하며 사회주의경제 및 사회주의문화를 건설하는 부문의 미래의 지휘관들이다. 새로운 지휘관이 없이는 새로운 군대를 창건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회도 새로운 지휘원이 없이는 건설할수 없다. 새로운 지휘원의 우월성은 그들이 한줌도 못되는 부자들에게 리롭도록 근로자들을 착취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한줌도 못되는 착취자들을 반대하고 근로자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건설할 사명을 가졌다는데 있다. 모든 문제는 대학의 학생들이—로동자, 농민, 당원, 비당원 할것없이—자기들의 이 영예로운 역할을 리해하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무산계급대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주의경제와 사회주의문화의 자각적인 건설자로 되도록 하는것—이것이 당의 첫째 과업이다.

그러나 근로대중의 직접적인 지지가 없이 다만 지휘원의 힘만으로써는 새사회를 건설할수 없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는 새 지휘원의 지식만으로써는 불충분하다. 여기에는 또이 지휘원에 대한 근로대중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건설을 담당한 낡은 지휘원의 특성은 그들이 로동자, 농민으로부터 유리되여있으며 근로대중의 머리우에 서서 대중의 신뢰도 지지도 존중하지 않으며 따라서 신뢰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있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전혀 적응되지 않는다. 새로운 경제 및 새로운 문화의 건설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휘원이 사실 새롭다고 불리우

게 되는 리유는 그들이 반드시 낡은 명령식지휘방법과 철저하고도 단호하게 결별하여야 하기때문이다. 대중과 유리되는것이 아니라 그들과 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대중의 머리우에 설것이 아니라 대중의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나아가며 대중을 멀리하는것이 아니라 그들과 혼연일체가 되여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전취하는것—이와 같은것이 새로운 지휘원의 새로운 운영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사회주의건설도 생각할수 없다.

그러므로 무산계급대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근로대중의 불가분적부분으로 생각하도록 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사회활동가로 인식하고 또 참으로 사회활동가답게 행동하도록 하는것—이것이 당의 둘째 과업이다.

마지막으로 공산당원대학생들에 대하여 특히 말하려 한다. 공산당원대학생들은 학업에 있어서 성적이 좋지 못하다고 말들 하고있다.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는 비당원들보다 대단히 뒤떨어져있다고 말들 한다. 공산당원대학생들은《고상한 정치》를 연구하기 좋아하여《세계적문제에 관한》끝없는 토론에 시간의 3분의 2를 허비한다고 말들 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사실인가? 나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한 여기에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결론이 나올것이다. 첫째로 공산당원대학생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멸등한 지도자로될 위험성이 있다. 왜냐 하면 과학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을 지도할수 없기때문이다. 둘째로 새로운 지휘원의 양성사업이 새로운 사람들로써 새로이 교체되지 않으면 안될 낡은 교수들에게 독점될 위험성이 있다. 왜냐 하면 과학을 습득하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습득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써는 새로운 계승자나 새로운 과학연구일군들을 양성해낼수 없기때문이다. 이 모든것이 전반 사회주의건설사업을 직

접 위협하게 될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이러한 사태를 내버려 둘수 있겠는가? 물론 그렇게 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공산당원대학생들은 또 일반적으로 쏘베트대학생들은 파학을 습득하여 새로운 쏘베트사람들가운데서 새로운 계승자를 키워내여 낡은 교수들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당면과업을 명백하고 확고하게 자기앞에 내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하여 연구하여서는 안된다고 말하는것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다만 공산당원대학생들이 정치사업과 파학습득사업을 결부시킬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말할 따름이다. 이렇게 하자면 난관이 많다고 말들 하고있다. 이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런데 어느때부터 공산당원들이 난관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는가? 우리의 건설도상에 놓여있는 난관은 곧 그것과 투쟁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것이다.

이밖에 또 한가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혁명적 관습 및 전통과 아울러 또 페문자수 및 사상의 침체와 투쟁하는 경력을 가진 우리 나라는 과학의 번영을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을 이루고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본주의적학부의 낡은 교수들에게 고유한 소시민적 협애성과 보수성이 과학발전을 저애하는 질곡으로 된다는것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것이다. 완전하고 자유로운 과학적창조를 할수 있는것은 오직 이러한 결함을 가지고있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뿐이라는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각종 질곡으로부터 해방된 과학의 성새 및 묘상으로 될 원대한 전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공산당원대학생들이 과학발전의 대로의 한쪽구석에 뒤떨어져있다면 그것은 한심하고 수치스러운 일일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과학을 습득하라는 구호는 특별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그러므로 무산계급대학생들로 하여금, 우선 공산당원대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습득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습득하게 하는것—이것이 당의 셋째 과업이다.

축하의 뜻을 표시하면서

01. 쓰딸린

1925년 4월 15일

1925년 4월 16일부 《쁘라우다》 제87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7권, 71~74페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 대표자회의의 사업총화에 대하여

(1925년 5월 9일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모스크바 조직의 열성자들에게 한 보고)

동지들! 나는 우리 당 제14차대표자회의97에서 채택된 결의들을 여기에서 상세하게 분석하는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많은 시간을 요할것이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나는 그 결의들에 붉은선마냥 관통되고있는 기본로선만을 지적해도 넉넉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채택된 결의들의 기본적결론을 치중하여 지적할수 있고 또 앞으로 이 결의들을 연구하는데도 편리할것이다.

결의들을 보면 결의들에서 취급된 여러가지 문제를 여섯가지 주요한 문제로 귀납할수 있다. 제1부류의 문제는 국제정세에 대한 문제이다. 제2부류의 문제는 자본주의국가의 공산당들의 당면과업에 대한 문제이다. 제3부류의 문제는 식민지 및 예속국들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당면과업에 대한 문제이다. 제4부류의 문제는 현 국제정세하에서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운명에 대한 문제이다. 제5부류의 문제는 농촌에서의 우리 당의 정책과 새로운 조건하에서의 당의 령도과업에 대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제6부류의 문제는 우리 나라의 전체 공업의 중추신경 즉 금속공업에 대한 문제이다.

1
국 제 정 세

국제정세에 있어서 현시국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결정하는 새롭고 특수한 정황은 어떠한것인가?

최근에 나타났고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치고있는 새로운 정황은 쏘련의 경제적발전 및 정치적위력이 장성하고있는것과 동일한 시기에 구라파에서 혁명의 퇴조가, 약간의 평온이 즉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일시적안정이 시작되였다는데 있다.

혁명의 퇴조, 평온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세계혁명의 종말의 시작, 세계무산계급혁명의 소멸의 시작이 아닌가? 레닌은 우리 나라에서 무산계급이 승리한후에 새로운 시대, 즉 세계혁명의 시대, 충돌과 전쟁, 진공과 퇴각, 승리와 실패가 충만된 시대, 각 주요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무산계급을 승리에로 나아가게 하는 시대가 시작되였다고 말하였다. 만일 구라파에서 혁명의 퇴조가 시작되였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대, 즉 세계혁명의 시대에 관한 레닌의 명제도 이에 따라 그 의의를 상실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인가? 그것은 서방의 무산계급혁명도 이에 따라 소멸된다는것을 말하는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세계혁명의 시대란 혁명의 새로운 단계로서 그것은 몇년에 걸친 혹은 수십년일수도 있는 웅근한 전략적시기인것이다. 이 시기내에는 혁명의 퇴조와 만조가 있을수 있으며 또 있어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의 혁명은 그 발전에 있어서 두개 단계 즉 두개의 전략적시기를 경과하였으며 10월혁명이후에는 세번째 단계 즉 세번째 전략적시기에 들어섰다. 첫번째 단계(1900～1917년)

는 15년이상 지속되였다. 이 단계에는 짜리제도의 전복과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는 혁명의 퇴조와 만조를 여러 번 겪었다. 우리는 1905년에 혁명의 만조를 겪었다. 그때의 만조는 혁명의 일시적실패로 끝났다. 그후에 우리는 여러해(1907~1912년)동안 지속된 퇴조를 겪었다. 이어 우리는 레나사건[98](1912년)으로 해서 일어난 새로운 만조를 겪었는데 이 만조는 후에 대전시기에 일어난 새로운 퇴조로 대체되였다. 1917년(2월)에 새로운 만조가 시작되였는데 이 만조는 인민이 짜리제도를 타승한것으로써 즉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한것으로써 결속되였다. 번마다 퇴조가 있은후이면 취소파들은 언제나 혁명이 끝장났다고 억설하였다. 그러나 혁명은 여러차례의 퇴조와 만조를 경과한후에 마침내 1917년 2월에 승리를 전취하였다.

혁명의 두번째 단계는 1917년 2월부터 시작되였다. 제국주의전쟁으로부터 물러나고 자산계급을 뒤엎으며 무산계급독재의 승리를 쟁취하는것이 이 단계의 목적이였다. 이 단계는, 다시말해서 이 전략적시기는 8개월동안이나 지속되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쟁과 경제적파괴가 혁명을 채찍질하여 혁명의 발걸음을 촉진시킨 가장 심각한 혁명적위기의 8개월이였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이 혁명적위기의 8개월간은 적어도 보통립헌제하에서의 발전의 8개년에 해당할수 있는것이며 또 해당해야 할것이다. 이 전략적시기도 이 이전의 전략적시기와 마찬가지로 혁명은 혁명의 속물들이 보통 생각하고있는것처럼 일직선으로 상승하는것이 아니라 퇴조와 만조를 내포하고있다는것으로써 특징지어진다. 우리는 이 시기에, 7월시위운동[89]당시에 혁명운동의 세찬 만조를 겪었다. 이어 볼쉐위크들의 7월실패후에 우리는 혁명의 퇴조를 겪었다. 뒤미처 이 퇴조는 꼬르닐로브반란[79]직후의 새로운 만조로 대체되였는데 이 만조는

10월혁명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이 시기의 취소파들은 7월실패후에 혁명이 완전히 소멸되였다고 지껄여댔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있다싶이 혁명은 여러차례의 시련과 퇴조를 겪은후에 무산계급독재의 승리로 종결되였다.

10월혁명승리후에 우리는 세번째 전략적시기, 즉 세계적 범위내에서 자산계급을 타승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혁명의 세번째 단계로 들어섰다. 이 시기가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는 말하기 어려운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기가 오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없으며 또한 이 시기에도 퇴조와 만조가 있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세계혁명운동은 지금 혁명의 퇴조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 퇴조는 여러가지 원인(이런 원인에 대하여서는 아래에서 말하겠지만)으로 하여 반드시 만조로 대체될것이다. 이 만조는 무산계급의 승리로 끌날수도 있으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퇴조로 교체될수도 있는데 그 새로운 퇴조도 또다시 혁명의 새로운 만조로 대체되고말것이다. 지금의 취소파들은 이미 나타난 평온한 현상을 세계혁명의 종말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즉 그들이 혁명운동의 퇴조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혁명의 훼멸이라고 생각하던 우리나라 혁명의 첫번째 단계와 두번째 단계 때에 오유를 범했던것과 꼭같이 오유를 범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혁명의 매개 단계, 즉 매개 전략적시기에 있어서의 기복이다.

이러한 기복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그것은 세계혁명의 새로운 시대에 관한 레닌의 론점이 이미 그 의의를 상실하였거나 혹은 상실할수 있다는것을 말하는것인가? 물론 아니다! 그것은 혁명의 발전은 보통 일직선으로 상승하거나 계속부단히 앙양되는것이 아니라 굴곡적인 길, 공격과 퇴각, 만조와 퇴조가 서로 대체되는 길을 거치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줄따름

이다. 발전행정에서 만조와 퇴조는 혁명의 력량을 단련시키며 또 혁명의 최후승리를 준비한다.

이것이 이미 닥쳐온 혁명의 퇴조기의 력사적의의이며 우리가 당면하고있는 평온한 시기의 력사적의의인것이다.

그러나 퇴조는 사태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사태의 다른 일면은 구라파혁명의 퇴조와 동반하여 쏘련의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고 쏘련의 정치위력이 날로 장성하고있는것이다. 바꾸어말한다면 지금은 자본주의만 안정되고있는것이 아니라 쏘베트제도도 안정되고있다. 이로부터 볼수 있는바와 같이 지금은 두가지 안정, 즉 자본주의의 잠시적안정과 쏘베트제도의 안정이 존재한다. 이 두가지 안정사이에는 일시적인 균형이 이루어지고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하고있는 국제정세의 특징이다.

그러면 안정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정체가 아닌가? 만일 안정이 정체라고 한다면 그것을 쏘베트제도에도 적용할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안정은 정체가 아니다. 안정은 현국세의 공고화이며 가일층의 발전이다. 세계자본주의는 현국세의 기초우에서 공고화되고만 있는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의 세력범위를 확대하고 부를 증식시키면서 전진하고있으며 발전하고있다. 만일 자본주의는 발전할수 없는것이라고 여긴다든가 또는 레닌이 자기의 《제국주의론》①에서 제기한 자본주의의 부패성에 대한 리론이 마치 자본주의의 발전을 부정한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레닌은 자기의 소책자 《제국주의론》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점차적부패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그의 점차적인 부패를 예정하고 준비한다는것을 증

---

①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30~845페지를 보라, 一편집자)를 가리킨다,

분하 론중하였다.

여기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지금 두가자 안정이 존재하고있다. 한쪽에서는 자본주의가 안정되여 그의 현유의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계속 발전하고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쏘베트제도가 안정되여 이미 전취한 진지를 공고히 하면서 계속 승리에로 나아가고있다.

누가 누구를 타승하는가—여기에 전체 본질이 있다.

어째서 한 안정이 다른 한 안정과 동시에 병존하게 되였는가? 어찌하여 같지 않은 두 안정이 생기게 되였는가? 그것은 전체를 포함한 단일한 자본주의가 더는 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계가 이미 두개 진영, 즉 영, 미 자산계급을 두목으로 하는 자본주의진영과 쏘련을 수반으로 하는 사회주의진영으로 분렬되였기때문이다. 또 그것은 국제형세가 갈수록 이 두 진영간의 력량대비에 의하여 결정될것이기때문이다.

여기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현시국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자본주의와 쏘베트제도가 이미 안정되였을뿐만아니라 이 두 진영의 세력이 어떤 일시적균형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자본에 약간 유리하며 따라서 혁명운동에는 약간 불리하다. 왜냐 하면 이미 나타난 평온현상이 혁명의 앙양에 비하여 비록 일시적이나마 사회주의에 대하여 불리하다는것은 의심할바없기때문이다.

이 두 안정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두 안정은 각기 어느 방면으로 발전할것인가?

자본주의제도하에서의 안정은 자본의 력량을 일시적으로 강화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을 첨예화시킨다. 자본주의의 모순이란 즉 (ㄱ) 각국 제국주의집단들사이의 모순, (ㄴ) 매개 나라들에서의 로동자와 자본가사이

의 모순, (ㄷ) 제국주의와 세계 각 식민지국가 인민들사이의 모순이다.

쏘베트제도하에서의 안정은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력량을 증대시킬뿐만아니라 이와 동시에 필연적으로 모순을 완화시키고 상호관계를 개선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순과 상호관계란 (ㄱ) 우리 나라의 무산계급과 농민들사이의 모순 및 상호관계, (ㄴ) 무산계급과 각 피압박식민지국가 인민들사이의 모순 및 상호관계, (ㄷ) 무산계급독재와 세계 각국 로동자들사이의 모순 및 상호관계이다.

문제는 로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대다수 근로자들이 반기아적생활을 하게 하지 않고서는, 식민지와 예속국가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지 않고서는, 세계자산계급의 각 제국주의집단들사이에 충돌과 알륵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 없다는데 있다. 그러나 쏘베트제도와 무산계급독재는 무산계급의 물질생활 및 문화생활 수준을 부단히 높이는 정황하에서만, 쏘베트국가 전체 근로자들의 형편을 부단히 개선하는 정황하에서만, 세계 각국 로동자들을 갈수록 더 접근시키고 련합시키는 정황하에서만, 식민지와 예속국의 피압박인민을 무산계급혁명운동의 주위에 결속시키는 정황하에서만 발전할수 있다.

자본주의발전의 길은 근로자들가운데의 한줌도 못되는 상층분자를 매수하고 길러내며 근로자의 절대다수를 빈곤과 반기아적생활에로 몰아넣는 길이다.

이와 반대로 무산계급독재의 발전의 길은 근로자의 절대다수의 물질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길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첨예화시키는 조건을 산생시키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자본주의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힘이 없는것

이다.

만일 식민지쟁탈로 인한 자본주의국가들간의 충돌과 전쟁을 야기시키는 자본주의의 불균형적발전의 법칙이 없다면, 만일 자본주의가 값싼 원료와 로동력을 가지고있는 락후한 국가에다 자본을 수출하지 않고도 발전할수 있다면, 만일 《종주국》의 파잉자본이 자본수출에 리용되지 않고 농업의 대대적인 발전과 농민의 물질생활의 개선에 리용된다면, 끝으로 만일 이러한 파잉자본이 전체 로동계급대중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리용된다면—그때에는 로동계급에 대한 착취의 강화, 자본주의제도하에서의 농민의 빈곤화, 식민지와 예속국가에 대한 압박의 강화 및 자본가들사이의 충돌과 전쟁이란것이 문제로 되지 않을것은 물론이다.

만일 이렇게 될 때에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닐것이다.

모든 문제는 자본주의가 이러한 전부의 모순을 첨예화시키지 않고서는, 결국에는 자본주의의 멸망을 재촉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쌓지 않고서는 발전할수 없다는데 있다.

모든 문제는 이와 반대로 무산계급독재가 세계 각국의 혁명운동을 코도로 앙양시키는 조건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무산계급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조건들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계속 발전할수 없다는데 있다.

이러한것이 두 안정사이의 차이점이다.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의 안정이 무엇때문에 장구한것으로 될수도 없고 공고한것으로 될수도 없는가 하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제 자본주의의 안정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보자.

자본주의의 안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에서 나타났는가?

첫째로, 미국, 영국, 프랑스 세 나라가 독일을 략탈하는 방

법과 규모에서 일시적협정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나타났다。바꾸어말하면 이 세 나라가 자기들의 소위 독일의 도즈화라는 협정[99]을 달성한것이다。이러한 협정을 다소라도 견고한것이라고 말할수 있을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왜냐 하면 이 협정은 첫째로 주인이 없이 즉 독일인민의 참가가 없이 달성되였기때문이며 둘째로는 그 협정이 독일인민들로 하여금 이중의 압박 즉 본국자산계급의 압박과 외국자산계급의 압박을 받게 할것이기때문이다。독일과 같은 문명한 나라가, 또 독일무산계급과 같은 문명한 무산계급이 일련의 중대한 혁명적폭발의 시도가 없이 이중의 속박을 달갑게 받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기적을 믿는것과 같다。지어는 힌덴부르그총통의 선거와 같은 본질상 반동적인 사실도 독일에 대한 련합국의 일시적협정이 견고하지 못하다는것, 그것도 가소로울 정도로 견고치 못하다는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설명하여주고있다。

둘째로, 자본주의의 안정은 영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자산계급이 국제자본을 대량적으로 용납할수 있는 중국이라는 이 시장에 대한 세력권범위를 확정하는 면에서, 중국에 대한 략탈방법면에서 일시적협정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나타났다。이 협정을 다소라도 견고한것이라고 볼수 있을가? 역시 그럴수 없다。그것은 첫째로는 협정당사자들사이에 장물분배를 둘러싸고 한사코 싸우고있었으며 또 금후에도 싸울것이기때문이며 둘째로는 그 협정이 외래강도들의 법률에 복종하려 하지 않으며 또 복종하지도 않을 중국인민들 배후에서 달성한것이기때문이다。중국혁명운동의 장성은 외래제국주의자들의 꿰계가 반드시 파산되고야말리라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 아닌가?

셋째로, 자본주의의 안정은 선진국가들의 제국주의집단이 각기 《자기의》 국가들의 식민지를 략탈, 압박하는 일에 서로 간섭하지 않을데 대하여 일시적으로 협정을 달성하였다는 점

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협정, 또는 이러한 협정시도를 다소라도 견고한것이라고 볼수 있을가? 아니다, 그렇게 볼수 없다. 그것은 첫째로 제국주의집단들은 서로 남의 식민지를 자그마한것이라도 빼앗으려고 한사코 애쓰고있으며 또 금후에도 애쓸것이기때문이며 둘째로는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집단들의 억압과 그들이 실시하고있는 압박정책이 그 식민지를 혁명화시키며 따라서 혁명적위기를 심화시킬따름이기때문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도를 《평정》하며 애급을 제어하며 마로고를 순종시키며 인도지나와 인도네시아의 수족을 얽매려고 시도하며 갖은 음모궤계를 다 쓰고있다. 그들이 이 방면에서 약간의 《성과》를 얻을수는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음모가 오래 가지 못할것이며 또 오래 갈수도 없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넷째로, 자본주의의 안정은 선진국가들의 제국주의집단이 반쏘통일전선결성문제에서 협정을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점에서 나타날수 있다. 이러한 협정이 달성된다고 가정하자. 그들이 쏘피아폭발사건100과 관련한 무치한 날조 등등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음모궤계를 다하여 통일전선 비슷한 그 어떤것을 건립할수 있다고 가정하자. 우리 나라를 반대하는 이런 협정 또는 이 방면에서의 안정을 다소라도 견고한것이라고, 다소라도 성과적인것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있는가? 나는 이러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첫째로 자본가들의 통일전선의 건립과 련합공격의 위협은 우리 나라전체를 쏘베트정권의 주위에 어느때보다도 굳게 집결시켜 우리 나라를 《14개국》의 침공시보다도 더 견고한 성새로 전환시키는 굉장한 단결력을 만들어낼것이기때문이다. 14개국 침범에 관한 악명높은 처칠의 위협적인 말을 상기해보라. 이 위협적인 말만이라도 나라전체가 제국주의강도들을 반대하여 쏘베트정권의 주위에 단결되게 하는데 충분하였다는것을 당신들은 알고있다. 둘

째로 그것은 쏘베트국가에 대한 진공이 반드시 적의 후방에서 허다한 혁명적결절을 풀어놓게 되여 제국주의대렬을 와해시키고 환산시키게 될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 이 결절들이 최근에 와서 대량적으로 축적되였다는것, 그리고 이 결절들이 제국주의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는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것이다. 셋째로 그것은 우리 나라는 이제는 고립되여있지 않고 서방의 로동자와 동방의 피압박인민을 동맹자로 삼고있기때문이다. 쏘련에 대한 전쟁이 제국주의가 자국의 로동자와 자기의 식민지를 반대하는 전쟁으로 되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것이다. 그들이 일단 우리 나라를 진공하는 경우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있지 않을것이라는것과 우리가 반드시 모든 대책을 다하여 세계 각국의 혁명의 사자를 불러일으키리라는것은 증명할 필요조차 없다. 각 자본주의국가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 면에서 약간의 경험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모를리 없다.

이상의 사실과 리유는 자본주의의 안정이 견고할수 없다는것, 이 안정은 자본주의의 패배를 가져오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낸다는것, 그와 반대로 쏘베트제도의 안정은 무산계급독재의 공고화와 세계 각국의 혁명운동의 앙양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조건을 부단히 축적한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두가지 안정, 즉 자본주의의 안정과 쏘베트의 안정사이의 이러한 원칙적대립은 두가지 경제제도 및 두가지 관리제도사이의 즉 자본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제도사이의 대립의 표현이다.

이 대립을 리해하지 못하는자는 결코 당면한 국제정세의 기본적본질을 리해하지 못할것이다.

현시기의 국제정세의 일반적정형은 이러하다.

2

각 자본주의국가내의 공산당들의 당면과업

제2부류의 문제로 넘어가자.

지금 각 자본주의국가내의 공산당들앞에 나타나고있는 새롭고 특수한 정황은 혁명의 만조기가 혁명의 퇴조기로, 즉 평온기로 교체되였다는 점이다. 과업은 현재 처하고있는 평온기를 리용하여 각국의 공산당을 공고화하고 그들을 볼쉐위크화하며 로동조합에 의지하는 참으로 대중적인 당으로 되게 하며 비무산계급의 근로분자들을, 우선 농민을 무산계급의 주위에 단결시키며 또한 혁명과 무산계급독재의 정신으로 무산자를 교양하는데 있다.

나는 서방 각국의 공산당들앞에 나서고있는 당면과업을 일일이 렬거하지는 않겠다. 여러분은 해당한 결의, 특히 볼쉐위크화에 관한 국제공산당확대전원회의의 결의①를 읽어본다면 이 과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것인가를 리해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나는 서방 각국의 공산당들의 하나의 기본적과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려 한다. 왜냐 하면 이 과업을 천명하면 나머지 모든 당면과업들을 쉽게 리해할수 있기때문이다.

그 과업이란 무엇인가?

그 과업이란 서방 각국의 공산당들을 로동조합과 결합시키

---

① 1925년 3월 21일～4월 6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제5차확대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공산당의 볼쉐위크화에 대한 테제(벨라 쿤이 편집한 《국제공산당문헌집》을 보라.)를 가리킨다.—편집자

는것이다. 그 과업은 로동조합운동을 통일하는 운동을 가일층 전개하고 그것을 끝까지 진행하며 모든 공산주의자가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로동조합에 들어가 거기서 계통적으로 사업하면서 로동자들을 자본을 반대하는 통일전선에 결속시킴으로써 각국 공산당이 로동조합에 의거할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것이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각국 공산당을 진정한 대중적당으로 전화시킬수 없으며 무산계급의 승리에 필요한 조건을 준비할수도 없다.

서방의 로동조합과 당은 우리 로씨야의 직업동맹과 당과는 같지 않다. 서방에 있어서 로동조합과 당과의 상호관계는 우리 로씨야에서 조성된 그러한 관계와는 결코 일치하지 않다. 우리 나라의 직업동맹은 당이 생긴후에 그리고 로동계급당의 주위에서 형성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직업동맹이 생기기전에 당과 당조직들이 벌써 로동계급의 정치적투쟁뿐만아니라 경제적투쟁까지, 소규모의 파업이나 극히 작은 파업까지 령도하였던것이다. 그것은 주로 우리 당이 2월혁명전에 당시 맹아상태로 우리 나라의 이곳저곳에 존재하고있던 로동조합보다 로동자들사이에서 더 큰 위신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로동조합이 나타난것은 겨우 1917년 2월 이후였다. 벌써 10월혁명직전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로동자들사이에서 큰 위신을 가지고있는, 조직이 정연한 로동조합조직을 가지고있었다. 레닌은 이미 그때에 로동조합과 같은 이런 기둥이 없이는 무산계급독재를 전취할수도 없거니와 유지할수도 없다고 말하였다. 정권을 쟁취한 이후, 특히 신경제정책을 실시하는 조건하에서 우리의 직업동맹은 극히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오늘날 우리의 유력한 직업동맹이 무산계급독재의 주요한 기둥의 하나로 되여있다는것은 추호도 의심할바없다. 우리 나라의 직업동맹발전사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직업동맹

이 당이 생긴후에 당의 주위에서 그리고 당파의 우의속에서 산생되고 발전되고 강화되였다는 점에 있다.

서구라파에서는 로동초합이 완전히 다른 정황하에서 발전하였다. 첫째로 그들은 로동계급의 당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산생강화되였다. 둘째로 거기서는 로동조합이 로동계급당의 주위에서 발전한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로동계급의 당자체가 로동조합으로부터 분리되여나왔다. 셋째로 로동계급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는 경제투쟁형역이 말하자면 이미 로동조합에 점령되여있었기때문에 당은 주로 국회내에서의 정치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당의 사업성격과 로동계급의 심목중에서의 당의 중요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었다. 거기서는 당이 로동조합이 생긴후에 산생하였기때문에, 그리고 실로 로동조합은 무산계급의 자본과의 투쟁에 있어서 그의 주요한 성새를 이루고있었기때문에—바로 이렇기때문에 당은 로동조합에 의거하지 않는 독자적력량으로 되여 차요한 지위에 물러서게 되였던것이다.

이로부터 만일 공산당이 혁명을 앞으로 추진시킬수 있는 참으로 대중적인 력량으로 되고저 한다면 당은 로동조합과 결합하며 로동조합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서방정황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필코 공산주의운동을 망치게 될것이다.

거기 서방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특성을 리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로동조합으로부터 퇴출하라》는 반무산계급적이며 반혁명적인 구호에 계속 도취되여있는 개별적《공산당원》들이있다. 이러한 또는 이와 류사한 《공산당원》들은 서방의 공산주의운동에 가장 큰 해를 끼치게 될것이라는것을 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로동조합을 적대진영으로 보고 그것을 외부로부터 《공격》할것을 시도하고있다. 그들은 이러한 정체

을 쓰면 로동자들이 자기들을 적으로 보리라는것을 알지 못하고있다. 그들은 로동조합이 좋든나쁘든 로동자대중은 그래도 어디까지나 로동조합을 로임과 로동시간 등등을 유지하도록 자기들을 방조하여주는 성새로 생각하고있다는것을 알지 못하고있다. 이러한 정책은 공산주의자들이 수백만 로동계급대중속에 침투하는 일을 촉진하는것이 아니라 파괴하게 된다는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있다.

보통로동자대중은 이러한 《공산당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당신들은 나의 요새를 공격하고있다. 당신들은 나에게 공산주의가 로동조합주의보다 좋다는것을 론증하기 위하여 내가 수십년에 걸쳐 건설하여온 그 사업을 파괴하려 한다. 당신들의 공산주의리론이 옳을는지는 모르겠다. 보통로동자에 지나지 않는 내가 어떻게 당신들의 리론을 리해할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나는 나에게는 로동조합이라는 자기의 요새가 있다는것, 그것이 나를 투쟁에로 이끌어주었고 잘하든못하든 그것이 나를 자본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주었다는것, 그리고 이 요새를 파괴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나자신의 사업, 즉 로동자사업을 파괴하는 사람이라는것만은 알고있다. 다시는 나의 요새를 공격하지 말고 로동조합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5년 내지 그이상 사업하면서 우리가 로동조합을 개선하고 공고화하는것을 협조하라, 그러면 나는 그때에 가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볼것이며 당신이 진정한 벗이라는것이 판명되면 나는 물론 당신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지 않을것이다.》

서방의 오늘날의 보통로동자대중은 로동조합반대주의자들을 이렇게 또는 대체로 이와 같이 대한다.

구라파의 보통로동자의 심리에 있는 이러한 특성을 리해하지 못하는자는 현시기의 우리 각국 공산당들의 형편을 전혀

리해하지 못하는자들이다.

서방의 사회민주당의 힘은 어데 있는가?

이 당이 로동조합에 의거하고있다는 점에 있다.

우리 서방 각국 공산당들의 약점은 어데 있는가?

그들이 아직 로동조합과 결합하지 않고있으며 이런 공산당내의 어떤 분자들은 로동조합과 결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지금 서방 각국 공산당들의 기본적과업은 로동조합통일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키고 끝까지 진행하며 전체 공산당원들이 빠짐없이 로동조합에 들어가 거기서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로동계급을 결속시키는 사업을 계통적이고 꾸준하게 진행함으로써 공산당이 로동조합에 의거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것이다.

이러한것이 서방 각국 공산당들의 당면과업에 관한 국제공산당확대전원회의 결의의 취지이다.

3

식민지와 예속국가내의 공산주의자들의 당면과업

제3부류의 문제로 넘어가자.

이 면에서의 새로운 정황은 아래와 같다.

(ㄱ) 자본주의의 안정에 의하여 조장되고있는, 각 선진국가로부터의 후진국가에 대한 자본수출의 증가로 인하여 식민지국가에서의 자본주의는 사회-정치적조건의 낡은 형태를 깨뜨리고 새로운 형태를 조성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또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발전할것이다

(ㄴ) 이러한 나라의 부산계급은 급격히 성장하고있으며 또 앞으로도 급격히 성장할것이다.

(ㄷ) 식민지의 혁명적로동운동과 혁명적위기는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것이다.

(ㄹ)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혁명을 제국주의보다 더 무서워하고있으며 제국주의와 결탁할지언정 제국주의로부터의 자국의 해방사업을 위해 분투하려 하지 않으며 이리하여 자기의 조국을 팔아먹고있는(인도, 애급 등 나라) 민족자산계급의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유력한 계층도 성장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것이다.

(ㅁ) 이러한 모든것때문에 이러한 나라들은 타협적인 민족자산계급과 투쟁함으로써만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될수 있다.

(ㅂ) 이로부터 공업이 발달한 또는 공업이 발전중에 있는 식민지에서의 로농동맹문제와 부산계급의 령도권문제는 그것이 1905년의 로씨야제1차혁명직전에 긴급한 문제로 되였던것과 꼭같이 긴급한 문제로 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보통 동양을 하나의 똑같은 양식의 전일체라고 말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단일적이고 전일적인 동양이란것은 벌써 존재하지 않는다는것, 이제는 자본주의적으로 발달한 또는 발전하고있는 식민지들과 락후한 또는 락후해가고있는 식민지들이 있다는것, 이러한 식민지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척도라는것이 있을수 없다는것이 누구에게나 다 명백한 일로 되였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민족해방운동을 가장 반동적인 자산자로부터 가장 혁명적인 무산자에 이르기까지의 식민지 및 예속국가내의 모든 민족적력량의 전면적전선이라고 보아왔다. 민족자산계급이 혁명적일익과 반혁명적일익으로 분렬된 이후인 오늘날에 있어서는 민족운동의 면모에 약간한 변화들이 생겼

다。자산계급들가운데서 민족운동의 혁명분자를 제한외에 제국주의와 결탁할지언정 자국의 해방사업을 위해 분투하려 하지 않는 타협분자와 반동분자들이 생겨나고있다。

때문에 식민지국가내의 공산주의자들의 과업은 자산계급들중의 혁명분자, 무엇보다도 농민과 결합하여 제국주의와《자국》의 자산계급중의 타협분자들과의 동맹을 반대함으로써 무산계급의 령도하에서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진정한 혁명투쟁을 진행하는것이다。

결론은 하나이다。즉 허다한 식민지국가들이 현재 자기의 1905년에 날로 접근하고있다는것이다。

과업은 식민지국가내의 선진로동자들을, 날로 성장하고있는 혁명을 령도할수 있는 통일적공산당에 결속시키는데 있다。

레닌은 1922년에 벌써 식민지국가에서 날로 성장하고있는 혁명운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1차제국주의전쟁에서의 〈승리자〉들은 지금 보잘것없이 작은 아일랜드조차도 진승할수 없으며 자기들사이에 재정문제와 외화문제에서 조성된 혼란조차 극복할수가 없다。그런데 인도와 중국은 뒤끓고있다。거기에는 7억이상의 인구가 있다。만일 여기에 그 주위에 있는, 인도 및 중국과 완전히 비슷한 아세아국가들을 합하면 세계인구의 반수이상을 차지한다。거기에서는 1905년이 닥쳐오고있다。걷잡을수 없이 더욱 급속히 닥쳐오고있다。그런데 여기에 닥쳐오는 이 1905년은 로씨야의 1905년혁명이(적어도 시초에는) 아직 고립적으로, 다시말하면 다른 나라들을 즉시로 혁명에 끌어넣지 않고서 진행할수 있었던것과는 다른 본질적인 큰 차이를 가지고있다。인도나 중국에서 현재 나날이 성장하고있는 혁명은 혁명투쟁, 혁명운동, 국제혁명에 합류되고있으며 또 이미 합류되였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293페지를 보라。)①

식민지국가들은 자기의 1905년에 직면하고있다는것—이것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312페지를 보라。—편집자

이 결론이다.

국제공산당확대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식민지문제에 관한 결의의 취지도 이와 같은것이다.

4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운명에 대하여

제4부류의 문제로 넘어가자.

앞에서 나는 국제공산당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들에 관한 우리 당 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국제공산당에나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에나 직접적관계를 가지고있는 따라서 외부문제와 내부문제를 련결시키는 고리로 되고있는 문제들을 이야기하자.

자본주의의 일시적안정은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운명에 어떤 영향을 줄것인가? 이 안정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종말이거나 종말의 시작이 아닌가?

다른 나라들에서 상당히 긴 시기에 걸쳐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조건하에서 기술적-경제적으로 락후한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체의 력량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겠는가?

자본주의의 포위, 그것도 현재 안정된 자본주의의 포위가 있는 조건하에서 무장간섭의 위험성, 다시말해서 우리 나라에서의 낡은 제도의 재생의 위험성을 제거할 완전한 담보를 이룩할수 있겠는가?

이러한 모든 문제는 국제관계면에서의 새로운 정황으로 인하여 불가피적으로 우리앞에 제기되는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정적인 대답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나라에는 두가지 모순이 있다. 한가지 모순은 무산계급과 농민사이에 존재하는 내적모순이다. 다른 하나의 모순은 사회주의국가인 우리 나라와 자본주의국가인 다른 모든 나라와의 사이에 있는 외적모순이다.

이제 이 두가지 모순을 따로따로 고찰해보자.

무산계급과 농민사이에 약간의 모순이 존재한다는것—이것은 물론 부정할수 없다. 이러한 모순의 모든 현실성은 농산물에 대한 가격정책, 제한가격, 공업제품가격의 인하운동 등등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있는 모든 일들을 회상해보기만 하면 리해할수 있는것이다. 우리앞에는 두개의 주요한 계급—무산계급과 사적소유자계급 즉 농민계급이 있다. 그들사이에는 필연적으로 모순이 생기게 된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자체의 힘으로 무산계급과 농민사이에 존재하는 이 모순을 극복할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는가 하고들 말할 때 그것은 곧 우리 나라의 무산계급과 농민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이 극복될수 있는가 없는가 하고 말하고저 하는것이다.

레닌주의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즉 그렇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농민과 함께 사회주의를 건설할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근거나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대답하는 리유는 무산계급과 농민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는외에 발전의 근본문제에 있어서 이 모순을 가리우고 어쨌든 이 모순을 초과하게 되며 또한 로농동맹의 기초로 되고있는 공동리익이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공동리익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농업의 발전에는 두가지 길 즉 자본주의길과 사회주

의길이 있다. 자본주의길은 대다수의 농민이 빈궁에 빠지게 되고 도시와 농촌의 자산계급의 상층이 치부하게 되는 길이다. 그와는 정반대로 사회주의길은 대다수 농민의 물질생활이 부단히 제고되는 길이다. 무산계급과 농민, 특히 농민은 발전의 두번째 길 즉 사회주의길을 걸으려 한다. 그것은 이 길이 농민을 빈궁과 반기아적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경제명맥을 장악하고있는 무산계급독재가 틀림없이 두번째의 길 즉 사회주의길이 승리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하리라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다른 한 면으로 농민은 어디까지나 이 두번째 발전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것도 자명한 일이다.

이로부터 볼수 있는바와 같이 무산계급과 농민사이의 공동리익은 그들사이의 모순을 덮어가리우고있다.

레닌주의가 우리는 농민과 함께 그리고 로농동맹에 의거하여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며 또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레닌주의가 무산자와 농민사이에는 공동리익이 있다는 이 점에 근거하여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무산계급과 농민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극복할수 있으며 또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레닌주의는 바로 이렇게 이 문제를 보고있다.

그러나 모든 동지들이 다 레닌주의의 견해에 동의하는것은 같지는 않다. 례컨대 뜨로쯔끼는 무산계급과 농민사이의 모순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농민인구가 압도적다수인 뒤떨어진 나라에서 로동자정부의 처지에 있어서의 모순들은 그 해결을 다만① 국제적범위 즉 무산계급의 세계혁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명의 무대에서만 얻을수 있는것이다.》(뜨로쯔끼의 저서 《1905년》의 서문을 보라.)

바꾸어말하면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써는 우리 나라의 내적모순 즉 무산계급과 농민사이의 모순을 극복하고 해결할수 없다는것이다. 왜냐 하면 오직 세계혁명을 통해서만, 오직 세계혁명에 의거해서만 우리가 모순을 해결할수 있을것이고 또 총국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을것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러한 론점이 레닌주의와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쯔로쯔끼는 또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로씨야의 로동계급은 구라파무산계급의 직접적인 국가적지지가 없이는 정권을 유지할수 없으며 자기의 일시적지배를 장기적인 사회주의적독재로 전환시킬수 없는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일순간이라도 의심하여서는 안될것이다.》(쯔로쯔끼의 저서 《우리의 혁명》, 278페지를 보라.)

바꾸어말하면 서방의 무산계급이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국가적원조를 주지 않는 한 우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정권을 유지한다는것은 꿈도 꿀수 없다는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혁명적인 로씨야가 보수적인 구라파앞에서 견디여낼수 있다는것은 가망없는 일일것이다.》(《뜨로쯔끼론문집》, 제3권, 제1부, 90페지를 보라.)

바꾸어말하면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을뿐만아니라 지어는 단시기마저도 《보수적인 구라파앞에서》 지탱해나갈수 없다는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나라에 대한 보수적구라파의 여러차례의 미친듯한 진공을 견디여냈을뿐만아니라 그것을 격퇴하였다는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있는바이다.

끝으로

쁘로쯔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경제의 진정한 앙양은 구라파의 가장 주요한 나라들에서 무산계급이 승리한 이후에라야① 비로소 가능하게 될것이다.》(우와 같은 책, 93페지)

아마 명백한듯하다.

동지들, 내가 이러한 말을 인용한것은 그것과 레닌의 저작중의 말들을 대조해보고 당신들이 자본주의국가에 포위된 무산계급독재의 국가에서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 가능성에 관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하기 위한것이다.

이제 레닌의 저작들에 있는 말들을 보기로 하자.

레닌은 일찌기 1915년 제국주의대전시기에 다음과 같이 썼다.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형성은 자본주의의 절대적법칙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의 승리는 처음에는 소수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혹은 심지어 개별적인 한 자본주의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나라의 승리한 무산계급은 자본가를 수탈하고 자국에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한후에는 다른 자본주의세계를 반대하여일어나 다른 나라들의 피압박계급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며 이 나라들에서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키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에 의해서라도 착취계급과 그들의 국가를 반대하여 행동할것이다.…》 왜냐 하면 《여러 사회주의공화국이 락후한 국가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완강한 투쟁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각 민족의 자유로운 련합은 불가능하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8권, 232~233페지를 보라.)②

바꾸어말하면 자본가들에게 포위된 무산계급독재의 국가는 자체의 력량으로써 내적모순 즉 무산계급과 농민사이의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09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모순을 해결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사회주의까지도 건설할수 있고 또 건설하여야 하며 자국에서 사회주의경제를 조직하고 무장력을 건립하여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무산자들의 자산계급 전복투쟁에 협조를 줄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것이다.

이러한것이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레닌주의의 기본원리이다.

레닌은 1920년에 제8차쏘베트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전기화문제에 관하여 형식은 약간 다르나 내용이 같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공산주의—이것은 쏘베트정권 플라스 전국의 전기화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는 여전히 소농민국가로 머물러있을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는 비단 세계적규모에서뿐만아니라 또한 국내에서도 자본주의보다 약하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토대를 소농민적인것으로부터 대공업적인것으로 되게 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오직 나라가 전기화될 때, 공업, 농업 및 운수업에 현대적대공업의 기술적토대가 놓여질 때, 오직 그때에라야 우리는 종국적으로① 승리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46～47페지를 보라.)②

바꾸어말하면 레닌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존재하는 기술상의 난관을 충분히 알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 사실로부터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경제의 진정한 앙양은 구라파의 가장 주요한 나라들에서 무산계급이 승리한 이후에라야 비로소 가능하게 될것이다.》라는 엉터리없는 결론을 끌어낸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써 이러한 난관들을 타개할수 있으며 따라서 《종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다고 즉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399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완전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1년후인 1921년에 한 레닌의 말을 들어보자.

《농민과의 옳바른 호상관계가 10～20년 지속되면 승리는(지어 발전하고있는 각국 무산계급혁명이 지체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세계적규모에서① 보장될것이다.》(《소쎄차 〈현물세에 관하여〉의 요강》, 1921년판; 《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313페지를 보라.)②

바꾸어말하면 레닌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존재하는 정치적난관을 충분히 깨닫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로부터 결코 《로씨야의 로동계급은 구라파무산계급의 직접적인 국가적지지가 없이는 정권을 유지할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을 끌어낸것이 아니라 농민에 대한 옳바른 정책을 쓰기만 하면 우리는 《세계적규모에서의 승리》를 완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즉 완전한 사회주의를 건설해낼수 있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러면 농민에 대한 옳바른 정책이란 무엇인가? 농민에 대한 옳바른 정책이란 전적으로, 오직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령도하고있는 우리 당이 확정한 그러한것이다.

레닌은 1923년에 협동조합에 대한 론문에서 더욱 확정적으로 꼭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사실 일체의 대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권력, 무산계급의 수중에 있는 국가권력, 이러한 무산계급과 수백만의 소농 및 령세농과의 동맹, 농민에 대한 이들 무산계급의 지도의 확보 등등—이 모든것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 협동조합으로써, 오직 협동조합으로써만(우리는 이전에 이 협동조합을 소상인적이라고 멸시했던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신경제정책하의 지금도 역시 그렇게 멸시할 권리가 있다.)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부가 아니겠는가①? 이것은 아직

---

① 교시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313페지를 보라. —편집자

사회주의사회의 완전한 건설은 아니나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전부인것이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92페지를 보라.)②

바꾸어말하면 무산계급독재하에서는 우리에게 온갖 내부적난관을 타개하고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있다는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는 이런 난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타개할수 있으며 또 타개하여야 할것이기때문이다.

아마 명백한듯하다.

레닌은 우리 나라가 경제상에서 비교적 뒤졌기때문에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다는 그런 반대의견을 반격하고 론박하면서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와 상용되지 않는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이 서구라파사회민주당의 발전시기에 의워둔 론거란 한없이 판에 박은듯 평범한것인데 그 론거는 우리가 사회주의를 실현하리만큼 성숙하지 못하였다는데, 우리에게는 그들중의 여러 〈학자〉제씨들이 표현하고있는바에 의하면 사회주의를 위한 객관적인 경제적전제조건이 없다는데 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99페지를 보라.)③

만일 그렇지 않다면 10월에 정권을 탈취할 필요가 없었을것이며 10월혁명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을것이다. 왜냐 하면 어떤 리유에 의하여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 가능성과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10월혁명도 그 의의를 상실하게 될것이기때문이다.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을 부정하는자는 10월혁명의 합리성도 부정하지 않을수 없다. 또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2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690페지—편집자

반대로 10월혁명을 믿지 않는자는 자본주의의 포위속에 있는 조건하에서의 사회주의승리의 가능성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것이다. 10월혁명을 믿지 않는것과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승리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것과의 량자사이에는 밀접하고도 직접적인 련계가 있다.

메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물론 자신을 매우 총명하다고 생각하며 지어는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의 혁명이 폭발하기전에는 정권을 탈취하여서는 안될것이였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총명한자들이 있다는것을 나는 알고있다.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혁명을 떠나서 자산계급측으로 넘어간다는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근로계급이 세계적규모에서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기다린다는것은 곧 모두가 팔짱을 끼고 기다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황당한것이다.》(《메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9페지를 보라.)①

제1부류의 모순, 내적모순 즉 자본주의의 포위속에 있는 조건하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이러하다.

이제는 제2부류의 모순 즉 사회주의국가로서의 우리 나라와 자본주의국가로서의 다른 모든 나라와의 사이에 있는 외적모순을 보기로 하자.

이 모순들은 어디에서 표현되는가?

이 모순들은 자본주의의 포위가 있는 한 반드시 자본주의국가로부터의 무력간섭의 위험성도 있을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한 반드시 복구의 위험성 즉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제도의 부활의 위험성도 있을것이라는 점에서 표현된다.

한 나라에서 이러한 모순을 완전히 극복할수 있다고 생각

---

① 《메닌전집》, 한문판, 제27권, 345~346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할수 있는가? 결코 없다. 왜냐 하면 한 나라의 노력은 설사 이 나라가 무산계급독재의 국가라 할지라도 자기가 무력간섭의 위험을 받지 않도록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기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오직 국제적범위에서만, 오직 몇개 나라의 무산자의 공동노력에 의해서만 또는 보다더 좋기는 여러 나라의 무산자가 승리를 전취한후에라야만 무력간섭을 받지 않도록 완전히 보장하는것, 다시말하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가 가능하다.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란 무엇인가?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란 무력간섭의 시도, 따라서 또 복구의 시도로부터 벗어나도록 완전히 보장되여있는것을 말한다. 왜냐 하면 다소라도 엄중한 복구시도는 외부로부터의 중대한 원조, 국제자본의 원조가 있어야만 실현될수 있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혁명에 대한 각국 로동자들의 지원, 특히는 이런 로동자들의 승리—그것이 몇개 나라에서의 승리라 하더라도—는 처음으로 승리한 나라가 무력간섭과 복구의 시도로부터 벗어나도록 완전히 보장하는 필요한 조건이며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필요한 조건이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쏘베트공화국이 전체 자본주의세계의 고립된 변방으로 남아있는 동안은…이러저러한 위험성의 해소에 대해서 생각하는것은 전혀 가소로운 환상이며 공상일것이다. 물론 그러한 근본적인 대립들이 남아있는 한 위험성도 의연히 남아있을것이며 또 결코 그것을 피할수도 없을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29페지를 보라.)①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한 나라안에서 살고있을뿐만아니라 또한 많은 나라들로 이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379페지를 보라. —편집자

루어진 체계내에서 살고있으며 따라서 쏘베트공화국이 제국주의국가들과 장기간 병존한다는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결국은 어느 하나가 승리하게 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122페지를 보라.)①

그렇기때문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종국적인 승리는 다만 전 세계적범위에서만, 다만 각국 로동자들의 공동적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제9페지를 보라.)②

제2부류의 모순은 바로 이러하다.

완전히 한 나라의 노력으로써 극복할수 있는 제1부류의 모순을 몇개 나라의 무산자의 노력으로써만 해결할수 있는 제2부류의 모순과 혼동하는자는 가장 조포한 반레닌주의의 오유를 범하는자이며 어리석은자이거나 구할수 없는 기회주의자인 것이다.

금년 1월에 어느 한 동지가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문제를 론한 편지 한통을 나에게 보내왔는데 이 편지는 이런 혼란한 사상의 전형적인 례로 될수 있을것이다. 그는 의혹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은 말씀하시기를 레닌주의의 리론은…사회주의가 한 나라에서 승리할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유감이지만 나는 레닌저작의 해당한 곳에서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지시를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불행은 물론 이 동지(나는 그를 우리 청년학생들중의 우수한 동지의 하나라고 본다.)가 《레닌저작의 해당한 곳에서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지시를 찾아내지 못하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128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제27권, 346페지—편집자

였다.》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그는 아무때고 이 지시를 찾게 될것이며 읽게 될것이다. 불행은 그가 내적모순과 외적모순을 혼동하여 결국 이러한 혼란한 사상에 빠졌다는데 있다. 이 동지의 서한에 대한 나의 답복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것도 무방할것이다. 나의 답복은 아래와 같다.

《거기에서 가리킨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인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일반적승리, 즉 지주와 자본가를 몰아내고 정권을 탈취하고 제국주의의 진공을 물리치고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기 시작하는것입니다.—이 모든것은 한 나라의 무산계급이 완전히 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복구로부터 벗어날 완전한 보장을 얻으려면 〈몇개 나라의 무산자의 공동노력〉을 거쳐야만 되는것입니다.

만일 승리한 로씨야의 무산계급이 다른 나라의 무산자들의 공개적인 동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몇개 나라에서의 승리가 없는 경우에는 〈보수적인 구라파앞에서 견디여낼수 없다.〉는것을 확신하면서 로씨야에서 10월혁명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였을것입니다. 이것은 맑스주의가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기회주의, 뜨로쯔끼주의 또는 기타 어떤것이라고 하여도 다 좋은것입니다. 만일 뜨로쯔끼의 리론이 정확하다면 일리이치의 다음과 같은 론점, 즉 우리는 반드시 신경제정책의 로씨야를 사회주의적로씨야로 전화시켜야 하며 우리는 〈완전한 사회주의사회건설에 필요한 전부〉①(《협동조합에 관하여》를 보라.)를 가지고있다고 한 론점은 옳지 않은것으로 될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실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것은 승리한 무산계급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승리한 무산자들의 원조가 없는 경우에는 한자리에서 답보할수밖에 없는 어떤 수동적인것으로 보려는 시도인것입니다. 가령 로씨야에서 쏘베르제도가 건립된후 5년 내지 10년대에 서방에서 혁명이 폭발되지 않는다고 합시다. 가령 우리 공화국이 이 기간에 여전히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 쏘베트공화국으로 존재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이 5년 내지 10년사이에 우리 나라가 사회주의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경제의 조직에 종사하는것이 아니라 무익한 노력만 할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기만 하여도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부정하는 리론의 전부의 위험성을 가히 리해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승리가 완전한 종국적승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왜냐 하면 자본주의포위가 존재하는 한 무력간섭의 위험성은 항상 있을것이기때문입니다.》(1925년 1월)

우리 당의 제14차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유명한 결의들로부터 본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운명문제는 이러하다.

5
농촌에서의 당의 정책

제5부류의 문제로 넘어가자.

농촌에서의 당의 정책에 대한 제14차대표자회의의 결의들에 언급하기전에 나는 우리 당이 농촌에서의 우리들자신의 결함에 대하여 내린 비판과 관련하여 자산계급출판물들이 일으킨 소동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려 한다. 자산계급의 출판물들은 우리가 자신의 결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한것은 쏘베트정권의 연약한 표징이며 쏘베트정권이 와해, 붕괴되고있는 표징이라는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려고 법석 떠들고있다. 이러한 모든 소동이 완전히 허위적이고 기만적이라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자기비판은 우리 당이 견강하다는 표징이지 연약하다는 표징은 아니다. 오직 생활속에 뿌리를 박고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있는 강력한 당만이 전체 인민들앞에서 자신의 결함을

무자비하게 비판할수 있는것으로서 과거에도 이렇게 하여왔거니와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할것이다. 인민들앞에 진상을 덮어감추려는 당, 해빛과 비판을 두려워하는 당은 당이 아니라 멸망의 운명을 지닌 사기군들의 집단인것이다. 자산자나으리들은 우리를 자기의 척도로 재고있다. 그들은 해빛을 두려워하며 무사태평이라는 화려한 간판으로 자기들의 결함을 엄폐하면서 인민들앞에 진상을 애써 감추고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공산주의자들도 인민들앞에 진상을 감출것이라고 생각하고있는것이다. 그들이 해빛을 두려워하는것은 그들이 다소라도 참다운 자기비판을 하게 되면, 다소라도 자기들의 결함에 대한 자유적인 비판을 하게 되면 자본주의제도가 철저히 붕괴되고말것이기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비판을 하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가 포위되여 발붙일 자리가 없게 된 표징이라고 생각하고있는것이다. 존경할만한 그 자산자와 사회민주당원들은 바로 자기들의 척도로 우리를 재고있다. 다만 뒤로 물러가며 멸망할 운명을 지닌 당만이 해빛과 비판을 두려워할수 있다. 우리는 해빛도 비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상승하는 당이며 승리에로 나아가는 당이기때문이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벌써 수개월간이나 진행되고있는 자기비판은 우리 당이 연약하다는 표징이 아니라 극히 견강하다는 표징이며 우리 당을 와해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공고화하는 수단인것이다.

이제 농촌에서의 당의 정책문제로 넘어가자.

국내 및 국제의 새로운 정세와 관련하여 농촌에서 어떤 새로운 요인들을 제기할수 있는가?

나는 네가지 주요한 사실들을 제기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1) 국제정세의 변화와 혁명의 느린 속도—이것은 농민을 사회주의건설에 인입하며 농민과 함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비록 기간은 길다 하더라도 가장 고통이 적은 길을 선택할것을 요구한다.

(2) 농촌의 경제적발전과 농민의 분화과정—이것은 농촌에서 전시공산주의의 잔재를 숙청할것을 요구한다.

(3) 농민의 정치적적극성—이것은 농촌에서의 낡은 지도방법과 행정관리방법을 변경할것을 요구한다.

(4) 쏘베트의 개선—이것은 우리 나라의 많은 지방에서 중농이 부농의 편에 서서 빈농을 반대한다는 의심할수 없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볼 때 농촌에서의 당의 기본과업은 무엇인가?

어떤 동지들은 농촌의 분화라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당의 기본과업은 농촌에서 계급투쟁을 격화시키는데 있다는 결론을 얻어내고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공담이다. 이것은 우리의 현재의 주요한 과업은 아니다. 이것은 멘쉐위크들의 낡은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낡은 멘쉐위크들의 옛곡을 되풀이하는것이다.

오늘날 주요한 문제는 결코 농촌에서 계급투쟁을 격화시키는것이 아니다. 오늘날 주요한 문제는 중농을 무산계급의 주위에 결속시키며 그들을 또다시 쟁취하는데 있다. 오늘날 주요한 문제는 농민의 기본대중과 결합하며 그들의 물질적생활수준과 문화적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이 기본대중과 함께 사회주의의 길로 전진하는데 있다. 주요한 문제는 사회주의건설을 농민과 함께, 반드시 농민과 함께 그리고 또 반드시 로동계급의 령도하에서 진행하는데 있다. 왜냐 하면 로동계급의 령도는 건설을 사회주의길로 나아가게 하는 기본담보이기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당의 기본과업이다.

이 점에 대하여 신경제정책시기에 일리이치가 말했고 또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효력을 가지고있는 그 말들을 상기하는 것도 무방할것이다.

《문제의 요점은 지금 비할데없이 더 광범한 대중, 즉 다름아닌 농민대중과 함께 전진하는데 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272페지를 보라.)①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농민대중과, 평범한 근로농민과 결합하자. 그리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이것은 우리가 예기하였던것보다는 형편없이 더딘것이겠지만 그대신에 전체 대중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전진하게 될것이다. 그때에는 이 전진운동도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가속도로 진척되게 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231~232페지를 보라.)②

그렇기때문에 우리앞에는 농촌에 있어서의 두가지 기본과업이 나선다.

(1) 첫째, 반드시 농민경제를 쏘베트경제발전의 총적체계에 끌어들여야 한다. 종전에는 우리에게 병행하는 두 과정 즉 도시는 도시의 길을 걷고 농촌은 농촌의 길을 걷는 그러한 두 과정이 있었다. 자본가는 농민경제를 자본주의적발전의 체계에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이것은 농민대중을 빈궁화하고 농민의 상층을 치부케 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 길은 혁명을 배태하고있었다. 무산계급이 승리한후에 농민경제를 쏘베트경제발전의 총적체계에 끌어들이는것은 국민경제를 점차적이나마 꾸준히 대다수 농민의 물질적복리를 개선하는 기초상에서, 다시말하면 혁명전에 자본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56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621페지—편집자

가들이 농민을 끌고갔으며 또 농민들에게 권유하던 길과는 반대되는 길로 전진시킬수 있는 조건을 창조하기 위한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농민경제를 경제건설의 체계에 끌어들일것인가? 협동조합을 통해서이다. 금융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소비조합과 공예품협동조합을 통해서이다.

이러한것들이 농민경제가 서서히 그러나 철저히 사회주의 건설의 총적체계에 반드시 들어서게 되는데 있어서 거치게 되는 길이다.

(2) 둘째 과업은 농촌에서 낡은 행정관리방법과 지도방법을 소멸하는 로선, 쏘베트를 활기있게 하는 로선, 쏘베트를 진정한 선거제의 기관으로 되게 하는 로선, 농촌에다 쏘베트민주주의원칙을 확립하는 로선을 점차적으로나마 꾸준히 실시하는데 있다. 일리이치는 무산계급독재는 대다수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의 최고형태라고 말하였다. 일리이치는 민주주의의 이런 최고형태는 무산계급이 정권을 장악한후에라야만, 우리가 이 정권을 공고화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후에라야만 실시될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쏘베트정권을 공고히 하고 쏘베트민주주의를 확립할 시기는 벌써 시작되였다. 우리는 사업가운데서 농민들가운데 있는 많은 비당원열성자들을 당의 주위에 집결시키면서 신중하게 덤비지 말고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

만일 첫째 과업, 즉 농민경제를 경제건설의 총적체계에 끌어들이는 과업이 사회주의건설도상에서 농민을 무산계급과 련결시킬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는것이라면 둘째 과업, 즉 농촌에서 쏘베트민주주의를 확립하며 쏘베트를 활기있게 하는 과업은 무산계급독재의 사회로부터 공산주의사회로 점차적으로 이행하는것을 용이하게 하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의 국가기관을 개조하며 그것을 인민대중과 련결시키며 그것

을 건전하고 진실하고 소박하고 비용이 덜 드는 기관으로 되게 할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것이다.

우리 당의 제14차대표자회의에서 농촌에서의 우리 당의 정책문제에 대하여 채택한 결의의 기본로선은 바로 이러하다.

그러므로 농촌에서의 당의 지도방법도 변경되여야 할것이다.

우리 당내에는 신경제정책이 존재하고 자본주의가 일시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한 이상 우리의 과업은 당내와 국가기관내에서 주위의 모든것들이 숨도 제대로 돌릴수 없으리만치 최대한으로 압제하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이러한 정책은 옳지 않으며 파멸의 위험성을 가진 정책이라는것을 말하여야 하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최대한의 압제인것이 아니라 정치면과 조직면에서의 최대한의 신축성, 즉 정치적지도와 조직적지도 면에서의 최대한의 신축성인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면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키를 잡고있을수 없을것이다. 우리에게 최대한의 신축성이 필요한것은 당에다 키를 확보해주며 당에다 완전한 령도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농촌의 공산당원들이 기형적인 행정관리방식을 버리는것이 필요하다. 농민에 대하여 다만 지령에만 의거해서는 절대 안된다. 농민들이 리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참을성있게 해석해줄줄 알아야 하며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말고 농민들을 설복할줄 알아야 한다. 물론 우리의 어떤 향집행위원회 위원장처럼 늘 지령만 내리는것은 쉽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하다. 그러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 다 좋은 일인것은 아니다. 얼마전에 어떤 향의 세포비서는 향에 왜 신문이 없는가 하는 성위원화 대표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대관절 우리에게 신문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신문이 없으면 더 조용하고

좋다。 그런데 신문이 있으면 농부들이 그것을 읽고 온갖 질문을 다하게 될것이니 그야말로 시끄럽기 짝이 없다.» 이 비서도 공산당원으로 불리우고있다! 이것은 공산당원이 아니라 하나의 우환거리라는것은 론증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문제는 지금《시끄러운 일》이 없이는 도저히 지도할수 없는것이며 신문이 없이는 더구나 그러하다는데 있다。 만일 우리가 당과 쏘베트정권의 농촌에서의 령도권을 유지하려 한다면 이러한 간단한 진리를 반드시 리해하고 체득하여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오늘날 령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할줄 알아야 하며 경제를 알고 리해하여야 한다。 오늘날 다만《세계정치》에 대하여, 체임벌린, 맥도날드에 대하여 떠들어대는것만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얻을수 없다。 우리는 이미 경제건설시기에 들어섰다。 때문에 오직 경제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사람만이, 경제발전면에 있어서 농부들에게 유익한 견해를 내놓을줄 아는 사람만이, 경제건설사업에서 농부들에게 도움을 줄줄 아는 사람만이 지도사업을 할수 있다。 경제를 연구하고 경제와 결합하며 경제건설의 모든 미세한 점을 파악하는것—이것이 오늘날 농촌에서의 공산당원들의 파업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 지도한다는것은 꿈조차 꿀수 없는것이다。

지금은 낡은 방식으로 지도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농민들의 정치적적극성이 높아졌기때문이며 또 이 적극성이 쏘베트형태를 가지도록 하며 그것이 쏘베트를 떠나서가 아니라 쏘베트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야 할것이기때문이다。 농촌에서 쏘베트를 활기있게 하고 당의 주위에 농민열성자를 결속시키는 사람이 곧 지도사업을 할수 있을것이다。

지금은 낡은 방식으로 지도해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농촌의 운영적극성이 앙양되였기때문이며 또 이러한 적극성이 협동조합형태를 가지도록 하며 그것이 협동조합을 떠나서가

아니라 협동조합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야 할것이기때문이다. 농촌에서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이면 곧 지도사업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농촌에서의 당의 지도의 구체적과업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다.

6
금속공업에 대하여

이제 우리 당의 제14차대표자회의에서 이미 토의된 마지막 부류의 문제로 넘어가기로 하자.

우리의 경제적지도면에서의 새롭고 특수한 정황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경제계획이 우리의 경제의 실제적발전에 뒤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우리의 경제계획이 너무 낮게 작성되였기때문에 그것이 흔히 경제의 실제적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데 있는것이다.

우리의 국가예산이 바로 이러한 사실의 명백한 표현의 하나이다. 당신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예산초안이 우리 예산의 수입항목의 급속한 증가를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관계로 반년사이에 우리의 국가예산을 세번씩이나 고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의 예산초안과 예산계획이 국가수입의 증대를 따라가지 못하였기때문에 국고에 잉여가 생기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 경제생활의 세찬 물결이 막을수 없는 힘으로 흘러내리면서 우리 재정전문가들의 모든 과학적계획을 허물어버렸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국내전쟁후에 일어났던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경제 및 로동열정의 발발한 앙양에 처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우리 나라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이러한 새로운 정황의 가장 명백한 표현으로 볼수 있는것은 우리 나라 금속공업의 발전이다. 작년에 금속생산액은 1억 9,100만루블(전쟁전의 루블)에 달하였다. 작년 11월에 작성한 1924~1925년도년간계획생산액은 2억 7,300만루블(전쟁전의 루블)에 달하였다. 금년 1월에 이 계획이 금속공업의 실제발전속도와 어울리지 않기때문에 수정하여 그 생산액을 3억 1,700만루블로 증가하였다. 금년 4월에 확대된 이 계획이 또 실제에 맞지 않기때문에 계획수치를 3억 5,000만루블로 높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금에 와서는 이 계획마저도 낮으므로 그것을 가일층 확대하여 계획생산액을 3억 6,000만 내지 3억 7,000만루블로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여주고있다.

바꾸어말하면 금년도 금속공업의 생산액은 작년의 생산액보다 거의 배나 증가되였다. 우리의 경공업의 거대한 발전과 운수업 및 연료공업 등등의 발전에 대해서는 구태여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모든것은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이것은 사회주의의 기본토대로 되고있는 공업을 건립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미 발전의 넓은 길에 들어섰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전체 공업의 기본동력인 금속공업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벌써 정체기를 지났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금속공업은 급격히 상승하며 충분히 번영할 모든 조건을 가지고있다. 제르진스끼동지가 우리 나라는 금속국가로 될수 있으며 또 되여야 한다고 말한것은 옳은 말이다.

이 사실이 우리 나라의 국내발전에 대해서나 국제혁명에 대해서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는것은 다시 론증할 필요

조차 없을것이다.

국내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 나라 금속공업의 발전 및 그 발전의 의의가 저대하다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없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나라의 전체 공업의 발전, 전반 경제의 발전을 의미하는것이기때문이며 금속공업은 전체 공업의 기본토대이기때문이며 금속공업의 급속한 발전이 없이는 경공업도 운수업도 연료공업도 전기화도 농업도 발전시킬수 없기때문이다. 금속공업의 발전은 전체 공업의 발전의 기초이며 전반 국민경제발전의 기초이다.

《중공업》(레닌은 주로 금속공업을 가리켰다.)에 대하여 한 레닌의 말을 들어보기로 하자.

《로씨야를 구원함에 있어서 단지 농업에서의 풍작만으로써는 부족하며 또한 농민에게 필수품을 공급하는 경공업의 형편이 좋은것만으로써도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중공업도 필요하다. 그런데 중공업의 상태를 좋게 하는데는 다년간의 사업이 필요한것이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공업을 구원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부흥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공업도 건설할수 없으며 또 공업이 없이는 우리는 대체로 망해버리게 될것이며 독립국가로 될수 없다.》(《레닌선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49페지를 보라.)①

우리 나라 금속공업발전의 국제적의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무한하다고 말할수 있다. 그 리유는 다음과 같다. 무산계급독재하에서의 금속공업의 급속한 발전이란 무산계급이 낡은것을 파괴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새로운것을 건설할수도 있다는것, 그들이 자체의 힘으로 새로운 공업과 인간에 의한 인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66페지를 보라. —편집자

간의 착취가 없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직접적으로 실증하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이것을 서책으로써가 아니라 사실로써 증명하는것—이것은 국제혁명사업을 파악있게 철저히 전진시키는것을 의미한다. 서구라파의 로동자들이 분분히 우리 나라에 와서 방문하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전 세계 혁명운동의 발전에 극히 큰 고동적의의와 실천적의의를 가지고있다. 로동자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공장의 구석구석을 살펴본다는것—이 사정은 그들이 서책을 믿지 않고 친히 겪은 체험으로써 무산계급이 새로운 공업을 건설하며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재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확인하고저 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일단 그들이 이러한것을 확인할 때에는 국제혁명사업이 일사천리로 전진하리라는것을 당신들은 확신할수 있을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경제정책으로써 국제혁명에 주되는 영향을 주고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이 례외없이, 아무런 과장도 없이 쏘베트공화국을 보고있다. … 전 세계적규모에서 투쟁은 이 분야로 옮겨졌다. 우리가 이 과업을 해결하는 그때에는 우리는 국제적규모에서 확고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승리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경제건설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이 전선에서 우리는 서서히, 점차적으로—급속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꾸준히 상승하며 전진함으로써 승리를 전취하여야 할것이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410～411페지를 보라.)②

우리의 전체 공업의 발전 특히 금속공업의 발전이 가지는 국제적의의는 바로 이러하다.

---

① 고시크체는 모두 나의것. —이.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541～542페지를 보라. —편집자

지금 우리에게는 약 400만명의 공업무산계급이 있다. 이것은 물론 작은 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우리 나라의 국방을 건설함으로써 무산계급의 적을 벌벌 떨게 할수 있는 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있을수 없으며 또 머물러있어서는 안된다. 우리에게는 약 1,500만 내지 2,000만의 공업무산자와 우리 나라의 각 주요지구의 전기화, 협동화된 농업과 고도로 발전된 금속공업이 필요하다. 그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위험도 무섭지 않게 될것이다. 그때에는 우리는 필연코 국제적범위에서 승리할것이다.

제14차대표자회의의 력사적의의는 바로 그것이 이 위대한 목표에로의 길을 명시하여주었다는데 있는것이다.

이 길은 정확한 길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를 종국적 승리에로 인도하는 레닌의 길이기때문이다.

대체로 이러한것이 우리 당 제14차대표자회의의 사업총화이다.

1925년 5월 12일, 13일부 《쁘라우다》 제106호, 107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7권, 75~112페지

질문과 대답

(1925년 6월 9일 스웨르들로브대학[73]에서 한 연설)

동지들! 나는 여러분이 서면으로 제출한 질문에 대답하려 한다. 나는 여러분이 질문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서 대답하련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질문은 열개가 있다.

첫째 질문부터 시작하자.

1

쏘련이 앞으로 10년 내지 15년동안에 서방무산계급의 사회혁명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책과 어떠한 조건들에 의하여 무산계급독재하에서의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련계를 강화할수 있겠는가?

나는 여러분이 서면으로 제출한 나머지 질문들은 모두다 이 질문에 포함되여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나의 대답은 일반적성격을 띠게 될것이며 따라서 결코 구체적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답할것이 전혀 없게 될것이다.

나는 당 제14차대표자회의[97] 결의가 이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답을 주고있다고 생각한다. 이 결의들에는 이 련계를 강화하는 기본적담보로 되는것은 농민에 대한 옳바른 정책이라고 지적되여있다.

그러면 농민에 대한 옳바른 정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련계의 강화를 보장하는 일련의 경제적, 행정-정치적 및 문화-계몽적 면의 방책들로써만 이루어질수 있다.

경제적면으로부터 이야기하자.

우선 농촌에서 전시공산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는것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발전과 《협상가격차》의 청산을 보장하는 공업제품과 농산물에 대한 옳바른 가격정책이 필요하다. 그밖에 또 농업현물세의 총액을 감소시킬것과 이 농업현물세를 전 국가적예산으로부터 지방예산으로 점차 넘어가게 하는것이 필요하다. 농민경제를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적체계내에 도입하는 수단으로서 수백만 농민대중을 협동조합 우선 농업협동조합과 금융협동초합에 들어가게 하는것이 필요하다. 농업을 기술적으로 혁신하는 수단으로서 또 농촌에다 문화기술적중심들을 창설하는 방도로서 농촌에 뜨락또르를 최대한으로 공급하는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촌을 도시에 접근시키며 농촌과 도시간의 대립을 없애는 수단으로서 전기화계획을 실시하는것이 필요하다.

경제적면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련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이 걸어야 할 길은 이상과 같다.

농업현물세를 국가예산에서 지방예산으로 넘기는 문제에 여러분은 주의를 돌리기 바란다. 여러분은 이것을 이상히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농업현물세가 현재 지방세의 성격을 띠고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될것은 사실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례컨대 약 2년전에는 농업현물세가 우리 나라 국가예산에서 수입의 기본항목으로 또는 거의 기본항목으로 되여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에 와서는 농업현물세는 국가예산의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있다. 현재 국가예산은 25억루블인데 농업현물세는 금년에 기껏해야 2억

5,000만 내지 2억 6,000만루블이 되며 또 될수 있을것이니 이것은 작년도의 총액에 비하여 1억루블이 감소되였다. 보는바와 같이 이것은 그다지 많은 액수가 아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이 증대되면 될수록 국가예산내에서의 농업현물세의 비중은 더욱 적어질것이다. 둘째로 이 2억 6,000만루블의 농업현물세 가운데서 1억루블은 지방예산에 들어가고있다. 이것은 농업현물세전액의 3분의 1이상이다. 그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모든 현존세금중에서 농업현물세가 지방적조건들에 가장 가까운 세금이며 지방적요구에 리용되기에 가장 적합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지방예산이 일반적으로 증대하리라는데 대해서는 의심할바없을것이다. 그러나 지방예산이 무엇보다도 지방적조건들에 최대한으로 적합할것이 요구되는 농업현물세에 의하여 증대하리라는것도 또한 의심할바없는것이다. 그것은 국가수입의 중심이 다른 류의 수입 즉 국영기업소로부터의 수입, 간접세 등등에로 벌써 옮겨졌으며 또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옮겨지게 될것이므로 더욱 그렇게 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농업현물세가 국가예산으로부터 지방예산에로 넘어가는것은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련계를 강화하는 견지에서 보면 가능하며 아주 타당한것으로 될수 있는 것이다.

행정-정치적면에서 련계를 보장하는 방책으로 넘어가자.

국가기구를 간소화하고 경제적으로 꾸리며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구로부터 관료주의분자 및 자산계급적타락분자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기구로 하여금 수백만 대중과 충분히 접근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에 쏘베트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하며 쏘베트로 하여금 활기를 띠게 하는 이것이 바로 당이 행정-정치적건설면에서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취하여야 할 방도이다.

무산계급독재는 목적자체가 아니다. 독재는 사회주의로 가는 수단이며 방도이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주의란 무산계급독재의 사회로부터 국가 없는 사회에로의 이행이다. 그런데 이 이행을 실현하려면 독재의 사회로부터 공산주의사회로의 전화를 실제로 보장할수 있는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방법으로 국가기구를 개조할 준비를 하는것이 필요하다. 쏘베트로 하여금 활기를 떠게 하라, 도시와 농촌에 쏘베트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하라, 로동계급과 농민의 우수한 분자들을 국가관리에 직접 참가시키라는 구호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한것이다. 국가기구를 개선하고 본격적으로 개조하며 관료주의분자, 타락분자들을 국가기구에서 몰아내며 국가기구를 광범한 대중의 친근하며 혈연적인것으로 되게 하는 이 모든것은 국가기구에 대한 대중자체의 부단한 적극적인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대중의 적극적인 부단한 방조는 또 로동자와 농민의 우수한 분자들을 관리기관에 참가시키지 않거나 국가기구를 근로대중의 최《하층》과 직접 련결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한것이다.

쏘베트국가기구와 자산계급국가기구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선 자산계급국가기구는 대중의 머리우에 서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인민과는 뛰여넘을수 없는 장벽으로써 격리되여있으며 이리하여 그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쏘베트국가기구는 자체를 바로 쏘베트국가기구로서 보전하려고 할진대 대중의 머리우에 서있을수 없고 대중의 머리우에 서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가 실지로 수백만 근로대중을 단합시키려고 할진대 이 대중과 인연이 없어서는 안되는것만큼 대중과 뭉합하고있는것이다. 여기에 쏘베트국가기구가 자산계급국가기구와 원칙적으로 다른 하

나의 차이점이 있다.

레닌은 일찌기 《볼쉐위크들은 국가정권을 유지할것인가?》라는 자기의 소책자에서 말하기를 24만의 볼쉐위크당원들이 부자를 반대하고 빈자를 위하여 능히 국가를 관리해나갈수 있으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왜냐 하면 그들은 빈자를 반대하고 부자를 위하여 국가를 관리하던 13만의 지주들에 비하여 조금도 못하지 않기때문이라고 하였다. 어떤 공산당원들은 이것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국가기구는 수십만 당원을 가지면 원만하게 될수 있으며 또 이것이면 큰 나라를 관리해나가기에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있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간혹 당을 국가와 동일시하기를 서슴지않고있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레닌의 사상을 외곡하는것이다. 레닌이 24만의 볼쉐위크당원에 대해서 말한것은 결코 이것으로써 쏘베트 국가기구의 인원구성과 전반적규모가 다 원만해지거나 또는 원만해질수 있다고 말하려 한것은 아니였다. 그와는 반대로 레닌은 국가기구의 인원구성에 당원이외에 또 10월혁명직전에 볼쉐위크들에 찬성투표한 백만명을 포함시키면서 언명하기를 근로자들을 일상적국가관리사업에 참가시킴으로써 단번에 우리 국가기구를 10배로 즉 적어도 1천만으로 만들 수단을 우리는 갖고있다고 하였던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24만명은 지금 벌써 적어도 100만 성인주민의 선거표를 가지고있다, 왜냐 하면 당을 찬성하여 투표하는 투표수와 당원수와의 이러한 비례관계야말로 구라파의 경험과 로씨야의 경험에 의하여—일례를 든다면 페뜨로그라드시의회의 8월선거에 의하여서도—확정되였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벌써 매월 20인에 거액의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사회주의국가에 충실한 100만의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기관〉을 가지고있다.

뿐만아니라 우리는 즉시에, 단번에 우리의 국가기관을 10배로 확대

할 〈기적적인 수단〉을 가지고있는바 이 수단은 어느 한 자본주의국가도 결코 가져본 일이 없으며 또 가질수도 없는것이다. 이 기적적인 수단이란 즉 일상적국가관리사업에 근로자들을 인입하며 빈민을 인입하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1권, 264～265페지를 보라.)①

그러면 《일상적국가관리사업에 근로자들을 인입하며 빈민을 인입한다.》는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있는가?

그것은 쏘베트, 경제기관, 공장위원회, 문화기관, 당조직, 청년동맹조직 및 각종 협동조합단체 등등의 주위에 조직되는 자발적대중단체, 각종 위원회, 협의회와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진행되고있다. 우리 동지들은 우리의 하급의 당조직, 쏘베트기관, 문화기관, 직맹단체, 계몽단체, 공청동맹조직, 군대기관, 녀성부관계단체 및 기타 각종 단체들의 주위에는 수백만 비당원 로동자, 농민 대중을 망라하고있는 수많은 자발적단체, 위원회와 협의회가 활동하고있으며 그것들은 일상적으로 눈에 뜨이지 않게 면밀히 그리고 소리없이 사업함으로써 쏘베트의 토대와 생활, 쏘베트국가의 위력의 원천을 창조하고있다는 사실을 간혹 망각하고있다. 우리 쏘베트기관과 당기관을 에워싸고있는 이러한 수백만 대중의 조직체가 없다면 쏘베르정권의 존재 및 발전, 대국의 지도 및 관리는 절대로 불가능할것이다. 쏘베트국가기구를 이루고있는것은 쏘베트들만이 아니다. 깊은 의미에서 말하면 쏘베트국가기구는 쏘베트들 및 수백만명 대중을 망라하는 각종 비당단체 및 당조직의 총화로써 구성되는바 이 단체들은 쏘베트들을 최《하층》과 결합시키는것이며 국가기구를 수백만 대중과 융합시키는것이며 국가기구와 인민간의 온갖 장벽을 점차 없애버리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국가기구를 《10배로 확대하려고》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316페지를 보라.—편집자

노력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가기구를 수백만 근로대중과 혈연적관계를 가지며 친근한것으로 만들며 우리 국가기구에서 관료주의잔재를 숙청하고 그것을 대중과 융합시키며 따라서 무산계급독재의 사회로부터 공산주의사회에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할것이다.

이러한것이 쏘베트로 하여금 활기를 띠게 하라, 쏘베트민주주의제도를 확립하라는 구호의 의의와 역할이다.

이러한것이 당의 행정-정치적사업면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련계강화방책들이다.

문화계몽사업면에서의 련계보장방책들을 놓고 말하면 그 방책들은 명확하고 누구나 다 아는것이며 따라서 설명을 요하지 않는것이기때문에 이에 대하여 말할것이 얼마 없다. 내가 한가지만 지적하고싶은 점은 최근기간에 이 면에서 해야 할 사업의 기본로선에 대하여서이다. 그 기본로선은 전국적으로 즉 전 쏘련에서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함에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는것이다. 동지들, 이것은 극히 큰 개혁이다. 이 개혁의 실시는 비단 문화전선에서뿐만아니라 정치 및 경제 전선에서도 일대 승리로 될것이다. 이 개혁은 우리 나라의 커다란 발전의 토대로 될것이다. 그러나 이 개혁은 수억루블의 비용이 들것이다. 이 개혁을 실시하는데는 거의 50만의 남녀교사 대군이 요구된다는것을 지적하기만 하여도 충족할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참으로 우리 나라를 높은 문화수준에 올려놓으려고 생각한다면 어쨌든 반드시 최근기간에 이 개혁을 확보해야 한다. 동지들, 우리는 그렇게 할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바없는것이다.

이상이 여러분의 첫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제 둘째 질문으로 넘어가자.

2

자본주의의 안정이 오래 계속되면 우리 당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변질의 위험이 있는가?

우리 나라에 대체 그러한 위험이 있는가?

그러한 위험은 있을수 있는, 지어는 현실적인 위험으로서 존재한다. 그런 위험은 안정과는 상관없이 존재한다. 안정은 그 위험을 보다더 두드러지게 할뿐이다. 이 위험중에서 주되는것은 다음의 세가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1) 우리 나라 건설사업이 사회주의적전망을 잃을 위험과 이로 인한 취소주의.

(2) 국제혁명에 대한 전망을 잃을 위험과 이로 인한 민족주의.

(3) 당의 령도가 약화될 위험과 이로 인하여 당이 국가기관의 부속물로 될 가능성.

첫째 위험으로부터 말해보자.

이 위험은 우리 혁명의 내부력량을 믿지 않으며 로농동맹을 믿지 않으며 이 동맹에서의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을 믿지 않으며 《신경제정책의 로씨야》로부터 《사회주의적로씨야》로의 전화를 믿지 않으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믿지 않는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취소주의와 변질의 길이다. 왜냐 하면 이 길은 결국 10월혁명의 기초와 목적을 취소하며 무산계급국가를 자산계급민주주의국가로 변질시키기때문이다.

이러한 《사조》의 근원 및 그러한것이 당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지반은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 즉 우리 나라 인민경제 내부에서 자본주의적요소와 사회주의적요소간의 결사적투쟁의

조건하에서 당에 대한 자산계급의 영향의 강화이다. 자본주의 적요소는 비단 경제면에서만 투쟁하는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이 투쟁을 무산계급의 사상체계의 분야로 옮기여 가장 견고치 못한 당대오들을 사회주의건설사업에 대한 불신임과 우리 나라 건설사업의 사회주의적전망에 대한 회의적태도로 물들이려 애쓰고있다. 그런데 그들이 애쓴 보람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런것에 물젖은 어떤 《공산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나라처럼 락후한 나라에서 도대체 어떻게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한단 말인가. 우리 나라의 생산력상태로는 그런 공상적인 목적을 세울수 없다. 현상태라도 유지할수 있으면 좋겠다. 사회주의는 어림도 없다. 하여튼 건설해보자. 그러느라면 알게 되겠지…》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10월혁명을 수행함으로써 이미 자기의 혁명적사명을 다하였다. 이제는 만사가 국제혁명에 달려있다. 왜냐 하면 서구라파의 로동계급이 먼저 승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기때문이다. 따라서 로씨야혁명가로서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는 할일이 아무것도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1923년 즉 독일혁명전야에 우리 나라의 일부 청년학생들은 《로씨야에서는 혁명가로서 할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책을 버리고 독일로 가서 혁명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책을 버리고 독일로 떠나려고 한 일이 있었다.

보는바와 같이 이 두 부류의 《공산주의자》들은 어느것이나 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립장 즉 취소주의의 립장에 서있다. 이 량자간의 차이로 말하면 전자는 자기의 취소주의를 《학자식의》 《생산력리론》으로 은폐하지만(밀류교브가 얼마전에 《최신소식》101에서 그들을 찬양하여

《진정한 맑스주의자》라고 부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후자는 그것을 세계혁명이라는 좌익적이며 《대단히 혁명적인》 언사로 은폐하고있다는 그것이다.

사실은 어떤가를 보자. 로씨야에서는 혁명가로서 할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다른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기전에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것은 생각할수도 없으며 또 불가능하다고 하자. 그리고 선진국가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지연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여 과연 자본주의에 포위되여있는 환경에서 활동하는 우리 경제의 자본주의적요소들이 그 경제의 사회주의적요소와의 결사적인 투쟁을 중지하는데 동의하고 세계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수수방관하고있으리라고 생각할수 있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보면 그것은 전혀 맹랑한 생각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부당한것으로서 거부당하였을 때 우리의 《진정한 맑스주의자들》과 《대단한 혁명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뻔한 일이지만 그들이 할수 있는것은 오직 하나 즉 공회전을 하며 자연발생성의 의사에 굴종하며 그리하여 점차 속류자산계급민주주의자로 변질하는것뿐이다.

둘중의 하나이다. 즉 우리가 우리 나라를 무산계급혁명의 기지로 보며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완전한 사회주의사회건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있든가—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자본주의적요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타산하면서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으며 또 건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나라를 혁명의 기지로 보지 않으며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있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든가—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자본주의적요소가 우세를 차지하며 쏘베트정권이 와해

되며 당이 변질하는것을 묵인하는수밖에 없을것이다.

전자가 아니면 후자일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가능성을 믿지 않으면 결국 취소주의와 변질을 가져오게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취소주의의 위험과 투쟁하는것은 오늘, 특히 자본주의의 일시적안정의 조건하에서 우리 당의 당면과업으로 된다.

둘째 위험으로 넘어가자.

이 위험은 국제무산계급혁명을 믿지 않으며 그 승리를 믿지 않으며 식민지 및 예속국에서의 민족해방운동에 대하여 회의적태도를 취하며 다른 나라 혁명운동의 지지가 없이는 우리 나라가 세계 제국주의를 막아내지 못하리라는것을 리해하지 못하며 혁명이 적어도 몇개 나라에서 승리하지 않는 한 무력간섭을 면치못할것이기때문에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가 종국적인것일수 없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며 또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그자체가 목적인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혁명을 발전시키며 지지하는 수단으로 되여야 한다는 국제주의의 초보적요구를 리해하지 못하는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민족주의와 변질의 길이며 무산계급의 국제주의적 정책을 완전히 취소하는 길이다. 왜냐 하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세계혁명운동이라는 하나의 전일체의 한 부분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이 운동의 시초인 동시에 종결로 보면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다른 나라의 모든것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중국의 해방운동을 지지할것인가? 무엇때문에 지지해야 하는가? 그것은 위험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반목하게 되지나 않겠는가? 다른 《선진》렬강들과 공동으로 중국에 《세력범위》를 확립하고 자기의 리익을 위하

여 중국에서 그 무엇을 빼앗아내는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할텐데… 독일의 해방운동을 지지할것인가?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베르싸이유조약102문제에서 련합국과 타협함으로써 배상금이나 좀 벌어내는편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페르쌰, 토이기, 아프가니스탄과 우호관계를 유지할것인가? 십년공부 나무아미타불로 되지는 않겠는가? 어느 렬강과 함께 《세력범위》를 복구하는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등등.

이것은 10월혁명의 대외정책을 취소하려 하며 변질분자들을 배양하고있는 새로운 류형의 민족주의적《사조》이다.

만일 첫째 위험 즉 취소주의의 위험의 근원이 대내정책면 즉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자본주의적요소와 사회주의적요소간의 투쟁면에서 당에 대한 자산계급적영향의 강화라고 한다면 이 둘째 위험 즉 민족주의의 위험의 근원은 대외정책면 즉 자본주의국가들과 무산계급독재국가간의 투쟁면에서 당에 대한 자산계급적영향의 강화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우리 나라에 대한 자본주의국가들의 압력이 크다는것, 우리의 외교사업일군들이 이 압력을 언제나 막아낼수 있는것은 아니라는것, 알륵 이 생길 위험은 흔히 저항이 가장 작은 길로, 민족주의의 길로 나아가게끔 유혹한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다른 한편 오직 철저한 국제주의에 기초해서만, 오직 10월혁명의 대외정책에 기초해서만 최초에 승리한 나라가 세계혁명운동의 기수의 역할을 보전할수 있다는것, 대외정책에서 저항이 가장 작은 길과 민족주의의 길은 최초에 승리한 나라를 고립시키며 와해시키는 길이라는것이 명백하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국제혁명에 대한 전망을 잃는다면 민족주의와 변절의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대외정책에서의 민족주의의 위험과 투

쟁하는것은 당의 당면과업이다.

끝으로 셋째 위험에 대하여 말해보자.

이 위험은 당의 내부력량을 믿지 않으며 당의 령도를 믿지 않으며 국가기관이 당의 령도를 약화시키고 당의 령도를 벗어나려 하며 당의 령도 없이는 무산계급독재가 있을수 없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는것이 특징이다.

이 위험은 세가지 측면에서 온다.

첫째로, 령도를 받아야 할 계급들이 달라졌다. 오늘의 로동자와 농민은 이미 전시공산주의시대의 로동자와 농민이 아니다. 전에는 로동계급이 계급성을 상실하고 산만하였고 농민은 국내전쟁에서 패배하면 지주가 돌아오지나 않을가 하는 공포에 싸여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당은 유일하고 집중된 력량으로서 군사적으로 사업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정세는 다르다. 이제는 전쟁이 없다. 따라서 군사적위험이 근로대중을 당주위에 집결시키는 그런 일은 없게 되였다. 무산계급은 문화면에서도 물질면에서도 부흥되고 향상되였다. 농민도 역시 향상되고 발전되였다. 이 두 계급의 정치적열성은 높아지고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이미 군사적으로 지도할수 없게 되였다. 첫째로 령도에서 최대한의 신축성이 필요하다. 둘째로 로동자와 농민의 요구와 수요에 비상히 민감해야 한다. 셋째로 로동자와 농민의 정치적열성이 높아진 결과 앞장에 나선 이 계급들의 우수한 사람들을 당에 흡수할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과 자질은 알다싶이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로부터 당에 제기되는 요구와 현시기 당이 가지고있는 가능성간에는 불일치가 생긴다. 따라서 당의 령도가 약화되며 당의 령도가 상실될 위험이 생긴다.

둘째로, 최근시기 즉 경제적발전의 시기에 국가조직과 사

회단체의 기관들은 현저히 장성, 강화되였다. 트레스트, 신지케이트, 상업기관, 금융기관, 행정-정치기관, 문화-계몽기관, 각종 협동조합들이 주로 비당원인 수십만의 새 사람들을 받아들이여 현저히 장성확대되였다. 이 기관들은 비단 그 성원만 장성한것이 아니다. 이 기관들의 힘과 비중도 역시 장성하였다. 그런데 이 기관들의 역할이 커질수록 당에 대한 이 기관들의 압력은 더욱 심해지며 이 기관들은 더욱 완강히 당의 령도를 약화시키려 하며 당에 대한 이 기관들의 저항은 더욱 강해지고있다. 이런 새로운 정세하에서 능히 당의 령도를 보장할수 있도록 이 기관들내부의 력량관계를 재편성하고 지도자들을 재배치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알다싶이 이 모든것을 단번에 해낼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당과 리탈할 위험이 생기는것이다.

셋째로, 사업자체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졌다. 오늘의 건설사업이 그러하다. 농촌에서도 도시에서도 일련의 대소사업부문들이 형성되고 발전되였다. 따라서 지도도 보다 구체적으로 되였다. 전에는 지도《일반》을 말하는것이 보통이였다. 지금은 지도《일반》이라는것은 공담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지도《일반》이라는것은 아무 지도도 내포하지 않기때문이다. 지금은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지도가 요구된다. 지난 시기는 리론과 실천의 모든 문제에 답변을 줄수 있는 박식가로 자처하는 일군들을 양성하였다. 지금은 그런 박식가로 자처하는 낡은 일군은 응당 어떤 하나의 사업부문에서 능수가 되려는 새형의 일군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본격적으로 지도하자면 실무를 알아야 하며 성실하고 인내성있고 꾸준하게 실무를 연구하여야 한다. 농업을 모르고 협동조합을 모르고 가격정책을 모르고 농촌과 직접 관계되는 법령들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농촌에서 지도를 할수 없다. 공업을 모르고 로동자들의 일상

생활을 연구하지 않고 로동자들의 요구와 수요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협동조합, 직업동맹, 구락부 사업을 모르고서는 도시에서 지도를 할수 없다. 그런데 이 모든것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유감스러우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당의 령도를 응당한 수준에 올려세우자면 우선 당일군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지금은 일군들의 자질이 첫자리에 놓여야 한다. 그러나 당일군들의 자질을 단번에 높인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유감스러우나 사업에 대한 지식을 파악할 대신에 문제를 성급히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낡은 관습이 의연히 당조직들에 남아있다. 소위 당적지도를 한다는것이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은 가소로운 지령서놀음으로 되여 누구도 또 아무것도 자극하지 못하는 빈말《지도》로 되는 경우가 때때로 있는것도 사실은 이때문인것이다. 여기에 당의 령도를 약화시키며 그것을 허물어뜨릴수 있는 그야말로 중대한 위험의 하나가 있다.

당의 령도가 상실될 위험성이 당의 와해와 변질을 가져오게 되는 리유는 대체로 이상과 같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성과 단호하게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의 당면과업이다.

이상이 동지들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셋째 질문으로 넘어가기로 하자.

3

어떻게 계급투쟁을 격화시키지 않고 부농과 투쟁할것인가?

나는 이 질문은 애매하며 따라서 옳지 않게 설명되였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계급투쟁을 말하는것인가? 만일 일반적으로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을 말한다면 무산계급은 그것을 부농에

대해서만 진행하고있는것이 아니다. 그런데 무산계급과 농민 전체간의 모순—비록 그것이 상당히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있기는 하지만 어찌 계급투쟁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는가? 무산계급과 농민은 현시기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두 기본계급을 이루고있다는것, 이 두 계급사이에는 물론 해결될수 있으며 또 결국 극복될수는 있으나 그러나 어쨌든 이 두 계급간의 투쟁을 야기시키는 모순이 있다는것은 과연 사실이 아닌가?

도시와 농촌사이, 무산계급과 농민사이의 관계를 고려에 넣는다면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투쟁은 다음과 같은 세 기본전선을 가지고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1) 공업제품과 농산물의 최고가격을 제정하고 세무를 정상화하는 등 면에서의 무산계급전체(국가로서 나타나는)와 농민간의 투쟁전선.

(2) 농산물에 대한 투기적가격을 청산하고 세금의 기본부담을 부농들에게 전가하는 등 면에서의 무산계급전체(국가로서 나타나는)와 부농간의 투쟁전선.

(3) 농촌빈민 우선 고농과 부농간의 투쟁전선.

여러분이 보다싶이 이 전선들은 그 비중으로 보나 거기에서 진행되고있는 투쟁의 성격으로 보나 동일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선들에서의 계급투쟁의 제 형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도 역시 달라야 하며 동일하여서는 안된다.

문제를 좀 상세히 고찰해보자.

첫째 전선. 무산계급(국가로서 나타나는)은 우리 나라 산업이 미약하다는것과 이 산업에 필요한 차관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것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산업을 외국산업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할수 있으며 농업도 포함한 우리 나라 인민경제전체에 유리하게 이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일련의 기본방책들을 규정하였다. 그 방책들이란 대외무역의 독점, 농업

현물세, 농산물에 대한 국가적수매형태, 전반 인민경제발전에의 계획원칙의 도입이다. 이 모든것은 주요한 공업부문, 운수, 금융의 국유화를 토대로 하는것이다. 여러분이 알다싶이 이 방책들은 마땅히 가져와야 할 결과를 가져왔다. 즉 그것은 공업제품가격의 급격한 저락과 농산물가격의 급격한 등귀를 제한하였다. 다른 한편 전체 농민들은 그들이 공업제품을 구매하고 자기의 농산물을 시장에 판매하는 한 가급적으로 싼값으로 공업제품을 구매하며 가급적으로 비싼 값으로 자기의 농산물을 판매하려 할것은 물론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민은 농업현물세가 전혀 없거나 적어도 그것이 최소한도에까지 감소되기를 바랄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산계급과 농민사이의 투쟁의 토대이다.

국가는 상술한 기본방책들을 포기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 왜냐 하면 현시기에 있어서는 이 방책들을 포기한다는것은 우리 나라의 산업을 파괴하고 계급으로서의 무산계급을 훼멸시키며 우리 나라를 산업이 발달한 자본주의나라들의 농업식민지로 전락케 하며 우리의 전반 혁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할것이기때문이다.

전체 농민은 우리 나라의 이 기본적방책들을 취소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다. 바라지 않는다. 왜냐 하면 현시기에 있어서 이 방책들을 취소한다는것은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의 승리를 의미하는데 자본주의적발전의 길은 한줌도 못되는 부자들,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의 치부를 위하여 대다수의 농민을 령락시켜가면서 발전하는 길이기때문이다. 농민은 자기자신의 령락을 바라고있으며 또 우리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될것을 바라고있으며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사회주의적길의 승리에는 전혀 무관심하고있다고 누가 감히 단언할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무산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의 토대이다.

이것은 우리 공업기관이 독점에 의거하여 공업제품가격을 올림으로써 기본농민대중과 공업자체에 손해를 주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것인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무엇보다도 공업자체에 해를 끼쳐 우리 나라 공업이 어제날 온실에서 자란 허약한 식물로부터 래일에 응당 되여야 할 강유력한 공업으로 전화되는것을 불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가 공업제품가격을 낮추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는 운동을 전개하는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운동은 상당히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그밖에 또 이것은 우리 수매기관들이 독점에 의거하여 농산물가격을 낮추어 농민을 령락시키며 우리 나라 전반 인민경제에 손해를 끼쳐도 좋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아니다. 그런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무엇보다도 공업자체를 파멸시키고말것이다. 왜냐 하면 이 정책은 첫째로 로동자들에 대한 농산물공급을 곤난하게 만들것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 공업의 국내시장을 완전히 파괴하고 와해시키고말것이기때문이다. 소위 《협상가격차》를 반대하는 우리의 운동의 리유는 여기에 있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이 운동은 이미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끝으로 이것은 우리 지방기관이나 중앙기관이 농업현물세법령에 의거하여 또 그 세금징수권을 리용하여가지고 이 법령을 어떤 절대적인것이라고 볼수 있으며 자기의 실지사업에서 땀보브성의 어떤 구역에서처럼 넉넉하지 못한 납세자의 창고를 헐며 지붕을 벗겨놓는데까지 이를수도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아니다. 그런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정책은 무산계급과 국가에 대한 농민의 신임을 모조리 없애버리게 될것이다. 여기에서 농업현물세를 감소하며 이 농업현물세가 다소간 지방적인 성격을 띠게 하며 우리의 전반 세무를

정돈하며 세금징수에 있어서 어떤 지방에서 나타난 부정행위를 일소함에 관한 당의 최근의 방책들이 나오게 된것이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이 방책들은 이미 초기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첫째로 근본적문제에 있어서 무산계급과 농민의 리익은 일치하며 그들은 다 인민경제발전의 사회주의적길이 승리하기를 바라고있다. 여기에서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이 이루어지는것이다. 둘째로 당면의 문제들에 있어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리익간에는 모순이 있다. 여기에서 그 동맹내에서의 투쟁이 생기는데 그 투쟁은 그 비중에 있어서 리익의 일치성에 압도되는 투쟁이며 장차 로동자와 농민이 계급으로서 존재하지 않을 때 즉 그들이 계급없는 사회의 근로자로 전화되는 때에는 반드시 소멸되고말 그런 투쟁인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범위내에서 두 동맹자 쌍방에 유리하게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이 모순들을 해결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방법과 수단을 실지로 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또한 우리는 신경제정책과 자본주의의 일시적안정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이미 그것을 성과적으로 적용하고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 전선에서 계급투쟁을 격화시켜야 할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와 반대이다! 이로부터 우리가 이 전선에서의 투쟁을 극력 완화시켜 합의와 상호양보의 방법으로써 조절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그 투쟁을 파격한 형태 즉 충돌에까지는 이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뿐이다. 현재 우리는 그렇게 하고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것은 거기에서 리익의 일치성이 리익간의 모순보다 더 강력하며 더 심각하기때문이다.

보는바와 같이 계급투쟁을 격화시키라는 구호는 이 전선의 투쟁조건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둘째 전선. 여기에서의 등장인물은 무산계급(쏘베트국가로서 나타나는)과 부농이다. 여기에서도 계급투쟁의 제 형태는 첫째 전선의 투쟁조건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독특하다.

국가는 농업세에다 뚜렷한 소득세의 성격을 띠게 하려 하면서 이 세금의 기본부담을 부농에게 전가시키고있다. 이에 대응하여 부농은 《갖은 수단을 다하여》 그 중하에서 벗어나오려고 애쓰고있으며 농촌에서의 자기의 모든 세력과 자기의 모든 영향력을 리용하여 세금부담을 중농과 빈농에게 전가시키려 하고있다.

국가는 생활비등귀와 투쟁하며 로임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농민경제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는 공정한 최고 농산물가격을 제정할수 있게 하는 경제적인 대책을 취하려고 노력하고있다. 이에 대응하여 부농은 중농과 빈농의 농산물을 사들여 더 많은 곡물을 자기들의 창고에 저장해두고도 그것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농산물가격을 등귀시켜서 그 가격을 투기가격에까지 끌어올린후에야 비로소 그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아 투기적인 폭리를 짜내기 위한것이다. 우리 나라의 몇개 성에서 금년에 부농들이 곡물가격을 극도로 올려놓은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선의 계급투쟁은 독특하며 또 어느 정도 은폐된 형태를 갖게 되는것이다.

계급투쟁을 격화시키라는 구호가 이 전선의 투쟁조건에는 충분히 적용될수 있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우리는 이 전선에서도 계급투쟁의 격화를 바라지 않기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는 이 전선에서 투쟁의 격화 및 그 투쟁과 관련된 알륵을 완전히 피할수 있으며 또 피

해야 할것이기때문이다.

우리는 기본농민대중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세금의 기본부담을 실지로 부농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쏘베트를 활기있게 하며 쏘베트안에서 중농을 쟁취하며 빈농을 조직할수 있어야 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것이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이런 면에서 여러가지 방책이 실시되고있으며 또 이 방책들은 이미 좋은 성과를 내고있다.

우리들은 량곡시장을 제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간섭하며 근로대중이 살수 있는 가격수준을 유지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부농의 투기적간계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의 예비량곡을 국가의 관리하에 둘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여야 할것이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금년에 수천만뿌드의 곡물이 이 일에 쓰이였다. 우리는 이 면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들이 레닌그라드, 포스크바, 돈바쓰, 이와노워-워즈네쎈스크 등의 지방들에서 곡물가격을 싼값으로 유지하였을뿐만아니라 나아가서 여러 지방에서 부농들이 부득이 항복하여 묵여둔 저장곡물을 높지 않은 가격으로 시장에 내놓지 않을수 없게 하였기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문제가 비단 우리들에게만 달려있는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농자신이 계급투쟁을 격화시켜 그것을 절정에 끌고올라가려고 시도하며 또는 그것에다 비적적 또는 반란적 진출의 형태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것도 완전히 가능한것이다. 그런데 그때에는 투쟁을 격화시키라는 구호는 벌써 우리들의 구호인것이 아니라 부농의 구호이며 따라서 반혁명적구호로 될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경우에는 부농은 쏘베트국가를 반대하는 이 구호에서 생기는 모든 불리한 결과를 부득이 직접 맛보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보는바와 같이 이 둘째 전선에서 계급투쟁을 격화시키라는 구호는 우리의 구호가 아니다.

셋째 전선. 여기에서의 등장인물은 두 세력이다. 그 하나는 빈농 그리고 우선 고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농이다. 여기에서 국가는 공식적으로는 앞에 나서지 않는다. 보는바와 같이 이 전선은 상기한 두 전선처럼 광범하지 않다. 다른 한편 상기 두 전선에 있어서는 계급투쟁이 은밀하고 비교적 은폐되여있다면 이 전선에서는 계급투쟁은 아주 명확하며 공개적이다.

여기에서는 부농기업가가 임금로동자 또는 반임금로동자를 직접 착취하는것이 문제로 되여있다. 그러므로 당은 여기에서 투쟁을 완화하고 억제하는 정책을 취할수는 없다. 여기에서 우리의 과업은 부농을 반대하는 빈농의 투쟁을 조직하며 그 투쟁을 지도하는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계급투쟁을 격화시키려고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계급투쟁을 격화시킨다는것은 투쟁을 조직, 지도하는것만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와 동시에 계급투쟁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며 고의로 선동하는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무산계급독재가 있으며 당조직들과 직맹단체들이 우리 나라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활동하고있는 오늘날 이러한 인위적수단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없다.

그러므로 계급투쟁을 격화시키라는 구호는 이 셋째 전선에도 역시 맞지 않는다.

셋째 질문에 대한것은 이상과 같다.

보는바와 같이 농촌의 계급투쟁에 관한 문제는 얼핏 보고 느끼는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넷째 질문으로 넘어가자.

4

로농정부라는것은 실천적구호인가, 그렇지 않으면 선동적 구호인가?

문제를 이렇게 설정하는것이 내 생각에는 괴상한것 같다.

로농정부란것은 실천적구호인가 그렇지 않으면 선동적구호인가라는 문제의 설정이 무슨 의의를 가지는가? 그것은 당이 현실에는 부합되지 않고 무엇때문인지는 모르나 여기서 《선동》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떤 교활한 술책의 목적에만 사용될수 있는 구호도 내놓을수 있다는것으로 된다. 그것은 당이 과학적근거가 없는 또 있을수도 없는 그러한 구호도 내놓을수 있다는것으로 된다. 이것이 옳은가? 물론 옳지 않다. 그러한 당은 짧은 동안 존재한후에는 물거품처럼 사라질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당은 과학적정책을 실시하는 무산계급당이 아니라 정치적사변의 표면에 나타난 거품과 같은 존재일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 성격상으로 보나 그 강령 및 전술상으로 보나 로동자의 정부, 무산계급의 정부, 공산주의정부이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곡해도 의문도 있을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동시에 두가지 강령을 가지고있을수 없다. 즉 무산계급적강령을 가지고있는 동시에 어떤 다른 강령도 가지고있을수 없다. 우리 정부의 강령 및 그 실천활동은 무산계급적이며 공산주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는 의심할바없이 무산계급정부이며 공산주의정부이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정부가 그와 동시에 로농정부가 아니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아니다, 그런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 강령과 그 활동으로 보아 무산계급정부인 우리 정부

는 그와 동시에 로농정부인것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그것은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는 기본농민대중의 근본적 리익이 무산계급의 리익과 완전히 일치하기때문이다.

그것은 농민의 리익이 무산계급의 강령, 쏘베트정부의 강령에 완전히 표현되여있기때문이다.

그것은 쏘베트정부는 이 두 계급의 근본적리익의 일치성에서 맺어지고있는 로농동맹에 립각하고있기때문이다.

끝으로 그것은 정부기관의 성원들, 즉 쏘베트의 성원들가운데는 로동자뿐만이 아니라 로동자의 지도하에 로동자와 함께 공동의 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새 생활을 건설하고있는 농민도 들어있기때문이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로농정부》라는 구호는 텅 빈 《선동적》구호인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강령에 그 과학적근거를 두고있는 자회주의적무산계급의 혁명적구호이다.

넷째 질문에 관한것은 이상과 같다.

다섯째 질문으로 넘어가자.

5

농민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어떤 동지들은 농민에 대한 민주주의의 확대 및 우리 나라 정권의 성격의 변경이라고 해석하고있다. 이 해석은 옳은가?

우리들은 농촌에서 민주주의를 실지로 확대시키고있는가?

그렇다, 확대시키고있다.

이것은 농민에 대한 양보인가?

물론 그렇다.

이 양보는 아주 큰것인가, 또 그것은 우리 나라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가?

이 양보는 내 생각에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또 이것은 우리의 헌법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는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변경하고있는것은 무엇이며 또 이 양보는 대체 어디에서 표현되고있는가?

우리가 변경하고있는것은 새로운 발전조건하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농촌사업의 방책이다. 우리가 변경하고있는것은 이미 농촌에 수립되여있어서 련계사업을 저해하고있으며 또 농민을 무산계급의 주위에 결속시키는 당의 사업을 방해하고있는 그러한 질서이다.

지금까지의 형편을 본다면 많은 지방에서는 소수인의 집단이 농촌을 관리하고있었는데 그들은 농촌주민들보다도 현이나 성과 더 많이 련계를 가지고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농촌의 관리자들이 상부 즉 현에 대하여 더 많이 주의하고 하부 즉 농촌주민에 대하여 적게 주의하며 또 자기는 농촌에 대하여, 선거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라 현이나 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느끼고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들이 《상부》와 《하부》가 여기에서는 한 련쇄를 이루고있어서 만일 이 련쇄가 하부로부터 끊어진다면 련쇄전체가 다 끊어지고야말리라는것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는것일것이다. 그 결과 나타난것은 한편으로는 관리자들의 방종과 전횡과 자의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의 불만과 불평이다. 이제는 농촌의 이러한 제도에 견결히, 철저히 종지부를 찍고있다.

지금까지의 형편을 본다면 많은 지방에서 농촌쏘베트선거가 진정한 선거로 되지 못하고 권력을 잃을가봐 두려워하는 관리자들의 적은 집단이 허다한 간계와 억압으로써 《대의원》들을 유인하는 공허한 사무적수속으로 되고말았다. 그 결과

쏘베트는 대중과 친근하며 혈연적관계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대중과는 인연이 없는 기관으로 전화될 위험성이 있게 되였으며 그리고 농민에 대한 로동자의 령도, 무산계급독재의 이 토대와 요새가 허공에 뜨고말게 될 위험성이 있게 되였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당은 이리하여 부득이 쏘베트의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이 재선거는 많은 지방에서 실시된 낡은 선거방법은 전시공산주의의 잔재이며 또 그것은 썩어빠진 유해한 방법으로서 숙청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중시하여주었다. 이제는 농촌의 이러한 선거방법에 종지부를 찍고있다.

양보의 근거와 농촌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근거는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양보는 비단 농민에게만 필요한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보다 못지않게 무산계급에게도 필요한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산계급을 강화하며 농촌에서의 그들의 위신을 높이며 무산계급에 대한 농민의 신임을 두텁게 하기때문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양보와 타협의 기본목적은 결국 무산계급을 강화하며 공고화하는데 있는것이다.

현시기에 이러한 양보의 한계는 어떠한가?

이러한 양보의 한계는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표자회의와 쏘련 제3차쏘베트대회[103]에서 확정되였다. 여러분들이 아는바와 같이 양보의 한계는 그다지 큰것이 아니며 내가 방금 말한 범위에 국한되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양보의 한계가 영구불변하리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와 반대로 양보의 한계는 우리 인민경제가 장성하고 무산계급의 경제적 및 정치적 위력이 공고화되며 동방과 서방에서 혁명운동이 발전하며 쏘베트국가의 국제적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확대될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레닌은 1918년에 《착취자들의 반

항이 중지됨에 따라 전체 주민에게 쏘베트헌법을 적용시켜야 할》 필요성을 말하였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2권, 372페지를 보라)①. 여기에서 보는바와 같이 헌법을 자산계급까지도 포함한 전체 주민에게 적용시킬데 대하여 말하였다. 이 말은 1918년 3월에 한 말이다. 그때부터 레닌이 서거할 때까지는 5년이상의 세월이 지나갔다. 그러나 레닌은 그동안 한번도 이 명제를 실시하는것이 적당하다고 말한 일이 없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그렇게 확대할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기때문이다. 그러나 쏘베트국가의 국내 및 국제적 지위가 완전히 강화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우리는 장차 민주주의를 가일층 확대할것을 예견하면서도 현시기에는 민주주의에서의 양보를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표자회의와 쏘련 제3차쏘베트대회에서 확정된 범위에 국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것이다.

이러한 양보는 나라의 정권의 성격을 변경시키는가?

아니다, 변경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양보는 무산계급독재체계를 약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그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가?

조금도 그리고 결코 그렇지 않다.

무산계급독재는 쏘베트를 활기있게 하며 농민중의 우수한 분자들을 사업에 인입함으로써 약화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강화될뿐이다. 농민에 대한 무산계급의 령도는 민주주의의 확대로 인하여 유지될뿐만아니라 무산계급의 주위에 신임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더욱 새로운 힘을 얻고있는것이다. 그런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7권, 142페지를 보라, —편집자

데 무산계급독재체계내에서의 무산계급과 농민파의 호상관계에 대하여서 말한다면 그것은 독재에 있어서 주요한것이다.

무산계급독재의 개념은 폭력의 개념에만 국한된다고 주장하는 동지들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 무산계급독재는 폭력일뿐만아니라 비무산계급의 근로대중에 대한 령도이기도 하며 그 류형에 있어서 자본주의경제보다 더 높고 로동생산능률에 있어서 자본주의경제보다 더 높은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것이기도 하다. 무산계급독재라는것은 (1) 자본가 및 지주에 대해서는 법률적제한을 받지 않는 폭력이며 (2) 농민에 대해서는 무산계급의 령도이며 (3) 전 사회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의 건설이다. 독재의 이 세 측면중에서 어느 한 측면이라도 제거한다면 무산계급독재의 개념을 외곡할 위험이 있다. 이 세 측면을 종합하여야만 무산계급독재의 완전한 개념을 가지게 된다.

당이 쏘베트민주주의면에서 취한 새 방침은 무산계급독재체계에 어떠한 해독을 가져오고있지 않는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 그와는 반대이다! 새 방침은 무산계급독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을 개선할뿐이다. 만일 그것이 무산계급독재체계내의 폭력이라는 요소를 가리키며 그 폭력의 표현이 붉은군대라고 한다면 농촌에서 쏘베트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것은 붉은군대를 쏘베트정권의 주위에 결속시킴으로써 이 붉은군대의 상태를 개선할수 있을뿐이라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의 군대는 주로 농민으로 이루어지기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독재체계내의 령도라는 요소를 가리킨다면 쏘베트를 활기있게 하자는 구호는 로동계급에 대한 농민의 신임을 두텁게 함으로써 무산계급의 이 령도를 용이하게 할따름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독재체계내의 건설이라는 요소를 가

리킨다면 당의 새 방침이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할수 있을뿐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것이다. 왜냐 하면 그 새 방침은 련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된것으로서 이 련계가 없이는 사회주의건설은 불가능하기때문이다.

결론은 하나이다. 즉 현정세하에서 농민에 대한 양보는 우리 나라의 정권의 성격을 조금도 변경하지 않고 무산계급을 강화하고 무산계급독재를 공고화할뿐이다.

다섯째 질문에 관한것은 이상과 같다.

여섯째 질문으로 넘어가자.

우리 당은 자본주의의 안정과 관련하여 국제공산당내의 우익적경향에 양보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만일에 그렇다면 이것은 실지로 필요한 전술적수단인가?

이것은 확연히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과 또 이 당의 우익분자들을 반대하여 슈메랄동지 및 자뽀또쯔끼동지의 집단과 련합한것을 두고 말할것이다.

나는 우리 당이 국제공산당내의 우익적경향에 하등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와 반대로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확대전원회의[104]는 그전체가 국제공산당내의 우익분자들을 고립시키는 목표밑에 진행되였던것이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에 관한 국제공산당의 결의문을 읽어보고 불쉐위크화에 관한 결의문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국제공산당의 공격이 주요하게 공산주의운동중의 우익분자들에게 돌려졌다는것을 리해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이 국제공산당내의 우익적경향에 대하여 양보했다고는 말할수 없다.

슈메랄동지와 자뽀또쯔끼동지는 엄밀히 말한다면 우익이 아니다. 그들은 우익의 강령 즉 브룹파의 강령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기보다도 그들은 우익적경향을 가지고 메닌주의자와 우익사이에서 동요하고있는자들이라고 하는것이 오히려 마땅할것이다. 그들이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확대전원회의에서 취한 행동의 특징은 그들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비판에 억눌리고 또 다른편으로는 우익에 의하여 조성된 분열의 가능성에 위협을 당하여 이번에는 우익을 반대하여 메닌주의자들과 동맹하기로 약속하고 우리측으로, 메닌주의자들측으로 기울어졌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영예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동지들은 동요분자들이 메닌주의자측으로 기울어지고 우익을 반대하여 메닌주의자들에게 양보하기 시작한 때에도 우리는 그들을 맞아들여서는 안될것이였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볼쉐위크적전술의 초보적인 진리도 리해할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것은 놀랍고도 슬픈 일일것이다. 그래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문제에 대한 국제공산당의 정책이 유일하게 옳은 정책이였다는것은 이미 실천이 증명하고있지 않는가? 그래 슈메랄동지와 자뽀또쯔끼동지는 메닌주의자들과 한 대렬내에서 우익을 반대하여 계속 싸우고있지 않단 말인가? 그래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내에서 브룹파는 이미 고립되여 있지 않단 말인가?

그것이 오래 가겠는가 하고 물을수 있을것이다. 나는 오래 가겠는지는 물론 알수 없다. 나는 예언을 할 생각은 없다. 어쨌든 슈메랄일파가 우익과 투쟁을 계속하고있는 한 슈메랄

일파와의 련합도 계속될것이나 슈메랄일파의 현재의 립장이 변하기만 하면 곧 그들파의 련합도 효력을 상실하게 될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는 결코 이 점에 있는것이 아니다. 현재의 문제는 우익을 반대하기 위한 현재의 련합이 메닌주의자들을 강화하며 메닌주의자들에게 동요분자들을 령도할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있다는 점에 있는것이다. 현재에는 이 점이 주요한것이며 슈메랄동지나 자뽀또쯔끼동지에게 앞으로 또 어떤 동요가 있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주요한것이 아니다.

메닌주의자들은 온갖 좌익 말공부쟁이와 신경쇠약환자를 다 지지하여야 하며 메닌주의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공산주의자들가운데서도 판박은 좌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는 로동계급의 비공산주의적인 당에 비해서는 좌익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때 고빠르부스가 요구한바와 같이—그때문에 그는 당시 메닌에게서 질책을 받았던것이다.—《누구보다도 좌익적》이 되겠다고 약속한 일은 결코 없다. 공산주의자들가운데서 우리들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며 그저 메닌주의자일따름이다. 메닌은 그가 공산주의운동중의 좌익적경향도 반대하고 우익적경향도 반대하는 두 전선에서 투쟁할 때에 무엇을 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메닌의 훌륭한 소책자중의 하나가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이라는 제목으로 집필되였다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나는 동지들이 제때에 이 마지막사정에 주의를 돌렸더라면 여섯째 질문은 나에게 하지 않았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섯째 질문에 관한것은 이상과 같다.

일곱째 질문으로 넘어가자.

7

농촌당조직들이 미약한탓으로 새 방침과 관련하여 농촌에서 사상적으로 반쏘베트적선동이 형성될 위험성이 없는가?

그렇다,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쏘베트를 활기있게 한다는 구호밑에 쏘베트선거를 실시하는것은 지방에 선거선동의 자유가 있음을 의미한다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반쏘베트분자들은 이 틈을 타서 또한번 쏘베트정권을 더럽히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는것은 말할것도 없는것이다. 이리하여 농촌에서 반쏘베트적선동이 강화되고 형성될 위험성이 생기는것이다. 꾸반, 씨비리, 우크라이나에서의 개선과정에서 나타난 사실들은 이 점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여러 지방에서 우리의 농촌당조직들이 미약한탓으로 이러한 위험성이 극심해지고있다는것은 의심할바없는 사실이다. 한편 제국주의렬강의 무력간섭의 악습도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극심해지도록 자극하고있다는것도 의심할바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어째서 생기며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 근원은 적어도 두가지가 있다.

첫째로, 반쏘베트분자들은 최근 농촌에서 부농에게 유리한 어떤 변동이 발생하였고 여러 지방에서 중농이 부농측으로 돌아섰다는것을 감촉하고있다. 이 점은 재선거전에도 추측할수 있었다. 이 추측은 재선거후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되였다. 이것이 농촌에서 사상적으로 반쏘베트적선동이 형성될 위험성의 제일차적인 그리고 주요한 근원이다.

둘째로, 여러 지방에서는 농민에 대한 우리의 양보를 우

리들이 연약하다는 표징으로 간주하였다. 이 점은 재선거전에는 의심할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재선거후에는 의심할바 없는것으로 되였다. 농촌의 백위군분자들이 《계속 압력을 가하라!》고 웨친것은 이때문인것이다. 이것이 본질적인것은 아니지만 농촌에서 반쏘베트적선동이 극심해지게 될 위험성이 생기는 두번째 원인이다.

공산당원들은 우선 농촌에 있어서의 현시기는 중농을 쟁취하는 투쟁시기라는것, 무산계급측으로 중농을 쟁취하는것은 농촌에서의 당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것, 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반쏘베트적선동이 형성될 위험성이 극심해지고 당의 새 방침이 백위군에게 리롭게만 될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공산당원들은 둘째로 중농을 쟁취하는것은 지금에 있어서는 오직 쏘베트, 협동조합, 신용대부, 농업현물세, 지방예산, 기타에 대한 당의 새로운 정책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는것, 행정적으로 강압하는 시책은 이를 해롭게 하며 망칠뿐이라는것, 중농에 대해서는 경제적 및 정치적 시책에 의하여 우리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해야 한다는것, 중농은 오직 실증과 시범에 의해서만 《쟁취》될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공산당원들은 그밖에도 새 방침은 반쏘베트분자들의 소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쏘베트를 활기있게 하며 농민의 기본대중을 인입하기 위해서 실시되고있다는것, 새 방침은 반쏘베트분자들과의 결정적투쟁을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그것을 전제로 하고있다는것, 또 만일 반쏘베트분자들이 농민에 대한 양보를 우리들의 연약성의 표징이라고 간주하며 그 양보를 반혁명의 목적에 리용하면서 《계속 압력을 가하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을 기다리고있는 감옥이 있다는것을 회상시키면서 쏘베트정권이 튼튼하다는것을 반드시 그들에

게 증명하여줄 필요가 있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나는 만일 우리의 이러한 과업이 참 파악되고 실지로 실시되기만 한다면 농촌에서 반쏘베트적선동이 사상적으로 형성되고 강화될 위험성은 필연코 근절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일곱째 질문에 관한것은 이상과 같다.

여덟째 질문으로 넘어가자.

8

비당원들의 영향력이 강화됨과 관련하여 쏘베트내에 비당원들의 분파가 형성될 위험성이 없겠는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이런 위험성이 존재한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만일 아직 공산당원들의 영향력이 침투되여있지 못한 곳에서 다소라도 조직된 비당원들의 영향력이 장성하고있다면 아무런 위험성도 없다. 례컨대 도시의 직업동맹이 그렇고 농촌의 어느 정도 쏘베트적인 비당원단체들이 그렇다. 위험성은 비당원들의 단체가 당을 대신하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위험성은 어디로부터 오게 되는가?

우리의 로동계급속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이 보이지 않거나 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것이 특징적이다. 이것은 무엇때문인가? 이것은 우리 나라에는 당을 중심으로 하여 로동계급속에 당을 충분히 신임하며 또 당을 로동계급의 수백만 대중과 련결시키고있는 수많은 비당원로동자열성자들이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성이 농민들속에 특히 첨예하다는 사실도 그보다 못지않게 특징적이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당이 농민들속에서는 미약하며 당은 아직 당을 수천만 농민과 련결시킬

수 있는 수많은 비당원농민열성자들을 가지고있지 못하기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농민들속에서처럼 비당원열성자의 필요성을 심각히 느끼게 되는 곳은 아마 어디도 없을것이다.

결론은 하나이다. 즉 비당원농민대중이 당으로부터 리탈되고 멀어질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의 주위에 수많은 비당원농민열성자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성자들을 일거에 또는 두서너달동안에 육성해낼수는 없다. 그것은 오직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사업과정에서, 쏘베트를 활기있게 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운동을 벌리는 과정에서만 육성해낼수 있으며 농민대중속에서 선발할수가 있다. 이렇게 하자면 비당원들에 대한 공산당원들의 태도자체를 고쳐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공산당원들은 비당원들을 평등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공산당원들은 비당원들에 대하여 형제간과 같은 신임을 가지고 대하는것을 배워야 한다. 비당원들이 신임 대신에 불신임을 얻었을 때 그들에게서 신임을 바랄수 없는것이다. 레닌은 당원과 비당원간의 관계는 《호상신임》의 관계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레닌의 이 말을 잊어서는 안된다. 당원과 비당원의 호상신임의 환경을 만드는것—이것은 무엇보다도 당주위에 수많은 비당원농민열성자들을 길러낼 조건을 지어놓는데 필요한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호상신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물론 일거에 되는것도 아니며 지령으로써 되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당원과 비당원의 《호상검열》, 일상적인 실지사업과정에서의 호상검열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는것이다. 제1차청당시기에 당원들은 비당원들을 통해서 검열되였는데 이것은 당주위에 비상한 신임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당에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레닌은 이미 그 당시에 이에 관련하여 당원과 비당원과의 호상검열에 관한 제1차청당의 교훈을 전

사업분야에 일반화시켜야 하겠다고 말하였다. 나는 우리가 레닌의 이 충고를 회상할 때가 되였으며 그것을 실시할 대책을 취할 때가 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당원과 비당원간에 호상신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수단으로서 일상적실지사업과정에서 실시되는 그들의 호상비판과 호상검열—이것은 만일 당이 수백만 비당원이 당을 멀리하게 되는 위험성을 제거하려고 하며 또 당이 농촌에 있는 당조직의 주위에 수많은 비당원농민열성자를 육성해내려고 한다면 당이 반드시 취하여야 할 길이다.

여덟째 질문에 관한것은 이상과 같다.

아홉째 질문으로 넘어가자.

9

외국의 원조 없이도 정말 대공업의 고정자본을 재장비하고 현저히 확대할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두가지로 리해할수 있다.

혹은 현존자본주의국가들이 쏘베트국가에 대하여 차관으로써 즉시 원조하는것을 쏘베트공업발전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것이거나—이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상응되는 대답을 할수 있을것이다.

혹은 서방무산계급이 장차 승리한후 쏘베트국가를 원조하는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것이다. —이 경우에는 다른 대답을 해야 할것이다.

나는 누구의 감정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질문이 가질수 있는 두가지 해석에 대해서 다 대답하도록 하겠다.

첫째 해석으로부터 시작하자.

자본주의에 포위된 조건에서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지 않고서도 쏘베트대공업을 발전시킬수 있는가?

그렇다, 발전시킬수 있다. 이 사업은 많은 곤난에 봉착할 것이며 따라서 준엄한 시련을 겪게 될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이 모든 곤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받지 않고서도 우리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할수 있다.

력사는 오늘날까지 유력한 공업국의 형성 및 발전의 세가지 길을 알고있다.

첫째 길은 식민지를 강점략탈하는 길이다. 례컨대 영국이 이렇게 발전하였다. 영국은 세계 각지에서 식민지를 강점하여 이 식민지들로부터 2세기간에 걸쳐서 자국공업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자본》을 착취하여왔으며 그리하여 결국 《세계의 공장》으로 전화되였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이러한 발전의 길은 걸을수 없다. 왜냐 하면 식민지의 강점과 략탈은 쏘베트제도의 본질과 량립할수 없는것이기때문이다.

둘째 길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군사적으로 격파하고 배상금을 략취하는 길이다. 례컨대 독일이 그러하였다. 독일은 프로씨아-프랑스전쟁시기에 프랑스를 격파하고 프랑스로부터 50억의 배상금을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자국의 공업령역에 투압하였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이러한 발전의 길도 역시 쏘베트제도의 본질과 량립할수 없는것이다. 왜냐 하면 그 길은 사실상 첫째 길과 조금도 다름이 없기때문이다.

셋째 길은 자본주의적으로 락후한 국가가 자본주의적으로 발달한 국가에 예속적인 조건부로 리권을 양도하고 역시 예속적인 조건부로 차관을 얻는 길이다. 례컨대 짜리로씨야가 그러하였다. 짜리로씨야는 예속적인 조건부로 리권을 제공하고 서구라파렬강으로부터 예속적인 차관을 받음으로써 반식민지의 멍에를 썼다. 그러나 이것은 장차 짜리로씨야가(물론 다

조《성과있는》전쟁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물론 림국에 대한 략탈도 없지 않았으나) 드디여 자립적인 공업발전의 길로 들어설수 있으리라는것을 배제하는것은 아니였다. 이러한 길도 역시 쏘베트국가에는 용납될수 없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각국 제국주의자들과 3년동안이나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린것은 국내전쟁이 승리적으로 종결된 다음날 자진해서 제국주의의 노예로 되기 위해서가 아니였다.

이러한 발전의 길들의 하나하나가 실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순수한 형태로 또 반드시 다른 길과는 동떨어져서 실현되는것이라고 생각하는것은 옳지 않다. 실지에 있어서 개별적국가의 력사에서는 이러한 길은 흔히 서로 교차되고 서로 보충하고있었으며 그 길들이 서로 교착되여있는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례를 들면 이러한 발전의 길들이 서로 교착되여있는 실례로 들수 있는것은 미국의 발전사이다. 이러한 사정은 상이한 발전의 길은 그것이 아무리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서로 접근시키고 또 서로 교착될수 있게 하는 몇가지 공통점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 공통점이라는것은 첫째로 그 모든 길이 결국은 자본주의적공업국가를 형성하게 한다는것, 둘째로 그 모든 길이 이런 또는 저런 방법으로 획득되는《추가자본》의 외부로부터의 류입을 자본주의적공업국가형성의 불가결의 조건으로서 전제로 하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발전의 이 세가지 길이 어쨌든 자본주의적공업국가형성의 세가지 상이한 방법을 의미하고있다는것, 또 이러한 길의 하나하나가 그러한 국가들의 면모에다 자기의 독특한 흔적을 남겨놓는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고 발전의 이 세가지 길을 서로 혼동하고 동일시한다면 더구나 옳지 못할것이다.

그런데 만일 국가를 공업화하는 낡은 길들이 쏘베트국가에는 용납될수 없고 또 예속적조건에서가 아닌 신자본의 류입

이 의연히 불가능하다면 쏘베트국가에는 어떠한 길이 남아있는가?

남아있는것은 발전의 새로운 길 즉 다른 나라들이 아직 전혀 걸어보지 못한 길, 외부로부터의 차관이 없이 대공업을 발전시키는 길, 외국자본의 필수적인 류입이 없이 국가를 공업화하는 길—레닌이 《적게 해도 좋으니 잘하라》라는 론문에서 지적한 길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로동자들이 농민들에 대한 자기들의 령도, 자기들에 대한 농민들의 신망을 보전하며 또 최대한의 절약으로써 자기의 사회관계에서 온갖 랑비현상을 흔적도 없이 청산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기관이 최대한의 절약을 하게 하여야 한다.…만일 우리가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령도를 보존한다면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방법으로 그 어떤 미소한 축적이라도 보존함으로써 우리의 대규모적기계공업의 발전과 전기화의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다.》 레닌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말을 저 말로 즉 농민적이고 농부적이며 빈궁해진 말, 령락된 농민국가에 기대를 건 절약의 말로부터 무산계급이 탐구하고있으며 또한 탐구하지 않을수 없는 말 즉 대규모적기계공업, 전기화, 원호보강발전소건설 등등의 말로 바꾸어 탈수 있게 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417페지를 보라.)①

이것이 우리 나라가 자기의 대공업을 발전시키며 무산계급의 강력한 공업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미 들어선 길이며 또 걸어야 할 길이다.

내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이 길은 자산계급국가들이 걸어보지 못한 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무산계급국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711페지를 보라. —편집자

가에 있어서 불가능한 길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자산계급국가에는 불가능하거나 또는 거의 불가능한것이 무산계급국가에는 완전히 가능하다. 그것은 무산계급국가가 이 면에 있어서는 자산계급국가들이 가지고있지 못하거나 또는 가질수 없을수도 있는 고러한 우점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국유화된 토지, 국유화된 공업, 국유화된 운수 및 신용기관, 독점화된 대외무역, 국가통제밑에 있는 국내상업—이러한 모든것은 우리 나라 공업을 발전시키는데 리용할수 있는 《추가자본》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그것은 여직 어떠한 자산계급국가도 가져본 일이 없는것이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이러한 또는 이와 류사한 새로운 원천은 이미 무산계급정권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공업발전에 리용되고있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이 길에서 이미 약간의 상당히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자산계급국가에는 불가능한 이 발전의 길이 무산계급국가에는 그 모든 곤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가능한것이다.

뿐만아니라 현시기에 있어서 비예속적조건에서의 외래자본의 류입이 없다는 사실은 어떤 영구적 또는 절대적인것일수는 없다는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아는바와 같이 약간의 외래자본이 이미 우리 나라에 류입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가 장성강화됨에 따라 이 류입이 강화될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것이다.

질문의 첫째 해석에 관하여서는 이러하다.

질문의 둘째 해석으로 넘어가자.

구라파의 주요한 국가들에서 사회주의가 먼저 승리하지 않거나 승리한 구라파무산계급이 기술 및 설비로 직접 원조하지 않아도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할수 있겠는가?

이 질문—부언하거니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서두에서 하였다.—에 대한 대답으로 넘어가기전에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널리 류포되여있는 한가지 오해를 풀려고 한다. 그 오해는 어떤 동지들이 《대공업의 고정자본의 재장비 및 확대》에 관한 문제를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주의경제의 완전한 건설문제와 동일시하는 경향을 가지고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동일시에 동의할수 있겠는가? 없다, 그렇게 할수 없다.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첫째 문제가 그 범위로 보아서 둘째 문제보다 협소하기때문이다. 그것은 공업의 고정자본의 확대라는 첫째 문제는 인민경제의 **일부분** 즉 공업만을 포괄하고있지만 사회주의경제의 완전한 건설문제는 인민경제**전체**를, 다시말하면 공업**도** 농업**도** 포괄하고있기때문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건설문제는 전반 인민경제의 **조직**문제를 의미하며 공업과 농업의 **정당한 결합**문제를 의미하고있지만 공업의 고정자본확대문제는 엄밀히 말하면 지어 이러한 문제와는 관련까지도 없기때문이다. 가령 공업의 고정자본은 이미 재장비되고있으며 확대되고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완전한 건설문제가 따라서 이미 해결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주의사회란 공업과 농업 일군들의 생산-소비협동체이다. 이러한 협동체에 있어서 만일 공업이 원료와 식료품을 공급해주며 공업제품을 소화해주는 농업과 련결되여있지 못하며 그리하여 공업과 농업이 인민경제의 단일한 전일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로부터는 어떠한 사회주의도 생길수 없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공업과 농업과의 호상관계문제, 무산계급과 농민과의 호상관계문제는 사회주의경제의 완전한 건설문제에 있어서 기본문제로 되는것이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대공업의 고정자본의 재장비 및 확대

문제는 사회주의경제의 완전한 건설문제와 동일시할수 없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에 있어서 사회주의가 먼저 승리하지 않거나 서방의 승리한 무산계급이 기술 및 설비로 직접 원조하여주지 않아도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경제의 완전한 건설이 가능한가?

그렇다, 가능하다. 가능할뿐만아니라 필연적이기도 하고 불가피적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우리는 이미 국유화된 공업을 발전시키며 공업을 농업과 련결시키며 또 농촌에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며 농민경제를 쏘베트발전의 전반적체계내에 이끌어들이며 쏘베트를 활기있게 하며 국가기관을 수백만 인민대중과 융합시키며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며 새로운 사회적기풍을 수립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기때문이다. 이 길우에는 무수한 난관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허다한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서방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가 원조를 주게까지 될수만 있다면 일이 근본적으로 쉽게 될것이라는것도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첫째로는 서방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우리들이 바라는바와 같이 단시일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며 둘째로는 그 난관은 극복될수 있는 것이며 또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이미 극복하고있는것이다.

이 모든 점은 내가 이미 서두에서 말한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나는 이보다도 전에 모스크바열성자들에게 한 나의 보고①에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하여 또 그보다도 전에 《10월혁명에로 가는 길》이라는 소책자에 쓴 나의 《서문》86에서도 언급하였다. 나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건설의

---

① 《모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표자회의의 사업총화에 대하여》(이 책 409~450페지를 보라.)를 가리킨다. —편집자

가능성을 부인하는것은 당을 변질에로 이끄는 취소주의라고 말하였다. 이전에 이미 수차 언급한 말을 이제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레닌의 저작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원리를 발견할것이다.

다만 이 문제의 경위와 그것이 이 시기에 당에 대하여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만 몇마디 말하려고 한다.

만일 1905~1906년의 론쟁을 도외시한다면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문제는 1915년 제국주의전쟁시기에 처음으로 당내에서 제기되였던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레닌은 그 당시에 《사회주의의 승리는》 최초에는 《개별적인 한 자본주의나라에서 가능하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8권, 232페지를 보라.)①는 명제를 처음으로 정식화하였던것이다. 그것은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 전환하는 시기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뜨로쯔끼는 이미 그때 레닌의 이 명제를 론박하여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레컨대 혁명적인 로씨야가 보수적인 구라파앞에서 견디여낼수 있다는것은 가망없는 일일것이다.…》(《뜨로쯔끼론문집》, 제3권, 제1분책, 90페지를 보라.)

10월혁명과 국내전쟁이후 여러가지 건설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된 1921년에 사회주의건설문제가 다시금 당내에서 제기되였다. 이 시기에 몇몇 동지들이 《신경제정책》에로의 전환을 사회주의적과업으로부터의 리탈, 사회주의건설로부터의 리탈이라고 평가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레닌은 당시 《현물세에 관하여》②라는 그의 소책자에서 《신경제정책》에로의 전환을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09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제4권, 503~540페지 —편집자

공업과 농민경제와의 련계의 필수적조건이며 사회주의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조건이며 성과있게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1921년 4월의 일이였다. 마치 이에 대답하듯이 뜨로쯔끼는 1922년 1월에 《1905년》이라는 그의 저서의 서문에서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문제에 대하여 완전히 대립되는 명제를 내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농민인구가 압도적다수인 뒤떨어진 나라에서 로동자정부의 처지에 있어서의 모순들은 그 해결을 다만 국제적범위 즉 무산계급의 세계혁명의 무대에서만 얻을수 있는것이다.》

이 일이 있은지 1년후(1922년) 모스크바쏘베트전원회의석상에서 《신경제정책의 로씨야가 사회주의적인 로씨야로 될》① 것이라고 한 레닌의 말과 《평화의 강령》의 발문에서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경제의 진정한 앙양은 구라파의 가장 주요한 나라들에서 무산계급이 승리한 이후에라야 비로소 가능하게 될것이다.》라고 한 뜨로쯔끼의 말이 다시금 서로 대립되게 되였다.

끝으로 또 1년이 지나서 레닌은 서거하기 얼마전에 《협동조합에 관하여》(1923년 5월)라는 론문에서 다시금 이 문제에 언급하면서 우리 쏘베트련맹은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부》②를 가지고있다고 언명하였다.

이 문제의 간략한 경위는 이러하다.

이러한 력사적구명에 의하여도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문제는 우리 당의 실지사업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는것을 알수 있다. 만일 레닌이 이 문제를 우리의 실지사업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401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2페지를 보라. —편집자

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 문제를 그렇게 여러 번 되풀이하지 않았으리라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그후 우리 나라 경제의 발전, 우리 나라 경제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요소와 자본주의적요소간의 투쟁의 첨예화, 특히 자본주의의 일시적안정 등은 다만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의 의의를 높여주고 강화시켰을따름이다.

당의 실지사업의 견지에서 보면 이 문제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이 문제가 우리들의 건설사업의 전망과 이 건설사업의 과업 및 목적에 관한 문제와 관련되고있다는데 있다. 무엇을 위해서 건설하는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본격적으로 건설할수가 없다. 운동의 방향을 알지 못하고서는 한걸음도 내디딜수가 없다. 전망에 관한 문제는 자기앞에 명백하고 확정적인 목적을 가지기에 관습된 우리 당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사업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사회주의를 위해서 건설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의 사회주의혁명을 기대하면서》 자산계급민주주의의 토양에다 거름을 주기 위해서 요행을 바라고 맹목적으로 건설하는가—이것이 현재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 매우 명확한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고서는 본격적으로 사업하거나 건설할 수가 없다. 수백수천명의 당일군, 직업동맹일군, 협동조합일군, 경제일군, 문화일군, 군사일군 및 공청원들이 우리를 찾아오며 우리와 우리 당에다 질문하고있다.—어떠한 방향으로 사업을 인도하며 무엇을 위해서 건설하는가라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어떤 지도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정적인 답변을 줄줄 모르거나 또는 주려고도 하지 않으

며 이리저리 꽁무니를 빼기 시작하며 사람들을 폰티우스로부터 필라투스에게로 미루면서[105] 우리의 건설사업의 사회주의적전망을 지식인의 회의주의로써 말살시켜버리고있다.

레닌주의의 위대한 의의는 실로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즉 레닌주의는 요행을 바라고 맹목적으로 하는 건설사업을 인정하지 않으며 건설사업을 전망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를 완전히 건설할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고 또 건설해야 된다는것을 언명함으로써 우리들의 사업의 전망에 관한 문제에 명백하고도 확정적인 대답을 주고있다는 점에 있다.

사회주의경제의 완전한 건설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이러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틀림없이 사회주의경제를 완전히 건설하는데 성공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다만 우리에게만 달려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또한 외국에 있는 우리의 적과 우리의 벗들의 세력의 강약여하에도 달려있는 문제이다. 만일 우리에게 건설할 기회를 준다면, 만일 우리가 《휴식》기를 연장시킬수 있으며 중대한 무력간섭이 없게 되며 무력간섭이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만일 일방으로 국제혁명운동의 력량 및 위력과 타방으로 우리 나라자신의 력량 및 위력이 강력한 무력간섭의 시도를 불가능하게 할수 있으리만큼 충분히 강대하다면 우리는 사회주의경제를 완전히 건설할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만일 무력간섭이 성공하며 우리가 격파된다면 그때에는 우리들은 그것을 건설해낼수 없을것이다.

아홉째 질문에 관한것은 이상과 같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자.

10

자본주의의 안정 및 세계혁명의 지연과 관련하여 특히는 당과 로동계급,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상호관계 면에서 우리의 당건설 및 쏘베트건설이 당면한 최대의 난관을 알려주기 바란다.

이러한 난관을 만일 그중에서도 주요한것만을 념두에 두고 말한다면 나는 다섯가지를 들수 있다. 자본주의의 안정의 역할은 그것이 이러한 난관들을 얼마쯤 강화시키고있다는 점에 있다.

첫째 난관. 이것은 외국의 무력간섭의 위험성과 관련되여 있는 난관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현재 무력간섭의 직접적인 위험에 직면하고있다든가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간섭할수 있도록 이미 준비되여있고 또 이제 곧 완전히 간섭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무력간섭을 하려면 제국주의가 적어도 전쟁전만큼 강해야 할터인데 실지에 있어서는 다 아는바와 같이 그렇지 못하다. 현재 마로고에서 벌어지고있는 전쟁[106]이나 중국에 대한 무력간섭[107], 미래의 전쟁과 무력간섭의 이 예비연습은 제국주의의 힘이 약화되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직접적인 무력간섭에 있는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포위가 존재하는 한 일반적으로 무력간섭의 위험성도 있을것이며 또 무력간섭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국방을 위하여 매년 수억루블의 지출을 요하는 륙해군을 유지하지 않을수 없다는 그 점에 있는것이다. 그러면 륙해군에 대한 매년 수억루블의 지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문화적 및 경제적 건설에 대한 지출

이 그만큼 감축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무력간섭의 위험성이 없다면 우리는 그만한 금액을 전부 또는 적어도 그 대부분을 산업의 강화, 농업의 개량, 또는 폐컨대 초등의무교육개혁의 실시 등등에다 돌릴수 있을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이로부터 무력간섭의 위험성과 관련된, 건설사업면에서의 난관이 생기게 된다.

다른 모든 난관과 달라서 이 난관의 특징은 그것을 극복하는것은 비단 우리에게만 달려있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모든 나라들의 혁명운동의 공동노력으로써만 제거될수 있다는 점에 있다.

둘째 난관. 이것은 무산계급과 농민간의 모순과 관련되여있는 난관이다. 나는 농촌에서의 계급투쟁에 관한 문제를 분석할 때에 이미 이 모순을 말한 일이 있다. 이미 말한것을 되풀이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이 모순은 농업생산물과 공업제품에 대한 가격정책면, 농업현물세와 농촌관리 등등의 면에서 생기고있다. 여기에서 위험성은 로농련계사업의 혼란, 농민에 대한 무산계급의 령도라는 사상의 파괴에 있다. 이로부터 이 위험성과 관련된 난관이 생기게 된다.

상술한 난관과 달라서 이 난관의 특징은 그것이 우리의 내적힘에 의하여 극복될수 있다는 점에 있다. 농촌에서의 새 방침—이것이 이 난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길이다.

셋째 난관. 이것은 우리 련맹내부의 민족간의 모순, 《내지》와 《변강》간의 모순과 관련되여있는 난관이다. 이 모순은 《내지》와 《변강》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조건의 불일치와 후자가 전자보다 락후함으로 하여 발전되고있다. 이 면에서의 정치적모순은 이미 극복되였다고 볼수 있지만 문화적, 특히 경제적 모순은 이제 겨우 발생형성되고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앞으로 극복되여야 할것이다. 여기에서는 위험성이 이중적이

다. 즉 한편으로는 각 민족공화국의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민감성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발휘할수도 없는 련맹중앙기관들의 대국연하는 오만과 관료적인 전횡의 위험성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지》에 대한 각 공화국 및 각 주의 민족적불신임과 민족적폐쇄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과 투쟁하는것, 특히 그중에서도 전자와 투쟁하는것—이것이 민족문제분야에서의 난관을 극복하는 길이다.

이 난관의 특징은 그것이 둘째 난관과 마찬가지로 련맹의 내적힘에 의하여 극복될수 있다는 점에 있다.

넷째 난관. 이것은 국가기구가 당과 리탈될 위험성, 국가기구에 대한 당의 령도가 약화될 위험성과 관련되여있는 난관이다. 나는 당의 변질의 위험성에 관한 문제를 분석할 때에 이미 이 위험을 말한 일이 있다. 이미 말한것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것이다. 이 위험성이 조성되는것은 국가기구내에 자산계급관료주의분자가 있기때문이다. 이 위험성은 국가기구의 팽창 및 그 비중의 증대에 의하여 커지고있으며 첨예화되고있다. 과업은 가급적으로 국가기구를 간소화하며 국가기구로부터 관료주의분자 및 자산계급부패분자들을 체계적으로 축출하며 국가기구의 요해부문에 당의 지도적력량을 배치하며 이리하여 국가기구에 대한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데 있다.

이 난관의 특징은 그것이 셋째 난관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자신의 힘에 의하여 극복될수 있다는 점에 있다.

다섯째 난관. 이것은 당조직 및 직업동맹이 광범한 로동자대중으로부터 또 이 대중의 수요 및 요구로부터 부분적으로 리탈할 위험성에 있다. 이 위험성이 발생발전하고있는것은 당세포 및 공장위원회까지도 포함한 당조직 및 직업동맹단체의 수많은 기관에 관료주의분자들의 강압적세력이 있기때문이다. 이 위험성은 최근에 우리 조직들의 주의를 도시로부터 농촌으

로, 무산계급으로부터 농민에게로 돌리게 한 《농촌에 낯을 돌리라》는 구호와 관련하여 커졌다. 그런데 많은 동지들은 농촌에 낯을 돌리되 무산계급을 등지고 서서는 안되며 《농촌에 낯을 돌리라》는 구호는 오직 무산계급을 통해서만 또 무산계급의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는것, 로동계급의 요구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는 당조직 및 직업동맹단체들을 로동자대중으로부터 리탈케 할 위험성을 증대시킬수 있을뿐이라는것을 리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위험성의 특징은 어떠한것인가?

첫째로는 로동계급의 광범한 대중의 수요 및 요구에 대한 우리 당조직 및 직업동맹단체들의 민감성의 상실과 주의부족이며 둘째로는 로동자들속에 자존심과 지배계급의 의식이 높아졌다는것과 그들은 당조직 및 직업동맹단체들의 관료주의적관청식태도를 리해하지 못하며 참지 못할것이라는것을 알지 못하는것이며 셋째로는 함부로 경솔하게 로동자들에게 지령을 내려서는 안된다는것과 오늘날 중점은 이러한 《시책》에 있는것이 아니라 당에 대한 전체 로동계급의 신망을 쟁취하는것이라는것을 알지 못하는것이며 넷째로는 로동자들속에서 예비적 활동을 전개하거나 광범한 생산협의회를 가지는 일이 없이는 로동자대중과 관련되는 어느 정도 광범한 시책(례컨대 방직공업지대에서 3기대작업으로 넘어가는 시책)을 실시할수 없다는것을 모르는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의 결과로 일련의 당조직 및 직업동맹단체들이 로동계급의 광범한 대중으로부터 리탈하게 되고 기업소에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방직공업지대에서 나타난 최근의 충돌들은 우리의 많은 당조직 및 직업동맹단체들이 이러한 모든 병집을 가지고있다는것을 폭로하였다.

우리의 건설도상에 있는 다섯째 난관의 특징은 이상과 같다.

이러한 난관들을 극복하자면 우선 우리의 당조직 및 직업동맹단체들을 로골적인 관료주의분자들로부터 해방하며 공장위원회의 구성을 갱신하는 일에 착수하며 반드시 생산협의회를 활기있게 하며 당사업의 중심을 대생산단위의 세포로 옮기며 우수한 당일군들을 거기에 배치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요구와 수요에 좀더 많이 주의와 배려를 돌릴것, 우리의 당조직 및 직업동맹단체들의 실지사업에서 관료주의적형식주의를 좀더 적게 할것, 로동계급의 계급적자존심에 대하여 좀더 민감성과 동정심을 가질것—이러한것이 현재의 우리의 과업이다.

열째 질문에 관한것은 이상과 같다.

1925년 6월 21, 24, 25, 28일부 《프라우다》 제139, 141, 142, 145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7권, 131~175페지

레닌주의의 제 문제에 대하여

쏘련공산당(볼쉐위크)
레닌그라드조직에 드림
이. 쓰딸린

1
레닌주의의 정의

《레닌주의기본에 대하여》라는 소책자에서 내린 레닌주의에 대한 주지의 정의는 일반의 공인을 얻었다고 본다.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무산계급혁명 시대의 맑스주의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레닌주의는 일반적으로는 무산계급혁명의 리론과 전술이며 특수적으로는 무산계급독재의 리론과 전술이다.》①

이 정의가 옳은가?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 정의가 옳은 까닭은 첫째로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전쟁후에 산생되였다고 잘못 생각하고있는 일부 레닌비판자들과는 반대로 그것을 제국주의시대의 맑스주의라고 특정지음으로써 레닌주의의 력사적근원을 옳게 지적하

---

① 이 책, 238페지를 보라, —편집자

였기때문이다. 그 정의가 옳은 까닭은 둘째로 레닌주의를 다만 로씨야 한 나라의 환경에서만 적용할수 있는것으로 간주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과는 반대로 레닌주의의 국제적성격을 옳게 지적하였기때문이다. 그 정의가 옳은 까닭은 셋째로 레닌주의를 맑스주의의 가일층의 발전으로 간주하지 않고 다만 맑스주의를 부활시킨것이며 또 로씨야의 현실에 적용한것에 불과하다고 간주하는 일부 레닌주의비판자들과는 반대로 레닌주의를 제국주의시대의 맑스주의라고 특징지음으로써 레닌주의와 맑스의 학설과의 유기적련결을 옳게 지적하였기때문이다.

이 모든것은 특별한 해설이 필요치 않는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내에는 레닌주의에 대하여 좀 다르게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례컨대 지노위예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전쟁시대와 농민이 다수인 나라에서 직접 시작된 세계혁명시대의 맑스주의이다.》

지노위예브가 강조한 글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레닌주의의 정의에다 로씨야의 락후성과 로씨야의 농민적성격을 집어넣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레닌주의를 국제무산계급학설로부터 로씨야의 특수한 산물로 전화시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보다 발달한 다른 나라들에 레닌주의가 적용될수 있다는것을 부인하는 바우에르와 카우쯔키를 도와주는것이다.

농민문제가 로씨야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으며 우리 나라가 농민국가라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이 레닌주의의 기본을 특징짓는데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가? 과연 레닌주의는 다만 로씨야의 토대우에서

또 로씨야를 위해서만 산생된것이고 전반 제국주의의 토대우에서 또 제국주의나라일반을 위하여 산생된것이 아니란 말인가? 과연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①, 《국가와 혁명》②, 《무산계급혁명과 변절자 카우쯔키》③,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④ 등 레닌의 저서들은 다만 로씨야에 대해서만 의의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제국주의나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못한다는 말인가? 과연 레닌주의는 모든 나라의 혁명운동의 경험을 개괄한것이 아니란 말인가? 과연 레닌주의의 리론과 전술의 원리는 모든 나라의 무산계급당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며 필수적인것이 아니란 말인가? 레닌이 《볼쉐위크주의는 모든 나라의 전술의 모범으로 될 수 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386페지를 보라.)⑤고 말한것이 과연 옳지 않단 말인가? 레닌이 《쏘베트정권과 볼쉐위크주의의 리론 및 전술의 원리의 국제적의의⑥》(《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71～172페지를 보라.)⑦에 대하여 말한것이 과연 옳지 않단 말인가? 례컨대 다음과 같은 레닌의 말은 과연 옳지 않단 말인가?

《우리 나라가 극히 락후한 소자산계급적국가이기때문에 로씨야의 무산계급독재는 선진국가들에 비하여 불가피적으로 약간의 특수성을 가지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로씨야의 기본력량—및 사회경제의 기본형태—은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 특수성은 가장 주요하다고는 할수 없는 그런것에만 관계될수 있다.》②(《레닌전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30～845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제3권, 171～276페지 —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616～709페지 —편집자
④ 우와 같은 책, 제4권, 178～269페지 —편집자
⑤ 우와 같은 책, 제3권, 678페지를 보라. —편집자
⑥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⑦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79페지를 보라. —편집자

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508페지를 보라.)①

그런데 만일 이 모든것이 옳다면 이로부터 지노위예브가 내린 레닌주의의 정의는 옳다고 인정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레닌주의를 이렇게 한개 나라에 국한시킨 정의가 국제주의와 어떻게 량립할수 있겠는가?

2
레닌주의에서 주되는 문제

《레닌주의기본에 대하여》라는 소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론술되여있다.

《어떤 사람들은 레닌주의의 기본은 농민문제이며 레닌주의의 출발점은 농민문제, 즉 농민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다. 레닌주의의 기본문제, 그의 출발점은 농민문제가 아니라 무산계급독재문제, 즉 그 독재를 전취하는 조건에 관한 문제, 그 독재를 공고화하는 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농민문제는 정권을 위한 무산계급의 투쟁에서 그 동맹자에 관한 문제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파생적인 문제이다.》②

이 명제가 옳은가?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이 명제는 전적으로 레닌주의의 정의에서 나온것이다. 사실상 레닌주의가 무산계급혁명의 리론과 전술이며 그리고 무산계급혁명의 기본내용이 무산계급독재라면 레닌주의에서 주되는 문제가 무산계급독재문제이며 이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85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288~289페지를 보라. —편집자

문제를 구명하는것이며 이 문제를 론증하고 구체화하는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지노위예브는 이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는 《레닌을 추억하여》라는 그의 론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농민의 역할에 관한 문제는 내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볼쉐위크주의 즉 레닌주의의 기본문제이다①.》

지노위예브의 이 명제는 보는바와 같이 전적으로 레닌주의에 대한 지노위예브의 그릇된 정의로부터 나온것이다. 따라서 이 명제는 레닌주의에 대한 그의 정의가 옳지 않은것처럼 역시 옳지 않다.

무산계급독재는 《무산계급혁명의 근본내용》(《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337페지를 보라.)②이라고 한 레닌의 명제가 옳은가? 물론 옳다. 레닌주의는 무산계급혁명의 리론과 전술이라고 한 명제가 옳은가?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이로부터 무산계급독재문제가 레닌주의의 기본문제이며 출발점이며 토대라는 결론이 나온다.

제국주의에 관한 문제, 제국주의발전의 비약성에 관한 문제,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제, 무산계급국가에 관한 문제, 이 국가의 쏘베트적형태에 관한 문제, 무산계급독재의 체계에서의 당의 역할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건설방도에 관한 문제—이 모든 문제를 실로 레닌이 구명하였다는것이 과연 옳지 않은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무산계급독재

---

① 고시크제는 나의것. —이.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618～619페지를 보라. —편집자

사상의 기본이며 토대라는것이 과연 옳지 않은가? 이러한 기본문제들을 구명하지 않고서는 무산계급독재의 견지에서 농민문제를 구명한다는것은 상상할수 없다는것이 과연 옳지 않은가?

레닌이 농민문제에 정통한 사람이였다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농민문제, 즉 무산계급의 동맹자에 관한 문제가 무산계급에게 가장 중대한 의의가 있으며 또한 무산계급독재에 관한 기본문제의 구성부분이라는것은 말할것도 없다. 그렇지만 만일 레닌주의앞에 무산계급독재에 관한 기본문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무산계급의 동맹자에 관한 파생적문제인 농민문제도 나서지 않았을것이 과연 분명하지 않은가? 만일 레닌주의앞에 무산계급의 정권전취라는 실천적문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농민과의 동맹에 대한 문제도 나서지 않았을것이 과연 분명하지 않은가?

만일 레닌이 무산계급독재의 리론과 전술에 토대해서가 아니라 이 토대를 떠나서, 이 토대밖에서 농민문제를 구명하였더라면 그는 의심할바없이 실지로 그러하듯 가장 위대한 무산계급의 사상가로 될 대신 외국의 비속한 문필가들이 가끔 묘사하고있는바와 같은 단순한 《농민철학가》로 되였을것이다.

두가지중의 하나다.

혹은 레닌주의에서 주되는 문제가 농민문제이든가—그렇다면 레닌주의는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 즉 농업국이 아닌 나라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필수적인것이 되지 못한다.

혹은 레닌주의에서 주되는 문제가 무산계급독재이든가—그렇다면 레닌주의는 자본주의가 발달된 나라들도 포함하여 례외없이 모든 나라에 적용되며 또한 필수적인것으로 되는 전세계 무산자의 국제적학설이다.

이중에서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3

《부단》혁명에 관한 문제

《레닌주의기본에 대하여》라는 소책자에서는 《부단혁명론》은 농민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리론》으로 평가되여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그러므로 레닌자신이 부단혁명의 견지에 서있었던만큼 그가 〈부단〉혁명론의 지지자들과 싸운것은 부단성문제때문인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산계급의 최대의 예비군인 농민의 역할을 과소평가하였기때문이다.》①

로씨야의 《부단혁명론자》에 대한 이 평가는 최근까지도 일반에게 공인되여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는 일반적으로는 옳으나 완벽하게 론술된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한편으로는 1924년의 론쟁이, 다른 한편으로는 레닌의 저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로씨야《부단혁명론자》의 과오는 다만 농민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농민을 령도하는 무산계급의 힘과 능력을 과소평가한데 있으며 무산계급의 령도권사상을 믿지 않은데도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10월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술》(1924년 12월)이라는 나의 소책자에서 이 평가에 가첨하여 그것을 더 완전한 다른것으로 바꾸어놓았다. 이에 대하여 그 소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지금까지는 보통 〈부단혁명〉론의 한개 면, 즉 농민운동의 혁명적 능력을 믿지 않는것만을 지적하였다. 이제는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이 면에 대하여 로씨야무산계급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다른 한개

---

① 이 책, 269페지를 보라. —편집자

면을 보충하여야 할것이다.》①

물론 이것은 레닌주의가 19세기 40년대에 맑스가 내놓은 인용표없는 부단혁명의 사상②에 대립하였었다거나 또는 대립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레닌은 부단혁명의 사상을 옳게 리해하고 발전시킨 유일한 맑스주의자였다. 이 문제에서 레닌과 《부단혁명론자》와의 차이점은 《부단혁명론자》는 맑스의 부단혁명의 사상을 외곡하여 그것을 생기없는 서적상의 학식으로 만들었으나 레닌은 그 사상을 본래의 형태로 받아들여 그것을 자기의 혁명리론의 토대의 하나로 만들었다는데 있다. 이미 1905년에 레닌이 내놓은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을 사회주의혁명에로 전화시킬데 대한 사상은 맑스의 부단혁명론을 구체화한 한 형태라는것을 기억하여야 할것이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이미 1905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우리는 바로 우리의 력량, 의식적이며 조직된 무산계급의 력량에 따라서 즉시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하기 시작할것이다. 우리는 부단혁명를 주장한다.③ 우리는 절대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을것이다.…

우리가 모험주의에 빠지지 않으며 자기의 과학적량심을 배반하지 않으며 값눅은 명성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말할수 있으며 또 말해야 할것은 다만 한가지이다. 즉 우리는 전체 농민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도록 전력을 다하여 그들을 도울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무산계급당이 재롭고 더 높은 과업인 사회주의혁명에로 될수록 빨리 넘어가는것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하여서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8권, 186～187페지를 보라.)④

---

① 이 책, 372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맑스, 엥겔스의 《공산주의자동맹에 보내는 중앙위원회의 호소문》(《맑스 엥겔스선집》, 제1권, 487～501페지)을 보라.—편집자
③ 고시크체는 나의것.—이. 쓰딸린
④ 《레닌선집》, 제1권, 831～832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레닌은 그후 16년이 지나 무산계급이 정권을 전취한후에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카우쯔키, 힐페르딩, 바르또브, 체르노브, 힐퀴트, 롱게, 맥도날드, 뚜라띠 일파 및 기타의 모든 〈제2반〉108의 맑스주의의 영웅들은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과 무산계급사회주의혁명과의 사이의…호상관계를 리해할줄 몰랐다. 전자는 후자로 장성발전한다①. 후자는 전자의 제 문제를 지나가는 길에 해결한다. 후자는 전자의 사업을 공고화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후자가 전자를 넘어 장성발전할수 있는가 하는것은 투쟁이, 오직 투쟁만이 결정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26페지를 보라.)②

나는 1905년 9월 1일에 발표된 《농민운동에 대한 사회민주당의 태도》라는 레닌의 론문에서 인용한 첫번째 구절에 특별한 주의를 돌릴것을 권한다. 나는 지금까지도 레닌이 제국주의전쟁이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혁명에로 전화한다는 사상 즉 부단혁명의 사상에 도달한것처럼 주장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것을 강조한다. 이 인용문은 그 사람들이 대단히 오해하고있다는것을 의심할바없게 한다.

4

무산계급혁명과 무산계급독재

자산계급혁명과 구별되는 무산계급혁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

① 고시크세는 나의것.—이.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568페지를 보라.—편집자

자산계급혁명과 무산계급혁명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기본적인 점에 귀결시킬수 있다.

(1) 자산계급혁명은 보통 혁명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기전에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자라나 성숙한 일정한 기성의 자본주의적구조형태가 현존하는 조건하에서 시작되는것이지만 무산계급혁명은 기성의 사회주의적구조형태가 전혀 없거나 혹은 거의 없는 조건하에서 시작된다.

(2) 자산계급혁명의 기본과업은 정권을 전취하고 그 정권을 현존하는 자산계급경제에 적응시키는데 있지만 무산계급혁명의 기본과업은 정권을 전취한후 새로운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하는데 있다.

(3) 자산계급혁명은 보통 정권을 전취하게 되면 끝나지만 무산계급혁명은 정권을 전취하는것이 다만 혁명의 시작일따름이며 그리하여 그 정권은 낡은 경제를 개조하고 새 경제를 조직하는 공간으로 리용된다.

(4) 자산계급혁명은 한 착취자집단의 정권을 다른 착취자집단의 정권으로 바꾸어놓는데 그친다. 그러므로 그 혁명은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할 필요가 없지만 무산계급혁명은 정권으로부터 온갖 착취자집단을 제거하고 모든 피착취근로자들의 령도자인 무산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게끔 한다. 그러므로 이 혁명은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그것을 새 국가기구로 바꾸어놓지 않을수 없다.

(5) 자산계급혁명은 수백만의 피착취근로자대중을 어느 정도 오래동안 자산계급의 주위에 결속시켜놓을수는 없지만—그것은 바로 그들이 피착취근로자이기때문이다.—무산계급혁명은 만일 그 혁명이 무산계급의 정권을 강화하며 새로운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할 기본과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바로 피착취근로자인 그들을 장구한 동맹으로 무산계급과 련결시킬수

있으며 또 련결시켜야 한다.

이 점에 대한 레닌의 일부 기본명제를 들어보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자산계급혁명과 사회주의혁명과의 기본적차이중의 하나는 봉건제도내에서 장성하여나오는 자산계급혁명에 있어서는 낡은 제도의 테내에서 새로운 경제조직이 점차적으로 형성되여 그것이 또 점차적으로 봉건사회의 모든 측면을 변경하는 점에 있다. 자산계급혁명앞에는 오직 하나의 과업밖에 없으니 그것은 곧 낡은 사회의 모든 절곡을 소탕하고 포기하고 파괴하는것이다. 온갖 자산계급혁명은 이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산계급혁명이 하여야 할 모든것을 수행하는것이다. 즉 그것은 자본주의의 장성을 촉진하는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은 이와는 전혀 다른 상태에 처하여있다. 력사의 우여곡절에 의하여 사회주의혁명을 개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나라가 락후하면 할수록 그 나라에 있어서는 낡은 자본주의적관계로부터 사회주의적관계로 넘어가는것이 더욱 곤난한것이다. 여기에서는 파괴의 과업이외에 전대미문의 곤난한 새 과업 즉 조직적과업이 첨가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2권, 315페지를 보라.)①

레닌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만일 1905년의 위대한 경험을 쌓은 로씨야혁명의 인민적창조력이 1917년 2월에 벌써 쏘베트를 창조하지 못하였다면 쏘베트는 10월에 정권을 잡을수는 도저히 없었을것이다. 왜냐 하면 당시의 성공은 오직 천백만 대중을 포괄하고있는 운동이 이미 기성조직형태를 가지고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었기때문이다. 이러한 기성형태가 곧 쏘베트였다. 그러므로 정치적분야에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있은것은 그 빛나는 성과이며 우리가 경험한 부단한 승리적진군이였다. 왜냐 하면 새로운 정권형태가 이미 준비되여있었으므로 우리에게는 다만 몇가지 법령으로써 쏘베트정권을 그것이 혁명초기의 수개월간에 처하여있던 맹아적상태로부터 로씨야국가에서 법적으로 승인되고 확인된 형태 즉 로씨야쏘베트공화국으로 전화시키는 일밖에 없었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454페지를 보라. —편집자

던 까닭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2권, 315페지를 보라.)①

레닌은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직 극히 곤난한 두가지 과업이 남아있었으니 그 과업은 결코 우리 나라 혁명의 초기 수개월간에 진행된것과 같은 그러한 승리적진군의 방법으로써는 해결될수 없었다.》(우와 같은 책, 315페지)②

《첫째로 그것은 모든 사회주의혁명앞에 나서는 내부적조직의 과업이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자산계급혁명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관계의 기성형태가 있는데 쏘베트정권—무산계급정권—은 만일 자본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성의 관계를 접수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가장 발전된 형태라는 것도 실은 공업의 소수 최고부분을 포괄하고 농업과는 아직 거의 접촉하지 않은것이다. 통계의 조직, 대규모기업에 대한 통제, 전 국가경제기관의 통일적대기구 즉 수억만 사람들이 유일한 계획에 의하여 지도되도록 사업하는 경제적유기체에로의 전화—이러한것이 우리들의 두어깨에 부과된 거대한 조직적과업이다. 현재의 로동조건하에서는 이러한 과업은 우리가 국내전쟁의 과업을 해결할수 있었던것과 같은 그러한 〈만세〉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다.》(우와 같은 책, 316페지)③

《…제2의 커다란 난관, 즉 국제문제…우리가 그렇듯 용이하게 께렌스끼도당을 타승하였으며 그렇듯 용이하게 자기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또 추호의 곤난도 없이 토지의 사회화와 로동자통제에 관한 법령을 실시하게 되였다면—우리가 이러한 모든것을 그렇듯 용이하게 가지게 되였다면 그것은 다만 그 당시 요행 조성된 조건이 잠시동안 국제제국주의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었기때문이다. 국제제국주의는 자본의 모든 위력을 가지고있으며 국제자본의 진짜힘이며 진짜요새인 고도로 조직된 군사기술을 가지고있는데 이러한 국제제국주의는 그 어떤 경우, 그 어떤 조건하에서도 그 객관적처지로 보아서나 그가 체현하고 있는 자산계급의 경제적리해관계로 보아서나 쏘베트공화국과 화목하게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454~455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455페지 —편집자
③ 우와 같음. —편집자

지낼수 없었다. 무역관계, 국제적금융관계때문에도 그럴수 없었다. 여기에서는 숭돌은 불가피적이다. 이 점에 로씨야혁명의 최대의 난관, 그 최대의 력사적관계, 즉 국제적과업을 해결할 필요성, 국제적혁명을 환기시킬 필요성이 있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2권, 317페지를 보라.)①

무산계급혁명의 내적성격과 기본의의는 이러하다.

폭력적혁명이 없이, 무산계급독재가 없이 낡은 자산계급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조할수 있겠는가?

그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이러한 혁명을 자산계급의 지배에 적합한 자산계급민주주의제도의 테두리안에서 평화적으로 수행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실신하여 정상적인 인간의 리해력을 잃어버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산계급혁명을 란폭하게 로골적으로 거부하는것을 의미한다.

이 명제는 아직 적대적자본주의국가들에 포위되여있는 한 나라에서 국제자본이 그 나라의 자산계급을 지원하지 않을수 없는 그러한 나라에서 승리한 무산계급혁명을 우리가 문제로 삼고있는만큼 더욱 힘있게 단호히 반드시 강조되여야 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파압박계급의 해방은 폭력혁명이 없이 불가능할뿐만아니라 또한 지배계급이 만들어낸…국가권력기관의 파괴 없이도 불가능한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1권, 373페지를 보라.)②

《〈사적소유를 보존하는 조건하에서 즉 자본의 권력과 그 압박을 보존하는 조건하에서 우선 주민의 다수가 무산계급당을 찬성하게 하라.—다만 그때에라야만 무산계급당은 정권을 잡을수 있는것이고 또 잡아야 되는것이다.〉라고 소자산계급적민주주의자들—〈사회주의자〉로 자칭하나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456~457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177페지 —편집자

실상은 자산계급의 충복인—은 말하고있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647페지를 보라.)②

《〈혁명적무산계급으로 하여금 먼저 자산계급을 정복하고 자본의 압박을 타파하고 자산계급의 국가기구를 파괴하도록 하라,—그때에는 승리를 얻은 무산계급은 착취자들을 수탈하여 비무산계급적근로대중의 다수를 만족시킴으로써 그들의 찬동과 지지를 신속히 얻을수 있을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한다.①》(우와 같음)

레닌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산계급은 주민의 다수를 자기의 편으로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자산계급을 뒤엎고 국가권력을 자기의 수중에 장악해야 할것이다. 둘째로, 무산계급은 반드시 낡은 국가기구를 산산이 분쇄하고 쏘베트주권을 수립하여야 할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비무산계급근로대중속에서의 자산계급 및 소자산계급 타협자들의 지배, 권위, 영향을 일거에 짓부셔버릴것이다. 셋째로, 무산계급은 반드시 착취자들을 수탈하여 비무산계급근로대중의 대다수의 경제적요구를 혁명적방법으로 만족시킴으로써 다수 비무산계급근로대중에 대한 자산계급 및 소자산계급 타협자들의 영향을 철저히 숙청해버려야 할것이다.》(우와 같은 책, 641페지)③

무산계급혁명의 특징은 이러하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무산계급독재가 무산계급혁명의 기본내용이라고 한다면 무산계급독재의 기본특징들은 어떠한것인가?

무산계급독재에 대하여 레닌이 내린 가장 개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산계급독재는 계급투쟁의 종결인것이 아니라 새 형태에 있어서의 계급투쟁의 연장이다. 무산계급독재는 승리한 그리고 자기의 수중에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36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129페지를 보라. —편집자

정권을 틀어쥔 무산계급이 패배는 당하였으나 근절되지 않았고 소멸되지 않은 그리고 반항을 정지하지 않고 도리여 그 반항을 강화하고있는 자산계급을 반대하여 진행하는 계급투쟁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311페지를 보라.)①

레닌은 무산계급독재를 《전인민적》인, 《일반선거에 의한》 정권, 《비계급적》정권과 혼동하는것을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기의 수중에 정치적지배권을 장악한 그 계급은 그것을 혼자서② 장악한다는것을 의식하면서 장악하였다. 이것은 무산계급독재의 개념속에 들어있다. 이 개념은 한 계급이 자기가 단독적으로 정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한다는것을 알며 또 〈일반선거에 의하여 수립되고 전 인민에 의하여 신성화된 전 인민의〉 정권이라는 언사로 자기도 남도 기만하지 않는 때라야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286페지를 보라.)③

그러나 이것은 한 계급의 정권 즉 다른 계급들과 정권을 나누지 않으며 또한 나눌수도 없는 무산계급의 정권이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계급들에 속하는 피착취근로자 대중의 원조를 받거나 그들과 동맹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와 반대이다. 이 정권 즉 한 계급의 정권은 오직 무산계급과 소자산계급의 근로대중 우선 근로농민대중과 특수한 형태의 동맹을 맺어야만 확립될수 있으며 끝까지 실현될수 있다.

이 특수한 형태의 동맹이란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떠한가? 비무산계급적근로대중과의 이 동맹은 대체로 한 계급의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343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③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488페지를 보라. —편집자

독재사상에 모순되지 않는가?

이 특수한 형태의 동맹의 내용이란 무산계급이 이 동맹의 지도적력량이라는 점에 있다. 이 특수한 형태의 동맹의 내용이란 국가의 지도자 즉 무산계급독재체계내의 지도자가 다른 당들과 령도권을 나누지 않으며 또한 나눌수도 없는 하나의 당 즉 무산계급의 당, 공산주의자들의 당이라는 점에 있다.

보는바와 같이 여기에서 모순은 외관상의 표면적인것에 불과하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산계급독재는 근로자들의 선위대인 무산계급과 수많은 비무산계급근로자층(소자산계급, 소경영자, 농민, 지식인 등등)과의, 또는 그들의 대다수와의 계급적동맹①, 자본을 반대하는 동맹, 자본의 완전한 전복과 자산계급의 반항 및 그들의 복구 시도에 대한 완전한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동맹, 사회주의의 종국적건설과 공고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맹의 특수한 형태①이다. 이것은 특수한 환경, 바로 맹렬한 국내전쟁의 환경속에서 성립되는 특수한 종류의 동맹이며 이것은 사회주의의 확고한 지지자들과 그의 동요하는 동맹자들과의, 때로는 〈중립자〉들과의(이 경우에는 동맹은 투쟁에 대한 협정으로부터 중립에 대한 협정으로 된다.) 동맹이며 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동일하지 않은 계급들사이의 동맹이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311페지를 보라.)②

까메네브는 그의 지령적인 어느 한 보고에서 무산계급독재를 이와 같이 리해하는것을 론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재는 한 계급과 다른 한 계급과의 동맹이 아니다.①》

까메네브는 여기에서 우선 《10월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343~344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들의 전술》이라는 나의 소책자의 한단락을 념두에 두고 말하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소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무산계급독재는 〈경험있는 전략가〉의 용의주도한 수완에 의하여 〈교묘하게〉 〈선택〉되여 어떠한 주민층에 〈합리하게 의거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정부의 수뇌부가 아니다. 무산계급독재는 무산계급이 령도적 력량으로 되는 그런 조건하에서 자본의 전복과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무산계급과 근로농민대중의 계급적동맹인것이다.》①

나는 무산계급독재에 대한 이 정의를 전적으로 견지한다. 왜냐 하면 이 정의는 우에 방금 인용한 레닌의 정의와 전적으로 일치하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독재는 한 계급과 다른 한 계급과의 동맹이 아니다.》라는 까메네브의 주관적명제는 무산계급독재에 대한 레닌의 리론과는 그 어떤 공통점도 없다고 나는 단언한다.

련합의 사상, 무산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의 사상, 이 동맹내에서의 무산계급의 **령도권**사상의 의의를 모르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말할수 있다고 나는 단언한다.

다음과 같은 레닌의 론점을 리해하지 못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말할수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은 **오직** 농민과의 협정에 의해서만② 구원될수 있다.》(《레닌전집》, 모문판, 제3판, 제26권, 238페지를 보라.)③

다음과 같은 레닌의 명제를 모르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말할수 있다.

---

① 이 책, 357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③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204페지를 보라. —편집자

《독재의 최고원칙①은 무산계급이 령도적역할과 국가권력을 견지할 수 있도록 무산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유지하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460페지)②

레닌은 독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착취자들을 진압하는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재의 과학적개념은 아무것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 어떠한 법률,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도 결코 구속되지 않는, 직접 폭력에 의거하는 권력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441페지를 보라.)③

《독재라는것은—립헌민주주의자54제씨들, 똑똑히 알아두라.—법률에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폭력에 의거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국내전쟁시기에는 온갖 승리한 권력은 오직 독재로만 될수 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436페지를 보라.)④

그러나 비록 폭력이 없이는 독재가 존재할수 없지만 폭력이 무산계급독재의 전부가 아닌것은 물론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재는 비록 폭력이 없이는 불가능하기는 하지만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것은 또한 중전의 조직보다 더 높은 로동조직을 의미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305페지를 보라.)⑤

《무산계급독재는… 다만 착취자들에 대한 폭력뿐인것이 아니며 지어는 주로 폭력인것도 아니다. 이 혁명적폭력의 경제적기초, 그 생활력 및 필승의 담보는 무산계급이 자본주의에 비하여 일층 높은 형의 사회로동조직을 대표하며 실현하는데 있다. 여기에 그 본질이 있다. 바

---

① 고시크제는 나의것. —이.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477페지를 보라. —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제31권, 318페지를 보라.—편집자
④ 우와 같은 책, 311페지.—편집자
⑤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852페지를 보라.—편집자

로 여기에 공산주의의 힘의 원천이 있으며 그 불가피적인 완전승리의 담보가 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335～336페지를 보라.)①

《그것〔즉 독재.—이. 쓰딸린〕의 주요본질은 근로대중의 선봉대이며 그들의 전위대이며 그들의 유일한 지도자인 무산계급의 조직성과 규률성에 있다. 무산계급의 목적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사회의 계급으로의 분렬을 폐절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근로자로 만들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의 지반을 청산하는데 있다. 이 목적은 단번에 실현될수는 없다. 그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상당히 긴 과도기를 필요로 한다. 그것은 생산의 재조직이 곤난한 일이기때문이며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에는 시간이 필요하기때문이며 소자산계급적 및 자산계급적 경영의 습성의 거대한 힘은 오직 장기간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서만 극복될수 있기때문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맑스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시기로서의 무산계급독재의 한 시기에 관하여 말하고있는것이다.》(우와 같은 책, 314페지)②

무산계급독재의 특징은 이러하다.

이로부터 무산계급독재의 세가지 기본측면이 나오게 된다.

(1) 착취자들을 진압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다른 나라의 무산자들과 련계를 강화하고 세계혁명의 발전과 승리를 위하여 무산계급의 정권을 리용하는것.

(2) 자산계급에게서 피착취근로자대중을 완전히 분리시키고 이 대중과 무산계급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그들을 사회주의 건설사업에 인입하고 그들에 대한 무산계급의 국가적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산계급의 정권을 리용하는것.

(3) 사회주의를 조직하고 계급을 소멸하며 계급이 없는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9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제3권, 857페지—편집자

사회 즉 사회주의사회에로 이행하기 위하여 무산계급의 정권을 리용하는것.

무산계급독재란 이 세가지 측면을 모두 결합한것이다. 이 세가지 측면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무산계급독재의 유일한 특징이라고 내세울수는 없다. 반대로 이 세가지 특징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무산계급독재는 곧 자본주의적포위하에서 독재로 되지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가지 측면중에서 어느 한가지라도 제거한다면 무산계급독재의 개념을 곡해할 위험성이 반드시 생긴다. 오직 이 세가지 측면을 한데 합쳐놓아야만 우리는 무산계급독재의 완벽한 개념을 얻을수 있다.

무산계급독재는 여러 시기와 특수한 여러 형태와 다양한 사업방법을 가지고있다. 국내전쟁시기에는 독재의 폭력적측면이 특히 눈에 뜨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내전쟁시기에는 아무러한 건설사업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여서는 안될것이다. 건설사업이 없이는 국내전쟁을 수행할수 없다. 또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그와 반대로 독재의 평화적, 조직적 및 문화적 사업과 혁명적법률 등이 특히 눈에 뜨인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역시 독재의 폭력적측면이 건설시기에는 없어졌다거나 혹은 없어질수 있다고 하여서는 결코 안될것이다. 진압기관, 군대 및 기타 조직체들은 국내전쟁시기와 마찬가지로 건설시기인 지금에도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들이 없이는 독재는 건설사업을 다소나마 보장할수가 없는것이다. 아직까지는 혁명이 겨우 한 나라에서만 승리하였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자본주의적포위가 있는 동안은 무력간섭의 위험성과 또 이로부터 생기는 온갖 후과가 있게 되리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5

무산계급독재체계내에서의 당과 로동계급

나는 우에서 무산계급독재를 그 력사적필연성의 견지에서, 그 계급적내용의 견지에서, 그 국가적본질의 견지에서,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라고 부르는 전반 력사적시기에 걸쳐 수행되는 그의 파괴적 및 창조적 과업의 견지에서 론술하였다.

이제 우리는 무산계급독재를 그 구성의 견지에서, 그《기구》의 견지에서, 또한《인전대》,《공간》및《향도적력량》의 역할과 의의의 견지에서 론술하여야 할것이다. 이것들의 총체가《무산계급독재체계》(레닌)를 이루며 또 이것들의 도움에 의하여 무산계급독재의 일상적사업이 실현된다.

무산계급독재체계내의《인전대》또는《공간》이란 무엇인가?《향도적력량》이란 무엇인가? 무엇때문에 그것들이 필요한가?

공간 또는 인전대라는것은 그 도움이 없이는 독재를 실현할수 없는 바로 그러한 무산계급의 가장 대중적조직이다.

향도적력량이란 무산계급의 선봉대이며 무산계급독재의 기본적지도력량으로 되는 그의 전위대이다.

이 인전대, 공간 및 향도적력량이 무산계급에게 필요한것은 그것들이 없이는 무산계급이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조직되고 무장된 자본을 앞에 두고 무기없는 군대의 처지에 놓이게 될것이기때문이다. 이 조직들이 무산계급에게 필요한것은 그것들이 없이는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필연코 패배당하게 될것이기때문이다. 이 조직들의 부단한 원조와 전위대의 향도적력량이 필요한것은 이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얼마간이라도 장구하고 튼튼한 무산계급독재가 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 조직들은 어떠한것인가?

첫째로 이것은 중앙과 지방에 허다한 생산적, 문화적, 교양적 및 기타 조직의 형태의 부문들을 가지고있는 로동자들의 직업동맹이다. 이 직업동맹들은 각종 직업의 로동자들을 련합한다. 이것은 비당적조직이다. 직업동맹은 우리 나라에서 지배적지위에 있는 로동계급의 전체를 망라한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직업동맹은 공산주의의 학교이다. 그것은 자기 대오에서 모든 관리부문의 지도사업을 위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내여놓는다. 그것은 로동계급내의 선진분자들과 뒤떨어진자들 사이의 련계를 실현한다. 그것은 로동자대중을 로동계급의 전위대와 결합시킨다.

둘째로 이것은 중앙과 지방에 행정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및 기타 국가기관의 형태의 무수한 부문들을 가지고있는 쏘베트들과 이 조직체들을 둘러싸고 그것들을 주민과 결합시키는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무수한 대중단체이다. 쏘베트는 도시와 농촌의 전체 근로자들의 대중적조직이다. 이것은 비당적조직이다. 쏘베트는 무산계급독재의 직접적표현이다. 독재의 공고화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온갖 방책들은 쏘베트를 거쳐서 실현된다. 농민에 대한 무산계급의 국가적지도는 쏘베트를 거쳐서 실현된다. 쏘베트는 수백만 근로대중을 무산계급의 전위대와 결합시킨다.

셋째로 이것은 모든 부문들을 가지고있는 온갖 종류의 협동조합이다. 이것은 근로자들의 대중적조직이며 우선 근로자들을 소비자로서 또한 일정한 시기를 지나서는 생산자로서(농

업협동조합) 련합시키는 비당적조직이다. 그것은 무산계급독재가 공고화된후 광범위한 건설시기에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산계급의 전위대가 널게 농민대중과 련계를 가지게 하여주며 농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의 궤도에로 끌어들일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준다.

넷째로, 이것은 청년동맹이다. 이것은 로농청년들의 대중적조직으로서 비당적인것이기는 하나 당에 직접 련결되여있는 조직이다. 이 조직의 임무는 당을 도와 사회주의정신으로 젊은 세대를 교양하는것이다. 그것은 각종 관리부문에서 사업하는 무산계급의 다른 모든 대중적단체를 위하여 젊은 예비군을 제공한다. 청년동맹은 무산계급독재가 공고화된후, 무산계급의 광범한 문화교양사업이 수행되는 시기에 특별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무산계급의 **당** 즉 무산계급의 전위대이다. 당의 힘은 그것이 무산계급의 모든 대중적조직들로부터 그의 가장 우수한 분자들을 자기 대오에 흡수해들이는데 있다. 당의 사명은 례외없이 무산계급의 모든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통일하며** 또 그들의 활동**를** 하나의 목적 즉 무산계급의 해방이라는 목적에로 **인도**하는데 있다. 그런데 그들을 통일하며 하나의 목적에로 인도하는것은 절대로 필요한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무산계급투쟁의 통일이 불가능하며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권을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무산계급대중을 지도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무산계급의 대중조직들의 사업을 통일하며 지도할수 있는것은 오직 무산계급의 전위대, 무산계급의 당뿐이다. 오직 무산계급의 당만이, 공산주의자들의 당만이 무산계급독재의 체계내에서 기본적인 지도자의 이 역할을 수행할수 있다.

왜 그런가?

《왜냐 하면 첫째로 당은 무산계급의 비당적조직들과 직접 련결되여있고 또 일상적으로 그 조직들을 령도하고있는 로동계급의 가장 우수한 분자들의 집합소이기때문이며, 둘째로 로동계급의 가장 우수한 분자들의 집합소로서의 당은 자기 계급의 모든 형태의 조직들을 령도할줄 아는 로동계급의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가장 훌륭한 학교이기때문이며, 셋째로 로동계급의 지도자들의 가장 훌륭한 학교로서의 당은 그 경험과 권위로 보아 무산계급의 투쟁에 대한 령도를 집중하며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일체 비당적조직을, 당과 계급을 련결하는 봉사기관과 뉴대로 만들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기때문이다.》(《레닌주의기본에 대하여》를 보라.)①

당은 무산계급독재체계내에서의 기본적지도력량이다.

《당은 무산계급의 계급적단결의 최고형태이다.》(레닌)

이상과 같이 직업동맹은 우선 생산면에서 당과 계급을 련결시키는 무산계급의 대중적조직이며 쏘베트는 우선 국가면에서 당과 근로자들을 련결시키는 근로자들의 대중적조직이며 협동조합은 우선 경제면 즉 농민을 사회주의건설에로 끌어들이는 면에서 당과 농민대중을 련결시키는, 주로 농민들의 대중적조직이며 청년동맹은 무산계급의 전위대가 새세대를 사회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젊은 예비군을 양성하는 사업을 도와줄 사명을 가진 로농청년의 대중적조직이며 마지막으로 당은 무산계급독재체계내에서 이 모든 대중적조직들을 지도할 사명을 가진 기본적인 향도적력량이다. 이러한것들이 대체로 독재《기구》의 전모이며 《무산계급독재체계》의 전모이다.

기본적인 지도적력량인 당이 없이는 얼마간이나마 장구하고 튼튼한 무산계급독재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레닌의 말을 빌어 말한다면 《그것은 대체로 말하면 형식상으로는 비공산당적이고 령활하고 비교적 광범하고

---

① 이 책, 340페지를 보라. —편집자

매우 강대한 무산계급적기관인데 그것을 통하여 당은 계급 및 대중과 밀접히 련결되며 또 그것을 통하여 당의 지도하에서 계급의 독재가 실현되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92페지를 보라.)①

이것은 물론 당이 직업동맹, 쏘베트 및 기타 대중적조직들을 대신할수 있다거나 대신하여야 한다는것으로 리해하여서는 안된다. 당은 무산계급독재를 실현한다. 그러나 당은 독재를 직접 실현하는것이 아니라 직업동맹의 도움을 받아, 쏘베트와 그 부문들을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는것이다. 이러한 《인전대》들이 없이는 얼마간이나마 공고한 독재는 불가능할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진계급의 전위대와 그 계급의 대중을 련결하며 또 그와 근로자대중을 련결하는 약간의 〈인전대〉가 없이는 독재를 실현할수 없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65페지를 보라.)②

《당은 말하자면 무산계급의 전위대를 자체내에 흡수하고 이 전위대가 무산계급독재를 실시한다. 그런데 직업동맹과 같은 그러한 토대를 가지지 않고서는 독재를 실시할수 없으며 국가적기능을 수행할수 없다. 그리고 국가적기능의 수행도 역시 새로운 그 어떤 형태의 특수한 일련의 기관들을 통해서③ 즉 쏘베트기구를 통해서③ 이루어지게 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64페지를 보라.)④

레컨대 무산계급독재의 나라인 우리 쏘련에서 당의 지도적역할의 최고의 표현으로 인정하여야 할것은 어떠한 중요한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04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404페지 —편집자
③ 고시크체는 나의것.—이 . 쓰딸린
④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403～404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정치적 또는 조직적 문제도 당의 지도적지시가 없이는 쏘베트 및 기타 대중조직들이 결정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산계급독재는 본질상 그의 전위대의 《독재》이며 무산계급의 기본적, 지도적 력량으로서의 그의 당의 《독재》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레닌은 이에 대하여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109]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텐너는 자기는 무산계급독재를 지지하나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무산계급독재는 우리가 생각하고있는것과 꼭같은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가 리해하는 무산계급독재는 본질상① 무산계급의 조직적이고 자각적인 소수의 독재라고 말하였다.

사실 로동자대중이 부단히 착취를 당하며 또 자기들의 인간재능을 발전시킬수 없는 자본주의시대에 있어서 로동자당들에게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 당들이 자기 계급의 소수만을 포괄할수 있다는것이다. 당은 단지 계급의 소수만을 통합할수 있다. 그것은 참으로 자각적인 로동자들은 어떠한 자본주의사회에서도 로동자전체의 소수를 이룰수밖에 없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자각적인 소수만이 광범한 로동자대중을 지도할수 있으며 또 그들을 이끌고나아갈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만약 텐너동지가 자기는 당의 적이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가장 잘 조직되고 가장 혁명적인 로동자들의 소수가 전체 무산계급에게 나아갈 길을 가리켜주는것을 지지한다면 나는 우리들사이에는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347페지를 보라.)②

그러나 이것은 무산계급독재와 당의 지도적역할(당의 《독재》)과의 사이에 등호를 붙일수 있다거나 전자와 후자를 동일시할수 있다거나 전자를 후자로써 대신할수 있다고 리해하여서는 안된다. 례컨대 쏘련은 《무산계급독재는 곧 우리 당의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31권, 206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독재이다.》라고 말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이 론단은 《당의 독재》를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하고있다. 레닌주의의 견지에 서있으면서 이러한 동일시를 옳다고 인정할수 있는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 그 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에서 한 레닌의 연설에서 인용한 우의 인용문에서 레닌은 결코 당의 지도적역할을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하지 않았다. 레닌은 《오직 자각적인 소수〔즉 당.—이.쓰딸린〕만이 광범한 로동자대중을 지도할수 있으며 또 그들을 이끌고나아갈수 있다.》는것과 또한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리해하는 무산계급독재는 본질상① 무산계급의 조직적이고 자각적인 소수의 독재》라고 말하였을따름이다.

《본질상》이라는 말은 《전적으로》라는 말이 아니다. 민족문제는 본질상 농민문제라고 우리는 늘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농민문제가 민족문제를 대신할수 있다거나 농민문제가 그 내용에 있어서 민족문제와 같다거나 농민문제가 민족문제와 동일하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족문제가 그 내용에 있어서 농민문제보다 더 광범하며 또 더 풍부하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당의 지도적역할과 무산계급독재에 대하여서도 역시 이와 꼭같이 말하여야 한다. 비록 당이 무산계급독재를 실현하며 또 이러한 의미에서 무산계급독재가 본질상 무산계급당의 《독재》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직 《당의 독재》(지도적역할)가 무산계급독재와 동일하다거나 또 그 내용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산계급독재가 그 내용에 있어서 당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의 지도적역할보다 더 광범하며 더 풍부하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당은 무산계급독재를 실현한다. 그러나 당은 무산계급독재를 실현하는것이지 다른 어떠한것을 실현하는것은 아니다. 당의 지도적역할을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하는자는 무산계급독재를 당의 《독재》와 바꾸어놓는자이다.

둘째로, 무산계급의 대중적조직들의 어떤 중요한 결정도 당의 원칙적지시가 없이는 성립되지 못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산계급독재가 당의 원칙적지시뿐이라는것을 의미하는가? 그렇다고 하여 이것은 당의 원칙적지시를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무산계급독재는 당의 원칙적지시와 무산계급의 대중적조직들이 이 지시를 실시하는것과 주민들이 이 지시를 실시하는것이 합쳐서 이루어진다. 보는바와 같이 여기에는 무산계급독재의 중요한 요소로 되는 허다한 과도적 또는 중간적 단계가 있다. 그러므로 당의 원칙적지시와 이것을 실현하는것과의 사이에는 피지도자들의 의지와 행동, 계급의 의지와 행동, 이러한 지시를 지지하려는 계급의 용의(혹은 거부)가 놓여있으며 또한 이 지시를 실행할수 있는 계급의 능력(혹은 무능력)과 바로 정세가 요구하는대로 그 지시를 실행할 계급의 능력(혹은 무능력)이 놓여있는것이다. 지도적책임을 지고있는 당은 피지도자들의 의지와 기분과 각성정도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으며 자기 계급의 의지와 기분과 각성정도를 도외시할수 없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당의 지도적역할을 무산계급의 독재와 동일시하는자는 계급의 의지와 행동을 당의 지시와 바꾸어놓는자이다.

셋째로, 레닌은 《무산계급독재는 승리한 그리고 자기 수중에 정권을 틀어쥔 무산계급이 진행하는 계급투쟁이다.》라고

말하였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311페지를 보라.)① 이러한 계급투쟁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것은 전복된 자산계급의 공격 또는 외국자산계급의 무력간섭을 반대하는 무산계급의 일련의 무장진출로 표현된다. 무산계급의 정권이 아직 공고화되지 못하였다면 그 투쟁은 국내전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 투쟁은 정권이 이미 공고히 된후에는 광범한 대중을 사업에 끌어들이는 무산계급의 광범한 조직사업과 건설사업으로 표현될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출연자는 계급으로서의 무산계급이다. 당, 오직 당 혼자만이 계급의 지지가 없이 단지 자체의 힘만 가지고 이러한 모든 진출을 조직한적은 없었다. 보통 당은 이 진출을 지도할뿐이며 또한 그 계급의 지지를 받는것만큼 그 진출을 지도한다. 왜냐 하면 당은 계급을 전부 포괄할수 없으며 또 대신할수 없기때문이다. 왜냐 하면 당은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역시 계급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의 지도적역할을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하는자는 계급을 당과 바꾸어놓는자이다.

넷째로, 당은 무산계급독재를 실현한다. 《당—이것은 무산계급의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전위대이며 지도자이다.》(레닌)② 이러한 의미에서 당은 정권을 잡으며 국가를 통치한다. 그러나 이것은 당이 국가정권을 젖혀놓고 국가정권이 없이 무산계급독재를 실현한다거나 쏘베트를 젖혀놓고 쏘베트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통치한다는것으로 리해하여서는 안된다. 이것은 또한 당을 쏘베트와, 국가정권과 동일시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당은 정권의 핵심이다. 그러나 당은 국가정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343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457페지를 보라. —편집자

권이 아니며 또한 그와 동일시할수 없다.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배적당으로서의 우리는 쏘베트 〈상층부〉를 당 〈상층부〉와 합류시키지 않을수 없었다. 이 〈상층부〉들은 지금 합류되여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208페지를 보라)①. 이것은 전적으로 옳다. 그러나 레닌은 이것으로써 우리 쏘베트기관전체, 례컨대 우리의 군대, 우리의 운수기관, 우리의 경제기관 등이 우리 당의 기관이라거나 또 당이 쏘베트와 그의 부문들을 대신할수 있다거나 또 당을 국가정권과 동일시할수 있다는것을 말하려고 한것은 결코 아니다. 레닌은 《쏘베트제도는 무산계급독재이다.》, 《쏘베트정권은 무산계급독재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15페지와 14페지를 보라.)②라고 여러 번 말하였지만 당이 국가정권이며 쏘베트와 당이 동일하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수십만의 당원을 가지고있는 당은 수천만의 당원 및 비당원을 망라하고있는 중앙과 지방의 쏘베트와 그 부문들을 지도한다. 그러나 당은 그자체가 쏘베트를 대신할수는 없는것이며 또한 대신하여서는 안된다. 그렇기때문에 레닌은 《쏘베트내에 조직되여있고 볼쉐위크공산당이 령도하는 무산계급이 독재를 실현한다.》는것과 《당의 모든 사업은, 직업여하를 막론하고 근로대중을 결속시키고있는 쏘베트를… 거쳐서③ 진행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92페지와 193페지를 보라.)④는것과 독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166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726페지와 724페지를 보라. —편집자
③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 쓰딸린
④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03페지와 204페지를 보라. —편집자

재는 《쏘베트기관을 거쳐서①… 실현하게 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64페지를 보라.)②는것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당의 지도적역할을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하는자는 쏘베트 즉 국가정권을 당과 바꾸어놓는자이다.

다섯째로, 무산계급독재의 개념은 곧 국가적개념이다. 무산계급독재는 폭력의 개념을 반드시 자체내에 포함하고있다. 만일 독재를 그 말의 본래의미대로 리해한다면 폭력이 없이는 독재가 존재할수 없다. 레닌은 무산계급독재를 《직접적으로 폭력에 의거하는 정권》(《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9권, 315페지를 보라.)③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렇기때문에 무산계급에 대한 당의 독재를 운운하며 또 당의 독재를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하는것—그것은 당이 반드시 자기 계급에 대한 지도자, 수령.및 스승으로 되여야 할뿐만아니라 자기 계급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독재자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는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므로 《당의 독재》를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하는자는 암암리에 당의 위신을 로동계급에 대한 폭력에 립각하여 세울수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하는것인바 이것은 망녕된 생각이며 또한 레닌주의와는 전혀 상용될수 없다. 당의 위신은 로동계급의 신임에 의하여 유지되는것이다. 그런데 로동계급의 신임은 폭력에 의하여 얻어지는것이 아니다.(폭력은 다만 그 신임을 손상할따름이다.) 당의 옳은 리론, 당의 옳은 정책, 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충실성, 로동계급대중과의 당의 련계, 대중으로 하여금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403~404페지를 보라.—편집자

③ 《레닌전집》, 한문판, 제23권, 93페지를 보라. —편집자

당의 구호의 정당성을 확신케 하는 당의 결심과 능력에 의하여 얻어지는것이다.

이 모든것으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1) 레닌은 당의 독재라는 말을 그 말의 본래의미(《폭력에 의거하는 정권》)에서 사용한것이 아니라 전의로, 즉 당의 완전한 지도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고있다.

(2) 당의 지도를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하는자는 로동계급전체에 대한 폭력의 기능을 부당하게 당에 부여함으로써 레닌의 사상을 외곡하는자이다.

(3) 당에 본래 없는 기능, 즉 로동계급전체에 대한 폭력의 기능을 당에 부여하는자는 전위대와 계급, 당과 무산계급간의 옳은 호상관계의 기본적요구를 위반하는자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당과 계급간의 호상관계와 또한 로동계급내의 당원과 비당원간의 호상관계에 대한 문제에 직접 다달으게 되였다.

레닌은 이 호상관계를 《로동계급의 전위대와 로동자대중간의…호상신임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235페지를 보라.)②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이것은 첫째로 당은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당은 대중의 혁명적본능을 주의깊게 대하여야 하며 당은 대중의 투쟁실천을 반드시 연구하며 이에 기초하여 자기 정책의 정당성을 검열하여야 하며 따라서 당은 대중을 가르칠뿐만아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200페지를 보라. —편집자

니라 대중에게서 배워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둘째로 당은 나날이 당에 대한 무산계급대중의 신임을 전취하여야 하며 당은 자기의 정책과 자기의 사업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당은 명령할것이 아니라 우선 설복하여 대중이 당정책의 정당성을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쉽게 알도록 하여야 하며 따라서 당은 자기 계급의 지도자, 수령 및 스승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조건들을 위반하는것은 전위대와 계급간의 옳은 호상관계를 위반하는것이며 《호상신임》을 깨뜨리는것이며 계급적 및 당적 규률을 문란케 하는것을 의미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우리 당에 극히 엄격하고 참으로 강철같은 규률이 없었더라면, 만일 우리 당이 전체 로동계급대중의①, 즉 로동계급중 의식있고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유력하며 또 뒤떨어진 층을 지도하며 이끌어들일 능력이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우리 당에 대한 전폭적이며 열성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면① 볼쉐위크들은 2개년 반은 고사하고 2개월 반도 주권을 유지할수 없었으리라는것은 아마 지금에 와서는 이미 일반이 거의다 깨달았을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73페지를 보라.)②

레닌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산계급독재는 낡은 사회의 세력들과 그 전통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이며 류혈적 및 비류혈적, 폭력적 및 평화적, 군사적 및 경제적, 교육적 및 행정적인 투쟁이다. 수백수천만 사람들의 관습의 힘이란 가장 무서운 힘이다. 투쟁에서 단련된 강철같은 당이 없이는, 그 계급의 모든 성실한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① 당이 없이는, 대중의 기분을 살피며 그 기분에 영향을 줄줄 아는 당이 없이는 이런 투쟁을 성과있게 진행할수 없다.》(《레닌전집》, 로문

---

① 고시크제는 나의것. —이.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80~181페지를 보라, —편집자

판, 제3판, 제25권, 190페지를 보라.)①

그러면 당은 어떻게 계급의 이러한 신임과 지지를 얻는가? 무산계급독재에 필요한 로동계급내의 강철같은 규률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한 어떠한 토대에서 자라나는가?

레닌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산계급의 혁명적당의 규률은 무엇으로써 유지되며 무엇으로써 검열되며 무엇으로써 강화되는가? 첫째로 무산계급의 전위대의 자각과 혁명에 대한 그의 충성, 그의 인내성과 자기희생과 영웅적기개에 의하여서이다. 둘째로 그가 가장 광범한 근로대중과② 우선 무산자근로대중과 또한 비무산계급근로대중과도 련계를 맺으며 접근하며 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융합②할줄 아는데 의하여서이다. 셋째로 전위대에 의하여 실현되는 정치적지도와 정치적 전략과 전술이 옳으며 이 정당성을 가장 광범한 대중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확신하는데 의하여서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정녕코 자산계급을 전복하고 전 사회를 개조하여야 하는 선진계급의 당으로 될만한 혁명적인 당의 규률은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그런 규률을 확립하려는 시도는 불가피적으로 허사, 공담, 헛소리로 화하고말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이러한 조건들은 일조일석에 생길수는 없다. 이 조건들은 장구한 노력과 쓰라린 경험으로써 조성되는것이다. 이런 조건은 옳바른 혁명적리론에 의하여 그 조성이 용이하게 되는것이다. 그런데 이 리론은 교조가 아니며 참으로 대중적이고 참으로 혁명적인 운동의 실천과의 긴밀한 련결속에서만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74페지를 보라.)③

그리고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본주의에 대한 승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도적당인 공산당, 혁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00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③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81~182페지를 보라.—편집자

명적계급인 무산계급과 대중, 즉 전체 근로자들 및 피착취자들 사이에 옳은 호상관계가 요구된다. 오직 공산당만이, 만일 그가 진정으로 혁명적계급의 전위대라면, 만일 그가 혁명적계급의 모든 가장 우수한 대표자들을 망라하고있다면, 만일 그가 완강한 혁명적투쟁에 의하여 계몽되고 단련된 완전히 자각적이고 헌신적인 공산주의자들로써 구성되여있다면, 만일 이 당이 자기 계급의 전 생활과 자기를 밀접히 련결하며 그리고 자기 계급을 통해서 전체 피착취자대중과 련결하며 이 계급과 이 대중 속에서 충분한 신임①을 얻을수 있다면—오직 이와 같은 당만이 자본주의의 모든 힘을 반대하는 가장 무자비하고 결정적이고 총국적인 투쟁에서 무산계급을 지도할수 있는것이다. 다른 한편 오직 이와 같은 당의 지도하에서만 무산계급은 자본주의에 의하여 부패해진 극소수의 로동귀족, 낡은 로동조합주의적 및 협동조합적 수령들이 나타내는 불가피한 태담성과 부분적반항을 완전히 박차면서 자기의 혁명적공격의 전 력량을 전개시킬수 있으며 자본주의사회의 경제적구조자체로 말미암아 인구중에서 차지하는 그의 비률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전개시킬수 있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315페지를 보라.)②

이 인용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1) 무산계급독재에 필요한 당의 위신과 로동계급내의 강철같은 규률은 당에 대한 위구심이나 당의 《무제한한》 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당에 대한 로동계급의 신임과 당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당에 대한 로동계급의 신임은 일조일석에 또 로동계급에 대한 폭력에 의하여 얻어지는것이 아니라 대중속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당사업과 옳은 당정책에 의하여 얻어지며 또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당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하는 당의 능력과 또한 로동계급의 지지를 확보하고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95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로동계급의 대중을 이끌고나아가는 당의 능력에 의하여 얻어진다.

(3) 대중의 투쟁경험에 기초한 옳은 당정책이 없이는 또한 로동계급의 신임이 없이는 당의 진정한 지도가 없으며 또 있을수 없다.

(4) 만일 당이 계급의 신임을 받으며 또한 그 지도가 진정한 지도라면 당과 그 지도는 무산계급독재에 대립될수 없다. 왜냐 하면 로동계급의 신임을 받는 당의 지도(당의 《독재》)가 없이는 다소라도 튼튼한 무산계급독재가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다면 당의 위신과 로동계급내부의 강철같은 규률은 공담으로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파대망상과 모험으로 되고만다.

무산계급독재를 당의 지도(《독재》)에 대립시켜서는 결코 안된다. 왜냐 하면 빠리꼼뮨과 같은 그러한 완전치 못하고 튼튼치 못한 독재가 아니라 다소라도 튼튼하고 완전한 독재를 념두에 둔다면 당의 지도는 무산계급독재에서 주되는것이기때문이다. 그것은 또 무산계급독재와 당의 지도는 동일한 사업로선우에 놓여있으며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는것이기때문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의 독재이냐 아니면 계급의 독재이냐? 수령들의 독재(수령들의 당)이냐 아니면 대중의 독재(대중의 당)이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자체 하나만 보아도 벌써 사상이 가장 놀랄만큼 절망적으로 혼란된것을 알수 있다. … 대중은 여러 계급으로 나누어진다는것, …계급들은 적어도 현대문명국들에서는 보통 다수 경우에 정당들에 의하여 지도된다는것, 정당은 통례로 가장 권위있고 유력하고 경험있고 가장 책임있는 지위에 선발된 수령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들로 되는 다소간 고정된 집단에 의하여 지도된다는것—이 모든것

은 일반이 다 알고있는것이다. … 일반적으로 대중의 독재와 수령들의 독재를 근본적으로 대립시켜서 운운한다는것은 가소로운 수작이며 어리석은 일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87~188페지를 보라.)①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 옳은 명제는 전위대와 로동자대중사이, 당과 계급사이에 옳은 상호관계가 현존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것이다. 이 명제는 전위대와 계급사이의 상호관계가 정상적이며 《호상신임》의 범위에서 유지되고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것이다.

그런데 만일 전위대와 계급사이의 옳은 상호관계가, 만일 당과 계급사이의 《호상신임》의 관계가 파탄되였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만일 당자체가 계급과의 옳은 상호관계의 원칙을 위반하며 《호상신임》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이러저러하게 자체를 계급에 대립시키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대체 그러한 일이 있을수 있는가?

그렇다, 있을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을수 있다.

(1) 당이 자기의 사업과 대중의 신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무제한한》 권력에 의하여 대중속에서 자기의 위신을 세우기 시작하는 경우,

(2) 당정책이 분명히 옳지 못한데 당이 자기의 과오를 재검토하고 시정하려 하지 않는 경우,

(3) 대체로 당정책이 옳으나 대중이 아직 그것을 충분히 리해하지 못하고있을 때 대중이 자체의 경험을 통하여 당정책이 옳음을 확신할수 있을 때까지 당이 기다리려고 하지 않거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197페지와 199페지를 보라.—편집자

나 기다릴줄 모르고 이 정책을 대중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경우.

우리 당의 력사에는 이러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우리 당내의 각종 집단과 분파들은 이 세가지 조건중의 어느 하나나 또는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다 위반하였기때문에 몰락되거나 해산되였다.

이로부터 당의 《독재》(지도)에 무산계급독재를 대립시키는것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옳다고 인정할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1) 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독재라는것을 독재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폭력에 의거하는 정권》)로 리해하는것이 아니라 바로 레닌이 리해한바와 같이 로동계급전체 또는 그의 다수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는 그러한 당의 지도로 리해하는 경우,

(2) 당이 계급의 진정한 지도자로 될만한 조건들을 가진 경우 다시말하면 당의 정책이 옳고 그 정책이 계급의 리익에 부합되는 경우,

(3) 계급 혹은 계급의 다수가 그 정책을 접수하고 그것을 충분히 리해하며 당의 사업에 의하여 이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당을 신임하며 당을 지지하는 경우.

이 조건들을 위반하게 되면 불가피적으로 당과 계급사이의 충돌과 분렬을 초래하며 그들 호상간의 대립을 초래하게 된다.

당의 지도를 폭력으로써 계급에 강요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 어쨌든 이러한 지도는 오래동안 지속될수 없다. 만일 당이 시종 무산계급의 당으로 되려고 한다면 당은 우선 그리고 주로 그가 로동계급의 지도자이며 수령이며 스승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소책자 《국가와 혁명》에서 언급한 레닌의 말을 잊을수 없다.

《맑스주의는 로동자당을 교양하면서 무산계급의 전위대 즉 권력을 장악하고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에로 인도하며 새로운 제도를 지도하고 조직하며 자산계급이 없이 또 자산계급을 반대하여 사회생활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모든 피착취근로자들의 스승으로, 지도자로, 수령①으로 될 수 있는 전위대를 길러내고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1권 386페지를 보라.)②

만일 당의 정책이 옳지 못하고 또 그 정책이 계급의 리익과 충돌된다면 당을 계급의 진정한 지도자라고 인정할수 있겠는가? 물론 인정할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당이 계속 지도자로 되려고 한다면 그 정책을 반드시 재검토하고 그 정책을 반드시 시정해야 하며 반드시 그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해야 한다. 이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력사에서 한가지 사실, 즉 곡물정수제를 폐지하기전 시기에 로동자, 농민 대중이 우리의 정책에 확실히 불만을 가지고있었으므로 당시 당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성근하게 그 정책을 재검토한 사실만 들어도 충분할것이다. 그때에 레닌은 제10차대회에서 곡물정수제를 폐지하고 신경제정책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아무것이나 숨기지 말아야 한다. 농민은 우리와 그들과의 사이에 설정된 지금의 형태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해하지 않는다는것, 그들은 이러한 형태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 더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것을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론쟁할 여지가 없다. 농민의 이러한 의사는 명확히 표시되여있다. 이것은 합법한 근로대중의 의사이다. 우리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명석한 정치가인것만큼 농민에 대한 우리의 정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 .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192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책을 재검토하자①고 솔직히 말할수 있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238페지를 보라.)②

당의 정책이 말하자면 계급의 정치적락후성때문에 그 계급의 신임과 지지를 아직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당이 말하자면 사태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였기때문에 계급에게 당정책의 정당성을 확신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오직 당정책이 대체로 옳다는 리유만으로 당이 대중의 결정적진출을 조직하는데서 주도적역할을 놀며 지도를 담당하여야 한다고 인정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당이 진정한 지도자로 되려고 한다면 기다릴줄 알아야 하며 그 정책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확신시켜야 하며 대중이 자체의 경험으로 이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혁명적당이 혁명적계급들의 선진부대내에서와 전국적규모에서 다수를 가지고있지 못한다면 폭동은 운운할수도 없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1권, 282페지를 보라.)③

《로동계급의 다수의 견해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혁명은 불가능한것이며 이와 같은 변화는 대중의 정치적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221페지를 보라.)④

《무산계급의 전위대는 이미 사상적으로 전취되였다. 이것은 주요한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승리를 향하여 첫걸음도 내디딜수 없다. 그러나 이로부터 승리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상당히 멀다. 전위대만으로써는 승리할수 없다. 아직 전체 계급이, 그리고 광범한 대중이 전위대를 직접 지지하거나 혹은 적어도 전위대에 대하여 호의적중립의 태도를 취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204페지를 보라.—편집자
③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338~339페지를 보라.—편집자
④ 우와 같은 책, 제4권, 238페지—편집자

하고 그의 적을 전혀 지지할수 없는 그런 립장에 서지 못하였을 때에 오직 전위대만을 결정적전투에로 내모는것은 어리석은 일일뿐만아니라 또한 범죄적인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전체 계급이 그리고 자본의 압박을 받는 참으로 광범한 근로대중이 그러한 립장에까지 이르도록 하자면 한갖 선전과 선동만으로는 부족한것이다. 그렇게 되자면 그 대중자신의 정치적경험이 필요한것이다.》(우와 같은 책, 228페지)①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당은 1917년에 레닌이 4월테제110를 내놓은 때로부터 10월봉기에 이르는 기간에 바로 이렇게 행동하였다. 그리고 바로 당이 레닌의 이 지시대로 행동하였기때문에 봉기에서 승리한것이다.

이러한것이 기본적으로 전위대와 계급사이의 옳은 상호관계의 조건들이다.

당의 정책이 옳으며 또한 전위대와 계급사이의 옳은 관계가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지도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조건하에서 지도한다는것은 당정책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설복할줄 아는것을 의미하며 대중을 당의 립장에로 끌어들이며 또 대중으로 하여금 자체의 경험을 통하여 당정책의 정당성을 쉽게 깨닫게 하는 구호들을 내세우며 또 실행할줄 아는것을 의미하며 그리고 대중을 당의 의식수준에까지 끌어올리며 그리하여 대중의 지지와 결정적투쟁에 대한 대중의 결의를 보장할줄 아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설복의 방법은 당이 로동계급을 지도하는 기본방법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씨야와 련합국의 자산계급에 대한 류례없는 승리를 거둔후 2년 반이 지난 오늘의 로씨야에서 우리가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46~247페지를 보라.—편집자

만일 직업동맹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독재의 승인〉을 내세운다면 우리는 어리석은짓을 한것으로 될것이며 대중에 대한 우리의 영향을 손상시킬것이며 멘쉐위크들을 도와주게 될것이다. 왜냐 하면 공산주의자들의 모든 임무는 곧 락후한 대중을 설복할줄 알며 그들가운데서 사업할줄 아는데 있는것이지 결코 유치한 〈좌익〉적인 꾸며낸 구호를 가지고 그들과의 사이에 장벽을 쌓는데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5권, 197페지를 보라.)①

이것은 당이 모든 로동자를 마지막 한사람까지 설복하여야 하며 오직 그다음에야만 행동에 착수할수 있으며 그런 다음에야만 행동을 개시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물론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다만 당이 결정적인 정치적 행동에로 나아가기전에 장기간에 걸친 혁명사업에 의하여 로동자대중의 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는 적어도 계급의 대다수의 호의적중립을 확보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할따름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로동계급의 대다수를 당의 편으로 전취하는것이 혁명승리의 필수조건이라고 한 레닌의 명제는 아무 의의도 가지지 못하게 될것이다.

그런데 만일 소수가 다수의 의지에 자원적으로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소수를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 당은 다수의 신임을 받고있으므로 소수로 하여금 다수의 의지에 복종하도록 강요할수 있는가 또 그렇게 하여야 하는가? 그렇다, 그렇게 할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한다. 지도는 대중에게 당의 영향을 주는 기본방법인 대중을 설복하는 방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런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를 배제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강요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이 강요가 당에 대한 로동계급의 다수의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10페지를 보라.—편집자

신임과 지지를 지반으로 하는 경우이며 또 강요가 다수를 설복한후에 소수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 문체에 대하여서는 직업동맹문제를 토론하던 시기에 있은 우리 당내의 론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때에 반대파와 운수직맹중앙위원회[111]의 오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에 반대파가 강요의 가능성을 인정한데 있었던것이 아닌가? 아니다, 이 점에 있은것은 아니다. 그때에 반대파의 오유는 그들이 자기의 립장이 옳다는것을 다수에게 설복할만한 능력이 없었고 다수의 신임을 상실하고서도 그래도 강요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다수의 신임을 받고있는 사람들을 《몰아내자》고 주장한 점에 있었다.

그때에 레닌은 제10차당대회에서 한 직업동맹에 관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동계급의 전위대와 로동자대중간의 호상관계, 호상신임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운수직맹중앙위원회가 오유를 범하였을 경우에…그것을 시정해야 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 만일 누가 이 오유를 변호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위험성의 근원으로 된다. 만일 우리가 꾸뚜조브에 의하여 대표되는 그런 기분을 보고도 최대한의 민주주의적방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치적파산을 당할것이다. 우리는 우선 설복하고 그다음에 강요하여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간에 먼저 설복하고 그다음에 강요하여야 한다.① 우리는 광범한 대중을 설복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대중과 전위대와의 옳바른 호상관계를 파괴하였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235페지를 보라.)②

레닌은 그의 소책자 《직업동맹에 관하여》③에서도 또한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200페지를 보라.—편집자

③ 레닌의 《직업동맹에 관하여, 첸시국파 뜨로쯔끼의 오유에 관하여》.(《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402~425페지를 보라.)—편집자

그와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미 강제에다 설복의 기초를 부여할줄 알게 된 때에 이 강제를 옳게 성과적으로 적용하였다.》 (우와 같은 책, 74페지)①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아무러한 지도도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왜냐하면 오직 이와 같이 함으로써만 당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당내의 행동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계급전체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계급의 행동통일을 보장할수 있기때문이다. 이것이 없이는 로동계급의 대렬내에는 분렬, 분산, 와해가 있을따름이다.

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옳바른 지도의 원칙은 대체로 이러하다.

지도를 이와는 다르게 리해하는 온갖 견해는 급진로동조합주의[112], 무정부주의, 관료주의 및 기타 무엇이건 다될수 있으나 어쨌든 볼쉐위크주의나 레닌주의만은 아니다.

당과 로동계급사이에, 전위대와 로동자대중사이에 옳은 상호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산계급독재를 당의 지도(《독재》)에 대립시켜서는 안된다. 그런즉 이로부터 당과 로동계급, 당의 지도(《독재》)와 로동계급의 독재를 동일시하여서는 더구나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당의 《독재》를 무산계급독재에 대립시켜서는 안된다는것을 근거로 하여 쏘련은 《무산계급독재는 곧 우리 당의 독재이다.》라는 그릇된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레닌은 이렇게 대립시키는것을 허용할수 없다고만 말한것이 아니다. 그는 그와 동시에 《대중의 독재를 수령들의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416페지를 보라.—편집자

독재》에 대립시키는것도 허용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수령들의 독재를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무산계급독재는 우리 수령들의 독재이다.》라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대체 당의 《독재》를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하는 정책은 말하자면 이러한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게 하는것이다.…

지노위예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있는가?

지노위예브도 본질상 당의 《독재》를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하는 쏘련과 똑같은 견해를 갖고있다. 오직 다른 점은 쏘련은 솔직하고 명백하게 표현하지만 지노위예브는 《돌려서 말한다》는것이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는 지노위예브의 《레닌주의》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개소만을 들어도 충분하다.

지노위예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쏘련의 헌존제도는 그의 계급적내용에서 보면 어떠한것인가? 이것은 즉 무산계급독재이다. 쏘련정권의 직접적인 원동력은 어떠한것인가? 누가 로동계급의 정권을 실현하고있는가? 공산당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에는① 당의 독재가 있다. 쏘련정권의 법률적형태는 어떠한것인가? 10월혁명에 의하여 확립된 새형의 국가제도는 어떠한것인가? 이것은 즉 쏘베트제도이다. 전자와 후자는 조금도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량자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것은 만일 전체로서의 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독재를 당의 지도로 리해한다면 그것은 물론 옳은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하여 무산계급독재와 당의 《독재》사이에, 쏘베트제도와 당의 《독재》사이에 어떻게 등호를 칠수 있는가? 레닌은 쏘베트제도를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하였다. 그가 이렇게 본것은 옳았다. 왜냐 하면 쏘베트,

---

① 고시크제는 나의것. —이.쏘딸린

즉 우리 쏘베트는 당의 지도하에 근로대중을 무산계급의 주위에 결속시키는 조직이기때문이다. 그런데 레닌이 어느때 어느 곳 어느 저서에서 지금 지노위예브가 말하는것과 같이 당의 《독재》와 무산계급독재사이에, 당의 《독재》와 쏘베트제도사이에 등호를 쳤는가? 당의 지도(《독재》)가 무산계급독재와 대립되지 않을뿐만아니라 수령들의 지도(《독재》)도 무산계급독재와 대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 나라는 무산계급독재의 나라, 다시말하면 당의 독재의 나라, 다시말하면 수령들의 독재의 나라라고 선언할수 있지 않겠는가? 지노위예브가 슬그머니 또 비겁하게 내세우는 당의 《독재》와 무산계급독재를 동일시하는 《원칙》은 그야말로 그러한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게 한다.

나는 레닌의 수많은 저서중에서 그가 당의 독재문제를 약간 언급한 개소를 다만 다섯개를 찾아볼수 있었다.

첫째 개소—이것은 사회혁명당[59] 및 멘쉐위크들과의 론쟁인데 거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한 당의 독재를 주장한다고 우리를 비난하며 또 당신들이 들은바와 같이 사회주의통일전선을 제의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것이다. 〈그렇다, 한 당의 독재이다! 우리는 한 당의 독재에 립각하였을뿐더러 이 로대에서 물러설수 없다. 왜냐 하면 이 당은 수십년동안에 걸쳐 전체 공장 및 산업 무산계급의 전위대의 지위를 쟁취한 당이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423페지를 보라.)①

둘째 개소—이것은 그가 《뻘챠크에 대한 승리와 관련하여 로동자와 농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거기에서 그는 다음과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489～490페지를 보라.—편집자

같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특히 멘쉐위크들과 사회혁명당원들이 지어 그들중 《좌익》이라고 하는자들까지도 모두)은 볼쉐위크—공산당의 〈한 당의 독재〉라는 허수아비를 가지고 농민들을 놀래우고있다.

농민들은 끌착크의 예에서 허수아비를 두려워하지 않는것을 배웠다.

지주나 자본가들의 독재(즉 철의 정권)냐 그렇지 않으면 로동계급의 독재냐 둘중의 하나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436페지를 보라.)①

셋째 개소—이것은 레닌이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에서 텐너와 론쟁한 연설이다. 나는 우에서 이 연설을 이미 인용한바 있다.②

넷째 개소— 이것은 소책자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에 있는 몇구절이다. 이에 해당한 인용문들도 우에서 이미 인용하였다.③

그리고 다섯째 개소—이것은 《레닌론문집》 제3권에 발표된 무산계급독재에 대한 요강의 초안인데 거기에는 《한 당의 독재》라는 소제목이 있다.(《레닌론문집》, 로문판, 제3권, 497페지를 보라.)

이상의 다섯 개소에서 두 개소, 즉 둘째 개소와 마지막개소에서 레닌은 《한 당의 독재》라는 말에다 인용표를 쳐서 이 공식의 부정확하고 또 전의적인 의미를 명백히 강조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이 모든 개소에서 레닌은 《당의 독재》란것을 카우쯔키와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이 책, 527페지를 보라.—편집자
③ 이 책, 534, 535, 537~538, 541, 542~543페지를 보라.—편집자

그 일파의 비방적인 날조와는 반대로, 로동계급에 대한 독재로 리해한것이 아니라 《지주와 자본가들》에 대한 독재(《철의 정권》)로 리해하였다는것을 역시 지적하여야 하겠다.

무산계급독재와 무산계급독재체계내에서의 당의 역할에 대하여 론술하였거나 또는 간단히 지적한 레닌의 주요한 저서나 차요적저서들중 그 어느 한곳에도 《무산계급독재는 우리 당의 독재》라는 암시조차 없다는것은 특징적이다. 도리여 이 저서들의 매페지 매행은 그러한 공식을 반박하고있다.(《국가와 혁명》, 《무산계급혁명과 변절자 카우쯔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 등을 보라.)

레닌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작성되였고 또 레닌이 당의 역할과 과업에 대한 옳은 정식화의 표본으로서 자기 연설에서 루차 인용한, 당의 역할에 관한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의 테제[113]에서 우리는 당의 독재라는 말을 한마디도, 문자그대로 한마디도 찾아볼수 없다는것은 더욱 특징적이다.

이 모든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다음과 같은것을 말한다.

(1) 레닌은 《당의 독재》라는 공식을 비난할 여지 없는 정확한것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공식은 레닌의 저서들에서 극히 드물게 사용되였고 때로는 인용표속에 넣어 사용되였다.

(2) 레닌이 반대자들과의 론쟁에서 부득이 당의 독재라는 말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그는 보통 《한 당의 독재》 즉 우리 당은 단독적으로 정권을 잡고있으며 다른 당들과 정권을 나누지 않는다는것을 말하였으며 또한 이에 있어서 그는 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독재라는것은 그것을 당의 지도로, 당의 지

도적역할로 리해하여야 할것이라고 항상 설명하였다.

(3) 레닌이 무산계급독재체계내에서의 당의 역할을 파학적으로 규정할 필요를 느끼게 된 모든 경우에 그는 **오로지** 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지도적역할에 대하여(이러한 경우는 수천번이나 된다.) 말하였다.

(4) 바로 그렇기때문에 레닌은 당의 역할에 관한 기본결정—나는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의 결정을 두고 말한다.—에 《당의 독재》라는 공식을 넣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5) 당의 《독재》를, 따라서 《수령의 독재》를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하거나 또는 동일시하려고 시도하는 동지들은 레닌주의의 견지로 보아 옳지 못하며 또한 정치적으로 근시안들이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전위대와 계급사이의 옳은 상호관계의 조건들을 위반하기때문이다.

이상에서 말한 조건부없이 사용되는 《당의 독재》라는 공식은 우리의 실제사업에서 허다한 위험성과 정치적손실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아무 조건부 없이 사용된 이 공식은 요컨대 다음과 같은것을 암시하는것이다.

(1) **비당원대중**에게는 당이 모든것을 다할수 있으며 우리 나라는 당의 독재이므로 감히 항거하지 말며 론의하지 말라고 암시하며,

(2) **당간부들**에게는 우리 나라는 당의 독재이므로 더 용감하게 행동하며 좀더 강하게 억누르며 비당원대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좋다고 암시하며,

(3) **당의 상층**에는 우리에게는 당의 독재 《다시말하면》 수령들의 독재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꺼리낌없이 약간의 자기만족에 도취할수 있으며 조금쯤은 거만해도 무방하다고 암시하는것이다.

대중의 정치적열성이 앙양되고있는 시기인 바로 지금에

있어서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하는것은 매우 적절하다. 그것은 대중의 목소리에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당의 용의가 우리에게 특히 중요하며 대중의 요구에 대한 민감성이 우리 당의 기본신조로 되며 정책에 있어서 당의 특별한 신중성과 신축성이 요구되며 거만하여질 위험성은 당이 대중을 옳게 지도하는 사업에서 부닥치게 될 가장 엄중한 위험성의 하나로 되기때문이다.

우리 당 제11차대회[114]에서의 레닌의 다음과 같은 귀중한 말을 상기하지 않을수 없다.

《인민대중속에 있어서 우리[공산당원들.—이.쓰딸린]는 바다가운데의 물 한방울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인민이 자각한것을 정확히 반영하는 때에만 관리할수 있는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공산당은 무산계급을 지도할수 없을것이며 무산계급은 대중을 이끌고갈수 없을것이며 따라서 모든 기관이 파괴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256페지를 보라.)①

《인민이 자각한것을 정확히 반영하는것》—이것이 바로 무산계급독재체계내에서의 기본적지도력량이라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당에 보장하여주는 필수조건이다.

6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제

소책자 《레닌주의기본에 대하여》(1924년 5월 제1판)에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제에 대한 두가지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51페지를 보라.—편집자

설이 있다. 첫째 설은 이러하다.

《전에는 자산계급을 타승하려면 선진적인 모든 나라에서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러한 대다수 나라들에서 무산계급이 공동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한 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는 불가능한것으로 되였다. 지금은 이러한 견해가 벌써 현실과 맞지 않게 되였다. 지금은 그러한 승리가 가능하다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제국주의환경하에서는 각이한 자본주의나라들의 발전이 불균형적이며 비약적인 성격을 띤다는것, 제국주의내부의 파국적인 모순들이 발전하여 불가피하게 전쟁을 일으킨다는것, 세계의 모든 나라 혁명운동이 장성한다는것—이 모든 사실은 개별적인 나라에서 무산계급이 승리할수 있게 할뿐만아니라 또 필연적으로 승리하게 하기때문이다.》(《레닌주의기본에 대하여》를 보라.)②

이 명제는 전적으로 옳은것이며 또한 그것은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 이 명제는 다른 나라들에서 혁명이 동시적으로 승리하지 않고서는 한 나라에서 무산계급이 정권을 잡는다는것은 공상이라고 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리론을 반대한것이다.

그런데 소책자 《레닌주의기본에 대하여》에는 또한 둘째 설이 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다.

《그러나 한 나라에서 자산계급의 정권을 전복하고 무산계급의 정권을 수립한다는것—이것은 아직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의 주되는 과업 즉 사회주의적생산의 조직은 아직 금후의 일로 남아있다. 몇몇 선진국들의 무산자들의 일치한 노력이 없이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할수 있으며 이 과업을 해결할수 있는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자산계급을 타도하기 위하여서는 한 나라의 노력으로도 충분하다. 이에 관하여서는 우리 나라 혁명의 력사가 립증하여준다.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 사회

---

② 이 책, 272페지를 보라. —편집자

주의적생산의 조직을 위하여서는 한 나라의, 특히 로씨야와 같은 그러한 농업국의 노력으로서는 이미 불충분하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몇몇 선진국의 무산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레닌주의기본에 대하여》의 제1판을 보라.)①

이 둘째 설은 레닌주의의 비판자들의 주장을 반대하여 즉 다른 여러 나라에서의 승리가 없이는 한 나라의 무산계급독재는 《보수적인 구라파앞에서 견디여낼》수 없다고 언명하는 뜨로쯔끼주의자들을 반대한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오직 그러한 점에서만) 이 설은 그때에 (1924년 5월) 충분한것이였으며 의심할바없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였다.

그러나 그후 이 면에서 레닌주의에 대한 비판이 당내에서 이미 극복되였으며 또 새로운 문제 즉 외부의 후원이 없이 우리 나라의 힘으로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게 되였을 때에는 이 둘째 설은 이미 분명히 불충분한것으로 되였으며 또한 그리하여 그릇된것으로 되였다.

이 설의 결함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설의 결함은 그것이 한 문제에다 서로 다른 두가지 문제를 련결시킨데 있다. 즉 긍정적으로 대답하여야 할 문제, 한 나라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부정하여야 할 문제, 무산계급독재의 나라가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의 승리적혁명이 없이 무력간섭으로부터, 따라서 낡은 제도가 복구되지 않도록 자체를 완전히 보장할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련결시킨데 있다. 나는 이 설이 한 나라의 힘으로는 사

---

① 쓰딸린의 소책자《레닌 및 레닌주의에 대하여》, 1924년 로문판, 60페지를 보라.—편집자

회주의사회의 조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수 있는(물론 옳지 못한 생각이다.) 구실을 줄수 있다는데 대하여서는 더 말하지 않겠다.

이러한 리유에서 나는 《10월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술》(1924년 12월)이라는 소책자에서 이 문제를 두개 문제로 즉 자산계급제도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히 보장하는 문제와 한 나라에서의 완전한 사회주의사회 건설의 가능성문제로 구분함으로써 이 설을 변경하였으며 또 개정하였다. 이것은 첫째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몇개 나라의 무산자의 일치한 노력》으로써만 가능한, 《낡은 제도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히 보장하는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둘째로는 《협동조합에 관하여》① 라는 레닌의 소책자에 근거하여 우리는 완전한 사회주의사회 건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있다는 론쟁할 여지 없는 진리를 표명하는 방법으로써 달성된것이다. (《10월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을 보라.)②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설은 《국제공산당 및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의 과업에 대하여》라는 제14차당대표자회의의 유명한 결의③의 기초로 되였던것이다. 이 결의는 자본주의의 안정과 관련하여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고 (1925년 4월) 우리 나라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이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1~688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나중에 《레닌주의기본에 대하여》라는 소책자의 그후의 판들에서는 이 문제의 낡은 설을 이 새로운 설로 바꾸어놓았다.

③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확대전원회의의 결의와 관련한 국제공산당 및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의 과업에 대하여》라는 결의를 가리킨다. (《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정서집》, 1956년 인민출판사판, 제3분책, 39~51페지를 보라.)—편집자

이 새로운 설은 또한 제14차당대표자회의직후, 1925년 5월에 출판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표자회의의 사업총화에 대하여》라는 나의 소책자의 기초로도 되였다.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승리문제의 설정에 대하여 이 소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우리 나라에는 두가지 모순이 있다. 한가지 모순은 무산계급과 농민사이에 존재하는 내적모순이다.〔여기서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말하는것임. —이.쓰딸린〕 다른 하나의 모순은 사회주의국가인 우리 나라와 자본주의국가인 다른 모든 나라와의 사이에 있는 외적모순이다.〔여기서는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말하는것임. —이.쓰딸린〕》… 《완전히 한 나라의 노력으로써 극복할수 있는 제1부류의 모순을 몇개 나라의 무산자의 노력으로써만 해결할수 있는 제2부류의 모순과 혼동하는자는 가장 조포한 반레닌주의의 오유를 범하는자이며 어리석은자이거나 구할수 없는 기회주의자인것이다.》(《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표자회의의 사업총화에 대하여》를 보라.)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이 소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로동계급의 령도하에 농민과 함께 사회주의를 건설할것이다.…》 왜냐 하면 《무산계급독재하에서는 우리에게 온갖 내부적난관을 타개하고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있기때문이다. 왜냐 하면 우리는 이런 난관들을 자체의 힘으로 타개할수 있으며 또 타개하여야 할것이기 때문이다》.(우와 같음.)②

그리고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이 소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

① 이 책, 428페지와 437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이 책, 428페지와 434페지를 보라. —편집자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란 무력간섭의 시도, 따라서 또 복구의 시도로부터 벗어나도록 완전히 보장되여있는것을 말한다. 왜냐 하면 다소라도 엄중한 복구시도는 외부로부터의 중대한 원조, 국제자본의 원조가 있어야만 실현될수 있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혁명에 대한 각국 로동자들의 지원, 특히는 이런 로동자들의 승리—그것이 몇개 나라에서의 승리라 하더라도—는 처음으로 승리한 나라가 무력간섭과 복구의 시도로부터 벗어나도록 완전히 보장하는 필요한 조건이며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담보하는 필요한 조건이다.》(우와 같음.)①

아마 명백한듯하다.

《질문과 대답》(1925년 6월)이라는 나의 소책자와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회에서의 중앙위원회의 정치총화보고②(1925년 12월)에서도 이와 같은 정신에서 이 문제를 론술한것은 일반이 다 아는바이다.

사실은 바로 이러하다.

이 사실은 지노위예브까지도 포함한 모든 동지들이 다 잘 아는바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당내에 사상투쟁이 있은후 거의 두해나 지나갔으며 또 제14차당대표자회의(1925년 4월)에서 결정서가 채택된후인 지금 지노위예브는 제14차당대회(1925년 12월)[115]에서 한 자기의 결론에서 1924년 4월에 쓴 쓰딸린의 소책자에서 전혀 불충분한 낡은 설을 끄집어내여 이미 해결된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론거로 삼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노위예브의 이 독특한 솜씨는 그가 이 문제에서 완전히 혼란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을 말해줄따름이다. 당이 앞으로 전진한 오늘 그 당을 뒤로 끌려고 하며 제14차당대표지

---

① 이 책, 436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7권, 217~328페지를 보라. —편집자

회의의 결정이 중앙위원회전원회의116에서 승인된후에 그 결정서를 회피하는것—이것은 절망적으로 모순속에 빠지는것이며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믿지 않는것이며 레닌의 로선에서 리탈하며 자기자체의 패배를 승인하는것이다.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나라의 내부적력량으로써 무산계급과 농민사이의 모순을 해결할수 있다는것이며 다른 나라들에서 무산계급혁명이 미리 승리하지 않고서도 다른 나라 무산자의 찬동과 지지하에 무산계급이 정권을 쟁취하고 우리 나라의 완전한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위하여 이 정권을 리용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이 없는 사회주의건설은 전망없는 건설이며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설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해낼수 있다는 확신이 없이는, 우리 나라의 기술적락후성이 완전한 사회주의사회 건설에서 **극복할수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이는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부인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믿지 않는것이며 레닌주의로부터 리탈하는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승리가 없이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종국적승리가 **불가능하다**는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적어도 몇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지 않고서는 무력간섭을 받지 않도록, 따라서 자산계급제도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히 보장하는것이 불가능하다는것이다. 이러한 론쟁할 여지 없는 명제를 부인하는것은 국제주의로부터 리탈하는것이며 레닌주의로부터 리탈하는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한 나라안에서 살고있을뿐만아니라 또한 많은 나라들로 이루어진 체계내에 살고있으며 따라서 소베트공화국이 제국주의국가들과 장기간 공존한다는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이다. 결국은 둘중의 어느 하나가 승리할것이다. 그 종말이 도래할 때까지는 쏘베트공화국과 자산계급국가들간에 가장 무서운 일련의 충돌이 불가피적으로 있을것이다. 이것은 지배계급인 무산계급이 오직 그가 지배하기를 원하며 또 앞으로도 지배할것이라면 반드시 자기의 군사조직으로써도 이것을 증명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122페지를 보라.)①

레닌은 또 다른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대단히 불확고하지만 역시 의심할바없고 론쟁할 여지 없는 일정한 균형에 직면하고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것인가는 알지 못하며 또 알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최대의 신중성이 요구된다. 우리 정책의 첫규범, 우리 정부의 1년간 활동에서 얻은 첫교훈, 전체 로동자와 농민이 반드시 체득하여야 할 교훈은 로골적으로 우리를 지극히 미워하고있는 인간들, 계급들, 정부들에 의하여 우리가 포위되고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경계하는 그것이다. 우리는 자칫하면 항상 침공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는것을 기억해야 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117페지를 보라.)②

아마 명백한듯하다.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지노위예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들어보라.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라는것을 적어도 (1) 계급의 폐절, 따라서 (2) 한 계급의 독재의 폐지 즉 이 경우에 있어서는 무산계급독재의 폐지로 리해하여야 한다.…》 지노위예브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25년에 우리 쏘련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여있는가를 더 똑똑히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두가지 사태를 구별하여야 한다. (1)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는 보장된 가능성 즉 두말할것없이 사회주의를 건설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128~129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우와 같은 책, 제33권, 121페지.—편집자

할수 있다는 그러한 보장된 가능성은 한 나라의 범위내에서도 완전히 생각할수 있다. (2) 사회주의의 종국적건설 및 공고화 다시말하면 사회주의제도, 사회주의사회의 실현 그것이다.》

이 모든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노위예브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무력간섭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구제도가 복구되지 않도록 보장하는것으로 리해하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사회건설의 가능성으로 리해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지노위예브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해낼수 없으며 또 건설해도 안되는 그러한 사회주의건설이라고 리해하고있는것이다. 전망이 없는 요행을 바라는 건설,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낼수 없는 형편하에서의 사회주의의 건설—이것이 곧 지노위예브의 립장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해낼 가능성이 없이 그것을 건설하려는것, 건설해내지 못한다는것을 알면서 건설하려는것—바로 이렇게 지노위예브는 엉터리없이 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를 가지고 조롱하는것이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아니다.

제14차당대회에서 한 지노위예브의 결론에는 또 이러한 구절이 있다.

《페컨대 요전번 꾸르스크성 당대표자회의에서 야끄블레브동지가 어느 정도까지 말하였는가를 여러분은 들어보라. 야끄블레브동지는 말하기를 〈사면으로부터 자본주의적적들에게 포위되여있는 우리로서 즉 이러한 제 조건하에서 우리는 한개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낼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기를 〈상술한 모든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을뿐만아니라 또한 우리가 아직 단독이며 전 세계의 유일한 쏘베트의 나라, 쏘베트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주의를 건설해낼것이다라고 우리는 떳떳이 말할수 있

다.》라고 하였다.(1925년 12월 8일부의 《꾸르스크쁘라우다》, 제279호) **《과연 이것이 레닌주의적인 문제의 설정이란 말인가? 과연 여기에서 민족적국한성이 악취를 풍기고있지 않는가?》①** 하고 지노위예브는 묻는다.

이와 같이 지노위예브의 견해에 의하면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을 시인하는것은 민족적국한성의 견지에 서는것으로 되며 이러한 가능성을 부인하는것은 국제주의의 견지에 서는것으로 된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옳다면 도대체 우리 경제의 자본주의적요소를 타승하기 위하여 투쟁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로부터 그러한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는가?

우리 경제의 자본주의적요소들에 항복하는것—이것이 바로 지노위예브의 론증의 내적론리에서 도출된 결론이다.

지노위예브는 레닌주의와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이러한 망설을 《국제주의》니 《백프로의 레닌주의》니 하고 우리에게 내여민다!

사회주의건설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지노위예브는 레닌주의에서 떨어져나가 멘쉐위크 쑤하노브의 견지에로 전락하고있다고 나는 단언한다.

레닌의 말을 들어보자. 레닌은 일찍 10월혁명전, 1915년 8월에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형성은 자본주의의 절대적법칙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의 승리는 처음에는 소수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혹은 심지어 개별적인 한 자본주의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나라의 승리한 무산계급은 자본가를 수탈하고 **자국에 사회주의적**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생산을 조직한후에는① 다른 자본주의세계를 반대하여 일어나 다른 나라들의 피압박계급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며 이 나라들에서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키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에 의해서라도 착취계급과 그들의 국가를 반대하여 행동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8권, 232~233페지를 보라.)②

《자국에 사회주의적생산을 조직하여가지고》라고 강조한 레닌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승리한 나라의 무산계급이 정권을 잡은후에 자국에 사회주의적생산을 조직할수 있으며 또 반드시 조직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회주의적생산을 조직》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내는것을 의미한다. 이 명백하고도 정확한 레닌의 명제는 이이상 더 주석을 요하지 않는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1917년 10월에 레닌이 무산계급더러 정권을 잡으라고 호소한것은 리해할수 없는것으로 될것이다.

다 보는바와 같이 레닌의 이 명백한 명제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건설이 불가능한 형편에서 《한 나라의 범위안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고 하는 지노위예브의 착란된 그리고 반레닌주의적인 《명제》와는 천양지차가 있는것이다.

이것은 1915년 즉 무산계급이 정권을 잡기전에 레닌이 한 말이다. 그런데 레닌의 견해가 정권전취의 경험이 있은후 즉 1917년후에 변동되지나 않았는가? 1923년에 저술한 《협동조합에 관하여》라는 레닌의 소책자를 보기로 하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실 일체의 대생산수단에 대한 국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09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가의 권력, 무산계급의 수중에 있는 국가정권, 이러한 무산계급과 수백만의 소농 및 령세농파의 동맹, 농민에 대한 이들 무산계급의 지도의 확보 등등—이 모든것은 과연①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 협동조합으로써 오직 협동조합으로써만(우리는 이전에 이 협동조합을 소상인적이라고 멸시했던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신경제정책하의 지금도 역시 그렇게 멸시할 권리가 있다.)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부가 아니①겠는가? 이것은 아직 사회주의사회의 완전한 건설은 아니나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전부인것이다.①》(《베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92페지를 보라.)②

다시말하면 우리는 자기 수중에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모든것을 가지고있으므로 우리는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낼수 있으며 또 건설해내야 한다.

이보다 더 명백하게 말하기는 어려울것이다.

베닌의 이 고전적명제와 야끄블레브를 반대하여 말한 지노위예브의 반베닌주의적답변을 비교하여보라. 그러면 야끄블레브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에 대한 베닌의 말을 다만 반복한데 불과하지만 지노위예브는 이 명제를 반대하고 야끄블레브를 비난하였으며 베닌을 배반하고 멘쉐위크 쭈하노브의 견지, 즉 우리 나라에서는 기술적락후성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견지에 섰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회주의건설을 예산하지 않았다면 1917년 10월에 우리는 무엇때문에 정권을 잡았는지 알수 없는 일이 아닌가?

1917년 10월에 정권을 잡을 필요가 없었다.—이것이 바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② 《베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2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로 지노위예브의 론증의 내적론리에서 도출되는 결론이다.

그리고 또 지노위예브는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확대전원회의의 결의와 관련한 국제공산당 및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의 과업에 대하여》라는 제14차당대표자회의의 유명한 결정서에 명확히 규정되여있는 우리 당의 확정적결의를 **반대하여**나섰다고 나는 단언한다.

이 결정서를 보기로 하자. 거기에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정반대되는 두개의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사실은 자본주의적봉쇄, 기타 형태의 경제적압박, 무력간섭 및 복구의 위협을 항상 초래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유일한 보장, 즉 **복구되지 않도록 하는 보장은**① 여러 나라에서의 승리적사회주의혁명인것이다.…》《레닌주의는 자산계급적관계가 **복구되지 않도록 완전히 보장되는 의미**에서①의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는 국제적규모에서만이 가능하다고 가르치고있다.…》《그러나 이로부터 로씨야와 같이 락후한 나라에서는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의**① 건설은 기술적, 경제적 관계에서 더욱 발달된 나라들의 〈국가적후원〉(쯔로쯔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은**① 결코 **생기지 않는다.**①》(결의문을 보라.)②

다 보는바와 같이 결정서는 《레닌주의》라는 지노위예브의 책에 있는 론술과는 **정반대로**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무력간섭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구제도가 복구되지 않도록 보장하는것이라고 해석하고있다.

다 보는바와 같이 결정서는 지노위예브가 제14차당대회에

---

① 고지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정서집》, 1956년 인민출판사판, 제3분책, 47페지와 44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서 한 그의 결론에서 야끄블레브를 반대하여 답변한 주장과는 **정반대로** 로씨야와 같이 락후한 나라에서 기술적, 경제적으로 보다 발달된 나라들의 《국가적후원》이 없이도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있다.

이것이 지노위예브가 제14차당대표자회의의 결정을 **반대**하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물론 당의 결정이 간혹 잘못될수도 있다. 때로는 당의 결정에 오유가 있을수도 있다. 대체로 말하면 제14차당대표자회의의 결정서에도 역시 약간의 오유가 있으리라고 추측할수 있다. 지노위예브는 아마도 이 결의를 잘못된것으로 인정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그는 이에 대하여 볼쉐위크답게 응당 명확하고 솔직하게 말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지노위예브는 무엇때문인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다른 길 즉 제14차당대표자회의의 결의를 묵살하며 또 그에 대한 아무러한 솔직한 비판도 하지 않으면서 이 결의를 배후에서 공격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지노위예브는 아마도 이 길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의 목적은 하나이다. 즉 결의를 《개량》하고 레닌의 말을 《조금》 수정하려는것이다. 지노위예브가 잘못 타산하였다는것은 론증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지노위예브의 오유는 어디로부터 발생하였는가? 이 오유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오유의 근원은 지노위예브가 우리 나라의 기술적 락후성이 완전한 사회주의사회 건설에 대하여 **극복할수 없는** 장애물로 되며 우리 나라의 기술적락후성으로 하여 무산계급은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다고 확신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지노위예브와 까메네브는 4월당대표자회의97직전에 소집된 중앙위원회의 어느 한 회의에서 이 론거를 진술하여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론박을 당하고 할수없이 반대되는 견해 즉 중앙위원회의 다수의 견해에 **형식적으로** 복종하면서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지노위예브는 형식적으로는 이 견해에 복종하면서도 시종 그 견해와 투쟁하여왔다. 우리 당(볼쉐위크) 모스크바위원회는 레닌그라드성당대표자회의에서 보내온 서한에 대한 《답장》117에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내의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얼마전에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는 만일 국제적혁명이 우리를 구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술적 및 경제적 락후성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내부적난관을 이겨낼수 없을것이라는 견해를 정치국에서 주장하였다. 우리는 중앙위원회의 다수와 함께 우리가 기술적으로 락후하다 할지라도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으며 건설하고있으며 또한 건설해낼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건설은 세계혁명이 승리한 조건하에서보다는 매우 천천히 진행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하고있으며 또한 계속 전진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의 견해는 우리 로동계급과 또 그뒤를 따라가고있는 농민대중의 내재적힘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견해는 메닌주의적립장에서 리탈하는것이라고 생각한다.》(《답장》을 보라.)

이 문헌은 제14차당대회의 첫 몇차례 회의가 진행될 때에 출판물에 발표되였다. 지노위예브는 물론 대회에서 이미 이 문헌을 반대하여 발언할수 있었던것이다.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는 우리 당 모스크바위원회에서 그들을 반대하여 제기한 이 심각한 비난을 반박할수 있는 론거를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것이 우연한 일인가? 나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비난은 급소를 명중한 모양이다. 지노위예브와 까메네브는 이 비난을 도저히 《반박》할수 없었

기때문에 침묵으로《대답》하고말았다.

《신반대파》는 지노위예브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믿지 않는다고 비난을 당한것을 모욕으로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만일 지노위예브가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제를 옹근 한해동안이나 토의한후에, 또 그의 견해가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부인된(1925년 4월)후에, 또한 이 문제에 관하여 당의 명확한 견해가 이미 확정되여 제14차당대표자회의(1925년 4월)의 유명한 결정서에 명확히 기록된후에, 이 모든것이 있은후에 지노위예브가《레닌주의》라는 자기 책자(1925년 9월)에서 당의 견해를 반대하여나섰으며 그후 제14차당대회에서 다시 그러한 언론을 반복하고있는 이상 이 모든 사실 즉 자기의 오유를 고집하는 이 완고성과 집요성은 지노위예브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에 대한 불신에 감염되였다는것, 전혀 절망적으로 감염되였다는것으로밖에 또 어떻게 달리 설명할수 있겠는가?

지노위예브는 그의 이 불신을 마치 국제주의인것처럼 마음대로 해석할수도 있다. 그러나 레닌주의의 근본문제에서 레닌주의를 리탈하는것을 우리는 어느때부터 국제주의로 해석하게 되였던가?

여기서 당이 국제주의와 국제혁명을 위반한것이 아니라 지노위예브가 그것을 위반하고있다고 말하는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사회주의를 건설하는》우리 나라가 세계혁명의 근거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만일 우리 이 나라가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낼 능력이 없다면 우리 나라가 세계혁명의 진정한 근거지로 될수 있겠는가? 만일 우리 나라기 우리 경제의 자본주의적요소를 타승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전취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 나라가 지금 의심할바없이 전 세계 로동자들의 가장 큰 중심으로 되여있는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러한

중심으로 될수 있겠는가? 나는 그럴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모든 사실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에 대한 불신과 이 불신의 설교는 세계혁명의 근거지로서의 우리 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키며 또 우리 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키는것은 세계혁명운동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가? 사회민주주의자제씨는 무엇으로써 로동자들을 위협하여 그들을 우리에게서 물러나도록 하였는가? 《로씨야사람들은 아무것도 해낼수 없다.》는 설교로써 위협하였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로동자대표단들을 우리 나라에로 이끌어들이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의 공산주의진영을 공고히 하면서 무엇으로써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공격하고있는가?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우리의 성취로써 공격하고있다. 그런즉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우리의 성취를 믿지 않도록 설교하는자는 간접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을 도와주며 국제혁명운동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불가피적으로 국제주의로부터 리탈하는자라는것이 명백하지 않단 말인가?

다 보는바와 같이 지노위예브의 《국제주의》도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문제에 대한 지노위예브의 《백프로의 레닌주의》에 비하여 조금도 나은 점이 없다.

그러므로 제14차당대회가 《신반대파》의 견해를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불신》이며 《레닌주의에 대한 외곡》이라고 규정한것①은 옳은것이다.

---

① 《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정서집》, 1956년 인민출판사판, 제3분책, 79페지를 보라.—편집자

7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위한 투쟁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에 대한 불신이 《신반대파》의 기본적 오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의 생각에 의하면 《신반대파》의 다른 모든 오유가 이 오유로부터 생겨나오기때문에 이 오유가 기본적인것이다. 신경제정책, 국가자본주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공업의 성격, 무산계급독재하에서의 협동조합의 역할, 부농과의 투쟁방법, 중농의 역할 및 비중 등의 문제에서 《신반대파》가 범한 온갖 오유들은 반대파의 기본적오유 즉 우리 나라자체의 힘으로써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낼 가능성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생기는 오유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에 대한 불신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선 기본농민대중이 우리 나라 발전의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사업에 **인입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지 않는것이다.

이것은 둘째로 인민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무산계급이 기본농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사업에 인입시킬 **능력이 있다**는것을 확신하지 않는것이다.

반대파는 그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나라의 발전로정에 대한 자기의 리론구성에 있어서 암묵리에 이러한 명제로부터 출발하는것이다.

쏘련의 기본농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사업에 인입시킬수 있는가?

소책자 《레닌주의기본에 대하여》에는 이에 관하여 두가지

기본명제가 서술되여있다.

(1) 《쏘련의 농민을 서방의 농민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세차례의 혁명의 경험을 쌓았으며 무산계급과 함께, 또 그를 선두로 하고 짜리와 자산계급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한 농민, 무산계급혁명에 의하여 토지와 평화를 얻었고 그러한 까닭에 무산계급의 예비군이 된 농민—바로 이 농민이, 자산계급혁명시기에 자유주의자산계급을 선두로 하여 투쟁하였고 그 자산계급에게서 토지를 얻었으며 그러한 까닭에 자산계급의 예비군이 된 서방의 농민과 구별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무산계급과의 정치적친선 및 정치적협조를 중하게 여기는데 습관되였고 또한 그 친선과 그 협조의 덕택에 자기의 자유를 얻은 쏘련농민이 무산계급과 경제적으로 협조하는데 훌륭한 상대로 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2) 《로씨야의 농업을 서방의 농업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서방의 농업은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길을 따라 한쪽에서는 대규모의 소유지와 사적자본주의의 대령지, 다른쪽에서는 대중의 극빈상태, 빈궁, 임금노예제—이러한 심각한 농민의 분화가 일어나는 환경속에서 발전되는것이다. 때문에 거기에서는 해체와 분화가 아주 당연한것이다. 그러나 로씨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나라의 농업은 쏘베트정권이 존재하며 기본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였기에 그러한 발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 리유만으로도 그러한 길을 밟아 발전해나갈수 없는것이다. 로씨야에서는 농업의 발전이 반드시 다른 길, 수백만 중소농민의 협동화의 길, 낮은 리자의 신용대부제로 국가의 원조를 받는 대중적협동조합이 농촌에서 발전되는 길을 밟아나가게 될것이다. 레닌이 협동조합에 관한 여러 론문에서 정당하게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농업은 반드시 새로운 길, 협동조합을 통하여 대다수 농민을 사회주의건설사업에 끌어들이는 길, 집단주의의 원칙을 농업에, 처음에는 농산물의 판매면에, 그다음에는 농산물의 생산면에 점차 도입하는 길을 밟아 발전해나아가야 할것이다.…

대다수 농민이 사적자본주의의 대령지와 임금노예제의 길, 빈궁파멸의 길을 버리고 이러한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나서리라는것은

구태여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①

이 두 명제는 옳은가?

나는 이 두 명제가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 있는 우리의 전반 건설기에 대하여 옳은것이며 또한 론쟁할 여지가 없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명제는 무산계급과 농민의 결합, 나라의 사회주의적발전의 체계에의 농민경제의 인입, 그리고 무산계급이 기본농민대중과 함께 사회주의로 향하여 전진하여야 한다는것, 수백만 농민대중을 협동화하는것이 농촌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대로로 된다는것, 우리 나라 사회주의적공업이 발전하는 조건하에서 《다만 협동조합의 발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사회주의의 발전과 동일하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96페지를 보라.)②는것 등에 대한 레닌의 유명한 테제를 표현한것일따름이다.

그러면 우리 나라 농민경제의 발전은 어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 반드시 나아가야 할것인가?

농민경제는 자본주의적경제가 아니다. 농민경제는 농호의 압도적다수를 놓고본다면 소상품경제이다. 그러면 소상품적인 농민경제란 어떠한것인가? 이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갈림길에 서있는 경제이다. 이 경제는 현재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진행되고있는것과 같이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발전될수도 있으며 또 우리 나라에서 즉 무산계급독재하에서 그것이 반드시 진행되여야 하는것과 같이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발전할수도 있다.

---

① 이 책, 297페지와 299~300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7페지를 보라.—편집자

무엇때문에 농민경제의 이러한 동요성과 의존성이 생기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농민경제가 분산되여있고 조직되여있지 못하며 도시, 공업, 신용제도 및 국가정권의 성격에 의존되여있으며 끝으로 농촌은 물질적 및 문화적 면에서 도시의 뒤를 따라가며 또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일반이 다 아는 사정에 있는 것이다.

농민경제의 자본주의적발전로정이란 한 극에는 대농장 다른 한 극에는 대중적빈궁화가 생기는 농민의 혹심한 계급분화를 거쳐서 발전하는것이다. 이러한 발전로정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필연적인것이다. 그것은 농촌과 농민경제가 도시, 공업, 도시에 집중된 신용제도, 정권의 성격 등에 의존하고있으며 또 도시에서는 자산계급, 자본주의적공업, 자본주의적신용제도, 자본주의적국가정권이 지배하고있기때문이다.

도시가 전혀 다른 면모를 가지고있으며 공업이 무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여있으며 운수, 신용제도, 국가정권 등이 무산계급의 수중에 집중되여있으며 토지의 국유화가 국내의 전반적법규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농민경제가 반드시 그러한 길로 발전되여야 할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그와는 정반대이다. 바로 도시가 농촌의 지도자이며 또한 우리 나라의 도시에서는 자기 수중에 인민경제의 모든 명맥을 잡고있는 무산계급이 지배하고있으므로 농민경제는 그의 발전에 있어서 다른 길 즉 사회주의건설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야 할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길인가?

그것은 모든 협동조합의 방법을 통하여 수백만의 농호들을 대중적으로 협동화하는 길이며 분산된 농호들을 사회주의적공업의 주위에 결속시키는 길이며 처음에는 농산물의 판매와 농호들에 대한 도시제품의 공급면에서 그다음에는 농산물

생산면에서 농민속에 집단주의적원칙을 도입하는 길이다.

그리고 무산계급독재의 환경하에서 이 길은 갈수록 더욱 더 불가피한 길로 된다. 왜냐 하면 판매면에서의 협동화, 공급면에서의 협동화, 마지막으로 대부 및 생산 면에서의 협동화(농업협동체)는 농촌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유일한 길이며 광범한 농민대중을 빈궁과 령락으로부터 건져내는 유일한 수단으로 되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농민은 그 처지로 보아 비사회주의적이며 또 그런 까닭에 그들은 사회주의길로 발전할수 없다고 말들 한다. 농민이 그 처지로 보아 비사회주의적이라는것은 물론 옳다. 그러나 이것은 농촌이 도시의 뒤를 따라가며 또한 도시에서는 사회주의적공업이 지배하고있다는것이 증명된 이상 농민경제가 사회주의의 길로 발전하지 못하는 론거로는 되지 않는다. 10월혁명당시에도 농민은 역시 그 처지로 보아 사회주의적이 아니였으며 또한 그들은 국내에 사회주의를 수립하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당시 주로 지주의 정권을 청산하고 전쟁을 끝내며 평화를 확립하려고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 사회주의적무산계급의 뒤를 따라갔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자산계급을 전복하는것과 사회주의적무산계급이 정권을 잡는것이 당시 제국주의전쟁으로부터 해탈하는 유일한 길이였으며 평화를 수립하는 유일한 길이였기때문이다. 그때에는 이밖에 다른 길이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었기때문이다. 그때에 우리 당은 농민의 특수한 리익(지주를 전복하고 평화를 확립하는것)을 국가의 공동리익(무산계급독재)에 련결시키며 전자를 후자에 복종시키는 책도 즉 농민에게 적합하며 또한 유리한것으로 되는 그러한 책도를 알아내였으며 발견하여냈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농민은 그가 비사회주의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사회주의적무산계급의 뒤를 따

라갔던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대하여, 그 건설의 궤도로 농민을 끌어들이는데 대하여서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말하여야 할것이다. 농민은 그 처지로 보아 비사회주의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주의적발전의 길에 들어서야 할것이며 또 한 반드시 들어설것이다. 왜냐 하면 농민을 빈궁과 령락으로부터 구원하는 길은 무산계급과의 련계외에는, 사회주의적공업과의 련계외에는, 농민경제를 농민의 대중적협동화를 거쳐서 사회주의적발전의 전반적궤도로 끌어들이는것외에는 다른 길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기때문이다.

어째서 농민의 대중적협동화를 거쳐야만 되는가?

그것은 대중적협동화에서, 농민에게 적합하고 유리하며 사회주의건설사업에 기본농민대중을 끌어들일 가능성을 무산계급에게 보장하여주는 그러한 《사적리익, 개인상업적리익과 국가에 의한 그 검열 및 통제와를 결부시킬 척도, 이 리익을 공동리익에 복종시킬 척도를 우리는 이미 발견하였기때문이다》.(레닌)① 바로 농민에게는 협동조합을 거쳐서 자기의 상품을 판매하며 자기의 농장에 기계를 공급받는것이 유리하기때문에, 바로 그렇기때문에 농민은 대중적협동화의 길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며 또 나아가게 될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적공업의 령도하에서의 농민경제의 대중적협동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소상품적농민경제가 농민의 대중적령락을 초래하는 낡은 자본주의적길로부터 떨어져나와 발전의 새길 즉 사회주의건설의 길로 넘어가는것을 의미한다.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2페지를 보라.—편집자

바로 그렇기때문에 농민경제발전의 새길을 위한 투쟁 즉 사회주의건설사업에 기본농민대중을 끌어들이기 위한 투쟁은 우리 당의 당면과업으로 나서고있다.

그러므로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회가 다음과 같이 결정한것은 옳은것이다.

《농촌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적인 길은 사회주의적 국영산업, 국가신용기관 및 무산계급의 수중에 있는 기타 경제명맥으로부터의 경제적지도가 점점 커지는 조건밑에서 협동조합조직의 자본주의적요소를 리용, 극복, 제거하면서 기본농민대중을 협동조합조직에 끌어들이며 이 조직을 사회주의길로 발전하도록 보장하여주는것이다.》(중앙위원회의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대회의 결의문을 보라.)①

《신반대파》의 가장 엄중한 오유는 그들이 농민발전의 이 새길을 믿지 않으며 무산계급독재의 조건하에서 이 길이 꼭 불가피적인 길이라는것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리해하지 못하는데 있다. 그런데 《신반대파》가 이것을 리해하지 못하는것은 그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믿지 않으며 또 사회주의길로 농민을 이끌고나아갈수 있는 우리 나라 무산계급의 능력을 믿지 않기때문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신경제정책의 이중성을 리해하지 못하며 신경제정책의 부정적면을 과대평가하며 또한 신경제정책을 주로 후퇴라고 보게 되는것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우리 나라 경제의 자본주의적요소들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발전의 공간(사회주의적 공업, 신용제도, 협동조합, 무산계급정권 등)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게 되는것이다.

---

① 《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정서집》, 1956년 인민출판사판, 제3분책, 80페지를 보라.—편집자

이로부터 그들은 우리의 국영공업의 사회주의적성격을 리해하지 못하고 레닌의 협동조합계획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는것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농촌에서의 계급분화를 과장하며 부농앞에서 당황해하며 중농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며 중농과의 공고한 동맹을 보장하려는 당의 정책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당의 농촌정책문제에서 동요하게 되는것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공업과 농업의 건설, 협동조합과 쏘베트의 활동의 강화, 국가의 관리, 관료주의와의 투쟁 및 우리의 국가기관의 개선과 개조를 위한 투쟁에 수백만의 로동자 및 농민 대중을 끌어들이는 당의 거대한 사업 즉 새로운 발전단계를 표시하는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그 어떤 사회주의건설도 상상할수 없는 그러한 당의 거대한 사업을 리해하지 못하게 되는것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우리 나라 건설사업상의 난관앞에서 실망하며 당황해하며 우리 나라의 공업화의 가능성을 의심하며 당이 변질하고있다느니 뭐니 하게 되는것이다.

그들 자산자들에게서는 모든것이 다소나마 잘되고있으나 우리 무산자들에게서는 다소나마 잘되고있지 못하다는것, 만일 서방에서 혁명이 제때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은 잘못되고만다는것—이러한것이 《신반대파》의 전반적론조이다. 이것은 내 보기에는 취소파의 론조인듯한데 반대파는 무엇때문인지(아마도 자신을 위안하기 위해서 그러는 모양이다.) 이것을 《국제주의》로 내세우고있다.

반대파는 신경제정책을 자본주의라고 말한다. 지노위예브는 신경제정책을 주로 후퇴라고 말한다. 물론 이 모든것은 다 옳지 못하다. 사실상 신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요소와 자본주의적요소와의 투쟁을 허용하며 또한 자본주의적요소에 대한

사회주의적요소의 승리를 예견한 당의 정책인것이다. 사실상 신경제정책은 후퇴로써 시작되였을뿐이며 그것은 후퇴행정에서 력량을 재편성하여 공격을 진행하는것을 타산한것이다. 사실상 우리는 벌써 몇해동안이나 공격하고있다. 우리의 공업과 쏘베트상업을 발전시키며 사적자본을 몰아내면서 성과있게 공격하고있다.

그런데 신경제정책은 자본주의이며 신경제정책은 주로 후퇴라고 하는 테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테제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하고있는가?

이 테제는 우리 나라에서 지금 자본주의의 부활, 자본주의의 《복구》가 진행되고있다는 옳지 못한 추측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바로 이런 추측으로 하여 반대파는 우리 공업의 사회주의적성격에 대하여 의심할수밖에 없는것이다. 바로 이러한 추측으로 하여 반대파는 부농앞에서 당황해할수밖에 없는것이다. 바로 이런 추측으로 하여 반대파는 농민의 계급분화에 대한 부정확한 수자에 급급히 매달릴수밖에 없는것이다. 바로 이런 추측으로 하여 반대파는 중농이 우리 나라에서 농업의 중심인물이라는것을 특히 망각할수밖에 없는것이다. 바로 이런 추측으로 하여 중농의 비중을 파소평가하며 레닌의 협동조합계획을 의심할수밖에 없는것이다. 그리고 오직 이러한 추측으로써만 농촌발전의 새길 즉 사회주의건설에 농촌을 끌어들이는 길을 믿지 않는 《신반대파》의 견해를 《론증》할수 있는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자본주의가 부활되는 일면적과정이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주의의 발전의 량면적과정이 진행되고있으며 사회주의적요소와 자본주의적요소가 서로 투쟁하는 대립적과정, 사회주의적요소가 자본주의적요소를 극복하여나아가는 과정이 진행되

고있다. 이것은 국영공업이 사회주의의 토대로 되여있는 도시에서나 또는 사회주의적공업과 련결되여있는 대중적협동조합이 사회주의적발전의 기본거점으로 되여있는 농촌에서나 할것없이 다 론쟁할 여지가 없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정권이 무산계급정권이며 대공업이 무산계급의 수중에 있으며 운수업 및 신용업이 무산계급국가의 지배하에 있다는 그것만으로써도 자본주의의 단순한 부활은 불가능한것이다.

농촌에서의 계급분화는 이전과 같은 규모로 진행될수 없으며 중농은 기본농민대중으로 남아있지만 부농은 이전과 같은 힘을 가질수 없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토지가 국유화되였고 매매될수 없으며 또한 우리 나라의 상업, 대부, 조세 및 협동조합 정책이 부농의 착취자적욕망을 제한하며 광범한 농민대중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농촌의 량극대립을 없애는 방향에서 진행되고있는것만으로써도 그러하다. 나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부농과의 투쟁이 단지 낡은 로선 즉 빈농을 조직하여 부농을 반대하는 로선에 따라 진행되고있는것이 아니라 새 로선 즉 무산계급과 빈농의 중농대중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부농을 반대하는 로선에 따라 진행되고있다는데 대해서는 더 말하려 하지 않는다. 반대파는 이 둘째 로선에 의한 부농과의 투쟁의 의의와 역할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반대파가 농촌발전의 낡은 길로 즉 부농과 빈농이 농촌에서 기본력량으로 되여있었고 중농은 《도태》되고있였던 농촌의 자본주의적발전의 길로 전락하고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증명하는 것이다.

반대파는 레닌의 론문 《현물세에 관하여》①를 인용하면서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503~540페지를 보라.—편집자

협동조합은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반대파는 협동조합을 사회주의적발전의 기본거점으로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믿지 않는다. 반대파는 이 문제에서도 가장 큰 오유를 범하고있다. 협동조합을 그렇게 해석하는것은 《현물세에 관하여》가 저술되였던 때인, 우리 나라에 발전된 사회주의적공업이 없었으며 레닌이 국가자본주의를 우리의 경제사무의 가능한 기본형으로 생각하였으며 협동조합을 국가자본주의와 결부시켜 관찰하던 때인 1921년에는 충분한것이였으며 또한 만족한것이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해석은 이미 불충분하며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것으로 되였다. 왜냐 하면 그때로부터 시기는 변하였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은 발전되였고 국가자본주의는 예기하던바와 같은 그러한 정도로 자라나지 못하였으며 지금 1,000만명이상의 조합원을 망라하고있는 협동조합은 사회주의공업과 련계를 맺게 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서는 《현물세에 관하여》가 발표된지 2년 후인 1923년에 와서 레닌은 《협동조합은 우리 나라 조건하에서는 언제나 사회주의와 완전히 일치하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96페지를 보라.)①고 인정하면서 협동조합을 달리 고찰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이 두해동안에 사회주의공업이 장성하였지만 국가자본주의는 응당한 정도로 자라나지 못하였기때문에 레닌은 협동조합을 이미 국가자본주의와 결부시켜 고찰하지 않고 사회주의 공업과 결부시켜 고찰하지 않았던가?

협동조합이 발전하는 제 조건이 변하였다. 협동조합에 관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6페지를 보라.—편집자

한 문제를 취급하는 방법도 또한 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레컨대 레닌의 소책자 《협동조합에 관하여》(1923년)중에서 이 문제를 천명한 하나의 유명한 구절은 다음과 같다.

《국가자본주의하에서는① 협동조합기업체는 첫째로 사적기업체인 점에서, 둘째로 집단적기업체인 점에서 국가자본주의적기업체와 구별된다. 우리 나라의 현존제도하에서는① 협동조합기업체는 집단적인 점에서 자본주의적사적기업체와 구별되지만 그러나 만일 그것이 토지와 생산수단이 국가 즉 로동계급에 속하는 조건에서 세워진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적기업체와 구별되지 않는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96페지를 보라.)②

이 짤막한 인용문에서 두가지 큰 문제가 해결되였다. 첫째로 《우리 나라의 현존제도》는 국가자본주의가 아니라는것이며 둘째로 《우리 나라의 제도》와 결부시켜 관찰한 협동조합기업체는 사회주의적기업체와 《구별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보다 더 명백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레닌의 이 소책자에서 또 한구절을 인용하자.

《협동조합의 단순한 장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의 장성과 동일하며(상술한 《대수롭지 않은》 례외는 있지만) 따라서 사회주의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전체가 근본적으로 변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우와 같음.)③

소책자 《협동조합에 관하여》에서는 분명히 협동조합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를 내리였는데 《신반대파》는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또한 사실에 반하여, 명확한 진리에 반하여,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6페지를 보라.—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687페지—편집자

레닌주의에 반하여 그것을 극력 묵살하고있다.

국가자본주의와 결합된 협동조합과 또 사회주의공업과 결합된 협동조합은 서로 다른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현물세에 관하여》와 《협동조합에 관하여》라는 소책자사이에 심연이 가로놓여있다는 결론을 지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결론은 물론 그릇된것이다. 협동조합을 평가하는 문제에서 《현물세에 관하여》와 《협동조합에 관하여》라는 소책자사이에 불가분의 련관이 있는것을 즉시로 찾아내기 위하여서는 례컨대 《현물세에 관하여》에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만 인용하더라도 충분할것이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다.

《리권으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대규모생산의 한 형태로부터 대규모생산의 다른 한 형태에로의 이행이다. 소경영자들의 협동조합으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소생산으로부터 대규모생산에로의 이행이다. 즉 이 이행은 일층 착잡하나 그대신 일단 성공하는 경우에는 일층 광범한 주민대중을 포괄할수 있으며 또 전사회주의적인① 낡은 관계들의 일층 깊고 생활력이 왕성한 뿌리를, 아니 일체의 〈혁신〉을 반대하는 점에서의 가장 완고한 전자본주의적인 낡은 관계들의 뿌리까지도 뽑아버릴수 있는 이행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337페지를 보라.)②

이 인용문에서 보다싶이 레닌은 우리 나라에 아직 발달된 사회주의공업이 없던 때인, 《현물세에 관하여》를 저술하던 당시에 이미 협동조합을 성공하는 경우에는 《전사회주의적》관계에 대한 따라서 자본주의적관계에 대한 투쟁의 강력한 수단으로 전화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나는 이 사상이야말로 나중에 《협동조합에 관하여》라는 레닌의 소책자의 출발점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 .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523페지를 보라.—편집자

으로 되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모든것으로부터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이로부터 《신반대파》는 협동조합문제를 맑스주의적으로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취급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신반대파》는 협동조합을 다른 현상들과 결부된 즉 이를테면 국가자본주의(1921년)나 혹은 사회주의적공업(1923년)과 결부된 력사적현상으로 간주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고정불변한 것으로, 《사물자체》로 간주하고있다.

그러므로 반대파는 협동조합문제에서 오유를 범하였고 그러므로 그들은 농촌이 협동조합을 거쳐서 사회주의에로 나아갈수 있다는것을 믿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낡은 길 즉 농촌의 자본주의적발전의 길로 전락된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각종 실천적문제에 대한 《신반대파》의 견해는 대체로 이러하다.

결론은 하나뿐이다. 즉 반대파의 로선(그들에게도 로선이 있다면), 반대파의 동요와 방황, 우리 사업에 대한 그들의 불신과 난관앞에서의 당황실색—이러한것은 우리 나라 경제의 자본주의적요소들에 대한 항복을 초래하게 된다.

왜냐 하면 만일 신경제정책이 주로 후퇴이며 만일 국영공업의 사회주의적성격이 의심스러운것이며 만일 부농이 거의 전능하며 협동조합은 희망이 적으며 중농의 역할은 점차 저락되여가며 농촌발전의 새길이 의심스러우며 당은 거의 변질되고있으며 서방의 혁명은 아직도 그리 가깝지 않다면—모든것이 그렇게 된다면 대체 반대파의 무기고에는 무엇이 남게 될것인가? 그리고 그들은 우리 나라 경제의 자본주의적요소와의 투쟁에서 무엇을 믿으려고 하는가? 《시대의 철학》118 그 하나

만으로는 전투를 할수 없는것이다.

《신반대파》의 무기고는 만일 그것을 무기고라고 부를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잘것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이 무기고는 투쟁을 위한것이 아니며 더구나 그것은 승리를 위한것이 아니다.

만일 당이 그러한 무기고를 믿고 싸움을 한다면 《순식간에》 패망할것이며 우리 나라 경제의 자본주의적요소들앞에 그저 항복하고말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제14차당대회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위한 투쟁은 우리 당의 기본과업으로 된다.》는것, 이 과업의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중의 하나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사업에 대한 불신적태도와 싸우며 〈철저한 사회주의형〉(레닌)의 기업체인 우리의 기업체를 국가자본주의적기업체로 보려는 시도와 투쟁하는것》이라는것, 《이러한 사상적조류는 대중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는 사회주의건설, 특수적으로는 사회주의적공업건설에 대하여 자각적태도를 취할수 없게 하며 따라서 다만 사회주의적경제요소의 장성을 방해할뿐이며 또한 사적자본이 사회주의적경제요소와 투쟁하는것을 용이하게 할 따름》이라는것, 《그러므로 대회는 레닌주의에 대한 이러한 외곡을 극복하기 위하여 광범한 교양사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것을 결정한것은 전적으로 옳은것이였다.(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결정서를 보라.)①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회의 력사적의의는 이 대

---

① 《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정서집》, 1956년 인민출판사판, 제3분책, 77페지와 79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회가 《신반대파》의 오유를 철저히 폭로하였으며 《신반대파》의 불신과 우는소리를 집어던지고 사회주의를 위한 앞으로의 투쟁의 길을 명백히 지적하였으며 당에 승리의 전망을 주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무산계급을 무장시킨데 있다.

1926년 1월 25일

1926년에 소책자로 간행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8권, 13～88페지

쏘련의 경제형편과 당정책에 대하여

(레닌그라드당조직열성자회의에서 한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전원회의119
사업에 관한 보고. 1926년 4월 13일)

동지들! 이제부터 보고를 시작하겠다.

우리 당 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의정에는 네가지 문제가 상정되여있다.

첫째 문제—우리 나라의 경제형편과 우리 당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둘째 문제—우리의 곡물수매기관들을 간소화하며 경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재편성할데 대하여.

셋째 문제—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기본문제들을 해결하는 견지에서 우리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전원회의의 1926년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할데 대하여.

넷째 문제—중앙위원회 비서 예브도끼모브를 다른 후보자 즉 슈웨르니크동지로 교체할데 대하여.

만일 비서를 교체할데 관한 이 마지막문제를 제외한다면 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토론의 중심으로 되였던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하나의 기본문제 즉 우리 나라의 경제형편과 당정책에 대한 문제에 귀착시킬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나의 보고에서 하나의 기본문제 즉 우리 나라의 경제형편에 대하여서만 언급하려고 한다.

1
신경제정책의 두 시기

우리의 정책을 규정하는 기본적사실은 우리 나라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신경제정책의 새시기, 즉 직접적인 공업화의 시기에 들어섰다는 그것이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치가 신경제정책을 선포한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나갔다. 그 당시 우리앞에, 당앞에 놓여있던 기본과업은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 상품류통이 확장된 조건하에서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를 구축하는것이였다. 이 전략적과업은 지금도 역시 우리의 기본과업으로서 우리앞에 놓여있다. 우리는 그때부터 즉 1921년부터 시작하여 신경제정책의 첫시기에 무엇보다도먼저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견지에서 이 기본과업을 취급하였다. 레닌동지는, 우리의 과업은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를 구축하는것인데 이와 같은 토대를 구축하려면 발달된 공업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 하면 공업은 사회주의 및 사회주의건설의 기초이며 시초이며 결말이기때문이다, 그런데 공업을 발전시키려면 농업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왜 그런가?

그것은 당시 우리가 처하여있던 그런 경제적혼란상태하에서 공업을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도먼저 공업을 위한 약간의 시장, 원료 및 식량상의 전제조건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기때문이다. 만일 국내에 원료가 없다면, 만일 로동자들을 위한 식량이 없다면 또 만일 우리 나라의 공업을 위한 기본시장으로 되는 어느 정도 발달된 농업이 없다면 공업을 빈터에서 발

전시킬수 없다. 따라서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전제조건을 가지고있어야 하였다. 즉 첫째로, 국내시장이 있어야 하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이 아직은 주로 농민시장이였다. 둘째로, 농업에서의 어느 정도 발전된 원료생산(사탕무우, 아마, 면화 등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였다. 셋째로, 농촌이 공업과 로동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일정한, 최소한의 농산물을 내여놓을수 있도록 되여야 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레닌은, 우리는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즉 공업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농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였던것이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다. 그 당시 이것을 특히 반대하여나선것은 소위 《로동자반대파》120였다. 어떻게 그럴리가 있겠는가, 우리 당은 로동자당이라고 불리우고있으면서 당은 경제발전의 사업을 농업으로부터 시작한다는것은 웬 일인가, 이것을 어떻게 리해하여야 한단 말인가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 당시 현실적가능성을 무시하고 공업을 아무런 조건하에서도 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도 건설할수 있다고 생각하던 다른 반대파들도 역시 이것을 반대하여다섰다. 그러나 지나간 시기의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의 력사는 당이 옳았다는것과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를 구축하려고 한다면, 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농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신경제정책의 첫시기는 이러하였다.

지금 우리는 신경제정책의 제2기에 들어섰다. 우리 나라 경제형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징적인것은 중심이 지금에 와서는 공업에로 넘어간 그것이다. 만일 신경제정책의 첫시기였던 그 당시에 전 인민경제의 발전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기때문에 우리가 농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면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를 계속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경제를 전반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바로 공업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만일 제때에 농기계, 뜨락또르 및 공업제품 등을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농업자체가 발전할수 없는 형편에 있다. 그러므로 만일 신경제정책의 첫시기인 그 당시에는 전체 인민경제발전이 농업에 의존하였다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공업의 직접적인 발전에 의존하게 되였으며 또 이미 의존하고 있다.

2
공업화의 방침

제14차당대회115가 선포하였으며 또 지금 실시중에 있는 나라의 공업화의 구호와 방침의 본질과 기본적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금년 4월 중앙위원회전원회의는 이 기본구호를 자기 사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따라서 지금 당면한 기본과업은 우리 나라의 공업발전속도를 촉진시키며 현존하는 자원을 리용하여 우리 나라의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전반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는것이다.

이 과업이 바로 지금에 있어서, 현지기에 있어서 특히 긴절한 성격을 띠게 된것은 기실 다음과 같은 리유에서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경제가 일정하게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도시와 농촌에서의 공업제품에 대한 수요와 공업측으로부터의 이 제품의 공급과의 사이에 얼마간의 불일치가 조성되였기때문이며 공업제품에 대한 수요가 공업자체보다 급속히 장성하

고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현재의 상품기근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들이 이 불일치의 표현이며 그 결과이다. 우리 나라 공업의 급속한 발전이 이 불일치를 퇴치하며 상품기근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미더운 수단으로 된다는것은 구태여 증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일부 동지들은, 공업화라는것은 대체로 온갖 공업의 발전을 말하는것으로 생각하고있다. 지어는 그 어느때엔가 공업의 맹아를 약간 싹트게 한 이완뢰제도 역시 공업화주의자의 한사람이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괴상한 사람들까지도 있다. 만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뾰뜨르대제는 첫 공업화주의자라고 불러야 할것이다. 이것은 물론 옳지 않다. 어떠한 공업발전이든지 그것이 죄다 공업화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공업화의 중심, 그 기초는 중공업(연료, 금속 등등)의 발전에 있으며 결국은 생산수단의 생산을 발전시키는데 있으며 자국의 기계제작업을 발전시키는데 있는것이다. 공업화는 우리 나라 인민경제 내부에서의 공업의 비률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인민경제전체를 이끌어가는것만을 자기의 과업으로 삼는것이 아니라 그 발전에 있어서 자본주의국가들에 포위되여있는 우리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보장하여주며 세계 자본주의의 부속물로 될 위험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수호하는 과업을 또한 가지고있는것이다. 자본주의의 포위속에 처하여있는 무산계급독재의 나라는 만일 그가 자국내에서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면, 만일 그가 자기의 인민경제를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생산하며 이를 수출하는 자본주의적으로 발달된 나라들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게 하는 그러한 발전단계에 머물러있게 한다면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없다. 이러한 단계에 머물러있다는것은 자국을 세계자본에 예속시킴을 의미한다.

인도를 들어보자. 인도가 식민지인것은 다 아는 사실아

다. 인도에는 공업이 있는가? 물론 있다. 그 공업이 발전하고 있는가? 그렇다, 발전하고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생산하지 않는 그런 공업이 발전하고있다. 인도에서는 생산도구를 영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있다. 그러므로 (이때문에만이 아닌것은 물론이지만) 인도에서는 공업이 전적으로 영국의 공업에 예속되고있다. 이것은, 식민지들에 공업을 발전시키되 그것이 종주국에, 제국주의에 얽매여있도록 그렇게 발전시키는 제국주의의 특별한 방법이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우리 나라의 공업화가 온갖 공업의 발전 떼컨대 경공업의 발전—비록 경공업과 그 발전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기는 하지만—으로써는 다될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것은 공업화란 우선 우리 나라에서의 중공업의 발전, 특히 공업일반의 중추신경으로 되는 우리 나라 자신의 기계제작업의 발전으로 리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운운할수도 없다.

3
사회주의적축적의 제 문제

그러나 동지들, 공업화를 추진시키자면 우리 나라 공장들의 낡은 시설을 갱신하며 새 공장들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지금 처하여있는 우리 공업발전기의 특징은 짜리시대의 자본가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낡은 공장들을 우리가 이미 전부 리용하였으므로 이제 더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기술을 개선하며 낡은 공장들을 재장비하며 새 공장들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데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전진할

수 없다.

동지들, 그러나 새 기술에 기초하여 우리 공업을 갱신하려면 거액의, 아주 거액의 자본이 요구된다. 그런데 동지들이 다 알고있다싶이 우리에게는 자본이 적다. 금년도에 우리가 주요한 사업인 공업기본건설에 투자할수 있는 금액은 8억루블 남짓할것이다. 이것은 물론 적은 금액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쨌든 얼마쯤의 일을 할수 있는 금액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나라 공업에 대한 처음으로 되는 거액의 투자이다. 내가 이것을 적다고 말하는것은 우리 나라 공업이 이 금액보다 몇배나 더 많은 금액을 헐하게 삼킬수 있다는 리유에서이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공업을 될수 있는대로 급속도로 증대시키며 로동자의 수효를 2배, 3배로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농업국으로부터 공업국으로 전화시켜야 한다. 그것도 빨리하면 할수록 좋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을 위하여서는 거액의 자본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공업발전을 위한 축적문제, 사회주의적축적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우리는 자체로, 외국에서 차관을 받지 않고 우리 나라 자체의 힘으로 공업화방침의 실시와 또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에 필요한 축적과 예비를 우리 공업에 보장해줄수 있는가?

이것은 특히 주목할만한 중대한 문제이다.

력사에는 여러가지 공업화방법이 있었다.

영국은 수십수백년동안 식민지들을 략탈하여 거기에서 《추가》자본을 긁어모아가지고 이것을 자국의 공업에 투자하여 자국의 공업화속도를 촉진시킴으로써 공업화를 하였던것이다. 이것은 공업화의 한가지 방법이다.

독일은 19세기 70년대에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결

과 프랑스사람들에게서 50억프랑의 배상금을 받아 그것을 자국공업에 투자함으로써 자국의 공업화를 촉진시켰다. 이것은 공업화의 둘째 방법이다.

우리로서는 이 두가지 방법을 취할수 없다. 왜냐 하면 우리는 쏘베트국가이기때문이며 또 식민지적략탈과 략탈의 목적을 가진 군사적강점은 쏘베트정권의 본질과 량립할수 없기때문이다.

로씨야는 즉 구로씨야는 노예적인 리권을 주고 노예적인 차관을 받아가지고 점진적으로 공업화의 길에 나서려고 애썼다. 이것은 셋째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예의 길 또는 반노예의 길이며 로씨야를 반식민지로 만드는 길이였다. 이 길도 역시 우리는 취할수 없다. 왜냐 하면 우리가 모든 외국무력간섭자들을 모조리 격퇴하면서 3년간의 국내전쟁을 진행한 것은 결코 우리가 외국무력간섭자들을 승리한후에 자진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기 위한것은 아니였기때문이다.

남아있는것은 공업화의 네번째 길인바 이것은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체축적의 길이며 레닌동지가 우리 나라의 공업화의 유일한 길이라고 여러 번 지적한 사회주의적축적의 길이다.

그러면 사회주의적축적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를 공업화하는것은 가능한가?

공업화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그런 축적원천이 우리에게 있는가?

물론 가능하다. 물론 우리 나라에는 이와 같은 원천이 있다.

나는 10월혁명의 결과에 우리 나라에서는 지주와 자본가를 수탈하였으며 또 토지, 공장 등등에 대한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그것을 전인민적소유로 넘겨준 그런 사실을 들수 있다.

이 사실이 축적의 아주 믿음직한 원천으로 된다는것은 구태여 증명할 필요도 없다.

나는 다음으로 우리 인민경제의 부담에서 수십억루블의 부채를 제거하여버린 짜리시대의 부채를 취소한 사실을 들수 있다. 이 부채를 그대로 남겨두었더라면 우리는 리자만 하더라도 매년 수억루블씩 갚게 됨으로써 공업에 손해를 주며 우리 나라 전체 인민경제에 손해를 주게 되였으리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사태가 우리의 축적사업을 대단히 용이하게 하였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또한 우리의 국유화된 공업을 지적할수 있다. 이 공업은 이미 복구되여 발전중에 있으며 또 공업의 금후발전에 필요한 얼마쯤의 리윤을 주고있다.이것도 역시 축적원천이다.

나는 약간의 리윤을 가져다줌으로써 축적의 한 원천으로 되여있는 우리의 국유화된 대외무역을 지적할수 있다.

역시 일정한 리윤을 냄으로써 축적의 한 원천으로 되여있는 어느 정도 조직된 우리 나라의 국내국영상업을 들어 말할수 있다.

일정한 리윤을 내면서 힘자라는대로 우리의 공업을 먹여 살리는 우리의 국유화된 은행기관과 같은 그런 축적의 원동력을 지적할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예산을 지배하며 또 전반 인민경제, 특히는 우리 나라 공업의 금후발전을 위하여 약간의 자금을 축적하고있는 국가정권과 같은 그런 무기를 우리는 가지고있다.

우리 나라의 내부축적의 주요원천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하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의 공업화에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예비를 조성할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고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그러나 동지들, 가능성이란 아직 현실성을 말하는것은 아니다. 사업을 솜씨있게 처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축적의 가능성과 현실적인 축적간에 상당히 큰 간격이 생길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가능성 하나만을 믿고 안심할수는 없다. 우리가 만일 우리 나라의 공업에 필요한 예비를 조성할것을 진심으로 생각하고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회주의적축적의 가능성을 현실적인 축적으로 전화시켜야 할것이다.

여기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즉 축적을 공업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가? 축적의 가능성을 현실적인 사회주의적축적으로 되게 하려면 우리가 우선 경제생활의 어느 고리를 틀어잡아야 할것인가?

축적에는 여러가지 방도가 있는바 그중에서 적어도 주요한것으로는 다음과 같은것들을 들어야 한다.

첫째, 국내에서 축적의 여유분이 분산되지 말고 우선 공업의 요구에 리용되게끔 우리의 협동조합계통과 국영계통의 신용기관들에 집중되도록 하며 또 국내공채를 발행함으로써 집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금자들이 이에 의하여 반드시 일정한 리자를 받게 될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이 분야에서의 우리의 사업이 어느 정도 괜찮게 진행되였다고는 말할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신용기관망을 개선하는 과업, 주민들속에서 신용기관들의 위신을 높이는 과업, 국내공채를 발행하는 과업 등이 당면한 과업으로서 우리앞에 제기되여있으니만큼 우리는 이 과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 국내에서 축적의 여유분의 일부가 사회주의적축적에 손해를 주면서 사인자본의 주머니로 새여들어가는 길과 틈을 전부 엄밀히 막아치워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간의 현저한 차이를 감소하는 가격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축적의 여유분이 사적경영자의 주머니로 새여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며 또는 적어도 그것을 최소한에 이르게 하려면 공업제품과 농산물에 대한 소매가격을 인하시키는 모든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우리 경제정책의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것은 여기로부터 우리의 축적사업과 체르워네쯔121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위험이 생겨나오기때문이다。

셋째, 공업자체내에서, 그의 각 부문에서 기업소의 감가상각을 위하여, 기업소의 확장을 위하여, 기업소의 장차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예비금을 축적해두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불가피하며 절대로 필요한 사업인바 이 사업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넷째, 온갖 종류의 불의의 사건(흉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며 공업을 먹여살리며 농업을 후원하며 문화를 발전시키는 등등에 필요한 일정한 예비를 국가의 수중에 축적하여두어야 한다。 지금에 와서는 예비가 없이는 살아나갈수 없으며 사업할수 없다。 지어 소경영농민조차도 지금은 일정한 예비가 없이는 유지해나갈수가 없다。 더우기 거대한 국가는 예비가 없이는 유지해나갈수가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도먼저 대외무역에서 예비를 가지고있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수출입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외무역면의 일정한 예비와 일정한 수출초과액이 국가의 수중에 남아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실로 국외시장에서의 불의의 사건을 예방함에 필요할뿐만아니라 또한 지금은 아직 안전상태에 있지만 만일 우리가 대외무역에 있어서 바란스가 수출초과로 되지 않는다면 동요할수 있는 우리의 체르워네쯔를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필요한것이다。 우리의 수출을 강화하여 우리의 수입을 수출능력에 순응시키는것이 바로 우리의 과업이다。

우리는 이전에 말하던것처럼 《자기자신은 굶더라도 수출은 해야 된다.》라고는 말할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수 없는것은 로동자들과 농민들이 사람답게 먹고살기를 원하는 까닭이며 또 우리도 이 면에서 그들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인민의 소비에 손해를 주지 않게끔 우리의 수출을 증가시키며 일정한 외화예비가 국가의 수중에 남아있도록 하는 모든 대책을 취할수 있을것이다. 우리가 1923년도에 쏘베트지폐로부터 확고한 본위화폐로 넘어갈수 있었다는 그것은 특히 그 당시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이 수출초과를 보게 된 결과에 우리가 일정한 외화예비를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체르워네쯔를 유지하려고 원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 체르워네쯔의 토대의 하나로 되는 외화예비가 우리의 수중에 남아있도록 대외무역을 운영하여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국내상업에서 약간의 예비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나는 농산물가격을 지나치게 끌어올리고있는 부농과 기타 곡물투기업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목적으로 곡물시장일에 간섭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비곡물을 가지고있도록 하는것을 주로 념두에 두고 말하는것이다. 이것은 비록 공업중심지들에서 생활비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며 로동자들의 로임을 저락시키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납세의 부담을 유산자층에 전가하면서 동시에 국가예산면에 있어서 일정한 예비를 국가가 가지고있도록 하는 그런 세납정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우리의 40억루블의 국가예산의 집행행정은 우리가 예산수입을 예산지출보다 1억루블 혹은 그이상 더 초과하게끔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어떤 동지들에게는 이 수자가 방대한것으로 생각될것이다. 그러나 이 동지들의 시야는 보건대 좁은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우리 나라와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1억루블 정도의 예비금이란것이 창해일속과도 같다는것을 깨달았을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비가 우리에게는 전혀 요구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금년에 흉작이나 혹은 어떤 다른 재난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누구의 자금을 가지고 이것을 모면할 작정인가? 어느 누구도 지금은(물론 앞으로도) 우리를 거저 도와주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자신의 예비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만일 금년도에 불의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예비를 인민경제에, 무엇보다도먼저 공업에 돌릴것이다. 근심하지 말라, 이 예비가 무익하게 없어지지는 않을것이다.

동지들, 나라의 공업화를 위하여 국내의 내부적축적의 가능성을 현실적인 사회주의적축적으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먼저 틀어쥐여야 할 우리 경제생활의 주요한 고리들은 대체로 이러하다.

4

축적의 옳바른 리용. 절약정책

그러나 문제는 다만 축적만으로써 다되는것이 아니며 또 다될수도 없는것이다. 또한 이 축적되고있는 예비를 합리적으로, 절약하여 사용함으로써 인민의 재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소비되지 말도록 하며 또 축적이 우리 나라의 공업화의 중요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기본방향에서 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없이는 우리는 축적된 자금을 절취당하거나 공업발전과 인민경제전체의 약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각종 대소지출에 그 자금을 랑비해버릴 위험성이 있는것이

다. 자금을 합리적으로 절약하여 사용할줄 안다는것은 단시일에는 될수 없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 우리의 쏘베트기관과 협동조합기관이 이 면에서 남달리 큰 능력을 가지고있다고는 말할수 없다. 그와 반대로 모든 자료들은 이 면에서 우리 사업이 아주 미숙하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동지들, 이것을 자인하기는 괴로운 일이나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결의문들로도 은폐할수 없는 사실인것이다. 우리의 관리기관들이 푼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보습을 고치고 자기의 운영을 개선할 대신에 커다란 축음기를 사들이며 그리하여…살림을 망쳐먹고만 그런 농민의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나는 축적된 예비를 당장 절취당하는 사실, 수다한 우리의 국가기관들이 랑비하는 사실, 또 도적질하는 사실 등등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축적을 랑비해버리지 않으며 절취당하지 않으며 쓸데없는 부문에 돌려지지 않으며 우리 나라 공업건설의 기본로선으로부터 리탈되지 않도록 방지할수 있는 일련의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첫째로, 우리의 공업계획을 관료주의적인 허구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상태와 또한 우리 나라의 자원 및 예비에 대한 타산과 밀접히 련관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공업건설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공업발전보다 뒤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농업과 유리되여 우리 나라에서의 축적의 속도를 무시하고 너무 앞질러나가도 역시 안된다.

우리 나라 국내시장의 요구와 우리의 자원의 규모—이것이 곧 우리 공업발전의 토대이다. 우리 나라의 공업은 국내시장에 립각하고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은 미국의 발전을 련상시킨다. 미국의 공업은 자기의 공업을 무엇보다도먼저 국외시장에 립각시키고있는 영국과는 달리 국내

시장의 로대우에서 발전시켰던것이다. 영국에는 약 40~50%가 국외시장을 위하여 일하는 일련의 공업부문들이 있다. 그와 반대로 미국은 아직도 자기의 국내시장에 립각하고있으며 국외시장으로는 자기 생산품을 10~12%를 넘지 않게 수출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공업은 미국의 공업보다도 훨씬 더 국내시장에, 특히 농민시장에 의존하게 될것이다. 이 점에 공업과 농민경제와의 련결의 기초가 있다.

우리 나라의 축적의 속도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의 공업발전에 필요한 우리의 예비에 대해서도 역시 이와 꼭같이 말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들가운데는 이따금 우리 나라의 자원을 타산함이 없이 환상적인 공업계획을 작성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이따금 일정한 최소한의 자금이 없이는 또 일정한 최소한의 예비가 없이는 공업계획을 작성할수도 없고 또 어떠한《대규모적이며》《광대한》기업소도 건설할수 없다는것을 망각하고있다. 그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앞질러나가고있다. 그런데 공업계획을 작성하는 사업에서 앞질러나간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자금에는 의거하지 않고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웅대한 계획에 대해서 떠들어대며 생산에 수천수만의 로동자들을 새로이 끌어들이면서 떠들썩하기는 하지만 일단 자금부족이 나타나게 되는 날에는 로동자들을 해산해고시킴으로써 거액의 손실을 보게 하며 건설사업에서 실망을 가지게 하며 정치적추태를 빚어낸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아니다, 동지들, 이러한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공업발전행정으로부터 뒤떨어질 필요도 없고 앞질러나갈 필요도 없다. 우리는 공업발전과 동일한 수준에 서서 나아가는것이 필요하며 우리는 공업을 그의 지반을 리탈시키지 않고 발전시키는것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공업은 전반 인민경제체계내에서 지도적요소이다. 그것은 농업도 포함한 우리 나라 인민경제를 이끌고있으며 앞으로 인도하고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전반 인민경제를 자기의 형태와 용모에 맞추어 재조직하며 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들을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인입하면서 농업을 인도하여나간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공업이 이러한 지도적 및 개조적 역할을 영예롭게 수행하자면 그것이 농업으로부터 유리되여있지 않으며 그것이 우리 나라의 축적의 속도, 우리의 수중에 있는 자원 및 예비와 유리되지 않는 경우에라야만 가능하다. 자기의 군대로부터 유리되여있으며 또 그와의 련계를 잃은 군대지휘관은 지휘관이라고 할수 없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전체 인민경제와 유리되여있으며 또 그와의 련계를 잃은 공업은 인민경제의 지도적요소가 될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정확하고 합리적인 공업계획의 수립은 축적을 타당하게 리용함에 있어서 필수적조건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둘째로, 우리의 국가기관과 협동조합기관, 우리의 인민위원부의 제 기관과 독립채산제기관들을 아래로부터 우에 이르기까지 간소화하며 건전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 관리기관들의 방대한 정원수와 류례없는 랑비현상은 대단히 평판이 좋지 못하다. 로동자들과 농민들은 우리 국가기관이 지나치게 비대하며 그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것을 견디여내지 못할것인즉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하여 축소하며 경제적으로 꾸려야 된다고 레닌이 수십수백번이나 되풀이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끝으로 이 사업에 본격적으로 볼쉐위크적으로 착수하며 엄격한 절약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박수) 끝으로 만일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의 축적이 분산되여 공업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업을 걷머지

여야 한다.

이제 여러분에게 생동한 례를 들어보이겠다. 우리의 곡물수출은 리익이 없으며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리익이 없는가? 그것은 곡물수매기관이 곡물수매사업에 과분한 금액을 소비하게 되기때문이다. 즉 우리의 모든 계획작성기관들은 한뿌드의 곡물수매에 8꼬뻬이까면 넉넉하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실지에 있어서는 한뿌드에 8꼬뻬이까를 소비할 대신에 13꼬뻬이까를 즉 5꼬뻬이까를 더 소비하였었다. 어째서 이렇게 되는가?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그렇게 된것이다. 즉 곡물수매를 담당한 어느 정도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일군들은 그들이 공산당원이건 비당원이건 할것없이 저마다 곡물수매사업에 착수하기도전에 먼저 자기 일군들의 정원수를 늘여야 할것이라고 보고 속기원과 타자수를 대량적으로 채용하였고 자동차를 반드시 비치하였으며 막대한 비생산적비용을 거듭 지출하다가 후에 가서 모든것을 회계하여본즉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수출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것이 드러나게 된것이다. 우리가 수억뿌드의 곡물을 수매함에 있어서 한뿌드에 5꼬뻬이까씩 더 지불하게 된다면 헛되이 소비된 금액이 수천만루블에 달하는셈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국가기관의 이런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엄격한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축적하고있는 자금은 바로 이렇게 헛되이 소비되며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이 소비될것이다.

나는 여기서 단 하나의 실례만을 들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례들이 우리에게 수백수천개나 있다는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우리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는 우리의 곡물수매기관을 간소화하며 경제적으로 꾸려나갈것을 결정하였다. 여러분은 아

마 전원회의의 해당결의①를 이미 다 읽어보았을것이다. 그것은 출판물에 발표되였다. 우리는 이 결의를 아주 엄격히 집행할것이다. 그러나 동지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국가기관이 가지고있는 무질서와 결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우리는 반드시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국가기관전체를 즉 인민위원부기관 및 독립채산제기관, 모든 협동조합기관과 모든 상품류통망을 아래로부터 우에 이르기까지 축소하며 경제적으로 꾸리도록 하는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관리기관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온갖 종류의 랑비와 또 최근에 우리에게서 볼수 있는 인민의 재산과 국가의 예비에 대한 범죄적행위를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에게서는 지금 각종 명절, 축하회, 기념일, 기념비제막식 등등과 관련된 먹자회와 주연이 사방에서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사업》에 수만수십만루블의 금액이 랑비되고있다. 우리에게는 여러 종류의 기념축하를 받을 사람들과 축하쟁이들이 대단히 많으며 또 6개월, 한돐, 두돐 등등을 기념하려는 준비를 굉장히 하는바 이런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참으로 수천만루블의 금액이 요구되는것이다. 동지들, 이러한 공산당원답지 않은 방자한 행동을 끝맺을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 공업의 요구를 등뒤에 지니고있으며 눈앞에는 수다한 실업자들과 고아들이 있는 사실을 목격하고있는것만큼 망탕 써버리는 이러한 먹자회와 이와 같은 주연을 허용할수 없으며 또 허용할 권리가 없다는것을 리해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의미심장한것은 비당원들가운데서 때로는 당

---

① 쏘련공산당(불쉐위크) 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 1926년 4월 9일에 채택한 《곡물수매기관을 조직하여 1926～1927년도 곡물수매운동을 전개할데 대하여》라는 결의를 가리킨다. —편집자

원들보다 우리 국가의 자금에 대하여 더 아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 공산당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대담하게 또 결단성있게 행동하고있다. 수익금이란 냄새도 나지 않는데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무원들에게 보조금을 내여주는것을 그는 식은죽먹기로 여긴다. 그는 법률을 무시하며 그것을 회피하며 그것을 위반하는것을 조금도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 비당원이 오히려 이 점에서 일층 더 조심하며 일층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이것은 아마도 공산당원이 때때로 법률, 국가 등등을 자기 집안일로 인정하고있다는것에 기인한다.(웃음) 바로 그렇기때문에 어떤 당원은 때때로 돼지처럼(동지들, 나의 이런 표현을 량해하라.) 국가의 남새밭에 뛰여들어가 거기서 도적질해먹거나 혹은 국가의것으로써 자선짐을 베푸는것을 그리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것이다.(웃음) 동지들, 이와 같은 추잡한 행위를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나라의 공업의 요구를 위하여 우리가 진심으로 축적하려고 원한다면 우리의 관리기관들과 우리의 생활에 있는 먹자회와 랑비현상을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벌리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로, 우리는 반드시 절도행위에 대하여 즉 우리 국가기관이나 협동조합이나 직업동맹 등등에 있는 소위 《유쾌》한 절도행위에 대하여 끊임없이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절도행위에는 수치스러워 은밀히 하는 절도행위도 있으며 또한 출판물에서 언급되고있는바와 같이 용감하고도 《유쾌》한 절도행위도 있는것이다. 얼마전에 나는 《공청동맹 쁘라우다》지[122]에서 《유쾌한》 절도행위에 대한 오꾸네브의 기사를 읽어보았다. 짤막한 수염을 기른 어떤 멋쟁이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우리의 어느 한 기관에서 유쾌하게 언제나 부단히 도적질을 하였으며 또 항상 도적질에 성공하여왔던 모양이다. 여기에서는

도적놈자신에 대해서보다도 주위에 있는 군중들이 도적놈을 알면서도 그와 투쟁하지 않았을뿐더러 도리여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를 재간있다고 칭찬하여주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때문에 도적놈은 군중가운데서 영웅으로 되여버렸다는 그 사실에 주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 동지들, 바로 이것은 주의를 돌려야 할 일이며 또한 이것은 무엇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간첩이나 변절자들을 붙잡으면 군중들은 몹시 분노하여 그자를 총살하자고 요구한다. 그런데 도적놈이 여러 사람들의 눈앞에서 국가재산을 절취하면서 횡행하고있어도 주위의 군중은 친절하게 웃어주거나 어깨를 두드려주는데 그치고있다. 그러나 인민의 재산을 절취하며 인민경제의 리익을 좀먹고있는 도적놈은 간첩이나 변절자와 같은것이지 결코 못하지 않다는것은 명백하다. 짤막한 수염을 기른 이 멋쟁이젊은이는 물론 결국 체포되였다. 그러나 이 《유쾌》한 도적놈 하나를 체포해서 무슨 의의가 있는가? 이와 같은 도적놈들은 우리 나라에 수백수천명이나 있다. 국가정치보안국의 노력만으로는 도적을 전부 다 없애버릴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진지한 다른 대책이 요구된다. 이 대책은 이러한 도적놈들의 주위에다 군중의 도덕적배척과 증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다. 이 대책은 도적질할 가능성을 제거하며 《유쾌》한것들이나 《불유쾌》한것들이나 할것없이 인민의 재산을 도적질하거나 절취하는놈들이 하나도 배겨날수 없게 하는 그런 운동을 일으키며 그런 도덕적분위기를 로동자들과 농민들 속에서 조성하는것이다. 도적질과의 투쟁은 우리의 축적을 절취로부터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것은 곧 우리의 과업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공장들에서 결근을 없애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우리 기업소들에서 로동규률을 강화하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결근으로 인하여 수만수십만의 로동일이 공업에서 잃어지게 된다. 이리하여 우리의 공업에 수십만수백만루블의 손해가 생기게 된다. 만일 결근이 퇴치되지 않고 로동생산능률이 한자리에 머물러있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업을 발전시킬수 없으며 로임을 높일수가 없다. 결근하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체 사업과 전체 로동계급과 우리의 공업에 해독을 주는 행동이라는것을 로동자들 특히 공장에 갓 들어온 로동자들에게 해설하여주어야 한다. 우리 공업을 위하여, 로동계급전체를 위하여 결근과 투쟁하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 이것이 우리의 과업이다.

우리의 축적과 예비가 분산되지 않으며 절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또 이 축적과 예비가 우리 나라의 공업화의 수요에 돌려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수단은 이상과 같다.

5
공업건설간부를 양성하여야 한다

나는 공업화의 방침에 대해서 말하였다. 또 나는 공업화의 전개를 위한 예비의 축적방도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업의 수요를 위하여 축적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그러나 동지들, 이것만으로써는 아직 부족하다. 우리 나라의 공업화에 대한 당의 지령을 실천하려면 이 모든것외에 또 새로운 간부 즉 새로운 공업건설간부를 양성하여야 한다.

어떠한 과업이든지 특히 우리 나라의 공업화와 같은 그런 거대한 과업은 생기있는 사람들이 없이는, 새로운 사람들이

없이는, 새로운 건설간부들이 없이는 수행될수 없다. 이전 국내전쟁시기에 우리에게는 군대를 건설하며 전쟁을 진행하기 위한 지휘간부들 즉 련대장, 려단장, 사단장, 군단장들이 특별히 수요되였다. 하층출신으로서 그 재능에 의하여 상부에 등용된 이런 새 지휘간부들이 없이는 군대를 건설할수 없었을것이며 우리의 수다한 적들을 타승할수 없었을것이다. 이 새 지휘간부들이 그 당시에—물론 로동자, 농민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아—우리 군대와 우리 나라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업건설기에 처하여있다. 지금 우리는 국내전쟁의 전선으로부터 공업전선으로 넘어왔다. 이에 적응하여 우리에게는 지금 공업분야의 새 지휘간부들이 즉 공장의 훌륭한 지배인, 훌륭한 트레스트지배인, 유능한 상업일군, 공업건설의 총명한 계획일군들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는 경제 및 공업 분야의 새로운 련대장, 려단장, 사단장, 군단장들을 양성해내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이는 우리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과업은 로동자들과 쏘베트지식인들(자기의 운명을 로동계급의 운명과 련결시키고있으며 우리와 함께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를 쌓고있는 쏘베트지식인들)의 대렬안에서 수많은 공업건설간부들을 양성하는데 있다.

과업은 이와 같은 간부들을 양성하며 그들을 백방으로 도와줌으로써 그들을 제1선에 등용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에 경제일군들을 타락된자라고 하면서 몹시 꾸짖는 습성이 있으며 게다가 또 종종 부정적성격을 띤 개별적현상을 경제사업간부전체에게 넘겨씌우려는 경향이 있다. 누구든지 내키는대로 경제일군들을 죽을죄를 지었다고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어야 한다고 종종 말한다. 동지들, 이 악습을 영영 버려야 한다. 허물이 없는 집안이란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나라를 공업화하며 새로운 공업건설간부들을 등용하는 과업은 경제일군들을 책망할것을 요하는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우리의 공업건설사업에서 그들을 배방으로 도와줄것을 요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경제일군들을 신임과 원조의 분위기로써 포옹해주며 새로운 공업건설자들을 육성해내는 사업에서 그들을 도와주며 공업건설자의 일터를 사회주의건설의 영예로운 일터로 만들어주는것—바로 이와 같은 방향에서 지금 우리의 당조직들은 사업하여야 한다.

6
로동계급의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 나라 공업화의 방침과 관련하여 우리앞에 나선 당면 과업들은 상술한바와 같다.

로동계급의 직접적인 도움과 직접적인 지지가 없이 이 과업들을 실현할수 있는가? 아니다, 실현할수 없다. 우리의 공업을 추진시키며 그 생산능률을 높이고 새로운 공업건설간부들을 양성하며 사회주의적축적을 옳게 실시하고 이 축적을 공업의 수요에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엄격한 절약정책을 실시하고 국가기관을 깨이게 하며 그것을 경제적으로 꾸리는 청렴한 기관으로 만들며 또 우리의 건설시기에 국가기관에 나타나는 더러운 오물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일소해버리며 국가재산의 절취자와 랑비자에 대하여 끊임없이 투쟁을 전개하는것—이 모든것은 로동계급의 수백만 대중의 직접적이며 일상적인 지지가 없이는 그 어떤 당도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과업들이다. 그러므로 과업은 수백만 비당원로동자대중을 우리의 모든 건설사업에 이끌어들이는것이다. 매개의 로동자, 매개의 정직한

농민이 당과 정부가 절약정책을 실시하며 국가의 예비를 절취하거나 탕비하는 현상과 투쟁하며 도적놈이나 협잡군들이 그 어떤 탈을 쓰고 숨어있다 하더라도 그자들을 구축하며 우리 국가기관을 건전케 함과 아울러 경제적으로 꾸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생산협의회가 귀중한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다. 한때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협의회가 광장히 류행되고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된셈인지 이에 대한 말조차 들을수 없다. 동지들, 이것은 큰 잘못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산협의회를 부활시켜야 한다. 생산협의회에서는 례컨대 보건사업문제와 같은 사소한 문제들만이 제기되여서는 안된다. 생산협의회의 토의사항을 그 내용이 광범하며 풍부한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생산협의회에서는 공업건설의 기본문제들이 제기되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방법으로써만이 로동계급의 수백만 대중의 적극성을 높이며 또 그들을 공업건설의 자각적인 참가자로 되게 할수 있다.

7

로농동맹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적극성을 높일데 대하여 말할 때 결코 농민을 잊어서는 안된다. 레닌은 우리에게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은 무산계급독재의 기본원칙이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적축적을 마련하며 절약정책을 실시하는것—이 모든 과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개인자본을 극복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 경제생활의 난관을 물리칠수 없다. 그러나 이 과업들중에서 어느 하나도 쏘베트정권과 무산계급독재가 없이는 해결될수 없다.

그런데 무산계급독재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에 기초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만일 우리가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파탄시키거나 약화시킨다면 우리의 모든 과업은 허공에 뜬것으로 된다.

우리 당내에는 근로농민대중을 혈연적관계가 없는 남으로, 공업의 착취대상으로, 우리 공업의 그 어떤 식민지 같은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동지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농민은 로동계급에게 있어서 그 어떤 착취대상이나 식민지로는 될수 없다. 공업이 농민경제의 시장으로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농민경제 역시 공업의 시장이다. 그러나 농민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장으로만 되는것이 아니다. 농민은 또한 로동계급의 동맹자이기도 하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농민경제를 향상시키며 농민을 대량적으로 협동조합에 망라시키며 그들의 물질적형편을 개선하는것은 하나의 전제조건으로서 그것없이는 우리 공업의 어느 정도의 진정한 발전도 보장될수 없는것이다. 반대로 공업을 발전시키고 농기계와 뜨락또르를 생산하며 농민에게 대량의 공업제품을 공급하는것은 농업을 촉진시키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전제조건으로 된다. 여기에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의 가장 중요한 기초의 하나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지나치게 증가시키며 공업제품의 가격을 높이는것 등등으로써 농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것을 왕왕 요구하고있는 그런 동지들의 의견에 동의할수 없다. 우리가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수 없는것은 그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파괴하며 무산계급독재를 약화시키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파괴하려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려고 하는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로동계급과 농민의 온갖 동맹을 다 옹호하

는것은 아니다. 우리는 로동계급이 지도적역할을 하는 그런 동맹을 주장한다. 왜 그런가? 그것은 로동자와 농민의 동맹체계내에서 로동계급의 지도적역할이 없이는 피착취근로대중이 지주와 자본가를 타승할수 없기때문이다. 나는 몇몇 동지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동맹은 좋은 일이지만 무엇때문에 로동계급의 지도가 필요한가라고 한다. 이 동지들은 대단히 오해하고있다. 그들이 오해하고있는 리유는 오랜 시련을 겪고 가장 혁명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이 지도하는 그러한 로농동맹만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리해하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뿌가쵸브나 스께빤 라진 당시의 농민폭동이 왜 실패하였는가? 왜 그 당시 농민들은 지주를 구축할수 없었는가? 그것은 그들에게 당시 로동계급과 같은 그런 혁명적인 지도자가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었기때문이다. 왜 프랑스혁명은 자산계급의 승리와 이전에 추방당한 지주들의 복귀로 끝나게 되였는가? 그것은 당시 프랑스농민에게 로동계급과 같은 그런 혁명적인 지도자가 없었고 또 있을수도 없었기때문이다. 그때는 자산계급자유주의자들이 농민을 지도하였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로농동맹이 지주와 자본가를 타승한 유일한 나라이다. 이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전투에서 시련을 겪은 로동계급이 우리 나라 혁명운동의 선두에 서있었으며 또 계속하여 서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지도에 대한 사상을 말살하기만 하면 로농동맹은 여지없이 파괴될것이며 자본가와 지주가 자기의 옛 보금자리로 돌아오게 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보존하여야 하며 강화하여야 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이 동맹체계내에서 로동계급의 지도를 보존하여야 하며 강화하여야 한다.

8

당내민주주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는 로동계급의 적극성을 높일데 대해서와 수백만의 로동계급대중을 우리의 경제건설사업에, 공업건설사업에 인입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적극성을 높이는 문제는 중요하고도 큰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적극성을 높이자면 우선 당자체를 적극화하는것이 필요하다. 당자체가 당내민주주의의 길에 튼튼히 결단성있게 서며 우리의 각 조직들이 우리 당의 운명을 창조하고있는 광범한 당원대중을 우리의 건설문제토의에 인입하는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이는 로동계급의 적극화에 대하여 말할수가 없다.

내가 특히 이것을 강조하는 리유는 몇몇 지도자들이 당내민주주의에 대하여 코웃음을 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려 하지 않은 그런 시기가 바로 얼마전에 레닌그라드조직에 있었기때문이다. 나는 당대회직전과 대회시기 그리고 대회직후시기를 념두에 두고 말하는데 그 당시 레닌그라드에서는 당조직들로 하여금 집회를 가지지 못하게 하였으며 일부 당조직의 지도자들은 당조직들에 대하여 경찰서장의 역할을 하였으며(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대하여 량해하여주기 바란다.) 또한 이들은 당조직의 접회를 금지시켰던것이다. 이 점에서도 지노위예브를 수반으로 하는 소위 《신반대파》는 실패하고말았다.

우리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레닌그라드열성자들의 도움으로 제14차당대회의 결정을 반대하여 투쟁해온 반대파를 2주일동안에 고립시키고 몰아내는데 성공할수 있은것은 대회결정들에 대한 해설운동이, 당시 레닌그라드조직내에 존재하였고

불타고있었으며 마침내 폭발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합치되였기때문이다. 동지들, 나는 여러분이 얼마전의 이 교훈을 참작하기 바란다. 나는 동지들이 이 교훈을 참작하여 당내민주주의를 성실하게 또 결정적으로 리행하며 당원대중의 적극성을 발양시키며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에서 제기되는 기본문제토의에 인입하며 또 우리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가 채택한 결정들의 정당성을 그들에게 설득시키기를 바란다. 내가 여러분에게 당원대중을 설복할것을 바라는것은 설복의 방법이 로동계급대렬내에서 적용할 우리의 기본사업방법인 까닭이다.

9

당의 통일을 수호하여야 한다

일부 동지들은 당내민주주의란 종파집단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있다. 동지들, 이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동의할수 없다! 우리는 당내민주주의를 그렇게 리해하지는 않는다. 당내민주주의와 종파집단의 자유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당내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당내민주주의란 당원대중의 적극성을 발양시키며 당의 통일을 강화하며 당내의 자각적인 무산계급적규률을 강화하는것을 말한다.

종파집단의 자유란 무엇인가? 종파집단의 자유란 당대렬을 와해하며 개개의 중심으로 당을 분산시키며 당을 약화시키고 무산계급독재를 약화시키는것이다.

이 량자사이에 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을수 있겠는가?

우리 당내에는 자나깨나 전당적론쟁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론쟁이 없이는 당이란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직

업적인 론쟁가라는 칭호를 탐내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 직업적인 론쟁가들을 멀리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억지로 꾸며낸 론쟁이나 우리 당을 론쟁구락부로 전환시키는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건설사업을 강화하는것이고 특히는 공업건설을 강화하는것이며 또한 우리의 건설사업을 견결하고 확신성있게 지도하고있는 전투적이며 단결된, 통일적이고 전일적인 당을 강화하는것이다. 끝없는 론쟁을 벌려놓지 못해 애쓰며 종파집단의 자유를 얻지 못해 애쓰는자는 당의 통일을 파괴하며 우리 당의 위력을 좀먹는자이다.

우리가 과거에 강력하였던것은 무엇때문이며 또 우리가 현재 강력한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옳은 정책과 우리 대렬의 통일이 있었기때문이다. 옳은 정책은 우리 당 14차대회가 우리에게 제정하여주었다. 당면한 과업은 우리 대렬의 통일을 보장하며 당대회의 결정을 무조건 집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의 통일을 보장하는데 있다.

우리 당 중앙위원회전원회의의 제 결정의 의의는 대체로 이상과 같다.

10

결 론

이제 나는 결론을 지으려고 한다.

첫째로, 우리는 사회주의의 기초이며 전반 인민경제를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적력량인 우리 나라의 공업을 추진시켜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공업화방침의 직접적집행자들인 새로운 공업건설간부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축적의 속도를 촉진시키며 우리 나라 공업에 수요되는 예비를 축적하여야 한다.

넷째로, 축적된 예비를 옳게 리용하며 가장 엄격한 절약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로동계급의 적극성을 높이며 천백만 로동자대중을 사회주의건설사업에 인입시켜야 한다.

여섯째로, 로동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튼튼히 하며 이 동맹에서의 로동계급의 지도적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로, 당원대중의 적극성을 높이며 당내민주주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여덟째로, 우리는 우리 당의 통일과 우리 대렬의 단결을 수호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과업들을 수행할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수행하려고만 한다면 능히 수행할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수행하려 하며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있는바이다. 그렇다, 우리는 볼쉐위크들이기때문에, 또 우리는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기때문에, 또 난관자체는 그것과 투쟁하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것이기때문에 우리는 이 과업들을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정책이 옳으며 또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알고있기때문에 이 과업들을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향하여 확고히 또 신심가득히 앞으로 나아갈것이다.

동지들! 9년전에 즉 1917년 2월에 우리는 레닌그라드에 있는 소규모의 집단이였다. 로당원들은 우리 볼쉐위크들이 그 당시 레닌그라드쏘베트에서 극히 소수를 이루고있었다는것을 기억할것이다. 로볼쉐위크들은 그 당시 볼쉐위크주의의 허다한 적들이 우리를 모욕하였던것을 잊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하였으며 진지를 련속 전취하였다. 그것은 우리의 정

책이 옳았으며 또한 우리는 단결된 대렬로써 투쟁을 전개하였기때문이다. 그후 보잘것없었던 이 력량은 거대한 력량으로 장성하였다. 우리는 자산계급을 격파하였으며 께렌스끼를 전복하였다. 우리는 쏘베트정권을 확립하였다. 우리는 꼴챠크와 제니낀을 격파하였다. 우리는 영국, 프랑스 및 미국 폭압자들을 우리 국토에서 몰아내였다. 우리는 경제의 붕괴상태를 극복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 나라의 공업과 농업을 복구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앞에는 새로운 과업 즉 우리 나라를 공업화하는 과업이 다서고있다. 가장 큰 난관은 이미 타개되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공업화하는 이 새 과업을 수행할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의심할수 있겠는가? 물론 의심할수 없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지금 이 난관을 타개하고 우리 당 제14차 대회가 우리앞에 제기한 새 과업들을 수행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구비하고있다.

동지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나는 새로운 공업전선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바이다.(폭풍갈은 박수)

1926년 4월 18일부 《레닌그라드 쁘라우다》 제89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8권, 109~134페지

중국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1926년 11월 30일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중국위원회 회의에서 한 연설)

동지들! 본문제로 들어가기전에 나는 중국혁명의 전 면모를 전시하는데 필요한 중국문제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나에게 없다는것을 성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중국혁명의 기본방향문제와 직접 관계되는 원칙성을 띤 몇개 일반적인 의견만을 말할수밖에 없다.

나에게 중국문제에 대한 뻬뜨로브의 테제, 미프의 테제, 담평산의 두개 보고와 라페스의 의견서가 있다. 나는 이 모든 문건들이 각기 장점을 가지고있기는 하지만 중국혁명의 일련의 근본문제들을 홀시하는 매우 큰 결함들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우선 이런 결함들에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 나의 의견은 동시에 비판의 성격을 띠게 될것이다.

1
중국혁명의 성격

레닌은 중국사람들이 가까운 장래에 자기의 1905년을 가지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부 동지들은 이 말을 1905년에 우리 로씨야에서 발생되였던것과 꼭같은 사건이 중국사람들에

게서도 반복되여야 한다는것으로 리해하였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레닌은 중국혁명이 로씨야의 1905년혁명의 반복으로 될것이라고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레닌은 중국사람들에게는 자기의 1905년이 있을것이라고 말하였을뿐이다. 이것은 중국혁명이 1905년혁명의 일반적특징을 가지고있는외에 중국혁명에 꼭 자신의 특수한 표적을 남기게 될 자기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리라는것을 의미한다.

이 특징들이란 무엇인가?

첫째 특징은 중국혁명이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인 동시에 또한 자기의 예봉을 중국에서의 외국제국주의의 지배에 돌리는 민족해방혁명이라는데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혁명이 우선 1905년로씨야혁명과 다른 점이다. 문제는 중국에서의 제국주의의 지배가 그의 군사적위력에서만 표현되는것이 아니라 우선 중국공업의 명맥인 철도, 공장, 광산, 은행 등이 모두 외국제국주의자들의 지배 혹은 통제하에 있다는데서 표현된다는데 있다. 이로부터 외국제국주의 및 그의 중국주구들과 투쟁하는 문제는 중국혁명에서 중대한 역할을 놀지 않을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수 있다. 이것은 중국혁명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각국무산자들의 혁명과 직접 련결시켜놓았다.

중국혁명의 둘째 특징은 중국의 대민족자산계급이 극히 연약하며 1905년당시의 로씨야자산계급보다 훨씬 더 연약하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업의 명맥이 외국제국주의자들의 손안에 집중된 이상 중국대민족자산계급은 연약하고 락후하지 않을수 없다. 이 면에서 미프가 중국민족자산계급의 연약성을 중국혁명의 특유한 사실의 하나로 든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이로부터 중국혁명의 창도자 및 령도자, 중국농민의 수령은 불가피적으로 중국무산계급 및 그의 당이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동시에 중국혁명의 셋째 특징도 잊어서는 안되는데 그것은 중국의 곁에 쏘련이 존재하고 발전하고있으며 그의 혁명경험과 그의 원조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중국의 중세기적봉건잔재를 반대하는 중국무산계급의 투쟁을 촉진하지 않을수 없다는데 있다.

중국혁명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국혁명의 주요한 특징은 바로 이러하다.

2
제국주의와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간섭

상술한 테제들의 첫째 결함은 이 테제들이 중국에서의 제국주의의 간섭에 대한 문제를 홀시하였거나 혹은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 테제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현재 중국에는 기실 제국주의의 간섭이란 없으며 북군과 남군과의 전쟁 혹은 한 군벌이 다른 한 군벌을 반대하는 전쟁이 있을뿐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간섭이라는것을 중국경내에 외국군대가 들어온 사실이 있는 그러한 정세로 리해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으면 간섭도 없는것으로 리해하는데 습관되여있다.

동지들, 이것은 극히 엄중한 오유이다. 간섭이란 결코 군대의 입경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며 또한 군대의 입경이 간섭의 주요한 특징인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혁명운동이 처하고있는 현조건하에서 외국군대의 직접적인 입경은 많은 항의와 충돌을 일으킬수 있으므로 간섭은 이미 비교적 원활한 성격과 비교적 은폐적인 형태를 띤다. 제국주의는 간섭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조건하에서는 예속국내에서 국내전쟁

을 조작하는 방법, 반혁명세력을 도와 혁명을 반대하는 방법, 혁명을 반대하는 자기들의 중국주구들을 정신적 및 재정적으로 지지하는 방법을 취하는데 치우친다. 제국주의자들은 흔히 체니낀과 풀챠크, 유제니치와 우란겔의 로씨야혁명반대투쟁을 순수한 국내투쟁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혁명적로씨야장군들의 배후에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있으며 만일 그들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로씨야에는 결코 엄중한 국내전쟁이 없었으리라는것을 우리모두가, 아니 우리뿐만아니라 전 세계가 다 알고있다. 중국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말하여야 한다. 만일 각국 제국주의자들이 오패부와 손전방, 장작림과 장종창을 고무하지 않았다면, 만일 각국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재정, 무기, 교관, 《고문》 등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중국혁명을 반대하는 이 반혁명군벌들의 투쟁은 그야말로 불가능하였을것이다.

광동군대의 력량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에게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싸우도록 그들을 고무하는 리상과 열정이 있는데 있으며 그들이 중국을 해방시킨다는데 있다. 중국반혁명군벌들의 력량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배후에는 각국 제국주의자들이 서있으며 중국의 모든 철도, 조계지, 공장, 은행과 양행들의 소유자가 서있다는데 있다.

그렇기때문에 문제는 외국군대의 입경에만 있는것이 아니며 또는 지어 외국군대의 입경에 있지 않고 각국 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의 반혁명을 원조하는데 있다. 남의 손을 빌어 간섭하는것, 이것이 오늘날 제국주의간섭의 주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간섭은 추호도 의심할바없는 사실이며 중국혁명도 바로 이 사실에다 자신의 예봉을 돌리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가 중국을 간섭하고있다는 사실을 홀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자는 중국에서 가장 주요하고 가장 기본적인것을 홀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자이다.

듣건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광동파와 전반 중국혁명에《호의》를 표시하는 어떤 징조들이 있다고 한다. 듣건대 미제국주의자들도 이 면에서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고있다고 한다. 동지들, 이것은 자기기만이다. 일본, 미국 제국주의자들을 포괄한 제국주의자들의 정책의 본질과 그의 위장을 구별할줄 알아야 한다. 레닌은 곤봉과 주먹으로는 혁명자를 휘여잡기가 매우 어렵지만 친선으로써는 왕왕 그들을 아주 쉽게 휘여잡을수 있다고 늘 말하였다. 동지들, 레닌이 말한 이 진리를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일본,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이 진리가 가지는 의의를 잘 깨닫고있다는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광동파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친선과 칭찬을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친선을 그토록 간곡히 보여주는 제국주의자들이 중국에서의 자기들의 조계지와 철도를 부둥켜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놓으려 하지 않는 사실과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3
중국의 혁명군대

상술한 테제에 대한 두번째 의견은 중국의 혁명군대에 대한 문제이다. 문제는 군대에 대한 문제가 이 테제들에서 홀시되였거나 과소평가되고있기때문이다.(좌석으로부터《옳습니다!》라는 소리) 바로 여기에 테제의 두번째 결함이 있다. 보통 광동군대의 북진을 중국혁명의 전진으로 보는것이 아니라

오패부와 손전방을 반대하는 광동군벌의 전쟁으로 보며 일방의 군벌이 타방의 군벌과 패권을 다투는 전쟁으로 보고있다. 동지들, 이것은 극히 엄중한 오유이다. 중국의 혁명군대는 중국의 로동자와 농민이 자신의 해방을 쟁취함에 있어서의 극히 중요한 요소이다. 금년 5월이거나 혹은 6월이전에는 풍옥상군대가 실패한 뒤에 중국의 국세에 있어서 반동제력이 득세하였다고 평가하고있던것이 그후 금년 여름에 광동파가 승리적으로 북진하여 호북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국면이 근본적으로 혁명에 유리하게 변하였는데 과연 이것이 우연한 일인가? 아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광동군대의 전진은 제국주의에 대한 타격, 그의 중국주구들에 대한 타격으로 되며 일반적으로는 중국의 모든 혁명분자들에게, 특수적으로는 로동자들에게 집회의 자유, 파업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주는것으로 되기때문이다. 중국혁명군대의 특징과 극히 중요한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 18세기와 19세기에 있어서 혁명은 보통 대부분이 무장을 가지지 못했거나 무장이 아주 약한 인민이 봉기를 일으킴으로써 시작되였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낡은 정권의 군대와 충돌하고 그 군대를 극력 와해시키거나 혹은 적어도 일부 군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였다. 지난날 혁명이 폭발된 전형적형태는 이러하였다. 1905년 우리 로씨야의 형편도 이러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형편은 다르다. 중국에서는 낡은 정부의 군대와 대항하는것이 무장하지 않은 인민인것이 아니라 혁명군대를 대표자로 하는 무장한 인민이다. 중국에서는 무장한 혁명이 무장한 반혁명을 반대하고있다. 여기에 중국혁명의 특징의 하나와 우점의 하나가 있다. 바로 여기에 중국혁명군대의 특수한 의의가 있다.

바로 이때문에 혁명군대에 대한 과소평가는 우에 제기된

테제들의 허용할수 없는 결함으로 된다.

이로부터 중국공산당원들은 반드시 군대사업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첫째, 중국공산당원들은 군대내에서의 정치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군대를 중국혁명사상의 진정하고도 모범적인 체현자로 되게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이것이 특히 필요하다는것은 국민당과는 추호의 공통점도 없는 가지각색의 군벌이 지금 광동파에 가담하고있으며 중국인민의 원쑤를 짓부시고있는 이 력량에 가담하고있는데 그들이 광동파에 가담할 때에 썩어빠진 작풍까지 군대에 가지고들어오기때문이다. 이런 《동맹자》들이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게 하거나 혹은 그들을 진정한 국민당원으로 되게 하자면 오직 정치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에 대한 혁명적감독을 조직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군대는 극히 곤난한 처지에 빠지게 될것이다.

둘째, 공산당원들을 포괄한 중국혁명자들은 군사문제를 깊이있게 연구하여야 한다. 그들은 군사문제를 차요적인것으로 보아서는 안되는데 그것은 지금 중국에서는 군사문제가 중국혁명의 극히 중요한 요소로 되고있기때문이다. 중국혁명자들은, 그중 공산당원들도 포괄하여 마땅히 군사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전진하여나아가며 혁명군대내에서 이러저러한 지도적직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중국혁명군대로 하여금 정확한 길을 따라 목표에로 전진하게 하는 담보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군대내에서 동요와 주저를 피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4
중국에서의 미래정권의 성격

세번째 의견은 테제들에서 중국에서의 미래혁명정권의 성

격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거나 혹은 불충분하게 고려되였다는것이다. 미프는 자기의 테제에서 이 문제에 접촉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공헌이다. 그러나 그는 이 문제에 접촉하면서 무엇을 겁내여서인지 문제를 감히 철저하게 천명하지 못하였다. 미프는 중국에서의 미래의 혁명정권은 무산계급이 령도하는 혁명적소자산계급의 정권일것이라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917년 2월혁명당시에 멘쉐위크들과 사회혁명당원[59]들도 소자산계급당들이였으며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혁명적인 당들이였다. 이것은 중국에서의 미래혁명정권이 사회혁명당-멘쉐위크적인 정권으로 되리라는것을 말하는것인가?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무엇때문인가? 사회혁명당-멘쉐위크적인 정권은 본질상에서 제국주의적인 정권이였지만 중국에서의 미래의 혁명정권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정권으로 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맥도날드의 정부는 지어는 《로동자의》 정권이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제국주의적인 정부였다. 왜냐 하면 그것은 영국의 제국주의정권을 이를테면 인도와 애급에서 보존하는것을 기초로 하였기때문이다. 중국에서의 미래혁명정권은 맥도날드의 정부에 비하여 그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정권으로 될것이라는데 우월성이 있다.

문제는 장래 전 중국의 혁명정권의 맹아로 될 광동정권이 가지는 자산계급민주주의적성격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먼저 이 정권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정권으로 되며 또 되지 않을수 없다는데 있으며 이 정권의 매 하나의 진전이 세계제국주의에 대한 타격으로 되며 따라서 세계혁명운동에 유리한 타격으로 된다는데 있다.

이전에 세계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기전에 민족해방운동이

전반 민주주의운동의 일부분이였다면 로씨야에서 쏘베트혁명이 승리하고 세계혁명의 시대가 다가온후인 오늘에 있어서는 민족해방운동이 세계무산계급혁명의 일부분으로 된다고 레닌은 옳게 말하였다.

이 특징에 대하여 미프는 고려하지 않았다.

나는 중국에서의 미래의 혁명정권은 그의 성격으로 말하면 대체로 우리가 1905년에 말한적이 있는 그러한 정권, 다시 말하면 무산계급과 농민의 민주주의적독재와 같은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요하게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정권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중국이 비자본주의에로, 혹은 더 정확히 말하여 사회주의에로 발전하는 과도적인 정권일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국혁명이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정황은 혁명의 이 발전도로에 유리하다.

첫째, 중국혁명은 민족해방혁명으로서 자기의 예봉을 제국주의와 중국에서의 그의 주구들에게 돌리게 된다.

둘째, 중국의 대민족자산계급은 연약하며 1905년당시의 로씨야의 민족자산계급보다도 더 연약하여 무산계급의 령도권을, 중국농민에 대한 무산계급당의 령도를 실현되기 쉽게 한다.

셋째, 중국혁명은 쏘련에서 승리한 혁명의 경험과 그 도움을 리용할수 있는 정황하에서 발전할것이다.

이 길이 꼭 그리고 절대적으로 승리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은 많은 사정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어쨌든 중국공산주의자의 기본과업은 바로 중국혁명의 이 발전도로를 위하여 투쟁하는데 있다는 한가지만은 매우 명백하다.

이로부터 국민당과 중국에서의 미래의 혁명정권을 어떻게

대할것인가 하는 문제에서의 중국공산주의자의 파업이 생긴다. 중국공산주의자들은 국민당에서 탈퇴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지금 국민당에서 퇴출하는것은 극히 엄중한 오유로 될것이다. 중국혁명의 전부의 과정, 그의 성격, 그의 전도는 중국공산주의자들이 응당 국민당내에 머물러있으면서 거기서 자기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추호도 의심할바없이 말하여주고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이 미래의 혁명정권에 참가할수 있는가? 참가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중국혁명의 과정, 그의 성격, 그의 전도는 중국공산당이 중국의 미래의 혁명정권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하여주고있다.

중국무산계급의 령도권을 진정으로 실현함에 있어서의 필요한 담보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5
중국의 농민문제

네번째 의견은 중국의 농민문제에 대한것이다. 미프는 쏘베트, 즉 중국농촌에서 농민쏘베트를 창건하자는 구호를 즉시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있다. 이것은 오유라고 나는 생각한다. 미프는 너무 멀리 앞질러나가고있다. 중국의 공업중심을 제쳐놓고 농촌에 쏘베트를 건립할수는 없다. 그리고 중국의 공업중심에다 쏘베트를 건립한다는 문제는 지금은 아직 절박한 문제가 아니다. 이밖에 환경을 떠나서 쏘베트를 관찰할수는 없다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쏘베트—여기서 말하는것

은 농민쏘베트이다.—는 오직 중국이 낡은 사물을 짓부시고 새 정권을 창조하는 농민운동이 가장 앙양된 시기에 처해있는 경우에 있어서만, 그리고 중국공업중심이 이미 언제를 무너뜨리고 쏘베트정권을 창건할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건립될수 있는것이다. 중국농민과 전반 중국혁명이 이미 이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할수 있는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수 없다. 때문에 지금 쏘베트에 대하여 운운하는것은 너무 멀리 앞질러나간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제기하여야 할것은 쏘베트에 대한 문제인것이 아니라 농민위원회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이다. 나는 농민들가운데서 선거되여나온 농민위원회를 두고 말하는것인데 이런 농민위원회는 농민들의 기본요구를 규정할수 있으며 이런 요구들을 혁명적수단으로써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취할것이다. 이러한 농민위원회는 그것을 중심으로 삼아 농촌에서의 혁명을 전개시키는 일종 핵심으로 되여야 한다.

나는 국민당원들가운데, 지어는 중국공산주의자들가운데도 농촌에서 혁명을 일으킬수 없다고 인정하면서 농민을 혁명에 끌어들이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통일전선이 파괴되지나 않을가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알고있다. 동지들, 이것은 너무도 황당한것이다. 중국농민들을 혁명에로 보다 빨리, 보다 철저하게 끌어들일수록 중국에서의 반제국주의전선은 보다 더 힘있고 보다 더 강대하여지게 되는것이다. 레제의 집필자, 특히 담평산과 라페스는 농민들의 일부 가장 절박한 요구들을 즉시 만족시켜주는것은 중국혁명이 승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된다고 단언하였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나는 지금 일부 국민당분자들의 행동에서 표현된 농민에 대한 랭담과 《중립화》는 타파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중국공산당이거나 국민당(다시말하여 광동정권)이거나를

물론하고 즉시로 언론을 행동에 옮겨 농민들의 가장 절박한 요구를 지체없이 만족시킬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면에서 전도가 어떠할것이며 또 어느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하는가—이것은 혁명의 진전에 의하여 결정된다. 결국에는 토지국유화에까지 이끌어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는 토지국유화같은 이런 구호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중국의 천백만 농민을 혁명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중국혁명자들은 어떤 길들을 걸어야 할것인가?

나는 현조건하에서 말할수 있는것은 오직 세개와 길뿐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길은 농민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국혁명자들이 이런 위원회에 가담하여 농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길이다.(좌석으로부터의 소리: 《그러면 농민협회는?》) 농민협회는 농민위원회의 주위에 뭉치거나 혹은 농민위원회로, 즉 농민들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이러저러한 권력을 가진 농민위원회로 전화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길에 대하여서는 나는 우에서 이미 말하였다. 그러나 이 길만으로는 부족하다. 만일 중국에 이 일을 할 혁명자들이 충족하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중국에는 약 4억의 인구가 있다. 그중에서 3억 5천만이 한족이며 이중에서 10분의 9이상이 농민이다. 수만명의 중국혁명자들이 이 농민의 망망한 대해를 모조리 들이마실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또 다른 길이 수요된다는것을 말한다.

둘째 길은 새로운 농민혁명정권의 기관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길이다. 새로 해방된 성들에 광동정권과 같은 류형의 새 정권이 건립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이러한

정권과 이러한 정권기관이 만일 진실로 혁명을 추진시키려 한다면 농민들의 제일 절박한 요구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렇기때문에 중국공산주의자와 일반혁명자들의 과업은 새 정권기관에 들어가서 이 기관을 농민대중과 접촉시키며 이 기관을 통하여 농민대중이 그때의 형편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방법으로라든가 혹은 세금 및 소작료를 인하시키는 방법으로써 자기들의 절박한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그들을 도와주는데 있다.

셋째 길은 혁명군대를 통하여 농민들에게 영향을 주는것이다. 나는 중국혁명에 있어서 혁명군대가 가지는 극히 중요한 의의에 대하여 이미 말하였다. 중국의 혁명군대는 제일먼저 새로운 성에 들어가게 되고 제일먼저 농민대중속에 침입하게 되며 그리하여 농민들이 우선 그들에 의하여 새 정권을, 새 정권의 질이 좋고나쁨을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력량이다. 새로운 정권, 국민당과 전반 중국혁명에 대한 농민의 태도는 우선 혁명군대의 행동, 농민과 지주에 대한 혁명군대의 태도, 농민을 도우려는 혁명군대의 결심여하에 의하여 결정된다. 만일 중국혁명군대에 의심스러운 분자들이 적지 않게 잠입하였으며 이 분자들이 군대의 면모를 나쁘게 변화시킬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면 군대의 정치적면모 그리고 그의 농민정책이 농민들의 심목가운데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고있는가를 알수 있을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중국공산주의자와 일반중국혁명자들은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군대내의 반농민적분자들이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며 군대의 혁명정신을 확보하여야 할것이며 또 군대가 농민을 도우며 농민을 혁명에로 불러일으키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혁명군대를 열정적으로 환영하였으나 그후 군대가 주둔한 다음에는 실망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우리 쏘련에서도 국내혁명전쟁시기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 이것은 군대가 새로운 성들을 해방시키고 거기에 주둔하게 되였을 때에는 어쨌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먹고살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이다. 우리 쏘련혁명자들은 지주들을 반대하는데 있어서 보통 군대를 통하여 농민을 도와주기에 힘씀으로써 이런 결함들을 미봉할수 있었다. 중국혁명자들도 군대를 통하여 정확한 농민정책을 실시하는것으로 이런 결함들을 미봉할줄 알게 되여야 할것이다.

6

중국의 무산계급과 무산계급령도권

다섯째 의견은 중국무산계급에 관한 문제에 대한것이다. 나는 테제들에서 중국로동계급의 역할과 의의가 충분하게 강조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라페스는 중국공산주의자들은 누구를 상대할것인가—국민당좌파를 상대할것인가 아니면 중간파를 상대할것인가 하고 묻는다. 이상한 질문이다. 나는 중국공산주의자들은 우선 무산계급을 상대하여야 하며 중국해방운동의 활동가들을 혁명에로 나아가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문제가 옳게 설정되는것이다. 나는 중국공산주의자들가운데서 어떤 동지들은 로동자들이 자기들의 물질적 및 법률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행하는 파업을 부적당한것이라고 여기면서 파업을 그만두라고 로동자들에게 권고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웨칭소리: 《광주와 상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지들, 이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이것은 중국무산계급의 역할과 비중을 너무도 과소평가하고있는것이다. 테제에는 극단적으로 좋지 못한 이 현상이 제기되여있

어야 할것이였다. 만일 중국공산주의자들이 당면의 유리한 정세를 리용하여 로동자들이 파업의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자기들의 물질적 및 법률적 지위를 개선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잘못일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중국혁명은 해서 무엇하겠는가? 파업시에 자기의 아들딸들을 제국주의의 주구들에게 매맞고 고문당하게 하는 이러한 무산계급은 령도력량으로 될수 없는것이다. 이런 중세기적악행을 어떻게 하여서라도 근절하고 중국무산자들사이에서 자신의 힘과 자존심을 느끼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혁명운동을 령도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중국혁명의 승리는 생각할수도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지위를 진실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제기된 중국로동계급의 경제적 및 법률적 요구는 테제에서 적당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미프의 말, 《이 점은 테제에 제기되여있습니다.》) 그렇다, 이 점은 테제에 언급되여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요구가 돌출하게 제기되지 못하였다.

7
중국의 청년문제

여섯번째 의견은 중국의 청년문제에 대한것이다. 이상하게도 테제들에는 이 문제가 고려되여있지 않다. 그렇지만 청년문제는 지금 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담평산의 보고에 이 문제가 언급되기는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돌출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청년문제는 지금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학생청년(혁명적학생), 로동자청년, 농민청년들—이 모든 청년들은 만일 그들에게 국민당

의 사상적 및 정치적 영향을 준다면 혁명을 매우 급속히 앞으로 추진시킬수 있는 힘이다①. 중국청년들처럼 그렇게 심각하고 생동하게 제국주의의 압박을 체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이런 압박과 투쟁해야 한다는것을 중국청년들처럼 그렇게 날카롭고 통절하게 느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것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 청년사업을 배방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이 점에서 말할 때 중국공산당과 중국혁명자들은 이런 정황을 전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문제에 대한 테제에서 청년은 마땅히 제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8

약간의 결론

나는 중국에서의 제국주의와의 투쟁 및 농민문제에 대한 면에서 약간의 결론을 지으려 한다.

중국공산당이 지금 불평등조약의 폐지를 요구하는데만 국한할수 없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지금 지어는 장학량과 같은 반혁명자조차도 이 요구를 찬성해나서고있다. 중국공산당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다음으로 철도국유화문제를 전망으로서 자기앞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므로 사업을 이 방향으로 추진시

① 주: 당시의 조건하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정확하였다. 왜냐 하면 그 당시 국민당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적정책을 실시하는 공산주의자들과 다소나마 좌익적인 국민당원들과의 동맹이였기때문이다. 그후에 와서는 이런 정책이 중국혁명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았으므로 취소되였다. 왜냐 하면 국민당이 이미 혁명으로부터 리탈하였고 나중에는 혁명을 반대하는 중심으로 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은 국민당과 관계를 끊고 국민당에서 퇴출하였기때문이다.

켜야 한다.

그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공장들을 국유화할 전망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면에서 무엇보다도먼저 나서는 문제는 중국인민에 대하여 특히 적대적이고 특히 침략적인 그런 기업주들의 기업소를 국유화하는것이다. 이어서 농민문제를 중국혁명의 전도와 련결시켜서 앞으로 추진시켜야 한다. 나는 종국적으로는 농민을 위하여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며 토지를 국유화하게 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나머지 문제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만한것들이다.

동지들, 내가 제기하려던 의견들은 이러한것들이다.

1926년 12월 10일
잡지 《국제공산당》,
제13호(총 제71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8권, 321~334페지

우리 당내의 사회민주주의적편향을 다시한번 론함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제7차확대전원회의123에서 한 보고와 결론)

보 고

(1926년 12월 7일)

1

예비적고찰

동지들! 문제의 본질로 들어가기전에 몇가지 예비적고찰을 하는것을 허락하라.

1. 당내발전의 모순

첫째 문제는 우리 당내투쟁에 대한 문제인데 이 투쟁은 어제 비로소 시작된것도 아니며 아직 끝나지도 않고있다.

만일 우리 당의 력사를 1903년에 볼쉐위크소조로서 당이 탄생한 시기로부터 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당의 그후의 단계들을 고찰하여본다면 우리 당의 력사는 당내모순의 투쟁의 력사이며 이러한 모순의 극복과 이러한 모순의 극복에 기초한 우리 당의 점차적공고화의 력사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것

이다. 얼핏 생각하면 로씨야사람들은 어찌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걸핏하면 론쟁하고 의견상이가 생기므로 그들의 당은 당내모순의 극복을 통해서만 발전하게 된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문제는 다투기를 좋아한다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의 발전행정에, 무산계급의 계급투쟁행정에 발생되는 원칙적인 의견상이가 현존한다는데 있다. 여기서 문제는 모순들이 오직 일정한 원칙들, 일정한 투쟁목적, 목적을 달성하는 일정한 투쟁방법 등을 위한 투쟁에 의하여서만 극복될수 있다는 그 점에 있다. 당면한 정책문제들이나 순전히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의견이 같지 않은 사람들과 어떠한 타협이라도 할수 있으며 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원칙적인 의견상이와 관련되여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중간》로선도 사태를 수습할수 없는것이다.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중간》로선이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이 원칙이 아니면 다른 원칙이 당사업의 기초로 되여야 한다. 원칙적인 문제에서 《중간》로선은 사상을 혼란시키는 《로선》이며 의견상이를 은폐하는 《로선》이며 당을 사상적으로 변질시키는 《로선》이며 당을 사상적으로 파멸시키는 《로선》이다.

오늘날 서방의 사회민주당들은 어떻게 지내고있으며 발전하고있는가? 그들에게도 당내모순과 원칙적인 의견상이가 있는가? 물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이러한 모순들을 당원대중들 앞에서 성실하게 폭로하고 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있는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회민주당의 실천은 이러한 모순과 의견상이를 은폐하고 숨기는것이다. 사회민주당의 실천은 내부의 의견상이를 극력 은폐하고 엄폐함으로써 자기의 대표자회의나 대회들을 태평무사한것처럼 꾸미는 무의미한 모임으로 전화시키는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는 당의 사상적혼

란과 당의 사상적빈곤화밖에는 아무것도 나올수 없다. 한때에는 혁명적이였으나 현재는 개량주의적인것으로 된 서구라파사회민주당들이 타락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러나 동지들, 우리는 그렇게 살수 없으며 그렇게 발전할수 없다. 원칙적문제에서 《중간》로선을 취하는 정책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다. 원칙적문제에서 《중간》로선을 취하는 정책은 쇠퇴되여가며 변질되여가는 당의 정책이다. 그러한 정책은 당을 로동자대중들로부터 리탈되여 제자리를 맴돌아치는 무의미한 관료주의적기구로 전락시키지 않을수 없다. 이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

우리 당의 과거의 일체는 우리 당의 력사가 당내모순을 극복하여온 력사이며 또 이러한 극복에 토대하여 우리 당 대렬을 부단히 공고화해온 력사라는 이 명제를 확증해주고있다.

첫번째 시기, 《이스크라》9시기, 즉 우리 당 제2차대회10시기를 들어보자. 그때 우리 당내에는 처음으로 볼쉐위크와 멘쉐위크사이에 의견상이가 발생하여 결국 우리 당의 상층은 두 부분 즉 볼쉐위크(레닌)와 멘쉐위크(쁠레하노브, 악셀로드, 마르또브, 자쑬리치, 뽀뜨레쏘브)로 분렬되였다. 당시 레닌은 혼자였다. 그때 레닌에게서 떨어져나간자들이 《대단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웨침과 개탄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그러나 투쟁의 실천과 당의 력사는 이러한 분리가 그자체에 원칙적인 기초를 가지고있었다는것, 이러한 분리는 참으로 혁명적이며 참으로 맑스주의적인 당이 발생, 발전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인 단계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때 투쟁의 실천이 보여준바와 같이 첫째로, 문제는 량에 있는것이 아니라 질에 있으며 둘째로, 문제는 형식적통일에 있는것이 아니라 통일이 원칙적인 기초를 가져야 한다는데 있다. 력사는 레닌이 옳았으며 그 《대단한 인물들》이 옳지 않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력

사는 레닌과 그 《대단한 인물들》간의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참다운 혁명적당을 가질수 없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시기, 즉 1905년혁명전야의 시기를 들어보자. 그때 볼쉐위크와 멘쉐위크는 전혀 다른 두가지 강령을 가진 두 진영으로서 여전히 한 당내에 서로 대립하고있었다. 그때 볼쉐위크들은 당의 공식적분렬에 직면하고있으면서 우리의 혁명로선을 고수하기 위하여 단독적인 대회(제3차대회77)를 소집하지 않을수 없었다. 당시 당의 볼쉐위크적부분은 무엇으로 우세를 차지하였으며 무엇으로 당내 대다수의 공명을 받게 되였던가? 그것은 그들이 원칙적의견상이를 엄폐하지 않고 멘쉐위크들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이 의견상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하였기때문이다.

다음으로 나는 우리 당 발전의 세번째 단계, 즉 1905년혁명이 실패한 이후시기인 1907년시기를 들수 있다. 그때 볼쉐위크의 한부분 즉 보그다노브를 선두로 한 소위 《소환파》83가 볼쉐위크주의로부터 리탈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생활에서 위험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많은 로련한 볼쉐위크들이 레닌과 그의 당을 저버렸다. 당시 멘쉐위크들은 볼쉐위크가 멸망한다고 떠들어대였다. 그러나 볼쉐위크주의는 멸망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짧은 1년 반동안의 투쟁실천은 볼쉐위크주의대렬내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한 레닌과 그의 당이 옳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순들은 그것을 엄폐한데서가 아니라 그것을 폭로하는데서 또 우리 당에 유리한 투쟁을 진행하는데서 극복되였던것이다.

그다음으로 나는 우리 당 력사에서의 네번째 시기, 즉 1911~1912년시기를 들수 있다. 그때 볼쉐위크들은 짜리의 반동세력에 의하여 거의 격파되였던 당을 복구하고 취소파124를

축출하였다. 이전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볼쉐위크들은 취소파와의 원칙적인 의견상이들을 엄폐한데서가 아니라 그것을 폭로하고 극복하는데서 당을 복구하고 공고화하게 되였다.

또 그다음으로 나는 우리 당 발전에서의 다섯번째 단계, 즉 1917년 10월혁명전야의 시기를 들수 있다. 그때 볼쉐위크당의 이름난 지도자들을 선두로 하는 일부 볼쉐위크들은 동요하였으며 10월폭동을 모험적행위라고 하면서 폭동을 단행하려 하지 않았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 모순을 극복하게 된것도 역시 볼쉐위크들이 의견상이를 엄폐한데서가 아니라 10월혁명을 위한 공공연한 투쟁을 진행한데서였다. 투쟁의 실천이 보여준바와 같이 이러한 의견상이들을 극복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10월혁명을 위험한 처지에 빠지게 하였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당내투쟁의 발전에 있어서의 그후의 시기들, 즉 브레스트강화의 시기52, 1921년(직업동맹에 대한 론쟁)시기 및 기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있는 시기들을 들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겠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시기에 있어서도 우리 당은 내부의 모순을 극복하는데서 장성, 강화되였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쏘련공산당(볼쉐위크)은 당내모순의 극복을 통하여 장성, 강화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당내의 의견상이를 투쟁에 의하여 극복하는것이 우리 당의 발전법칙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쏘련공산당(볼쉐위크)의 법칙이지 다른 무산계급당들의 법칙은 아니라고 말할수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 법칙은 비교적 큰 모든 당들에 공통적인 발전법칙으로

서 쏘련무산계급의 당이든 서방무산계급의 당이든 마찬가지다. 작은 나라의 작은 당내에서는 의견상이를 한사람이나 몇사람의 권위로써 가리우고 그것을 이럭저럭 어물쩍해버릴수 있을는지 모르나 큰 나라의 큰 당에 있어서는 모순의 극복을 통하여 발전하는것이 당의 강성과 강화의 불가결한 요소로 된다. 과거에 그러하였거니와 현재도 그러하다.

나는 여기에서 맑스와 함께 몇십년동안 서방무산계급의 당들을 지도한 엥겔스의 권위적인 말을 인증하려 한다. 이것은 19세기 80년대의 일인데 당시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자특별취체법[125]이 실시되고있었고 맑스와 엥겔스는 런던에 망명하고 있었으며 독일사회민주당의 비합법적국외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126]가 사실상 독일사회민주당의 사업을 지도하고있었다. 베른슈타인은 그때 혁명적맑스주의자였는데(그는 그때까지 개량주의자로 전락하지 않았었다.) 엥겔스는 독일사회민주당정책의 가장 절박한 문제들에 대하여 그와 자주 서신거래가 있었다. 엥겔스는 그때(1882년) 베른슈타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보냈다.

《보건대 큰 나라의 어떠한 로동자당이나 일반적인 변증법적발전법칙에 완전히 일치하게 오직 내부투쟁속에서만 발전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독일당이 오늘과 같은 당으로 된것은 아이제나흐파와 라쌀파[127]와의 투쟁에 의하여서입니다. 여기서는 사소한 언쟁 같은것조차 중요한 역할을 놀았습니다. 통일은 라쌀이 자기의 도구로 삼으려고 특별히 키워낸 악당들이 이미 소멸된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였으며 또 그때 우리 사람들은 지나치게 빨리 이 통일을 서둘렀던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비록 바꾸닌의 리론을 포기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바꾸닌의 투쟁방법을 리용하며 동시에 자기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운동의 계급적성격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소멸되지 않는 한 통일은 또다시 이루어질수 없을것입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통일을 설교하는것은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노릇일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세하

에서는 불가피한 소아병에 대한 도덕적설교는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맑스엥겔스문고》, 제1권, 324～325페지를 보라.)①

엥겔스는 다른 개소(1885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순은 결코 오래동안 엄폐할수 없는것이며 결국은 투쟁에 의하여 해결되는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371페지)②

무엇보다도먼저 이것으로써 우리 당 내부에 모순이 존재하며 그리고 이러한 모순들을 투쟁의 방법으로 극복하는 과정에 우리 당이 발전하고있다는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2. 당내모순의 근원

그런데 이러한 모순과 의견상이는 어디에서 생기며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무산계급당내부의 모순의 근원은 두가지 사정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정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무산계급의 환경속에서 무산계급과 그 당에 가해지는 자산계급과 자산계급사상의 압력이다. 그런데 무산계급가운데서 가장 견실하지 못한 층이, 따라서 무산계급의 당내에서 가장 견실하지 못한 분자가 흔히 이 압력에 굴복하군 한다. 무산계급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여 사회밖에 서있는것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무산계급은 사회의 각이한 계층들과 천만갈래로 련결되여있는 사회의 일부분이다. 당은 무산계급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당도 또한 자산계급사회의 각이한 계층과의 련계 및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수 없는것이다. 무산계급과 그 당에 대한 자산계급과 자산계급사상

---

①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432페지를 보라. —편집자
②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6권, 359페지를 보라, —편집자

의 압력은 자산계급의 사상, 습성, 관습, 기분이 흔히 자산계급사회와 이러저러하게 련결되여있는 무산계급의 일부 층을 통하여 무산계급과 그 당에 침투되고있다는 그 점에서 표현된다.

그것은 물째로, 로동계급의 다양성, 즉 로동계급내부에 여러개 층이 존재한다는 사정이다. 나는 계급으로서의 무산계급을 세층으로 나눌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층은 무산계급의 기본대중, 그의 핵심, 그의 확고한 부분이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자본가계급과의 련계를 끊어버린 《순 혈통의》 무산자대중이다. 무산계급의 이 층은 맑스주의의 가장 믿음직한 기둥이다.

둘째 층은 비무산계급 즉 농민, 소시민층 및 지식인들로부터 넘어온지 오래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른 계급의 출신으로서 겨우 얼마전에야 무산계급의 대렬에 가담하였으며 자기들의 관습과 습성, 자기들의 우유부단성과 동요성을 가지고 로동계급속에 들어온것이다. 이 층은 온갖 무정부주의적, 반무정부주의적 및 《극좌적》 집단들을 위한 가장 좋은 지반으로 된다.

끝으로 셋째 층은 로동귀족 즉 로동계급의 상층으로서 무산계급가운데서 생활이 가장 안정된 부분인데 그들은 자산계급과의 타협을 지향하며 세상의 강자들에게 순응하려는 기분이 농후하고 《출세》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다. 이 층은 로골적인 개량주의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지반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이 마지막 두층은 외관상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공통적인 사회층으로, 온갖 기회주의를 배양하고있다. 로동귀족의 기분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공공연한 기회주의를 배양하게 되며 아직 소자산계급층과 완전히 련계를 끊지

못한 로동계급의 반소시민층의 기분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좌적》문구로 은폐된 기회주의를 배양한다. 《극좌적》기분은 흔히 공공연한 기회주의의 기분과 일치하다는 이 사실은 조금도 이상할것이 없다. 레닌은 《극좌적》반대파란 우적이며 멘쉐위크적인 공공연한 기회주의적반대파의 변종이라고 한두번만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만일 《극좌파》가 혁명을 주장하는것은 **래일로 끌** 혁명이 승리할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면 혁명이 정체되거나 래일로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이 꼭 절망에 빠져서 혁명에 환멸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다.

계급투쟁의 발전에 전환이 있을 때마다, 투쟁이 첨예화되거나 난관이 우심해질 때마다 자연히 무산계급의 각이한 층의 견해, 관습 및 기분상 차이는 불가피적으로 당내의 어떤 의견상이의 형태로 나타나며 자산계급과 그 사상의 압력은 불가피적으로 이러한 의견상이를 첨예화시키며 그 의견상이는 무산계급당내부의 투쟁을 거쳐서 해결되게 된다.

이러한것이 당내모순과 의견상이의 근원이다.

이러한 모순과 의견상이를 피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피할수 없다. 이러한 모순을 피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자기자신을 기만하는것이다. 엥겔스는 당내의 모순을 오래동안 엄폐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이러한 모순은 투쟁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옳게 말하였다.

이것은 당이 론쟁구락부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반대로 무산계급당은 무산계급의 전투적조직이며 또 어디까지나 전투적조직으로 되여야 한다. 나는 오직 당내의 의견상이가 원칙적인 성격을 띤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눈을 감거나 회피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말할뿐이다. 나는 오직 원칙적인 맑스주의로선을 위한 투쟁에 의하여서만 무산계급의

당을 자산계급의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보존할수 있다는것을 말할뿐이다. 나는 오직 당내의 모순을 극복함으로써만 당을 건전하게 하고 공고화할수 있다는것을 말할뿐이다.

2

쏘련공산당(볼쉐위크)내의 반대파의 특징

이제는 예비적고찰을 떠나 쏘련공산당(볼쉐위크)내의 반대파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는것을 허락하라.

무엇보다도먼저 나는 우리 당내 반대파의 몇가지 특징을 지적하려고 한다. 나는 아직 본질상의 의견상이는 언급하지 않고 눈에 뜨이는 표면적특징을 두고 말하려 한다. 나는 이러한 특징들을 세가지 주요한 특징으로 총괄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쏘련공산당(볼쉐위크)내의 반대파는 어떤 《단순한》 반대파인것이 아니라 **련합된** 반대파라는 그 점이다. 둘째로, 반대파는 《혁명적》구호로써 자기를 자랑하면서 《좌적》언사로 자기의 기회주의를 엄폐하려고 애쓰고있다는 그 점이다. 셋째로, 반대파는 그들의 원칙상의 무정견성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들을 리해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있다는 점, 반대파의 지도자들은 사실에 있어서 《리해되지 못한자》들의 분파를 대표하고있다는 그 점이다.(웃음소리)

첫째 특징으로부터 시작하자. 반대파가 우리 여기에서는 **련합된** 반대파로서, 일찌기 당에 의하여 규탄받은 온갖 파벌들의 동맹으로서 더구나 그것이 그저 《단순하게》 나타나고있는것이 아니라 뜨로쯔끼주의를 선두에 내세우고 나타나고있다. —이 사실은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써 설명된다.

첫째로, 동맹에 통일된 모든 파벌들은 그것이 뜨로쯔끼파거나 《신반대파》거나 《민주주의중앙집권파》64의 잔당이거나 《로동자반대파》120의 잔당이거나 할것없이, 그들이 모두 그 발생당초부터 레닌주의와 싸우고있었거나 최근에 와서 레닌주의와의 투쟁을 개시하였거나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기회주의적인 파벌들이라는 사실로써 설명된다. 이러한 공통적인 특징이 그들로 하여금 반당투쟁을 위한 동맹에로 련합하도록 촉진하였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둘째로, 현시기의 전환적성격으로써 설명된다. 즉 오늘날의 전환기가 우리 나라 혁명의 기본문제들을 다시금 결정적으로 제기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모든 파벌이 혁명의 일부 문제에 대하여 우리 당과 의견상이가 있었고 또 계속 의견상이가 있기때문에 자연 현시기의 총화적성격이 우리의 모든 의견상이를 총결지으면서 이러한 모든 파벌들을 하나의 동맹 즉 우리 당의 기본로선을 반대하는 동맹을 이루도록 추동하지 않을수 없었다는 이러한 사정으로써 설명된다. 이러한 사정이 각이한 반대파적파벌들을 하나의 공동진영에로 련합하도록 촉진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셋째로, 한편으로는 우리 당의 강대한 력량과 단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반대파적파벌들의 취약성 및 대중으로부터의 고립성으로써 설명된다. 이러한 사정은 그 파벌들의 고립적인 반당투쟁을 확실히 가망없는 투쟁으로 만들지 않을수 없었기때문에 반대파적파벌들은 개개의 집단들의 결합에 의하여 그들의 취약성을 보강함으로써 외관상으로나마 반대파가 승리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력량을 련합하는 길로 들어서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면 다름아닌 뜨로쯔끼주의가 반대파동맹의 선두에 나서고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써 설명되는가?

첫째로, 뜨로쯔끼주의가 우리 당내에 현존하는 모든 반대파적파벌들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기회주의적파벌이기때문이다.(국제공산당 제5차대회128가 뜨로쯔끼주의를 소자산계급적 편향이라고 인정한것은 옳았다.)

둘째로, 우리 당내의 어떠한 반대파적파벌도 뜨로쯔끼주의처럼 그렇게 교활하고도 교묘하게 자기의 기회주의를《좌적》인 언사와 가장 가장 가장 혁명적인 언사로써 가장할줄은 모르기때문이다.(웃음소리)

우리 당의 력사에서 뜨로쯔끼주의가 우리 당을 반대하는 반대파적파벌들의 선두에 나서기는 이것이 첫번이 아니다. 나는 1910～1914년에 있은 우리 당의 력사에 알려지고있는 전례를 인증하려고 한다. 그때 소위 8월련맹이라는 반당적인 반대파적파벌들의 동맹이 뜨로쯔끼를 선두로 하여 형성되였었다. 내가 이 전례를 인증하려고 하는것은 그것이 오늘날의 반대파동맹의 일종의 원형이기때문이다. 그때 뜨로쯔끼는 당을 반대하여 취소파(뽀뜨레쏘브, 마르또브 등등), 소환파(《전진파》129) 및 자기자신의 집단을 련합하였다. 그런데 오늘날 그는《로동자반대파》,《신반대파》 및 자기자신의 집단을 반대파동맹으로 련합하려고 시도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레닌은 당시에 3년동안이나 8월련맹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당시 레닌은 8월련맹의 형성직전에 그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당의 명의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바이다. 뜨로쯔끼는 반당적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그는 당의 **합법성**을 파괴하고 **모험**과 **분렬**의 길에 들어서고있다.… 뜨로쯔끼가 이 론쟁할 여지 없는 사실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있는것은 이 사실이 그의 정책의 실제적목적과 상용되지 않기때문이다. 그런데 이 실제적목적은 가장 근시안적인 당원들에게 있어서조차 점점 더 뚜렷해질 정도로 명백해지고있다. 이

실제적목적은 뜨로쯔끼가 지지하고있으며 조직하고있는 **뽀뜨레쏘브일파와 전진파와의 반당적동맹**이다.… 이 동맹은 물론 뜨로쯔끼의 〈기금〉과 그에 의하여 소집되고있는 반당적대표자회의를 지지할것이다. 왜냐 하면 뽀뜨레쏘브일파도 전진파도 여기에서 그들에게 필요한것, 즉 자기의 분파들의 자유, 그것의 신성화, 그 활동의 은폐, 로동자들앞에서의 그 활동에 대한 변호를 얻고있기때문이다.

바로 〈원칙적인 기초〉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동맹을 문자그대로의 **모험주의**라고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뜨로쯔끼는 그가 뽀뜨레쏘브나 소환파를 진짜맑스주의자, 사회민주주의원칙성의 참다운 옹호자로 본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하는것이다.** 모험주의자의 립장의 본질은 바로 그가 항상 남을 속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 있다.…바로 〈원칙적인 기초〉의 견지에서 볼 때 뜨로쯔끼와 뽀뜨레쏘브 및 전진파와의 동맹은 모험이다. **당의 정치적**과업의 견지로 보아서도 이렇게 말하는것은 역시 옳다.… 중앙위원회전원회의후의 1년간의 경험은 다름아닌 뽀뜨레쏘브의 집단이야말로, 다름아닌 전진파의 분파조직이야말로 무산계급에 대한 이러한 자산계급의 영향을 **체현하고있다**는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었다. … 끝으로, 셋째로 뜨로쯔끼의 정책은 **조직적인** 의미에서 모험인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그의 정책은 당의 합법성을 파괴하며 또한 국외집단의 명의로(혹은 두 반당적분파인 호성파130와 전진파와의 동맹의 명의로) 대표자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직접 분렬의 길로 들어서고있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5권, 65, 67~70페지를 보라.)①

이렇게 레닌은 뜨로쯔끼를 선두로 한 최초의 반당적파벌들의 동맹을 평하였다.

역시 뜨로쯔끼를 선두로 한 오늘날의 반당적파벌들의 동맹에 대하여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게, 아니 이보다 더 날카롭게 말하여야 한다.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17권, 14~15, 17, 18, 19, 20페지를 보라. — 편집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반대파가 오늘날 련합된 반대파로 진출하고있으며 또 《일반적으로》 진출하는것이 아니라 뜨로쯔끼주의를 선두로 하여 진출하고있는 원인이다.

반대파의 첫째 특징은 이러하다.

둘째 특징으로 넘어가자. 나는 반대파의 둘째 특징은 《좌익적》, 《혁명적》 언사로 자기의 기회주의적행동을 은폐하려고 애쓰는데 있다는것을 이미 말하였다. 나는 우리의 반대파들의 《혁명적》언사들과 실천에서의 기회주의적행위들이 항상 일치하지 못하다는것을 실증하고있는 사실들을 여기에서 다 말할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가식의 궤계를 알아내는데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반대파에 관한 테제[131]만 보아도 충분할것이다. 나는 다만 우리 당의 력사에서 정권을 장악한 이후의 시기에 우리 당내의 모든 반대파적파벌이 당과 당의 정책을 《좌로부터》 부단히 비판하면서 자기의 비혁명적행위를 《혁명적》언사로 엄폐하려고 애쓰고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여주는 몇가지 실례를 들려고한다.

레컨대 브레스트강화시기(1918년)에 당을 반대하여 나섰던 《좌익》공산주의자[63]들을 들어보자. 다 아는바와 같이 그들은 당을 《좌로부터》 비판하면서 브레스트강화[82]를 반대하여 나섰으며 당의 정책을 기회주의적이며 비무산계급적이며 제국주의자들과 타협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브레스트강화를 반대하여 나선 《좌익》공산주의자들은 당이 쏘베트정권을 조직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소휴식》을 얻는것을 방해하였으며 당시 브레스트강화를 반대하고있던 사회혁명당원[59]과 멘쉐위크들을 도와주었으며 쏘베트정권을 바로 그 발생당초에 압살하려고 애쓰고있던 제국주의의 행위에 편리를 주었던것이다.

《로동자반대파》(1921년)를 들어보자. 다 아는바와 같이

《로동자반대파》도 역시 당을 《좌로부터》 비판하면서 신경제정책에 대하여 갖은 《공격》을 다하였으며 공업의 복구는 공업에 원료와 식량이라는 전제조건을 부여하는 농업의 발전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레닌의 명제를 《여지없이》 《비난》하였으며 레닌의 이 명제를 무산계급의 리익을 망각하였다느니 농민적 편향이라느니 하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신경제정책이 없었더라면, 공업에 원료와 식량이라는 전제조건을 지어주는 농업의 발전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업도 있을수 없었을것이며 무산계급은 계급성을 상실한 상태에 처하게 되였을것이다. 그뿐만아니라 그후에 《로동자반대파》가 어느 면으로 발전하게 되였는가, 우측으로인가 아니면 좌측으로인가 하는것은 다 알고있는바이다.

끝으로 뜨로쯔끼주의를 들어보자. 뜨로쯔끼주의는 우리 당을 이미 여러해동안 《좌로부터》 비판하고있으며 또 국제공산당 제5차대회가 정당하게 인정한바와 같이 그것은 소자산계급적편향인것이다. 소자산계급적편향과 진정한 혁명성사이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수 있는가? 《혁명적》언사가 여기에서는 소자산계급적편향의 엄폐물에 불과하다는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나는 뜨로쯔끼주의의 포로로 된 자기의 처지를 《좌적》인 함성으로 덮어감추고있는 《신반대파》에 대해서는 구태여 말하지 않겠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무엇을 말하여주고있는가?

그것은 《좌적》인 가식으로써 기회주의적행위를 덮어감추는것은 정권을 장악한후에 있어서의 우리 당내의 각양각색의 반대파적파벌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중의 하나이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때문에 생기게 되는가?

그것은 쏘련무산계급의 혁명성때문이며 우리 나라 무산계급속에 뿌리박혀있는 위대한 혁명적전통때문이다. 그것은 반혁명분자와 기회주의분자들에 대한 쏘련로동자들의 단적인 증오심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로동자들은 로골적인 기회주의자들의 말에 단순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것이기때문이며 또 그렇기때문에 《혁명적》가식이 외관적으로나마 로동자들의 주의를 끌며 반대파에 대한 로동자들의 신임을 낚으려는 미끼로 되기때문이다. 례컨대 우리 나라의 로동자들은 영국로동자들이 토마스와 같은 반역자들을 어찌하여 지금까지 익사시킬 생각을, 그들을 우물에다 처넣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있는가를 리해할수 없는것이다.(웃음소리) 그러나 우리 나라의 로동자들을 알고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토마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기회주의자들은 쏘련로동자들속에서는 전혀 살아나갈수 없으리라는것을 쉽게 리해할것이다. 그런데 영국로동자들은 비단 토마스와 같은 량반들을 익사시키려고 하지 않을뿐만아니라 그들을 아직도 총평의회[132]에 선거하며 그것도 일반적으로 선거하는것이 아니라 시위운동으로써 선거하고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로동자들에게는 기회주의의 혁명적가식이 필요하지 않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워낙 자기의 대렬에 기회주의자들을 받아들이는것을 싫어하지 않기때문이다.

그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영국로동자들에게 혁명적전통이 결여되기때문이다. 그러한 혁명적전통은 지금 산생되고있다. 그것들은 산생되고있으며 발전되고있다. 그리하여 영국로동자들이 혁명적전투에서 단련되고있다는것을 의심할 근거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아직 없는 동안은 영국

로동자들과 쏘련로동자들간의 차이는 남아있게 된다. 이로부터 특히 다소의 《혁명적》가식도 없이 쏘련의 로동자들과 접근한다는것은 우리 당내의 기회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모험적인 일이라는 사실이 설명된다.

바로 여기에 반대파동맹이 《혁명적》가식을 리용하는 원인이 있다.

끝으로 반대파의 셋째 특징에 대하여 말하여보자. 내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이 특징은 반대파동맹의 원칙상의 무정견성, 그 무원칙성, 그 아메바같은 변형성이며 또한 그렇기때문에 반대파지도자들이 항상 자기들을 《리해해주지 않는다》느니 《외곡한다》느니 자기들이 《말하지 않은것》을 자기들에게 들씌운다느니 하는 등등의 불평을 토하는 그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리해되지 못한자들》의 분파조직이다. 무산계급당의 력사는 이 특징(《리해해주지 않는다!》)이 기회주의일반의 가장 평상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라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동지들, 당신들은 독일사회민주당이 아직 혁명적이였던 때인 90년대말과 20세기초에 독일사회민주당대렬내의 유명한 기회주의자들인 베른슈타인, 폴마르, 아우에르 등등의 《운명》이 이와 꼭같았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때 이 완고한 기회주의자들은 그들을 《리해해주지 않는다》느니 그들을 《외곡한다》느니 하고 다년간 불평을 말하고있었다. 그때 독일의 혁명적인 사회민주당원들이 베른슈타인의 분파를 《리해되지 못한자들》의 분파라고 비난한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반대파동맹이 《리해되지 못한자들》의 분파부류에 편입되고있는 사실을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이상과 같은것이 반대파동맹의 주요한 특징들이다.

3

쏘련공산당(볼쉐위크)내의 의견상이

본질상의 의견상이에로 넘어가자.

나는 우리의 의견상이를 몇개의 기본적인 문제에 귀착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시간도 없고 보고도 너무 길어졌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겠다. 더구나 당신들에게는 번역에 물론 약간의 오유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내의 의견상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주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문제에 관한 자료가 있지 않는가.

1. 사회주의건설의 제 문제

첫째 문제. 첫째 문제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의 승리적건설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다. 물론 몬테네그로나 벨가리아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쏘련을 말하는것이다. 제국주의가 존재하였으며 또 발전하고있었으며 일정한 수량의 대공업을 가지고있으며 일정한 수량의 무산계급을 가지고있으며 무산계급을 지도하는 당을 가지고있는 그러한 나라를 말하는것이다. 그러면 쏘련에서 사회주의의 승리가 가능한가? 우리 나라의 내부적력량을 기초로 하여 쏘련무산계급이 가지고있는 조건들을 기초로 하여 쏘련에다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겠는가?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것—만일 이 공식을 구체적인 계급적용어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쏘련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것은 투쟁행정에서 자기자신의 력량으로 우리 쏘련의 자산계급을 타승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쏘련의 무산계급이 능히 자국의, 즉 쏘련의 자산계급을 타승할수 있는가 하는데 귀결된다. 그렇기때문에 쏘련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는가 하고 말할 때에는 쏘련의 무산계급이 쏘련의 자산계급을 자기자신의 력량으로 능히 타승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말하려고 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는 이렇게 또 이렇게만 제기되는것이다.

당은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한다. 왜냐 하면 당은 쏘련의 무산계급, 쏘련의 무산계급독재가 자기자신의 력량으로 쏘련의 자산계급을 타승할 가능성을 가지고있다는것으로부터 출발하기때문이다.

만일 이것이 옳지 않다면, 만일 당이 쏘련의 무산계급은 우리 나라가 기술면에서 비교적 락후하다 할지라도 능히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고 단언할 근거를 가지고있지 않다면 당은 계속 정권을 잡고있을 근거가 없을것이며 어쨌든 정권을 포기하고 반정부당의 지위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왜냐 하면 둘중의 하나일것이기때문이다.

혹은 우리가 본《민족의》 자산계급을 타승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으며 또 사회주의를 종국적으로 건설해낼수 있을것이다. —그렇다면 당은 반드시 계속 정권을 장악하여가지고 전 세계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국내의 사회주의건설을 지도하여야 할것이다.

혹은 우리가 자기자신의 힘으로 자국의 자산계급을 타승할수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부로부터 즉 다른 나라들에서 승리한 혁명의 지원을 즉시 받을수 없음을 고려하여 공순히 또 정정당당하게 정권으로부터 물러나와 앞으로 쏘련에서 새로운 혁명을 조직할 방침을 취하여야 할것이다.

당이 과연 자기의 계급 즉 로동계급을 속일수 있겠는가? 아니다, 속일수 없다. 그러한 당은 륭지처참을 당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우리 당은 로동계급을 속일 권리가 없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의 결여는 우리 당으로 하여금 정권으로부터 물러나와 집정당의 지위로부터 반정부당의 지위에로 넘어가게 한다는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우리는 무산계급독재를 쟁취하였으며 그리하여 사회주의에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적**토대를 만들어놓았다. 우리는 과연 자기자신의 힘으로 사회주의의 **경제적**토대 즉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적토대를 만들어놓을수 있겠는가? 사회주의의 경제적본질과 경제적토대란 무엇인가? 지상에다 《천당》을 이룩하고 만민이 풍족하게 살도록 하는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런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경제적본질에 대한 속된 시정배적견해이다. 사회주의의 경제적토대를 만든다는것은 농업을 사회주의공업과 하나의 전일체적인 경제로 결합시키는것이고 농업을 사회주의공업에 종속시키는것이며 농산물과 공업제품의 교환을 기초로 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관계를 조정하는것이고 계급이 생겨날, 우선 자본이 생겨날 그 모든 길을 막아없애버리는것이며 나중에 계급의 폐절에로 직접 인도하는 생산조건 및 분배조건을 지어놓는것이다.

레닌동지는 신경제정책을 실시하던 때에 그리고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의 건설에 관한 문제가 당앞에 전반적으로 제기되고있던 때에 이 점에 대하여 바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물세제에 의한 여유량곡정수제의 교체, 이 교체의 근본적의의는 〈전시〉공산주의로부터 **정상적인** 사회주의적기초에로 이행하는데 있다. 여유량곡정수제나 현물세제가 아니라 대규모(《사회주의화된》)공업의 제

품과 농민의 생산물과의 교환, 이러한것이 사회주의의 경제적본질이며 그 토대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311～312페지를 보라.)①

레닌은 바로 이렇게 사회주의의 **경제적**토대의 건설에 관한 문제를 리해하고있다.

그러나 농업과 사회주의화된 공업을 결합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방대한 생산물분배기관망이 있어야 하며 방대한 협동조합기관망 즉 소비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기관망이 있어야 한다. 레닌은 바로 이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당시 자기의 소책자 《협동조합에 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나라 조건하에서 협동조합은 거의 언제나 완전히 사회주의와 일치하는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96페지를 보라.)②

그렇다면 쏘련의 무산계급은 우리 나라가 자본주의에 포위되여있는 조건하에서 자기자신의 력량으로 사회주의의 경제적토대를 건설해낼수 있겠는가?

당은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한다(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표자회의 결의문③을 보라). 레닌은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하고있다(그의 소책자 《협동조합에 관하여》만 보더라도 알수 있다). 우리 나라 건설의 모든 실천은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주고있다. 왜냐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310～311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6페지를 보라.—편집자
③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확대전원회의의 결의와 관련한 국제공산당 및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의 과업에 대하여》라는 결의를 가리킨다.(《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정서집》, 1956년 인민출판사판, 제3분책, 39～51페지를 보라.)—편집자

하면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부분의 비중이 생산의 령역에서나 교환의 령역에서나 사적자본의 비중이 감소됨에 따라 해마다 증대되고있으며 그와 동시에 사적자본의 역할은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부분의 역할에 비하여 해마다 약화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 반대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고있는가?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있다.

요컨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가능하며 사회주의경제적토대의 건설의 가능성은 보장되여있다고 인정할수 있는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러한 승리를 건설중에 있는 사회주의의 나라를 외부로부터의 온갖 위험, 제국주의의 무력간섭 및 그와 련결된 복구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보장할수 있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종국적인 승리라고 부를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만일 쏘련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문제가 본《민족의》 자산계급을 타승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라는 문제는 세계자산계급을 타승하는 문제인것이다. 당은 한 나라의 무산계급이 자기자신의 력량만으로는 세계자산계급을 타승할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당은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서는 세계자산계급을 타승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들을 중립시켜야 한다고 말하여주고있다. 당은 이러한 과업은 오직 몇개 나라의 무산계급의 힘으로써만 수행할수 있는것이라고 말하여주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란 적어도 몇개 나라에서의 무산계급혁명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 문제는 우리 당내에서 특별한 의견상이를 일으키지 않

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더 길게 말하지 않겠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동지들은 며칠전에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확대전원회의의 위원들에게 배포된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자료를 참조하여주기 바란다.

2. 《소휴식》의 요인

둘째 문제. 둘째 문제는 쏘련의 오늘날의 국제적지위의 조건에 관한 문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사업이 개시되고 전개된 그 《소휴식》기의 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는 쏘련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으며 또 건설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먼저 생존하여야 한다.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소휴식기》가 있어야 하며 무력간섭의 시도가 없어야 하며 생존과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몇가지의 최소한의 국제적조건들을 쟁취하여야 한다.

묻노니, 만일 무력간섭의 위험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하리라는것과 또 이 위험은 일련의 나라들에서 무산계급혁명이 승리한후에라야만 제거될수 있다는것이 확증되였다면 쏘베트공화국의 오늘날의 국제지위는 무엇으로 유지되고있는가? 자본주의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 나라의 오늘날의 《평화적》발전기는 무엇으로써 규정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쟁취된, 자본주의세계로 하여금 엄중한 무력간섭을 즉시 발동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외부적조건을 조성하고있는 《소휴식》 혹은 《소휴식》기는 무엇에 기초하고있는가?

오늘날의 《소휴식》기는 적어도 네가지 기본적사실에 기초하고있다.

첫째로, 제국주의자진영내의 모순에 기초하고있는바 그런 모순들은 약화되지 않고있으며 쏘베트공화국을 반대하여 쉽사

리 결탁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로, 제국주의와 식민지국가들간의 모순에, 식민지 및 예속국가들의 해방운동의 발전에 기초하고있다.

셋째로, 자본주의국가들의 혁명운동의 발전과 쏘베트공화국에 대한 전 세계 무산자들의 증대되여가는 공명에 기초하고있다. 자본주의국가들의 무산자는 아직 자국의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직접적인 혁명으로 쏘련의 무산자를 지원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제국주의국가들의 자본가들은 이미 《자국의》 로동자들을 쏘련의 무산계급을 반대하도록 추동할만한 힘이 없다. 왜냐 하면 전 세계 무산자들의 쏘베트공화국에 대한 공명은 나날이 증대되고있으며 또 증대되지 않을수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로동자가 없이 싸운다는것은 불가능하다.

넷째로, 쏘련의 무산계급의 력량과 위력, 쏘련의 사회주의건설의 성과, 쏘련붉은군대의 조직력량에 기초하고있다.

이러한 조건들의 결합이 오늘날 쏘베트공화국의 국제적지위의 특징을 이루고있는 《소휴식》기를 만들어주고있다.

3. 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와의 공통성과 불가분리성

셋째 문제. 셋째 문제는 일정한 나라에 있어서의 무산계급혁명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에 관한 문제이다. 당은 쏘련의 무산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는 각국의 무산자들을 자본주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하는 하나의 공통된 임무에 합류된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하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리해관계와 각국 혁명운동의 리해관계는 모든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라는 하나의 공통된 리해관계에 완전히 합류된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만일 각국의 무산자들이 쏘베트공화국을 동정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쏘베트공화국은 무력간섭을 당하여 궤멸될것이다.

만일 자본이 쏘베트공화국을 궤멸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모든 자본주의국가들과 식민지국가들에는 가장 암흑한 반동의 시기가 닥쳐올것이며 로동계급과 피압박민족은 압살될것이며 국제공산주의의 진지는 궤멸될것이다.

만일 쏘베트공화국에 대한 각국 무산자들의 공명과 지지가 강화증대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것인가? 그것은 쏘련의 사회주의건설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게 될것이다.

만일 쏘련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성과가 증대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것인가? 그것은 자본과 투쟁하고있는 각국 무산자들의 혁명적진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게 될것이며 무산계급과 싸우고있는 국제자본의 진지를 파괴할것이며 세계무산계급에게 승리할 기회를 더 많이 주게 될것이다.

이로부터는 쏘련무산계급의 리해관계 및 임무는 각국 혁명운동의 리해관계 및 임무와 한데 어울려 불가분하게 련결되고있다는것, 또 반대로 각국의 혁명적무산자들의 임무는 사회주의건설전선에 있는 쏘련무산자들의 임무 및 성과와 불가분하게 련결되고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기때문에 일정한 나라의 무산자들의 《민족적》임무를 국제적임무에 대립시키는것은 정치상에서 가장 엄중한 오유를 범하는것을 의미한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건설전선에서의 쏘련무산자들의 분발과 정열을 우리의 반대파들이 때때로 표현하는바와 같이 《민족적폐쇄성》 또는 《민족적국한성》의 징표라고 표현하는것은 정신이 나갔거나 유치하기 짝이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한 나라의 무산자들의 리해관계 및 임무와 모든 나라의 무산자들의 리해관계 및 임무와의 공통성과 불가

분리성을 확인하는것은 각국 무산자들의 혁명운동이 승리할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길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한 나라에서의 무산계급혁명의 승리는 종국적목적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의 혁명의 발전과 승리를 위한 수단과 보조로 된다.

그렇기때문에 쏘련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것은 모든 나라의 무산자들의 공통된 사업을 수행하는것이며 비단 쏘련에서뿐만아니라 또한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자본에 대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쏘련혁명은 세계혁명의 일부분이고 그 단서이며 그 발전의 토대이기때문이다.

4. 사회주의건설문제의 력사에 대하여

넷째 문제. 넷째 문제는 토의되고있는 문제의 력사에 대한것이다. 반대파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제가 1925년에야 우리 당내에서 제기되였다고 억설하고있다. 어쨌든 뜨로쯔끼는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무엇때문에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고 리론적으로 승인할것을 요구하고있는가? 이런 전망은 어디서 나온것인가? 어째서 1925년전에는 이 문제를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는가?》라고 단적으로 성명하였다.

이리하여 1925년전에는 이 문제가 우리 당내에서 제기되지 않았다는것으로 된다. 이리하여 쓰딸린과 부하린만이 이 문제를 당내에서 제기하였으며 또 1925년에야 그것을 제기하였다는것으로 된다.

이것이 옳은가? 아니다, 옳지 않다.

나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문제는 일찍 1915년에 레닌에 의하여 처음으로 당내에서 제기되였었다고 확언한다. 그때 레닌을 반대한 사람이 다름아닌 뜨로쯔끼

였다는것을 나는 확언한다. 나는 그때로부터 즉 1915년부터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출판물과 우리 당내에서 부차 론의되여왔다는것을 확언한다.

사실들을 들어보자.

(ㄱ) 1915년. 볼쉐위크중앙기관지(《사회민주주의자》87)에 발표된 레닌의 론문 《구라파련방의 구호에 대하여》. 이 론문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세계련방이라는 구호를 독립적구호로 삼는것은 아마 옳지 않을것이다. 첫째로 그것은 사회주의와 뒤섞여지기때문이며 둘째로 그것은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옳지 않은 견해와 그러한 나라와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한 옳지 않은 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형성은 자본주의의 절대적법칙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의 승리는 처음에는 소수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혹은 심지어 개별적인 자본주의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나라의 승리한 무산계급은 **자본주의를 수탈하고 자국에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한**①후에는 다른 자본주의세계를 반대하여 일어나 다른 나라들의 피압박계급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며 이 나라들에서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키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에 의해서라도 착취계급과 그들의 국가를 반대하여 행동할것이다.…》 왜냐 하면 《여러 사회주의공화국이 락후한 국가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완강한 투쟁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각 민족의 자유로운 련합은 불가능하기》때문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8권, 232～233페지를 보라.)②

그런데 뜨로쯔끼는 같은 해 즉 1915년에 그가 지도하는 신문(《우리의 언론》133)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09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형성은 자본주의의 절대적법칙이다.〉 이로부터 〈사회민주주의자〉〔상술한 레닌의 론문이 발표된 1915년의 볼쉐위크중앙기관지. —이.쓰딸린〕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가능하며 그렇기때문에 매개 개별적국가에서의 무산계급독재는 구라파련방의 창건을 그 선결조건으로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지었다.… 어떠한 나라든지 그 투쟁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을 〈기다려〉서는 안된다는것은 상식적인 도리로서 병행적인 국제적행동의 사상이 대기적인 국제적수수방관의 사상으로써 바뀌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것을 반복하여 말하는것이 유익하며 또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의 창의가 다른 여러 나라들의 투쟁을 추동할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본국의 지반에서 투쟁을 시작하며 또한 계속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례컨대 혁명적인 로씨아가 보수적인 구라파앞에서 견디여낼수 있다든가 혹은 사회주의적인 독일이 자본주의세계가운데 고립되여있을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가망없는—력사의 경험도 리론적판단도 이것을 립증하여준다.—일일것이다. 민족적범위내에서 사회혁명의 전망을 고찰하는것은 사회애국주의의 본질을 이루고있는 바로 그 **민족적국한성**의 회생으로 되는것을 의미한다.》①(뜨로쯔끼의 《1917년》, 제3권, 제1부, 89～90페지)

보다싶이 《사회주의적생산의 조직》에 관한 문제는 일찍 로씨야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의 전야인 1915년에, 즉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혁명에로 전환하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있던 때인 제국주의전쟁시기에 레닌에 의하여 제기되였다.

보다싶이 당시 레닌동지를 반박한것은 다름아닌 바로 뜨로쯔끼였으며 그는 확실히 레닌의 론문에는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하여,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적생산을 조직》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론의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보다싶이 《민족적국한성》이라는 비난은 일찍 1915년에 뜨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쓰딸린

로쯔끼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였으며 그리고 이 비난은 쯔딸린이나 부하린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레닌을 반대하는것이였다.

지금 지노위예브도 항상 《민족적국한성》이란 가소로운 비난을 하고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레닌과 레닌의 당을 반대하여 뜨로쯔끼가 내놓은 테제를 반복, 부활시키고있다는것을 모르고있는 모양이다.

(ㄴ) 1919년. 레닌의 론문 《무산계급독재시기에 있어서의 경제와 정치》. 이 론문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각국의 자산자들과 그들의 로골적인 졸도 및 탈을 쓴 졸도들(제2국제당의 《사회주의자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며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무산계급독재의 기본적경제문제의 견지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승리가 확보되고있다는것은 어디까지나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 세계의 자산계급이 볼쉐위크주의를 반대하여 미친듯이 날뛰면서 볼쉐위크들을 반대하는 무력침공, 음모 등등을 조작하고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만일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회경제재건에서 불가피적으로 승리하게 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인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압살하지는 못할것이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510페지를 보라.)②

보다싶이 레닌의 이 론문에는 《무산계급독재의 경제문제》,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사회경제의 재건》에 관한것이 론의되고있다. 그러면 《무산계급독재의 경제문제》란 무엇이며 무산계급독재하에서의 《사회경제의 재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한 나라에서의, 즉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건설인것이다.

(ㄷ) 1921년. 레닌의 소책자 《현물세에 관하여》③. 우리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87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503~540페지—편집자

는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를 구축해낼수 있으며 또 구축해내여야 한다는 유명한 명제.(《현물세에 관하여》를 보라.)

(ㄹ) 1922년. 모스크바쏘베트회의에서 한 레닌동지의 연설. 그는 연설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일상생활에로 끌어들이였다.》, 《신경제정책의 로씨야가 사회주의적로씨야로 되리라》고 말하였다 (《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66페지를 보라)①. 1922년 뜨로쯔끼는 《평화의 강령》의 《발문》에서 반박하면서 자기가 레닌과 론쟁하고있다는것을 공개적으로는 지적하지 않았다. 뜨로쯔끼는 그 《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산계급혁명이 민족적범위내에서는 승리적으로 완성될수 없다고 〈평화의 강령〉에서 여러 번 반복한 그 주장은 어떤 독자들에게는 아마도 우리 쏘베트공화국의 거의 5년동안의 경험에 의하여 론박된것으로 보일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은 무근거한것이다. 로동자국가가 전 세계에 대립하여 한 나라에서, 더우기 뒤떨어진 나라에서 유지되였다는 그 사실은 무산계급에게는 거대한 위력이 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인바 이 위력이 보다더 선진적인, 보다더 문명한 다른 나라에서는 참으로 기적을 창조해낼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로서 정치적 및 군사적 의미에 있어서 자체를 고수하였지만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접근하지도 못하였다. 혁명적국가의 자위를 위한 투쟁은 이 시기에 생산력의 비상한 저하를 초래하였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생산력의 발전과 번영의 로대우에서만 가능한것이다. 자산계급국가들과의 통상교섭, 미권, 제노아회의134 등등은 민족적-국가적범위내에서 고립적으로 사회주의건설를 할수 없다는데 대한 아주 명백한 증거로 되고있다.…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경제의 진점한 앙양은 구라파의 가장 주요한 나라들에서 무산계급이 승리한 이후에라야 비로소 가능하게 될것이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3권, 400～401페지를 보라. 二편집자

다.》①(뜨로쯔끼의 《1917년》, 제3권, 제1부, 92~93페지)

여기에서 뜨로쯔끼가 《민족적-국가적범위내에서 고립적으로 사회주의건설을 할수 없다.》고 하는것은 누구를 반박하고 있는것인가? 물론 쓰딸린이나 부하린을 반박하고있는것이 아니다. 뜨로쯔끼는 여기에서 레닌동지를 반박하고있는것이며 그것도 어떤 다른 문제에 관해서가 아니라 기본문제, 즉 《민족적-국가적범위내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에 관해서 반박하고있다.

(ㅁ) 1923년. 레닌의 정치적유언인 그의 소책자 《협동조합에 관하여》. 레닌은 이 소책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실 일체의 대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권력, 무산계급의 수중에 있는 국가권력, 이러한 무산계급과 수백만의 소농 및 령세농과의 동맹, 농민에 대한 이들 무산계급의 지도의 확보 등등—이 모든것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 협동조합으로써 오직 협동조합으로써만(우리는 이전에 이 협동조합을 소상인적이라고 멸시했던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신경제정책하의 지금도 역시 그렇게 멸시할 권리가 있다.)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부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아직 사회주의사회의 완전한 건설은 아니나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전부인것이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92페지를 보라.)②

이보다 더 명백하게 표현하기는 곤난할것이다.

뜨로쯔끼에게 있어서는 《민족적-국가적범위내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불가능한것이다.** 그러나 레닌은 우리 쏘련무산계급은 오늘날 무산계급독재시기에 《**완전한**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것**》을 가지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견해상의 대립은 뚜렷하다.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2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사실은 이상과 같다.

보는바와 같이 이렇게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제는 이미 1915년에 우리 당내에서 제기되였으며 그것은 친히 레닌에 의하여 제기되였으며 이 문제에 관하여 레닌과 론쟁하면서 《민족적국한성》에 빠졌다고 레닌을 비난한 사람은 다름아닌 뜨로쯔끼였다.

보는바와 같이 그때로부터 이 문제는 레닌동지가 서거할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사업의 일정에서 취소된적이 없다.

보는바와 같이 이 문제는 일정한 엄폐된 형태로 그러나 아주 똑똑하게 레닌동지와의 론쟁의 형태로 뜨로쯔끼에 의하여 재삼 제기되였으며 뜨로쯔끼는 번마다 이 문제를 레닌과 레닌주의의 정신에서가 아니라 레닌과 레닌주의를 반대하는 정신에서 언급하여왔던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뜨로쯔끼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제는 1925년까지는 아무도 제기한 일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로골적인 거짓말**을 하고있다.

5. 현시기의 쏘련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제의 특히 중요한 의의

다섯째 문제. 다섯째 문제는 현시기의 사회주의건설임무의 절박성에 대한것이다. 어째서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제가 바로 오늘날, 바로 최근에 특히 절박한 성격을 띠게 되였는가? 무엇때문에 레컨대 1915, 1918, 1919, 1921, 1922, 1923년에는 쏘련의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제가 이따금 개별적인 론문에서나 론의되였지만 1924, 1925, 1926년에는 이 문제가 우리 당의 실천에서 특히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는가? 이것은 무엇때문인가?

내가 보건대 거기에는 세가지 주요원인이 있는것이다.

첫째로, 최근 수년간에 다른 나라들의 혁명의 속도가 더디여졌으며 소위 《자본주의의 부분적안정》이 시작되였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자본주의의 부분적안정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을 약화 혹은 지어는 파괴까지 시키지나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 사회주의 및 사회주의건설의 운명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둘째로, 우리가 신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사적자본을 허용하였으며 력량을 재편성하여 다시 진공하기 위한 약간의 퇴각을 하였기때문이다. 이로부터 신경제정책의 실시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을 약화시키지나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였다.

셋째로, 우리가 국내전쟁에서 승리하여 무력간섭자들을 축출하고 전쟁으로부터의 《소휴식기》를 쟁취하였으며 그리하여 경제적붕궤상태를 일소하고 나라의 생산력을 부흥시키며 우리 나라에서의 새로운 경제건설에 착수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으로 되는 평화와 평화시기를 확보하였기때문이다. 이로부터 경제건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할것인가 즉 사회주의면으로 인도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면으로 인도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로부터 만일 사회주의면으로 경제건설을 인도한다면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와 자본주의의 부분적안정의 조건하에서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할 가능성을 가지고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로부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운명문제에 대한 전당 및 전체 로동계급의 커다란 관심이 생겼다. 이로부터 당기관들과 쏘베트정권기관들이 공업, 상업, 농업 령역에서의 사회주의적 경제형태의 비중을 강화하는 견지에서 작성하고있는 각종 통계자료의 년간총계들이 나왔다.

이것이 사회주의의 건설문제가 우리 당에 대해서나 우리 나라의 무산계급에 대해서나 또한 국제공산당에 대해서나 가장 절박한 문제로 되였다는것을 말하여주는 세가지 주요원인이다.

반대파는 쏘련의 사회주의건설문제가 다만 리론적의의를 가지고있을뿐이라고 보고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극히 당치않은 오해이다. 문제를 이렇게 취급하는것은 다만 반대파가 우리 당의 실천으로부터, 우리 나라의 경제건설로부터, 우리 나라의 협동조합건설로부터 완전히 리탈하고있다는것을 설명하여줄뿐이다. 우리가 경제적붕궤상태를 일소하고 공업을 복구하고 새로운 기술적토대우에서의 전반 인민경제의 재건기에 들어선 때인 오늘날에 있어서 사회주의건설문제는 커다란 실천적의의를 가지고있는것이다. 경제건설에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할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건설하며 무엇을 건설할것인가, 우리의 건설의 전망은 어떠하여야 하겠는가—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참으로 자각적으로 신중하게 건설사업에 대하려고 하는 성실하고 사고력을 가진 경제일군으로서는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보도 전진할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다. 우리는 자산계급민주주의를 위한 지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건설하고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내기 위하여 건설하고있는가—이것이 현재 우리의 건설사업의 근본문제이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신경제정책의 조건하에서, 자본주의의 부분적안정하에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할 가능성이 있는가—이것이 오늘날 우리 당사업과 쏘베트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레닌은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소책자 《협동조합에 관하여》만 보더라도 알수 있다). 당은 이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로씨야공산당(볼쉐위

크) 제14차대표자회의 결의문을 보라). 그러면 반대파는? 내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반대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대답하고있다. 나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의 나의 보고에서 이미 말하였지만 오늘 또 여기에서 되풀이하여 말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반대파동맹의 지도자인 뜨로쯔끼가 바로 얼마전에, 즉 1926년 9월에 반대파들에게 고하는 그 다 알고있는 글에서 그는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리론》을 《민족적국한성의 리론적변명》이라고 인정한다고 성명하였다는 사실이다.(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의 쓰딸린의 보고①를 보라.)

뜨로쯔끼의 이 문구(1926년)를 그가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문제에 관하여 레닌과 론쟁하면서 레닌동지와 레닌주의자들의 《민족적국한성》에 관한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1915년에 쓴 그의 론문과 비교하여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뜨로쯔끼가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제를 사회민주주의적으로 부인하는 자기의 낡은 립장에 머물러 있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바로 이렇기때문에 당은 뜨로쯔끼주의를 우리 당내의 사회민주주의적편향이라고 단정하고있는것이다.

6. 혁명의 전망에 대하여

여섯째 문제. 여섯째 문제는 무산계급혁명의 전망문제에 관한것이다. 뜨로쯔끼는 제15차당대표자회의에서의 연설에서 《레닌은 우리가 사회주의를 20년동안에는 도저히 건설할수 없으며 우리 나라와 같은 락후한 농민국가에서는 30년이 걸려도

---

① 쓰딸린의 《우리 당내의 사회민주주의적편향에 대하여》(《쓰딸린전집》, 한문판, 제8권, 206~264페지)를 가리킨다. —편집자

건설하지 못할것이니 최소한으로 30년 내지 50년은 걸려야 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고 말하였다.

동지들, 나는 뜨로쯔끼에 의하여 조작된 이 전망은 쏘련 혁명에 대한 레닌동지의 전망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는것을 여기에서 언명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몇분후에는 뜨로쯔끼 자신이 자기의 연설에서 이 전망과 투쟁하기 시작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남이 참견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뜨로쯔끼에 의하여 고안된 이 전망에 대해서 또 이 전망에서 도출되는 결론에 대하여서는 레닌도 당도 책임을 질수 없다는것을 언명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러한 전망을 날조한 뜨로쯔끼가 그 다음에는 자기의 연설에서 자기자신이 날조한것과 투쟁한다는 사실—이러한 사실은 뜨로쯔끼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자기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을따름이다.

레닌은 결코 30년 내지 50년 동안에는 《우리는 도저히 사회주의를 건설해낼수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기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0년 내지 20년간 농민과 옳바른 상호관계를 맺게 되면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승리가 보장될것이다.(발전하는 각국 무산계급혁명이 지연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으면 20년 내지 40년동안 백파테로의 고난을 겪게 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313페지를 보라.)①

레닌의 이 명제로부터 우리는 《20년 내지 30년 혹은 50년 동안에는 도저히 사회주의를 건설해낼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 이 명제로부터는 다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수 있다.

(ㄱ) 농민과 옳바른 상호관계를 맺게 되면 10년 내지 20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313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년 동안에 우리들에게 승리(즉 사회주의의 승리)가 보장된다는것,

(ㄴ) 이 승리는 비단 쏘련에서의 승리일뿐만아니라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승리로 될것이라는것,

(ㄷ) 우리가 만일 이 기한내에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쇄당하였으며 무산계급독재제도가 백파의 테로제도로 교체되였으며 이 백파의 테로제도는 20년 내지 40년동안 존속될수도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물론 레닌의 이 명제나 이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에 동의할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뜨로쯔끼가 하는것처럼 그것을 외곡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승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러한 승리가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그런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레닌은 자기의 저서에서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승리와 엄격하게 구별하고있다. 레닌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승리를 말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성과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는 그토록 거대한 국제적의의를 가지고있다는것, 즉 그것(승리)이 우리 나라에만 국한될수는 없고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힘찬 운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수 없으며 설혹 그 승리가 다른 나라들의 무산계급혁명의 승리와 시간적으로는 합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것은 세계혁명의 승리에로 나아가는 다른 나라들의 무산자들의 힘찬 운동을 전개시키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말하려고 하는것이다.

만일 혁명의 승리의 전망을 념두에 두었다면 레닌이 말하는 혁명의 전망은 바로 이러한것이며 우리 당내에서 론의되고

있은것도 기실은 이러한것이다.

이 전망을 30년 내지 50년이란 뜨로쯔끼의 전망과 혼동하는것은 레닌을 중상하는것이다.

7. 사실에 있어서 문제는 어떻게 되여있는가

일곱째 문제. 반대파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고 하자, 그러나 결국 누구와 동맹을 맺는것이 더 좋은가, 세계무산계급과 맺는것이 좋은가 또는 우리 나라의 농민과 맺는것이 좋은가? 누구를 동맹자로 선택하는것이 더 좋은가, 세계무산계급이 좋은가 또는 쏘련의 농민이 좋은가? 여기에서 문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고있다. 즉 쏘련의 무산계급앞에는 마치 두 동맹자—자국의 자산계급을 곧 전복할 용의가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특별한 동의를 기다리고있는 세계무산계급과 쏘련의 무산계급을 도와줄 용의는 있으면서도 쏘련의 무산계급이 이 원조를 받아들이겠는가를 충분히 믿지 못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농민—가 있는듯이 표현되고있다. 동지들, 이것은 문제를 유치하게 설정하는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설정은 우리 나라의 혁명행정과도, 세계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투쟁전선에서의 상호세력관계와도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것이다. 이렇게 말하는것은 실례이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이와 같이 설정할수 있는것은 오직 귀족녀학생들뿐이다.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몇몇 반대파분자들이 표현하는것처럼 그렇게 되여있는것은 아니다. 그뿐만아니라 문제가 우리들에게만 달렸다면 우리가 두쪽의 원조를 모두 만족스럽게 받아들일것임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는 일이다. 아니다, 실생활에 있어서는 문제는 그렇게 되여있는것이 아니다.

문제는 이러하다. 세계혁명운동의 진전이 늦어지고 서방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아직 없지만 그러나 쏘련의 무산계

급은 정권을 장악하였고 해마다 그 정권을 공고화하고있으며 기본농민대중을 자기의 주위에 단결시켜 사회주의건설전선에서 이미 큰 성과들을 거두었고 전 세계 무산자와 피압박인민들과의 친선의 뉴대를 성공적으로 공고화하고있는 이상 쏘련의 무산계급이 자본주의의 포위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자산계급을 타승할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적건설을 계속할수 있다는 그것을 부인할 근거가 있겠는가?

물론, 만일 반대파동맹이 하는것처럼 그렇게 환상에서 출발하지 않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투쟁전선에서의 현실적 력량대비로부터 출발한다면 문제는 지금 바로 이러하다.

당은 이 문제에 대하여 쏘련의 무산계급은 이러한 조건하에서 본《민족의》자산계급을 타승하고 사회주의경제를 성공적으로 건설할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반대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씨야의 로동계급은 구라파무산계급의 직접적인 국가적①지지가 없이는 정권을 유지할수 없으며 자기의 일시적지배를 장기적인 사회주의적독재로 전환시킬수 없는것이다.》(뜨로쯔끼의《우리의 혁명》, 278페지를 보라.)

그러면 뜨로쯔끼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며《구라파무산계급의 국가적지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서방무산계급의 선행적승리가 없이는, 서방무산계급의 선행적정권탈취가 없이는 쏘련의 무산계급은 비단 자국의 자산계급을 타승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을뿐만아니라 지어는 정권을 유지할수조차 없다는것이다.

문제는 바로 이러하며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의견상이의 근원이 있다.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쯔딸린

뜨로쯔끼의 이 립장은 멘쉐위크 오토 바우에르의 립장과 무엇이 다른가?

유감스럽지만 아무것도 다른 점이 없다.

8. 승리의 가능성에 대하여

여덟째 문제. 반대파는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고 하자, 그러면 누구에게 승리의 가능성이 더 많은가, 쏘련의 무산계급에게 더 많은가 또는 세계무산계급에게 더 많은가?

뜨로쯔끼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석상에서 한 자기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구라파자본주의가 30년 내지 50년 동안에 쇠퇴하여절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산계급은 혁명을 완수할수 없으리라고 상상할수 있겠는가? 묻건대 무엇때문에 구라파무산계급에 대한 무근거하고 암담한 비관주의의 전제라고밖에 말할수 없는 이러한 전제를 내가 접수하지 않으면 안된단 말인가? …나는 우리가 농민과 함께 사회주의를 건설해내는것이 구라파무산계급이 정권을 쟁취하는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아무런 리론적 혹은 정치적 근거도 나에게는 없다는것을 단언한다.》(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한 뜨로쯔끼의 연설을 보라.)

첫째로, 《30년 내지 50년동안》 구라파에는 정체상태가 있으리라는 전망을 무조건하고 버려야 한다. 뜨로쯔끼에게 우리 당의 전망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서방자본주의국가들의 무산계급혁명에 대한 이러한 전망으로부터 출발하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뜨로쯔끼자신이 이러한 허구적전망과 자기를 결부하였으니 이러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것이다. 만일 서방무산계급혁명의 현실적 전망을 고려한다면 이 기간은 적어도 절반은 단축되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둘째로, 뜨로쯔끼는 서방의 무산자들이 현재 정권을 장악하고있는 세계자산계급을 타승할 가능성이 쏘련의 무산계급이

정치적으로 이미 분쇄되고 인민경제의 지도부문들에서 축출되고 무산계급독재 및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경제형태의 압력앞에 경제면에서 퇴각하지 않을수 없게 된 본《민족의》 자산계급을 타승할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크다고 무조건하고 단정하고있다.

나는 이러한 문제설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뜨로쯔끼가 문제를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자기자신을 전면적으로 폭로한다고 생각한다. 그래 1917년 10월에 멘쉐위크들도 이와 꼭같은 말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던가? 당시 그들은 기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하고 무산계급이 소수인 로씨야무산자들보다 서방의 무산자들이 자산계급을 타도하고 정권을 탈취할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있다고 도처에서 떠들어대고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멘쉐위크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917년 10월에 로씨야무산자들은 영국, 프랑스 또는 독일의 무산자들보다 자산계급을 타도하고 정권을 탈취할 기회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있었다는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그래 전 세계 혁명투쟁의 실천이 뜨로쯔끼가 문제를 설정하는것처럼 문제를 설정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증명하지 않았단 말인가?

누구에게 빨리 승리할 기회가 더 많은가 하는 문제는 한 나라의 무산계급을 다른 나라들의 무산계급과 대비하거나 또는 우리 나라의 농민을 다른 나라들의 무산계급과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비는 어린애들의 장난과 같은 비교이다. 누구에게 빨리 승리할 기회가 더 많은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국제정세에 의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사이의 투쟁전선에서의 실지력량대비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를 건설하는데 성공하기전에 서방의 무산자들이 자국의 자산계급을 타승하고 정권을 탈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일이 없으리라고

는 결코 말할수 없다. 그러나 서방의 무산자들이 자기의 자산계급을 타도하기전에 쏘련의 무산계급이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를 건설하는데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역시 없으리라고는 결코 말할수 없다.

빨리 승리할 가능성에 관한 문제의 해결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투쟁전선에서의 현실적정세에 의존하며 또 오직 그것에만 의존한다.

9. 실지정책에서의 의견상이

우리의 의견상이의 기초는 이상과 같다.

이러한 기초로부터 대외 및 대내 정책면에서나 순 당정책면에서도 실지정책의 성격을 띤 의견상이들이 산생되였다. 이러한 의견상이들이 **아홉째 문제**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ㄱ) 당은 자본주의의 부분적안정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혁명의 간헐기에 처하여있고 우리는 자본주의국가들에서 혁명을 향하여 나아가고있으며 그러므로 공산당들의 기본임무는 대중과 접근하는 길을 개척하고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무산계급대중단체들을 장악함으로써 광범한 로동자대중을 미래의 혁명적격투에로 준비시키는데 있다고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반대파는 우리 나라 혁명의 내부적력량을 믿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부분적안정을 우리 나라 혁명을 파멸시킬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여 두려워하면서 자본주의의 부분적안정이라는 사실을 부인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있으며(혹은 생각하고있었으며) 영국의 파업[135]을 자본주의의 안정이 끝장날 징조라고 생각하고있다.(혹은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안정이 사실이라는것이 끝내 판명되였을 때에는 반대파는—그 사실이 나쁘다느니 사실을 뛰여넘을수 있다느니 하고 터무니없이 말함과 아울러 통일전선전술을 재검토하자느니 서방의 로동조합

운동과 절연하자느니 하는 등등의 요란스러운 구호들로써 기승을 부리고있다.

그러면 사실을 무시하며 사물의 객관적과정을 무시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과학의 지반에서 리탈하여 마술의 지반우에 올라섰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반대파동맹의 정책상의 모험주의가 산생된다.

(ㄴ) 당은 공업화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도로이며 우리나라의 국내시장은 사회주의공업의 기본시장이라는 점으로부터 출발하면서 공업화는 기본농민대중(로동자는 물론하고)의 물질생활을 부단히 개선하는 토대우에서 실현되여야 한다고 인정하며 공업과 농업, 무산계급과 농민과의 결합 그리고 이 결합에 있어서의 무산계급의 령도는 레닌이 표현하고있는 바와 같이 《쏘베트정권의 α와 ω ①》② 이며 우리 나라 건설의 승리의 α와 ω라고 인정하고있으며 또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정책일반이 특히 조세정책과 물가정책이 이 결합의 리익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반대파는 농민을 사회주의건설사업에 인입할수 있다는것을 믿지 않으며 분명 공업화를 기본농민대중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실시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본주의적공업화방법의 길로, 농민을 《식민지》와 같이, 즉 무산계급국가의 《착취》 대상과 같이 간주하는 길로 나아가고있으며 따라서 다만 공업과 농민경제와의 결합을 와해시키며 빈농 및 중농의 경제적지위를 악화시키며 나아가서는 공업화의 기초자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업화방책(농민에 대한 조세압박의 강화, 공업상품에 대한 인도가격의 인상 등등)을 제의하고있다.

---

① α(알파), ω(오메가)는 희랍자모의 첫번째 글자와 마지막글자이다. α와 ω는 시종, 전부 혹은 주요한, 기본적인것이라는 의미이다.—편집자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311페지를 보라.—편집자

이로부터 무산계급과 농민의 동맹 그리고 이 동맹에서의 무산계급의 령도권사상에 대한 반대파의 부정적태도—사회민주주의에 고유한 태도가 생긴다.

(ㄷ) 우리는 당 즉 공산당이 무산계급독재의 기본도구로 된다는것과 한 당의 령도(이 당은 이런 령도권을 다른 당과 나누지 않으며 또 나눌수도 없다.)는 무산계급독재의 기본조건으로서 그것이 없이는 다소라도 견고하고 발전된 무산계급독재를 생각할수 없다는 그러한 점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이렇기때문에 우리는 우리 당내에 분파들이 존재하는것은 허용할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한다. 왜냐 하면 당내에 조직된 분파들이 존재하게 되면 통일적인 당을 병행적조직들로 분렬시키게 되며 국내에 한개 또는 몇개 새로운 당의 맹아 또는 세포를 형성시키게 되리라는것, 즉 무산계급독재의 와해를 초래하게 되리라는것이 명백한 일이기때문이다.

반대파는 이 명제들을 공공연하게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실천적활동에 있어서는 당의 통일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것, 당내에 분파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것, 즉 새로운 당을 위한 요소들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것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이로부터 반대파동맹의 실천적활동에서의 분렬정책이 나온다.

이로부터 본질에 있어서 무산계급독재제도에 대한 국내비무산계급분자들의 항의의 반영인, 당내《제도》에 대한 반대파의 울부짖음이 나오는것이다.

이로부터 두개의 당이라는 문제가 나온다.

동지들, 이상과 같은것이 우리와 반대파와의 의견상이의 일반적총화이다.

4
활동하고있는 반대파

이제는 이러한 의견상이가 실천적활동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자.

그러면 우리의 반대파는 그들의 실천적활동, 즉 그들의 반당투쟁에서 사실상 어떻게 나타났는가?

다 아는바와 같이 반대파는 비단 우리 당내에서만 횡행하고있는것이 아니라 국제공산당의 다른 지부들 례컨대 독일, 프랑스 등등의 지부에서도 횡행하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기되여야 할것이다. 반대파 및 그 추종자들의 실천적활동은 쏘련공산당(볼쉐위크)에서나 국제공산당의 다른 지부들에서 실지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ㄱ) 쏘련공산당(볼쉐위크)내에서의 반대파와 그 추종자들의 실천적활동. 반대파는 당에 대하여 가장 맹렬한 비난을 퍼붓는것으로부터 자기들의 《활동》을 개시하였다. 반대파는 당이 《기회주의의 길에 들어서고있다》고 성명하였다. 반대파는 당의 정책은 《혁명적계급로선과는 배치되게 나아가고있다.》고 단언하였다. 반대파는 당이 변질하고있으며 메르미도르[136]를 향하여 나아가고있다고 단언하였다. 반대파는 우리의 국가는 《무산계급국가와는 비슷하지도 않다.》고 언명하였다. 이 모든것은 혹은 반대파대표자들의 공개적 선언과 연설(1926년 중앙위원회및중앙검열위원회7월전원회의[137])들에서 혹은 반대파지지자들에 의하여 배포된 그들의 비밀문서에서 언명되였다.

반대파는 당에 이러한 맹렬한 비난을 퍼붓는것으로써 당

내에다 새로운 병행적세포를 조직하며 새로운 병행적당중앙을 조직하며 새로운 당을 창립하기 위한 지반을 닦고있었던것이다. 반대파지지자중의 한사람인 오쏩스끼씨는 자기의 론문들에서 현존하는 당 즉 우리 당은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렇기때문에 현존하는 당과 병립하여 존재하며 활약할 새로운 당 즉《순 무산계급적당》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로골적으로 언명하였다.

반대파는 자기들이 오쏩스끼의 립장에 대하여 책임질수 없다고 말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반대파는 오쏩스끼씨의《행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오쏩스끼는 공공연히 반대파지지자로 자처하고 있었고 반대파는 이에 대하여 한번도 반대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 아는바와 같이 뜨로쯔끼는 중앙위원회 7월전원회의 석상에서 몰로또브동지를 반대하여 오쏩스끼를 비호하였던것이다. 끝으로 다 알고있다싶이 당이 일치하게 오쏩스끼를 반대하는 의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파는 중앙위원회에서 오쏩스끼의 출당에 반대투표하였다. 이 모든것은 반대파가 오쏩스끼의《행위》에 대하여 도의적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을 말하고있다.

결론: 쏘련공산당(볼쉐위크)내에서의 반대파의 실천적활동은 오쏩스끼의 립장, 우리 나라에 쏘련공산당(볼쉐위크)과 병행하며 또 그것을 반대하는 새로운 당을 창립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립장에서 표현되였다.

그렇다, 다르게는 될수도 없다. 왜냐 하면 두가지중의 하나이여야 하기때문이다.

혹은 반대파는 당에 그러한 맹렬한 비난을 퍼부으면서도 자기는 이러한 비난의 엄중성을 믿지 않고 다만 그것을 시위하기 위하여서 퍼부었다면 그들은 로동계급을 기로에로 끌어

들이는것인바 이것은 범죄이다.

혹은 반대파는 자기들의 비난의 엄중성을 믿고있었으며 또 계속 믿고있다면 그들은 당의 지도간부들을 분쇄하고 새로운 당을 조직하는 방침을 취하여야 하였는바 그들은 실지로 그러한 방침을 취하였다.

바로 이러한것이 1926년 10월까지의 쏘련공산당(볼쉐위크)을 반대하는 우리의 반대파들의 실천적활동에서의 면모였다.

(ㄴ) 독일공산당내에서의 반대파추종자들의 실천적활동.

코르쉬씨를 선두로 하는 독일의 《극좌파》는 우리의 반대파가 당에 퍼부은 비난으로부터 출발하면서 자기들의 《더 나아간》 결론들을 내렸고 또 더 로골적으로 말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독일의 《극좌파》적사상가인 코르쉬는 우리의 사회주의적공업을 《순 자본주의적공업》이라고 억설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코르쉬는 우리 당을 《부농화한》 당이라고, 국제공산당을 《기회주의적인》 조직체라고 부르고있다. 그리고 또 다 아는바와 같이 코르쉬는 이렇기때문에 쏘련에 현존하는 정권을 반대하는 《새로운 혁명》이 필요하다고 설교하고있다.

반대파는 자기들은 코르쉬의 립장에 대하여 책임질수 없다고 말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반대파는 코르쉬씨의 《행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코르쉬가 한 말은 곧 우리의 반대파지도자들이 당에 대한 주지의 비난이라는 형태로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제공하고있는 전제들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결론이다. 왜냐 하면 만일 우리 당이 기회주의의 길에 들어서고있다면, 만일 당의 정책이 혁명적계급로선으로부터 리탈되고있다면, 만일 당이 변질하여 메르미도르를 향하여 나아가고있으며 또한 우리 나라가 《무산계급국가와는 비슷하지도 않은》 나라라고 한다면 이로부터는 《부농화한》

정권을 반대하는 새로운 혁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결론밖에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그뿐만아니라 웨딩파[138]도 포함한 독일의 《극좌파》가 코르쉬의 출당에 반대투표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코르쉬의 반혁명적선전에 대한 도의적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 《극좌파》가 쏘련공산당(볼쉐위크)내의 반대파를 지지하고있다는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ㄷ) 프랑스에서의 반대파추종자들의 실천적활동. 프랑스의 반대파추종자들에 관하여서도 상술한바와 꼭같이 말하여야 할것이다. 나는 프랑스의 유명한 잡지에서 활약하고있는 쑤와린과 그의 집단을 념두에 두고 말한다. 쑤와린은 우리의 반대파가 당을 반대하는 자기들의 비난에서 제공한 전제들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의 주되는 적은 당내의 관료이며 우리 당의 상층지도부라는 결론에 도달하고있다. 쑤와린은 《출로》는 오직 하나 즉 당과 쏘베트정부의 상층지도부를 반대하는 새로운 혁명, 우선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서기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혁명밖에는 있을수 없다고 주장한다. 저쪽 독일에서는 쏘련의 현정권을 반대하는 《새로운 혁명》이고 이쪽 프랑스에서는 중앙위원회 비서처를 반대하는 《새로운 혁명》이다. 그러면 이 새로운 혁명을 어떻게 조직하겠는가? 새로운 혁명의 목적에 알맞는 특수한 당이 없이도 그 새로운 혁명을 조직할수 있겠는가? 물론 조직할수 없다. 이로부터 새로운 당의 창립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반대파는 자기들은 쑤와린의 언론에 대하여 책임질수 없다고 말할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첫째로, 쑤와린과 그의 집단은 반대파의 지지자 특히 그 뜨로쯔끼적부분의 지지자들인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둘째로, 최근까지도 반대파가 쑤와린씨를 프랑스공산당 중앙기관지 편집국에다 앉히려

고 획책하고있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하기는 이 획책은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반대파의 차실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불행이다!

이리하여 반대파는 그들의 실천적활동에 있어서, 만일 그들을, 그들자신의 자기 묘사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 즉 쏘련에서나 프랑스 및 독일에서의 활동과정에 나타난바에 의하여 판단한다면 반대파는 자기의 실천적활동에 있어서 우리 당의 현존간부들을 분쇄하고 새로운 당을 창립하려는데까지 이르렀다고 나는 말하여야 하겠다.

5

무엇때문에 무산계급독재의 적들은 반대파를 찬양하고있는가

무엇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립헌민주주의자들은 반대파를 찬양하고있는가?

혹은 달리말하면 반대파는 누구의 기분을 반영하고있는가?

여러분은 이미 소위 《로씨야문제》가 최근에 와서 서방의 사회민주당 및 자산계급 출판물의 인기를 끄는 문제로 되였다는 점에 주의를 돌렸을것이다. 이것이 우연한 일인가? 물론 우연한 일이 아니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발전과 서방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의 전개는 자산계급 그리고 로동계급내의 그들의 대리인 즉 사회민주당의 지도자들중에서 극히 지대한 소동을 일으키지 않을수 없다.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분수령은 오늘날 쏘련의 무산계급당에 대한 일부분 사람들의 악의에 찬 증오심과 다른 일부분 사람들의 동지적인 친선적태도에서 나타나고있다. 《로씨야문제》의 가장 중대한 국제적의의는 오늘날

벌써 그것을 공산주의의 적들이 고려에 넣지 않을수 없는 사실로 되고있다.

《로씨야문제》를 둘러싸고 두 전선이 형성되였다. 그 하나는 쏘베트공화국을 반대하는자들의 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쏘베트공화국의 헌신적인 벗들의 전선이다. 쏘베트공화국을 반대하는자들은 무엇을 원하고있는가? 그들은 광범한 주민대중속에다 무산계급독재와 투쟁하는 사상적 및 정신적 전제를 조성하려고 애쓰고있다. 쏘베트공화국의 벗들은 무엇을 원하고있는가? 그들은 무산계급의 광범한 층속에다 쏘베트공화국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상적 및 정신적 전제를 조성하려고 애쓰고있다.

이제 무엇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로씨야자산계급의 망명자들중의 립헌민주주의자54들이 우리의 반대파를 찬양하고있는가를 관찰하여보자.

례를 들면 독일의 유명한 사회민주당지도자 파울 레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로동자들의 특수한 리해관계가 결국 사회주의의 리해관계이며 그것은 농민의 사적소유와 모순되여있으며 로동자와 농민의 리해관계의 일치란 외견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로씨야혁명의 앞으로의 발전은 이 모순을 첨예화시키며 더욱 선명하게 할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리해관계가 일치하다고 하는 사상은 변형된 련합의 사상이라고 인정한다. 만일 맑스주의가 조금이라도 근거를 가지고있다면, 만일 력사가 변증법적으로 발전한다면 독일에서 련합의 사상이 이미 분쇄된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순은 련합의 사상을 분쇄하여버렸을것이다.… 쏘련의 사변들을 곁에서 즉 서구라파에서 관찰하고있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견해가 반대파의 견해와 일치하다는것이 명백하다.**… 로씨야에서는 계급투쟁의 구호밑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독자적운동이 또다시 시작되고있다는것이 오늘날의 사실이다.》(1926년 7월 30일부 《라이프찌히인민신문》139)

여기의 이 인용문가운데 로동자와 농민의 리해관계의 《일치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혼란이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파울 레위가 우리의 반대파를 찬양하고있는것은 반대파가 로동자와 농민의 련합에 관한 사상, 로농동맹에 관한 사상과 투쟁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도 역시 의심할바없는 사실이다.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지도자, 쏘련에서의 자본주의의 부활을 주장하고있는 《로씨야》멘쉐위크의 지도자인 악명높은 단은 우리의 반대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존제도에 대한 볼쉐위크내의 반대파들의 비판은 거의 마디마다 사회민주당의 비판을 반복하는것…으로써 사회민주당의 적극적인 강령을 접수하기 위한 사상준비를 하고있는것이다.》

계속하여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반대파는 비단 로동자대중속에서뿐만아니라 로동자공산당원들속에서까지도 손질만 잘하면 쉽게 사회민주주의적열매를 맺을수 있는 그러한 사상과 기분의 맹아를 배양하고있다.》(《사회주의통보》140, 제17~18호)

명백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밀류꼬브의 반혁명적자산계급당의 중앙기관지 《최신소식》101은 우리의 반대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날 반대파는 독재를 파괴하고있으며 반대파의 새로운 출판물들은 모두다 더욱더 《무서운》 언론을 발표하고있으며 반대파자신이 통치제도에 대한 더욱더 날카로운 공격의 방향에로 전환하고있다.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반대파를 정치적으로 불만을 품고있는 광범한 주민층의 목소리를 전하는 전파자로 고맙게 인정하는데 충족하다.》(《최신소식》, 제1990호)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날 쏘베트정권에 대한 가장 무서운 적은 남몰래 쏘베트정권에

기여들어 각 방면으로부터 자기들의 촉각으로 그것을 둘러싸서 그것이 미처 깨닫기도전에 그것을 절멸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쏘베트의 반대파는 우리가 아직 체 겪어보지 못한 준비기에 꼭 필요한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있다.》(1926년 8월 27일부 《최신소식》, 제1983호)

나는 여기에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인용을 몇십, 몇백이라도 할수 있겠지만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상의 인용만으로써 그친다.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립헌민주주의자들이 우리의 반대파를 찬양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이것이 우연한 일인가? 아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로부터 볼수 있는바와 같이 반대파는 우리 나라의 무산계급의 기분을 반영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무산계급독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있으며 무산계급독재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으며 무산계급독재가 와해되고 전복될것을 초조하게 기다리고있는 비무산계급분자들의 기분을 반영하고있다.

이리하여 우리의 반대파의 분파투쟁의 론리는 사실상 우리의 반대파의 전선이 객관적으로 무산계급독재의 반대자 및 적들의 전선과 융합되게 하였다.

반대파는 이것을 원하였는가? 혹시 그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사태는 반대파가 여기에서 무엇을 원하고있는가 하는데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파투쟁이 객관적으로 무엇을 초래하고있는가 하는데 달려있는것이다. 분파투쟁의 론리는 어떤 사람들의 원망보다 더 강력하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때문에 반대파의 전선이 사실상 무산계급독재의 반대자 및 적들의 전선과 융합되게 되였다.

레닌은 우리들에게 공산당원들의 기본의무는 무산계급독재를 수호하고 강화하는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사태는 바뀌였다. 즉 반대파는 그 분파적정책으로 말미암아 무산계급독

재의 반대자들의 진영에 전락하게 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반대파는 리론에서뿐만아니라 실천에서도 레닌주의를 리탈하였다고 말하는것이다.

다르게는 될수도 없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투쟁전선에서의 력량대비는 로동계급의 대렬내에는 오늘날 공산주의의 정책인가 아니면 사회민주주의의 정책인가 하는 두가지 정책중의 하나밖에 있을수 없게 되여있다. 쏘련공산당(볼쉐위크)을 반대하는 투쟁이 첨예화된 때에 제 잠자의 립장을 취하려고 하던 반대파의 시도는 불가피적으로 반대파가 분파투쟁의 행정에 의하여 레닌주의의 반대자들의 진영으로 떨어져버리는것으로써 종결되지 않을수 없었다.

사정은 상술한 사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바로 이렇게 되였다.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립헌민주주의자들이 반대파를 찬양하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6
반대파동맹의 패배

나는 우에서 반대파는 자기들의 반당투쟁에서 당에 극히 맹렬한 비난들을 퍼부었다는것을 말하였다. 나는 반대파가 자기들의 실천적활동에서 당을 분렬시키고 새로운 당을 창립하려는데까지 이르렀다는것을 말하였다. 이로부터 반대파는 이 분렬의 립장에서 얼마나 오래동안 지탱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 사실은 그들이 겨우 몇달동안밖에 이 립장에서 지탱할수 없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사실은 금년 10월초에 와서 반대파는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퇴각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반대파가 퇴각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나는 반대파가 퇴각하게 된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때문이라고 본다.

첫째로, 쏘련에는 반대파에게 자기의 정치적군대가 없었다. 새로운 당의 창건이라는것은 그야말로 매력있는 파제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론쟁한 결과 새로운 당을 창건하려 해도 사람이 없다는것이 판명된바 퇴각이 유일한 출로라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둘째로, 분파투쟁행정에 우리 쏘련에서나 국외에서나 온갖 비루한 분자들이 반대파와 야합하였으며 사회민주주의자들과 립헌민주주의자들은 반대파를 극력 찬양하면서 그들과 키스함으로써 로동자들앞에서 반대파가 큰 수치를 당하게 했다는데 있다. 그리하여 반대파앞에는 적들의 이 찬양과 키스를 당연한것으로서 받아들일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 붙은 더러운 꼬리들이 저절로 떨어져나가도록 퇴각에로의 급격한 전환을 일으킬것인가 하는 두가지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였다. 반대파는 이미 퇴각하고 또 자기들의 퇴각을 자인하면서 둘째 출로가 그들에게 받아들일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쏘련국내의 형편이 반대파가 예상하였던것보다 더 나았고 당원대중이 반대파가 투쟁시초에 생각할수 있었던것보다 더 자각적이며 더 단결되여있다는것이 판명되였다는데 있다. 만일 국내에 위기가 있었거나 로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거나 당이 그리 단결되지 못한것으로 보였다면 반대파는 다른 길을 걸어갔을것이며 퇴각하려는 결심을 하지 않았을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파의 타산이 이 면에서도 틀렸다는것을 증시하였다.

이로부터 반대파의 패배가 초래되였다.

이로부터 그들의 퇴각이 초래되였다.

반대파의 패배는 세 단계를 밟았다.

첫째 단계, 그것은 1926년 10월 16일부의 반대파의《성명》이다. 반대파는 이 문건에서 분파자유의 리론과 실천을 포기하였으며 분파투쟁방법을 포기하였으며 이 면에서의 자기의 오유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승인하였다. 그러나 반대파는 다만 이것만 포기한것이 아니였다. 반대파는 자기의《성명》에서《로동자반대파》와 그리고 온갖 코르쉬파 및 쭈와린파와 계선을 가른것만큼 그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이러한 류파들에 접근하게 하고있던 그들의 사상적립장도 포기하였다.

둘째 단계, 그것은 반대파가 얼마전에 당을 반대하여 퍼부은 온갖 비난을 실지로 포기한 그것이다. 반대파가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는 당을 반대하는 자기들의 비난을 감히 되풀이할수 없었다는것을 인정하여야 하며 또 이것을 인정한후에는 강조하여야 할것이다. 만일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열위원회의, 7월전원회의의 회의록을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의 회의록과 비교하여본다면 이전에 당을 기회주의이니 멘르미도르주의이니 혁명적계급로선으로부터의 리탈이니 하던 등등의 비난이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는 자취도 남지 않았다는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만일 수많은 대표들이 종전의 비난문제를 가지고 반대파에게 질문하였으나 반대파가 이 점에 대하여 한사코 침묵을 지키고있었다는 사정에 주의를 돌린다면 반대파가 당에 대한 자기들의 종전의 비난을 실지로 포기하였다는것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반대파가 그들의 일련의 사상적립장을 실제적으로 포기한것이라고 평가할수 있겠는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평가해야 할것이다. 이것은 반대파가 패배에 직면하여 자기들의 전투의 기치를 의식적으로 걷어치웠다는것을 의미한다. 물론 다르게는 될수도 없었다. 비난은 새로운 당의 창립을 타산하고 퍼부어졌던것이다. 그러나 일단 이 타산이 어그러진 이상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비난도 걷어치우지 않을수 없었다.

셋째 단계, 그것은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의 반대파의 완전한 고립이다. 반대파는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한표도 얻지 못하였으며 그리하여 완전히 고립되게 되였다는것을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금년 9월말에 반대파가 당을 반대하여 진공, 공개적인 진공을 시작하면서 일으킨 그 굉장한 소동을 회상하여보라. 그리고 그 소동을 반대파가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말하자면 외토리로 남아있었다는 사실과 비교하여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반대파가 《더 훌륭한》 패배를 바랄수는 없었다는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다.

반대파가 당에 대한 비난을 실지로 포기하였으며 대표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그와 같은 비난을 감히 되풀이할수 없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부정할수 없다, 그것은 사실이기때문에.

어째서 반대파는 이러한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어째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치를 걷어치우게 되였던가?

왜냐 하면 반대파의 사상적기치를 전개한다는것은 필연적으로 또 불가피하게 두개 당에 대한 리론을 의미하며 온갖 카쯔파, 코르쉬파, 마슬로브파, 쑤와린파 및 기타의 비루한 분자들의 활약을 의미하며 우리 나라의 반무산계급적세력의 준동과 반대파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자 및 로씨야망명자들로 이루어진 자유주의자산자들의 찬양과 키스를 의미하는것이기때문이다.

반대파의 사상적기치가 반대파를 망치고있다는것—동지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종국적인 몰락을 면하기 위하여 반대파는 퇴각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자기들의 기치를 포기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여기에 반대파동맹의 패배의 근원이 있다.

7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의 실제적의의와 중요성

동지들, 나는 보고를 끝마치려 한다. 이제 나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결의의 의의와 중요성 면에서 몇마디 결론을 말하여야 하겠다.

첫째 결론은 이번 대표자회의가 제14차당대회115이후의 당내투쟁을 총화하였으며 반대파에 대한 당의 승리를 정식화하였으며 반대파를 고립시키고 반대파가 선행시기에 우리 당에 강요한 그 분파적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것이다.

둘째 결론은 이번 대표자회의가 우리 나라 건설의 사회주의적전망의 기초우에,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위한, 우리 당내의 모든 반대파적파벌에 대한, 우리 당내의 모든 편향들에 대한 투쟁의 사상의 기초우에 우리 당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 굳게 단결시켰다는것이다.

오늘날 우리 당내에서 가장 긴절한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문제이다. 레닌이 온 세계가 우리를, 우리의 경제건설을, 건설전선에서의 우리의 성과를 주시하고있다고 말한것은 옳은 말이다. 그런데 이 전선에서 성과를 얻기 위하여서는 무산계급독재의 기본도구인 우리 당이 이 사업에

준비되여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 당이 이 과업의 중대성을 자각하고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 우리 당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의 공간으로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차 대표자회의의 의의와 중요성은 그것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의 사상으로 우리 당을 무장하는 사업을 정식화하였으며 완성하였다는데 있다.

셋째 결론은 이번 대표자회의가 우리 당내부의 각종 사상적동요에 대하여 단호히 반격을 가하였으며 또한 쏘련공산당(볼쉐위크)내에서의 레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확대전원회의가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의 결의를 승인하며 반대파에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이 옳았다고 인정한다면(나는 그것을 의심할 근거가 없다.) 이것은 전 국제공산당에서, 세계 각국 및 각 민족 인민의 혁명적무산계급대렬내에서 레닌주의가 승리할 수 있는 필요한 몇가지 중요한 조건을 제15차대표자회의가 준비하였다고 하는 넷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폭풍우같은 박수, 만장의 환호소리)

결 론

(1926년 12월 13일)

1

몇가지 의견

1.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날조와 중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동지들! 문제의 본질로 넘어가기전에 나는 반대파의 성명

을, 사실을 외곡하고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날조와 중상에 지나지 않는 성명들에 대하여 몇가지 사실상의 개정을 가하려 한다.

(ㄱ) 첫째 문제는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확대전원회의에서의 반대파의 토론에 관한 문제이다. 반대파는 성명하기를, 반대파가 토론하게 된것은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가 반대파의 토론은 1926년 10월 16일의 반대파의 《성명》을 위반할수 있다고 직접 지적하지 않았기때문이며 또 만일 중앙위원회가 그들의 토론을 금지시켰더라면 반대파의 지도자들은 토론하지 않았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반대파는 이 확대전원회의에서 토론하면서 그들은 투쟁을 첨예화시키지 않도록 온갖 방책을 강구할것이며 당에 대한 공격은—하느님맙소서—할 생각도 없으며 당에 대하여 어떤 비난을 하거나 당 결의에 대하여 장소하려는 의도는—하느님맙소서—결코 가지고있지 않았다는것을 일반적으로 《해명》하려 하였다고 성명하였다.

동지들,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이것은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은 반대파의 위선인것이다. 사실은, 특히 까메네브의 토론은 확대전원회의에서의 반대파지도자들의 토론이 《해명》이 아니라 당에 대한 공격이며 당에 대한 습격이였다는것을 실증하였다.

당을 우경이라고 비난하는 그러한 문제를 공공연히 제기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당에 대한 공격이며 당에 대한 습격인것이다.

그래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는 그 결정서에서 반대파의 토론은 투쟁을 첨예화시킬것이며 분파투쟁을 격화시킬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지적하였던것이다. 그것은 바로 반대파에 대한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의 경고였다. 중앙위원회로서 이이상 더할수 있었겠는가? 아니다, 더할수 없었다. 무엇때문에? 중앙위원회는 토론을 금지시킬수 없기때문이다. 매개 당원은 당의 결정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상소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중앙위원회는 당원의 이 권리를 무시할수 없다. 그러므로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는 투쟁의 새로운 첨예화, 분파투쟁의 새로운 격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가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다.

반대파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중앙위원회 위원들인만큼 그들의 토론이 자기 당의 결정에 대한 상소, 당에 대한 도전, 당에 대한 습격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알고있어야 할것이다.

이와 같이 반대파의 토론은, 특히 까메네브의 토론은, 그 연설원고는 뜨로쯔끼, 까메네브 및 지노위에브가 서명한것이기때문에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토론이 아니고 반대파동맹전체의 토론인것이다. 까메네브의 이 토론은 반대파동맹이 1926년 10월 16일의 분파적투쟁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그 《성명》으로부터 다시 분파적투쟁방법으로 반당투쟁을 진행하는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는 하나의 전환점인것이다.

이로부터 반대파는 분파적투쟁방법에로 돌아감으로써 1926년 10월 16일의 자기자신의 《성명》을 위반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동지들, 바로 그렇게 기록해두자. 위선을 부릴 필요는 조금도 없다. 까메네브가 고양이는 고양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한것은 옳은 말이다.(《옳습니다!》 《돼지는 돼지라고 불러야 합니다!》라는 웨침소리)

(ㄴ) 뜨로쯔끼는 자기의 연설에서 《쓰딸린은 2월혁명후에 레닌이 카우쯔키적편향이라고 규정한 그러한 그릇된 전술을

창도하였었다.》고 말하였다.

동지들,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은 중상이다. 쓰딸린은 어떠한 카우쯔키적편향도 《창도》한 일이 없다. 류형지에서 돌아온 뒤에 다소 나에게 동요가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나는 숨기지 않았으며 또한 《10월혁명에로 가는 길》86이라는 나의 소책자에서 이 점에 대하여 나자신이 쓴바 있다. 그런데 우리들중의 그 누가 순간적동요를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1917년의 레닌의 립장과 그의 4월테제110에 대하여 말한다면 (바로 이 점이 여기에서는 문제로 되고있다.) 당은 내가 당시 레닌의 테제를 반대하여나선 까메네브 및 그의 집단을 반대하여 레닌동지와 함께 동일한 대렬에 서있었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1917년의 우리 당 4월대표자회의141의 회의록을 본 사람들은 내가 레닌과 동일한 대렬에 서서 그와 함께 까메네브반대파와 싸웠다는것을 모를수 없다.

여기에서의 요술은 뜨로쯔끼가 나를 까메네브로 만들어버린것이다.(웃음소리, 박수)

까메네브가 당시 레닌을 반대하며 레닌의 테제를 반대하며 당의 다수를 반대하는 반대파의 립장에 서서 거의 방위주의에 속하는 견해를 반전시키고있었다는것은 사실이다. 까메네브가 당시 《쁘라우다》62에, 례컨대 3월달에 반 방위주의적성격의 론문들을 발표한것은 사실인데 이와 같은 론문들에 대하여 내가 조금도 책임을 질수 없는것은 물론이다.

뜨로쯔끼의 불행은 그가 여기에서 까메네브를 쓰딸린으로 보았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뜨로쯔끼는 당시, 당이 까메네브의 집단과 투쟁을 전개하던 1917년 4월대표자회의때에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당시 어떠한 당에 있었는가, 좌익멘쉐위크당에 있었는가 아니면 우익멘쉐위크당에 있었는가? 그리고 또 어째서 그는 당시

찜메르왈드좌파[142]의 대렬에 들어있지 않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뜨로쯔끼는 출판물을 통해서라도 좋으니 우리한테 이야기하라. 그러나 그가 당시 우리 당에 들어있지 않았다는것은 사실인바 뜨로쯔끼는 마땅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있어야 할것이다.

(ㄷ) 뜨로쯔끼는 자기의 연설에서 《민족문제에서 쓰딸린은 상당히 큰 오유를 범하였다.》고 말하였다. 어떠한 오유를, 어떠한 형편에서 범하였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뜨로쯔끼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동지들,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중상이다. 민족문제에 있어서 나와 당 또는 레닌사이에는 종래로 그 어떤 의견상이도 없었다. 아마도 여기에서 뜨로쯔끼는 바로 얼마전에 프랑스주재 쏘련통상대표이였던 므디와니와 같은따위의 그루지야 반민족주의자들, 반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너무 엄격한 조직적대책을 실시하고있으며 또 그들을 《박해》하고있다고 레닌동지가 우리 당 제12차대회[143]직전에 나를 책망한 하나의 사소한 사건을 문제로 삼고있는것 같다. 그러나 그후의 사실은 소위 《편향자》들, 므디와니와 같은따위의 인간들은 사실에 있어서 내가 우리 당 중앙위원회의 비서의 한사람으로서 한것보다 더 엄격한 취급을 당해야 마땅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후의 일련의 사건들은 《편향자》들이 가장 로골적인 기회주의의 부패한 분파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뜨로쯔끼더러 이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것을 증명하라고 하라. 레닌은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알수도 없었다. 왜냐 하면 그는 병석에 누워있어서 이런 사건들을 추구할수 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소한 사건이 쓰딸린의 원칙적립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질수 있는가? 뜨로쯔끼는 중상을 일삼으면서 나와 당사이에 어떤 《의견상이》가 있다는것을 암시하고있음이 분명하다. 그러

나 뜨로쯔끼도 포함한 중앙위원회전체가 민족문제에 대한 쓰딸린의 테제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는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 표결이 므디와니사건후에, 우리 당 제12차대회직전에 진행되였다는것은 사실이 아닌가? 제12차대회에서 민족문제에 대하여 보고한 사람은 바로 쓰딸린이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였다는것은 사실이 아닌가? 대체 어디에 민족문제에서의 《의견상이》가 있으며 도대체 무엇때문에 뜨로쯔끼는 이 사소한 사건을 제기하였던가?

(ㄹ) 까메네브는 자기의 연설에서 우리 당 제14차대회가 《좌익에 향하여 불질함으로써》 즉 반대파에 향하여 불질함으로써 오유를 범하였다고 언명하였다. 그런즉 당은 줄곧 당의 혁명적핵심을 반대하여 싸워온것으로 된다. 그런즉 우리의 반대파는 우익이 아니고 좌익이라는것으로 된다.

동지들, 이것은 모두 허튼소리이다. 그것은 우리의 반대파분자들이 퍼뜨리는 중상이다. 제14차대회는 혁명적다수파를 반대하여 불질하려고는 생각한 일도 없었거니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 사실에 있어서 그 대회는 우익을 향하여 즉 우리의 반대파분자들을 향하여 불질하였던것이다. 그들은 《좌익적》외의로 분장하고는 있으나 기실은 우익적반대파인것이다. 물론 반대파는 《혁명적좌익》으로 자처하기를 즐긴다. 그러나 우리 당 제14차대회는 그와는 반대로 반대파가 다만 《좌익적》언사로써 자기를 가장하고있는바 기실 그것은 기회주의적반대파라고 규정하였다. 우리는 우익적반대파가 로동계급을 기로에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자주 《좌익적》외의로써 분장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다. 《로동자반대파》도 자기를 가장 좌익적이라고 간주하고있었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들은 가장 우익적인것이다. 오늘날의 반대파도 또한 자기를 가장 좌익적이라고 간주하고있지만 오늘날의 반대파의 실천과 모든 활동은 그들이

《로동자반대파》 및 뜨로쯔끼파로부터 《신반대파》 및 그 온갖 쑤와린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우익적, 기회주의적 파벌들의 집결중심이며 체원지라는것을 실증하고있다.

까메네브는 《좌익》파 《우익》의 문제에서 《자그마한》 외곡을 하였다.

(ㅁ) 까메네브는 레닌의 저서중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를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한 한구절을 인용하고는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를 우리가 이미 완성하였다고 당이 주장한듯이 말하면서 당이 오유를 범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동지들, 이것은 허튼소리이다. 그것은 까메네브의 자그마한 중상이다. 당은 자기가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를 이미 완성하였다고 종래로 성명한적이 없다. 현재에 있어서 론쟁은 결코 우리가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를 완성하였는가 또는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는가 하는데 대해서 진행되고있는것이 아니다. 현재에 있어서 론쟁은 이 점에서 진행되고있는것이 아니다. 론쟁은 다만 우리가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를 우리들자신의 힘으로 완성할수 있는가 또는 완성할수 없는가 하는 그 점에서 진행되고있는것이다. 당은 우리가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토대를 완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파는 이를 부정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패배주의와 투항주의의 길로 전락하고있다. 현재에 있어서 론쟁은 바로 이 점에서 진행되고있는것이다. 까메네브는 자기의 립장이 불견실함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애쓰고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수 없을것이다.

까메네브는 또 하나의 《자그마한》 외곡을 하였다.

(ㅂ) 뜨로쯔끼는 자기의 연설에서 자기는 《1917년 3~4월에 레닌의 정책을 예기하였다.》고 언명하였다. 그리하여 뜨로

쯔끼는 레닌동지의 4월테제를 《예기》하였다는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뜨로쯔끼는 이미 1917년 2～3월에 레닌동지가 1917년 4～5월에 자기의 4월테제에서 주장한 그 정책을 독자적으로 고안하였다는것으로 된다.

동지들, 이것은 어리석고도 파렴치한 자화자찬이라고 언명함을 허락하라. 뜨로쯔끼가 레닌보다 앞서 《예기》하였다는 이것은 그야말로 가소로운 일이다. 농민들은 이러한 경우에 보통 《파리를 키다리에다 비교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주 정당하다.(웃음소리) 레닌보다 앞서 《예기》하는 뜨로쯔끼…뜨로쯔끼더러 출판물을 통하여 한번 똑똑이 그것을 증명해보라고 하라. 어째서 그는 단 한번이라도 그렇게 해보려 하지 않았는가? 뜨로쯔끼는 레닌보다 앞서 《예기》하였다고… 그러나 그렇다면 레닌동지가 1917년 4월에 로씨야의 무대에 나타나자마자 즉시 뜨로쯔끼의 립장과 계선을 가를 필요가 있다고 한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피예기자》가 《예기자》와 계선을 갈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레닌이 1917년 4월에 자기는 뜨로쯔끼의 기본공식 즉 《짜리를 없애고 로동자정부를 세우자》라는 기본공식과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고 루차 성명한것은 사실이 아닌가? 레닌이 당시 자기는 농민운동을 뛰여넘고 토지혁명을 뛰여넘으려고 시도하는 뜨로쯔끼와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고 루차 성명한것은 사실이 아닌가?

대체 어디에 《선견지명》이 있는가?

결론: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날조와 중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파는 날조와 중상을 일삼기를 더 좋아한다.

2. 무엇때문에 무산계급독재의 적들은 반대파를 찬양하고있는가

나는 나의 보고에서 무산계급독재의 적들, 로씨야망명자

들중의 멘쉐위크와 립헌민주주의자들이 반대파를 찬양하고있다는것을 말하였다. 나는 그들이 반대파를 찬양하고있는것은 반대파가 당의 통일을 파괴하며 따라서 무산계급독재를 파괴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을 말하였다. 나는 일련의 인용문을 들어 무산계급독재의 적들이 반대파를 찬양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며 반대파가 자기의 활동으로써 국내의 반무산계급적세력을 책양하고있으며 우리 당의 위신과 무산계급독재의 위신을 떨어뜨리려고 애쓰며 그렇게 함으로써 무산계급독재의 적들의 활동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것때문이라는것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까메네브는(또한 지노위예브도) 처음에는 우리 당을 찬양하고있으며 또한 쓰딸린을 찬양하고있는 서방의 자본주의적출판물의 말을 인용하였고 그다음에는 우리 당의 립장에 공명하고있는 록표전환파분자144이며 우리나라 자산계급천문가들의 대표자인 우스뜨랄로브의 말을 인용하였다.

자본가들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간에는 우리 당에 대하여 대단한 의견상이가 있다. 례를 들면 얼마전에 미국출판물에서는 쓰딸린을 찬양하였는데 그는 쓰딸린이 자기들에게 큰 리권을 얻을수 있게 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게아니라 쓰딸린은 그들을 《기만하였다》고 억설하면서 갖은 수단을 다하여 그 쓰딸린에게 욕설을 퍼붓고있다. 한때 자산계급출판물에는 물통을 손에 들고 혁명의 불길을 끄고있는 쓰딸린의 만화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후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다른 만화가 나타났는데 그 만화에서는 쓰딸린이 물통을 손에 들고있으나 물통에는 물이 들어있지 않고 석유가 들어있었다. 그런즉 기실 쓰딸린은 혁명의 불길을 끄는것이 아니라 일으키고있는것이다.(박수, 웃음소리)

보다싶이 그들 자본가들간에는 우리 당의 립장에 대해서도 쓰딸린의 립장에 대해서도 대단한 의견상이가 존재한다.

우스뜨랄로브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자. 우스뜨랄로브란 어떠한 사람인가? 우스뜨랄로브는 자산계급전문가이며 전체 새로운 자산계급의 대표자이다. 그는 무산계급의 계급적원쑤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원쑤들가운데는 여러가지 부류가 있다. 쏘베트정권과 화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전복시키고야말려고 하는 그러한 계급적원쑤들이 있다. 또한 쏘베트정권과 어느 정도 화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급적원쑤들도 있다. 무산계급독재를 전복하기 위한 조건들을 준비하려고 애쓰는 원쑤들이 있다. 그것은 멘쉐위크, 사회혁명당원, 립헌민주주의자 등등이다. 그러나 독재가 점차 약화, 변질하게 되여 후에 새로운 자산계급의 리익에 적응될것을 기대하면서 쏘베트정권과 협력하며 쏘베트정권을 전복하려는자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원쑤들도 또한 있다. 우스뜨랄로브는 이 후자의 부류에 속하는 원쑤이다.

무엇때문에 까메네브는 우스뜨랄로브의 말을 인용하였는가? 혹 우리 당이 변질하였으며 그렇기때문에 우스뜨랄로브가 쓰딸린 또는 우리 당을 찬양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인가? 그것을 위하여서인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까메네브가 이를 로골적으로 말할 결심이 없었기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까메네브는 우스뜨랄로브의 말을 인용하였는가? 분명히 《변질》에 대하여 암시하기 위하여서이다.

그러나 까메네브는 바로 이 우스뜨랄로브가 레닌을 일층 더 찬양한 사실을 말할것을 망각하였다. 레닌을 찬양하는 우스뜨랄로브의 론문들은 우리 당 전체가 다 아는바이다. 이것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혹 레닌동지는 신경제정책을 실시할 때 《변질》하였거나 또는 《변질》하기 시작하였던가? 이 문

제를 제기하기만 하여도 《변질》에 대한 이와 같은 억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를 가히 리해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때문에 우스뜨랄로브는 레닌과 우리 당을 찬양하고있으며 멘쉐위크와 립헌민주주의자들은 무엇때문에 반대파를 찬양하고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또한 까메네브가 애써 회피하려고 하는 문제이다.

멘쉐위크와 립헌민주주의자들이 반대파를 찬양하고있는것은 반대파가 우리 당의 통일을 파괴하고 무산계급독재를 약화시키며 따라서 쏘베트정권을 전복하려는 멘쉐위크와 립헌민주주의자들의 행위를 도와주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 인용문들이 실증하고있는바이다. 그런데 우스뜨랄로브가 우리 당을 찬양하는것은 쏘베트정권이 신경제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사적자본을 허용하였으며 무산계급이 그 조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자산계급전문가들을 허용하였기때문이다.

멘쉐위크와 립헌민주주의자들이 반대파를 찬양하고있는것은 반대파가 자기의 분파적활동으로써 무산계급독재전복을 위한 조건을 준비하는 그들의 사업을 도와주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 우스뜨랄로브일파는 무산계급독재는 전복할수 없다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쏘베트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무산계급독재의 주변에 아늑한 구석을 얻으려고 애쓰며 무산계급독재에 기여들려고 애쓰며 따라서 당이 신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일정한 조건밑에 새로운 자산계급의 존재를 허용하였기때문에 당을 찬양하는것이다. 이 새로운 자산계급은 쏘베트정권을 자기의 계급적목적을 위하여 리용하려고 하고있지만 그러나 쏘베트정권자체는 이 새로운 자산계급을 무산계급독재의 목적을 위하여 리용하고있다.

우리 나라 무산계급의 각종 계급적원쑤들간의 차이는 바로 이러하다.

멘쉐위크와 립헌민주주의자들이 반대파를 찬양하고 우스뜨랄로브일파의 제씨들이 우리 당을 찬양하는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레닌의 견해에 여러분이 류의하기를 바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우리 쏘베트공화국에 있어서는 사회제도가 두 계급 즉 로동자, 농민의 협력에 기초하여있는데 오늘날에는 일정한 조건밑에서 〈네프만〉 즉 자산계급도 이러한 협력에 참여할수 있게 되여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405페지)①

물론 일정한 조건과 쏘베트정권의 통제밑에 새로운 자산계급을 어떤 조건적인 협력에 허용한다는 바로 이것때문에 우스뜨랄로브는 이 허용하는 기회를 틀어쥐고 쏘베트정권을 리용하여 자산계급의 목적을 달성할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당을 찬양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당에는 다른 속셈이 있다. 즉 새로운 자산계급의 대표자들을,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리용하는것으로써 그들의 일부분은 쏘베트화시키거나 동화시키며 그리고 쏘베트화시킬수 없는 다른 부분은 내버리려는것이다.

레닌이 새로운 자산계급을 멘쉐위크 및 립헌민주주의자와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허용하여 리용하였고 후자에 대해서는 이를 체포할것을 제의하였다는 그것은 사실이 아닌가?

레닌동지는 이 점에 대하여 자기의 저서 《현물세에 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공산당원들은 상인, 협동조합적소자본가, 자본가들을 포함한 자산계급전문가들로부터 〈배우는〉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서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97페지를 보라.—편집자

배우는것은 우리가 이전에 군사전문가에게서 배운것과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학습〉의 결과는 오직 실제적경험에 의해서만 검증된다. 옆에서 자산계급전문가가 하는것보다 더 잘 사업하라, 전력을 다하여 농업과 공업의 발전, 농업과 공업간의 류통의 발전을 도모하라. 결코 〈수업료〉를 아끼지 말라. 학습한 효과만 있다면 비싼 수업료도 아깝지 않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352페지)①

우스쁘랄로브를 대표자로 하는 새로운 자산계급과 자산계급전문가들에 대하여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데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에 대해서는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류행되고있는 크론슈따르식의 무소속의 옷차림으로 분장한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인 〈무소속인물〉에 대해서는 그들을 조용히 감옥에 가두어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베를린에 있는 마르또브에게로 보내서 순수민주주의의 모든 아름다운것을 자유롭게 맛보도록 하며 체르노브, 밀류꼬브, 그루지야의 멘쉐위크들과 자유로이 사상을 교환하도록 할것이다.》(우와 같음, 352페지)②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혹 반대파는 레닌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것인가? 그렇다면 반대파는 솔직히 말하라.

바로 이러하기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멘쉐위크와 립헌민주주의자들은 체포되고있으나 새로운 자산계급은 우리들이 경제적수단으로 그들과 투쟁하면서 점차 그들을 타승하는 동시에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우리의 경제건설에 리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조건과 일정한 제한 밑에 그 존재가 허용되고있다.

따라서 우스쁘랄로브와 같은 일부 계급의 적들이 우리 당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540페지를 보라.—편집자
② 우와 같음.—편집자

을 찬양하고있는것은 우리가 신경제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자산계급을 현쏘베트제도와의 어떤 조건적이며 제한된 협력에 허용하였기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 자산계급의 지식과 경험을 우리의 건설에 리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다 아는바와 같이 성과적으로 실현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멘쉐위크 및 립헌민주주의자들과 같은 다른 계급의 적들이 반대파를 찬양하고있는것은 이 반대파의 활동이 우리 당의 통일을 파괴하고 무산계급독재를 파괴하며 멘쉐위크와 립헌민주주의자들을 도와 독재를 전복하는 활동을 하고있기때문이다.

나는 반대파가 첫째 종류의 찬양과 둘째 종류의 찬양간의 모든 차이를 나중에 리해하게 되리라고 기대하는바이다.

3. 오유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반대파는 여기에서 일부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약간의 오유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개별적인 오유들은 물론 있었다. 우리들중에는 절대적으로 《오유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한 사람이란 없는 법이다. 그러나 오유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오유를 범한자가 그것을 고집하지 않으며 또 그것으로 하여 정강, 분파를 이루지 않는 그러한 오유들이 있다. 이러한 오유들은 인차 망각된다. 오유를 범한자가 그것을 고집하며 또 그것으로 하여 분파, 정강 및 당내투쟁을 이루는 그러한 다른 종류의 오유들도 있는데 이러한 오유들은 인차 망각될수 없다.

이 두가지 오유는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

례를 들면 뜨로쯔끼는 내가 한때 대외무역의 독점문제에서 오유를 범하였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사실이다. 나는 사실 우리 수매기관들이 혼란에 처하고있던 시기에 곡물을 수출하

기 위하여 항구 하나를 림시로 개항할것을 제의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오유를 고집하지 않았으며 레닌과 상담한후에는 지체없이 그것을 시정하였다. 중앙위원회에 의하여 시정된 다음 고집하지 않은 그러한 뜨로쯔끼의 오유들에 대해서는 나는 몇십개, 몇백개를 들수 있다. 만일 뜨로쯔끼가 중앙위원회내에서의 사업에서 범하였으나 고집하지 않았고 따라서 망각된 그러한 대단히 엄중한, 그다지 엄중하지 않은 혹은 엄중하지 않은 모든 오유들을 일일이 들자면 이에 대해서 나는 수차의 보고를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치적투쟁에서나 정치적론쟁에서는 이러한 오유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후에 정강으로 발전하여 당내투쟁을 야기시킨 그러한 오유들에 대하여 말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뜨로쯔끼와 까메네브는 반대파적파벌로 발전되지 않은 그리고 곧 망각되여버린 바로 그러한 종류의 오유들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였다. 반대파가 바로 이 문제들에 언급하였으니만큼 나도 여기에서 반대파의 지도자들이 일찌기 범한 이런 종류의 약간의 오유들에 대하여 회상시키는것을 용서하라. 혹 이렇게 하는것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여 다시는 이미 망각된 오유들에 매달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때 뜨로쯔끼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에서 쏘베트정권은 위경에 처하여있으며 《뻐꾸기는 이미 울었으니》① 쏘베트정권은 몇주일이 아니면 몇달밖에 더 존재할수 없다고 주장하였었다. 그것은 1921년에 있은 일이다. 그것은 뜨로쯔끼의 위험한 기분을 말해주는 가장 위험한 오유이였다. 그러나 중앙위원회는 그때문에 그를 조소하였고 뜨로쯔끼도 자기의 이 오유를 고집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오유는 망각되였다.

---

① 로씨야속담에서는 뻐꾸기가 우는것은 불길한 징조라고 한다.—편집자

또 한번은 1922년에 있은 일인데 그때 뜨로쯔끼는 신용대부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공업기업소와 트레스트에 대하여 고정자본도 포함한 국가재산을 개인자본가들에게 저당으로 잡히는것을 허가하자고 제안하였다.(야로슬랍스끼동지의 목소리: 《그것은 투항의 길입니다.》) 아마 그럴것이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 기업소의 국유화폐지의 전제조건으로 될수 있는것이였다. 그러나 중앙위원회는 이 안을 부결하였고 뜨로쯔끼는 싸워보았으나 후에는 자기의 오유를 고집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오유가 지금은 망각되였다.

또 한번은 1922년에 있은 일인데 그때 뜨로쯔끼는 우리의 공업을 엄격히 집중시킬것을 제의하였다. 그렇게 미친듯이 집중하게 되면 불가피적으로 우리 로동자계급의 거의 3분의 1을 공장대문밖에 내버려두게 될것이였다. 중앙위원회는 뜨로쯔끼의 이 스콜라적이며 광포한 그리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제안을 부결하였다. 뜨로쯔끼는 그래도 장래에는 필시 이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중앙위원회에 루차 경고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서지 않았다.(좌석에서의 목소리: 《그렇게 되면 뿌젤로브공장문을 닫아버려야 하였을것입니다.》) 과연 형편은 그렇게 될것이였다. 그러나 그후에 뜨로쯔끼는 자기의 오유를 고집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오유는 망각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얼마든지 있다.

또는 뜨로쯔끼의 벗들인 지노위예브와 까메네브를 들어보자, 그들은 부하린이 일찌기 《부유해지라》고 말하였다는것을 자주 상기시키기를 좋아하며 이 《부유해지라》를 에워싸고 춤을 추고있다.

이것은 1922년에 있은 일이다. 당시 우리는 어커트의 리권과 그 리권의 극히 예속적인 조건들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있었다. 그래 어떻게 되였는가?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가

어커트의 리권의 예속적인 조건들을 접수하자고 제의하였으며 또 자기 제안을 고쳡하였다는 그것은 과연 사실이 아닌가? 그러나 중앙위원회는 어커트의 리권을 부결하였고 지노위예브와 까메네브는 자기의 오유를 더는 고집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오유는 방각되였다.

또는 까메네브가 범한 오유들중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들어보자. 그 사실을 나는 언급하고싶지 않지만 까메네브가 나로 하여금 그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왜냐 하면 그가 부하린의 오유, 부하린이 이미 오래전에 시정한 오유를 역증이 날 정도로 루차 상기시켰기때문이다. 나는 까메네브가 씨비리에 류형당하였을 때의 한가지 사건만 언급하려 한다. 2월혁명후에 까메네브는 씨비리 아친스크의 유명한 상인들과 함께 립헌주의자 미하일 로마노브에게 축전을 보냈던것이다. (《치욕이다!》라는 고함소리) 짜리가 퇴위한후 《왕위계승권》을 넘겨받은 바로 그 미하일 로마노브에게 축전을 보냈던것이다. 물론 이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오유였으며 따라서 이 오유때문에 까메네브는 1917년의 4월대표자회의에서 우리 당의 엄격한 규탄을 받았다. 그러나 까메네브는 자기의 오유를 승인하였고 따라서 오유는 망각되였다.

이러한 종류의 오유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필요없다. 왜냐 하면 그것들은 이미 망각되였고 오래전에 퇴치되였기때문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뜨로쯔끼와 까메네브는 이러한 종류의 오유들을 꺼내가지고 당내론쟁에서의 상대편을 책망하고있는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다만 우리들로 하여금 반대파지도자들의 허다한 오유를 상기하지 않을수 없게 할 따름이라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우리는 반대파의 트집잡기와 악의적인 중상의 버릇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오유도 있다. 그것은 오유를 범한자들이 그것을 고집하며 또 후에 분파적인 정강들로 발전되는 그러한 오유들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오유들이다. 당의 파업은 이러한 오유들을 폭로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는데 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오유를 극복하는것은 당내에 맑스주의의 원칙을 확립하며 당내의 통일을 유지하며 분파활동을 퇴치하며 이러한 오유들을 반복하지 못하게 담보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때문이다.

당을 반대하는 하나의 전일적정강으로 전환되였던 브레스트강화때의 뜨로쯔끼의 오유를 례로 들어보자. 이러한 오유들을 반대하여 공개적으로 또 단호하게 싸울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우리 당내에 전국적론쟁을 야기시켰던 직업동맹문제에 대한 론쟁때의 뜨로쯔끼의 다른 오유를 례로 들어보자.

또는 1917년 10월폭동을 앞두고 당내에 위기를 조성하였던 지노위예브와 까메네브의 10월의 오유를 례로 들어보자.

또는 분파적인 정강과 반당투쟁의 형태를 취하여온 반대파동맹의 현재의 오유들을 례로 들어보자.

이와 같은 사실은 얼마든지 들수 있다.

이와 같은 오유들을 반대하여 공개적으로 또 단호하게 투쟁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당내의 의견상이가 문제로 되여있을 때 이러한 오유들을 묵파할수 있겠는가? 묵파할수 없는것은 명백하다.

4. 지노위예브식의 무산계급독재

지노위예브는 자기의 연설에서 무산계급독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쓰딸린은 《레닌주의 제 문제에 대하여》라는 주지의 론문에서 무산계급독재의 개념을 옳지 못하게 설명하고있다고

단언한다.

동지들, 이것은 허튼소리이다. 지노위에브는 여기에서 자기의 허물을 남에게 넘겨씌우려 하고있다. 사실에 있어서는 지노위에브가 무산계급독재에 대한 레닌의 견해를 외곡하고있다고밖에 말할수 없다.

지노위에브에게는 무산계급독재에 대하여 두가지 설이 있다. 그중 그 어느것도 결코 맑스주의적이라고는 할수 없으며 그것은 서로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첫째 설. 당은 무산계급독재체계에서의 기본적인 지도적 력량이라는 옳바른 명제에서 출발하여 지노위에브는 **무산계급독재는 당의 독재**이라는 전혀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고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노위에브는 당의 독재를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하고있다.

그런데 당의 독재를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로, 그것은 계급과 당파의 사이에, 전체와 부분과의 사이에 등호를 긋는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일이다. 레닌은 당을 계급과 결코 동일시한 때가 없었으며 또 동일시할수도 없었다. 당과 계급과의 사이에는 실로 허다한 무산계급의 비당적대중단체들이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의 뒤에는 무산자계급의 전체 대중이 서있다. 이 비당적대중단체들의 역할과 비중을, 더우기 로동계급의 전체 대중의 역할과 비중을 무시하며 또 당은 무산계급의 비당적대중단체들과 무산계급의 전체 대중을 대신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당을 대중으로부터 분리시키며 당의 관료화를 최고도에 달하게 하며 당을 오유없는 절대적인 세력으로 전화시키며 당내에 《네차예브주의》145와 《아락체예브식제도》146를 부식시키는것을 의미한다.

레닌이 이와 같은 무산계급독재의 《리론》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고있지 않는다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둘째로, 그것은 당의 독재라는것을 레닌동지가 바로 그렇게 리해하고있었던바와 같이 전의에서 즉 당이 로동계급을 령도한다는 의미에서 리해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독재》란 말의 문자그대로의 의미에서 즉 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령도를 폭력으로 바꾸어놓는 의미에서 리해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대체 독재란 이 말의 문자그대로의 의미는 어떠한것인가? 독재란 이 말의 문자그대로의 의미는 폭력에 의거하는 권력인것이다. 왜냐 하면 독재란 이 말의 문자그대로의 의미에서 볼때 폭력의 요소가 없이는 독재란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당이 자기의 계급에 대하여, 로동계급의 다수에 대하여 폭력에 의거하는 권력이 될수 있겠는가? 그럴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자산계급에 대한 독재가 아니라 로동계급에 대한 독재로 될것이다.

당은 자기 계급의 스승이며 지도자이며 수령이지만 그러나 로동계급의 다수에 대하여 폭력에 의거하는 권력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로동계급대렬속에서의 무산계급당의 기본적인 사업방법인 설복의 방법에 대해서는 말할수도 없을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이 자기 정책의 정당성을 광범한 무산계급대중에 설복해야 한다는것, 그리고 오직 이 과업을 수행하는 행정에 있어서만 당은 무산계급을 전투에로 인도할수 있는 참으로 대중적인 당으로서 자인할수 있을것이라는것, 이런것에 대해서는 말할수도 없을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당은 무산계급에 대한 설복의 방법을 명령과 위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것이며 무산계급독재의 맑스주의적리해와는 전혀 량립할수 없는것이다.

당의 독재(령도)를 무산계급독재와 동일시하는 지노위에

브의 《리론》은 바로 이렇게 부질없는 정도에까지 이르고있다.

레닌이 이러한 《리론》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가지고있지 않다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는 나의 론문 《레닌주의의 제 문제에 대하여》에서 지노위예브를 반대할 때 이 부질없는 론조를 론박하였다.

이 론문이 우리 당의 지도적동지들의 완전한 동의와 찬성하에 집필출판된것이라는것을 말해두는것은 아마 공연한 일이 아닐것이다.

무산계급독재에 대한 지노위예브의 첫째 종류의 설은 이러하다.

둘째 설로 넘어가자. 만일 첫째 설이 한 방향에서 레닌주의를 외곡한것이라면 둘째 설은 첫째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레닌주의를 외곡하고있다. 그것은 즉 이 둘째 설은 지노위예브가 무산계급독재를 한 계급 즉 무산자계급의 령도로서 규정하고있는것이 아니라 **두** 계급 즉 로동자와 농민의 령도로서 규정하고있다는 그 점에 있다.

지노위예브가 이 점에 대하여 말하고있는바를 여기에 들면 다음과 같다.

《지금 국가생활의 령도권, 키, 방향은 **두** 계급—로동계급과 농민—의 수중에 있다.》(지노위예브 《로농동맹과 붉은군대》, 1925년 레닌그라드 《파도》출판사판, 4페지)

지금 우리 나라에는 무산계급독재가 존재하고있다는것을 부정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부정할수 없다. 우리 나라의 무산계급독재란 무엇인가? 지노위예브의 견해에 의하면 무산계급독재란 아닌게아니라 두 계급이 우리 나라의 국가생활을 지배한다는것이다. 이것이 무산계급독재의 맑스주의적견해와 상용될수 있겠는가? 상용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레닌은 무산계급독재란 **한** 계급 즉 무산자계급의 지배라고 말하였다. 무산계급과 농민의 동맹의 조건하에서는 이 무산계급의 **전정**은 이 동맹에서의 령도적력량이 무산계급과 그의 당이며 그리고 이 당은 국가생활의 령도권을 다른 력량 또는 다른 당과 나누지 않을뿐만아니라 또 나눌수도 없다는 점에서 표현된다. 이 모든것은 극히 상식적이며 론쟁할 여지 없는것인바 설명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그런데 지노위예브는 무산계급독재를 두 계급의 령도라고 보고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재를 어째서 무산계급독재라 하고 무산계급과 농민의 독재라고는 부르지 않는가? 그리고 또 무산계급독재에 대한 지노위예브의 리해에 의한다면 《국가생활의 키》를 잡고있는 두 계급에 상응하여 우리에게는 두 당의 령도가 있어야 한다는것이 과연 명백하지 않은가? 지노위예브의 이 《리론》과 무산계급독재에 대한 맑스주의의 견해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을수 있겠는가?

레닌이 이 《리론》과는 아무러한 공통점도 없다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결론: 지노위예브의 《리론》의 첫째 설이나 또는 둘째 설은 꼭같게 지노위예브가 무산계급독재에 대한 레닌의 학설을 분명히 외곡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5. 뜨로쯔끼의 예언자적발언

더 나아가 나는 실지로 사람들을 미혹시킬 목적을 가진 뜨로쯔끼의 애매한 약간의 성명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나는 약간의 사실만을 들려고 한다.

하나의 사실. 뜨로쯔끼는 자기의 멘쉐위크적과거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약간의 허세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내가 볼쉐위크당에 가입했다는 이 사실…이 사실자체가 벌써 내가 그때까지 나를 볼쉐위크주의와 분리시키고있던 모든것을 당의 문턱에다 내려놓았다는것을 증명한다.》

뜨로쯔끼를 《볼쉐위크주의와 분리시키고있던 모든것을 당의 문턱에다 내려놓았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렘멜레가 이에 대하여 《그러한것들을 어떻게 당의 문턱에다 내려놓을수 있는가?》라고 질문한것은 옳은 말이였다. 사실 그렇게 더러운것들을 어떻게 당의 문턱에다 내려놓을수 있겠는가?(웃음소리) 이 질문에 대하여 뜨로쯔끼는 종시 대답하지 않았다.

이밖에 뜨로쯔끼의 멘쉐위크적잔재를 당의 문턱에다 내려놓았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그는 당내에서의 장래의 전투를 위하여 저장해둘 목적으로 이것들을 당의 문턱에다 내려놓은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들을 단순히 즉시 불태워버리려는것이였는가? 아마도 뜨로쯔끼는 저장해둘 목적으로 당의 문턱에다 내려놓은것 같다. 왜냐 하면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가 입당후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되였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지되지 않고있는, 뜨로쯔끼와 당과의 련속적인 의견상이는 무엇으로써 설명할것인가?

여러분자신이 판단해보라. 1918년에 브레스트강화에 관한 문제에서 뜨로쯔끼와 당사이에 의견상이가 있었으므로 당내투쟁이 벌어졌다. 1920~1921년에는 직업동맹운동에 대하여 뜨로쯔끼와 당사이에 의견상이가 생겨 전국적인 론쟁이 벌어졌다. 1923년에는 당건설과 경제정책의 기본문제에 대하여 뜨로쯔끼와 당사이에 의견상이가 생겨 당내론쟁이 벌어졌다. 1924년에는 10월혁명의 평가문제와 당의 령도문제에 대하여 뜨로쯔끼와 당사이에 의견상이가 있었으므로 당내론쟁이 벌어졌다. 1925~1926년에는 뜨로쯔끼 및 그의 반대파동맹이 우리 나라 혁명과 당면정책의 기본문제에서 당과 의견상이가 생

겼다.

《자기를 볼쉐위크주의와 분리시키고있던 모든것을 당의 문턱에다 내려놓은》 사람으로서는 의견상이가 너무도 많지 않은가?

뜨로쯔끼와 당사이의 이 련속적인 의견상이를 합법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수 없을것이다.

그렇다면 뜨로쯔끼의 이 극히 애매한 성명은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고있는가?

듣는 사람들의 이목을 흐리게 하여 그들을 미혹시키려는 단 하나의 목적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른 하나의 사실. 다 알다싶이 뜨로쯔끼의 부단혁명의 《리론》에 관한 문제는 우리 당의 사상체계의 견지로부터 보나 우리 혁명의 전망의 견지로부터 볼 때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 알다싶이 이 《리론》은 우리 나라 혁명의 동력문제에 있어서 레닌주의의 리론과 대적해보려는 야망을 가지고있었으며 또 계속 가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1926년)에 있어서는 자신의 부단혁명의 《리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루차 뜨로쯔끼에게 질문한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뜨로쯔끼는 국제공산당전원회의에서 한 자기의 연설에서 어떠한 대답을 주었던가? 극히 애매한 대답을 주었다. 그는 부단혁명의 《리론》은 약간의 《결함》을 가지고있으며 이 《리론》의 어떤 면들은 우리의 혁명실천에서 정당성을 확정받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런즉 이 《리론》의 일부 면에는 《결함》이 있지만 이 《리론》의 다른 면에는 《결함》이 없으며 따라서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있다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부단혁명의 《리론》의 일부 면들과 이 《리론》의 다른 면들을 어떻게 서로 구별한단 말인가? 그래 부단혁명의 《리론》은 하

나의 전일적체계가 아니란 말인가? 부단혁명의 《리론》을 하나의 상자로, 말하자면 두 모서리는 썩고 나머지 두 모서리는 아직 온전하고 생생한 그러한 상자로 간주할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다음으로 뜨로쯔끼가 도대체 어떠한 《결함》들을 념두에 두고있으며 도대체 부단혁명의 《리론》의 어떠한 면들을 그는 옳지 않은것으로 생각하고있는가를 말하지 않고 다만 《결함》일반에 관한 단순한 그리고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 성명에만 그칠수 있단 말인가? 뜨로쯔끼는 부단혁명의 《리론》의 약간한 《결함》들에 대해서 말하고있으나 그러나 바로 어떠한 《결함》들을 념두에 두고있으며 이 《리론》의 바로 어떠한 면들을 옳지 않은것이라고 생각하고있는가 하는 이 모든 점에 대해서는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뜨로쯔끼의 성명은 문제의 회피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되며 뜨로쯔끼에게 아무런 의무도 지우지 않는 이 《결함》이란 애매한 문구로써 회피하려는 시도로 간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뜨로쯔끼의 이 경우에 있어서의 행동은 옛날에 어떤 교활한 예언자들이 하던 행동과 꼭같은바 옛날에 그 예언자들은 《강을 건늘 때 대군이 패망하리라》 하는 식의 애매한 대답으로써 질문자들을 회피하군 하였다. 어떠한 강을 건늘 때 누구의 대군이 격파될것인가 하는것은 사람마다 리해하기에 달린다.(웃음소리)

6. 맑스, 엥겔스, 레닌을 인용하는 소학생의 역할을 하는 지노위예브

다음으로 나는 지노위예브가 맑스주의의 고전적로작들을 인용하는 그의 특별한 수법에 대해서 몇마디 말하려 한다. 지노위예브의 이러한 수법의 특징은 그것이 모든 시기와 날자를

혼동하여 그것들을 뒤섞어놓음으로써 맑스와 엥겔스의 개별적 명제와 공식을 현실과의 유기적련계에서 떼여내여 진부한 교조로 전화하게 하며 이리하여 《맑스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라는 맑스와 엥겔스의 기본요구에 배치된다는 점에 있다.

몇가지 사실들을 보기로 하자.

(ㄱ) 첫째 사실. 지노위예브는 자기의 연설에서 맑스의 소책자 《프랑스계급투쟁》(1848～1850년)중의 주지의 한구절, 즉 《로동계급의 과업〔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있는것이다. —이.쓰딸린〕은 자기 나라의 범위내에서는 해결할수 없다.》①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다음으로 지노위예브는 엥겔스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1858년)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곤난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대륙에서 혁명이 불가피적이며 즉시 사회주의적성격을 띨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아주 넓은 령역에서는 자산계급사회가 의연히 상승선을 걷고있으니 혁명이 이 자그마한 모퉁이에서는 불가피적으로 진압되지 않겠는지요?》②(《맑스엥겔스서한집》, 로문판, 74～75페지를 보라.)③

지노위예브는 19세기 40～50년대에 한 맑스의 이 말들을 인용하고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든 시기에 있어서 개별적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제의 해답은 부정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있다.

지노위예브가 맑스를, 개별적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제에서의 그의 견해와 기본로선을 리해하였다

---

① 《맑스엥겔스전집》, 제1권, 595～596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③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9권, 348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고 말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수 없다. 반대로 이런 인용문들에서는 지노위예브가 맑스를 전혀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맑스의 기본견해를 외곡하고있다는것을 볼수 있다.

맑스의 이 말에서 자본주의발전의 어떠한 조건밑에서든지 개별적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올수 없다. 맑스의 말에서는 다만 《자산계급사회가 의연히 상승선을 걷고있는》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별적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따름이다. 그런데 만일 전반 자산계급사회의 운동이 사물의 발전에 의하여 자기의 방향을 변경하여 하강선을 걷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맑스의 말에서는 그러한 조건밑에서는 개별적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을 부정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노위예브는 맑스의 이 인용문들이 독점전자본주의시기에 관한것이라는것을 망각하고있다. 당시 전반 자본주의는 상승선을 따라 발전하고있었으며 전반 자본주의의 발전은 영국과 같은 그러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의 부패과정을 동반하고있지 않았으며 그리고 또 발전의 불균형법칙은 그것이 그후 독점자본주의시기 즉 제국주의시기에 그렇게 된것처럼 자본주의가 와해되는 강력한 요인으로는 아직 되지 못하고있었으며 또 그렇게 될수도 없었다. 독점전자본주의시기에 있어서 로동계급의 기본과업은 개별적인 나라들에서 해결할수 없다고 한 맑스의 말은 완전히 옳은 말이다. 나는 이미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의 나의 보고에서 기왕의 시기 즉 독점전자본주의시기에 있어서 개별적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제의 해답은 부정적이였으며 또 그러한 해답은 전적으로 지당하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즉 독점전자본주의가 제국주의적자본주의에로 전환된 현재의 자본주의시기에 있어서 전반 자본주의가 의연히 상승선을 따라 발전하고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제국주의의 경제적본질에 대한 레닌의 분석은 제국주의시기에 있어서는 전반 자본주의사회가 하강선을 걷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레닌이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적자본주의는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라고 말한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레닌동지는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국주의는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이행하고있는 자본주의라는 리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내부에서 성장하는 독점이 별써 자본주의의 사멸이며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시초이기때문이다. 제국주의에 의한 로동의 대규모적사회화(변호자-자산계급경제학자들이 《교착》이라고 부르고있는것)도 역시 같은것을 의미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9권, 302페지를 보라.)①

전반적으로 상승선을 따라 발전하는 독점전자본주의와 제국주의적자본주의는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제국주의적자본주의시기에 있어서는 세계가 이미 자본주의집단들에 분할되여있으며 그리고 자본주의의 비약적발전은 이미 분할된 세계를 군사적충돌에 의하여 새로 재분할할것을 요구하며 그리고 또 이때문에 발생하는 제국주의집단들간의 충돌과 전쟁은 세계자본주의전선을 약화시키고 그것을 격파되기 쉬운것으로 만들어서 개별적인 나라들에서 이 전선을 돌파할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한다. 그때 독점전자본주의하에서는 개별적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란 불가능한것이였다. 지금 제국주의시기에는, 즉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시기에는 개별적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가 이미 가능하게 되였다.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884~885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동지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 점이 바로 지노위예브가 리해하기 싫어하는 점이다.

보는바와 같이 지노위예브는 맑스의 견해를 떠나서 맑스의 개별적인용문에 매달리는 그러한 소학생처럼 맑스를 인용하고있으며 또 이 인용문들을 맑스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자로서 적용하고있는것이다.

수정주의자적맑스인용수법은 어떤것인가? 수정주의자적맑스인용수법은 일정한 시대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떠나서 맑스의 개별적명제들에서 인용한 **문구**로써 맑스의 **견해**를 대체하는것이다.

지노위예브의 맑스인용수법은 어떤것인가? 지노위예브의 맑스인용수법은 맑스의 **문구**를 인용함에 있어서 그 문구와 19세기 50년대의 발전조건들의 유기적련계를 끊어버리고 교조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써 맑스의 **견해**를 대체하는것이다.

나는 여기서 해석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ㄴ) 둘째 사실. 지노위예브는 엥겔스가 《공산주의원리》①(1847년)에서 로동자혁명은 《어떤 한개 나라에서 일어날수 없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엥겔스의 이 말을 내가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한 성명, 즉 우리는 쏘련에서 엥겔스가 제기한 12개조요구의 10분의 9를 이미 실현하였다고 한 성명과 대비한 다음 여기에서 두개의 결론을 짓고있다. 즉 첫째로 개별적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것과 둘째로 내가 자기의 성명에서 쏘련의 현정세를 미화하고있다는 그것이다.

엥겔스의 말을 인용한데 대하여 말한다면 지노위예브는 여기에서도 그가 맑스의 말을 해석할 때처럼 오유를 범하고있

---

①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274~296페지를 보라. —편집자

다는것을 지적해야 하겠다. 독점전자본주의시기에, 즉 전반 자산계급사회가 상승선을 따라 발전하는 시기에는 엥겔스가 개별적인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에 부정적인 해답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본주의의 낡은 시기에 적합하게 론술된 엥겔스의 이 명제를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기, 제국주의시기에다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것은 독점전자본주의시기의 현실적인 발전조건들을 떠나서 인용한 개별적인 문구들에 들어맞게 엥겔스와 맑스의 견해를 외곡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미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한 나의 보고에서 엥겔스의 이 공식이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정당한 공식이였다는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리해하여야 할것은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라고는 론의도 될수 없었던 시기인 19세기 40년대와 자본주의 발전의 현시기, 즉 전반 자본주의가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로서의 제국주의의 시기를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당시에 있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그것이 현재에 있어서는, 즉 자본주의의 새로운 조건하에서는 가능한것으로, 필연적인것으로 되였다는것을 과연 리해하기 어려운 일이겠는가?

보는바와 같이 지노위예브는 여기서 엥겔스를 대하는것도 맑스를 대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맑스주의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수정주의자적인용수법을 고집하고있다.

지노위예브의 둘째 결론에 대하여 말한다면 지노위예브는 로동자혁명에 대한 엥겔스의 12개조요구 혹은 대책을 직접 외곡하였다. 지노위예브의 표현에 의한다면 엥겔스는 자기의 12개조요구에서 계급의 폐절, 상품생산의 폐절, 따라서 국가의 폐절에 이르기까지의 전개된 사회주의강령을 제기하고있는것같이 되여있다. 이것은 전혀 옳지 않다. 이것은 엥겔스를

완전히 외곡하는것이다. 엥겔스의 12개조요구에는 계급의 폐절이나 상품경제의 폐절이나 국가의 폐절이나 각종 형태의 사적소유의 폐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와는 반대로 엥겔스의 12개조요구는 《민주주의》(엥겔스는 당시 《민주주의》란 말로 무산계급독재를 리해하고있었다.)의 존재, 계급의 존재와 상품경제의 존재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엥겔스는 그의 12개조요구는 《사적소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범》(완전한 폐절이 아니라)을 념두에 두고있으며 《무산계급의 생존의 보장》(계급으로서의 무산계급의 폐절이 아니라)을 념두에 두고있다고 단적으로 말하고있다. 엥겔스의 말은 다음과 같다.

《모든 정조로 보아 다가오고있는 무산계급혁명은 다만 점차적으로만 현사회를 개조할수 있을것이며 그리고 필요한 량의 생산수단이 생산될 때 비로소 사적소유를 폐절할수 있을것이다.… 무산계급혁명은 우선 민주주의제도를 창설하고 그것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무산계급의 정치적지배를 확립할것이다.… 민주주의는 만일 그것이 직접 사적소유를 침범하고 무산계급의 생존을 보장하는① 여러가지 방책들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시 리용되지 않는다면 무산계급에게는 전혀 쓸모없는것으로 될것이다. 오늘날 현존조건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가장 주요한 방책들은 다음과 같다.…》②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미 잘 알려지고있는 12개조요구 또는 대책이 렬거되여있다.(엥겔스 《공산주의원리》를 보라.)

이로부터 볼수 있는바와 같이 엥겔스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것은 계급, 국가, 상품생산 등등의 폐절을 내포한 전개된 사회주의강령인것이 아니라 사회주의혁명의 첫걸음인것이며

---

① 고시크체는 모두 나의것. —이. 쓰딸린

② 《맑스엥겔스선집》, 제1권, 286페지와 287페지를 보라, —편집자

사적소유를 직접 침범하고 로동계급의 생존을 보장하며 부산계급의 정치적지배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초보적대책들**인것이다.

결론은 오직 하나이다. 즉 지노위예브는 엥겔스의 12개조 요구를 전개된 사회주의강령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엥겔스를 외곡하였다는 그것이다.

나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한 나의 결론에서 무엇을 말하였는가? 나는 사회주의혁명의 첫걸음으로서 엥겔스가 제기한 요구 또는 대책의 10분의 9가 우리 쏘련에서 이미 실현되였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사회주의를 실현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것은 명백하다.

그런즉 자기의 인용수법에 충실한 지노위예브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의 나의 성명에 대하여 《자그마한》 외곡을 감행하였다.

맑스, 엥겔스를 인용하는 지노위예브의 특별한 수법은 그를 바로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끌어가고있다.

지노위예브의 인용수법으로부터 나는 스웨리예의 한 혁명적급진로동조합주의자가 스톡홀름에서 이야기한, 사회민주주의자들과 관련한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를 련상하게 되였다. 그것은 1906년 우리 당 스톡홀름대회41때의 일이다. 이 스웨리예동지는 맑스와 엥겔스를 인용하는 어떤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글뒤주식수법을 자기의 이야기가운데서 상당히 우습게 그려내서 우리 대표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포복절도할 지경이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하다. 크림에서 해병과 보병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해병과 보병의 대표자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은 최근 수년간 우리들에게 짜리를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킬것을 호소하여왔는데 우리들은 당신들의 호소가 옳다고 확신하였다. 우리 해병과 보병들은 폭동을 일으키기로 약속하고 지금 조언을 듣고저 이렇게 당신들한테 묻는바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 말을 듣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대표자회의를 열지 않고서는 폭동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해병들은 지체할수 없다는것, 사태는 이미 준비되여있다는것, 그리고 만일 그들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명백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폭동을 지도해주지 않는다면 일은 실패될수 있다는것을 암시하였다. 해병과 보병들은 돌아가서 지시를 기다렸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들은 《자본론》 제1권을 꺼내오고 《자본론》 제2권을 꺼내왔으며 나중에는 《자본론》 제3권을 꺼내왔다. 그들은 크림, 쎄와스또뽈에 관한 그리고 크림폭동에 관한 교시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쎄와스또뽈에 관해서도 크림에 관해서도 해병과 보병들의 폭동에 관해서도 세권의 《자본론》에서는 단 하나의, 문자그대로 단 하나의 교시도 찾아낼수 없었다.(웃음소리) 맑스와 엥겔스의 다른 저서들을 뒤번지면서 교시를 찾아보았으나 마찬가지로 아무러한 교시도 나타나지 않았다.(웃음소리) 대체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데 해병들은 이미 와서 회답을 기다리고있다. 그래 어떻게 되였는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형편에서는 그들이 해병과 보병들에게 어떠한 교시도 줄수 없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게 되여 해병과 보병들의 폭동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스웨리예동지는 자기의 이야기를 끝맺었다.(웃음소리)

의심할바없이 이 이야기에는 과장이 많다. 그러나 또한 의심할바없이 이 이야기는 맑스, 엥겔스를 인용하는 지노위예

브의 수법의 주되는 병집을 아주 적절하게 포착하고있다.

(ㄷ) 셋째 사실. 여기에 말할것은 레닌의 저작들을 인용하는 문제에 관해서이다. 지노위예브는 레닌의 저작들중에서 인용문을 산더미처럼 뽑아가지고 듣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다. 지노위예브는 인용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고 생각하고있는 모양이지만 인용문들이 무엇에 관해서 말하고있고 또 무슨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그다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이 인용문들을 세심히 읽어본다면 지노위예브가 레닌의 저작들에서 인용한 문구들중에는 암시적으로나마 반대파동맹의 현재의 투항주의적립장에 유리한것이라고는 한마디도 찾아볼수 없다는것을 쉽사리 리해할수 있다. 그런데 지노위예브는 무엇때문인지 레닌의 주요한 인용문들중의 하나인 즉 독재의 《경제적문제》의 해결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서의 쏘련 무산계급의 승리는 보장된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구를 인용하지 않았다는것을 지적해두어야 할것이다.

지노위예브는 레닌의 소책자 《협동조합에 관하여》중에서의 인용문 즉 우리 쏘련에는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 조건이 있다고 한 그 구절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 인용문이 무엇을 말해주고있으며 그것을 인용해서 누구에게 유리한가, 반대파동맹에 유리한가 아니면 쏘련 공산당(볼쉐위크)에 유리한가 하는 문제는 암시적이라도 지어는 꿈에도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

지노위예브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이 명제를 증명하려고 그가 레닌의 저작들중에서 인용한 말들은 지노위예브의 명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고말았다.

레컨대 다음의것이 그러한 인용문들중의 하나이다.

《나는 선진국가들에 비하여 로씨야인들이 위대한 무산계급혁명을 개시하기는 더 용이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혁명을 계속하며 또 사회주의사회를 완전히 건설한다는 의미에서의 종국적승리를 달성하기는 보다 곤난할것이라고 이미 여러 번 말하였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250페지를 보라.)②

지노위예브는 이 인용문이 반대파동맹에 유리한것이 아니라 당에 유리하다는것을 생각도 못하였다. 그것은 이 인용문에서 말하고있는것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불가능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건설의 곤난에 대해서이며 그리고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은 이 인용문에서는 자명한것으로서 인정되고있기때문이다. 당은 항상 쏘련에서의 혁명의 개시는 서구라파자본주의국가들에 비하여 용이할것이지만 사회주의건설은 보다 곤난할것이라고 말하여왔다. 그러면 이 사실을 승인한다는것이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을 부인하는것으로 된다는 의미인가?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사실에서는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곤난은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가능하며 또 필연적이라는 결론이 나올뿐이다.

묻노니, 무엇때문에 이와 같은 종류의 인용문이 지노위예브에게 필요하였는가?

아마 그것은 산더미같은 인용문으로 듣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여 물을 흐리게 하려고 한것 같다.(웃음소리)

그러나 지노위예브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것, 맑스주의고전로작을 인용하는 그의 극히 가소로운 수법이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277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아주 확실히 그를 곤경에 빠지게 하였다는것이 지금에 와서는 명백해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7. 지노위예브의 견해에 의한 수정주의

끝으로 《수정주의》란 개념에 대한 지노위예브의 해석에 대하여 몇마디 말하려 한다. 지노위예브의 견해에 의한다면 맑스 또는 엥겔스의 낡은 공식들 또는 개별적명제들을 완선화하거나 보다 정확하게 한다는것, 더우기 그것들을 새로운 조건에 적합한 다른 공식들로 바꾸는것은 죄다 수정주의라는것이다. 묻노니, 어떠한 리유에서 그러한가? 그래 맑스주의는 과학이 아니란 말인가? 그래 과학은 새로운 경험에 의하여 풍부히 되며 또 낡은 공식들을 완미하게 하면서 발전하는것이 아니란 말인가? 알고본즉 그 리유는 다음과 같은것 같다. 즉 《수정》이란것은 《개정》이란것을 의미하는것인데 낡은 공식들을 완미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려면 이 공식들에 대하여 어떤 개정이 없이는 안되는것이다, 따라서 낡은 공식들을 정확하게 하고 완미하게 하거나 맑스주의를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공식들로써 풍부하게 한다는것은 죄다 수정주의라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물론 가소로운 일이다. 그러나 지노위예브자신이 자기를 가소로운 처지에 빠지게 하고있으면서 동시에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체하고있는 이상 무슨 방법이 있는가?

례컨대 쓰딸린은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자기자신의 공식(1924년)을 완전히 레닌주의의 교시와 기본로선에 따라 변경하며 보다 정확하게 할 권리가 없겠는가? 지노위예브의 견해에 의한다면 그러한 권리가 없다는것이다. 무엇때문에? 그것은 낡은 공식을 변경하고 정확하게 하는것은 그 공식을 개정하는것이고 개정은 독일말로 수정을 의미하기때문이다. 쓰딸린은 수정주의에 빠진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이와 같이 우리는 수정주의라는 비난을 받을가봐 겁나서 맑스주의사상을 아주 정체상태에 빠져버리게 하는 새로운 지노위예브적수정주의의 규준을 가지는것이 된다.

레컨대 19세기중엽에 맑스는 자본주의발전의 상승기에는 자국적범위내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는데 레닌은 1915년에 자본주의가 하강몰락되여가는 시기에 즉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시기에는 그러한 승리가 가능하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레닌이 맑스를 대하는 면에서 수정주의에 빠진것으로 된다.

레컨대 19세기중엽에 맑스는 《구라파대륙의 어느 나라의, 지어는 전 구라파대륙의 경제적면에서의》 사회주의적《변혁은 영국이 없이는 다만 물고뿌안의 풍랑에 지나지 않는다.》①고 말하였는데 엥겔스는 그후에 계급투쟁의 새로운 경험을 고려하여 이 명제를 변경하여 사회주의혁명은《프랑스사람이 시작하고 독일사람이 완성할것이다.》라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엥겔스가 맑스를 대하는 면에서 수정주의에 빠졌다는것으로 된다.

엥겔스는 사회주의혁명은 프랑스사람이 시작하고 독일사람이 완성할것이라고 말하였는데 한편 레닌은 쏘련에서의 혁명승리의 경험을 고려하여 이 공식을 변경하고 그것을 다른 공식으로 바꾸어서 사회주의혁명은 로씨야사람이 시작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사람이 완성할것이라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레닌이 엥겔스를 대하는 면에서 그리고 더우기 맑스를 대하는 면에서 수정주의에 빠졌다는것으로 된다.

레닌은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회주의의 위대한 창시자들인 맑스와 엥겔스는 몇십년에 걸쳐 로동운동의 발전과 세계사회주의혁명의 장성을 고찰함으로써 자본주의로

---

①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6권, 175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장기간의 진통과 무산계급독재의 장구한 시기와 모든 낡은것의 파괴,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의 무자비한 박멸을 요구하며 그리고 또 승리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력량을 단합해야 할 각국 로동자들의 단결을 요구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19세기말에는 〈프랑스사람이 시작하고 독일사람이 완성하게 될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프랑스사람이 시작하게 될것이라고 말한것은 몇십년의 혁명을 거쳐 프랑스사람은 혁명활동에 대한 헌신적창발성을 자체내에 양성하였으며 이 창발성으로 해서 사회주의혁명의 전위로 되었기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국제사회주의력량의 다른 결합을 보고있다. 우리는 착취하는 나라, 즉 수월히 략탈할수 있으며 자국로동자들의 상층을 매수할수 있는 나라들의 부류에는 속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에서 운동이 더 쉽게 시작된다고 말한다.… **사태는 맑스와 엥겔스가 기대하고있던바와는 다르게 되였다.**① 사태는 우리 로씨야의 근로자들과 피착취계급들에게 국제사회주의혁명의 전위라는 영예로운 사명을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혁명의 발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리라는것 즉 로씨야사람이 시작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사람이 완성할것이며 이리하여 사회주의는 승리하리라는것을 똑똑히 보고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2권, 218페지를 보라.)②

보다싶이 레닌은 여기서 지노위예브의 말대로 하면 《수정주의》에 빠지면서 엥겔스와 맑스의 말을 로골적으로 《수정》하고있다.

레컨대 엥겔스와 맑스는 다 알고있다싶이 그 어느 하나도 맑스주의적이 아닌 두개의 당이 령도하고있던 빠리꼼뮨을 무산계급의 독재라고 규정하였는데 레닌은 제국주의조건하에서의 계급투쟁의 새로운 경험을 고려하여 다소라도 발전된 무산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쯔딸린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26권, 442~443페지를 보라. —편집자

계급독재는 오직 한 당의 즉 맑스주의당의 령도밑에서만 실현될수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이것은 레닌이 맑스와 엥겔스를 대하는 면에서 확연한 《수정주의》에 빠졌다는것으로 된다.

레닌이 제국주의전쟁직전의 시기에 련방제는 용인할수 없는 국가조직형태라고 말하였던것이 1917년에 와서는 무산계급의 새로운 투쟁경험을 고려하여 이 공식을 변경개정하여 련방제는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시에 타당한 국가조직형태라고 말하였으므로 이것은 레닌이 자기자신, 그리고 레닌주의를 대하는 면에서 《수정주의》에 빠졌다는것으로 된다.

기타 등등이다.

지노위예브의 견해에 의한다면 이와 같이 맑스주의는 새로운 경험에 의하여 풍부화되여서는 안되며 어떤 맑스주의고전적로작들의 개별적 명제나 공식을 완미하게 한다는것은 그 어떠한것을 막론하고 죄다 수정주의라는것으로 되고만다.

맑스주의란 무엇인가? 맑스주의는 과학이다. 만일 맑스주의가 무산계급계급투쟁의 새로운 경험에 의하여 풍부화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맑스주의견지에서 맑스주의적방법의 각도에서 이 경험을 소화하지 않는다면 맑스주의가 과학으로서 유지되고 발전될수 있겠는가?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맑스주의는 맑스주의의 견지와 맑스주의의 방법을 유지하는 조건밑에서, 새로운 경험을 고려하여 낡은 공식들을 완미하게 하며 풍부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는데 지노위예브는 이와 반대로 어구를 유지하며 맑스주의의 견지와 맑스주의의 방법을 맑스주의의 개별적명제들의 어구로써 슬쩍 바꾸어놓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고있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맑스주의의 기본로선을 맑스주의의 개별적공식들의 어구, 또는 맑스주의의 개별적명제들의 인용문으로써 슬쩍 바꾸어놓는 그것과 진정한 맑스주의와의 사이에 그 무슨 공통점이 있

을수 있는가?

그것은 맑스주의인것이 아니라 맑스주의에 대한 풍자라는 점에 대해서 과연 의심할수 있겠는가?

맑스와 엥겔스가 《우리의 학설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라고 말한것은 바로 지노위예브와 같은 그러한 《맑스주의자》들을 념두에 두고 말한것이다.

지노위예브의 불행은 그가 맑스와 엥겔스의 이 말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는데 있다.

2

개별적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제

나는 반대파의 일부 오유와 반대파지도자들의 연설에 나타난 몇가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말하였다. 나는 이 문제를 결론의 제1부분 즉 몇가지 의견가운데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제는 직접 문제의 본질로 넘어가기로 하자.

1. 제국주의시기에 개별적나라들에서의 무산계급혁명의 전제조건

첫째 문제는 제국주의시기에 개별적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고있는것은 보다싶이 어떤 한 나라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발달된 모든 제국주의나라들에 대해서이다.

개별적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문

제에 있어서 반대파의 근본적오유는 어떤 점에 있는가?

반대파의 근본적오유는 그들이 제국주의이전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적자본주의간의 모든 차이를 리해하지 못하고 또는 리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제국주의의 경제적본질을 리해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의 서로 다른 두 단계 즉 제국주의이전의 단계와 제국주의적단계를 서로 혼동하고있다는데 있다.

반대파의 이 오유에서 그들의 다른 하나의 오유가 발생하게 된다. 즉 반대파가 제국주의시기의 발전의 불균형성에 대한 법칙의 의의와 중요성을 리해하지 못하며 균형적경향을 이 법칙에 대립시키는데서 카우쯔키의 초제국주의론의 립장에로 전락하고있다는 그것이다.

이 두 오유는 반대파의 셋째 오유를 초래하고있다. 즉 반대파가 제국주의이전의 자본주의의 기초우에서 산생된 공식과 명제들을 제국주의적자본주의에다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서 개별적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을 부정하는데 이르고있다는 그것이다.

낡은 독점전의 자본주의와 새로운 독점자본주의사이의 차이는 만일 그것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어떠한 점에 있는가?

그것은 자유경쟁을 통하여 진행되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자본가들의 거대한 독점적련합체들을 통하여 진행되는 자본주의의 발전으로써 대체되였으며, 《문명적》이며 《진보적》인 낡은 자본이 금융자본, 《부패하여가는》 자본으로써 대체되였으며, 자본의 《평화적》확대와 자본의 《소유주가 없는》 토지에로의 확장이 비약적발전, 이미 분할된 세계에 대한 자본주의집단간의 군사적충돌에 의한 재분할을 통한 발전으로써 대체되였으며 따라서 전반적으로 상승선을 따라 발전하고있던 낡은 자본주의가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 전반적으로 하강선을 따라 몰락하여가는 자본주의로써 대체되였다는 그 점에 있다.

레닌은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날의 자본주의의 〈평화적〉시기가 현대의 제국주의시기로 바뀐것은 무엇에 기초하고있는가를 상기해보자. 그것은 자유경쟁이 독점적 자본가단체에 그 자리를 내준것과 전체 지구가 다 분할된데 기초하고있는것이다. 이 두 사실(또는 요인)이 확실히 세계적의의를 가지고있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다. 자본이 거침없이 식민지를 확장하고 아프리카등지의 점령되지 않은 토지를 략탈할수 있은 동안은 자유무역과 평화적경쟁이 가능했으며 또 필연적이였다. 그 당시에는 자본의 집중이 아직 미약했고 독점기업 즉 어느 산업분야전반을 지배할 정도로 거대한 기업이 아직 없었다. 이와 같은 독점기업의 발생과 발전…은 종전과 같은 자유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지반을 무너뜨리고있으며 또 지구의 분할은 평화적확장으로부터 식민지와 세력권의 재분할을 위한 무력투쟁으로 넘어가는것을 피면할수 없게 하고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8권, 254페지를 보라.)①

그리고 계속하여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은 종전처럼 자본주의가 순조롭게 진화하며② 새로운 나라들에로 점차 확대하여가는 비교적 평온하고 문화적이며 평화적인 환경속에서 살수 없게 되였다. 왜냐 하면 다른 시대가 닥쳐왔기때문이다. 금융자본은 어느 한 나라를 대렬강의 대렬에서 구축하고있으며 또 구축해버릴것이다. 그리고 그 식민지와 세력권을 탈취할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8권, 256～257페지를 보라.)③

이로부터 제국주의적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한 레닌의 기본 적결론이 나오게 된다.

《제국주의는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이행하고있는 자본주의라는 리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내부에서 성장하는 독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632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② 고지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③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635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점이 별써 자본주의의 사멸이며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기초이기때문이다. 제국주의에 의한 로동의 대규모적사회화(변호자-자산계급경제학자들이 《교착》이라고 부르고있는것)도 역시 같은것을 의미한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9권, 302페지를 보라.)①

우리 반대파들의 불행은 그들이 제국주의이전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적자본주의사이의 이 차이의 모든 중요성을 리해하지 못하고있다는데 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의 립장의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적자본주의는 사멸하여가는 자본주의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것이다.

유감이지만 그것은 아직 자본주의가 이미 사멸해버렸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할바없이 전반 자본주의가 부흥에로 나아가고있는것이 아니라 사멸에로 나아가고있으며 또 전반 자본주의가 상승선을 따라 발전하고있는것이 아니라 하강선을 따라 몰락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총적인 문제로부터 제국주의시기의 발전의 불균형성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된다.

레닌주의자들이 제국주의시기의 발전의 불균형성을 언급할 때 보통 무엇을 념두에 두고있는가?

각이한 자본주의국가들의 발전수준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는것, 어떤 나라들은 그 발전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락후하다는것, 이 차이는 점점 더 증대되고있다는것—이런 점을 념두에 두고있는것인가?

아니다, 그런 점이 아니다. 제국주의하에서의 발전의 불균형성과 자본주의나라들의 발전수준의 차이를 혼동하는것은

---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884~885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비속한 견해이다. 반대파가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발전의 불균형성에 관한 문제를 각이한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상태의 수준차이문제와 혼동함으로써 바로 이러한 비속한 견해에 빠졌다. 이런 모호한 관념에서 출발한데서 당시 반대파는 이전에는 발전의 불균형성이 제국주의하에서보다 더 심하였었다는 극히 그릇된 결론에 도달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뜨로쯔끼는 《19세기에는 이 불균형성이 20세기보다 **더 심하였다.**》(쏘련공산당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한 뜨로쯔끼의 연설을 보라.)고 말하였다. 지노위예브도 또한 당시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자본주의발전의 불균형성이 제국주의시대가 시작되기전에는 덜하였다고 하는것은 옳지 않다.》(쏘련공산당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한 지노위예브의 연설을 보라.)고 말하였다.

하기는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의 론쟁이 있은후 지금에 와서는 반대파는 전선을 변경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알아차리고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확대전원회의에서의 자기들의 연설에서 전혀 상반되는 견해를 내놓고있거나 또는 자기의 이런 오유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을 지키려고 애쓰고있다. 그 실례로서 뜨로쯔끼는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그의 연설에서 《발전속도에 대해서 말한다면 제국주의는 이 불균형성을 **무한히 첨예화시켜놓았다.**》라고 언명하였다. 또 지노위예브를 놓고 말한다면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전원회의에서의 자기의 연설에서 그는 제국주의시기의 불균형성법칙의 효력이 증대되고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약화되고있는가 하는 바로 그 점에 대하여 론쟁이 있었다는것을 모를리 없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것이 상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론쟁이 반대파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었는바 반대파에게 무익하지 않았다는것을 말하여줄따름이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시기의 자본주의나라들의 발전의 불균형성에 관한 문제를 각이한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상태의 수준의 차이에 관한 문제와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자본주의나라들의 발전수준의 차이의 감소와 이 나라들의 균형화의 발전이 제국주의하에서의 발전의 불균형성법칙의 효력을 약화시키고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수는 없다. 발전의 수준에서의 이 차이는 증대하고있는가 또는 감소되고있는가? 의심할나위 없이 감소되고있다. 균형화는 장성하고있는가 또는 저하하고있는가? 물론 장성하고있다. 균형화의 장성은 제국주의하에서의 발전의 불균형성의 격화와 모순되지 않는가? 아니다, 모순되지 않는다. 도리여 균형화는 제국주의하에서의 발전의 불균형성의 효력이 강화될수 있는 배경이며 토대이다. 우리의 반대파들처럼 제국주의의 경제적본질을 리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균형화를 제국주의하에서의 발전의 불균형성법칙에 대립시킨다. 락후한 나라들이 자기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선진국가들과 균형화하고있기때문에 일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앞서기 위한 투쟁이 첨예화되고있으며 바로 그때문에 일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앞서서 그 나라들을 시장들에서 밀어낼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였으며 이리하여 군사적충돌, 세계자본주의전선의 약화, 자본주의 각국의 무산자에 의한 이 전선의 돌파를 위한 전제조건들을 지어내고있다. 이 간단한 리치를 리해하지 못하는자는 독점자본주의의 경제적본질에 관한 문제에서 아무것도 리해하지 못하는자이다.

따라서 균형화는 제국주의시기의 발전의 불균형성의 격화를 지어주는 조건의 하나이다.

제국주의하에서의 발전의 불균형성이란 일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아 그 나라들을 경제적면에서 보통방법으

로 이를테면 **진화의** 방법으로 비약이 없이 군사적참변이 없이 이미 분할된 세계에 대한 재분할이 없이 앞선다는데 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수 없다. 그와 같은 불균형성은 독점전의 자본주의시기에도 있었는바 맑스는 이것을 알고있었으며 레닌은 이에 대하여 자기의 저서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①에서 서술하였다. 당시 자본주의의 발전은 어느 정도 순조롭게, 어느 정도 진화적으로 진행되고있었으며 일부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을 비약이 없이 세계적규모의 불가피적인 군사적충돌이 없이 오랜 동안을 두고 앞섰던것이다. 지금 말하고있는것은 이러한 불균형성은 아니다.

그렇다면 제국주의하에서의 자본주의나라들의 발전의 불균형성법칙이란 대체 무엇인가?

제국주의시기의 발전의 불균형성법칙이란 일부 나라들이 비약적발전으로 다른 나라들을 앞서고 일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에 의하여 세계시장으로부터 급속히 밀려나오며 **이미 분할된 세계**가 군사적충돌과 군사적참변의 방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재분할되고 제국주의진영내부의 충돌이 심화되고 첨예화되여 세계자본주의전선이 약화되며 개별적국가들의 무산계급이 이 전선을 돌파할수 있게 되여 사회주의가 개별적국가들에서 승리할수 있게 되는것이다.

제국주의하에서의 발전의 불균형성법칙의 기본요인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것은 세계가 이미 제국주의집단들간에 분할되여 《소유주가 없는》 비점유토지란것이 세계에 더는 없으며 때문에 새로운 시장과 원료산지를 점유하기 위하여서는, 세력을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3권, 1~558페지를 보라.—편집자

확장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러한 토지를 무력으로써 탈취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기술의 미증유의 발전과 자본주의나라들의 발전수준이 더 균형됨에 따라 일부 나라들이 다른 일부 나라들을 비약적으로 앞설수 있고 또 그것이 용이하게 되였으며 그리 강력하지는 않으나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나라들이 보다 강력한 나라들을 밀어낼수 있고 또 그것이 용이하게 된것이다.

셋째로 그것은 각 제국주의집단들간의 세력범위의 낡은 획분이 세계시장에서의 새로운 력량대비와 번번이 충돌하게 되며 세력범위의 낡은 획분과 새로운 력량대비간의 《균형》을 위하여서는 제국주의적전쟁에 의한 세계의 주기적인 재분할이 필요한것이다.

이리하여 제국주의시기의 발전의 불균형성은 격화되고 첨예화된다.

이리하여 제국주의진영내의 충돌은 평화적방법에 의하여서는 해결될수 없다.

이리하여 이 충돌의 평화적해결의 가능성을 창도하는 카우쯔키의 초제국주의론은 무근거한것이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시기의 발전의 불균형성이 격화되며 첨예화된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고있는 반대파는 초제국주의의 립장에 전락하고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제국주의시기의 발전의 불균형성의 특징은 이러하다.

각 제국주의집단들간의 세계의 분할은 어느때에 끝났는가?

레닌은 세계의 분할이 20세기초에 끝났다고 말하였다.

이미 분할된 세계의 재분할에 관한 문제는 어느때에 실지로 처음 제기되였는가?

제1차세계제국주의전쟁시기에 제기되였다.

이로부터는 제국주의하에서의 발전의 불균형성법칙은 20세기초에 와서야 비로소 발견되고 론증될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내가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한 보고에서 제국주의하에서의 발전의 불균형성법칙은 레닌동지에 의하여 발견되고 론증되였다고 말한것은 바로 이 점을 두고 말한것이다.

세계제국주의전쟁은 이미 분할된 세계를 재분할하려는 첫 시도였다. 이 시도에 대하여 자본주의는 로씨야혁명이 승리하고 식민지 및 예속국들에서 제국주의의 기초가 파괴되는 대가를 지불하였다.

재분할의 첫시도다음에는 둘째 시도가 또 반드시 뒤따르리라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것으로 제국주의진영에서는 이미 그것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있다.

재분할의 둘째 시도에 대하여 세계자본주의는 첫째 시도에 대해서보다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제국주의조건하에서의 불균형성법칙의 견지에서 본 세계자본주의의 발전의 전망은 이러하다.

보다싶이 이 전망은 제국주의시기에 개별적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을 직접 가져다준다.

다 아는바와 같이 레닌은 개별적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을 직접 자본주의나라들의 발전의 불균형성법칙에서 얻어내였던것이다. 그리고 레닌은 전적으로 정당하였다. 왜냐 하면 제국주의하에서의 발전의 불균형성법칙은 개별적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불가능성에 대한 모든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리론적》연구을 위한 온갖 기반을 없애버리고있기때문이다.

레닌은 1915년에 집필한 자기의 강령적론문에서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형성은 자본주의의 절대적법칙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의 승리는 처음에는 소수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혹은 심지어 개별적인 한 자본주의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8권, 232페지를 보라.)②

결론—

(ㄱ) 반대파의 기본적인 오유는 그들이 자본주의의 두 단계사이의 차이를 보지 못하거나 또는 이 차이를 강조하는것을 회피하고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그것을 회피하고있는가? 그것은 이 차이가 제국주의시기의 발전의 불균형성법칙을 도출하게 하기때문이다.

(ㄴ) 반대파의 둘째 오유는 그들이 제국주의하에서의 자본주의나라들의 발전의 불균형성법칙의 결정적인 의의를 리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과소평가하고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그것을 과소평가하고있는가? 그것은 자본주의나라들의 발전의 불균형성법칙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개별적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게 하기때문이다.

(ㄷ) 이로부터 제국주의하에서의 개별적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반대파의 셋째 오유가 나온다.

개별적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을 부정하는자는 부득이 제국주의하에서의 발전의 불균형성법칙의 의의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09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를 묵살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리고 불균형성법칙의 의의를 묵살하지 않을수 없는자는 제국주의이전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적자본주의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말살하지 않을수 없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무산계급혁명의 전제조건에 관한 문제는 이러하다.

이 문제의 실천적의의는 어떠한가?

실천의 견지에서 볼 때 우리앞에는 두개의 로선이 놓여있다.

한 로선은 우리 당의 로선으로서 개별적나라들의 무산자들에게 닥쳐오는 혁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며 사변의 행정을 주의깊이 관찰하게 하며 유리한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자본의 전선을 돌파하고 정권을 탈취하며 세계자본주의의 기초를 뒤흔들어놓도록 호소하고있는 그러한 로선이다.

다른 한 로선은 우리의 반대파의 로선으로서 자본주의전선의 독자적인 돌파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혹의 씨를 뿌리며 개별적나라들의 무산자들에게 《전반적인 발발》의 시기를 기다리도록 호소하고있는 그러한 로선이다.

우리 당의 로선이 개별적나라들의 무산자들로 하여금 자국의 자산계급에 대한 혁명적진공을 강화하게 하며 그들의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게 하는 로선이라면 우리의 반대파의 로선은 개별적나라들의 무산자들로 하여금 자국의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소극적으로 대기하게 하며 그들의 창발성을 속박하는 로선이다.

첫째 로선은 개별적나라들의 무산자들을 적극화하는 로선이다.

둘째 로선은 무산계급의 혁명의지를 약화시키는 로선이며 소극적대기의 로선이다.

레닌이 우리의 현재의 론쟁과 직접 관계되는 다음과 같은

예언적인 말을 쓴것은 극히 옳았다.

《물론 자신을 매우 총명하다고 생각하며 지어는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면서 모든 나라에서 혁명이 폭발하기전에는 정권을 탈취하여서는 안될것이였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총명한자들이 있다는것을 나는 알고있다.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혁명을 떠나서 자산계급측으로 넘어가고있다는것을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근로계급이 세계적규모에서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기다린다는것은 곧 모두가 팔짱을 끼고 기다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황당한것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3권, 9페지를 보라.)①

레닌의 이 말을 잊어서는 안된다.

2. 지노위예브는 어떻게 레닌의 말을 《가공》하고있는가

나는 개별적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무산계급혁명의 전제조건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이제 무산계급혁명의 전제조건과 개별적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레닌의 주요한 론문을 지노위예브가 어떻게 외곡하거나 《가공》하고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몇마디 말하려 한다. 나는 1915년에 집필되였고 우리가 토론시에 여러번 인용한 레닌의 유명한 론문 《구라파련방의 구호에 대하여》를 념두에 두고있는것이다. 지노위예브는 내가 이 론문을 완전히 인용하지는 못하였다고 나를 비난하였다. 그리고 또 그는 레닌의 견해, 개별적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문제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로선을 완전히 외곡한것이라고밖에 말할수 없는 그러한 해석을 이 론문에다 가하려고 애쓰고있다. 나는 이 인용문의 전문을 소개하며 또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7권, 345~346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한 지난번에 내가 시간상관계로 생략했던 구절들을 고시크체로 표시하려 한다. 그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의 불균형성은 자본주의의 절대적법칙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의 승리는 처음에는 소수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혹은 심지어 개별적인 한 자본주의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나라의 승리한 무산계급은 자본가를 수탈하고 자국에 사회주의적생산을 조직한후에는 다른 자본주의세계를 반대하여일어나 다른 나라들의 피압박계급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며 이 나라들에서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키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력에 의해서라도 착취계급과 그들의 국가를 반대하여 행동할것이다.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을 전복하여 승리를 획득하는 경우의 사회의 정치형태는 민주주의공화국일것인바 이 민주주의공화국은 아직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못한 국가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소여의 민족 또는 각 민족의 무산계급의 력량을 더욱더 집중시킬것이다. 피압박계급인 무산계급의 독재가 없이는 계급을 소멸할수 없다. 여러 사회주의공화국이 락후한 국가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완강한 투쟁을 진행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각 민족의 자유로운 련합은 불가능하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18권, 232～233페지를 보라.)①

이 인용문을 들면서 지노위예브는 두가지 해석을 하고있다. 첫째 해석은 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해서이고 둘째 해석은 사회주의적생산의 조직에 대해서이다.

우선 첫째 해석에 대해서 말해보자. 지노위예브는 레닌이 여기에서 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하여 말하고있는 이상 그것은 기껏해야 무산계급에 의한 정권탈취를 두고 말하는것이라고 생각하고있다. 그리고 또 지노위예브는 파렴치하게도 레닌이 여기에서 말하고있는것은 아마 자산계급공화국에 대해서일것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09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이라는 극히 애매한 그러나 절요한 암시를 하였다. 이것이 옳은가? 물론 옳지 않다. 지노위예브의 그다지 순결하지 못한 암시를 반박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공화국들의 락후한 국가들과의 투쟁》이라고 말한 인용문의 마지막구절들을 읽어보기만 하면 충분하다. 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말은 레닌이 자산계급공화국을 념두에 둔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공화국을 념두에 둔것이란것은 명백하다.

레닌은 아직 1915년까지만 해도 무산계급독재의 국가형태로서의 쏘베트정권은 알지 못하고있었다. 레닌은 벌써 1905년에 개개의 쏘베트들은 짜리제도를 전복하는 시기의 혁명정권의 맹아라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무산계급독재의 국가형태로서, 국가적규모에서 련합된 쏘베트정권은 당시 아직 모르고있었다. 무산계급독재의 국가형태로서의 쏘베트공화국은 레닌이 1917년에 와서야 비로소 발견한것으로서 그는 과도적사회의 이 새로운 정치적조직형태에 관한 문제를 1917년 여름에 주로 자기의 저서 《국가와 혁명》① 에서 자세히 구명하였다. 레닌이 앞의 인용문에서 쏘베트공화국을 말하지 않고 민주주의공화국을 말한것은 인용문에서도 명백한바와 같이 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고있다는것은 원래 이상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설명된다. 레닌이 여기서 취한 태도는 맑스와 엥겔스가 일찌기 취한 태도와 꼭같다. 맑스와 엥겔스는 빠리꼼뮨전까지는 공화국일반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적사회의 정치적조직형태로서 생각하고있었던것이 빠리꼼뮨이후에는 이 용어를 해명하여 이러한 공화국은 반드시 빠리꼼뮨형태의 공화국이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만일 레닌이 이 인용문에서 자산계급민주주의공화국을 념두에 두고있었다고 한다면 《무산계급독재》와 《자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171~276페지를 보라.—편집자

본가들의 수탈》 등등의 말은 나올리 없었을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보다싶이 레닌의 말을 《가공》하려는 지노위예브의 시도는 성공하였다고 할수 없다.

지노위예브의 둘째 해석에로 넘어가자. 지노위예브는 《사회주의적생산의 조직》이란 레닌동지의 말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리해하듯이 그렇게 리해할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다르게, 즉 레닌이 이 경우에 념두에 두고있은것은 다만 사회주의적생산의 조직에 대한 **착수**에 불과하다고 리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왜,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지노위예브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나는 지노위예브가 여기에서 레닌의 말을 《가공》하려고 또 한번 시도하고있다는것을 언명하여야겠다. 인용문에는 《이러한 나라의 승리한 무산계급은 자본가를 수탈하고 자국에 사회주의적생산을 **조직한후에는** 다른 자본주의세계를 반대하여 일어날것이다.》라고 단정하였다. 여기에는 《조직하면서》라고 씌여있는것이 아니라 《**조직한후에는**》이라고 씌여있는것이다.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것을 새삼스레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일에 레닌이 사회주의적생산의 조직에 대한 **착수**만을 념두에 두고있었다면 그는 《조직한후에는》이라고 쓰지 않고 《조직하면서》라고 썼을것이라는것을 새삼스레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즉 레닌은 비단 사회주의적생산의 조직에 대한 착수만을 념두에 두고있었던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생산을 조직할 가능성, 개별적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적생산을 건설할 가능성도 념두에 두고있었던것이다.

보다싶이 레닌의 말을 《가공》하려는 지노위예브의 이 두번째 시도도 전혀 성공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지노위예브는 레닌의 말을 《가공》하려는 자기의 이 시도

를 《사회주의는 두주일이나 두달동안에 후닥닥 건설할수는 없다.》는 롱조로써 은폐하려고 애쓰고있다. 지노위예브에게 이 따위 롱조가 필요했던것은 아마 《파국에 직면하여 태연한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한다. 그래 대체 어디서 지노위예브는 두주일, 두달 또는 두해동안에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하였는가? 만일 그러한 사람들이 실지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왜 그는 그런 사람들을 들지 못하는가? 그가 그런 사람들을 들지 못한것은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이다. 지노위예브에게 허위적인 롱조가 필요하였던것은 레닌과 레닌주의를 《가공》하는 자기의 《사업》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던것이다.

요컨대

(ㄱ) 레닌은 제국주의하에서의 발전의 불균형성법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주요한 론문 《구라파련방의 구호에 대하여》에서 개별적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ㄴ) 개별적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라는 레닌의 명제는 무산계급이 정권을 탈취하고 자본가들을 수탈하며 사회주의적생산을 조직하는것을 말하고있으며 그리고 이 모든 과업은 목적자체인것이 아니라 이여의 자본주의세계를 반대하며 자본주의와의 투쟁에서 전 세계 무산자들을 방조하는 수단인것이다.

(ㄷ) 지노위예브는 반대파동맹의 현재의 반 멘쉐위크적립장에 알맞도록 레닌주의의 이 명제들을 되는대로 잘라버리며 레닌의 말을 《가공》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시도는 졸렬한 수단의 시도였었다.

나는 이이상의 해석은 여기에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3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제

동지들, 이제는 우리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려 한다.

1. 반대파의 《책략》과 레닌당의 《민족개량주의》

뜨로쯔끼는 자기의 연설에서 쓰딸린의 가장 큰 오유는 한 나라에서, 즉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가능하다는데 대한 리론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결국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가능하다는 레닌의 리론을 론하는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쓰딸린의 어떤 《리론》을 론한다는것이 된다. 나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즉 뜨로쯔끼는 레닌의 리론에 대해서 투쟁할 목적을 세웠는데 레닌에 대해서 공공연히 투쟁한다는것은 위험한 일이기때문에 쓰딸린의 《리론》과 투쟁한다는것으로 가장하고 이 투쟁을 진행하려고 결심하였던것이라고 리해한다. 뜨로쯔끼가 이렇게 하는것은 레닌주의와의 투쟁을 쓰딸린의 《리론》에 대한 자기의 비판으로 엄폐함으로써 이 투쟁을 용이하게 하려 하고있다. 사태는 바로 이와 같다는것, 쓰딸린은 거기에는 관계가 없다는것, 쓰딸린의 어떠한 《리론》도 운운할수 없다는것, 쓰딸린은 리론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것을 내세우려고는 결코 생각한 일도 없고 오직 뜨로쯔끼의 수정주의적인 헛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내에서의 레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을뿐이라는것—이러한 것을 나는 아래에서 보여주려 한다. 그런데 우선 말해둘것은 쓰딸린의 《리론》에 대한 뜨로쯔끼의 언명은 책략이고 간계이

며 게다가 개별적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레닌의 리론에 대한 자기의 투쟁—1915년부터 시작되여 오늘날까지 계속되고있는 투쟁—을 이 간계로써 엄폐하려고 타산한 비겁하고도 졸렬한 간계라는것이다. 뜨로쯔끼의 이러한 수법은 과연 공명정대한 론쟁의 표식인가 하는것을 동지들 판단해보라!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문제에 관한 우리 당의 결정은 레닌동지의 유명한 강령적로작들을 출발점으로 한것이다. 레닌의 이 로작들가운데는 제국주의조건하에서 개별적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가 가능하다는것, 무산계급독재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 있어서 무산계급독재의 승리는 보장되여있다는것, 우리 쏘련의 무산자들은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내는데 있어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모든것을 가지고있다는것이 씌여있다.

나는 개별적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여있는 레닌의 유명한 론문의 한 구절을 방금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이 론문은 1915년에 집필된것이다. 이 론문에는 개별적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무산계급이 정권을 탈취하며 자본가들을 수탈하고 사회주의적생산을 조직하는것이 가능하다고 씌여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뜨로쯔끼는 같은 해 즉 1915년에 출판물에서 레닌의 이 론문을 반대하여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레닌의 리론을《민족적국한성》의 리론이라고 하였다.

묻노니, 쓰딸린의《리론》이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음으로 나는 나의 보고에서 레닌의 유명한 저작《무산계급독재시기에 있어서의 경제와 정치》에서 한단락을 인용하였는데 거기에는 무산계급독재의 경제적문제의 해결이라는 의미에서의 쏘련무산계급의 승리는 보장되여있다고 보아야 한다

는것이 단적으로 그리고 명확히 씌여있다. 이 저작은 1919년에 집필된것이다. 그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각국의 자산자들과 그들의 모골적인 졸도 및 탈을 쓴 졸도들(제2국제당의 《사회주의자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며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무산계급독재의 기본적경제문제의 견지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승리가 확보되고있다는것은 어디까지나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전 세계의 자산계급이 볼쉐위크주의를 반대하여 미친듯이 날뛰면서 볼쉐위크들을 반대하는 무력침공, 음모 등등을 조작하고있는것은 바로 그들이 만일 우리를 무력으로 압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회경제재건에서 불가피적으로 승리하게 되리라는것을 잘 알고있기때문인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압살하지는 못할것이다.》①(《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4권, 510페지를 보라.)②

보는바와 같이 레닌은 여기서 사회경제를 재건하는 사업과 또 무산계급독재의 경제적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에 있어서 쏘련무산계급의 승리가 가능하다는것을 단적으로 말하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뜨로쯔끼와 반대파전체는 이 인용문가운데 제시된 기본적명제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묻노니, 쓰딸린의 《리론》이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끝으로 나는 1923년에 집필된 레닌의 유명한 소책자 《협동조합에 관하여》에서 한구절을 인용한다. 그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사실 일체의 대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권력, 무산계급의 수중에 있는 국가정권, 이러한 무산계급과 수백만의 소농 및 형세농과의 동맹, 농민에 대한 이들 무산계급의 지도의 확보 등등.—이 모든것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 협동조합으로써, 오직 협동조합으로써만(우리는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87페지를 참조하라, —편집자

이전에 이 협동조합을 소상인적이라고 멸시했던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신경제정책하의 지금도 역시 그렇게 멸시할 권리가 있다.)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부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아직 사회주의사회의 완전한 건설은 아니나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전부인것이다.》① (《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7권, 392페지를 보라.)②

보다싶이 이 인용문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남기지 않는다.

보다싶이 이 인용문에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요한 요인들, 즉 무산계급정권, 무산계급정권의 수중에 있는 대생산, 무산계급과 농민과의 동맹, 이 동맹에서의 무산계급의 령도, 협동조합 등이 렬거되여있다.

뜨로쯔끼는 얼마전에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이 인용문에다 레닌의 저작에서 끌어내온 다른 한 인용문을 대렵시키려고 하였는데 그 인용문에는 《공산주의—이것은 쏘베트정권 플라스 전국의 전기화이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6권, 46페지를 보라.)③ 라는 말이 씌여있다. 그러나 이 두 인용문을 서로 대렵시키는것은 레닌의 소책자 《협동조합에 관하여》의 기본적의미를 외곡하는것이다. 그래 전기화는 대생산의 구성부분이 아닌가? 또 무산계급정권의 수중에 집중된 대생산이 없이 우리 나라에서 전기화가 가능한가? 소책자 《협동조합에 관하여》에 씌여있는 대생산은 사회주의건설의 요인의 하나라고 한 레닌의 말에 전기화도 포함하고 있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82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③ 우와 같은 책, 399페지—편집자

다 아는바와 같이 반대파는 레닌의 소책자《협동조합에 관하여》에서 따낸 이 인용문에 서술된 기본명제들을 반대하여 어느 정도 공개적인 투쟁, 그러나 대부분은 은폐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묻노니, 쓰딸린의《리론》이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상과 같은것이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문제에 대한 레닌주의의 기본명제들이다.

당은 뜨로쯔끼 및 반대파동맹의 다음과 같은 주지의 명제들 즉《민족-국가적범위내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은 **불가능하다.**》느니,《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리론은 **민족적국한성의 리론적변명**》이라느니,《로씨야로동계급은 구라파무산계급의 직접적인 국가적지지가 없이는 **정권을 유지할수 없다.**》(뜨로쯔끼)느니 뭐니 하는 명제들은 레닌주의의 상술한 명제들과 근본적으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당은 반대파동맹의 이 명제들은 우리 당내의 사회민주주의적편향의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당은《구라파무산계급의 직접적인 국가적지지》에 관한 뜨로쯔끼의 공식은 레닌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공식이라고 주장한다. 대체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건설을《구라파무산계급의 직접적인 국가적지지》에 의존시킨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일 구라파무산계급이 가까운 장래에 정권을 탈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우리 나라 혁명은 무한정하고 서방의 혁명의 승리를 기다리면서 제자리에서 답보만 하고있을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 자산계급이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요소를 반대하는 자기들의 사업과 투쟁을 포기하고 서방혁명의 승리를 기다리는데 동의하리라고 기대할수 있겠는가? 뜨로쯔끼의 그러한 공식으로부터는 서방의 승리적혁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우리 당은 우리 나라 경제의 자본주의적요

소들에 자기의 진지를 점차로 내여주게 되며 다음에는 정권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이 나오지 않는가?

여기서 전혀 상이한 두가지 로선, 하나는 당과 레닌주의의 로선, 다른 하나는 반대파와 뜨로쯔끼의 로선이 있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나는 나의 보고에서 뜨로쯔끼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고 또 계속하여 묻는다. 개별적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레닌의 리론을 뜨로쯔끼가 1915년에 《민족적국한성》의 리론이라고 평가한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대답을 받지 못하였다. 무엇때문인가? 침묵을 지키는 태도를 과연 론쟁에 있어서 용감한 표식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나는 뜨로쯔끼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고 또 계속하여 묻는다. 그가 사회주의건설의 리론을 반대하여 《민족적국한성》이라는 비난을 되풀이한것은 최근 즉 1926년 9월에 반대파에게 보낸 자기의 주지의 글에서였다는것은 과연 사실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이번에도 대답을 받지 못하였다. 무엇때문인가? 침묵을 지키는 태도는 역시 뜨로쯔끼의 일종의 《책략》이기때문이 아닌가?

이 모든것은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그것은 뜨로쯔끼는 여전히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근본문제에 있어서 레닌주의와 투쟁하는 자기의 낡은 립장에 그대로 서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뜨로쯔끼는 레닌주의를 반대하여 공공연히 나설 용기가 없으므로 자기의 이 투쟁을 존재하지도 않는 쓰딸린의 《리론》에 대한 비판으로써 엄폐하려고 시도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제 다른 하나의 《책략가》인 까메네브에 대하여 말해보기로 하자. 그는 아마 뜨로쯔끼에게서 감염되였는지 역시 책

략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책략은 뜨로쯔끼의것보다 더 졸렬하였다. 뜨로쯔끼는 쓰딸린 한사람을 비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까메네브는 당은 《국제적혁명의 전망을 민족적개량주의의 전망으로 슬쩍 바꾸어놓고있다.》고 언명하면서 당전체를 비난하였다. 우리 당이 국제적혁명의 전망을 민족적개량주의의 전망으로 슬쩍 바꾸어놓았다는것이다. 그런데 우리 당은 레닌의 당이기때문에 또 우리 당은 사회주의건설문제에 관한 자기의 결정들에 있어서 레닌의 유명한 명제에 전적으로 의거하고있기때문에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레닌의 리론은 민족적개량주의의 리론이라는것으로 된다. 레닌은 《민족적개량주의자》이다. —까메네브는 이런 어리석은 말로 우리를 대접하고있다.

우리 당에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문제에 관한 그 어떤 결정이 있는가? 그렇다, 있다. 있을뿐만아니라 지어는 아주 명확한 결정들이 있다. 당은 언제 이 결정들을 채택하였는가? 그것은 1925년 4월 우리 당 제14차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되였다. 나는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사업 및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제14차대표자회의의 유명한 결의문을 두고 말한다. 이 결의문은 레닌주의적결의문인가? 그렇다, 레닌주의적결의문이다. 왜냐 하면 제14차대표자회의에서 이 결의문을 **옹호**하여 보고한 지노위예브나 이 대표자회의에서 의장을 맡았고 이 결의문에 **찬성**해서 투표한 까메네브와 같은 권위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증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때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는 당이, 다 아는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문제에 관한 제14차대표자회의의 결의와 모순되며 배치된다는것을 폭로하지 않았는가?

당에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문제에 관한 특별한 결의문이 있는데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는 이 결의문에 대해서 찬

성투표를 하고서는 지금은 두사람이 다 당을 민족적개량주의에 빠졌다고 비난하고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그들이 우리나라 사회주의건설문제를 취급하고있고 또 확실히 시종일관하게 레닌주의적인 제14차대표자회의의 결의문과 같은 중요한 당문건에서 론거를 들지 못하였는가? 보건대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는듯하다.

당신들은 전반 반대파가 특히는 까메네브가 제14차대표자회의의 결의문을 고양이가 뜨거운 죽을 피하듯이 피하는 사실에 주의를 돌렸는가?(웃음소리) 무엇때문에 그들은 지노위예브의 보고에 의하여 채택되였고 까메네브의 적극적인 협력밑에 채택된 제14차대표자회의의 결의문을 그처럼 두려워하고있는가? 무엇때문에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는 이 결의문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언급하는것조차 두려워하는가? 그래 그 결의문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문제를 취급하고있지 않단 말인가? 그래 사회주의건설문제가 우리 론쟁의 기본적론제가 아니란 말인가?

그러면 대체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는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가 1925년에는 제14차대표자회의의 결의문에 찬성하고도 그후에 이 결의문을 포기하였으며 따라서 레닌주의를 포기하고 뜨로쯔끼주의편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죄상이 드러날가봐 이 결의문을 조금이라도 언급하는것을 두려워하는것이다.

그 결의문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있는가?

여기에 그 결의문에서 인용한 구절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종국적승리의 의미에서가 아니다.)는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①》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 쓰딸린

다음으로

《…직접 대립되는 두가지 사회제도의 존재는 끊임없이 자본주의의 붕괴, 기타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적압박, 무력간섭, 복구의 위험성을 초래하고있다. 그러므로 일련의 나라에서의 승리적인 사회주의혁명은 사회주의의 종국적승리, 다시말하면 복구를 제거하는 유일한 보장이다. 그렇다고 해서 로씨야와 같은 그런 락후한 나라에서의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은① 기술적-경제적면에서 보다 더 발전된 나라들의 〈국가적원조〉가 없이는①(뜨로쯔끼) 불가능하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① 뜨로쯔끼의 부단혁명론의 한 구성부분인,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경제의 진정한 앙양은 구라파의 주요한 나라들에서 무산계급이 승리한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될것이다.〉(뜨로쯔끼 1922년)라는 주장은 현시기의 쏘련의 무산계급을 숙명론적인 소극적태도를 취하게 하려는 주장이다. 이러한 〈리론〉을 반대하여 레닌동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그들이 서구라파사회민주당의 발전시기에 외워둔 론거란 한없이 판에 박은듯 평범한것인데 그 론거는 우리가 사회주의를 실현하리만큼 성숙하지 못하였다는데 우리에게는 그들중의 여러《학자》제씨들이 표현하고있는바에 의하면 사회주의를 위한 객관적인 경제적전제조건이 없다는데 있다.〉(《쑤하노브의 수기에 대하여》)②《(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 대표자회의 결의문《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확대전원회의의 결의와 관련한 국제공산당 및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의 과업에 대하여》)③

보다싶이 제14차대표자회의의 결의문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에서의 레닌주의의 기본원리들을 정확히 서술하였다.

보다싶이 이 결의문에서 뜨로쯔끼주의는 레닌주의와 대립되는것으로 평가되였으며 또 이 결의문의 많은 론거는 뜨로쯔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 쓰딸린

②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690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③ 《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정서집》, 1956년 인민출판사판, 제3분책, 47～48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끼주의의 기본을 직접 부정하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보다싶이 이 결의문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다시 벌어진 론쟁을 완전히 반영하고있다.

여러분이 알고있는바와 같이 나의 보고는 이 결의문의 지도적원리들에 기초하여 작성된것이다.

여러분은 아마 내가 나의 보고에서 특히 제14차대표자회의의 결의문에 언급하면서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가 이 결의문을 위반하였고 이 결의문으로부터 리탈하였다고 그들을 비난하였다는것을 기억하고있을것이다.

왜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는 이 비난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는가?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는가?

그 비밀은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가 벌써 오래전에 이 결의문을 포기하였으며 또 포기한후 뜨로쯔끼주의편으로 넘어갔다는데 있다.

왜냐 하면 다음의 두가지중의 하나로 되여야 하기때문이다.

혹은 제14차대표자회의의 결의문이 레닌주의적인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는 이 결의문에 찬성투표를 하였으므로 레닌주의자가 아니였다.

혹은 이 결의문이 레닌주의적인것이다. —그렇게 되면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는 이 결의문을 포기하였으므로 더는 레닌주의자가 아니다.

어떤 토론자들은(그중에는 리제도 있는것 같다.) 여기서 지노위예브와 까메네브가 뜨로쯔끼주의에로 넘어간것이 아니라 반대로 뜨로쯔끼가 지노위예브와 까메네브편으로 넘어왔다고 하였다. 동지들, 이것은 모두 허튼소리이다.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가 제14차대표자회의의 결의문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이야말로 곧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가 뜨로쯔끼주의편으로 넘어갔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요컨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표자회의의 결의문에 정식화되여있는 쏘련사회주의건설문제에서의 레닌주의로선을 포기한자는 누구인가?

결국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이다.

《국제적혁명의 전망》을 뜨로쯔끼주의로 《슬쩍 바꾸어놓은》자는 누구인가?

결국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이다.

지금 까메네브가 우리 당의 《민족적개량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떠들어대고있다면 그것은 그가 이렇게 함으로써 동지들의 주의를 자기의 죄로부터 다른데로 돌리며 그리하여 자기의 죄를 남에게 들씌우려고 시도하고있기때문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의 《민족적개량주의》에 대해서 운운하는 까메네브의 《책략》은 간계이며 우리 당의 《민족적개량주의》에 대해서 떠들어댐으로써 제14차대표자회의의 결의문을 포기하고 레닌주의를 배반하고 뜨로쯔끼주의편으로 넘어간 자기의 행위를 엄폐하려고 타산한 추악하고도 조잡한 간계이다.

2. 우리는 쏘련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를 건설하고있으며 또 건설해낼수 있다

나는 나의 보고가운데서 사회주의의 **정치**적기초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조성되였는데 그것은 무산계급독재라고 말하였다. 나는 또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는 아직까지도 조성되지 않았으며 이제부터 그것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였

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까닭에 문제는 다음과 같이 나서게 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힘으로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를 건설할수 있겠는가? 끝으로 나는 만일 이 문제를 계급적말로 바꾸어말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힘으로 우리 쏘련의 자산계급을 전승할수 있겠는가?

뜨로쯔끼는 자기의 연설가운데서 내가 쏘련의 자산계급을 전승할데 대해서 말할 때에 념두에 둔것은 정치적으로 전승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물론 옳지 않다. 이것은 뜨로쯔끼가 분파적활동에 파묻혀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나의 보고로부터 분명한것은 내가 쏘련의 자산계급을 전승할데 대해서 말할 때 념두에 둔것은 경제적으로 전승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정치적으로는 자산계급을 이미 전승하였기때문이다.

쏘련의 자산계급을 경제적으로 전승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는 달리말하면 쏘련에 사회주의의 경제적기초를 조성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회주의의 경제적토대를 만든다는것은 농업을 사회주의공업과 하나의 전일체적인 경제로 결합시키는것이고 농업을 사회주의공업에 종속시키는것이며 농산물과 공업제품의 교환을 기초로 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관계를 조정하는것이고 계급이 생겨날, 우선 자본이 생겨날 그 모든 길을 막아버리는것이며 나중에 계급의 폐절에로 직접 인도하는 생산조건 및 분배조건을 지어놓는것이다.》(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제7차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쓰딸린의 보고를 보라.)①

바로 이렇게 나는 나의 보고가운데서 쏘련사회주의경제기초의 본질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레닌이 소책자 《현물세에 관하여》의 유명한 요

① 이 책, 651페지를 보라.—편집자

강①에서 제시한 사회주의의 《경제적본질》, 《경제적기초》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다.

이 규정은 옳은가, 또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적기초를 건설해낼 가능성을 기대할수 있는가—이것이 지금 우리의 의견상이의 기본문제이다.

뜨로쯔끼는 이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이 문제를 그저 회피하여버렸는데 아마 침묵을 지키는편이 령리하다고 생각하고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주의경제기초를 건설하고있으며 또 건설해낼수 있다는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도 명백하다.

(ㄱ) 우리의 사회주의화된 생산은 련합된 대규모생산이지만 우리 나라의 국유화되지 않은 생산은 분산된 소규모생산이다. 그런데 대규모적이며 또 련합된 생산이 소규모생산보다 우세하다는것은 론쟁할바 없는 사실이라는것은 다 아는바이다.

(ㄴ) 우리의 사회주의화된 생산은 이미 소규모생산을 령도하고있으며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도시의 소규모생산이나 농촌의 소규모생산이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ㄷ)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요소와 자본주의적요소간의 투쟁전선에 있어서 전자는 후자에 대해서 확실히 우세를 차지하고있으며 생산 및 류통 면에서 우리 나라 경제의 자본주의적요소들을 전승하면서 일보일보 전진하고있다.

나는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요소로 하여금 자본주의적요소를 타승하게 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우리 나라 경제의 자본주의적요소들을 타승하는 과정이

---

① 《소책자 〈현물세에 관하여〉의 요강》을 가리킨다.(《레닌전집》, 한문판, 제32권, 309~318페지를 보라.)—편집자

금후에 더는 계속되지 않으리라고 추측할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뜨로쯔끼는 자기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쓰딸린은 말하기를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을 수행하고있다, 다시말하면 계급과 국가의 폐절을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다시말하면 우리 나라 자산계급을 타승하고있다고 하였다. 동지들, 그렇다. 그러나 국가에는 외부의 적들에 대항할 군대가 필요한것이다.》(속기록에서 인용함.—이. 쓰딸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인용문의 의미는 어떠한것인가? 이 인용문에서 내릴수 있는 결론은 다만 하나뿐이다. 즉 국가 없이는 군대는 있을수 없는데(뜨로쯔끼는 이렇게 생각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기초의 건설은 계급과 국가의 폐절을 의미하기때문에 또 어쨌든 사회주의조국을 방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군대가 필요하기때문에 사회주의조국을 무력으로 방위할 필요성이 없어지기전까지는 사회주의경제기초를 우리는 건설해낼수 없다는것이다.

동지들, 이것은 모든 개념을 다 혼동하는것이다. 혹은 여기서는 국가를 단순히 사회주의사회를 무력으로 방위하는 기구로 리해하고있다. —이것은 황당하다. 왜냐 하면 국가는 우선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반대하는 도구이며 따라서 계급이 없어진 한 국가도 있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일이기때문이다. 혹은 여기서 국가가 없이는 사회주의사회를 방위하는 군대도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고있다. —이것도 역시 황당하다. 왜냐 하면 계급도 없고 국가도 없지만 그러나 자기의 무계급사회를 외적의 침범으로부터 방위하는 무장한 인민이 있는 그러한 사회상태를 리론적으로는 완전히 허용할수 있기때문이다. 사회학은 계급도 없고 국가도 없었으나 일정한 방법으로 외적의 침범으로부터 자기를 방위한 사회가 인류력사상에 있었다는

폐를 적지 않게 제공한다. 미래의 무계급사회도 계급도 국가도 없으면서도 어쨌든 외적의 침범으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주의적민병을 가질수 있는 사회일것이다. 나는 우리 나라가 이러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될수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 더우기 사회주의의 승리와 계급의 폐절은 자본주의국가의 무산자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강력한 념원을 환기시키지 않을수 없으며 다른 나라들에서 혁명을 폭발시키지 않을수 없는 그러한 세계사적의의를 가진 사실이라는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리론적으로는 계급도 국가도 없지만 사회주의적민병이 존재할수 있는 그러한 사회상태는 완전히 허용될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당 강령에 어느 정도 해명되여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무산계급독재의 도구로서의 붉은군대는 반드시 공개적인 계급적 성격을 띠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순전히 무산계급과 무산계급에 가까운 반무산계급적인 농민층으로써 조직되여야 한다. 계급이 폐절된후에 있어서만 이와 같은 계급적군대가 전 인민적인 사회주의적민병으로 전환할것이다.》①(《쏘련공산당(볼쉐위크) 강령》을 보라.)②

뜨로쯔끼는 아마 우리 당 강령의 이 조항을 잊어버린 모양이다.

뜨로쯔끼는 자기의 연설에서 세계자본주의경제에 대한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의존성을 말하면서 《우리는 고립된 전시 공산주의로부터 점점 세계경제와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이. 쓰딸린

② 《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정서집》, 1964년 인민출판사판, 제1분책, 536페지를 보라.—편집자

있다.》고 억설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자본주의적요소와 사회주의적요소가 투쟁하고있는 우리 나라 인민경제는 세계자본주의경제와 결합하고있다는것으로 된다. 내가 자본주의적세계경제라고 말하는것은 지금 이 세상에는 다른 세계경제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이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황당하다. 이것은 뜨로쯔끼가 분파적활동에 파묻혀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 인민경제가 세계자본주의경제에 의존하고있다는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마치 어떤 나라나 어떤 나라의 인민경제나 다(미국의 국민경제도 례외가 아니다.) 세계자본주의경제에 의존하고있다는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으며 또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의존은 상호적인것이다. 비단 우리 나라 경제가 자본주의국가들에 의존하고있을뿐만아니라 자본주의국가들도 우리의 경제 즉 우리의 석유, 우리의 곡물, 우리의 목재, 그리고 우리의 광대한 시장에 의존하고있다. 례컨대 우리는 《스탠더드석유회사》로부터 대부금을 받고있다. 우리는 독일자본가들한테서 대부금을 받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받고있는것은 우리 눈이 고와서가 아니라 자본주의국가들이 우리의 석유, 우리의 곡물, 설비품을 판매하기 위한 우리의 시장을 필요로 하기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세계의 6분의 1을 차지하고있으며 광대한 판매시장을 이루고있으므로 자본주의국가들은 우리의 시장과 일정한 련계를 맺지 않고서는 유지해나갈수 없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 경제에 대한 자본주의국가들의 의존이다. 그렇기때문에 의존은 상호적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국가들에 대한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의존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할 가능성을 배제한

다는것을 의미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사회주의경제를 절대적으로 고립되고 주위의 여러 나라 인민경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것으로 생각하는것은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절대로 수출도 수입도 없을것이라고 즉 국내에 없는 생산물을 수입하지도 않을것이며 따라서 자국의 생산물을 수출하지도 않을것이라고 주장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 그러면 수출과 수입이라는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고있는 표현이다. 이것은 경제상 상호의존하고있는 표현이다.

현대의 자본주의국가들도 역시 이러하다. 여러분은 수출이나 수입이 없는 나라를 상상할수 없을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을 들어보자. 현재의 자본주의국가들이를테면 영국이나 미국을 절대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 왜 그런가? 왜냐 하면 그 나라들은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원료에 의존하고있으며(례컨대 미국은 고무 및 기타 원료품에 의존하고있다.) 그 나라들이 자기의 설비품 및 기타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장에 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이것은 또 절대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해서 개개의 인민경제의 자립성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인가? 아니다, 그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 의존하고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자립성을 상실하였다거나 또 상실할것이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우리 나라가 자기의 자립성을 고수할수 없으며 세계자본주의경제의 작은 나사못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일부 나라들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의존성과 이 나라들의 경

제적자립성은 갈라보아야 한다. 개개의 인민경제단위의 절대적인 불의존성을 부인하는것은 결코 이 단위들의 경제적자립성을 부인하는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 의미할수도 없다.

그러나 뜨로쯔끼는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의존성에 관해서만 말하고있는것이 아니다. 그는 이 의존성을 우리 나라 경제와 자본주의적세계경제와의 결합이라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인민경제와 자본주의적세계경제와의 결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 나라 인민경제가 세계자본주의의 부속물로 전환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 나라가 세계자본주의의 부속물인가? 물론 아니다! 동지들 이것은 어리석은 말이다. 이것은 경솔한 소리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공업, 우리의 대외무역독점, 우리의 국유화된 운수, 우리의 국유화된 신용대부, 우리의 계획적인 경제령도를 고수할 아무런 가능성도 가지지 못할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벌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공업이 보통자본주의공업으로 변질하는 길에 들어섰을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나라 경제의 사회주의적요소와 자본주의적요소와의 투쟁전선에서 우리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것이다.

뜨로쯔끼는 자기의 연설가운데서 《실제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세계경제의 통제하에 있게 될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 결국 우리 나라 인민경제는 세계자본주의경제의 통제하에서 발전하게 되리라는것으로 된다. 왜냐 하면 자본주의적세계경제이외에 다른 세계경제란 지금 세상에 없기때문이다.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탐욕가들의 몽상으로서 절대 실현되지 못할것이다.

자본주의적세계경제의 통제란 무엇인가? 자본가들이 말하는 통제는 공담이 아니다. 자본가들이 말하는 통제는 현실적인것이다.

자본주의적통제라는것은 무엇보다도먼저 금융통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은행들은 국유화되여있지 않단 말인가? 우리의 은행들은 구라파자본가들의 은행의 지도밑에서 일하고있단 말인가? 금융통제라는것은 우리 나라에 자본주의 대은행의 지행을 설치하는것을 의미하며 소위 《딸자식》은행을 조직하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이러한 은행들이 과연 있는가? 물론 없다! 현재 없을뿐만아니라 쏘베트정권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결코 없을것이다.

자본주의적통제라는것은 우리 공업에 대한 통제, 우리 사회주의공업의 국유화의 폐지, 우리 운수의 국유화의 폐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공업은 국유화되여있지 않단 말인가? 또 다름아닌 국유화된 공업으로서 장성하고있지 않단 말인가? 과연 국유화된 기업을 비록 하나만이라도 폐지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물론 뜨로쯔끼의 리권위원회에 어떠한 타산이 있는지는 모른다.(웃음소리) 그러나 쏘베트정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 나라에서 국유화의 폐지론자들이 발붙일수 없으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자본주의적통제라는것은 우리의 시장을 지배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대외무역독점의 제폐를 의미한다. 서구라파의 자본가들이 대외무역독점의 철벽을 뚫으려다가 루차 이마를 부딪치고말았다는것을 나는 알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대외무역의 독점은 우리의 청소한 사회주의공업의 방패이며 담벽이다. 그런데 과연 자본가들은 대외무역의 독점을 제폐하는 일에서 이미 성과를 거두었는가? 쏘베트정권이 존재하는 한 대외무역의 독점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래동안 존속할것이라는

것이 과연 리해하기 어려운가?

끝으로 자본주의적통제는 정치적통제, 우리 나라의 정치적독립성의 상실을 의미하며 국제자본주의경제의 리익과 구미에 나라의 법률을 적응시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과연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란 말인가? 과연 우리의 법률은 우리 나라의 무산계급과 근로대중의 리익에 의하여 제정되지 않았단 말인가? 무엇때문에 우리 나라의 정치적독립성의 상실을 말해주는 사실을 단 한가지만이라도 인증하지 않는가? 어디 인증하려면 해보라.

자본가들은 통제를 이상과 같이 리해하고있다. 그것은 물론 어떤 유명무실한 통제에 대한 공담이 아니라 현실적인 통제를 두고 말한다.

만일 이러한 현실적인 자본주의적통제를 론한다면(그런데 이러한 통제밖에 있을수 없다. 왜냐 하면 유명무실한 통제에 관한 공담은 졸렬한 문인들만이 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한 통제는 우리 나라에 없으며 또 우리 무산계급이 생존하는 한, 우리 나라에 쏘베트정권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는것을 나는 언명하여야 하겠다.(박수)

뜨로쯔끼는 자기의 연설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제는 자본주의적세계경제의 포위속에서 고립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한다는데 있다. 이것은 이 고립된 국가의 생산력이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초월함으로써만 달성될수가 있다. 왜냐 하면 전망의 견지에서 볼 때 그 생산력이 낡은 경제체제의 생산력보다 더 강대한 오직 그러한 국가나 그러한 새 사회형태로 공고화되게 하려 하여도 1년이나 10년이 아니라 50년이나 지어는 100년후에야 비로소 가능하기때문이다.》(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제7차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뜨로쯔끼의 연설속기록을 보라.)

그리하여 결국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생산력발전면에서 자

본주의경제체제에 대한 자기의 우월성을 실지로 립증하려면 50년이나 지어는 100년이 필요하다는것으로 된다.

동지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모든 개념과 견망을 혼동하는것이다.

봉건적경제체제가 노예제적경제체제에 대한 자기의 우월성을 립증하기 위하여서는 아마 적어도 200년가량 걸린듯하다. 당시에는 발전속도가 극도로 완만하였고 생산기술이 아주 원시적이였기때문에 사실 다르게는 될수 없었다.

자산계급경제체제가 봉건경제체제에 대한 자기의 우월성을 립증하기 위하여서는 약 100년 또는 100년도 못 걸렸다. 자산계급경제체제는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벌써 그것이 봉건적경제체제보다 우월하다는것, 훨씬 우월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기간의 차이는 자산계급경제체제의 보다 빠른 발전속도와 보다 발달된 기술로써 설명된다.

그때로부터 기술은 비증유의 성과를 과시하였으며 발전속도는 그야말로 대단하였다. 묻노니, 뜨로쯔끼는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자본주의경제체제에 대한 자기의 우월성을 립증하기 위하여서는 약 100년을 요하리라고 예상할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있는가?

우리 나라 생산의 선두에는 기생자들이 아니라 생산자자신들이 서있다는 이 사실은 과연 사회주의경제체제가 경제를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자본주의경제체제에 대한 자기의 우월성을 보다 짧은 기간에 립증할 모든 가능성을 가지게 될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사회주의경제는 가장 통일되고 집중된 경제이며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으로 운영된다는 이 사실은 과연 사회주의경제가 내적모순으로 말미암아 분열되며 공황으로 말미암아 부식되고있는 자본주의경제체제에 대한 자기의 우월성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립증하기 위한 모든 유리한 점을 가지리라는것을 말하는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상 여기서 50년이나 100년이라는 전망을 내세우는것은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전능에 대한 공포에 빠져있는 시정배들의 미신에 걸려있음을 의미하는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옳습니다!》라는 소리)

그러면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여기에서 두가지 결론이 나온다.

첫째로, 뜨로쯔끼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문제에 관한 그의 반박에서 론쟁의 낡은 기지로부터 새 기지로 퇴각하였다. 이전에는 반대파는 내적모순 즉 무산계급과 농민간의 모순이라는 관점에서 반박하면서 이 모순을 극복할수 없는것으로 보았다. 지금에 와서는 뜨로쯔끼는 외적모순 즉 우리 나라 인민경제와 세계자본주의경제간의 모순을 강조하면서 이 모순을 극복할수 없는것으로 보고있다. 이전에는 뜨로쯔끼가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장애물로 되는것은 무산계급과 농민간의 모순이라고 간주하던것이 지금에 와서는 전선을 옮겨 당의 견지를 비판하는 다른 기지로 퇴각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장애물로 되는것은 우리 나라 경제체제와 자본주의적세계경제간의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반대파의 종래의 론증이 파산하였다는것을 사실상 승인하였다.

둘째로, 그러나 뜨로쯔끼는 말로로, 진탕으로 퇴각하였다. 뜨로쯔끼는 사실상 직접 그리고 공공연히 쑤하노브에게로 퇴각하였다. 뜨로쯔끼의 《새로운》 론증은 본질상 무엇에 귀착되는가? 그것은 결국 다음과 같은것에 귀착된다. 즉 우리는 자기의 경제적락후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는

정도에까지 장성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에게는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할만한 객관적전제조건이 없으며 따라서 우리 나라 인민경제는 자본주의적세계경제의 부속물로, 세계경제의 통제하에 있는 경제단위로 전환하고있으며 또 전환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쑤하노브주의》이며 게다가 전혀 은폐되지 않은 로골적인 《쑤하노브주의》이다.

반대파는 멘쉐위크 쑤하노브에게로, 우리 나라에서의 승리적인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을 직접 부정하는 쑤하노브의 립장에로 전락하고말았다.

3. 우리는 세계무산계급과 동맹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우리가 농민과 동맹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이 점은 우리 반대파도 감히 로골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하는것 같다. 우리가 세계무산계급과 동맹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가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파는 의심을 품으려 하고있다. 일부 반대파분자들은 우리 당이 이 동맹의 의의를 과소평가한다고까지 주장하고있다. 그리하여 반대파의 한사람인 까메네브는 당을 민족적개량주의에 빠졌다고 비난하며 세계혁명의 전망을 민족적개량주의의 전망으로 바꾸어놓았다고 당을 비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동지들, 이것은 어리석은 소리다. 그야말로 어리석은 소리다. 오직 정신병자만이 우리 나라 무산자와 다른 모든 나라의 무산자와의 동맹이 사회주의건설사업에 있어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부정할수 있을것이다. 오직 정신병자만이 전 세계 무산자와 동맹하는 사업을 과소평가한다고 우리 당을 비난할수 있을것이다. 오직 세계무산계급과 동맹하여야만 우리 나

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

모든 문제는 이 동맹을 어떻게 리해하는가 하는데 있다.

쏘련의 무산자들이 1917년 10월에 정권을 탈취한 이것은 전 세계 무산자에 대한 원조였으며 이것은 고들과의 동맹이였다.

독일의 무산자들이 1918년에 혁명을 일으킨 이것은 전 세계 무산자에 대한, 특히 쏘련의 무산자에 대한 원조였으며 이것은 쏘련의 무산계급파의 동맹이였다.

서구라파의 무산자들이 쏘련에 대한 무력간섭활동을 방해하고 반혁명장군들에게 무기를 수송해주지 않고 행동위원회를 조직하여 자국자본가들의 후방을 교란한 이것은 쏘련의 무산자에 대한 원조였으며 이것은 서구라파무산자와 쏘련의 무산자와의 동맹이였다. 자본주의나라들의 무산자로부터의 이러한 동정과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국내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것이다.

자본주의나라의 무산자들이 우리 나라에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의 건설을 검열하여본 다음 우리의 건설성과를 전 구라파 로동자들에게 선전하는 이것은 쏘련의 무산자에 대한 원조이며 이것은 쏘련의 무산자에 대한 최대의 지원이며 이것은 쏘련의 무산자와의 동맹이며 우리 나라에 대하여 있을 수 있는 제국주의의 무력간섭을 제어하는것이다. 이러한 지원과 이러한 제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소휴식》을 얻지 못하였을것이며 또 《소휴식》이 없었다면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사업을 전개할수 없었을것이다.

쏘련의 무산자들이 자기의 독재를 강화하고 경제적붕괴상태를 일소하고 건설사업을 전개하여 사회주의건설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이것은 전 세계 무산자들에 대한 최대의 지원이며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 정권을 위한 그들

의 투쟁에 대한 최대의 지원이다. 왜냐 하면 쏘베트공화국의 존재, 그 견고성, 사회주의건설전선에서의 그의 성과는 자본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는 전 세계 무산자들을 고무하는 세계혁명의 최대의 동인이기때문이다. 쏘베트공화국이 없어진다면 그 결과로서 전체 자본주의국가에 가장 흉악하고 가장 악독한 반동이 나타나리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 나라 혁명의 력량과 자본주의국가의 혁명운동의 력량은 전 세계 무산자들의 이와 같은 호상지원과 이와 같은 동맹에 있다.

이러한것이 쏘련의 무산자와 세계무산계급과의 동맹의 각종 형태이다.

반대파의 오유는 그들이 동맹의 이러한 형태들을 리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반대파의 불행은 그들이 동맹의 한 형태인 쏘련의 무산계급에 대한 서구라파무산자들의 《직접적인 국가적지원》이라는 형태 즉 유감이지만 아직 적용할수 없는 형태만을 인정하는데 있다. 그런데 반대파는 쏘련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운명을 장래의 이런 지원에다 직접 의존시키고있다.

이러한 지원형태를 인정함으로써만 당이 《국제혁명의 전망》을 유지할수 있다고 반대파는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세계혁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태도는 다만 우리측이 우리 나라 경제의 자본주의적요소에 대하여 부단히 양보하는데 이르게 하며 결국에는 투항주의, 패배주의에로 이르게 할수 있을따름이라는것을 나는 이미 말하였다.

이리하여 세계무산계급과의 동맹의 유일한 형태라고 반대파가 제기하는 구라파무산계급의 《직접적인 국가적지원》이라는것은 세계혁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결국 투항주의의 은폐물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투항주의의 은폐물로서의 까메네브의 《국제혁명의 전망》—이것이 곧 까메네브가 문제를 끌고나가는 귀착점이다.

그렇기때문에 까메네브가 여기에서 우리 당을 민족적개량주의에 빠졌다고 비난하는 그 대담성에 대해서는 오직 경탄할 수밖에 없다.

좀 유하게 말해서 혁명성에 있어서나 국제주의에 있어서나 우리들가운데서 결코 뛰여나지 못하였던 까메네브에게 이와 같은 대담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언제나 멘쉐위크들사이에서는 볼쉐위크였고 볼쉐위크들사이에서는 멘쉐위크였던 까메네브에게 이와 같은 대담성이 어디서 나왔는가?(웃음소리)

레닌이 그 당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10월혁명의 《로동귀족》이라고 부른 까메네브에게 어디서 이와 같은 대담성이 나왔는가?

까메네브는 쏘련무산계급은 국제주의자인가 아닌가를 알고싶어한다. 나는 쏘련의 무산계급은 10월혁명의 《로동귀족》의 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성명하여야 하겠다.

당신은 쏘련무산계급의 국제주의의 정도를 알고싶은가? 영국로동자들에게 물어보라, 독일로동자들에게 물어보라,(열렬한 박수) 중국로동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에게 쏘련무산계급의 국제주의에 관해서 이야기해줄것이다.

4. 변질에 관한 문제

이리하여 반대파가 우리 나라에서의 승리적인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을 로골적으로 부인하는 견지에 서있다는것은 확증되였다고 할수 있다.

그런데 승리적인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에 대한 부인은 당을 변질의 전망에 이르게 하며 또 변질의 전망은 자연히

정권으로부터의 리탈과 다른 당을 조직하는 문제에 이르게 한다.

쁘로쯔끼는 자기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것은 가장이다.

만일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없고 다른 나라들의 혁명이 지연된다면 그리고 우리 나라 인민경제와 세계자본주의 경제와의 《결합》이 장성함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자본이 장성한다면 반대파의 견지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출로가 남아있을뿐이라는것은 의심할수 없다.

(ㄱ) 혹은 계속 정권을 틀어쥐고 자산계급민주주의정책을 실시하며 자산계급정부에 참가함으로써 《밀레랑주의》147를 실시하는가

(ㄴ) 혹은 변질하지 않기 위하여 정권으로부터 물러나와서 공식적당과 나란히 새 당을 조직하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본래 우리의 반대파가 달성하려고 애썼으며 또 실은 지금도 계속 애쓰고있는 그 목적이다.

두 당의 리론 또는 새 당의 리론은 승리적인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을 부인한 직접적결과이며 변질의 전망의 직접적결과이다.

이 두가지 출로는 모두 투항주의, 패배주의에로 이르게 하는것이다.

국내전쟁시기에는 문제가 어떻게 되여있었는가? 문제는 다음과 같이 되여있었다. 만일 우리가 군대를 조직하지 못하고 적들에게 반격을 가하지 못한다면 무산계급독재는 무너질것이며 우리는 정권을 잃을것이다. 당시에는 전쟁이 제일차적인 문제로 되여있었다.

국내전쟁이 끝나고 경제건설과업이 제일차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는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어떻게 되여있는가? 지금은

문제가 다음과 같이 되여있다. 만일 우리가 사회주의경제를 건설할수 없다면 무산계급독재는 자산계급에게 점점 더 중대한 양보를 하게 됨으로써 드디여 변질하여 자산계급민주주의의 꼬리를 따라가게 되고말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무산계급독재가 변질하여가면서 자산계급정책을 실시하는데 동의할수 있겠는가?

아니다, 동의할수 없으며 또 동의해서는 안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출로가 나온다. 즉 정권으로부터 물러서고 새 당을 조직하여 부활하는 자본주의에 길을 닦아주는것이다.

반대파동맹의 현재의 태도에서 나오는 필연적결과는 투항주의이다. —이것이 결론이다.

4

반대파와 당통일문제

마지막문제 즉 반대파동맹과 우리 당의 통일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자.

반대파동맹은 어떻게 형성되였는가?

당은 《신반대파》가 즉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가 뜨로쯔끼주의편으로 넘어감으로써 반대파동맹이 형성되였다고 단언한다.

지노위예브와 까메네브는 자기들이 뜨로쯔끼편으로 넘어간것이 아니라 뜨로쯔끼가 자기들편으로 넘어왔다는것을 암시하면서 이것을 부인한다.

사실을 보기로 하자.

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문제에 관한 제14차대표자회

의의 결의에 대해서 말하였다. 뜨로쯔끼가 접수하지 않을것이며 또 접수할수 없는 이 결의를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가 거부하였는데 이것은 뜨로쯔끼와 접근하며 뜨로쯔끼주의의 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였다는것을 나는 말하였다. 이 말은 옳은 말인가? 그렇다, 옳은 말이다.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는 이 주장에 무엇을 대립시키려고 시도하였는가? 아니다, 시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으로써 문제를 회피하였다.

다음으로 우리에게는 또 뜨로쯔끼주의를 소자산계급적편향이며 레닌주의에 대한 수정이라고 규정하고있는 우리 당 제13차대표자회의의 결의가 있다.① 다 아는바와 같이 이 결의는 국제공산당 제5차대회에서 확인된것이다. 나는 나의 보고에서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는 이 결의를 거부하고 그들의 특별성명에서 1923년에 뜨로쯔끼주의가 당과 투쟁한것이 옳다고 승인하였다는것을 말하였다. 이것은 사실인가? 그렇다, 사실이다. 지노위예브와 까메네브는 이 주장에 무엇으로 대립시키려고 시도하였는가? 아니다, 시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으로써 대답하였다.

또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있다. 까메네브는 뜨로쯔끼주의에 대해서 1925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뜨로쯔끼동지는 소자산계급적자연발생적세력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당내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로 되였다. 그의 언론의 전부의 성격, 그의 지난날의 전부의 력사가 그렇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는 당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이미 국내에서 우리 당을 반대하는 모

---

①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3차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쓰딸린의 보고《당건설의 당면과업에 관한 보고》에 대한 결의《론쟁의 총화와 당내소자산계급적경향에 관하여》를 가리킨다.(《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정서집》, 1964년 인민출판사판, 제2분책, 362~372페지를 보라.)—편집자

든 세력의 상징으로 되였다.…》《이 비볼쉐위크주의학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그 부분의 당원들 즉 우리의 청년들, 당의 운명을 장악하게 될 그 미래의 성원들이 이 학설의 견염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때문에 뜨로쯔끼동지의 견지는 옳지 못하며 뜨로쯔끼주의와 레닌주의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택하여야 하지 이 량자를 합해서는 안된다.①는것을 온갖 방법을 다하여 해설하는 이것이 우리 당의 당면과업으로 되여야 한다.》(까메네브의《당과 뜨로쯔끼주의》, 론문집《레닌주의를 위하여》, 84~86페지를 보라.)

까메네브는 지금 이 말을 반복할 용기를 충분히 가지고있는가? 만일 그가 이 말을 반복하려고 한다면 그는 왜 지금 뜨로쯔끼와 동맹을 맺고있는가? 만일 까메네브가 이 말을 감히 반복하지 못한다면 그가 자기의 이전의 립장으로부터 물러나 뜨로쯔끼주의편으로 넘어갔다는것은 확실하지 않은가?

지노위예브는 1925년에 뜨로쯔끼주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뜨로쯔끼동지의 최근의 언론(《10월혁명의 교훈》)은 레닌주의의 기본을 수정 또는 직접 취소까지 하려는① 이미 상당히 로골적인 시도①이지 그 어떤 다른것이 아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 당 전체와 전 국제공산당에 명백해질것이다.》(지노위예브의《볼쉐위크주의이냐 뜨로쯔끼주의이냐》, 론문집《레닌주의를 위하여》, 120페지를 보라.)

지노위예브의 이 말을 까메네브가 자기의 로론가운데서 한《우리가 뜨로쯔끼와 같이 서있게 되는것은 뜨로쯔끼가 레닌의 기본사상을 수정하지 않기때문이다.》라는 언명과 비교하여보라.—그러면 당신들은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가 얼마나 엄중한 지경에까지 빠졌는가를 알게 될것이다.

지노위예브는 뜨로쯔끼에 대해서 같은 해 즉 1925년에 다

---

① 고시크체는 나의것. —이. 쓰딸린

음과 같이 썼다.

《지금 해결해야 할것은 1925년의 로씨야공산당은 어떠한 당인가 하는 문제이다. 1903년에 이 문제는 당규약 제1조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해결되고있었으나 1925년에는 뜨로쯔끼에 대한 태도, 뜨로쯔끼주의에 대한 태도에 의하여 해결되고있다. 뜨로쯔끼주의는 볼쉐위크당내에서 〈합법적인 류파〉로 될수 있다고 말하는자는 그자신이 더는 볼쉐위크로 되지 않으려는자이다. 뜨로쯔끼주의와 동맹하여, 로끌적으로 볼쉐위크주의를 반대하는 뜨로쯔끼주의와 협력해서 오늘날 당을 건설하려고 하는자는 레닌주의기본으로부터 리탈하는자이다.① 뜨로쯔끼주의는 지나간 단계이며 레닌주의당을 건설하려면 지금은 뜨로쯔끼주의를 반대하여야만 가능하다는것을 리해하지 않으면 안된다.》(1925년 2월 5일부 《쁘라우다》)

지노위예브는 지금 이 말을 반복할 용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그가 반복하려고 한다면 그는 왜 지금 뜨로쯔끼와 동맹을 맺고있는가? 만일 지노위예브가 이 말을 반복할수 없다면 그가 레닌주의로부터 물러나 뜨로쯔끼주의에로 넘어갔다는것은 확실하지 않은가?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말하여주고있는가?

까메네브와 지노위예브가 뜨로쯔끼주의편으로 넘어감으로써 반대파동맹이 형성되였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반대파동맹의 강령은 어떠한것인가?

반대파동맹의 강령은 사회민주주의적편향의 강령이며 우리 당내의 우경적강령이며 당을 반대하는, 당의 통일과 당의 권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온갖 기회주의적조류를 집결하는 강령이다. 까메네브는 중앙위원회를 념두에 두고 우리 당내의 우경을 운운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간계로

---

① 고시크제는 나의것. —이. 쓰딸린

서 당을 비난하여 떠들어댐으로써 반대파동맹의 기회주의를 엄폐하려는데 그 목적을 둔 졸렬하고도 위선적인 간계이다.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당대의 우경을 표현하는것은 반대파동맹이다. 우리는 반대파를 그들의 성명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의하여 판단하는것이다. 그런데 반대파의 행동은 반대파가 오쏩스끼 및 《로동자반대파》로부터 쑤와린 및 마슬로브, 코르쉬 및 루트 피쉐르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기회주의분자들의 집결처이며 발원지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분파활동의 부활, 우리 당내에서의 분파자유론의 복구, 우리 당의 모든 기회주의분자들의 집결, 당의 통일을 반대하는 투쟁, 당의 지도간부를 반대하는 투쟁, 새 당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까메네브의 토론으로써 판단한다면 이것이 현재 반대파가 추구하고있는것이다. 까메네브의 토론은 이 점에 있어서 1926년 10월의 반대파의 《성명》으로부터 반대파의 분렬로선의 복구에로의 전환점인것이다.

당의 통일의 견지에서 볼 때 반대파동맹이란 무엇인가?

반대파동맹이란 우리 당내의 새 당의 맹아이다. 반대파가 자기들의 중앙위원회와 자기들의 병행적인 지방위원회들을 가지고있다는것은 과연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반대파는 1926년 10월 16일의 《성명》에서 그들이 분파활동을 그만두었다고 억설하였다. 그러나 까메네브의 토론은 반대파가 또다시 분파투쟁으로 돌아갔다는것을 과연 말하여주지 않는가? 반대파가 이미 반대파의 중앙 및 지방의 병행적인 조직들을 회복하지 않았다는 그 어떤 보증이 있는가? 반대파가 자기들의 기금을 위하여 특별당비를 징수하였다는것은 과연 사실이 아닌가? 반대파가 이 분렬의 길에 또다시 들어서지 않았다는 그 어떤 보증이 있는가?

반대파동맹은 우리 당의 통일을 파괴하는 새 당의 맹아

이다.

파업은 이 동맹을 분쇄하고 근절하는데 있다.(열렬한 박수)

동지들, 한 나라가 오직 한 나라만이 자본의 전선을 돌파할수 있었고 다른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가 지배하고있는 조건하에서 무산계급독재는,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무산계급독재는 강철같은 규률로 무장된 당의 통일이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수 없다. 만일 우리가 무산계급독재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만일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당의 통일을 파괴하려는 시도, 새 당을 조직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근절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때문에 파업은 반대파동맹을 폐절하며 우리 당의 통일을 공고화하는데 있다.

5
결 론

동지들, 나는 끝을 맺으려 한다.

토론을 총화한다면 하등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의 총적결론 즉 반대파는 우리 나라 무산계급의 힘을 믿지 않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승리적인 사회주의건설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고 우리 당 제14차대회가 지적한것은 옳았다는 결론에 도달할수 있다.

이것은 동지들에게 형성되지 않을수 없었던 총적인상이며 총적결론이다.

이와 같이 당신들앞에는 두 세력이 있다. 한편으로는 쏘련의 무산계급을 자신있게 앞으로 이끌고나아가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며 전 세계 무산자들을 투쟁에로 부르는 우리 당이 있

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리에는 풍습이 있고 허리에는 허리중이 있고 머리에는 변두통이 있는 늙다리처럼 우리 당의 뒤를 비틀거리며 따라오고있는 반대파—도처에서 비관주의를 퍼뜨리고있으며 또 우리 쏘련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여도 아무 쓸모없을것이라느니, 그쪽 자산자들에게서는 만사가 다 잘되고있으나 우리 무산자들에게서는 만사가 다 잘 안된다느니 뭐니 하는 잡담으로 분위기를 더럽히고있는 반대파가 있다.

동지들, 이것이 당신들앞에 서있는 두 세력이다.

당신들은 이 둘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안된다.(웃음소리)

나는 당신들아 옳게 택하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박수)

반대파는 자기들의 분파활동에 눈이 어두워 우리의 혁명을, 온갖 독자적힘을 잃어버린것으로, 아직 승리하지 않은 서구라파의 미래의 혁명에 대한 무료부속물과 비슷한것으로 보고있다.

레닌동지는 우리의 혁명을, 쏘베트공화국을 그렇게는 보지 않았다. 레닌동지는 쏘베트공화국을 전 세계 무산자들에게 길을 비쳐주는 횃불로 보았다.

레닌동지는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쏘베트공화국이란 모범은 오래동안 그들〔즉 전 세계 무산자들.—이. 쓰딸린〕앞에서 빛날것이다. 우리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은 국제사회주의의 횃불로서, 또 전체 근로대중의 모범으로서 확고히 서있을것이다. 그쪽에는 싸움, 전쟁, 류혈, 수백만사람들의 희생, 자본의 착취가 있으며 이쪽에는 진정한 평화정책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이 있다.》(《레닌전집》, 로문판, 제3판, 제22권, 218페지를 보라.)①

---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26권, 443페지를 보라.—편집자

이 쾌불을 둘러싸고 두개의 전선이 형성되였다. 하나는 이 쾌불을 없애버리며 동요시키며 꺼버리려고 애쓰는 무산계급독재의 적의 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이 쾌불을 추켜들고 그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무산계급독재의 벗의 전선이다.

과업은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이 쾌불을 추켜들고 그 존재를 공고화하는데 있다.

동지들! 나는 당신들이 이 쾌불이 타올라 압박받고 예속당하는자들에게 길을 밝혀주도록 만반의 대책을 취하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이 이 쾌불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무산계급의 적들을 벌벌 떨게 하도록 만반의 대책을 취하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들이 이러한 쾌불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타올라 만국의 무산자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만반의 대책을 취하리라는것을 의심하지 않는다.(오래동안 그칠줄 모르는, 계속되는 박수. 전체 대표들은 일어나 《국제가》를 부른다. 《만세》를 세번 부른다.)

1926년 12월 9, 10, 19, 21, 22일부
《쁘라우다》 제285, 286, 294, 295, 296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9권, 3～135페지

제1차미국로동자대표단과의 담화(발취)

(1927년 9월 9일)

1

대표단의 물음과 쓰딸린동지의 대답

물음 1: 레닌과 공산당에 의하여 실지로 어떠한 새 원칙들이 맑스주의에 첨가되였는가? 맑스에게는 경제력의 최고의 발전을 기다리는 경향이 더하였었는데 레닌은 《창조적혁명》을 믿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옳은 말이겠는가?

대답: 나는 레닌이 맑스주의의 《옛》원칙중에서 한가지도 내버리지 않은것과 마찬가지로 맑스주의에 아무런 《새 원칙》도 《첨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레닌은 전적으로 맑스주의의 제 원칙에 렵각하고있는 맑스와 엥겔스의 시종 가장 충실하고 철저한 제자였다.

그러나 레닌은 단지 맑스, 엥겔스의 학설의 실천자만은 아니였다. 그는 동시에 또한 맑스, 엥겔스의 학설의 계승자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그가 맑스, 엥겔스의 학설을 발전의 새 조건들에 맞도록, 자본주의의 새 단계에 맞도록, 제국주의시대에 맞도

록 앞으로 더 발전시켰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계급투쟁의 새 조건하에서 맑스의 학설을 앞으로 더 발전시킴으로써 레닌은 맑스와 엥겔스가 준것에 비하여 또 제국주의전 자본주의시기에 있어서 줄수 있었던것에 비하여 어떤 새로운것을 맑스주의의 종보물고에 기여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레닌이 맑스주의의 보물고에 기여한 이 새로운것은 완전히 맑스와 엥겔스가 제시한 그 원칙들에 근거한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레닌주의를 제국주의와 무산계급혁명 시대의 맑스주의라고 말하는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들에서 새로운것을 기여하여 맑스의 학설을 앞으로 더 발전시켰다.

첫째로는 독점자본주의에 관한 문제,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인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토대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맑스와 엥겔스는 독점기이전의 자본주의가 지배하고있던 시기, 즉 자본주의가 순조롭게 진화하고있었으며 또한 그것이 전 지구에 《평화적으로》 퍼지고있던 시기에 살았다.

이 옛단계는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끝났는바 이때에는 맑스와 엥겔스는 이미 고인으로 되여있었다. 그런즉 맑스와 엥겔스가 옛단계를 교체하고 나타난 자본주의의 새 단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자본주의발전의 새 조건들, 제국주의단계, 즉 독점적단계에로의 발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새 조건들을 오직 추측할수밖에 없었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 새 단계에서는 자본주의의 순조로운 진화가 자본주의의 비약적, 파국적 발전으로 교체되였고 자본주의발전의 불균형성과 제 모순이 특히 심하게 나타났으며 그리고 판매시장 및 자본수출시장을 쟁탈하는 투쟁은 극히 불균형적인 발전조건하에서 세계 및 세

력 범위의 주기적인 재분할을 목적하는 주기적인 제국주의전쟁을 불가피한것으로 만들었다.

레닌의 공로, 말하자면 레닌의 새로운 기여는 그가 《자본론》의 기본명제들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의 최후의 단계인 제국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맑스주의적분석을 가하였으며 제국주의의 종처와 제국주의의 필연적인 멸망의 조건들을 밝혀놓은데 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의 조건하에서는 단독적으로 개개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할수 있다는 레닌의 유명한 명제가 나온것이다.

둘째로는 무산계급독재에 관한 문제이다.

무산계급의 정치적지배로서의 또 폭력으로써 자본의 권력을 전복하는 방법으로서의 무산계급독재에 대한 기본사상은 맑스와 엥겔스가 제시하였다.

이 령역에서 레닌의 새로운 기여는 다음과 같은것이다.

(1) 레닌은 빠리꼼뮨과 로씨야혁명의 경험에 의하여 무산계급독재의 가장 훌륭한 국가형태로서의 쏘베트정권을 발견하였다.

(2) 레닌은 무산계급동맹자문제의 견지에서 무산계급독재의 공식을 해명하고 무산계급독재가 지도자인 무산계급과 피지도자인 비무산계급(농민 및 기타)의 피착취대중과의 계급적 동맹의 특수형태라는것을 규정하였다.

(3) 레닌은 무산계급독재가 계급사회에 있어서 최고형의 민주주의이며 소수인(착취자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본주의적**민주주의에 대립되는, 다수인(피착취자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무산계급적**민주주의의 형태라는 사실을 특히 강조하였다.

셋째로는 자본주의국가들에 포위되여있는 나라에서 무산계급독재시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어서 사회주의를 성과있게 건설하는 형태 및 방법에 관

한 문제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무산계급독재의 시기를, 혁명적전투와 국내전쟁으로 가득찬 상당히 긴 시기로서, 이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무산계급이 정권을 잡고있으면서 낡은 자본주의사회 대신에 새 사회주의사회, 계급 없는 사회, 국가 없는 사회를 건설함에 필요한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및 조직적 성질의 방책들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로 보았다. 레닌은 전적으로 맑스와 엥겔스의 이 기본명제들의 토대우에 서있었다.

이 령역에서의 레닌의 새로운 기여는 다음과 같은것이다.

(1) 그는 제국주의국가들에게 포위되여있는 무산계급독재의 나라에서도 이 나라가 그를 포위하고있는 자본주의국가들의 무력적간섭에 의하여 압살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론증하였다.

(2) 그는 경제정책의 구체적방도들(《신경제정책》) 즉 무산계급이 경제적명맥들(공업, 토지, 운수, 은행 등등.)을 자기 수중에 틀어쥐고서 그 방도들을 통하여 사회주의화된 공업을 농업과 결합시키며(《공업과 농민경제와의 결합》) 그리하여 전반 인민경제를 사회주의에로 인도하는 그러한 경제정책의 구체적방도들을 수립하여놓았다.

(3) 그는 협동조합, 즉 무산계급독재의 수중에서 소농경제를 개조하며 기본농민대중을 사회주의정신으로써 교양하는데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되는 협동조합을 거쳐서 기본농민대중을 사회주의건설의 궤도에로 점차 인도하며 또한 끌어넣는 구체적방도들을 수립하여놓았다.

넷째로는 혁명에 있어서의, 짜리제도를 반대하는 혁명에서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에서나 온갖 인민적혁명들에 있어서의 무산계급의 령도권에 대한 문제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무산계급의 령도권사상에 대한 기본요점

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레닌의 새로운 기여는 그가 이 요점들을 무산계급의 령도권의 정연한 체계로, 까리제도와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사업에서뿐만아니라 무산계급독재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사업에서도 도시 및 농촌의 근로대중에 대한 무산계급의 령도의 정연한 체계로 더 발전시켰으며 확대시킨것이다.

무산계급의 령도권사상이 레닌과 그의 당에 의하여 로씨야에서 솜씨있게 적용된것은 일반이 다 아는바이다. 로씨야혁명이 무산계급으로 하여금 정권을 장악하게 한 그 사실은 특히 이것으로써 설명된다.

이전에는 사태가 보통 이러하였다. 즉 로동자들은 혁명당시에는 바리케트에서 싸우고 피를 흘렸으며 낡은것을 전복하였으나 정권은 자산자들의 수중에 들어갔고 그후 자산자들은 다시금 로동자들을 압박하고 착취하였다.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사태는 그러하였다. 독일에서도 사태는 그러하였다. 우리 로씨야에서는 사태가 달리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로동자들은 단지 혁명의 돌격력만이 아니였다. 로씨야무산계급은 혁명의 돌격력으로 되여있는 동시에 도시 및 농촌의 모든 피착취대중들을 자기 주위에 결속시키며 그들을 자산계급으로부터 떼여놓음으로써 자산계급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면서 지도자로, 그들에 대한 정치적지도자로 되려고 노력하였다. 로씨야무산계급은 피착취대중의 령도자로 되여있는 한 자기 수중에 정권을 틀어쥐고 이것을 리용하여 자기자체의 리익을 위하고 자산계급을 반대하며 자본주의를 반대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그러므로 1905년 10월이나 1917년 2월이나 로씨야에서의 혁명의 강력한 진출은 매번 무산계급을 탄압하는 사명을 가진 낡은 정권기관인 자산계급국회에 대치시켜 자산계급을 진압하는 사명을 가진 새 정권기관의 맹아인 로동자대의원쏘

베트를 무대우에 등장시켰다.

우리 나라에서 자산계급은 두번이나 즉 1917년 9월 볼쉐위크들이 정권을 잡기전인 예비국회[81] 회의기간과 1918년 1월 무산계급이 정권을 잡은후인 헌법제정회의[55] 회의기간에 자산계급국회를 부활시키고 쏘베트를 없애버리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들은 번마다 패배를 당하고말았다.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자산계급이 이미 정치적으로 고립되였고 수백만 근로대중은 무산계급을 혁명의 유일한 수령으로 인정하였으며 그리고 쏘베트는 이미 대중에 의하여 만일 이 정권을 자산계급의회로 바꾸어놓는다면 무산계급에게는 자살행위로 될 그러한 자기의 로동자정권으로서 검열되고 또한 시험되였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산계급의회제도가 우리 나라에서 뿌리를 박지 못하고만 것은 놀랄것이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로씨야의 혁명은 무산계급으로 하여금 정권을 장악하게 한것이다.

이러한것이 혁명에 있어서의 무산계급의 령도권에 대한 레닌의 사상을 관철한 결과들이다.

다섯째로는 민족-식민지문제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당시 아일랜드, 인도, 중국, 중구라파의 여러 나라, 뽈스까, 웽그리아의 사건들을 분석하면서 민족-식민지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되는 사상들을 제시하였다. 레닌은 자기 저서들에서 이 사상들에 립각하였다.

이 령역에서 레닌의 재로운 기여는 다음과 같은것이다.

(1) 레닌은 이 사상들을 제국주의시대의 민족-식민지혁명에 대한 견해들의 정연한 체계로 묶어놓았다.

(2) 그는 민족-식민지문제를 제국주의의 전복문제와 련결시켰다.

(3) 그는 민족-식민지문제가 국제무산계급혁명에 대한 일반적문제의 한 구성부분이라고 선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무산계급의 당에 대한 문제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무산계급의 전위대로서의 당에 관한 기본요점들을 제시하였다. 즉 무산계급은 당이 없이는 정권을 장악하는 의미에서나 자본주의사회를 개조하는 의미에서나 자체의 해방을 전취할수가 없는것이다.

이 령역에서 레닌의 새로운 기여는 그가 제국주의시대에 있어서의 무산계급투쟁의 새로운 조건들에 적합하도록 이 요점들을 앞으로 더 발전시킨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당은 무산계급의 다른 조직형태들(직업동맹, 협동조합, 국가기관)에 비하여 무산계급의 계급적조직의 최고형태이며 또한 당은 다른 조직들의 사업을 총괄하며 지도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2) 무산계급독재는 그 지도력량인 당을 거쳐서만 실현될수 있다.

(3) 무산계급독재는 오직 하나의 당이, 즉 공산당이 령도하는 경우에라야만 그것이 완전한 독재로 될수 있다. 공산당은 다른 당들과 령도권을 나누지 않으며 또한 나누어서는 안된다.

(4) 당내에 강철같은 규률이 없이는 착취자들을 진압하며 계급사회를 사회주의사회로 개조하는 무산계급독재의 과업들이 실현될수 없다.

레닌이 자기 저서들에서 내놓은 새로운 기여는 대체로 이상과 같다. 그는 제국주의시대에 있어서의 무산계급투쟁의 새로운 조건들에 맞도록 맑스의 학설을 구체화하며 또 앞으로 더 발전시키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무산계급혁명 시대의 맑스주의라고 말하는것이다.

이로부터 레닌주의를 맑스주의로부터 분리하여서는 안되며 더구나 맑스주의에 대립시켜서는 안된다는것이 분명하다.

대표단의 물음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맑스에게는 경제력의 최고의 발전을 기다리는 경향이 더하였었는데 레닌은 〈창조적혁명〉을 믿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옳은 말이겠는가?》

나는 이렇게 말하는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떠한 인민혁명이든지 만일 그것이 진실로 인민혁명이기만 하다면 그 혁명은 창조적혁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그 혁명은 낡은 제도를 분쇄하고 새 제도를 창조하며 조직하기때문이다.

일부 락후한 나라들에서 종종 일어나는,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을 반대하는 장난식의 《폭동》과 같은 《혁명》—혁명이라고 말할수 있다면—에서는 물론 하등의 창조적인것이 있을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장난식의 《폭동》을 맑스주의자들은 종래로 혁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폭동》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압박계급들을 반대하여 피압박계급들을 궐기시키는 대중적인민혁명을 말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혁명은 창조적혁명이 아닐수 없다. 맑스와 레닌은 바로 이러한 혁명을, 오직 이러한 혁명만을 찬성하였다. 이에 있어서 이러한 혁명은 어떠한 조건에서나 일어날수 있는것이 아니며 이러한 혁명은 다만 일정한 유리한 경제적 및 정치적 조건에서만 폭발할수 있다는것은 명백하다.

1927년 9월 15일부 《쁘라우다》 제210호에 게재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0권, 85~92페지

10월혁명의 국제적성격

(10월혁명 열둘에 즈음하여)

10월혁명을 다만 《한 나라 범위내의》 혁명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10월혁명은 무엇보다도 국제적, 세계적 성격을 가진 혁명이다. 그것은 전 세계 인류력사에서 낡은 자본주의세계로부터 새로운 사회주의세계에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기때문이다.

종래의 혁명은 보통 한 착취자집단이 다른 착취자집단을 대체하여 정권을 잡는것으로 끝나군 하였다. 착취자들은 바뀌여졌으나 착취는 여전히 존속되였다. 노예해방운동시기의 사태가 그러하였고 농노봉기시기의 사태가 그러하였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대》혁명시기의 사태도 그러하였다. 나는 빠리꼼뮨을 들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것은 무산계급이 자본주의를 반대하여 력사를 돌리려고 한 영광스럽고 용감한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첫시도였기때문이다.

10월혁명은 이러한 혁명들과는 원칙적으로 다르다. 10월혁명의 목적은 한 착취형태를 다른 착취형태로써 바꾸어놓거나 한 착취자집단을 다른 착취자집단으로써 바꾸어놓는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를 근절하며 모든 착취자집단을 타도하고 무산계급독재를 수립하며 지금까지 존재하여온 모든 피압박계급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계급의 정권을 수립하며 새로운, 계급없는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10월혁명의 **승리**는 인류력사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세계자본주의의 력사적운명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세계무산계급의 해방운동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며 전 세계 피착취대중의 투쟁방법과 조직형태, 생활양식과 전통, 문화와 사상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여기에 10월혁명을 국제적, 세계적 성격을 가진 혁명이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

또한 여기에 세계 각국의 피압박계급들이 10월혁명을 자신을 위한 해방의 담보로 생각하면서 그에 깊은 동정을 표시하는 원인이 있다.

전 세계 혁명운동의 발전에 대한 10월혁명의 영향은 일련의 기본적문제들로 설명할수 있을것이다.

(1) 10월혁명의 특이한 점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세계제국주의의 전선을 돌파하고 가장 큰 자본주의나라중의 한 나라에서 제국주의적자산계급을 전복하고 사회주의적무산계급으로 하여금 정권을 잡게 하였다는것이다.

고용자의 계급, 예속된자의 계급, 피압박피착취자의 계급이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지배**계급의 지위에 올랐으며 아울러 자기의 모범으로 전 세계 무산자들을 고무하고있다.

이것은 10월혁명이 새시대 즉 **제국주의**국가들에서의 **무산계급**혁명의 시대를 **열어놓았다**는것을 의미한다.

10월혁명은 지주와 자본가들에게서 생산도구와 생산수단을 탈취하여 그것을 사회적소유로 전화시킴으로써 자산계급적소유에 사회주의적소유를 대립시켜놓았다. 10월혁명은 그렇게함으로써 자산계급적소유는 신성불가침의것이고 영원한것이라고 하는 자본가들의 기만적언사를 폭로하였다.

10월혁명은 자산계급에게서 정권을 탈취하였으며 자산계

급에게서 정치적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자산계급국가기구를 파괴하고 쏘베트에 정권을 넘겨주었으며 그리하여 **자본주의적민주주의인** 자산계급의회제도에 **무산계급적민주주의인** 쏘베트의 사회주의적정권을 대립시켜놓았다. 이미 1887년에 라파르그가, 혁명의 이튿날에는《이전의 자본가들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할것이다.》①라고 말한것은 옳은 말이였다.

10월혁명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자산계급의회제도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평화적으로 넘어갈수 있다고 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기만적언사를 폭로하였다.

그런데 10월혁명은 이에 머물러있지도 않았으며 또한 머물러있을수도 없었다. 10월혁명은 자산계급의 낡은 제도를 파괴하고나서 인차 사회주의의 새 제도를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10월혁명의 10년은 당, 직업동맹, 쏘베트, 협동조합, 문화단체, 운수업, 산업, 붉은군대를 건설한 10년이였다. 쏘련의 사회주의가 건설전선에서 이룩한 의심할바없는 성과는, 무산계급은 자산계급이 **없이** 또 자산계급을 **반대하여** 나라를 성공적으로 다스려나**갈수 있다**는것, 그들은 자산계급이 **없이** 또 자산계급을 **반대하여** 산업을 성공적으로 건설**할수 있다**는것, 그들은 자산계급이 **없이** 또 자산계급을 **반대하여** 전 인민 경제를 성공적으로 지도**할수 있다**는것, 그들은 자본주의의 포위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머리와 신체의 기타 부분들이 위가 없이는 살아갈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피착취자들은 착취자들이 없이는 살아갈수 없다는 옛《리론》은 다만 고대사에 유명한 로마의 원로원 의원

---

① 뽈 라파르그의《혁명의 이튿날》.(《라파르그저작집》, 1926년 로문판, 제1권, 329~330페지를 보라.)—편집자

메네니우스 아그리파의것으로만 되여있는것이 아니다. 이 《리론》은 지금 일반적으로 사회민주당의 정치《철학》의 초석으로, 특수적으로는 제국주의적자산계급과 련합하는 사회민주당의 정책의 초석으로 되여있다. 이러한 일면성을 띤 《리론》은 지금 자본주의국가에서의 무산계급의 혁명화를 저애하는 가장 큰 장애물의 하나로 되고있다. 10월혁명의 가장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는 10월혁명이 이 기만적《리론》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다.

10월혁명의 이러한 또는 이와 류사한 성과들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었으며 또 주지 않을수 없다. 과연 이것을 이 이상 증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공산주의가 점차 자라나고있는것, 쏘련의 로동계급에 대한 전 세계 무산자의 동정이 날로 커가는것 그리고 수많은 로동자대표단들이 쏘베트나라로 모여드는것과 같은 이러한 일반이 다 아는 사실들은 의심할바없이 10월혁명이 뿌려놓은 씨앗이 이미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2) 10월혁명은 다만 제국주의지배의 중심에서만, 《종주국》에서만 제국주의를 뒤흔들어놓은것이 아니다. 10월혁명은 또한 식민지와 예속국가들에서의 제국주의의 지배를 파괴함으로써 제국주의의 후방, 그 주변에도 타격을 주었다.

10월혁명은 지주, 자본가들을 타도함으로써 민족-식민지적압박의 철쇄를 부셔버리고 그 압박에서 광대한 국가의 피압박민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해방하였다. 무산계급은 피압박민족들을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자신을 해방할수 없다. 10월혁명의 특징은 이 혁명이 민족적반목과 민족간의 충돌의 기치하에서가 아니라 쏘련 제 민족의 로동자 및 농민간의 호상

신임과 형제적친선의 기치하에서, **민족주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국제주의**를 위하여 쏘베트련맹에서 이 민족-식민지혁명을 수행한 사실이다.

민족-식민지혁명이 우리 나라에서 무산계급의 지도하에서, 국제주의기치하에서 진행되였기때문에 또 바로 그렇기때문에 천대받던 민족들, 노예의 지위에 있던 민족들이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참으로** 자유스럽고 **참으로** 평등한 민족의 지위에 올라서서 자기의 모범으로 전 세계 피압박민족들을 고무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10월혁명이 새시대 즉 세계의 **피압박국가들에서** 무산계급과 **동맹하여**, 무산계급의 **지도밑에서** 수행되는 **식민지**혁명의 시대를 **열어놓았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인류는 예로부터 렬등인종과 고등인종, 흑인종과 백인종으로 나뉘여져있는데 그중 전자는 개명할 능력이 없고 또 착취의 대상으로 되여야 할 운명을 가졌으며 후자는 전자를 착취할 사명을 가졌고 문명의 유일한 담당자라고 《롱메로》 생각하였던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전설이 분쇄되고 포기된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10월혁명의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10월혁명이 쏘베트적발전의 궤도에 들어선 해방된 비구라파민족들은 구라파민족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게 **참으로** 선진적인 문화와 **참으로** 선진적인 문명을 전진시킬 능력이 있다는것을 실지로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전설에 치명적타격을 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는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의 유일한 방법은 **자산계급민족주의의** 방법 즉 민족들을 서로 리간시키는 방법, 그들을 분렬시키는 방법, 각 민족의 근로대중사이에 민족적반목을 격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롱메로》 생각하였다.

이제는 이 전설이 론박된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10월혁

명의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10월혁명이, 피압박민족들을 해방하는 유일하게 옳은 방법으로서의 **무산계급국제주의적**방법이 가능하며 타당하다는것을 실지로 보여줌으로써 또 **자원적** 및 **국제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매개 민족의 로동자와 농민의 **형제적동맹**이 가능하며 타당하다는것을 실지로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전설에 치명적타격을 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 근로자들이 앞으로 단일한 세계경제에 련합될 그 조직체의 본보기인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의 존재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명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10월혁명의 이러한 또는 이와 류사한 성과들이 식민지 및 예속국가들의 혁명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었으며 또 지금도 주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등에서 피압박민족들의 혁명운동이 날로 장성하고있으며 쏘련에 대한 이 민족들의 동정이 갈수록 커가는것과 같은 사실들은 이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 없이 말하여주고있다.

식민지 및 예속국가들을 마음놓고 착취하고 압박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식민지들과 예속국가들에서의 해방적혁명의 시대, 이 나라들의 **무산계급의** 각성의 시대, 혁명에서의 무산계급의 **령도권**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3) 10월혁명은 제국주의의 중심이나 그 후방에 혁명의 씨를 뿌려놓고 《종주국》에서는 제국주의의 력량을 약화시키고 식민지에서는 제국주의의 지배를 뒤흔들어놓음으로써 **전체로서의** 세계자본주의의 존재 그자체를 의문에 붙이였다.

자본주의의 자연발생적인 발전이 제국주의의 조건하에서는 그 불균형성으로 말미암아, 분쟁과 군사적충돌의 불가피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미증유의 제국주의적살륙으로 말미암

아 자본주의의 부패와 사멸의 과정으로 전화하였다면 10월혁명 및 그로 인하여 한 거대한 나라가 자본주의세계체계에서 떨어져나간 사실은 세계제국주의기초자체를 한걸음한걸음 무너뜨리면서 이 과정을 촉진시키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10월혁명은 제국주의를 뒤흔들어놓았을 뿐만아니라 최초의 무산계급독재파는 세계혁명운동의 강력하고 공공연한 기지를 구축하여놓았다. 세계혁명운동은 이전에는 이러한 기지를 한번도 가져본 일이 없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에 의거하여 나아갈수 있게 되였다. 10월혁명은 세계혁명운동의 강력하고 공공연한 중심을 마련하여놓았다. 세계혁명운동은 이전에는 이러한 중심을 한번도 가져본 일이 없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 주위에 뭉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 세계 무산자와 피압박민족들의 혁명적통일전선을 조직할수 있게 되였다.

첫째로, 이것은 10월혁명이 세계자본주의에다 회복할수 없는 치명적상처를 입혔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10월혁명전에 가지고있던 그러한 《균형》과 그러한 《안정》을 다시는 결코 회복하지 못할것이다.

자본주의는 부분적으로는 안정될수 있고 자기의 생산을 합리화할수도 있고 국가의 관리권을 파쇼주의에 내맡길수 있고 일시는 로동계급을 억압할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전에 자랑하던 그러한 《평온》과 그러한 《확신》, 그러한 《균형》과 그러한 《안정》을 다시는 결코 회복하지 못할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혁명의 불길이 혹은 제국주의의 중심에서 혹은 그 주변에서 반드시 타번지여 자본주의의 미봉책이 쓸모없게 되며 하루하루 자본주의의 붕괴를 앞당기게 하는 그런 정도에까지 이르렀기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유명한 우화에 있는것처럼 《꼬리를 빼내니 코가 빠져들어가고 코를

배내니 끄리가 빠져들어간다.》는 격이다.

둘째로, 이것은 10월혁명이 전 세계 피압박계급들의 력량과 역할, 용감성과 전투적각오를 일정한 높이에까지 제고시켰으며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전 세계의 피압박계급들을 **새로운** 중요한 요인으로 보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이미 세계의 근로대중을 암흑속에서 헤매는, 전망없는 《소경의 무리》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왜냐 하면 10월혁명은 그들에게 앞길을 밝혀주며 전망을 열어주는 등대를 세워주었기때문이다. 이전에는 피압박계급들의 숙망과 지향을 실지로 표명하며 실현할만한 **전 세계적인** 공공연한 무대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무대인 최초의 무산계급독재가 있게 되였다.

만일 이 무대가 파괴된다면 무제한하고 악랄한 반동의 암흑이 《선진국가들》의 사회정치적생활을 오랜 기간 뒤덮어버리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는것이다. 《볼쉐위크국가》가 존재한다는 단순한 이 사실만으로도 흉악한 반동세력을 구속하며 자기를 해방하기 위하여 싸우는 피압박계급들의 투쟁을 쉽게 하여준다는것은 부인할수 없다. 전 세계의 착취자들이 볼쉐위크들을 야수적으로 증오하는것도 사실 이것때문이다.

력사는 비록 새 기초우에서이기는 하지만 반복되고있다. 이전에, **봉건제도**가 멸망하던 시기에 《쟈끄뱅파》148라는 말이 전 세계의 귀족들에게 공포와 증오를 자아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본주의**가 멸망하는 시기에 《볼쉐위크》라는 말은 전 세계의 자산계급들에게 공포와 증오를 자아내고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전에 빠리가 신흥**자산계급**의 혁명적대표자들의 피난처이며 학교였던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모스크바는 신흥**무산계급**의 혁명적대표자들의 피난처로, 학교로 되고있다. 쟈끄뱅파에 대한 증오는 봉건제도를 파멸에서 구출하지 못하였다. 볼쉐위크들에 대한 증오가 자본주의를 불가피적인 파멸에서

구출하지 못하리라는것을 의심할수 있겠는가?

자본주의의 《안정》의 시대는 자산계급제도가 확고부동하다는 전설과 함께 지나갔다.

자본주의의 붕궤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4) 10월혁명을 다만 경제적 및 사회정치적 관계의 령역에서의 혁명으로만 간주하여서는 안된다. 10월혁명은 동시에 정신상의 혁명, 로동계급의 사상상의 혁명인것이다. 10월혁명은 맑스주의의 기치밑에서, 무산계급독재사상의 기치밑에서, 제국주의 및 무산계급혁명 시대의 맑스주의인 레닌주의의 기치밑에서 탄생하였고 견고하여졌다. 그러므로 10월혁명은 개량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의 승리를,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레닌주의의 승리를, 제2국제당에 대한 제3국제당의 승리를 의미하는것이다.

10월혁명은 맑스주의와 사회민주주의사이에, 레닌주의의 정책과 사회민주주의의 정책사이에 넘을수 없는 심연을 파놓았다.

이전에는, 무산계급독재가 승리하기까지는 사회민주당은 무산계급독재의 사상을 공공연하게는 부정하지 않으나 이 사상의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맑스주의의 기발을 가지고 모양을 낼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이러한 행동은 자본주의에 대하여 아무런 위협으로도 되지 않았다는것은 명백하다. 당시 그 시기에는 사회민주당은 형식상으로는 맑스주의와 합류하였거나 혹은 거의 합류하였었다.

지금, 무산계급독재가 승리하고 또 맑스주의가 무엇을 가져오며 그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누구나 다 목격하게 된 지금에 있어서는 사회민주당은 더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맑스주의기발을 가지

고 모양을 내지 못하게 되였으며 무산계급독재사상에 추파를 보내지 못하게 되였다. 사회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맑스주의의 정신과 인연을 끊은 이상 할수없이 맑스주의기발과도 인연을 끊게 되였고 맑스주의의 산아를 반대하여, 10월혁명을 반대하여, 세계 최초의 무산계급독재를 공공연하게 반대하여나서게 되였다.

지금에 와서 그들은 맑스주의와 반드시 계선을 그어야 했고 또 사실상 그어놓았다. 왜냐 하면 현재의 조건하에서는 세계 최초의 무산계급독재를 공공연히 성심으로 지지하지 않고서는, 자국의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자국내에 무산계급독재의 승리의 조건들을 만들어놓지 않고서는 자신을 맑스주의자라고 칭할수 없기때문이다.

사회민주당과 맑스주의사이에는 심연이 가로놓여있다. 이제부터는 맑스주의의 **유일한** 대표자 및 성새로 되는것은 레닌주의이며 공산주의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0월혁명은 사회민주당과 맑스주의와의 사이에 계선을 그어놓았을뿐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민주당으로 하여금 세계 최초의 무산계급독재를 **반대하는** 자본주의의 공공연한 옹호자들의 진영에 넘어가게 하였다. 아들레르일당, 바우에르일당, 웰스일당, 레위일당, 롱게일당, 블륌일당과 같은 신사제씨들이 《쏘베트제도》를 비방하고 의회제의 《민주주의》를 찬양한것은 그들이 쏘련에 자본주의제도를 복구시키기 **위하여** 또 《문명》국가들에 자본주의적노예제도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또 투쟁할것이라는것을 그것으로써 말하려는것이다.

지금의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사상적기둥**이다. 지금의 사회민주주의정치가들은 《**로동**운동**내부**에 있어서의 **자산계급**의 진정한 **대리인**이며 로동자속에서의 자본가계급의 사환

군》이며 《무산계급과의 국내전쟁》에 있어서 《〈꼼뮨성원들〉을 반대하여 〈베르싸이유파〉의 편에》 불가피적으로 서리라고① 레닌이 말한것은 매우 옳은것이였다.

로동운동내의 사회민주주의를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자본주의를 없애버릴수 없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사멸의 시대는 동시에 로동운동내의 사회민주주의의 사멸의 시대인것이다.

10월혁명의 위대한 의의의 하나는 그것이 세계로동운동내의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레닌주의의 불가피적승리를 의미한다는 그 점에 있다.

로동운동내에서 제2국제당파 사회민주주의가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

레닌주의와 제3국제당이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1927년 11월 6~7일부 《쁘라우다》 제255호에 게재

서명: 이.쓰딸린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0권, 203~212페지

①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737페지를 참조하라.—편집자

주 해

1 토지및자유그루빠는 1876년에 뻬쩨르부르그에서 창립된 비밀적인 민파조직으로서 최초에는 북방혁명적인민주의그루빠라고 부르다가 1878년에 토지및자유그루빠라고 고치였다. 아.데.미하일로브, 게.웨.쁠레하노브, 에스.엠.크랍친스끼, 오.웨.아프트크만 등을 주요성원으로 한 이 그루빠는 잘 째여진 조직과 엄격한 규률을 가지고있었으며 폭력으로 짜리정권을 전복하고 토지와 자유를 획득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그루빠는, 로씨야는 농촌공동체를 토대로 하여 비자본주의적인 특수한 길을 걸을수 있으며 로씨야혁명에 있어서 주력은 로동계급이 아니라 농민이므로 농민에만 의거하여 짜리정권을 전복할수 있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이 그루빠의 부분적성원들은 농민들이 저들의 주장을 알아주지 못하여 저들을 따르지 않으며 당국이 혁명자들을 심히 박해하는 형편에서 암살수단으로 짜리정권과 투쟁할것을 주장하였다. 이때문에 토지및자유그루빠는 두개 파로 갈라졌으며 한 파(아.이.젤랴보브 등.)는 테로수단을 주장하고 다른 한 파(쁠레하노브를 비롯한)는 계속 원 전술을 쓸것을 주장하였다. 이 두 파는 1879년에 인민의지당, 로지재분배주의그루빠로 분렬되였다. —3페지

2 인민의지당은 19세기 80년대초기 로씨야의 혁명적인민파조직으로써 토지및자유그루빠가 분렬된후 1879년 8월에 창립되였으며 주요한 지도자들로는 아.이.젤랴보브, 아.데.미하일로브, 아.아.크뱌트꼽스끼, 에스.엘.뻬롭스까야 등이였다. 인민의지주의자들은 전제제도와의 정치적투쟁을 주장하였으며 헌법제정회의의 소집, 일반선거권의 실시, 상설적인 인민대표기관의 설치, 언론, 신앙, 출판 및 집회의 자유, 농촌공동체의 자치, 그리고 인민에게 토지를

주며 피압박민족에게 자결권을 주며 인민의 무력으로 상비군을 대체할것 등 광범한 민주주의적개혁을 요구하는 강령을 가지고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의연히 로씨야는 비자본주의길을 걸을수 있으며 농민혁명을 거쳐 사회주의로 나갈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인민파의 기본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공상적사회주의자들이였다. 인민의지주의자들은 《영웅》과 《몽매한 배성》이란 오유적인 리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짜리정부의 개별적인 대표인물들에 대한 암살을 짜리전제제도를 뒤집어엎는 주요한 방법으로 삼았다. 그들은 1881년 3월 1일에 짜리 알렉싼드르2세를 쩔러죽였다. 그후 얼마 안되여 인민의지당은 짜리정부의 탄압을 받아 해체되게 되였다. —3페지

3 에.베른슈타인의 이 수정주의적공식은 일찍 1898년 1월에 발표한 그의 저서 《붕궤론 및 식민정책》에서 정식화하였다. —6페지

4 《로동자사상》(《*Рабочая Мысль*》)은 로씨야경제파의 기관지로서 웨.베.이완쉰, 까.엠.따호따료브 등에 의하여 편집되였다. 이 신문은 1897년 10월~1902년 12월까지 선후로 뻬쩨르부르그, 베를린, 와르샤와, 제네바에서 발간되였는데 도합 16호가 나왔다. 레닌은 《무엇을 할것인가?》 등 저서에서 신문 《로동자사상》의 견해를 로씨야에서의 국제기회주의의 변종이라고 지적하였다. —6페지

5 로씨야짜리정부가 1897년 6월 2일(신력 14일)에 발표한 공장의 로동일을 단축할데 관한 법령을 두고 말한다. 이 법령은 1895~1896년에 뻬쩨르부르그로동자대중이 일으킨 파업운동의 압력하에 제정된것이다. 이 법령은 공업기업소 및 철도공장의 로동시간을 낮로동은 11시간 반, 밤로동은 10시간(이전에는 로동시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어떤 때는 지어 14~16시간에 달하였다.)으로 규정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1년의 휴가일을 66일(습관적인 휴가일보다 4분의 1이 줄어들었다.)로 규정하였다. —7페지

6 로씨야짜리정부가 1899년 7월 29일(신력 8월 10일)에 비준한 《무리를 지어 사단을 일으킨데서 퇴학처분을 받은 대학생들을 징병할데 대한 잠정조례》를 두고 말한다. 이 조례에는 집단행동으로 대

학교에 대한 경찰제도를 반대한 학생은 일률로 퇴학처분을 주는 동시에 1~3년간 현역에 복무시킨다고 규정되여있다. — 13페지

7 퓌로스는 고대희랍 이피루스왕인데 기원전 280년에 이딸리아에 들어가 로마와 진행한 전투에서 두번이나 승리를 거두었지만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이런 승리를 한번만 더 거두었다가는 나를 따라 이피루스로 돌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겠다.》고 하였다. 《퓌로스식승리》는 대가가 너무 커서 리득이 없다는 뜻이다. — 16페지

8 교권주의는 반동적정치사조의 일종으로서 종교의 신학리론을 토대로 하여 교회가 사회의 정치 및 문화 생활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4페지

9 《이스크라》(《*Искра*》)는 레닌에 의하여 창간된 최초의 전 로씨야 적맑스주의적비합법적신문이다. 창간호는 1900년 12월에 라이프찌히에서 발간되였으며 그후의 호는 뮨헨, 런던에서, 그리고 1903년 봄부터는 제네바에서 발간되였다. 《이스크라》편집부에는 레닌, 게.웨.쁠레하노브, 엘.마르또브, 아.엔.뽀뜨레쏘브, 베.베.악셀로드, 웨.이.자쑬리치 등이 들어있었다. 1901년 4월부터 엔.까.크룹스까야가 편집부의 비서로 있었다. 레닌은 실지에 있어서《이스크라》의 주필이였으며 지도자였다. 1900~1903년까지 레닌은《이스크라》에 50여편의 론문을 발표하여 당의 건설 및 로씨야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의 기본문제를 론술함과 동시에 국제상의 중대한 사건들을 론평하였다. 신문《이스크라》는 국외로부터 비밀리에 반입되여 로씨야에 살포되였으며 부분적 호들은 국내에서 비밀리에 재인쇄되였다. 《이스크라》는 국내에 대리발행망을 가지고있었는데 그 대리발행인들은《이스크라》의 사상을 전파하는 동시에 이스크라파를 조직하였다. 신문《이스크라》는 로씨야로동계급이 혁명적 맑스주의당을 창건하는 면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당의 중앙기관지로 인정되였다.《이스크라》는 1903년 10월에 제51호를 낸후부터 쁠레하노브가 지지하는 일부 멘쉐위크분자들 손에 넘어갔다. 그리하여 레닌은 1903년

11월 1일에 편집부에서 퇴출하였다. 《이스크라》는 제52호부터 멘쉐위크의 기관지로 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제51호이전의 《이스크라》를 구《이스크라》라고 부르고 그이후의것을 신《이스크라》라고 부르게 되였다. —25, 32, 127, 224, 326, 634페지

10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는 1903년 7월 17일～8월 10일(신력 7월 30일～8월 23일)에 선후로 브류쎌과 런던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의 주요한 과업은 《이스크라》가 제기한 사상 및 조직적 원칙에 립각하여 진정한 당을 창건하는것이였다. 레닌이 대회에서 진행한, 로씨야에 혁명적무산계급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은 승리하였다. 레닌은 당강령에 대한 토의에서 무산계급독재와 관련한 맑스주의의 기본원칙을 당강령에 구현할것을 단호히 주장하였으며 농민혁명투쟁의 중대한 의의를 지적하고 민족자결권을 당강령에 체현시킬것을 주장함으로써 무산계급국제주의원칙을 수호하였다. 대회는 《이스크라》가 제기한 로동계급당의 혁명적강령을 채택하였다. 당규약, 특히는 당원의 자격에 관한 제1조를 토의할 때 레닌과 그의 지지자들은 엘.마르또브 등과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대회는 레닌이 작성한 당규약을 채택하였으나 규약의 제1조만은 1표 기권, 28표대22표의 다수로 마르또브의 조목을 채택하였다. 중앙기관을 선거할 때는 레닌의 지지자들이 다수표를 얻고 레닌의 반대자들은 소수표를 얻었다. 이때로부터 전자를 볼쉐위크, 후자를 멘쉐위크라고 부르게 되였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 대해서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력사간략독본》 1978년 민족출판사, 조선문판, 57～64페지를 참조하라. —29, 31, 99. 634페지

11 《당내의견상이에 대하여 간단히 론함》이란 소책자는 쓰딸린이 1905년 4월말에 집필한것이다. 이 소책자는 그루지야의 멘쉐위크지도자 엔.엔.죠르다니야의 론문들(《사회민주주의자》지에 발표된 《다수파냐 소수파냐?》와 잡지 《려행자》에 발표된 《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였다. 《당내의견상이에 대하여 간단히 론함》이 발표되자 볼쉐위크국외중앙부에서는 인차 이 사실을 알게 되였다. 1905년 7월 18일 국외중앙부 비서인 엔.까.크룹스까야는 로씨야사

회민주로동당 깝까즈동맹위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소책자를 국외에 보내줄것을 요구했다. 이 소책자는 남깝까즈불쉐위크단체들에 널리 보급되였다. 이 소책자에 의하여 선진로동자들은 당내 의견상이를 알게 되였으며 메닌과 불쉐위크들의 립장을 알게 되였다. 소책자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깝까즈동맹의 비밀인쇄소(아블라바르인쇄소)에서 1905년 5월에 그루지야문으로 인쇄발행되였으며 6월에 로씨야문과 아르메니야문으로 각각 1,500～2,000부씩 발행되였다. — 31페지

12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1차대회는 1898년 3월 1～3일(신력 13～15일)까지 민스크에서 비밀리에 열리였다. 이 대회에는 6개 조직의 9명의 대표(뻬쩨르부르그, 모스크바, 끼예브, 예까쩨리노슬라브의 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의 대표 각각 1명, 끼예브의 《로동자신문》소조의 대표 2명과 분드의 대표 3명)가 참석하였다. 메닌은 당시 씨비리에서 류형살이를 하고있었기때문에 이번 대회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대회는 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으며 《로동자신문》을 당의 공식적기관지로 비준하였다. 중앙위원회는 대회의 명의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선언》을 발표하였고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성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는 당강령과 당규약도 제정되지 못하였고 통일된 중앙지도부도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각 맑스주의 소조와 조직들은 거의 아무런 련계도 없었기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맑스주의적사회민주당이 건립되지 못하였다. 대회가 폐막된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위원회성원들이 체포되였으므로 중앙위원회는 사업을 진행할수 없었다. — 32페지

13 《사회민주주의자》지는 깝까즈멘쉐위크들의 비합법적신문으로서 그루지야멘쉐위크지도자 엔.엔.죠르다니야가 지도하였고 그루지야문으로 쩌플리스에서 1905년 4월 20일～11월 26일까지 모두 6호를 발행하였다. 《사회민주주의자》 창간호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쩌플리스위원회의 기관지》로 발행되였다가 그후에는 《깝까즈사회민주주의로동자단체기관지》라고 자칭하였다. — 34페지

14 《로동자사업》(《*Рабочее Дело*》)은 재외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동

벵의 비정기적인 기관지였다. 주요편집자는 경제주의자의 유명한 지도자 웨.뻬.이완쉰, 베.엔.크리첸스끼, 아.에스.마르띄노브 등이였다. 잡지는 1899년 4월～1902년 2월 제네바에서 모두 12호(9책)를 발행하였다. — 34페지

15 《신시대》(《*Die Neue Zeit*》)는 독일사회민주당의 리론잡지로서 1883～1923년 슈루트가르트에서 발간되였다. 1890년 10월전까지는 월간으로, 그후에는 주간으로 발간되였다. 1917년 10월까지는 카. 카우쯔키가 잡지의 편집이였으며 후에는 하.쿠노브가 편집하였다. 1885～1894년사이에 이 잡지에는 맑스의 《고타강령비판》과 엥겔스의 많은 론문들이 실렸다. 엥겔스는 늘 편집부를 관심하고 많은 유익한 충고를 주었을뿐만아니라 또 맑스주의적견해에 대한 편집부의 배신적행위를 무시로 비판하였다. 1895년 엥겔스가 서거한후 이 잡지는 수정주의자들의 글을 체계적으로 싣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기간에 이 잡지는 중간파적립장을 취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사회배외주의자들을 지지하여나섰다. — 42페지

16 《려행자》는 력사-고고학 및 지리-민속학적 잡지로서 1901～1905년 11월까지 찌플리스에서 그루지야문으로 발간되였다. 1905년 1월부터 《려행자》는 그루지야사회민주주의자들의 문예-정치적주간잡지로 되여 에프.마하라제의 편집하에서 발간되였다. 《려행자》에는 볼쉐위크들의 론문과 아울러 멘쉐위크들의 론문들도 실렸다.— 45페지

17 하인펠드강령은 1888년 하인펠드시에서 소집되였던 오지리사회민주당창립대회에서 채택된것이다. 이 강령은 그 원칙적인 부분에서 사회발전행정과 무산계급 및 무산계급당의 과업을 옳게 반영한 제 규정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후 1901년에 소집되였던 원대회에서 하인펠드강령은 수정주의적원칙을 내용으로 한 새 강령으로 바뀌여졌다. —55페지

18 《서광》(《*Заря*》)은 레닌이 창설한 로씨야맑스주의적과학-정치잡지로서 《이스크라》와 동일한 편집부에서 편집되였다. 1901～1902

년에 슈투트가르트에서 공개출판되였는데 모두 4호(제2, 3호는 합본호)가 나왔다. — 64페지

19 **당총무위원회**는 1903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채택된 규약에 의하여 건립된 전당의 최고기관이다. 당총무위원회의 기본과업은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부의 활동을 조절하고 통일시키는것이였다. 당총무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였는데 중앙기관지 편집부 대표 2명(레닌, 엘.에.갈리뻬린), 중앙위원회 2명(에프.웨.렌그니크, 베.아.노스꼬브)과 제2차당대회에서 선출한 위원 1명(게.웨.쁠레하노브)이였다. 쁠레하노브가 당총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였다. 당총무위원회는 대회후의 한시기동안은 정확한 볼쉐위크적립장을 견지하였으나 쁠레하노브가 기회주의로 전락하고 멘쉐위크가 중앙기관지에서 우세를 차지하게 되자 멘쉐위크들이 볼쉐위크를 반대하는 도구로 되고말았다. 1905년에 열린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는 단일한 중앙지도부인 당중앙위원회를 창설하고 당총무위원회를 취소하였다. — 66페지

20 **《사회민주주의자의 일지》**(*《Дневник Социал-Демократа》*)는 게.웨.쁠레하노브가 1905년 3월～1912년 4월에 제네바에서 발간한 비정기간행물이였는데 모두 16호가 발간되였다. 1916년에 《일지》는 뻬뜨로그라드에서 복간되였으나 한호밖에 나오지 못하였다. — 68페지

21 **《맑스주의와 민족문제》**는 1912년말～1913년초에 윈에서 집필되여 《민족문제와 사회민주당》이라는 제목하에 《계몽》잡지 1913년 제3～5호에 까.쓰딸린이라는 서명으로 처음 게재되였다. 1914년에 이 론문은 《민족문제와 맑스주의》라는 제목하에 파도출판사(뻬쩨르부르그)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짜리정부 내무대신의 지령에 의하여 이 로작은 모든 공중도서관 및 공중독서실에서 금지서적으로 취급되였다. 1920년에 이 로작은 민족사무인민위원부에서 민족문제에 관한 쓰딸린의 《론문집》(뜰라국가도서출판사판)에 수록되여 재판되였다. 1934년에 이 론문은 쓰딸린의 론문 및 연설선집 《맑스주의와 민족식민지문제》에 수록되였다. 쓰딸린의 이 로작이

출판되자 레닌은 이 로작을 아주 높이 평가하였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민족강령에 대하여》라는 론문에서 레닌은 그 당시 민족문제가 뚜렷이 나서게 된 원인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맑스주의의 리론적문헌들에서는 이 사태와 사회민주당의 민족강령의 제 원칙이 최근에 이미 해명되였다.(여기서는 우선 쓰딸린의 론문을 들수 있다.)》(《레닌전집》, 한문판, 제19권, 542페지) 일부 사람들이 이 로작을 토론용으로 취급할것을 제의하자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물론 우리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론문은 아주 훌륭합니다. 이것은 당면한 중요문제이며 우리들은 분드도당을 반대하는 원칙적립장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을것입니다.》(《레닌전집》, 한문판, 제35권, 73페지)— 74페지

22 **시온주의** 즉 유태복국주의는 19세기말에 형성되였다. 시온주의는 세계 각 지방에 산재해있는 유태인들은 민족적리해관계가 일치한 전일적유태민족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각 곳에 있는 유태인들에게 팔레스티나에 돌아와 자기 나라를 다시 세울것을 호소하였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산의 이름으로서 고대유태인들은 그곳을 자기들의 정치 및 종교의 중심으로 삼았다. 시온주의라는 말도 여기에서 유래한것이다. 로씨야에서 시온주의는 유태인자산계급지식인 및 일부 락후한 유태인로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1904년에 건립된 로씨야시온주의사회로동당은 자기 령토를 되찾고 자기 민족의 국가를 창립하는것을 유태인무산계급의 주요과업으로 내세웠다. 시온주의사회로동당은 유태인자산계급과의 계급적합작을 선동하고 각 민족 로동자들사이에 적대적분위기를 조성시키면서 유태인로동자대중을 로씨야무산계급혁명운동 및 국제무산계급혁명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시온주의사회당원들의 민족주의적 활동은 유태인로동자들의 계급적의식을 흐리게 하였고 로씨야로동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 — 75페지

23 **범이슬람주의**는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민족은 하나의 전일체로 련합할것을 설교하는 종교적정치적사상이다. 이 사상은 19세기말에 동방 각국의 지배계급가운데서 널리 파급되였다. 토이기는 전 세계

의 회교도들을 토이기의 술탄이라는 이 《전체 무슬림의 할리파》에 복종시키려는 목적으로 범이슬람주의를 리용하였다. 레닌은, 범이슬람주의는 구라파-아메리카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해방운동을 칸, 지주, 마울라 등의 지위를 강화하는데 리용하려고 시도한 파벌이라고 지적하였다.(《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4권, 275페지)— 75페지

24 분드(이디쉬어 《Bund》의 음역으로서 동맹이란 뜻이다.)는 리뜨와, 뽈스까 및 로씨야의 유태인로동자총동맹의 략칭이다. 1897년에 건립된 분드는 주로 로씨야서부 각 성의 유태인수공업자들로 이루어졌다. 분드는 1898년 3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1차대회에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하였다.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분드파들은 분드를 유태인무산계급의 유일한 대표조직으로 시인할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가 대회에서 부결되자 분드는 당에서 탈퇴하였다. 1906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4차(합동)대회에서 분드는 다시 이 당에 가입하였다. 형식적으로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하였지만 분드는 사실상 자산계급민족주의적성격을 띤 조직이였다. 당내에서 분드는 줄곧 멘쉐위크를 지지하고 볼쉐위크를 반대하였다. 분드는 민족문화자치의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그것을 볼쉐위크의 강령성적요구인 민족자결권에 대립시켰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분드파는 사회배외주의립장을 취하였다. 1917년 2월혁명후 분드파는 자산계급림시정부를 지지하였다. 외래무력간섭과 국내전쟁시기였던 1918～1920년에 분드파 지도층은 반혁명세력과 결탁하였으나 그의 일반성원들은 쏘베트정권과의 합작을 주장하는데로 전화하였다. 분드는 1921년 3월에 저절로 해산되였고 그 일부 성원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에 가담하였다. — 75페지

25 취소파대표자회의(8월대표자회의)는 1912년 8월 12～20일(신력 8월 25일～9월 2일)에 윈에서 진행되였다. 엘.데.뜨로쯔끼는 이 회의에서 반당적인 8월련맹을 조직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분드, 라뜨비야변강지구사회민주당, 깝까즈구역위원회의 대표자들과 국외에

망명하고있는《사회민주주의자호성》지 편집부, 윈에서 발간된 뜨로쯔끼파의 신문《쁘라우다》및 취진집단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로씨야국내에서는 뻬쩨르부르그의《중앙동원소조》및 쥐소파의 잡지《우리의 서광》편집부와 신문《네바의 목소리》편집부들에서 각각 대표자를 파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로씨야로동계급 및 지방당단체와 전혀 련계가 없는 국외망명자들이 압도적다수를 차지하였다. 회의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일련의 강령성적요구를 다시 수정하였고 지하당조직의 존재를 반대하였다. — 76페지

26 그루지야에서 농노제를 폐지한 농민개혁이진시기를 가리킨다. 그루지야 각 지방들에서 농노제를 폐지한 시간은 각기 다르다. 쭈찌플리스성에서는 1864년에, 이메레찌야와 구리야에서는 1865년에, 메그렐리야와 레기홈현에서는 1866년에, 아브하즈에서는 1870년에, 스와네찌야에서는 1871년에 폐지되였다. —79페지

27 유심론자는 정신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관념론학설을 숭상하는자를 이다. 유심론자들은 오로지 령혼, 정신만이 실존하는 물체이며 육체는 령혼의 산물이라고 믿고있다. — 84페지

28 끌어들이고 내보내지 말라는 말은 짜리로씨야시대의 경찰들의 횡포무도함을 야유한 성구로서 게.이.우스뻰스끼의 단편소설《보초막》에서 나온 말이다. 소설에 나오는 경찰 메물레쪼브는 직권을 람용하여 걸핏하면 잡아들이나 석방하지 않는 인물로 묘사되여있다. — 89페지

29 오지리사회민주당브륜대회는 1899년 9월 24～29일에 소집되였다. 대회가 채택한 민족문제에 관한 결의문을 쓰딸린은 본 론문 제4장에 인용하고있다.(이 책, 105페지를 보라.)—98페지

30 《다행히도 의회가 없다.》—이 말은 짜리정부의 재정대신 웨.엔.꼬꼽쩨브가 1908년 4월 24일 국회에서 한 말이다. —102페지

31 샤흐쎄이-와흐쎄이명절은 이슬람교쉬아파신자들의 축제일이다. 이슬람교력사상 제4대 할리파이며 시에파의 초대 이맘인 알리의 아들 후싸인은 기원 680년에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후 해마다 그

의 제사날에는 쉬아파교도들이 모여 여러가지 형식으로 애도의식을 거행하였다. 그들이 후싸인의 장례를 모방하는 행진을 할 때는 《샤호, 후싸인! 와호, 후싸인!》(《왕이여, 후싸인! 아, 후싸인!》이라는 뜻이며 《샤호쎄이-와호쎄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 하고 웨치면서 허사슬로 자기 몸을 후려치거나 지어 칼파 검으로 자기를 찌르는것으로 수난자에 대한 동정을 표시하였다. 샤호쎄이-와호쎄이명절은 흔히 종교적열광성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리용되였다. — 114페지

32 오지리사회민주당뮌대회 또는 윔베르그대회는 1897년 6월 6~12일에 윈에 있는 윔베르그려관에서 진행되였다. — 115페지

33 게.웨.쁠레하노브는 1912년 10월 2일(신력 15일)부 신문 《당을 위하여》 제3호에 발표한 론문 《또 하나의 분렬적대표자회의》에서 취소파의 8월대표자회의를 비난하면서 분드파와 깝까즈사회민주당원들은 사회주의를 민족주의에 양보하게 하는 립장에 서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분드파의 수령 울.쁘쏩스끼는 취소파의 잡지 《우리의 서광》 편집부에 《용서못할 역선동행위》라고 제목한 편지를 보내여 쁠레하노브를 공격하였다. — 125페지

34 《우리의 서광》(《*Наша Заря*》)은 멘쉐위크취소파의 공개적월간잡지로서 1910년 1월~1914년 9월에 뻬쩨르부르그에서 발간되였다. 아.엔.뽀뜨레쏘브를 지도자로 한 이 잡지에는 에프.이.단, 에스.오.쩨제르바움(웨.예죠브) 등이 기고하였다. 로씨야취소파들은 《우리의 서광》잡지주위에 뭉쳐 하나의 중심을 이루고있었다. — 125페지

35 마닐로브는 고뿔리의 소설 《죽은 넋》에 나오는 인물로서 작품에서는 무위도식하고 허황한 공상을 즐기며 아부굴종하는 위선자적인 지주로 묘사되여있다. 마닐로브정신이란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리켜 말한다. —127, 335페지

36 《우리의 언론》(《*Наше Слово*》)은 분드파의 공개적주간잡지로서 1906년에 윌나에서 창간되여 도합 9호가 발간되였다. — 127페지

37 국제탐러터대회 즉 제2국제당 제4차대회는 1896년 7월 27일～8월 1일에 소집되였다. 대회에서는 로동계급의 정치활동문제, 전쟁문제, 토지문제 및 민족문제 등이 로의되였다. — 128페지

38 《우리의 생활》지는 그루지야멘쉐위크들의 일간신문으로서 1912년 7월 1～22일에 꾸따이스에서 그루지야문자로 발간되였다. — 131페지

39 헤로스트라트는 기원전 4세기때의 희랍사람이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후세에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세계 7대기적의 하나인 아이피소스에 있는 알레미스신전을 불살라버렸다고 한다. 그후 《헤로스트라트》라는 말은 자기 영예를 위하여 불법행위를 감행하는자들의 별칭으로 되였다. — 136페지

40 쿠푸금자탑은 애급의 가장 큰 금자탑으로서 고대애급 제4왕조의 파라오 쿠푸(기원전 27세기에 재위하였음.)의 릉묘이다. 높이 146.5메터, 밑변 각각 약 230메터이며 평균 2.5톤의 거석 200여만개를 접착제없이 쌓아올린 이 석조건물은 까히라부근의 기자에 위치하고있다. — 140페지

41 스톡홀름대회 즉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4차(《합동》)대회는 1906년 4월 10～25일(신력 4월 23일～5월 8일)에 소집되였다. 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문제 즉 토지강령문제, 당면정세와 무산계급의 과업에 대한 평가, 국회에 대한 태도, 무장봉기문제 등이 로의되였다.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볼쉐위크와 멘쉐위크사이에는 치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레닌은 상술한 기본문제들에 관하여 보고와 로론을 하였으며 당규약작성위원회의 사업에도 직접 참가하였다. 쓰딸린은 이와노위치라고 이름을 바꾸고 찌플리스볼쉐위크조직을 대표하여 대회에 출석하였다. 그는 토지강령, 당면정세에 대한 평가 및 국회 등 문제에 대한 대회변론에서 여러차례 연설하였으며 성명을 발표하여 국회문제 및 분드파와의 협약문제에서 남캅까즈멘쉐위크들이 취한 기회주의적술책을 사실로써 폭로하였다. 볼쉐위크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던 공업지구당조직들이 1905년 12월 봉기에서와 그후에 심대한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번 대회에서는 멘

멘쉐위크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발미암아 대회는 일련의 문제들에서 멘쉐위크적성격을 띤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멘쉐위크들은 레닌이 작성한 당원자격에 관한 당규약 제1조를 부득불 접수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리하여 마르또브의 기회주의적조항은 부정되였다.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회는 멘쉐위크들이 다수를 점하였고 중앙기관지 편집부의 성원은 모두 멘쉐위크들이였다. 레닌과 쓰딸린의 이번 대회사업에 대한 분석은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합동대회에 관한 보고》(《레닌전집》, 한문판, 제10권, 286～351페지)와 《현정세와 로동당합동대회》(《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권, 231～253페지)를 보라. —141, 228, 720페지

42 1912년 10월 9일에 발발된 제1차발칸전쟁을 두고 말한다. 벌가리아, 쎄르비야, 희랍, 몬테네그로로 결성된 발칸동맹을 일방으로 하고 토이기를 타방으로 하는 이 전쟁은 결국 토이기의 패배로 끝났다, 1913년 5월 30일에 체결된 런던강화조약에 의하여 마케도니아 등 지역이 토이기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였다. — 144페지

43 전일적민족조직에 관한 문제는 1907년 11월 5～12일(신력 18～25일)에 소집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4차대표자회의(《제3차 전로씨야대표자회의》)와 1908년 12월 21～27일(신력 1909년 1월 3～9일)에 소집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5차대표자회의(《1908년 전로씨야대표자회의》)의 결의들에 규정되여있다.(《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정서집》, 1964년 인민출판사판, 제1분책, 232～233페지와 256～257페지를 보라.)—149페지

44 야겔로사건은 1912년에 발생하였다. 에.이.야겔로는 뻘스까사회당의 당원으로서 뻘스까사회민주당원들을 반대하여 분드파와 뻘스까사회당 및 자산계급민족주의자들로 결성된 동맹에 의하여 와르샤와에서 제4기국회의 대의원으로 피선되였다. 국회의 사회민주당 대의원단은 볼쉐위크 6표에 대한 멘쉐위크 7표의 다수로 결의를 채택하여 야겔로를 사회민주당 대의원단의 성원으로 받아들였다. —150페지

45 《불화의 사과》란 희랍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네 세 녀신이 금사과 하나를 가지고있었는데 목동 파리스를 보고 세 녀신가운데서 제일 고운 녀신이 그 사과를 가지게 하라고 하였다. 목동은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늘 불화가 생기게 되였으며 트로야전쟁도 이때문에 일어나게 되였다고 한다. —162페지

46 1918년 11월에 모스크바에서 소집된 무슬림-공산주의자들의 제1차 대회를 가리킨다. 대회는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무슬림민족공산당조직의 중앙위원회 상설국을 선거하였다. —164페지

47 **런던대회** 즉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5차대회는 1907년 4월 30일~5월 19일(신력 5월 13일~6월 1일)에 진행되였다. 대회의 의정에는 중앙위원회의 사업보고, 국회의원단의 사업보고와 국회의원단의 조직, 자산계급당에 대한 태도, 국회, 로동자대회 및 비당적 로동자단체, 직업동맹 및 당, 유격활동, 실업, 경제공황 및 동맹휴업, 조직문제, 국제공산당 슈루트가르트대회, 군대내에서의 사업 등이 들어있었다. 볼쉐위크는 대회에서 뿔스까대표와 라뜨비야대표의 지지가 있었기때문에 충분한 다수를 차지하였다. 몇가지 가장 중요한 원칙적문제에서 볼쉐위크의 결의안이 채택되였다. 쓰딸린은 찌플리스단체를 대표하여 대회에 참석하였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5차대회에 대해서는 레닌의 저서 《자산계급정당에 지대한 태도》(《레닌전집》, 한문판, 제12권, 476~496페지)와 쓰딸린의 저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런던대회(한 대표의 수기)》(《쓰딸린전집》, 한문판, 제2권, 49~75페지)를 참조하라. — 165, 229페지

48 19세기 90년대에 맑스주의가 로씨야에서 급속히 보급되자 일부 자산계급지식인들은 맑스주의의 탈을 쓰고 합법적인 즉 짜리정부가 그 출판을 허락하는 간행물에 글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합법적맑스주의분자**라고 불리우게 되였다. 합법적맑스주의분자들은 자산계급개량주의로써 맑스주의를 외곡하였다. 그들은 맑스주의기치를 리용하여 로동운동을 자산계급의 리익에 복종시키고 적응시키려 시도하였다. — 167페지

49 이 말은 탑스에게 보낸 에프. 라쌀의 1852년 6월 24일부 서한에 있는 말인데 레닌은《무엇을 할것인가?》란 저서의 제사에서 이 말을 인용하였다. — 169페지

50 독일의 구사회민주당이 분렬된후에 형성된 세개의 당, 즉 독일사회민주당, 독일독립사회민주당 및 독일공산당을 가리킨다.—169페지

51 **께렌스끼롬치시기의 7월위기**란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원들이 자산계급파 백위군 장교들과 련합하여 1917년 7월 3일(신력 16일)의 페뜨로그라드의 로동자, 병사들의 시위행진을 탄압함으로써 조성된 정세를 두고 말한다. 당시에 2중정권의 국면은 종식되고 정권은 완전히 반혁명적림시정부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볼쉐위크와 혁명세력은 공격과 탄압을 받았다. 《쁘라우다》지편집부는 파괴되였으며 볼쉐위크의 많은 신문들이 폐쇄되였다. 림시정부는 적위대의 무장을 해제하기 시작했으며 레닌에 대한 체포령을 내리고 볼쉐위크혁명활동가들을 박해하였다. 혁명의 평화적발전시기는 종식되였다. 지하로 들어간 볼쉐위크는 무장봉기를 준비하였다. — 170페지

52 **브레스트시기의 위기**란 1917년 12월～1918년 3월에 쏘베트로씨야가 독일, 오지리 등 나라와 브레스트-리똡스크에서 평화담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나타난 위험한 정세를 말한다. 그 당시 로씨야의 낡은 군대는 이미 와해되여 작전을 계속할수 없었으며 로농군대를 창건하기 위한 사업은 금방 시작되고있었다. 극도로 지친 인민들은 전쟁을 종식지울것을 갈망하고있었으며 기타 나라들에서는 아직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형편에서 전쟁을 계속한다면 제국주의에게 청소한 쏘베트공화국을 멸망시킬 유리한 조건을 주게 된다고 인정한 레닌은 어떤 가혹한 조건이라도 접수하고 즉시 강화조약을 체결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레닌의 이 방침은 당내에서 엔. 이. 부하린 등《좌익공산주의자》들과 엘. 데. 뜨로쯔끼의 반대를 받았다. 그들은 독일에 혁명적전쟁을 선언할것을 주장하거나《전쟁도, 강화도 하지 말것》을 주장하였다. 독일이 최후통첩을 내였을 때 쏘베트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인 뜨로쯔끼는 인민

위원회 주석 레닌의 지시를 어기고 강화조약체결을 거부하였으며 동시에 또 우리는 군대를 제대시키고있으며 건설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성명하였다. 이리하여 독일군대는 1918년 2월 18일에 전 전선에 걸친 진공을 발동하여 쏘베트국가의 많은 령토를 빼앗고 수도 뻬쯔로그라드에 박근하였다. 레닌은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궐기하라고 인민들에게 호소하였으며 청소한 혁명군대는 침입해온 독일강도들을 영용하게 물리쳤다. 이와 동시에 레닌은 부하린, 뜨로쯔끼 등 자들과 단호히 투쟁함과 동시에 당중앙위원회의 다수를 설복하여 결국 원래의 최후통첩보다 더욱 가혹한 조건을 접수하고 3월 3일에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번에 《당내에 〈좌익〉반대파들이 나타난탓으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이 겪게 된 엄중한 위기는 로씨야혁명이 겪은 가장 큰 위기의 하나다》. (《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3권, 462페지)—170, 209, 636페지

53 **불리긴국회**는 짜리정부가 1906년 1월중순경으로 소집한다고 선포한 자문성대의원기관이다. 자문성국회를 설립할데 관한 법안과 선거조례는 내무대신 아. 게. 불리긴에 의하여 작성되여 1905년 8월 6일(신력 19일)에 짜리의 선언과 함께 공포되였다. 볼쉐위크당은 불리긴국회를 적극 보이꼬트한다고 선언하였다. 불리긴국회는 끝내 소집되지 못하였다. — 172페지

54 **립헌민주당**(인민자유당이라고도 함.)은 로씨야의 자산계급적자유주의군주파의 주요한 당으로서 1905년 10월에 창립되였다. 지도자는 뻬. 엔. 밀류꼬브였다. 립헌민주당은 립헌민주제의 형태로써 짜리군주제를 유지하려고 시도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이 당은 짜리정부의 대외침략정책을 지지하였다. 1917년 2월혁명후 립헌민주주의자들은 자산계급림시정부에서 지도적지위에 있었다. 10월혁명이 승리한후 립헌민주주의자들은 반혁명적 음모와 폭동을 거듭 책동하였다. 무려간섭과 백파분자들이 격파당한후 립헌민주당의 대부분 상층인물들은 국외로 도주하여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 감행하였다. —172, 290, 378, 519, 681페지

55 헌법제정회의는 1917년 11~12월에 선거되여 1918년 1월 5일(신력 18일)에 뻬뜨로그라드에서 소집되였다.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하자는것은 짜리체제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널리 파급된 구호로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1903년의 강령에 이 요구가 들어있었다. 1917년 2월혁명후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혁명에로 나아가게 되였으나 볼쉐위크는 이 구호를 간단하게 포기하지 않았다. 자산계급림시정부는 겉으로는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하는것을 자신의 주요한 과업이라고 하였으나 실지로는 그것을 극력 지연시키면서 끝내 소집하지 않았다. 10월혁명후 인민위원회는 10월 27일(신력 11월 9일)에 헌법제정회의의 선거날자를 비준하였다. 헌법제정회의의 선거는 림시정부가 제정한 조례에 의해 진행되였는데 당시의 정치적력량대비를 옳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헌법제정회의의 반혁명적본질을 폭로하기 위하여 볼쉐위크당은 헌법제정회의를 그냥 열기로 하였다. 헌법제정회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사회혁명당과 멘쉐위크, 립헌민주주의자들은 회의에서 전로로동자병사대의원쏘베트 제2차대회에서 채택한 평화법령, 토지법령 및 정권을 쏘베트에 넘길데 대한 결의를 시인하지 않고 전로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내여놓은 《피착취근로인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을 토의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볼쉐위크의원단은 즉시 헌법제정회의에서 퇴출하고 좌익사회혁명당원들도 그뒤를 이어 퇴출하였다. 전로중앙집행위원회는 1918년 1월 6일(신력 19일)에 법령을 채택하여 헌법제정회의를 해산하였다. —172, 176, 384, 784페지

56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의 과업》은 레닌이 씨비리에서 류형생활을 하고있던 1897년말에 쓴것이다(《레닌선집》, 제1권, 129~156페지를 보라). 뻬. 악쎌로드의 서문이 달려있는 이 책 제1판은 1898년 제네바에서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동맹에 의해 출판되였다. — 174페지

57 전로볼쉐위크대표자회의 즉 탐메르포르스볼쉐위크대표자회의는 1905년 12월 12~17일(신력 25~30일)에 핀란드 탐메르포르스에서 진행되였다. 26개의 볼쉐위크조직의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하였

다. 레닌과 쓰딸린은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각 지방의 보고, 당면정세에 관한 보고, 중앙위원회의 조직보고,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두 부분의 통일문제, 당의 재조직문제, 토지문제, 국회문제 등이 회의의정에 들어있었다. 레닌은 회의에서 당면정세에 관한 보고와 토지문제에 관한 보고를 진술하였으며 위폐국회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연설을 하였다. 회의에서는 레닌이 제출한 토지문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당의 통일을 회복할데 관한 결의에는 평등원칙에 좇아 볼쉐위크와 멘쉐위크의 중앙 및 그 중앙기관지를 합병하며 통일적인 대회를 소집할것을 통일적인 중앙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되여있다. 회의에서는 레닌파 쓰딸린이 참여하여 작성한, 제1기국회를 보이꼬트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쓰딸린은 회의에서 남깝까즈 볼쉐위크조직에 관한 보고를 진술했으며 국회를 보이꼬트하는 전술을 적극 수호하였다. 모스크바에서 이미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후 회의는 대표들이 각지의 폭동에 참가하러 가도록 하기 위하여 레닌의 제의에 따라 즉시 폐회를 선언하였다. —175, 226페지

58 **위폐국회** 즉 까리정부대신회의 주석 에스. 유. 위폐가 조작해낸 제1기국회는 1906년 4월 27일(신력 5월 10일)에 개막되였다. 이 국회를 소집한것은 국회를 리용하여 혁명을 리탈하도록 대중을 유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05년 12월에 까리정부는 자문적 성격을 띤 불의긴국회와는 부동한 소위《립법》국회를 소집한다는 법령을 반포하였다. 그런데 위폐국회가 열리기 얼마전에 까리정부는 또《국가의 근본법》을 반포하였다. 이것은 위폐국회의 립법권의 폐기를 의미하는것이다. 위폐국회의 선거법은 반민주주의적인것으로서 반수이상의 주민들이 선거권을 박탈당하였다. 선거자들은 4개의 유권자단체, 즉 지주유권자단체, 자산계급유권자단체, 농민유권자단체 및 로동자유권자단체로 나뉘였다. 각 유권자단체의 권리는 불평등하였다. 국회에서 가장 큰 의원단은 립헌민주주의자들이였다. 그들은 농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자기들이 개혁(토지개혁을 망라하여)을 주장한다고 불어대였다. 1906년 7월 8일(신력

21일)에 위떼국회는 까리정부에 의해 해산당하였다. — 175페지

59 **사회혁명당**은 로씨야의 소자산계급당으로서 1901년말～1902년초에 일부 인민파 단체들과 소조들이 통합되여 이루어진것이다. 사회혁명당원들의 견해는 인민주의와 수정주의의 혼합물이였다. 그들은 《인민주의의 결함들을 맑스주의에 대한 류행식기회주의적〈비판〉의 조각지들로 미봉하려고 애쓴다》(《레닌전집》, 한문판, 제9권, 295페지). 사회혁명당원들은 농민내부의 계급모순을 부인하고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에서의 무산계급의 지도적역할과 무산계급독재의 사상을 반대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사회혁명당원의 다수는 까리로씨야의 전쟁정책을 지지하고 소수가 전쟁을 반대하였는데 그들은 후에 좌익사회혁명당의 핵심으로 되였다. 1917년 2월혁명후 사회혁명당원들은 멘쉐위크, 립헌민주주의자들과 함께 자산계급림시정부의 주요한 기둥으로 되였다. 당의 지도자 아. 에프. 께렌스끼, 엔. 데. 압크쎈찌예브, 웨. 엠. 체르노브 등은 림시정부에서 요직에 있었다. 1917년 11월에 사회혁명당의 좌익이 독자적인 좌익사회혁명당을 구성하였다. 한시기 좌익사회혁명당원들은 쏘베트정권을 인정하고 볼쉐위크와 합작하였으나 또 인차 쏘베트정권을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우익사회혁명당원들은 시종 10월혁명을 적대시하였다. 1918～1920년 외국의 무력간섭과 내전시기에 사회혁명당은 반혁명적파괴활동을 수차 획책하고 부농의 반란을 책동하였으며 공산당과 쏘베트국가의 지도자들을 암살하였다. 내전이 끝난 후 반혁명활동을 계속 감행하던 사회혁명당은 쏘베트정권에 의해 분쇄되였다. —176, 294, 353, 547, 622, 645페지

60 **전로로동자병사대의원쏘베트 제2차대회**는 1917년 10월 25～27일(신력 11월 7～9일)에 뻬뜨로그라드에서 진행되였다. 649명의 대표가 대회에 참석했는데 그중 볼쉐위크대표가 390명으로서 대회에서 가장 큰 단체였다. 멘쉐위크, 우익사회혁명당원과 분드분자들은 사회주의혁명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다수 대표들이 볼쉐위크를 지지하는것을 보고 대회에서 퇴출하였다. 대회에서는 동궁을 점령하고 림시정부성원들을 체포할데 관한 레닌의 보고를 청취하고 레닌이

작성한 《로동자, 병사와 농민들에게 고하는 글》을 채택했으며 평화법령과 토지법령을 비준하고 정권을 쏘베트에 넘긴다고 선포했으며 동시에 제1기쏘베트정부—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레닌이 인민위원회 주석으로, 쓰딸린이 민족사무인민위원으로 되였다. 대회는 101명으로 구성된 전로중앙집행위원회를 선거하였는데 그중 62명이 볼쉐위크고 29명이 좌익사회혁명당이였다. — 177페지

61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1923년 9월 23～25일에 진행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가리킨다. — 184페지

62 《쁘라우다》(《*Правда*》)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이다. 《쁘라우다》는 최초에 로씨야볼쉐위크당의 일간신문이였다. 이 신문은 쓰딸린, 엠.에스.올리민스끼, 엔.게.뿔레따예브가 레닌의 지시에 좇아 발기하여 창간하였다. 창간호는 1912년 4월 22일(신력 5월 5일) 뻬쩨르부르그에서 출판되였다. 1917년 3월 5일(신력 18일)부터 《쁘라우다》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의 중앙기관지로 되였다. —198, 202, 692페지

63 《좌익공산주의자들》은 브레스트강화시기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내부에 나타난 《좌》익기회주의집단으로서 1918년 1월에 산생되였다. 그의 핵심적인물들로는 엔.이.부하린, 에.아.쁘레오브라젠스끼, 게.엘.빠따꼬브, 까.베.라데크 등이다. 《좌익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한 나라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부인하며 로씨야사회주의혁명은 서구라파혁명의 직접적인 지지 없이는 국제자본의 타격을 받아 훼멸되고말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들은 브레스트강화조약의 체결을 반대하면서 제국주의와의 전쟁으로써 국제혁명을 《촉진》시킬것을 주장하였다. 쏘베트정권이 강화조약을 맺고 숨돌릴 시간을 얻어 사회주의건설을 시작하고있을 때에 《좌익공산주의자들》은 1918년 4월에 《시국에 대한 테제》를 발표함으로써 레닌의 《쏘베트정권의 당면과업에 대한 테제》에 맞서나섰다. 그들은 파도기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자산계급전문가와 국가자본주의를 리용하는것을 반대하였으며 기업소에서 규률제도를 세우고 경제적채산제

를 실시하는것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레닌의 이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자산계급의 질서를 회복하는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볼쉐위크당은 레닌의 지도밑에서 《좌익공산주의자들》파 단호히 투쟁하였다. 《좌익공산주의자들》은 1918년 여름에 오유를 승인하였다. —201, 645페지

64 **민주주의중앙집권파**는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안에서 1919~1920년에 형성된 반당집단으로서 그 핵심적인물들은 뻬.웨.싸프로노브, 엔.오쎈스끼, 웨.엠.스미르노브 등이였다. 민주주의중앙집권파는 쏘베트에서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부인하였고 기업소에서 유일관리제와 엄격한 규률제도를 실시하는것을 반대하였으며 당내에서 파벌과 집단을 조직할수 있는 자유를 요구하면서 지방에 대한 중앙의 령도를 배척하였다. 그들이 제9차 및 제10차 당대회에서 질책을 받은후에도 그 지도자들은 계속 반당활동을 진행하였다. 즉 1923년에 뜨로쯔끼가 일으킨 론쟁가운데서 그들은 당과 그의 령도를 반대하였고 1926년에 그들은 뜨로쯔끼-지노위예브동맹에 가담하였다. 1927년 12월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회에서 이 집단의 성원들은 당에서 제명당하였다. —201, 642페지

65 **당건설에 관한 결의**는 1923년 12월 5일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중앙검열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련석회의에서 채택된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당내민주주의와 로동자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이다. 이 결의는 1923년 12월 7일부 《쁘라우다》 제278호에 게재되였다. — 202페지

66 1923년 10월 25~27일에 10개 당조직대표들의 참석하에 진행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열위원회의 전원련석회의를 두고 말한다. 회의에서는 당내정세문제를 검토하였고 정치국에서 제정한 당내민주주의에 대한 방침을 인정하였으며 1923년 10월 8일에 당중앙에 보낸 뜨로쯔끼의 비방성적서한과 10월 15일에 꾸며낸 그의 이른바 46명 반대파분자의 성명을 반박하였다. 회의는 세계혁명과 당이 가장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는 시각에 뜨로쯔끼가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는것은 엄중한 정치적오유라고 지적하

였다。 —202페지

67 자칭로동자단이라고 하는 반혁명적비밀집단이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2차대회전야에 내놓은 늬명강령을 가리킨다。로동자단은 당에서 제명된 먀스니꼬브와 꾸즈네쪼브가 1923년에 모스크바에서 조직한것인데 성원은 많지 못하였으며 그해 가을에 숙청당하였다。 — 208페지

68 전련맹쏘베트 제2차대회는 1924년 1월 26일～2월 2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레닌을 추모하는 제1차회의에서 쓰딸린은 볼쉐위크당의 이름으로 레닌의 유훈을 충실하게 실현하겠다는 엄숙한 선서를 하였다。레닌의 서거와 관련하여 대회는《근로인민에게 고하는 글》을 반포하였다。대회는 레닌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레닌전집》을 출판하며 레닌서거기념일을 규정하며 뻬뜨로그라드를 레닌그라드로 개칭하며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 레닌묘를 세우며 각 가맹공화국의 수도와 레닌그라드 및 따쉬껜트에 레닌기념동상을 세울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대회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정부의 활동에 관한 보고와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정부의 예산문제 및 중앙농업은행창설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였다。1월 31일에 대회는 최초의 쏘련헌법을 비준하였고 중앙집행위원회—련맹쏘베트와 민족쏘베트를 선거하였다。쓰딸린은 련맹쏘베트의 위원으로 선거되였다。 —218페지

69 영국외교대신 지。엔。커즌은 1923년 5월 8일에 쏘련정부에 중상, 비난하는 최후통첩을 보내였다。최후통첩은 쏘련정부에 페르쌰 및 아프가니스탄 주재 쏘련전권대표를 소환할것, 쏘련북부령해에서 비법적인 어로작업을 하다가 억류당한 영국어선을 석방할것 등을 요구하였다。최후통첩은 쏘련정부가 상기한 조건을 10일대로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역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위협하였다。커즌의 최후통첩은 쏘련에 대한 새로운 무력간섭의 위협을 조성하였다。쏘련정부는 영국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한 동시에 평화적방법으로 두 나라간의 호상관계를 조절할 용의를 표명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였다。 — 221페지

70 독일의 위기란 독일에 있어서의 1923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를 가리킨다. 당시 독일국내에는 성세호대한 군중적혁명운동이 전개되여 대다수 로동자들이 사회민주당으로부터 공산당측으로 넘어갔다. 작쎈 및 튀링겐에는 로동자정부가 성립되였으며 함부르그에서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독일의 혁명운동이 진압된 이후 전 구라파에서 자산계급반동세력이 창궐해졌으며 또한 쏘베트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간섭의 위험성이 증대되였다. —221, 354, 395페지

71 **스똘리쁸당**(스뽈리쁸로동당)이란 로씨야멘쉐위크-취소파에 대한 풍자적칭호였다. 그것은 멘쉐위크-취소파들이 스뽈리쁸제도에 양보하고 그와 타협하면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강령과 전술을 포기하는것으로써 까리제도하에서의 합법적지위를 얻으려고 시도하였기때문이다. — 230페지

72 **사관학교학생폭동**은 1917년 10월 29일(신력 11월 11일) 까리로씨야사관학교 학생들이 뻬뜨로그라드에서 쏘베트를 반대하여 일으킨 무장폭동이다. 이것은 께렌스끼-크라스노브반혁명반란의 한 구성부분이였다. 이 폭동은 엔.데.압크쎈쩌에브, 아.에르.고쯔를 두목으로 한 반혁명조직《조국 및 혁명 구원위원회》가 지도하였고 뻬뜨로그라드군관구 사령 게.베.뿔꼬브니꼬브대좌가 지휘하였다. 반란자들은 전보국을 비롯하여 미하일로브련마장과 뻬뜨로-빠블롭스깐야요새와 스몰늬를 점령하고 쏘베트정부와 볼쉐위크의 지도자들을 체포하려 시도하였다. 원래 폭동은 10월 30일에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음모가 발로되자 앞당기게 되였다. 부분적사관생부대는 미하일로브련마장과 전보국을 점령하였으나 그날 저녁무렵에 수병들과 적위대에 의하여 격파되였다. — 234페지

73 **스웨르들로브대학** 즉 스웨르들로브로농공산주의대학은 당 및 행정간부를 양성하는 쏘련의 최초의 고급당학교이다. 이 학교의 전신은 1918년에 야.엠.스웨르들로브의 창의에 의하여 설립한 전로중앙집행위원회부설 선동원 및 지도원 훈련반이였다. 1919년 1월에 이 훈련반은 전로중앙집행위원회부설 쏘베트사업학교로 고쳤다.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8차대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 학교의 기

초우에서 중앙쏘베트사업및당무사업학교를 세웠다. 1919년 7월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조직국의 결정에 의하여 이 학교를 스웨르들로브로농공산주의대학으로 고쳤다. — 236, 451페지

74 《해 비치는 곳》이란 말은 독일제국의 외교대신 베.뷜로브의 연설에서 인용한것이다. 1897년에 그는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른 민족이 대륙과 해양을 분할하게 하고 우리 독일인들은 푸른 하늘에만 만족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도 자신에게 해 비치는 곳을 요구해야 한다.》 — 240페지

75 희랍신화전설에 의하면 아우게이아스국왕에게는 3,000마리의 소를 기르는 큰 외양간이 있었는데 30년동안이나 한번도 치지 않았다고 한다. 후에 사람들은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이란 말로 불결하기 짝이 없는 곳을 비유하였다. — 248페지

76 **제2국제당 바젤대회**는 1912년 11월 24～25일에 스위스의 바젤에서 555명대표의 참석하에서 진행되였다. 이 대회는 구라파가 전쟁의 위협에 직면한 형편에서 소집되였다. 대회가 열리던 날에 전쟁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시위행진과 전쟁발동에 항의하는 국제적집회가 있었다. 대회에서는 국제정세와 공동으로 전쟁을 반대할 문제가 토의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선언서는 이제 곧 폭발될 전쟁의 략탈적성격을 폭로하면서 무산계급의 조직과 위력으로 전쟁폭발을 반대하는 혁명적투쟁을 벌리라고 전 세계의 로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제2국제당의 지도자들은 회의에서 반전선언에 찬성투표하였으나 제국주의의 세계대전이 시작되자마자 바젤선언과 기타 반전결의들을 포기하고 자국의 제국주의정부편에 섰다. — 252페지

77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는 1905년 4월 12～27일(신력 4월 25일～5월 10일)에 런던에서 진행되였다. 이 대회는 볼쉐위크들에 의하여 준비되고 소집되였다. 멘쉐위크들은 이 대회에 참석할것을 거부하고 제네바에서 저들의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였다. 대회는 당시에 이미 전개된 혁명의 근본문제를 검토하고 혁명의 지도자로서의 무산계급의 과업을 규정하였다. 대회는 무장봉기, 혁명전야에 있어서의 정부의 전술에 대한 태도, 림시혁명정부, 농민운동에 대

한 태도, 당내에서 이미 분열되여나간 부분(멘쉐위크)에 대한 태도, 당의 공개적정치활동 등 문제를 토의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주요한 결의들은 모두 레닌이 작성하였다. 대회는 혁명에서의 당의 전술적로선을 규정하고 당규약을 수정했으며 레닌이 제2차당대회에서 제기한, 당원자격에 관한 당규약 제1조의 조목을 채택하고 두 중앙기관 즉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가 병존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대회는 새로운 중앙기관지—《무산자》를 창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중앙전원회의는 레닌을 이 기관지의 편집으로 임명하였다. — 267, 635페지

78 1877～1878년의 로씨야-토이기전쟁때 로씨야군대는 엄한을 무릅쓰고 발칸의 쉽까산골짜기를 지키다가 수많은 병사들이 얼어죽거나 동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씨야군대사령부의 전파보고에는 여러 번이나 《쉽까산에서는 무사하다.》라고 하였다. — 280페지

79 **쯔르닐로브반란**은 1917년 8월에 로씨야의 자산계급과 지주들이 일으킨 반혁명적반란을 두고 말한다. 자산계급림시정부가 임명한 로씨야군대의 최고사령관인 짜리장군 엘.게.쯔르닐로브가 이 반란을 지휘하였다. 모길료브에 세운 대본영이 반란을 준비한 중심부였다. 자산계급림시정부는 이 반란을 준비한 공모자였다. 쯔르닐로브는 뻬뜨로그라드를 점령하여 쏘베트를 소멸하고 반혁명적군사독재를 수립하려고 8월 25일에 군대를 집결하였다. 볼쉐위크당은 로동자와 혁명적병사들을 조직하여 8월말에 이 반란을 분쇄하고 혁명을 보위하였다. — 295, 376, 411페지

80 **농업협동조합련맹** 즉 전로농업협동조합련맹은 1921년 8월에 설립되여 1926년 6월에 철소되였다. — 300페지

81 **민주주의협의회**는 1917년 9월 14～22일(신력 9월 27일～10월 5일) 뻬뜨로그라드에서 진행되였다. 이 회의는 로동자병사대의원쏘베트 전로중앙집행위원회와 농민대의원쏘베트집행위원회내의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의 지도자들이 소집하였다. 각 사회주의당, 쏘베트, 직업동맹, 지방자치국, 공상업계와 군대내외 타협파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림시정부의 자문기관인 예비의회(공

화국협의회)를 내왔다.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은 이것으로써 날로 앙양되는 혁명운동을 압살하고 로씨야로 하여금 쏘베트혁명의 길에서 자산계급의회제의 길로 나가게 하려고 하였다. 민주주의협의회에 관해서는 레닌의 《위조의 영웅들에 대하여 그리고 볼쉐위크들의 오유에 관하여》와 《정론가의 일기중에서》(《레닌전집》, 한문판, 제26권, 26~34페지와 35~41페지)를 참조하라. — 321, 784페지

82 **브레스트강화조약**은 1918년 3월 3일에 쏘베트로씨야가 브레스트-리똡스크에서 독일, 오지리-웽그리아제국, 벌가리아, 토이기 등 네 나라와 체결한 조약을 두고 말한다. 이 조약을 체결한것은 당시에 방금 탄생된 쏘베트정권이 제국주의전쟁에서 물러나고 력량을 집중하여 10월혁명의 승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혁명적타협이였다. 이 강화조약에 의하여 쏘베트로씨야는 100만평방키로메터의 령토를 상실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하였다. 이 강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청소한 쏘베트정권은 무산계급독재를 공고히 하고 국가경제를 정돈하고 붉은군대를 창건할 시간적여유를 얻었으며 후에 백위군과 제국주의의 무력간섭을 분쇄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놓았다. 1918년 11월 13일, 즉 련합국이 독일에 대한 정전협정에 조인한 이틀만에 전로중앙집행위원회는 브레스트강화조약의 폐지를 선언하였다. —323, 645페지

83 **소환주의**는 1905~1907년 로씨야혁명이 실패한후 볼쉐위크대렬내에 나타난 《좌》경기회주의적분파이다. 그 대표인물들로는 아.아. 보그다노브, 아.웨.루나챠르스끼, 게.아.알렉신스끼, 엠.엔.뽀크롭스끼 등이였다. 소환주의자들은 제3기의회에서 사회민주당의 대표를 소환할것을 요구하고 직업동맹, 협동조합, 및 기타 합법적 및 반합법적 단체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으며 일체 합법적투쟁을 포기하였다. 소환주의자들은 《혁명》이라는 문구를 허울로 삼고 취소주의로선을 집행하였다. 레닌은 소환주의자들은 《간판을 바꾸어 건 멘쉐위크》라고 하였다. 1909년 6월 볼쉐위크의 기관지 《무산자》 편집부확대회의(사실상 볼쉐위크중앙전원회의)에서 소환주의자들을 제명하고 보그다노브를 볼쉐위크조직에서 제명하였다. —325, 635

페지

84 여기서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뻬쩨르부르그위원회내의 에스.아.빠그다쩌예브를 비롯한 소수 위원들을 념두에 두고있다. 그들은 1917년 4월시위운동시에 즉시 림시정부를 뒤엎자는 구호를 내놓았다. 볼쉐위크당 중앙위원회는 시위행진을 한 이틀날(4월 22일)에 레닌이 제출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빠그다쩌예브 등의 모험주의적행위를 준렬히 규탄하면서 그들이 내놓은 구호는 적합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며 당이 쏘베트의 다수를 자기 편으로 쟁취하는데 방해되며 당시의 당의 방침에 배치된다고 인정하였다. — 325페지

85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0차대회는 1921년 3월 8～16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의 의정에 든 문제들로는 중앙의 사업총화보고, 민족문제, 직업동맹문제, 여유량곡정수제로부터 현물세제로 넘어갈 문제, 당건설문제, 당의 통일과 무정부주의적급진로동조합주의편향문제 등이였다. 레닌은 대회에서 중앙의 정치보고, 여유량곡정수제로부터 현물세제로 넘어갈데 관한 보고, 당의 통일과 무정부주의적급진로동조합주의편향에 관한 보고를 진술하였다. 대회는 레닌의 보고에 좇아 여유량곡정수제로부터 현물세제로 넘어갈데 관한, 즉 전시공산주의정책으로부터 신경제정책으로 넘어갈데 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 결의를 채택하였다. 대회는 직업동맹문제에 관한 론쟁을 총화하고 뜨로쯔끼파, 로동자반대파, 민주주의중앙집권파 등 기회주의적분파들의 견해를 준렬히 규탄하고 직업동맹에 관한 레닌의 강령을 압도적다수로 채택하였다. 대회는 레닌이 작성한《당의 통일에 관하여》란 결의를 채택하여 일체 분파집단들을 즉시 해산하고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확보할것을 요구하였다. 쓰딸린은 대회에서《민족문제에 있어서의 당의 당면과업에 대한 보고》를 진술하고 또 민족문제위원회를 대표하여 상응한 결의초안을 제출하였다. 대회는 이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345페지

86 쓰딸린의 저서《10월혁명에로 가는 길》은 1925년 1월과 5월에 걸

처 2차 출판되였다. 본 저서에 들어있는 론문 및 연설들은《쓰딸린전집》제3권에 수록되여있다. 저자는 1924년 12월에 이 저서의 서문을 랄고하였고 그 전문은《10월혁명에로 가는 길》이라는 저서에만 발표되였다.《10월혁명과 로씨야공산주의자들의 전술》이라는 표제하에 이 서문의 대부분이 쓰딸린의 저서《레닌주의 제 문제》의 각 판본과 여러 문집에 수록되였으며 단행본으로도 발간되였다. 서문의 다른 일부분은《변방주의를 반대하여》라는 론문에 대한 저자의 주로서《쓰딸린전집》제3권에 발표되였다. — 352, 492, 692페지

87 《사회민주주의자》(«Социал-Демократ»)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기관지이며 비합법적신문으로서 1908년 2월～1917년 1월에 모두 58호가 발간되였다. 창간호는 로씨야국내에서, 제2～32호(1909년 2월～1913년 12월)는 빠리에서, 제33～58호(1914년 11월～1917년 1월)는 제네바에서 발간되였다. 본 신문 편집부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위원회결정에 의하여 볼쉐위크, 멘쉐위크 및 뽈스까사회민주당원들의 대표들로써 구성되여있었다. 신문 편집부내에서 레닌은 철저한 볼쉐위크적로선을 옹호하여 멘쉐위크취소파와 투쟁하였다. 엘. 베.까메네브와 게. 예. 지노위에브는 취소파에 대하여 타협적태도를 취하였고 멘쉐위크 엘 마르또브와 에프. 이. 단은 대공하는 한편 자기들의 신문《사회민주주의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취소주의를 위하여 로골적으로 변호하였다. 1911년 6월에 마르또브와 단은 편집부로부터 탈퇴하였다. 그리하여 1911년 12월부터 신문《사회민주주의자》는 레닌이 편집을 담당하였다. 이 신문에는 선후로 레닌의 80여편 론문과 단평 그리고 쓰딸린의 많은 론문들이 게재되였다. — 367, 658페지

88 **4월시위운동**은 1917년 4월 20～21일(신력 5월 3～4일)에 뻬뜨로그라드에서 있은 대중적시위행진을 말한다. 1917년 4월 18일(신력 5월 1일)에 로씨야림시정부의 외교부장 뻬. 엔. 밀류꼬브는 전쟁을 끝까지 진행하고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준수할데 대하여 성명한 각서를 동맹국들에 보내였다. 4월 20일에 볼쉐위크당중앙

은 림시정부의 제국주의정책에 항의하여 궐기할것을 대중에 호소하였다. 4월 20～21일에 반전기분으로 격노한 약 10만 로동자와 병사들이 뻬쯔로그라드에서 시위행진을 벌리였다. 그들은 《전쟁을 분쇄하자!》, 《비밀조약을 공개하라!》, 《모든 정권을 쏘베트에로!》 등의 구호를 들고나왔다. 모스크바, 우랄, 우크라이나 등 도시 및 지방 군중들도 시위행진을 단행하였다. 당시 반동장교들은 시위군중들에게 사격할것을 명령하였으나 병사들은 거부하였다. 4월시위운동은 림시정부의 위기의 발단을 보여주었으며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전환을 촉진하였다. —374페지

89 **7월시위운동**은 1917년 7월 3～4일(신력 16～17일)에 뻬쯔로그라드에서 있은 대중적시위운동을 말한다. 로씨야자산계급림시정부가 영국, 프랑스 제국주의의 의사에 좇아 제국주의전쟁을 고집한데서 로동자와 병사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냈다. 7월 3일(신력 16일)에 위부르그구역에서 림시정부를 반대하는 로동자 및 병사들의 자연발생적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시위운동은 림시정부를 반대하는 무장폭동으로 발전될 추세를 보여주었다. 볼쉐위크당중앙은 로씨야의 혁명적위기가 아직 성숙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이런 불리한 형편에서 무장폭동을 일으키는것을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위운동을 저지할 가능성이 없게 되자 시위운동을 평화적이며 조직있는 운동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7월 3일 밤에 시위운동에 가담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번 시위운동은 평화적성격을 띠고있었지만 의연히 림시정부의 피비린 탄압을 면하지 못하였다.—375, 411페지

90 **6월시위운동**은 1917년 6월 18일(신력 7월 1일)에 뻬쯔로그라드로동자들이 렬사묘부근에서 단행한 시위운동을 말한다. 시위운동은 《전쟁을 분쇄하자!》, 《10명의 자본가대신을 타도하자!》, 《모든 정권을 쏘베트에로!》 등 구호를 제기하였다. 이번 시위운동은 대중의 혁명적기분이 앙양되였고 볼쉐위크당의 영향 및 위신이 크게 높아졌다는것을 보여주었으며 멘쉐위크, 사회혁명당원 및 림시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6월 18일

의 시위는 혁명의 방향을 제시하고 궁지로부터의 출로를 제시하는 혁명적무산계급의 력량과 정체의 시위로 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25권, 95페지)— 375페지

91 여기서는 독일의 11월혁명에서 에르. 헬페르딩이 쏘베트의 지위문제에 대하여 취한 기회주의적립장을 념두에 두고있다. 1919년 2월 9일에 헬페르딩은 독일독립사회민주당기관지인 《자유》지에 글을 발표하여 쏘베트는 자산계급국회 즉 《국민의회》와 병존하는 전제하에서 국가적조직으로 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헬페르딩의 이 주장은 곧 독일독립사회민주당의 구호로 되였다. 레닌은 헬페르딩 일파는 《자산계급독재와 무산계급독재를 합동하려고 시도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29권, 356페지를 보라.)— 386페지

92 햄리트는 쉐익스피어의 비극 《햄리트》의 주인공으로서 심리적모순으로 충만되고 우유부단하며 환상에만 그치고 결단성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인물의 전형이다. — 389페지

93 도즈안은 독일의 배상금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두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미국 모간재벌의 대표자이며 금융가인 챨즈 도즈를 의장으로 하는 국제전문가위원회가 작성한것으로서 1924년 8월 16일에 제1차세계대전전승국의 대표자들로 소집된 런던회의에서 비준되고 독일에 의하여 승인된것이다. 도즈안의 종지는 배상금을 지불할수 있도록 독일의 경제를 복구시키는것이였다. 도즈안에는 전승국들이 독일에 차관을 주어 마르크를 온정시키며 독일의 매년 배상금 지불액수를 확정하며, 독일정부의 주요재정수입을 배상금지불의 담보로 하며 쏘련 및 기타 나라들의 일부 지방을 독일의 공업품시장으로 지정할것 등이 규정되여있다. 도즈안의 실시는 미국자본이 대량으로 독일에 침투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1930년에 도즈안은 영계획에 의해 대체되였다. 쓰딸린은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회에서 도즈안을 론평하였다.(《쓰딸린전집》, 한문판, 제7권, 225～226페지를 보라.)— 395페지

94 고대로마의 개선의식에서는 월계관을 쓴 통솔자가 수많은 사람의

전후옹위를 받으며 백마 네필을 메운, 금으로 장식한 개선차에 앉아 들어오는것이 위풍이 당당하였다. 이로부터 후세사람들은 승리자의 위풍을 비유하여 백마를 탔다고 하였다. — 401페지

95 **쏘련무산계급대학생 제1차대표자회의**는 1925년 4월 13～17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대학, 중등전문학교 및 로동학부의 도합 25만명 대학생을 대표하여 약 300명의 대표자가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즉 쏘련의 국제국내정세, 직업동맹과 대학생, 무산계급대학생 중앙상설국의 사업총화, 로씨야쏘베트련방사회주의공화국 직업교육 및 우크라이나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 직업교육총국의 사업, 대학과 생산과의 련계 등이다. 쓰딸린은 4월 13일에 회의대표단과 담화하였으며 4월 15일에 회의에 보내는 이 편지를 썼다. — 404페지

96 **공산주의대학**은 쏘련에서 초기에 당, 정부 및 직업동맹의 간부를 양성한 고급당학교이다. 최초의 스웨르들로브로농공산주의대학을 비롯한 이 학교들은 각 대도시의 당원단기훈련반에 기초하여 창설되였다.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는 공산주의대학의 사업을 직접 령도하였으며 1923년에 《공산주의대학시범규약》을 비준하였다. 공산주의대학에서는 3년이상의 당령을 가진 당사업일군들을 모집하였으며 학제는 처음에는 3년으로 하다가 후에는 4년으로 고치였다. 이 학교들에서는 또 지방간부들의 리론수준을 높일 목적으로 1년제훈련반을 부설하였다. 대다수 공산주의대학들에는 당사업, 정치교양, 직맹운동, 경제, 정치법률 등 학부가 설치되여있고 사회정치(력사, 철학, 정치경제학), 자연과학(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로어, 외국어 등의 과목들이 교수요강에 들어있었다. 1927년에 쏘련통신공산주의대학이 모스크바에 창립되였고 다른 공산주의대학들에서도 통신학부를 설치하였다.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의 1932년 9월 21일부 결정에 좇아 많은 공산주의대학들이 후에 공산주의농업대학으로 넘어갔다. — 405페지

97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표자회의**는 1925년 4월 27～29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당건설, 협동조합, 단일현물

세, 금속공업, 혁명적법률,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확대전원회의의 결의로 말미암아 생긴 국제공산당 및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의 파업 등 문제를 토의하였다. — 409, 451, 565페지

98 1912년 4월 4일(신력 17일) 짜리군대가 씨비리의 레나금광로동자들을 학살한 사건을 가리킨다. 레나금광로동자들은 자본가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에 견디여낼수 없어서 1912년 12월말부터 6,000명이 참가한 동맹파업을 단행하여 8시간로동일실시, 로임인상, 벌금취소, 의료구급수단의 제공, 식량공급과 거주조건의 개선 등 요구조건을 내여놓았다. 4월 4일 짜리군대는 동맹파업위원회 전체 위원을 체포하였으며 명령을 받고 로동자군중들에게 총을 쏘아 사상자 500여명을 내였다. 레나참살사건은 전 로씨야 로동자들의 격분을 자아냈다. 동맹파업의 물결은 삽시에 온 나라를 휩쓸었으며 로씨야의 혁명운동은 새로운 앙양기에 들어섰다. — 411페지

99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승국들이 제정하고 비준한 독일배상금문제에 대한 도즈안을 가리킨다. 이 책의 주 93을 참조하라. — 417페지

100 1925년 4월 16일에 불가리아쏘피아의 《성주일》대사원에서 폭발사건이 일어났다. 거기에는 당시 야. 짠교브를 우두머리로 하는 불가리아파쑈정부의 각료와 기타 정치계인사들이 있었다. 그후 짠교브는 쏘련정부를 폭발사건의 교사자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여러 나라의 반동적출판물들은 사회주의적쏘련을 반대하는 선전운동을 일으켰다. 짠교브정부는 이 기회를 타서 인민대중을 가혹하게 박해하였는바 수만명이 체포당하고 수천명이 살해당하였다. 1925년 5월에 소집된 쏘련 제3차쏘베트대회는 성명을 발표하여 짠교브정부의 폭행을 규탄하는 한편 쏘련에 대한 독설을 반박하였다. — 418페지

101 《최신소식》(《*Последние Новости*》)은 10월혁명후 외국으로 망명한 립헌민주주의자들의 신문(일간)으로서 1920년 4월～1940년 7월에 빠리에서 발간되였다. 주필은 뻬. 엔. 밀류꼬브였다. — 460, 682페지

102 베르싸이유조약은 제1차세계대전의 전승국들인 영국, 프랑스, 미국, 이딸리아, 일본 등 나라를 일방으로 하고 전패국인 독일을 타방으로 하여 체결한 제국주의강화조약이다. 이 강화조약은 1919년 6월 28일 빠리 교외구역에 있는 베르싸이유궁에서 체결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베르싸이유조약자체가 강도와 략탈자들의 조약이며》《고리대적강화이며 교형리의 강화이며 도살자의 강화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31권, 291페지). 강화조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일은 알자스-로렌을 프랑스에 돌려주고 많은 변경지역을 벨지끄, 뽈스까 등 나라에 할양하며 자르탄광을 프랑스에 돌릴것, 독일의 식민지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나라들이 분할할것,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승국들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할것, 독일의 군비를 제한하여 독일경내의 라인강 서쪽의 전 지역과 라인강동쪽 50키로메터를 비군사구역으로 정할것 등이다. 미국대표는 강화조약에 조인하였으나 국회에서 그것을 비준하지 않았다. 후에 미국은 1921년 8월에 독일과 단독으로 그 내용이 강화조약과 거의 동일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1917년 8월에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중국은 전승국의 하나였지만 강화조약에는 전쟁전에 독일이 우리 나라 산동성에서 가지고있던 특권을 일본에 넘긴다고 규정되여있었다. 중국인민의 강력한 반대로 말미암아 중국정부대표는 강화조약에 조인하지 않았다. — 462페지

103 **쏘련 제3차쏘베트대회**는 1925년 5월 13～20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엠.이.깔리닌이 대회에서 토의된 주요한 문제의 하나인 쏘베트건설문제와 관련하여 보고를 진술하였다. 대회는 또 뚜르크메니야 및 우즈베크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을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에 가맹시킬 문제, 쏘련정부사업보고, 쏘련의 공업형편, 농민경제를 향상시키고 강화할데 대한 대책, 붉은군대에 관한 보고 등을 토의하였다. 대회는 쏘련의 대내 및 대외 정책의 구체적조치들을 제정하고 국가의 방어력을 제고하고 쏘베트사업을 개선하며 공농업생산 및 제정사업을 가일층 제고할데 대한 조치들을 제정하였다. — 476페지

104 1925년 3월 21일～4월 6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제5차확대전원회의를 두고 말한다. 전원회의는 국제당의 나아갈 방향과 공산당의 볼쉐위크화 문제, 세계직업동맹운동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문제, 농민문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내의 론쟁문제, 국제공산당의 개별정세포들에 대한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정치위원회, 체스꼬슬로벤스꼬위원회, 유고슬라비아위원회 등을 내왔다. 쓰딸린은 정치위원회 위원과 체스꼬슬로벤스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였다. 3월 27일에 쓰딸린은 체스꼬슬로벤스꼬위원회에서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였다.(《쓰딸린전집》, 한문판, 제7권, 51～58페지를 보라.) 3월 30일에 쓰딸린은 유고슬라비아위원회에서 《유고슬라비아의 민족문제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였다.(우와 같은 책, 59～64페지를 보라.)— 479페지

105 《폰티우스로부터 필라투스에게로 미루었다.》는 말은 성경 《신약전서.루가복음》 제23장에 나오는 말이다. 예수는 체포된후 유태주재 로마제국총독 폰티우스 필라투스의 심문에 교부되였다. 폰티우스 필라투스는 예수가 갈릴리사람인것을 알고 그를 갈릴리지방총독 헤롯에게 넘겼다. 그런데 헤롯은 심문할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도로 보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인용할 때 헤롯은 빼버리고 《폰티우스로부터 필라투스에게로 미루었다.》라고 한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로 미루는것을 의미한다. — 496페지

106 1925년 봄에 시작된 프랑스제국주의를 반대한 마로꼬의 리프인들의 민족해방전쟁을 두고 말한다. 에스빠냐의 식민지였던 마로꼬의 리프주는 1921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리프공화국을 세웠다. 지하자원이 풍부한 마로꼬의 이 지역에 대하여 야망을 품고있던 프랑스는 리프주의 변경에 군대를 보내여 수원을 차단함으로써 전쟁을 발동하였던것이다. 1925년 봄과 여름에 리프인들은 프랑스인들에게 두차 심중한 타격을 가하였다. 후에 프랑스는 에스빠냐와 리프인을 반대하는 군사동맹을 맺고서야 1926년 5월에 리프인을 격패

시킬수 있었다. — 497페지

107 1924년 후반년에 영국, 미국, 일본 등 제국주의가 중국의 내정을 간섭한 사실을 두고 말한다. 화남지역에서는 영국인들이 군함을 출동하여 손중산선생이 령도하는 광동혁명정부를 반대한 광주상인단의 무장반란을 원조하였다. 손중산선생은 중국공산당의 도움을 받으면서 결정적인 조치로써 그 반란을 평정하고 영국제국주의의 음모를 짓부셨다. 화북지역에서는 영, 미 제국주의와 일본제국주의가 제각기 저들의 주구 오패부와 장작림을 원조하여 제2차직예계군벌-봉천계군벌전쟁을 발동하였다. 제국주의의 무력간섭은 중국의 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다. — 497페지

108 **제2반국제당** 또는 황국제당이라고도 하는 이 조직의 공식적명칭은 사회당국제로동자련합회이다. 이 조직은 1921년 2월에 윈에서 소집된, 혁명적로동자대중의 압력에 못이겨 림시로 제2국제당에서 탈퇴하였으나 실지로는 무산계급운동의 모든 주요한 문제들에서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로선을 집행한 중간파 당파 집단들의 대표자회의에서 창립되였다. 제2반국제당은 광범한 근로대중들이 국제공산당의 령장에로 넘어오는것을 막으며 세계 각국에서 날로 확대강화되고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건립되였다. 1923년 5월에 제2반국제당은 제2국제당과 통합하여 사회주의로동자국제당으로 되였다. — 510페지

109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는 1920년 7월 19일～8월 7일에 진행되였다. 대회는 뻬뜨로그라드에서 개막식을 올렸고 그후의 회의들은 모스크바에서 진행하였다. 대회에는 37개 국가의 공산당과 로동자조직의 대표 218명이 출석하였다. 각국공산당의 력량이 신속히 발전장대되고 혁명운동이 날로 앙양되는 정황하에서, 국제로동운동가운데서 나타난 《좌》우경기회주의의 위험성을 극복하는 방도를 연구하고 공산주의운동의 조직원칙, 행동강령 및 전략과 전술을 확립하는것이 이번 대회의 과업이였다. 레닌은 대회소집을 위한 모든 준비사업을 지도하였고 또 대회전에 중요한 로작《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소아병》을 발표하여 사상, 리론적으로 대회소집을

준비하였다. 레닌이 제기한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의 기본과업에 관한 테제, 민족문제 및 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 토지문제에 관한 테제, 국제공산당가입조건 등은 모두 대회의 결의로 승인되였다. 대회는 국제공산당규약을 비준하였고《국제공산당 제2차대회 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일련의 호소문들을 발표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의 추천에 의하여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선거되였다. 쓰딸린은, 이 대회에서 한 레닌의 연설 즉《공산당의 역할에 관한 연설》에 나오는 한단락을 여기에 인용하고있다. — 527페지

110 《4월테제》(《현혁명에 있어서의 무산계급의 과업에 대하여》)는 1917년 4월에 국외에서 뻬쯔로그라드로 돌아온 레닌이 볼쉐위크회의에서 한 보고의 테제이다. 이 테제는 2월혁명후의 로씨야정세를 분석하고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할 확정적인 혁명로선과 구체적인 계획을 볼쉐위크당 및 로씨야무산계급에게 제기하였다. 이 테제는 정치적으로는 로동자대의원쏘베트가 혁명정부의 유일하게 가능한 형태라는것을 지적하고 모든 정권을 로동자대의원쏘베트에 넘겨야 한다는것을 주장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지주토지의 몰수, 국내 모든 토지의 국유화, 은행의 국유화, 사회적생산물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로동자들의 통제 등 일련의 사회주의적절차를 제기하였다. 이 테제는 또 당대회를 즉시 소집하고 당강령을 수정하며 제2국제당에 의하여 불명에스럽게 된《사회민주당》의 명칭을 공산당으로 개칭할것 등을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제3국제당을 내올것을 요구하였다. 레닌의《4월테제》는 볼쉐위크당이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위한 로씨야로동계급의 투쟁을 령도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 542, 692페지

111 **운수직맹 중앙위원회** 즉 철도및해상운수종업원합동직맹 중앙위원회는 1920년 9월에 창설되였다. 1920년말부터 1921년초까지 이 조직의 령도권을 장악한 뜨로쯔끼분자들은 사업에서 로골적인 강박명령의 방법을 썼다. 1921년 3월에 소집된 철도및수상운수종업원 제1차전로대회는 뜨로쯔끼분자들을 운수직맹 중앙위원회 지도부

에서 축출하고 새로운 중앙위원회를 선출하였으며 직업동맹의 새로운 사업방법을 확립하였다. — 544페지

112 급진로동조합주의(《혁명적급진로동조합주의》, 《무정부주의적급진로동조합주의》)는 국제로동운동가운데서 나타난 소자산계급적기회주의사조로서 19세기말~20세기초에 프랑스, 이딸리아, 에스빠냐, 스위스 및 라틴아메리카 등지에 파급되였다. 급진로동조합주의자들은 로동계급의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당의 지도적역할 및 무산계급독재를 부인하였으며 직업동맹(급진로동조합동맹)을 통하여 이른바 《직접적인 행동》(파업, 태업, 보이꼬르 등.)을 단행하기만 하면 로동계급은 자본주의를 전복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직업동맹이 생산을 지도, 조직하고 각 지방 직업동맹의 경제적련합으로써 국가기구를 대신할것을 선동하였다. — 545페지

113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의 테제 《무산계급혁명에서의 공산당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회의 결의문으로 채택되였다. — 549페지

114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1차대회는 1922년 3월 27일~4월 2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레닌은 마지막으로 이 대회에 직접 참가하여 지도하였다.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심의되였다. 즉 중앙위원회의 정치사업보고와 조직사업보고, 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총화보고, 중앙검열위원회의 사업총화보고, 국제공산당주재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의 사업총화보고, 직업동맹문제, 붉은군대문제, 재정정책, 당내숙청사업의 총화와 당대오의 공고화 그리고 이 의제의 부록으로 청년사업에 관하여와 출판보도 및 선전사업에 관한 보충보고 등이였다. 대회는 신경제정책을 실시한 첫해의 정황을 총화하였다. 레닌은 대회에서 중앙위원회의 정치사업보고와 이 보고에 대한 결론을 하였다. 레닌은 신경제정책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누가 누구를》 하는 사활적투쟁을 의미한다고 지적한 동시에 퇴각시기가 종말된 현재에 있어서 반드시 력량을 재편성하여 자본주의적요소들에 강력한 공격을 펼쳐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레닌은 또 경제를 관리하고 사업을 문명적으로 운영하는 기능을 배워내는것이 당앞에 나선 당면한 과업이며

이 과업을 순조롭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간부를 옳게 선발하고 그 집행정황을 검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회는 또 로동자반대파의 분파활동을 준별히 규탄하였다. 이번 대회후의 제1차중앙위원회전원회의는 레닌의 제의에 좇아 쓰딸린을 당중앙위원회 총비서로 선거하였다. — 551페지

115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회는 1925년 12월 18～31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쓰딸린은 12월 18일 대회에서 중앙위원회의 정치사업보고를 하였고 12월 23일에 이 보고에 대한 결론을 하였다. 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정치사업보고와 조직사업보고, 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총화보고, 중앙검열위원회의 사업총화보고, 국제공산당주재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의 사업총화보고와 그밖의 직업동맹사업에 관한 보고, 공청동맹사업에 관한 보고, 당규약 수정에 관한 보고 등을 토의하였다. 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정치 및 조직 로선을 한결같이 찬성하였으며 나라의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당의 총방침을 비준하였고 당의 통일을 파괴하려는 온갖 시도와 견결한 투쟁을 벌릴것을 중앙위원회에 위임하였다. 대회는 결의에서 부농과의 투쟁을 위하여 빈농에 의거하는 조건하에서 로동계급과 중농의 동맹을 가일층 공고화하여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회는 영농기술을 높이며 협동조합을 통하여 많은 농호들을 사회주의건설의 궤도에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농업의 발전을 후원하고 추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회에서는 또 결의에 근거하여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의 명칭을 쏘련공산당(볼쉐위크)으로 고쳤다. —556, 587, 688페지

116 1925년 4월 23～30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 두고 말한다. 전원회의는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4차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된 일련의 결의문을 비준하였다. 그중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확대전원회의의 결의와 관련한 국제공산당 및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의 과업에 대하여》라는 결의문에는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에 관한 당의 방침이 제시되여있다.(《쏘련공산당 대회, 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결의문집》, 1956년 인민출판사판, 제3분책, 39~51페지를 보라.) — 557페지

117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페닌그라드성 제22차대표자회의의 서한 (이것은 게.예.지노위예브, 엘.베.까메네브 및 그 추종자들의 분파적공격이였다.)에 대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모스크바위원회의 답장은 1925년 12월 20일부 《쁘라우다》지 제291호에 게재되였었다. —565페지

118 《시대의 철학》은 게.예.지노위예브가 1925년에 쓴 한 론문의 제목이다. 이 론문에 대한 쓰딸린의 비판에 대하여서는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7권, 313~316페지를 보라. — 581페지

119 이번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전원회의는 1926년 4월 6~9일에 소집되였다. 쓰딸린은 4월 9일전원회의의 오전회의에서 경제형편과 경제정책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연설하였으며 오후회의에서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전원회의의 1926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 584페지

120 로동자반대파는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내에 존재한 무정부주의적 급진로동조합주의집단으로서 아.게.슐랴프니꼬브, 에스.베.메드웨제브, 아.엠.꼴론따이를 핵심적인물로 한 이 집단은 1920~1921년에 직업동맹문제의 론쟁가운데서 형성되였다. 그들은 전반 인민경제의 관리사업을 직업동맹—전로생산자대회에 넘길것을 요구하고 인민경제의 운영기관은 모두 해당 직업동맹에서 선거할것과 당 및 정부의 기관은 직업동맹에서 내여놓은 립후보자를 소환할수 없다는것을 주장함으로써 인민경제분야에서의 당 및 무산계급국가의 지도적역할을 거부하였다. 그들은 당이 아니라 직업동맹이 로동계급의 최고조직형태라고 간주하면서 직업동맹을 쏘베트국가 및 공산당에 대립시켰다.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0차대회는 무정부주의적급진로동조합주의경향의 사상을 선전하는것은 당원의 칭호와 상용될수 없는 일이라는것을 확인하고 로동자반대파를 규탄하였다. —586, 642페지

121 체르위네쯔는 1922~1947년에 쏘련국가은행에서 발행한 은행권의

단위명칭이다. 이 은행권의 발행당시 1체르워네쯔의 금보유량은 10월혁명전의 경화 10루블에 해당하며 25%의 귀금속과 안정외화, 75%의 단기행표와 잘 팔리는 상품을 담보로 한다고 규정되여있었다. 체르워네쯔은행권의 류통은 1922~1924년 쏘련화폐제도개혁에 대하여 큰 역할을 하였다. —594페지

122 《공청동맹쁘라우다》(《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지는 쏘련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및 모스크바위원회의 기관지(일간신문)로서 1925년 5월 24일에 창간되였다. — 602페지

123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제7차확대전원회의는 1926년 11월 22일~12월 16일에 모스크바에서 소집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국제정세와 국제공산당의 과업에 관한 보고, 중국문제에 관한 보고, 영국문제에 관한 보고, 트레스트화, 합리화 및 이로부터 제기되는 직업동맹내의 공산당원들의 과업에 관한 보고, 쏘련공산당(볼쉐위크)의 당내문제에 관한 보고, 독일문제와 화란문제에 관한 보고 등을 토의하였고 또 마슬로브-루트 피쉐르사건, 브란들레르와 랄하이메르사건, 쑤와린사건을 심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정치위원회, 중국위원회, 영국위원회, 독일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들이 조직되였다. 쓰딸린이 정치위원회, 중국위원회 및 독일위원회의 위원으로 선거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의 당내문제에 관한 쓰딸린의 보고를 토의한후 뜨로쯔끼-지노위에브반대파동맹을 그 정강에 있어서 멘쉐위크의 립장에로 전락한 분렬주의자들의 동맹이라고 비난하였다. 전원회의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내의 반대파와 각국 공산당내의 그의 지지자들이 국제공산당과 쏘련공산당(볼쉐위크)대렬의 사상적 및 조직적 통일을 파괴하려는 온갖 시도를 반대하여 단호히 투쟁할것을 국제공산당 각 지부들에 요구하였다. 전원회의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내의 반대파동맹에 관한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의 결의를 비준하고 그것을 전원회의의 결의로서 전원회의의 결의문에다 첨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쏘련공산당(볼쉐위크)의 당내문제에 관한 쓰딸린의 보고와 이 보고와 관련한 결론은 1926년 12월에 《우리 당내

의 사회민주주의적편향을 다시한번 론함》이란 제목하에 단행본으로 발간되였다. — 632페지

124 취소파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내의 멘쉐위크-우경기회주의적파벌이다. 이 파벌은 1905～1907년 로씨야혁명이 실패한후의 스똘르삔반동시기에 산생되였으며 그 대표인물로는 뻬. 베. 악셀로드, 에프. 이. 단, 아. 엔. 뽀뜨레쏘브 등이였다. 《취소주의—이것은 〈당내의 일부 지식인들이 당의 현존조직체를 취소〔즉 해산, 파괴, 폐지, 정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싫지어 당의 강령, 전술, 전통〔즉 종전의 경험〕을 완전히 거절하면서까지도 그것을 합법적〔즉 《공개적》존재의〕범위내에서 활동하는 무정형적결합체로 바꾸어놓으려고 하는 시도〉이다》(《레닌선집》, 한문판, 제2판, 제2권, 458～459페지). 취소파는 무산계급정당내의 자유주의자산계급의 대리인들이다. 1912년 1월, 당의 제6차(쁘라하)전로대표자회의에서 취소파는 당대렬로부터 제명되였다. — 635페지

125 사회주의자특별취체법 즉 《사회민주주의자치안위해방지법》 또는 사회주의자취체법은 독일 비스마르크정부가 로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1878년 10월에 채택한 반동적법령이다. 이 법령에 의하여 독일사회민주당은 비합법적지위에 처하게 되였고 당의 일체 조직과 로동자단체는 취체당하였으며 사회주의적출판물들이 금지되였으며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탄압을 받았다. 독일사회민주당이 로동계급을 조직하여 장기적인 간고한 투쟁을 진행함으로써 반동당국을 협박하여 1890년 10월에 이 법령을 폐지하게 하였다.— 637페지

126 《사회민주주의자》(《*Der Sozialdemokrat*》)는 비밀적으로 발간된 독일사회민주당의 기관지(주간신문)로서 1879년 9월～1888년 9월에는 쮜리히에서 출판되였고 1888년 10월～1890년 9월에는 런던에서 출판되였다. 1880년까지는 게. 폴마르가 편집하였고 1881년부터는 에. 베른슈타인이 편집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당의 무산계급로선을 집행하도록 이 신문편집부를 협력하였으며 그것의 개별적인 오유와 동요에 대하여 비판하고 시정하여주었다. —637페지

127 아이제나흐파와 라쌀파는 19세기 60년대와 70년대초의 독일로동운동중의 두 당파이다. 아이제나흐파는 맑스주의의 지지자로서 웨. 렙크네히트와 아. 베벨의 령도밑에 1869년 아이제나흐대회에서 독일사회민주로동당을 창건하였다. 맑스와 엥겔스의 경상적인 지도를 받은 보람으로 아이제나흐파는 보다 철저한 혁명적정책을 실시하였고 더우기는 독일의 재통일문제에 있어서 시종 민주주의적이며 무산계급적인 립장을 견지하였다. 라쌀파는 독일소자산계급사회주의자 에프. 라쌀의 지지자이며 독일전국로동자련합회 성원들이다. 그들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혁명투쟁을 부인하고 프로씨아반동정부의 원조를 받는 생산조합에 의하여 자본주의가 평화적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할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일반선거권을 위한 투쟁과 의회활동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적투쟁을 대치할것을 주장하였다. 이 두 당파는 치렬한 투쟁끝에 1875년 고타대회에서 단일한 독일사회주의로동당으로 통합되였다. —637페지

128 국제공산당 제5차대회는 1924년 6월 17일～7월 8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이 대회에는 49개 공산당 및 기타 조직의 대표자 504명이 출석하였다. 대회에서는 국제공산당집행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문제, 세계경제정세에 관한 문제, 쏘련경제정세와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내에서의 론쟁에 관한 문제, 파쑈주의에 관한 문제, 로동조합운동에 있어서의 전술문제, 생산적장세포에 관한 문제 등이 로의되였으며 개별적나라들의 당에 관한 문제, 강령문제, 민족문제, 토지문제 및 기타 문제들이 로의되였다. 쓰딸린은 대회주석단 위원이였으며 몇몇 중요한 위원회들인 정치위원회, 강령위원회, 레닌주의에 관한 결의문초안작성위원회의 위원이였으며 뿔스까위원회의 위원장이였다. 대회는 뜨로쯔끼주의에 대한 볼쉐위크당의 투쟁을 지지하였으며 론쟁의 종화와 당내소자산계급적 경향에 관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3차대표자회의와 제13차대회의 결의문을 비준하였으며 그것을 국제공산당의 결의문으로 공포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회는 또 자본주의나라의 공산당들을 강화하며 볼쉐위크화함으로써 로동조합에 의거하는 참으로 대중적인

당으로 되게 함에 대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 643페지

129 전진파(전진집단)는 로씨야의 소환파, 최후통첩파, 창신파 및 마호주의자들로 이루어진 반당집단으로서 아아. 보그다노브 및 게. 아. 알렉신스끼의 발기에 의하여 1909년 12월에 조직되였으며 반당적간행물 《전진》론문집을 발간하였다. 주요성원들로는 웨. 엘. 샨께르, 아. 웨. 루나챠르스끼, 엠. 엔. 랴도브, 엠. 엔. 포끄롭스끼, 웨. 에르. 멘쥔스끼, 에프. 이. 갈리닌 등이였다. 1912년 1월 당의 쁘라하대표자회의후 그들은 멘쉐위크적취소파 및 뜨로쯔끼분자들과 련합하여 회의의 결의를 반대하였다. 전진파는 무원칙적으로 당을 반대한데서 로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1913년에 사실상 붕괴되였으며 1917년 2월혁명후에 이르러 해산되고말았다. — 643페지

130 호성파는 로씨야멘쉐위크들의 국외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의 호성》을 중심으로 하여 산생된 파벌조직이다. 신문 《사회민주주의자의 호성》은 1908년 2월～1911년 12월까지 처음에는 제네바에서 후에는 빠리에서 발간되였다. 편집자로는 베. 베. 악셀로드, 에프. 이. 단, 엘. 마르또브, 아. 마르띄노브 및 게. 웨. 쁠레하노브였다. 신문 《사회민주주의자의 호성》은 창간호부터 취소파분자들을 비호하였으며 그들의 반당활동을 변호하였다. 쁠레하노브는 이 신문의 취소파적립장을 비난하였으며 1908년 12월에 편집부로부터 탈퇴하였다. 그후 이 신문은 철두철미 취소파의 사상적중심으로 되였다. — 644페지

131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제15차대표자회의는 1926년 10월 26일～11월 3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국제정세, 국내경제정세와 당의 과업, 직업동맹의 사업총화와 당면과업, 반대파와 당내형편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는 중앙위원회의 정책을 승인하고 당의 통일을 고수하며 멘쉐위크주의의 립장에로 전락한 뜨로쯔끼-지노위에브동맹을 폭로하기 위하여 단호히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쏘련공산당(볼쉐위크)내의 반대파동맹에 대하여》라는 테제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8권, 191～205페지)는 쓰딸린이 1926년 10월 21～25일에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의하여 집필한것이다. 이 테제는 뜨로쯔끼·지노위에브반대파 동맹을 볼쉐위크당내의 사회민주주의적편향이라고 특징지었다. 테제는 정치국의 찬동을 받아 10월 26일에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열위원회의 전원련석회의에서 심의채택되였다. 11월 3일에 이 테제는 쏘련공산당 제15차대표자회의에서 그의 결정으로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였고 그날로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열위원회의 전원련석회의에서 비준되였다. — 645페지

132 총평의회는 영국로동조합대회의 집행기관으로서 처음으로 1921년에 카디프대회에서 선거되였다. — 647페지

133 《우리의 언론》(《*Наше Слово*》)은 멘쉐위크-뜨로쯔끼파의 신문으로서 1915년 1월～1916년 9월에 빠리에서 발간되였다. —658페지

134 제노아회의(제노아국제경제회의)는 1922년 4월 10일～5월 19일에 이딸리아의 제노아에서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쏘련,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벨지끄, 독일, 일본 등 29개국과 영국의 5개 자치령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미국대표는 관찰원으로서 참가하였다. 이 회의는 제1차세계대전후 자본주의가 총위기에 빠지고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제국주의국가의 무력간섭이 패배당한 정세하에서 열렸다. 제국주의국가들은 회의에서 쏘련정부가 짜리시대와 자산계급림시정부의 부채를 지불하며 대외무역의 독점을 폐지할것과 국유화된 외국인재산을 외국소유자들에게 반환할것을 쏘베트로씨야대표단에 강요하였다. 쏘베트로씨야대표단은 제국주의자들의 철면피한 요구를 거부하고 외국무력간섭으로 인한 손실배상을 요구하는 반대제안을 내놓았다. 이 회의에서는 아무 결말도 짓지 못하고 일부문제를 헤그회의의 심의에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회의기간에 쏘베트로씨야대표단은 독일과 각 자본주의나라사이의 모순을 리용하여 4월 16일에 량국의 외교관계설정을 규정하고 쌍방의 전시부채의 배상을 취소한 라빨로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제국주의의 반쏘

통일전선을 격파하였다. — 611페지

135 1926년 5월 3～12일에 단행되였던 영국로동자들의 총동맹파업을 가리킨다. 동맹파업에는 중요한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의 조직된 로동자 500여만명이 참가하였다. 쓰딸린은《영국의 파업 및 뽈스까 사건에 관하여》란 보고에서 이 동맹파업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쓰딸린전집》, 한문판, 제8권, 140～149페지를 보라.)— 673페지

136 떼르미도르(열월달이라고도 함.)는 프랑스국민공회가 1793년에 다시 반포한 혁명력서중의 열한번째 달인데 신력 7월 19～20일부터 8월 17～18일에 해당한다. 공화2년 열월달 9일, 즉 1794년 7월 27일에 열월달정변이 일어나 자꼬벵파의 혁명독재가 전복당하고말았으며 정권은 자산계급혁명민주주의자들의 수중에서 대자산계급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뜨로쯔끼반대파들은 떼르미도르주의란 말로 쏘련공산당(볼쉐위크)을 비방하였다. 이에 대하여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반대파는 우리 나라에 떼르미도르적변질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우리 나라에 무산계급독재가 없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도 정치도 다 파탄되고 퇴보하고있으며 우리는 사회주의에로가 아니라 자본주의에로 나아가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것은 물론 피상하고 어리석은 말이다.》(《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0권, 293～294페지) — 676페지

137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와 중앙검열위원회 전원련석회의는 1926년 7월 14～23일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영국의 총동맹파업, 뽈스까 및 중국의 사건과 관련하여 채택한 정치국결정의 통보, 쏘베트재선거에 대한 총화, 라쉐위치 등의 사건과 당통일, 주택건설, 곡물수매운동 등에 관한 정치국의 보고들을 심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 쓰딸린은 영국, 뽈스까 및 중국의 사건과 관련하여 채택한 정치국결정의 통보, 라쉐위치 등의 사건과 당통일에 관한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검열위원회 주석단의 보고 및 기타 문제들에 대하여 연설을 진술하였다. 전원회의는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국제공산당주재 쏘련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의 국제문제련

에서의 사업을 비준하였으며 전국의 정권건설 및 경제건설, 당생활 및 로동자상태 등 중대한 문제들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게.에.지노위에브의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직무를 해임하였다. — 676페지

138 웨딩파는 독일공산당내의 극좌익적집단의 하나로서 베를린시 서북부의 웨딩구역당조직내에 있었다. 웨딩반대파의 지도자들은 또멘 공산당(볼쉐위크)내의 쯔로쯔끼-지노위에브반대파동맹을 옹호하여 나섰다. 국제공산당집행위원회 제7차확대전원회의는 웨딩반대파를 준렬히 규탄하였으며 파벌활동을 완전히 중지하며 독일공산당에서 제명당하였고 독일공산당을 적대시하는 분자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며 독일공산당과 국제공산당의 결정에 절대로 복종할것을 이 반대파에 요구하였다. — 679페지

139 《라이프찌히인민신문》(《*Leipziger Volkszeitung*》)은 독일사회민주당의 일간신문으로서 1894년에 창간되였다. 1901년까지는 베.룩셈부르크가 지도하였고 1902～1907년까지는 에프.메링이 주필을 맡았었다. 이 신문은 제1차세계대전이전까지는 독일사회민주당좌익의 기관지였고 1917～1922년에는 독일독립사회민주당의 기관지였으며 1922년후에는 우익적독일사회민주당원의 기관지로 전락되였다.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하자 신문은 폐간당하였다. 1946년부터는 독일통일사회당 라이프찌히지역위원회의 기관지로 되였다.— 681페지

140 《사회주의통보》(《*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Вестник*》)는 10월혁명후 국외에 망명한 로씨야멘쉐위크들의 기관지로서 1921년 2월에 엘.마르또브에 의하여 창간되였다. 1933년 3월까지는 베를린에서 발간되였고 1933년 5월～1940년 6월에는 빠리에서 발간되였으며 그후에는 뉴욕에서 발간되였다. — 682페지

141 4월대표자회의 즉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제7차전국대표자회의는 1917년 4월 24～29일(신력 5월 7～12일)에 뻬뜨로그라드에서 진행되였다. 이것은 볼쉐위크가 첫번째로 진행한 합법적대표자회의로서 그 의의로 보아서는 한차례의 대회와 같았다. 회의는

레닌의 《4월테제》에 기초하여 전쟁 및 혁명의 모든 주요한 문제에 관한 당의 로선을 확정하였으며 자산계급민주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이행에 관한 당의 방침을 규정하였다. 회의는 전쟁, 림시정부에 대한 태도, 현정세, 당강령의 수정, 토지문제 등에 관하여 레닌이 제기한 일련의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쓰딸린은 회의석상에서 현정세에 관하여 제기한 레닌의 결정서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으며 민족문제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사회주의혁명을 반대한 엘.베.까메네브와 아.이.리꼬브의 투항주의적인 멘쉐위크주의립장을 비판하였으며 국경선을 폐지하고 민족자결권을 거부한 게.엘.빠따꼬브의 그릇된 립장을 비판하였다. —692페지

142 찜메르왈드좌파는 1915년 9월 국제사회주의자 제1차(찜메르왈드) 대표자회의에서 조직된 좌익국제주의자집단이다. 레닌을 수반으로 한 볼쉐위크당만이 찜메르왈드좌익집단에서 유일정확하고 시종일관하게 제국주의전쟁을 반대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 693페지

143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제12차대회는 1923년 4월 17～25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였다. 이것은 10월혁명후에 레닌이 병으로 인하여 참석할수 없었던 당대회였다. 그러나 대회는 자기의 결정들에서 레닌의 마지막 론문들과 서한들에서 제시한 교시들을 참작하였다. 대회는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앙검열위원회 사업총화보고, 국제공산당주재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대표단의 사업총화보고, 공업에 관한 보고, 당 및 국가 건설에 있어서의 민족문제에 관한 보고, 농촌에 있어서의 세수정책에 관한 보고, 행정구역획정에 관한 보고 등을 심의하였다. 대회는 2년이래 신경제정책실시결과를 총화하였으며 신경제정책을 사회주의적립장으로부터의 퇴각이라고 간주한 엘.베.뜨로쯔끼, 엔.이.부하린 및 그 지지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주었다. 대회는 조직문제와 민족문제에 크나큰 관심을 돌렸다. 쓰딸린은 4월 17일 오후회의에서 중앙위원회 조직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레닌의 제의에 의하여 로농검사원과 중앙검열위원회를 통합할데 관한 결의

를 채택하였다. 4월23일회의에서는 당 및 국가 건설에 있어서의 민족문제에 관한 쓰딸린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이 보고에 관한 토의는 4월 23일과 24일에 진행되였다. 4월 25일에는 쓰딸린의 테제를 기초로 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대회는 민족주의적편향분자들을 폭로하였으며 민족문제에 있어서의 두가지 편향—대로씨야배외주의 및 자산계급적지방민족주의—과 단호히 투쟁할것을 전당에 호소하였다. — 693페지

144 **목표전환파분자**는 10월혁명후 국외에 망명한 로씨야자산계급지식인들가운데서 조직된 정치집단의 성원들이다. 이 집단은 1921년 7월에 쁘라하에서 론문집《목표전환》을 발간한것과 1921～1922년에 빠리에서 잡지《목표전환》을 발간한것으로 인하여 목표전환파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였으며 그 대표인물들로는 립헌민주주의자 유.웨.클류치니꼬브, 엔.웨.우스뜨랄로브, 에스.에스.루끼야노브, 아.웨.보브리쉐브-뿌쉬낀, 에스.에스.차호낀, 유.엔.뽀께힌 등이였다. 목표전환파는 외국의 무력간섭에 의하여 쏘베트정권을 전복하려는것은 불가능하다는것이 실천에 의하여 증실되자 신경제정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쏘베트정권이 점차 자산계급정권으로 변질하기를 기대하고있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목표전환파는 수천수만의 모든 자산계급 또는 쏘베트공무원들 즉 우리의 신경제정책의 참가자들의 기분을 표현하고있다.》(《레닌선집》, 한문 제2판, 제4권, 636페지)—697페지

145 **네차예브주의**란 로씨야무정부주의자이며 바꾸닌파인 에스.게.네차예브가 주장한 음모수단과 테로주의의 전술이다. 1869년에 네차예브는 모스크바에서 인민징벌회란 음모조직을 설치하였는데 이 조직내에서는 독재적중앙집중제를 실시하였기때문에 그 성원들의 의사와 의견은 완전히 압제당하고있었다. — 707페지

146 **아락체예브식제도**란 19세기 첫 25년에 로씨야에서 실시되고있은 경찰의 폭행과 군벌의 만행제도이며 폭력으로 인민을 탄압하는 제도이다. 아락체예브제도는 그 제도를 실시한 륙군대신 아.아.아락체예브백작의 이름에서 유래한것이다. — 707페지

147 밀레랑주의는 일명 입각사회주의라고도 하는데 프랑스사회당원 아.에.밀레랑이 1899년에 반동적인 자산계급정부에 참가한데서 유래한것이다. 밀레랑주의는 사회민주당의 기회주의지도자들이 정치상에서 자산계급과 협력하며 혁명투쟁을 포기하고 무산계급의 리익을 배반한 확연한 표현으로서 《실천적인 베른슈타인주의》이다. — 770페지

148 쟈꼬벵파는 18세기말 프랑스자산계급의 혁명적민주주의파이다. 이 파의 지도자는 엠.로베스삐에르, 지.베.마라, 제.지. 당똥, 엘.아.쌩-쥬스트였다. 1793년 5월 31일～6월 2일의 승리적인 인민봉기는 지롱드파의 통치를 뒤엎고 그 정권을 쟈꼬벵파에게 넘겨주었다. 광범한 인민대중의 옹호밑에서 쟈꼬벵파는 혁명적민주주의독재를 확립하였고 또 봉건소유의 철폐, 반혁명활동의 진압, 외래침략자와 배격 등 정책을 실시하였다. 1794년 7월 27일의 열월달정변이 일어난후 쟈꼬벵파의 독재는 전복되고 쟈꼬벵파는 해산되였다. 레닌은 쟈꼬벵파를 《민주주의혁명의 가장 훌륭한 모범과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주련합에 대한 반격의 훌륭한 모범을 프랑스에 보여주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25권,107페지) — 794페지

인 명 색 인

ㄱ

갈린(加林 Галин)(알르슐레르—阿尔特舒勒 Альтшулер)—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4차대회 대표이며 멘쉐위크. —142페지

고린, 울라지미르 필리뽀위치(哥林, 弗拉基米尔·菲力波维奇 Горин, Владимир Филиппович 1863~1925)(본성은 갈긴—加尔金 Галкин) —로씨야의 직업혁명가로서 볼쉐위크. 19세기 80년대전반기에 인민의지파그루빠에 참가. 90년대 중기에 사회민주주의자로 됨.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는 이스크라지다수파분자. 대회후 멘쉐위크를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참가. 1917년 8월부터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페뜨로그라드위원회에서 사업하였으며 10월혁명직전에 군사위원회 위원을 담임하고 무장봉기준비사업에 참가함. 1918~1920년에 붉은군대에서 정치사업을 함. 1920년부터 군사훈련보급부에서 사업함. —46페지

골드블라트(戈尔德勃拉特) —메켐, 웨. 메. 를 보라.

게드, 쥘(盖得, 茹尔 Guesde, Jules 1845~1922)(본명은 바질, 마띠외—巴季尔, 马蒂约 Basile, Mathieu)—프랑스로동운동 및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로서 제2국제당의 수명의 한사람. 초기에는 자산계급공화주의자로서 빠리꼼뮨을 지지함. 19세기 70년대전반기에 무정부주의자를 따랐으나 후에 맑스주의를 접수하고 전파함. 1879년에 라파르그 등과 함께 프랑스로동자당을 창건하고 프랑스사회주의운동의 혁명파를 지도하였으며 기회주의와 투쟁함. 1893년에 하원 의원으로 선거됨. 1901년에 프랑스사회당(1905년에 프랑스의 사회당과 통합한후 프랑스통일사회당이라고 함.) 창건사업에 참가. 20세기초에 기회주의렙장으로 넘어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로서 자산계급정부에 참가함. —213, 214, 231페지

ㄴ

노스케, 구스타프(诺斯克, 古斯达夫 Noske, Gustav 1868~1946)—독일사회민주당의 기회주의수령의 한

사람.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1918년 독일11월혁명기간에 베를린의 로동자와 해병들의 봉기를 탄압하는데 가담한자로서 독일무산계급혁명운동을 압살한 피수의 한사람이며 칼 립크네히트와 룩쎔부르그를 살해한 사건의 책동자. 1919~1920년에 륙군부장을 담임. 카프반란을 비호한 관계로 사직. 후에 프로씨아의 한노웨르주 주장을 담임. —169, 279페지

니꼴라이2세(尼古拉二世 Николай II 1868~1918) (로마노브, 니꼴라이 알렉싼드로위치 —罗曼诺夫, 尼古拉 • 亚历山大罗维奇 Романов,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로씨야의 마지막황제(1894~1917년). —312페지

ㄷ

단, 표도르 일리이치(唐恩, 费多尔• 伊里奇 Дан, Федор Ильич 1871~1947)(본성은 구르위치—古尔维奇 Гурвич)—로씨야멘쉐위크의 수령의 한사람. 1894년에 사회민주주의운동에 참가하여 페제르부르그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에 가입. 1903년에 멘쉐위크의 수령의 한사람으로 됨. 스똘르삔반동시기에는 취소파의 수령으로서 취소파의 《사회민주주의자의 호성》의 편집.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1917년 2월혁명후에 뻬뜨로그라드쏘베트집행위원회 및 제1기중앙집행위원회 주석단위원을 담임하고 림시정부를 지지. 10월혁명후 쏘베트정권을 반대. 1922년초에 로씨야로부터 축출당하여 베를린에서 멘쉐위크의 반혁명활동을 지도. 1923년에 사회주의로동자국제당 창건에 참여. 1941~1947년에는 미국에서 멘쉐위크망명자들의 간행물인 《새길》잡지를 간행.—307, 347, 376, 682페지

담평산(谭平山 1886~1956) —초기에 중국동맹회에 가입하였고 1920년에 성립된 광주공산주의소조의 발기자의 한사람이였으며 1927년전에는 중국공산당 당원으로서 국제공산당집행위원회 제7차확대전원회의에 참석. 제1차국공합작시기에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중앙조직부 부장 및 무한국민정부 위원, 국민정부 농민부 부장 등 직을 담임. 장개석이 혁명을 배반한후 중국국민당 림시행동위원회(농공민주당의 전신)를 조직하는 사업에 참여. 1948년에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를 조직하는 사업에 참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창립된후 중앙인민정부 위원, 정무원 감찰위원회 주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등 직을 력임. —615, 625, 629페지

도즈, 찰즈 게이츠(道威斯, 查理 • 盖茨 Dawes, Charles Gates 1865~

1951)—미국의 정치가이고 은행가이며 공화주의자. 1923~1924년에는 독일의 배상금문제에 관한 국제전문가위원회 주석, 1925~1929년에는 부대통령. 1929~1932년에는 영국주재 미국대사를 담임. —395, 396, 400, 417페지

두호닌, 니꼴라이 니꼴라예위치(杜鹤宁, 尼古拉·尼古拉也维奇 Духонин,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1876~1917) —짜리로씨야의 장군이며 군주파분자. 1917년 9월에 로씨야 군대 최고총사령관의 참모장을 담임. 10월혁명후 최고총사령관으로 자칭. 독일-오지리지휘부와 즉시 강화할데 관한 쏘베트로씨야인민위원회의 1917년 11월 20일부 명령을 거부한 관계로 11월 22일에 파직당하고 12월 3일에 체포됨. 후에 의거한 병사들에게 맞아죽음. —234, 235페지

ㄹ

라드진(拉德津 Радзин) —1923년에 쏘련공산당(불쉐위크) 당내론쟁시에 《쁘라우다》지에 발표된 《당의 새로운 과업》이란 론문의 저자. —199페지

라데크, 칼 베른하르도위치(拉狄克, 卡尔·伯恩哈多维奇 Радек, Карл Бернгардович 1885~1939)—1903년부터 갈리찌야, 뽈스까와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운동에 참가.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국제주의적견지에 서기는 하였으나 중간파에로 동요함. 1917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불쉐위크)에 가입. 10월혁명후 외교인민위원부에서 사업. 일찌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비서를 담임. 로씨야공산당(불쉐위크) 제8차~제12차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피선됨. 1926년에 모스크바중산대학교 교장을 담임. 1918년에 《좌익공산주의자》로 되였고 1923년부터는 뜨로쯔끼파의 골간분자로 되였으며 1926년에 뜨로쯔끼-지노위에브반당동맹에 가담. 1927년에 출당되였다가 1930년에 재입당하였으나 1936년에 다시 출당됨. —359, 373, 374페지

라진, 스께빤 찌모페에위치(拉辛, 斯切潘·季莫费也维奇 Разин, Степан Тимофеевич 1630년경~1671) —돈강의 까자크로서 로씨야농민봉기의 수령. 1667년 봄에 까자크를 령솔하여 볼가강하류와 까스삐해지역으로 원정. 1670년 봄에 재차 원정을 조직. 아스뜨라한에서 봉기를 일으킨후 볼가강을 거슬러 북으로 올라가면서 연도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방대한 농민봉기부대를 이룸. 이 농민봉기는 로씨야의 광대한 지역을 휩씀. 봉기가 실패한후 잔여부대를 거느리고 돈강류역으로 돌아감. 1671년 4월에 변절자에게 결박당하여 짜리정부에 압송되였다가

그해 6월에 모스크바에서 희생됨. —609페지

라파르그, 뽈(拉法格, 保尔 Lafargue, Paul 1842~1911)—프랑스로동운동 및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이며 맑스주의의 탁월한 선전가 및 정론가이며 맑스와 엥겔스의 학생이고 전우이며 맑스의 딸 라우라의 남편. 1866년에 제1국제당에 가입하여 국제당 총무위원회 위원을 담임. 1871년 빠리꼼뮨시기에 보르도무산계급을 령도하여 꼼뮨을 수호. 꼼뮨이 실패한후 에스빠냐와 뽀르뚜갈로 망명하여 에스빠냐와 뽀르뚜갈 국제당지부의 설립에 참가하였으며 바꾸닌주의를 단호히 반대. 1879년에 게드 등과 함께 프랑스로동당을 창건. 1891년에 하원 의원으로 선거됨. 많은 저서들을 저술함. 맑스주의를 보급, 수호하고 개량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함. —213, 789페지

라파일(拉法伊尔 Рафаил 1893년에 출생)(본명은 파르브만, 에르. 베. 一法布曼, 尔·勃·Фарбман, Р. Б.)—1910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20년에 우크라이나공산당(불쉐위크) 중앙위원회 비서를 담임하였고 후에 모스크바국민교육국 국장을 담임. 1930년부터 광산무역주식회사 판리국 부국장과 인사처 처장을 담임. 1920~1921년에는 《민주주의중앙집권파》분자로 되었으며 1927년에는 뜨로쯔끼파의 골간분자로 됨. 1927년에 출당되였다가 1932년에 재입당하였으나 1933년에 다시 출당됨. —201, 204, 206, 207페지

라페스, 모이쎄이 그리고리에위치(拉费斯, 莫伊塞·格里哥里也维奇 Рафес, Моисей Григорьевич 1883~1942)—1899년부터 로씨야혁명운동에 참가하여 1903년에 분드에 가입하였으며 1912~1919년에 분드 중앙위원으로 됨. 1917년 2월혁명후에는 뻬뜨로그라드쏘베트집행위원회 위원. 1919년 여름에 로씨야공산당(불쉐위크)에 가입. 국내전쟁기간에는 붉은군대의 정위를 담임하였으며 그후 국제공산당 중앙기관에서 사업하면서 국제공산당 비서처 선전선동부 책임자로 있었음.—615, 625, 628페지

라쌀, 페르디난드(拉萨尔, 斐迪南 Lassalle, Ferdinand 1825~1864)—독일의 소자산계급사회주의자로서 독일로동운동의 기회주의인 라쌀주의의 창시자. 1848~1849년에 라인주의 민주주의운동에 참가. 1863년에 전 독일 로동자련합회의 창건에 참가하여 주석을 담임. 련합회 주석을 담임한 기간에 일반선거권을 쟁취하고 국가의 부조를 받는 로동자생산조합을 창설하는것으로써 로동자의 해방을 주장하는 기회주의로선을 실시함. 농민을 《반동

적일익》이라고 비난하고 로농동맹을 반대하며 철의 로임법칙을 설교함. 비스바르크와 비밀리에 결탁하고 프로씨아의 지배주의하에서 《우로부터》 독일을 통일하려는 그의 정책을 지지. 1864년 8월에 결투에서 죽음. —169, 173, 637페지

러노델, 삐에르(列诺得尔,比埃尔 Renaudel, Pierre 1871~1935)—프랑스사회당 개량주의의 수령의 한사람. 1906~1915년에 프랑스사회당의 기관지 《인도》의 편집을 담임하였다가 1915~1918년에는 이 신문사 사장을 담임. 1914~1919년과 1924~1935년에는 하원 의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사회당의 국제공산당가입을 반대하고 자산계급정부에 들어갈것을 주장. 1927년에 사회당의 지도직무를 그만둠. 1933년에 당에서 제명됨. —307페지

로마노브, 미하일 알렉싼드로위치(罗曼诺夫, 米哈伊尔·亚历山大罗维奇 Романов, 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78~1918)—로씨야의 마지막황제 니콜라이2세의 동생. —705페지

로젠홀쯔, 아르까지 빠블로위치(罗森彌尔茨, 阿尔卡季·巴甫洛维奇 Розенгольц, Аркадий Павлович 1889~1938)—1905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0월혁명기간에 모스크바군사혁명위원회 위원을 담임. 국내전쟁기간에는 일부 집단군과 전선의 혁명군사위원회 위원이였으며 후에 군사, 외교 및 쏘베르사업을 함. 1927년부터 전후로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검열위원, 후보중앙위원, 쏘련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등으로 피선됨. 1920~1921년 직업동맹문제에 관한 론쟁기간에 쯔로쯔끼의 강령을 지지. 1937년에 당에서 제명됨. —211페지

로케펠러일가(洛克菲勒家族 Rockefeller)—미국의 금융 및 공업 자본가족으로서 창시자는 존 데이위슨 로케펠러(约翰·戴维逊·洛克菲勒 John Davison Rockefeller 1839~1937). 1870년에 스탠더드석유회사를 창설하였으며 그후 석유공업을 주로 하는 대독점집단으로 점차 발전되여 대금융기구와 많은 대기업을 가지고 미국의 대내,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음. —281페지

로트쉴드일가(路特希尔德家族 Rothschild)—독일의 금융자본가족으로서 창시자는 마이에르 암쉘 로트쉴드 (迈尔·阿姆施尔·路特希尔德 Meyer Amschel Rothschild 1743~1812). 전쟁에 의한 돈벌이와 금융투기로써 치부한 이 일가는 선후로 빠리, 런던, 윈 등지에 은행을 설립하고 프랑스, 영국, 오지리 등 나라의 많은 철도, 보험회사 및 전기, 화학공업, 석유, 강철 등 기업

율 통제함으로써 팔방에 손을 뻗친 대규모의 은행집단으로 점차 발전됨. —281페지

룽게, 쟝(龙格, 让 Longuet, Jean 1876~1938)—프랑스사회당 및 제2국제당의 수령의 한사람으로서 맑스의 외손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중립을 취함. 1916년에 《인민신문》의 창간사업에 참여. 프랑스사회당의 국제공산당가입을 반대. 1920년부터는 프랑스사회당 중간파의 수령의 한사람. 30년대에 사회당과 공산당이 동맹하여 파쑈주의를 반대할것을 주장하고 반파쑈적 및 반전적 국제단체에 가입. —510, 796페지

룩쎔부르그, 로자(卢森堡, 罗莎 Luxemburg, Rosa 1871~1919)—독일로동운동 및 뽈스까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로서 독일사회민주당파 제2국제당좌익의 수령의 한사람이며 독일공산당의 창건자의 한사람. 뽈스까출생. 1893년에 뽈스까사회민주당의 창건사업과 지도사업에 참여. 1898년에 독일에 이주하여 독일사회민주당사업에 적극 참가하면서 베른슈타인주의와 밀레랑주의에 대하여 투쟁함.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국제주의자로서 스파르타크동맹의 창건사업과 지도사업에 참여. 1918년 독일11월혁명후 독일공산당 창건대회에 참석하여 그 대회를 지도함. 1919년 1월에 노스케비도당에게 살해됨. —169, 373페지

리베르, 미하일 이싸아꼬위치(李伯尔, 米哈伊尔·伊萨科维奇 Либер, Михаил Исаакович 1880~1937)(론성은 골드만—戈尔德曼 Гольдман)—로씨야의 분드의 수령의 한사람. 1902년부터 분드중앙위원회 위원.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는 반이스크라파 분자였고 대회후에 멘쉐위크로 됨. 1907년에 중앙위원으로 피선됨. 스똘르삔반동시기에는 취소파분자였으며 1912년에는 반당적8월동맹의 골간분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1917년 2월혁명후 뻬뜨로그라드쏘베트집행위원회 위원과 제1기중앙집행위원회 주석단 위원을 담임. 10월혁명을 적대시함. —376페지

리제(里泽 Riese)—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제7차확대전원회의에 참석한 독일대표. 독일공산당내의 반대파분자. —753페지

리워브, 게오르기 에브게니에위치(李沃夫, 格奥尔基·叶甫盖尼也维奇 Львов, Георгий Евгеньевич 1861~1925) —로씨야립헌민주당원으로서 대지주이며 공작. 1906년에 제1기국회대표로 선거됨.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전로지방자치기관련합회 주석을 담임하였으며 후에는 지방자치기관과 도시련합회의 지도자의 한사람. 1917년 3~7월에 림시

정부 수상을 담임. 10월혁명후 프랑스로 망명하여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무력간섭책동에 참여.—152페지

립크네히트,칼(李卜克内西, 卡尔 Liebknecht, Karl 1871~1919)—독일로동운동 및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이며 독일공산당의 창시자의 한사람으로서 웨. 립크네히트의 아들. I900년에 독일사회민주당에 가입하여 기회주의와 군국주의를 단호히 반대하였으며 후에는 이 당의 좌익지도자의 한사람으로 되였고 사회주의청년국제당의 창시자의 한사람. 1912년에 의원으로 피선됨.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국제주의자. 1914년 12월 2일에 제국의회에서 군비지불에 반대투표한 유일한 한사람. 스파르타크동맹의 창건사업과 지도사업에 참여. 1918년 독일11월혁명의 지도사업에 참여. 1919년 1월에 베를린로동자의 봉기를 지도하였으며 봉기가 실패된후 노스케도당에게 잡해됨. —169페지

립크네히트, 윌헬름(李卜克内西, 威廉 Liebknecht, Wilhelm 1826~1900)—독일로동운동 및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이며 독일사회민주당의 창시자와 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맑스와 엥겔스의 벗이며 권우. 1848년독일혁명에 참가한 공산주의자동맹의 성원이며 제1국제당의 성원. 1867년부터는 의원. 1869년에 베벨과 공동으로 독일사회민주로동당(아이제나흐파)을 창건하고 라쌀파를 반대하여 투쟁. 1868~1900년에 선후로 잡지《민주주간》및 신문《인민국가》지와《전진》지의 편집을 담임. 1870~1871년 프로씨아-프랑스전쟁기간에 국제주의적립장을 취하여 빠리꼼뮨을 수호. 1889년에 제2국제당 창건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군국주의를 단호히 반대함. —72, 213페지

레닌(울리야노브), 울라지미르 일리이치(列宁〔乌里杨诺夫〕, 弗拉基米尔·伊里奇 Ленин〔Ульянов〕, Владимир Ильич 1870~1924)—25, 26, 28~30, 35~43, 45~47, 50~56, 58, 62~69, 71, 72, 165~174, 175~177, 182, 208, 209, 215, 218~223, 224~235, 236~239, 241, 244~246, 249~258, 259~261, 264~281, 283~287, 297, 300, 301, 306, 308, 309, 311, 313~316, 320~323, 325~330, 335~338, 341~350, 355, 357~372, 376, 381, 385~394, 395, 396, 404, 410, 312~314, 421, 426, 427, 430~438, 442, 443, 448, 449, 455, 456, 460, 477, 481, 485, 486, 489, 490, 492~495, 502~520, 522, 525~552, 554, 555, 557, 558, 560, 561, 562, 565, 570, 573, 575~582, 586, 591, 599, 607, 616, 619, 622, 634, 635, 640, 643~

646, 651~653, 657~668, 674, 683, 688, 691~696, 698~703, 707~710, 713~716, 722~727, 730, 731, 734, 735~750, 752, 755, 769, 773, 777, 779~786, 796, 797페지

베위, 파울(勒维, 保尔 Levi, Paul 1883~1930) —독일사회민주주의자이며 변호사, 제1차세계대전까지는 사회민주당의 좌익이였으며 대전기간에는 스파르타크동맹 성원. 1919년에 독일공산당 창건사업에 참가하여 중앙위원으로 피선됨. 1920년에 의원으로 피선됨. 독일공산당내에서 우경기회주의적립장을 취함으로써 1921년 2월에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탈퇴하고 4월에 당에서 제명됨. 1922년에 다시 사회민주당으로 돌아감. —681, 682, 796, 페지

벤네르, 칼(伦纳, 卡尔 Renner, Karl 1870~1950) (필명은 슈프링게르, 루돌프—施普林格, 鲁道夫 Springer, Rudolf) —오지리정치가로서 오지리사회민주당우익의 수령이며 《오지리맑스주의》의 리론가 및 자산계급민족주의적《민족문화자치》리론의 조작자의 한사람. 1907년부터는 의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1919~1920년에 오지리수상을 담임하였고 1931~1933년에는 의장을 담임. 1945년에는 림시정부의 수뇌자였으며 1945~1950년에 오지리공화국대통령을 담임. —81, 98, 102, 103, 106~110, 112, 113, 120, 122, 160페지

벰멜레, 헤르만(雷梅勒, 赫尔曼 Remmele, Hermann 1880~1939)—독일공산당의 지도자의 한사람. 1897년에 독일사회민주당에 가입하였으며 청년로동운동의 발기자의 한사람. 1917년에 독일독립사회민주당 창건사업에 참여하였고 1920년에 독립사회민주당의 좌익을 따라 독일공산당에 가입. 1920~1933년에 독일공산당 중앙위원을 담임하였으며 후에 정치국 위원 및 비서처 비서를 담임. 1924년 2~4월에 독일공산당 주석을 담임. 1920~1933년에는 의원. 1926년부터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위원을 담임. 1932년에 비서처에서 탈퇴함. 같은 해 8월에 모스크바에 이주. —711페지

ㅁ

마르또브, 엘(马尔托夫, 尔·Мартов, Л. 1873~1923)(본명은 제데르바움, 율리 오씨뽀위치—策杰尔包姆, 尤利·奥西波维奇 Цедербаум, Юлий Осипович)—로씨야멘쉐위크의 수령의 한사람. 19세기 90년대에 사회민주주의운동에 참가. 1895년에 뻬쩨르부르그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의 창건사업에 참여. 《이스크라》지와 《서광》잡지의 창간준비사업 및 편집사업에 참가. 1903년 로

찌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기회주의적소수파를 지도하였으며 대회후에는 멘쉐위크의 수령으로, 멘쉐위크중앙기관의 지도성원 및 멘쉐위크간행물의 편집으로 됨. 스똘르삐삔반동시기에는 취소파분자로서 반당적8월동맹을 조직하는데 참가.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중간파분자. 1917년 2월혁명후 멘쉐위크국제주의자집단을 지도. 10월혁명후에는 쏘베트정권을 반대. 1919년에 전로중앙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되였으며 1919~1920년에는 모스크바쏘베트대표. 1920년에 독일로 망명하여 제2반국제당의 조직자의 한사람. 베를린에서 멘쉐위크의 잡지 《사회주의통보》를 간행. —25~29, 36, 37, 46, 63, 65~69, 71, 131, 225, 228, 337, 339, 347, 510, 634, 643, 701페지

마르띄노브, 알렉싼드르 싸모일로위치(马尔丁诺夫, 亚历山大·萨莫伊洛维奇 Мартынов, Александр Самойлович 1865~1935)(본성은 삐께르—皮凯尔 Пикер)—로씨야경제파의 수령의 한사람으로서 멘쉐위크이며 만년에는 로씨야공산당(불쉐위크) 당원. 19세기 80년대초에 인민의지당에 가입. 1889년에 체포되여 류형살이를 하게 되였으며 사회당 당원으로 됨. 1900년에 외국에 이주하여 경제파의 잡지 《로동자의 사업》의 편집을 담임하고 베닌의 《이스크라》를 반대함.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는 반이스크라파분자였고 대회후에 멘쉐위크로 됨. 스똘르삐삔반동시기에는 취소파분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중립을 취함. 1917년 2월혁명후에는 멘쉐위크의 국제주의자. 10월혁명후 멘쉐위크를 리탈함. 1918~1922년에 우크라이나에서 교편을 잡음. 1923년에 로씨야공산당(불쉐위크)에 가입. 1924년부터는 잡지 《국제공산당》의 편집위원. —34, 64, 141페지

마슬로브, 아르까지(马斯洛夫, 阿尔卡季 Маслов, Аркадий 1891~1941)(본명은 체메린스끼, 이싸아크—切美林斯基, 伊萨克 Чемеринский, Исаак)—독일공산당의 극좌파수령의 한사람. 1924년 4월에 그와 피쉐르를 수반으로 하는 교조주의적종파집단이 독일공산당중앙의 지도권을 장악하고 혁명의 저조기에 있어서의 당의 새로운 투쟁전술의 실지를 저애하고 당의 통일전선사업과 대중사업을 반대함. 1925년 가을에 지도직무에서 해임되고 1926년에 당에서 제명됨. 후에 정치무대에서 물러남. —687, 775페지

맑스, 칼(马克思, 卡尔 Marx Karl 1818~1883) —2, 41~44, 48, 53, 55, 59~61, 72, 96, 114, 116, 165, 166, 179, 213, 238, 244~247, 250, 254, 257, 258, 269,

270, 271, 278, 282, 283, 306, 314, 320, 330, 331, 387, 388, 503, 509, 520, 637, 713~721, 724~728, 734, 741, 779~786페지

모르간, 존 피어폰르(摩根, 约翰·皮尔庞特 Morgan, John Pierpont 1867~1943)—미국의 금융파두로서 대독점자본가이며 늙은 모간(존 피어폰트 모간 1837~1913)의 아들.—401페지

모간일가(摩根家族 Morgan)—미국의 금융자본가족으로서 창시자는 쥬니어스 스펜써 모간과 존 피어폰트 모간(늙은 모간). 19세기 60년대초에 영국에서 송금태환소를 설립하여 영국자본을 미국에 대량으로 수입. 20세기초에는 많은 트레스트를 조직하여 독점적지위를 수립. 그 세력이 대은행, 대보험회사, 철도회사, 군수공업, 항공공업, 전동기공업 등등에 미침. 미국의 대내, 대외 정책에 중대한 영향이 있음. —281페지

몰로또브, 바체슬라브 미하일로위치(莫洛托夫, 维亚切斯拉夫·米哈伊洛维奇 Молотов, Вячеслав Михайлович 1890년에 출생)(본성은 스크랴빈 —斯克里亚宾 Скрябин)—쏘련공산당 및 국가의 저명한 활동가. 1906년에 입당. 1912년에 《별》지에서 사업하다가 후에 《쁘라우다》지의 편집위원 및 비서를 담임. 1917년 2월혁명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로씨야국 위원을 담임. 1919년부터 니쥬니 노브고로드성집행위원회 주석,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도네쯔성위원회 비서 등 직을 담임. 1920년에 후보중앙위원으로 피선되였으며 1921년에는 중앙위원으로 피선됨. 1921~1930년에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비서를 담임. 1930~1941년에 쏘련인민위원회 주석을 담임. 1941~1957년에 쏘련인민위원회(내각) 제1부수상을 담임하고 수차 외교인민위원(상)을 겸임. 1926~1952년에는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정치국 위원. 1952~1957년에는 쏘련공산당 중앙주석단 위원을 담임. 1957~1960년에는 몽골주재 대사. —677페지

모디와니, 뽈리까르프 구르게노위치(穆迪瓦尼, 波利卡尔普·古尔格诺维奇 Мдивани, Поликарп Гургенович 1877~1937) —1903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18년말부터 1920년 3월까지 제11집단군 혁명군사위원회 위원, 제10집단군 정치부 주임을 담임. 1920~1921년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깝까즈국 위원을 담임. 1921년에 로이기주재 로씨야련방의교대표를 담임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 그루지야혁명위원회 주석을 담임. 1924년에 프랑스주재 쏘련상무대표를 담임. 1931~1936년에 그루지야쏘베트사

최주의공화국 최고국민경제위원회 주석, 정공업인민위원, 인민위원회 제1부주석 등 직을 역임. 1928년에 쯔로쯔끼파를 따른 관계로 출당되었다가 1931년에 재입당하였으나 1936년에 다시 출당됨. —694페지

미프, 빠웰 알렉싼드로위치(米夫, 巴维尔·亚历山大罗维奇 Миф, Паве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1901~1939)(본명은 포르뚜스, 미하일 알렉싼드로위치—福尔图斯, 米哈伊尔·亚历山大罗维奇 Фортус, 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1917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불쉐위크)에 가입. 1925년에는 모스크바중산대학교 부교장, 1927년부터는 교장을 담임. 1928년 3월부터 국제공산당 동방부의 책임자. 1929년부터 쏘련의 중국연구소를 지도. 1936년에 동방근로자공산주의대학교 교장을 담임하고 1937년에는 쏘련의 민족식민지문제연구소 소장을 담임. —615, 616, 622~624, 629페지

밀류쯔브, 빠웰 니꼴라예위치(米留可夫, 巴维尔·尼古拉也维奇 Милюков, Павел Николаевич 1859~1943)—로씨야립헌민주당의 수령으로서 력사학자이며 정론가. 1905년 10월에 립헌민주당 창건사업에 참가하였으며 후에 이 당 중앙위원회 주석 및 중앙기관지 《말》의 주필을 담임. 1907년부터 선후로 제3기 및 제4기 국회대표로 피선됨. 1917년 2월혁명후 림시정부의 외무상을 하면서 전쟁을 끝까지 진행하는 제국주의적정책을 실시. 1917년 8월에 꼬르닐로브반란책동에 가담. 10월혁명후 외국제국주의의 지지하에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무력간섭을 책동하다가 후에 외국으로 도주함.—152~154, 459, 682, 701페지

맥도날드, 제임스 램지(麦克唐纳, 詹姆斯·拉姆赛 Macdonald, James Ramsay 1866~1937)—영국의 정치가이며 레이버당의 수령의 한사람. 1886년에 페비안사에 가입. 1894년에 독립레이버당에 가입. 1900~1912년에 레이버당 주석, 비서 등 직을 담임하고 기회주의정책을 실시하면서 계급적협조를 고취. 1912~1924년에 레이버당의 재무원을 담임. 1906년에 처음 의원으로 피선됨.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평화주의적견지에 섬. 1924년에 제1기 레이버당정부의 수상을 담임하였고 1929~1931년에는 제2기레이버당정부의 수상을 담임. 1931~1935년에 보수당이 좌우하는 이른바 《국민내각》을 지도함. —279, 280, 445, 510, 622페지

메네니우스, 아그리파(梅涅尼·阿格利巴 Menenius Agrippa 기원전 493년에 사망)—로마의 귀족. 전설에 의하면 기원전 5세기초에 로마 평민들이 귀족의 압박에 항의하여 철거운동을 벌릴 때 그는 인체의

각 부분과 위가 갈라질수 없다는 우화로써 월거한 평민들을 로마로 돌아오도록 권고하였다고 한다. —790페지

메멤(그린베르그), 울라지미르 다위도위치(麦迭姆[格林贝格],弗拉基米尔·达维多维奇 Медем[Гринберг], Владимир Давидович 1879~1923)(골드블라트—戈尔德勃拉特 Гольдблат)—로씨야의 분드의 수령의 한사람. 1900년에 민스크분드조직에 가입. 1901년에 류형지에서 외외으로 도주. 1903년부터는 분드 국외위원회 위원.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는 반이스크라파분자. 1906년에 분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됨. 1907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멘쉐위크를 지지함. 10월혁명후에는 뻘스까의 분드조직의 수령. 1921년에 미국으로 가서 유태인우익사회주의자의 신문《전진》에 쏘베트로씨야를 반대하는 글들을 발표, —99, 119, 127, 141페지

ㅂ

바꾸닌, 미하일 알렉싼드로위치(巴枯宁, 米哈伊尔·亚历山大罗维奇 Бакунин, 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14~1876)—무정부주의의 창시자의 한사람이며 로씨야인민주의의 초기사상가. 1849년 5월에 독일에서 드레스덴봉기에 참가하였다가 10월에 체포됨. 1851년에 까티정부에 인도되여 감금기간에 까티에게《참회서》를 씀. 1861년에 씨비리류형지에서 런던으로 탈주. 1864년에 제1국제당에 가입하여 국제당내에서 비밀단체인 사회주의민주동맹을 조직하여 음모, 파괴 활동을 감행. 1872년 헤그대회에서 국제당으로부터 제명됨. —114, 637페지

바우에르, 오토(鲍威尔, 奥托 Bauer, Otto 1882~1938) —오지리사회민주당과 제2국제당기회주의의 수령의 한사람이며《오지리맑스주의》의 리론가 및 자산계급민족주의적《민족문화자치》리론을 내놓은 사람의 하나. 1907년에 사회민주당 의회 의원단 비서를 담임하고 같은 해에 사회민주당의 리론간행물인 잡지《투쟁》의 창간사업에 참가하였으며 1912년부터 사회민주당의 신문《로동자》의 편집을 담임. 1918년 11월~1919년 7월에 오지리공화국 외무상을 담임. 20년대초기에 제2반국제당과 사회주의로동자국제당의 창건사업에 참가. 의회의 길을 걸어 평화적이행을 주장하면서 무산계급혁명과 무산계급독재를 반대함. —81~86, 91, 94, 99, 100, 102, 103, 106~116, 119, 160, 503, 671, 796페지

보그다노브, 알베싼드르 알렉싼드로위치(波格丹诺夫, 亚历山大·亚历山大罗维奇 Богданов, Александ-

д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73~1928) (본성은 말리눕스끼—马林诺夫斯基 Малиновский)—로씨야의 철학자이며 경제학자. 1896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후에 볼쉐위크로 됨. 1905년, 1906년에는 중앙위원으로, 1907년에는 후보중앙위원으로 피선됨. 볼쉐위크의 신문들인 《전진》, 《무산자》와 《새생활》의 편집사업에 참가. 1905년 혁명이 실패한후 소환파와 전진파의 수령으로 됨. 철학면에서 자기의 체계—《경험일원론》(마호주의철학의 변종)을 수립하고 맑스주의철학의 기본명제를 수정하려 시도하였음. 1909년에 볼쉐위크조직에서 제명됨. 10월혁명후 모스크바대학에서 경제학을 교수. 1918년에 무산계급문화파의 사상가로 됨. 1926년부터 수혈연구소 소장을 담임.—635페지

부하린, 니꼴라이 이와노위치 (布哈林, 尼古拉·伊万诺维奇 Бухарин,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1888~1938) —1906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모스크바의 로동자구역에서 선동사업을 함. 1911년에 국외에 체류하면서 경제학을 연구. 1917년에 중앙위원으로 피선됨. 10월혁명후 중앙정치국 위원,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위원, 주석단 위원 및 《쁘라우다》지의 주필 등 직을 력임. 1918년에 《좌익공산주의자》집단을 조직하고 1920~1921년의 직업동맹에 관한 론쟁기간에 《완충》집단을 조직하였으며 1928년에는 뜨로쯔끼 등과 우경집단을 결성. 1929년에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정치국위원 및 국제공산당 주석단위원 등 직무에서 해임되고 1937년에 당에서 제명됨. —657, 660, 661, 704, 705페지

불되긴, 알렉싼드르 그리고리예위치 (布里根, 亚历山大·格里哥里也维奇 Булыгин, Александр Григорьевич 1851~1919)—로씨야의 관료. 1900~1904년에 모스크바 부총독을 담임. 1905년 1월에 내무대신을 담임. 국회를 소집하는것으로써 날로 앙양되는 혁명의 노도를 막으려는 시도에서 같은 해 8월에 자문성적인 국회를 소집할데 관한 법안 제정을 주최함. 1905년 10월에 사직. —172페지

블랑, 루이(勃朗, 路易 Blanc, Louis 1811~1882)—프랑스의 소자산계급사회주의자이며 력사학자. 1848년 혁명기간에 림시정부에 참가하여 이른바 《로동자문제를 연구하는》 뤽쌍부르위원회를 지도하고 라협적 정책을 실시하면서 로동자들을 혁명투쟁을 포기하도록 유인함. 1848년 8월에 영국에 망명하여 런던의 소자산계급망명자들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됨. 1870년에 귀국. 그

이듬해에 국민의회 의원으로 피선되여 빠리꼼뮨을 적대시함. 개량주의를 고취하고 자산계급국가의 부조를 받아 건립된 로동자생산협동조합에 의하여 자본주의사회를 개조하려고 환상함. —2페지

블랑끼, 루이-오귀스트(布朗基,路易·奥古斯特 Blanqui, Louis-Auguste 1805～1881)—프랑스의 혁명가이며 공상적공산주의자. 1830년 7월혁명과 1848년혁명에 참가하였고 여러 차례의 비밀봉기를 지도하였으며 사privet회 및 기타 비밀적혁명단체들을 조직, 지도함. 수차 체포되여 도형을 언도받고 옥중에서 근 반생을 보냄. 빠리꼼뮨시기에 반동들에 의해 베르싸이유에 감금되여있으면서 결석한 조건하에서 꼼뮨위원으로 피선됨. 그는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을 부정하고 소수인의 밀모에 의하여 자본주의제도를 전복하려 함. 맑스와 엥겔은 블랑끼의 혁명적업적을 높이 평가한 동시에 그의 오유와 밀모전술을 날카롭게 비판함.—173페지

블룸, 레옹(勃魯姆,莱昂 Blume, Léon 1872～1950)—프랑스의 정치가이며 프랑스사회당 수령. 1902년에 프랑스사회당에 가입.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적견지에 섬. 로씨야10월혁명을 적대시함. 1919년에 처음 의원으로 피선됨. 1920년에 프랑스사회당의 국제공산당 가입을 반대함으로써 이 당의 분렬을 조성함. 역시 프랑스사회당이라는 이름으로 새 당을 창건하고 지도함. 1928년에는 사회당 중앙기관지 《빠리인민》의 주필. 자산계급민주주의와 개량주의를 떠받들고 로동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반대하는 일련의 저서들을 집필. —796페지

베른슈타인, 에두아르드(伯恩施坦,爱德华 Bernstein, Eduard 1850～1932) —독일사회민주당과 제2국제당 기회주의의 수령의 한사람이며 수정주의리론가. 1872년에 독일사회민주로동당(아이제나흐파)에 가입. 1881～1890년에 당중앙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의 주필을 담임. 엥겔스가 서거한후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회민주당의 과업》이란 저서를 출판하여 맑스주의를 공공연하게, 전면적으로 수정. 1902년후부터 수차 의원으로 피선됨.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적견지에 섬. 로씨야10월혁명과 무산계급독재를 반대함. —8, 54, 62, 213, 214, 637, 648페지

베벨, 아우구스트(倍倍尔, 奥古斯特 Bebel, August 1840～1913) —독일로동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이며 독일사회민주당 및 제2국제당의 창건자와 수령의 한사람이며 맑스와 엥겔스의 벗이며 전우. 1867년부터 독일로동자동맹총동맹을 지도한 제1국제당의 성원.

수차 의원으로 피선됨. 1869년에 베.립크네히트와 함께 독일사회민주로동당(아이제나흐파)을 창건하였고 라쌀파를 반대하여 투쟁함. 1870~1871년 프로씨아-프랑스전쟁 시기에 국제주의적견지에 서서 빠리꼼뮨을 수호함. 19세기 90년대와 20세기초에 개량주의와 수정주의를 반대함. —69, 213페지

벨로보로도브, 알렉싼드르 게오르기에위치(别洛博罗多夫,亚历山大·格奥尔基也维奇 Белобородов, Александр Георгиевич 1891~1938)—1907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18년부터 우랄구역쏘베트집행위원회 주석, 남부전선주재 로동국방위원회 전권대표, 제9집단군혁명군사위원회 위원, 깝까즈로동군혁명위원회 부주석,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동남국 비서 등 직을 담임. 1919년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으로 피선됨. 1921년말부터 로씨야련방 부내무인민위원, 1923년부터는 내무인민위원을 담임. 1920년 9월부터 쯔로쯔끼파를 따름. 1927년에 출당당하였다가 1930년에 재입당하였으나 후에 다시 출당됨. —211페지

뵈크(贝克 Бык)—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당내의 반대파분자.—211페지

人

샤이데만, 필리프(谢德曼, 菲力浦 Scheidemann, Philipp 1865~1939)—독일사회민주당의 우익수령의 한사람. 1903년부터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단에 참가. 1911년부터는 독일사회민주당집행위원회 위원. 1913년부터는 이 당의 주요한 지도자의 한사람.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1918년 독일11월혁명기간에 베를린의 로동자와 해병들의 봉기를 탄압하는데 참여하였으며 1918~1921년 독일무산계급혁명운동을 탄압한 괴수의 한사람. 1919년 2~6월에 와이마르공화국련합정부 수상을 담임. —169, 279, 280, 307페지

손전방(孙传芳 1885~1935) —북양직계군벌. 1921년후 사장, 복건군무독리, 복건-절강순찰사 겸 절강-강소군무독리, 절강-복건-강소-안휘-강서 5성련합군 총사령 등 직을 력임. 제1차국내혁명전쟁기간에 상해로동자들의 무장봉기를 진압하였으며 그 군대의 주력은 1926년 강서성에서 국민혁명군에게 격파당함. 그후 봉계군벌 장작림에게로 가서 강소성, 산동성 등지에서 장개석, 풍옥상과 계속 작전. 1928년에 실패를 당하여 하북성 란주일대까지 퇴각하였으며 잔여부대는 염석산에 의해 재편성됨. —618, 620페지

슈메랄, 보후미르(什麦拉里,鲍胡米尔 Smeral, Bohumir 1880~1941) —체스꼬슬로벤스꼬로동운동과 국제

로동운동의 활동가이며 체스끄슬로벤스끄공산당의 창시자의 한사람. 1897년에 사회민주당에 가입한 이 당의 지도자의 한사람이며 중앙기관지 《인민의 권리》의 편집위원. 1921년에 체스끄슬로벤스끄공산당 창건사업에 참가하여 중앙위원으로 피선됨. 1922~1935년에는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위원이며 주석단위원. —479~481페지

슈트라쎄르, 요제프(施特拉塞尔, 约瑟夫 Strasser, Josef 1871~1933)—초기에는 오지리사회민주당좌파분자. 1912년에 기회주의를 반대한 소책자 《로동자와 민족》을 출판. 1918년에 오지리공산당에 가입. 1919~1924년에 신문 《적기》의 편집을 수차 담임. 후에 기회주의로 넘어가 페.베위의 우경기회주의적견해를 지지. 1931년에 퇴당함. —91, 149페지

슈틴네스일가(斯汀尼斯家族 Stinnes)—독일의 독점자본가족으로서 창시인은 후고 슈틴네스(胡果·斯汀尼斯 Hugo Stinnes 1870~1924). 1893년에 체취공업기업소를 경영.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군수공업을 운영하여 전쟁에서 치부함. 전쟁이 끝난후 1,500여개소의 공업기업소를 염가로 수매하여 방대한 콘체른을 창립. —281페지

슈프링게르, 루돌프(施普林格, 鲁道夫)—멘네르, 카.를 보라.

슈웨르니크, 니콜라이 미하일로위치(什维尔尼克, 尼古拉·米哈伊洛维奇 Шверник, Николай Михайлович 1888~1970) —쏘련공산당 및 국가의 활동가. 1905년에 입당. 10월혁명후 싸마라시쏘베트 주석, 동부전선 및 남부전선의 정치위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검열위원회 주석단 위원 및 로씨야련방 로농검사인민위원, 쏘련공산당(볼쉐위크) 페뜨그라드성위원회 비서 및 중앙서북국 비서 등 직을 역임. 1926~1927년에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비서를 담임. 1927~1928년에 쏘련공산당(볼쉐위크) 우랄성위원회 비서를 담임. 1930년후에는 전쏘직업동맹 중앙리사회 제1비서, 쏘련최고쏘베트 주석단 제1부주석 및 주석, 전쏘직업동맹 중앙리사회 주석,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검열 원회 위원장 등 직을 역임. 1925년부터 선후로 중앙위원, 중앙정치국 후보위원, 쏘련공산당 중앙주석단 위원을 담임. —584페지

스따로웨르 (斯塔罗维尔) —뽀뜨베쏘브, 아.엔.을 보라.

스똘뵈삔, 뾰뜨르 아르까지에위치(斯托雷平, 彼得·阿尔卡季也维奇 Столыпин, Петр Аркадьевич 1862~1911)—로씨야의 관료이며 대지주. 1906~1911년에 대신회의 주석겸 내무대신을 담임. 1907년에 《6.3정변》을 발동하여 제2기국회를 해

산하고 제 선거법을 반포함으로써 《스똘르삔반동시기》(1907~1910년)가 시작되여 혁명운동을 잔혹하게 탄압. 제 토지법을 반포하고 부농을 지지하여 농촌에서의 짜리전제제도의 기둥으로 삼음. 일부 개혁을 진행하는것으로 자산계급파 지주의 리익을 수호하고 전제제도를 공고히 하려 시도. 1911년에 사회혁명당원에게 암살됨. —230페지

스뚜교보, 인노껜찌 니꼴라에위치(斯土柯夫,英诺森·尼古拉也维奇Стуков, Иннокентий Николаевич 1887~1936)—1905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17년 2월혁명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뻬째르부르그위원회 위원, 모스크바구역위원회 위원, 상설위원회 위원 등 직을 력임. 10월혁명후에는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모스크바위원회선전고동부 부장, 모스크바로동자출판사책임편집 등 직을 력임. 1918년에는 《좌익공산주의자》. 1920~1921년에 《민주집중파》에 참가. 1927년에 뜨로쯔끼파에 가담. 후에 군사, 당 및 경제 사업에 종사함. —201, 209페지

스뜨루웨, 쁘뜨르 베른가르도위치(司徒卢威, 彼得·伯恩哈多维奇 Струве, Петр Бернгардович 1870~1944)—로씨야의 자산계급경제학자, 철학자 및 정론가로서 립헌민주당의 수령의 한사람. 19세기 90년대에 맑스주의와 로동운동을 자산계급의 리익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고취한 《합법적맑스주의》의 주요한 대표자. 20세기초에 자유자산계급파진영에 가담. 1902년부터 자유자산계급의 잡지 《해방》을 편집하였으며 자유자산계급파의 조직인 《해방단》의 리론가 및 조직자. 1905년후에는 립헌민주당의 수령의 한사람으로 됨.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로씨야제국주의의 대외침략을 고취. 10월혁명후 쏘베트정권을 적대시하고 제니낀과 우란겔의 반혁명란란에 가담. 후에 국외로 망명함. —41, 42, 388페지

丈

자뽀또쯔끼, 안또닌(萨波托茨基, 安托宁 Zápotocký, Antonín 1884~1957) —체스꼬슬로벤스꼬 공산당 및 국가의 활동가이며 작가. 1902년에 사회민주당에 가입하였으며 1919년부터는 사회민주당혁명파(맑스주의좌파)의 지도자의 한사람.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창건사업에 참가하였으며 1921년 5월에 중앙위원으로 선거되였고 1922년에는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담임, 1929~1939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 및 적색직업동맹 총비서를 담임. 1939~1945년에 히틀리분자들에게 감금됨. 1945~1950년에 직업동맹 중앙리사회 주석을

담임하였으며 1945년부터 체스끄슬로벤스끄공산당 중앙주석단(1945~1954년에는 정치국이라고 함.) 위원을 담임. 1948년 6월~1953년 8월에 체스끄슬로벤스끄공화국정부 수상을 담임하였고 1953년 3월부터 대통령을 담임. —479, 481페지

자쑬리치, 웨라 이와노브나 (查苏利奇, 维拉·伊万诺夫娜 Засулич, Вера Ивановна 1849~1919)—로씨야의 인민파운동 및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저명한 활동가. 1868년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여 1879년에 인민파조직인 로지재분배그루빠에 가입하고 1883년에 로동해방단 창건에 참가. 1900년에 《이스크라》지와 《서광》잡지 편집부에 들어감.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후 멘쉐위크의 수령의 한사람으로 됨. 스똘르삔반동시기에는 쥐소파분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10월혁명을 적대시함.—36, 37, 63~66, 71, 634페지

장작림(张作霖 1875~1928) —북양봉계군벌. 1911년 신해혁명후 봉천국민보안회 군사부 부부장을 담임. 1916년부터 봉천독군 겸 성장, 동북삼성 순찰사 겸 내몽골-신강경략사 등 직을 담임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지지하에 장기간 동북에 도사리고있음. 1924년 제2차직계-봉계군벌전쟁후에는 북양군벌정부를 한손에 틀어쥐였으며 1927년에 안국군정부를 수립하고 자칭 해육군대원수로서 공산주의자 리대소를 살해한 교형리. 1928년 장개석과 싸우다가 실패한후 동북으로 철거함.—618페지

장종창(张宗昌 1881~1932) —군벌. 1924년후 선무군 제1군 군장, 산동군무독판 등 직을 담임. 북벌전쟁기간에 군대를 거느리고 두차례나 남하하여 직계군벌 손전방을 지원. 1928년 5월에 장개석, 풍옥상의 련합진공하에 산동성에서 철거하고 9월에 그 부대는 하북성 란주지구에서 재편성됨. —618페지

장학량(张学良 1901년에 출생)—봉계군벌 장작림의 장자. 처음에는 봉계군벌의 장령이였으며 1928년에 장작림의 후임으로 동북삼성보안총사령을 담임하였다가 후에 당경국민당정부의 동북변방사령장관, 전국 륙해공군 부사령 등 직을 력임. 1936년 봄에 내전을 중지하고 일치하게 항일할데 관한 중국공산당의 주장을 접수하고 홍군과 협정을 맺음. 같은 해 12월 12일에 양호성장군과 손을 잡고 장개석에게 항일을 강요하는 서안사변을 발동. 후에 장개석에게 연금됨. —630페지

조지5세(乔治五世 George V 1865~1936) —영국의 국왕(1910~1936). —312페지

주바또브, 쎄르게이 와씰리에위치(祖巴托夫, 谢尔盖·瓦西里也维奇 Зу-

Батов, Сергей Васильевич 1864~1917)—짜리로씨야의 헌병대좌로서 《경찰사회주의》(주바또브주의)의 조작자. 1896~1902년에 모스크바보안처 처장을 담임하고 정치정찰망, 밀정별동대 등을 만들어 혁명단체를 파괴함. 1902년에 경찰사 특별국 국장을 담임. 1901~1903년에 경찰측지업동맹인 모스크바기계로동자호조협회와 싼크트 페제르부르그시 로씨야공장로동자대회 등을 조직하여 혁명투쟁을 이탈하도록 로동자들을 유인함. 1903년에 그의 리간정책이 파탄되고 내무대신을 반대하는 내부투쟁이 일어난데서 철직되여 류형당함. 1917년 2월혁명 기간에 집을 먹고 자살함. —41, 42페지

지노위에브, 그리고리 옙세에위치(季诺维也夫, 格里哥里·叶夫谢也维奇 Зиновьев, Григорий Евсеевич 1883~1936)(본성은 라도믜슬스끼—拉多梅斯尔斯基 Радомысльский) —1901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하여 1907년부터 중앙위원. 1908~1917년에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당중앙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 편집위원, 불쉐위크의 《무산자》의 편집위원을 담임. 스톨뵈빈반동시기에는 취소파, 소환파 및 뜨로쯔끼파에 대하여 타협적태도를 취함. 1917년 4월에 귀국. 10월혁명직전에 까메네브와 함께 무장봉기에 관한 당중앙의 결정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당의 봉기계획을 루설함. 10월혁명후 뻬뜨로그라드 쏘베트 주석, 중앙정치국 위원,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주석 등 직무를 담임. 1917년 11월에 멘쉐위크와 사회혁명당이 참가한 련합정부를 수립할것을 주장하였고 1925년에 《신반대파》를 조직하는데 가담하였으며 1926년에는 뜨로쯔끼와 반당련맹을 결성. 1927년에 당에서 제명됨. 후에 두번 재입당하였다가 두번 출당됨. —194, 503~506, 546, 547, 556~567, 575, 610, 660, 691, 697, 704~710, 713~725, 726~728, 732, 739~743, 750, 751, 753~754, 771~774페지

싱게르, 파울(辛格尔, 保尔 Singer, Paul 1844~1911) —독일사회민주당의 수령의 한사람으로서 제2국제당내의 맑스주의파의 저명한 활동가. 1878년에 사회민주당에 가입. 1887년부터 독일사회민주당 집행위원회 위원, 1890년부터는 집행위원회 주석을 담임. 1884~1911년에는 의원 및 사회민주당 의원단 주석. 1900년부터는 국제사회당 집행국 위원. —213페지

제니낀, 안똔 이와노위치(邓尼金, 安东·伊万诺维奇 Деникин, Антон Иванович 1872~1947)—짜리로씨야의 장군. 1917년 4~5월에 로씨

야군대의 최고총사령관의 참모장을 담임. 페트빌로브반란에 적극 참가. 10월혁명후 페트빌로브 등과 반혁명적《지원군》을 조직. 1918~1920년 외국무력간섭 및 국내전쟁 기간에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반혁명적《남부로씨야무장력》의 총사령관을 담임. 1920년 3월에 외국으로 도주. —206, 219, 220, 311, 319, 323, 614, 618페지

제르쥔스끼, 펠릭스 에드문도위치(捷尔任斯基, 费利克斯·埃德蒙多维奇 Дзержинский, Феликс Эдмундович 1877~1926)—쏘련 공산당 및 국가의 저명한 활동가이며 뻘스까와 리뜨와 사회민주당의 창건자의 한사람. 1895년에 입당. 일찍 뻘스까와 로씨야에서 당사업을 함. 1906년부터 중앙위원으로 피선됨. 1917년 2월혁명후 모스크바에서 당사업을 함. 10월혁명기간에 뻬뜨로그라드군사혁명위원회 위원과 무장봉기를 령도하는 당의 군사혁명총부 성원을 담임. 10월혁명후 전로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주석단 위원, 전로국방위원회 주석 등 직을 담임. 1921년에 로씨야련방 교통인민위원과 내무인민위원을 겸임. 1924년부터 최고국민경제위원회 주석을 담임. 1924년 6월부터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조직국 위원을 담임. —447페지

大

처칠, 윈스론(邱吉尔, 温斯顿 Churchill, Winston 1874~1965) —영국의 정치가로서 보수당의 수령. 1906~1917년에 부식민대신, 무역대신, 내무대신, 해군대신 및 군수대신을 력임. 1918~1921년에 륙군 및 공군 대신을 담임한,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무력간섭의 책동자의 한사람. 1921~1922년에 식민대신을 담임. 1924~1929년에 재정대신을 담임. 1939년에 해군대신을 담임. 1940~1945년에 련합정부 수상을 담임하였으며 1940~1955년에는 보수당의 수령. 1951~1955년에 수상을 담임. 1955년에 수상 및 보수당 수령의 직무를 그만두고 저술에 종사함. —418페지

체르노브 위또르 미하일로위치(切尔诺夫, 维克多·米哈伊洛维奇 Чернов, Виктор Михайлович 1873~1952)—로씨야사회혁명당의 수령 및 라론가의 한사람. 1902~1905년에 사회혁명당 중앙기관지《혁명적로씨야》의 편집을 담임.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적견지에 섬. 1917년 5~8월에 림시정부의 농업부장을 담임. 1918년 1월에 립헌회의 주석을 담임하였고 같은 해 여름에 우파립헌회의 위원회를 지도하였으며 쏘베트를 반대하는 반란책

동에 가담. 1920년에 국외로 도주하여 쏘베트정권을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함. —307, 376, 610, 701페지

체임벌린, 오스텐(张伯伦, 奥斯汀 Chamberlain, Austen 1863~1937)—영국의 정치가로서 보수당 당원. 1892년에 하원 의원으로 피선됨. 1903~1906년과 1919~1921년에는 재정대신, 1915~1917년에는 인도사무대신, 1924~1929년에는 외무대신을 담임하였으며 1925년의 《로까르노공약》의 조작자. —445페지

ㅋ

카프, 월프강(卡普, 沃尔弗冈 Kapp, Wolfgang 1858~1922)—독일 융케르지주와 군벌의 대표자. 1917년에 반동적조국당을 조직하는데 참가. 1920년 3월에 반동적군주파의 군사정변을 책동하여 한시기 베를린을 점령하고 그를 우두머리로 하는 정부를 수립하였다가 로동자들의 동맹파업에 의해 전복됨. —326페지

카쯔(卡茨 Katz)—독일공산당의 극좌파분자, 1926년에 당에서 제명됨. —687페지

카우쯔키, 칼(考茨基, 卡尔 Kautsky, Karl 1854~1938)—독일사회민주당의 수령으로서 제2국제당 수정주의 리론가. 1875년에 오지따사회민주당에 가입하였다가 후에 독일사회민주당에 가입. 1883~1917년에 독일사회민주당의 리론간행물인 《신시대》잡지의 주필을 담임. 19세기 80~90년대에 맑스주의를 보급, 해석하는 저서들을 집필하였으나 일부 기회주의적견해들도 폭로됨. 1910년후부터 점차 기회주의적립장으로 넘어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초제국주의리론을 내여놓았으며 세계대전기간에는 중간파의 기치를 들고 제국주의전쟁을 옹호함. 1918년후에 《무산계급독재》 등 저서를 발표하여 로씨야10월혁명을 공격하고 무산계급독재를 반대함. — 31, 38, 42, 48, 53~58, 70~72, 116, 159, 173, 179, 213, 214, 231, 246, 252, 253, 259, 281, 331, 503, 504, 510, 549, 692, 729, 734페지

커즌, 죠지 나세널(寇松, 乔治·纳萨涅尔 Curzon, George Nathaniel 1859~1925) —영국의 정치가로서 보수당의 수령의 한사람. 1899~1905년에 인도총독을 담임하고 인도의 민족해방운동을 잔혹하게 탄압함. 1915~1918년에 정부와 의회의 직무를 담임. 1919~1924년에 외교대신을 담임하였으며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무력간섭을 책동한자의 한사람. 1920년 뽈스까-쏘련전쟁기간에 붉은군대가 1919년 12월 8일 련합국 최고회의에서 규정한 뽈스까동부변계선(이른바 커즌선)을 넘지 말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쏘베트로씨야정부에 보내였으며 1923

년 5월에 또 쏘련에 최후통첩을 내어 재모운 무력간섭을 하겠다고 위협함. —197, 221페지

코르쉬, 칼(科尔施, 卡尔 Korsch, Karl 1886~1961)—독일공산당 국회파의 수령의 한사람이며 철학자. 1926년에 독일공산당에서 제명됨. 1928년후에는 정치무대에서 물러나 철학연구에 종사함. —678, 679, 686, 687, 775페지

쿠겔만, 루드위히(库格曼, 路德维希 Kugelmann, Ludwig 1830~1902)—독일사회민주주의자로서 의사이며 맑스와 엥겔스의 벗. 제1국제당 성원. 1848년독일혁명에 참가. 맑스를 협조하여 《자본론》을 출판하고 보급함. 1862~1874년에 맑스와 자주 서신거래를 하면서 독일의 형편을 알려줌. —282, 387페지

클라인즈, 죤 로버트(克莱因斯, 约翰·罗伯特 Clynes, John Robert 1869~1949) —영국레이버당수령의 한사람. 1893년에 독립레이버당에 가입. 1906~1931년, 1935~1945년에 의원을 담임.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1918년에 식량대신을 담임. 1924년과 1929~1931년에 선후로 국새관리대신, 내무대신을 담임하고 로동자를 반대하는 정책을 실시함. —307페지

ㄷ

토마스, 제임즈 헨리(托马斯, 詹姆斯·亨利 Thomas, James Henry 1874~1949)—영국의 정치가이며 직업동맹활동가로서 레이버당의 수령의 한사람. 1917~1931년에 전국철도종업원동맹 총비서를 담임. 1910~1936년에는 의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1920~1924년에 개량주의적인 암스테르담직업동맹 국제주석을 담임. 1921년부터 수차 영국로동조합 총리사회에 선거되여 들어감. 1924~1931년의 여러기의 레이버당정부에서 식민대신, 국새관리대신, 취업대신, 자치령대신 등 직을 담임하였으며 1931~1936년에는 보수당정부에서 자치령대신 및 식민대신을 담임. —647페지

탠너, 재크(坦纳, 杰克 Tanner, Jack 1890년에 출생) —영국로동조합의 수령의 한사람. 1918년부터는 기계제조공, 조선로동자, 금물로동자총동맹의 지도자의 한사람. 1920년에 국제공산당 제2차대회에 참석. 같은 해에 영국공산당에 가입. 1921년후에는 레이버당을 떠름. 1939~1954년에 기계제조공총동맹 주석을 담임. 40년대말부터는 영국로동조합의 우익분자로서 공산당을 반대하는 견지에 섬. —527, 548페지

ㅍ

폴마르, 게오르그 하인리히(福尔马尔, 格奥尔格·亨利希 Vollmar,

Georg Heinrich 1850～1922)—독일사회민주당의 기회주의분파의 수령의 한사람이며 기자. 1876년에 사회민주당에 가입하여 1879～1880년에 이 당 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의 주필을 담임. 1881년부터 의원 및 바이에른방의회 의원으로 수차 피선됨. 자산계급과 협력하고 정부와 타협할것을 고취하고 사회민주당과 자유파의 련합을 주장함.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658페지

푸리에, 샤를(傅立叶, 沙尔 Fourier, Charles 1772～1837)—프랑스의 위대한 공상적사회주의자. —2페지

풍옥상(冯玉祥 1882～1948)—신해혁명후 북양군벌 륙군의 려장, 사장, 섬서성과 하남성의 독군 및 륙군 검찰사 등 직을 력임. 1924년 제2차직계-봉계군벌전쟁기간에 북경정변을 발동하여 자기 부대를 국민군으로 고치고 총사령 겸 제1군 군장을 담임. 1925년에 서북변방의 독판으로 있으면서 국민군 제1군을 서북륙군으로 재편성함. 1926년 3～4월에 직계, 봉계 등 군벌들의 합동타격과 제국주의의 공갈, 간섭하에 하남, 직에, 천진, 북경에서 물러남. 1926년 4월에 국민당에 가입하여 선후로 국민군련군 총사령, 남경정부 행정원 부원장 겸 군정부 부장을 담임. 9.18사변후 항일을 찬성. 1933년 5월에 공산당과 협력하여 장가구에서 민중항일동맹군을 조직하고 총사령을 담임. 만년에 계속 공산당과 협력함. —2페지

피쉐르, 루트(费舍, 路特 Fischer, Ruth 1895～1961)(본명은 아이슬레르, 엘프리데 艾斯勒, 埃尔弗里德 Eisler, Elfriede)—독일공산당의 극좌파수령의 한사람. 1924년 4월에 그와 마슬로브를 비롯한 교조주의종파집단이 독일공산당 중앙의 지도권을 장악하고 혁명의 저조기에 당의 새로운 투쟁전술의 실시를 저애하였으며 당의 통일전선사업과 대중사업을 반대함. 1925년 가을에 지도직무를 철소당함. 1926년에 당에서 제명됨. —775페지

ㅎ

힌덴부르그, 파울(兴登堡, 保尔 Hindenburg, Paul 1847～1934)—독일의 정치가이며 원수.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동부전선의 독일군 사령관, 총참모장 등 직을 담임. 1918년에 독일11월혁명을 탄압하는데 가담. 1925～1933년에 와이마르공화국 대통령을 담임. 1933년에 히틀러에게 내각을 조직하게 함으로써 모든 정권을 파쇼분자들의 수중에 넘겨줌. —417페지

힐퀴트, 모리스(希尔奎特, 莫里斯 Hillquit, Morris 1869～1933)—미국사회당의 창건자의 한사람이며 변호사. 1888년에 사회주의로동당에

가입. 당내의 혁명파를 반대하여 1901년에 개량주의적인 사회당을 창건함. 1904년부터는 국제사회당 집행국 위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로씨야10월혁명을 적대시하고 붕산주의운동을 반대함. —510페지

헬페르딩, 루돌프(希法亭, 鲁道夫 Hilferding, Rudolf 1877~1941)—오지리사회민주당, 독일사회민주당 및 제2국제당 기회주의의 수령의 한사람이며 《오지리맑스주의》의 리론가. 1907~1915년에 독일사회민주당 중앙기관지 《전진》의 편집을 담임. 1910년에 《금융자본》이란 저서를 발표.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중간파분자였으며 1917년에 독일독립사회민주당 당원으로 됨. 전쟁후 맑스주의를 로골적으로 수정하면서 《조직적인 자본주의》라는 리론을 내여놓음. 1924년부터는 의원. 1923년과 1928~1929년에 와이마르공화국정부의 재정부장을 담임. 파쇼가 등장한후 프랑스로 망명.—510페지

헤르쪼그(赫尔措格 Herzog)—독일공산당 당원. —395~401페지

헨드슨, 아서(韩德逊, 阿瑟 Henderson, Arthur 1863~1935)—영국레이버당의 수령의 한사람. 1911~1934년에 레이버당 비서를 담임하였고 1908~1910년, 1914~1917년에 레이버당 의회의원단 주석을 담임.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1915~1917년에 선후로 애스퀴스와 로이드-죠지정부에 입각하여 교육대신, 체신대신, 무임소대신 등 직을 담임. 1919년에 베른국제당 창건사업에 참가하였고 1923년부터 사회주의로동자국제당 집행위원회 주석을 담임. 1924년과 1929~1931년에 맥도날드정부에 두번 입각하여 선후로 내무대신과 외무대신을 담임. —279, 307페지

П

까메네브, 레브 보리쏘위치(加米涅夫, 列夫·波里索维奇 Каменев, Лев Борисович 1883~1936)(본성은 로젠펠드—罗森费尔德 Розенфельд)—1901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후에는 볼쉐위크. 스똘르삔반동시기에 취소파, 소환파 및 뜨로쯔끼파에 대하여 타협적태도를 취함. 1917년 2월혁명후 당의 사회주의혁명방침을 반대함. 10월혁명직전에 지노위에브와 함께 무장봉기에 관한 당중앙의 결정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당의 봉기계획을 루설함. 10월혁명후 전로중앙집행위원회 주석, 모스크바쏘베트 주석, 인민위원회 부주석 및 중앙정치국 위원 등 직을 담임. 1917년 11월에 볼쉐위크와 사회혁명당이 참가한 련합정부를 수립할것을

주장하였고 1925년에 《신반대파》를 조직하는데 가담하였으며 1926년에는 뜨로쯔끼-지노위에브반당동맹을 조직하는데 가담. 1927년에 당에서 제명됨. 후에 두번 제입당하였다가 두번 출당됨. —517, 518, 565, 691~699, 703~706, 749, 750, 751, 753, 754, 766, 769, 771~775페지

까스첼란스끼(卡斯切梁斯基 Кастелянский)—저서 《현대국가민족운동의 형태》의 편집자. —117페지

깔레진, 알렉세이 막씨모위치(卡列金,阿列克塞·马克西莫维奇 Калединъ, Алексей Максимович 1861~1918)—까리로씨야의 장군. 1917년 6월에 돈강 까자크군대의 통솔자로서 반혁명적군정부의 수반. 1917년 8월에 모스크바국무회의에서 혁명을 탄압할데 관한 강령을 제출. 쁘르넬로브반란의 골간분자. 10월혁명후 백파의 《지원군》을 조직하는데 가담하고 까자크반란을 책동한 돈강 까자크반혁명의 두령의 한 사람. 붉은군대와의 작전에서 실패를 거듭하자 1918년 1월에 자살함. —158페지

꼬르닐로브, 라브르 게오르기예위치(科尔尼洛夫, 拉甫尔·格奧尔基也维奇 Корнилов, Лавр Георгиевич 1870~1918)—까리로씨야의 장군이며 군주파분자. 1917년 7~8월에 로씨야군대의 최고총사령관을 담임. 이해 8월에 반혁명반란을 발동. 반란이 평정된후 체포투옥되였다가 11월에 돈강류역으로 도주하여 백파의 《지원군》을 조직하는데 가담하였고 후에 사령관을 담임. 전투중에서 사살됨. —157, 295, 326, 376, 397, 382, 410페지

끄쁘스끼, 울라지미르(科索夫斯基, 弗拉基米尔 Косовский, Владимир 1870~1941)—로씨야분드의 수령의 한사람. 1897년에 분드창립대회에 참가하여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피선되고 분드의 중앙기관지 《로동자의 웨침》의 주필을 담임.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는 반이스크라파분자였으며 대회후에는 멘쉐위크로 됨. 스톨르삔반동시기에는 취소파분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10월혁명후 국외로 도주. —98, 125, 141, 142페지

끌리조브, 데(科尔佐夫, 德·Кольцов, Д. 1863~1920)(본명은 긴즈부르그, 보리스 아브라모위치—金兹堡, 波里斯·阿布拉莫维奇 Гинзбург, Борис Абрамович)—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이며 멘쉐위크. 1880년에 인민의지당에 가입. 80년대 후기부터 사회민주주의운동에 참가. 1908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는 이스크라지 소수파분자였으며 대회후에 멘쉐위크의 골간분자로 됨.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1917년

꼬르닐로브, 라브르 게오르기예위치(科尔尼洛夫, 拉甫尔·格奧尔基也维奇 Корнилов, Лавр Георгиевич 1870~1918)—까리로씨야의 장군이며 군주파분자. 1917년 7~8월에 로씨야군대의 최고총사령관을 담임. 이해 8월에 반혁명반란을 발

2월혁명후 뻬뜨로그라드쏘베트 로동위원을 담임. 10월혁명을 적대시함. —141페지

콜챠크, 알렉싼드르 와씰리에위치(高尔察克, 亚历山大·瓦西里也维奇 Колчак, Александр Василье-вич 1874～1920)—짜리로씨야의 해군대장이며 군주파분자. 1916년에 흑해함대사령관을 담임. 10월혁명후 외국제국주의의 지지하에 스스로 로씨야의 최고집정관으로 임명하고 우랄, 씨비리 및 극동에서 지주-자산계급의 군사독재정부를 수립. 1919년에 반란을 평정하는 붉은군대에게 포로되여 1920년 2월 7일에 총살당함. —206, 219, 220, 311, 319, 323, 547, 548, 614, 618페지

꾸뚜조브, 이완 이와노위치(库图佐夫, 伊万·伊万诺维奇 Кутузов, Иван Иванович 1885～1943)—1917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에 가입. 1917년 2월혁명후 모스크바쏘베트 위원, 모스크바방직업직업동맹 주석을 담임. 1918년에 방직업직업동맹 중앙위원회 주석을 담임. 1920년에는 전로중앙집행위원회 주석단 위원. 1920～1921년에 《로동자반대파》를 따름. 그후 전로직업동맹중앙리사회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당조위원회 위원과 전로직업동맹 중앙리사회 주석단 위원, 전로중앙집행위원회 국가신용대부 및 예금업촉진위원회 주석을 담임.—544페지

크릴렌꼬, 니꼴라이 와씰리에위치(克雷连柯, 尼古拉·瓦西里也维奇 Крыленко, 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1885～1938)—1904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페쩨르부르그, 모스크바 등지에서 당사업을 함. 1917년 6월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전선 및 후방 군사조직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중앙위원회 전로군사조직국 위원으로 피선됨. 10월혁명후 뻬뜨로그라드군사위원회 위원, 륙해군사무위원회 위원, 최고총사령관 등 직을 담임. 1918년부터 전로중앙집행위원회 최고혁명재판소 소장, 로씨야련방 부검찰장, 검찰장, 사법인민위원 등 직을 담임. 1936년부터 쏘련사법인민위원을 담임. —234, 235페지

께렌스끼, 알렉싼드르 표도로위치(克伦斯基, 亚历山大·费多罗维奇 Керенский, Александр Федорович 1881～1970)—로씨야자산계급림시정부 수반으로서 사회혁명당원. 1912～1917년에 제4기국회대표이며 로동파의원단 수령. 제1차세계대전 기간에는 호국파분자. 1917년 2월혁명후 자산계급림시정부에 참가하여 1917년 3～5월에는 사법부 부장, 5～9월에는 륙해군부 부장, 7월 21일부터는 수상을 담임하였고 9월 12

일부터는 로씨야군대 최고총사령관을 겸임. 10월혁명후 쏘베트정권을 반대함. 1918년에 국외로 도주. —152~154, 170, 176, 233, 295, 296, 307, 325, 379, 513, 614페지

ㅌ

뚜라띠, 필리뽀(屠拉梯, 菲力浦 Turati, Filippo 1857~1932)—이딸리아로동운동의 활동가로서 이딸리아사회당의 창시자의 한사람이며 이당의 우익수령. 1896년부터는 의원으로서 의회내의 사회개량파를 지도.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중립을 지킴. 로씨야10월혁명을 적대시함. 1922년에 이딸리아사회당이 분렬된후 개량주의적인 통일사회당의 수령으로 됨. 1926년에 프랑스로 망명함. —510페지

뜨로쯔끼, 레브 다위도위치(托洛茨基, 列夫·达维多维奇 Троцкий, Лев Давидович 1879~1940)(본성은 브론슈떼인—勃朗施坦 Бронштейн)—1897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는 이스크라소수파분자였으며 대회후 멘쉐위크와 함께 볼쉐위크를 반대함. 1905년에 빠르부스와 함께 반닭스주의적인 《부단혁명》론을 제기하고 고취함. 스똘르삔반동시기에는 조화파의 자태로 나타났으나 실지로는 취소파의 전지에 섬. 1912년에 반당적8월동맹을 조직.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중립을 지킴. 1917년 2월혁명후 구련파에 가입하였다가 제6차당대회에서 구련파를 따라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에 집단으로 가입하여 중앙위원, 정치국위원으로 피선됨. 10월혁명후 외교인민위원, 륙해군인민위원, 혁명군사위원회 주석 등 직을 력임. 1918년에 브레스트강화조약의 체결을 반대. 1920~1921년에 직업동맹문제에 관한 론쟁을 일으킴. 레닌이 서거한후 반당적분파활동을 진행. 1925년에 륙해군인민위원 및 혁명군사위원회 주석 등 직무에서 소환되여 최고국민경제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주석 및 임대총위원회 주석을 담임. 1926년에 지노위예브와 반당동맹을 결성한 관계로 1927년에 당내외의 일체 직무에서 해임되고 당에서 제명됨. 1929년에 국외로 축출당함. 국외에서 당과 국가를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함. 메히꼬에서 죽음. —199, 201, 213~217, 354, 356, 359~362, 366~375, 380, 386, 387, 340, 430, 431, 433, 438, 493~495, 563, 643, 644, 657~663, 667~672, 677, 691~696, 702~706, 710~713, 732, 774~750, 752~759, 761~765, 770, 771~774페지

떠슈까, 얀(梯什卡, 扬 Tyszka, Jan 1867~1919)(본명은 요기헤스, 레오

—约吉希斯, 利兴 Jogiches, Leo) —뽈스까와 독일의 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 1893년에 뽈스까왕국과 리뜨와의 사회민주당 창건사업에 참가하여 총집행위원회 위원을 담임. 1905년에 로씨야혁명에 적극 참가. 1907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후보중앙위원으로 피선됨.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국제주의자. 1916~1918년에 체포되여 투옥됨. 1918년 독일11월혁명때 석방되였고 후에 독일공산당 창건사업에 참가하여 중앙위원회 비서로 피선됨. 1919년 3월에 체포되여 감옥에서 사형당함. —165페지

ВВ

빠닌, 엠(帕宁, 马·Панин, М. 1876년에 출생)(본명은 마까쥬브, 마르크 싸울로위치—马卡久勃, 马尔克·萨乌洛维奇 Макадзюб, Марк Саулович)—로씨야의 멘쉐위크.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는 이스크라지소수파분자. 1905년 5월에 멘쉐위크조직위원회(즉 멘쉐위크중앙)에 들어감. 스똘르삔반동시기에는 취소파분자. 1917년 2월혁명후에 뻬뜨로그라드쏘베트 집행위원회 위원을 담임. 10월혁명후 정치무대에서 물러남. —105페지

빠르부스, 알렉싼드르 라자레위치(帕尔乌斯, 亚历山大·拉扎列维奇 Парвус, Александр Лазаревич 1869~1924)(본성은 겔판드—格尔方德 Гельфанд)—로씨야태생의 로씨야멘쉐위크. 1886년에 스위스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독일에 이주. 90년대말에 독일사회민주당에서 사업하면서 이 당의 좌익에 접근. 20세기초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사업에 참가.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후 멘쉐위크로 됨. 1905년에 로씨야로 돌아옴. 반맑스주의적《부단혁명론》의 조작자의 한 사람. 스똘르삔반동시기에 사회민주당에서 퇴출함. 후에 독일에 이주.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로서 독일제국주의의 앞잡이였으며 군수품장사로 치부함. 1915년부터 베를린에서 반동적잡지《종소리》를 발간. —374, 481페지

빠따쁘브, 게오르기 메오니도위치(皮达可夫, 格奥尔基·列昂尼多维奇 Пятаков, Георгий Леонидович 1890~1937)—1910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우크라이나와 국외에서 당사업을 함. 1917년 2월혁명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끼예브위원회 주석을 담임하였으며 당의 사회주의혁명방침을 반대함. 10월혁명후 우크라이나림시로농정부 주석을 담임하고 1918년에는 우크라이나《좌익공산주의자》를 지도함. 1920년부터 중앙돈바쓰석탄공업관리국 국장, 국가계획위

원회 및 최고국민경제위원회 부주석 등 직을 역임. 1920~1921년 직업동맹에 관한 론쟁기간에 트로쯔끼의 강령을 지지. 1923년부터는 트로쯔끼파의 골간분자. 1927년에 출당되였다가 1928년에 재입당하였으나 1936년에 다시 출당됨.—201, 209, 212페지

뽀뜨레쏘브, 알렉싼드르 니꼴라예위치(波特列索夫,亚历山大·尼古拉也维奇 Потресов,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1869~1934)(필명은 스따로웨르—斯塔罗维尔 Старовер)—로씨야멘쉐위크의 수령의 한사람. 19세기 90년대에 페제르부르그 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에 참가. 1900년에 신문《이스크라》와 잡지《새광》의 창간사업에 참가.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후에는 멘쉐위크로 됨. 스똘르삔반동시기에는 취소파의 사상가.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10월혁명후 국외로 망명하여 쏘베트정권을 반대함. —36, 37, 63, 65, 66, 71, 339, 347, 634, 643, 644페지

뿌엥까레, 레몽(彭加勒, 雷蒙 Poincaré, Raymond 1860~1934)—프랑스의 정치가이며 변호사. 1887~1903년에는 하원 의원이였으며 1893년부터 프랑스정부에 수차 입각함. 1912~1913년에 수상을 담임하였고 1913~1920년에는 대통령을 담임.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전쟁을 끝까지 진행할것을 주장. 로씨야10월혁명후 쏘베트로씨야에 대한 외국의 무력간섭의 책동자의 한사람. 1922~1924년 및 1926~1929년에 수상을 담임하면서 독일을 분할(1923년에 루르지구를 점령)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구라파에서의 프랑스의 지배권을 수립하려 시도함. —312페지

뽀뜨르대제(彼得大帝 Петр Великий 1672~1725)(즉 뽀뜨르1세 彼得一世 Петр I)—로씨야의 황제로서 전로씨야의 최초의 황제(1682~1725년). —588페지

뿌가쵸브, 예멜리얀 이와노위치(普加乔夫, 叶梅利扬·伊万诺维奇 Пугачев, Емельян Иванович 1742년경~1775)—돈강의 까자크로서 로씨야농민봉기의 수령. 1773년 8월에 구원받은 뽀뜨르3세황제로 자칭하고 야이쯔끼지구의 까자크마을에서 까자크의 봉기를 일으킴. 이 농민전쟁은 로씨야의 광범한 지역을 휩씀. 1774년 8월에 봉기가 실패하자 잔여부대를 거느리고 외볼가초원지대로 퇴각하였으나 9월에 변절자에 의해 짜리정부로 압송되여 그 이듬해 1월에 모스크바에서 희생됨. —609페지

쁘루동, 삐에르 죠제프(蒲鲁东, 比埃尔·约瑟夫 Proudhon, Pierre-Joseph 1809~1865)—프랑스의 정론

가로서 속물적 경제학자 및 사회학자이며 소자산계급사상가이고 무정부주의의 창시자의 한사람. 1848년 혁명기간에 헌법제정의회 의원으로 선거됨. —43페지

쁘레오브라젠스끼, 에브게니 알렉세에위치(普列奥布拉任斯基, 叶甫盖尼·阿列克谢也维奇 Преображенский, Евгений Алексеевич 1886~1937)—1903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917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 제6차대회에서 당의 사회주의혁명의 방침을 반대. 10월혁명기간에는 우랄구역의 당지도자였으며 국내전쟁기간에는 제3집단군 정치부주임을 담임. 1918년에는 《좌익공산주의자》. 1920년에 중앙위원으로 피선되고 후에 중앙위원회 비서를 담임. 1920~1921년 직업동맹에 관한 론쟁기간에 쯔로쯔끼의 강령을 지지함. 1921년부터 선후로 당중앙위원회와 인민위원회의 재정위원회 주석, 교육인민위원부 직업교육총국 국장 등 직을 담임. 1923년부터는 쯔로쯔끼파의 골간분자. 1927년에 출당되였다가 1929년에 재입당하였으나 후에 다시 출당됨. —201, 203, 207~209페지

쁠레하노브, 게오르기 왈렌찌노위치(普列汉诺夫, 格奥尔基·瓦连廷诺维奇 Плеханов, Георгий Валентинович 1856~1918)—로씨야의 최초의 맑스주의선전가이며 로씨야로동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로서 후에는 멘쉐위크와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의 수령의 한사람으로 됨. 19세기 70년대에 인민파운동에 참가한 인민파의 조직인 로지및자유그룹파의 성원이며 로지재분배파의 지도자의 한사람. 1883년에 로씨야의 최초의 맑스주의단체인 로동해방단을 창건하였으며 맑스와 엥겔스의 많은 저서들을 번역, 소개함으로써 로씨야에서의 맑스주의의 전파에 큰 역할을 놈. 많은 우수한 맑스주의저저서들을 집필하여 인민파, 《합법적맑스주의》, 경제파, 마흐주의를 비판함. 20세기초에 레닌과 함께 신문《이스크라》와 잡지《서광》을 편집함.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후 점차 멘쉐위크에로 넘어감. 1905년 혁명시기에 레닌의 민주주의혁명전술을 반대함. 후에는 멘쉐위크와 볼쉐위크사이에서 동요함. 스똘르삔반동시기에 취소주의를 반대하고 멘쉐위크의 호당파를 지도함.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의 견지에 섬. 1917년 2월혁명후 볼쉐위크당의 사회주의혁명방침을 반대함. —36, 37, 63~68, 125, 173, 225, 228, 231, 255, 257, 634페지

삘리냐크, 보리스 안드레에위치(皮尔尼亚克, 波里斯·安德列也维奇 Пильняк, Борис Андреевич 1894

~1937)(본성은 워가우—沃高 Boray)—쏘련작가. —350페지

뻬쯔로브(彼得罗夫 Петров 1892~1939)(본명은 바스끌리니꼬브, 표도르 표도로위치—拉斯科尔尼科夫,费多尔·费多罗维奇 Раскольников, Федор Федорович)—1910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0월혁명후 부해군인민위원, 해군인민위원, 볼가-까스삐해함대 및 발적해함대의 사령원 등 직을 담임. 1920~1921년의 직업동맹문제에 관한 론쟁기간에 뜨로쯔끼의 강령을 지지. 1921년후 아프가니스탄주재 쏘련의 교대표, 《청년근위대》와 《붉은처녀지》잡지의 편집, 국제공산당 동방부 책임자 등 직을 담임. 1930~1938년에 에스또니야, 단마르크, 벨가리아에서 외교사업에 종사함. —615페지

从

싸프로노브, 찌모페이 울라지미로위치(萨普龙诺夫, 季莫费·弗拉基米罗维奇 Сапронов, Тимоф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1887~1939) —1912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에 가입. 10월혁명후 모스크바성집행위원회 주석,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우랄국 비서, 국가건축공자위원회 주석, 소인민위원회 주석, 최고국민경제위원회 부주석, 전로중앙집행위원회 주석단 위원 등 직을 력임. 1922년에 중앙위원으로 선거됨. 1918년에는 《좌익공산주의자》였으며 1920~1921년의 직업동맹에 관한 론쟁기간에 《민주집중파》를 조직, 지도하고 1923년에 뜨로쯔끼의 46인성명에 서명하였으며 1925~1927년에는 《신반대파》와 뜨로쯔끼-지노위에브반당동맹의 골간분자이며 15인집단(민주집중파)의 수령. 1927년에 출당되였다가 후에 재입당하였으나 1932년에 다시 출당됨. —201, 210~212페지

쏘린, 울라지미르 고르제에위치(索凌, 弗拉基米尔·哥尔杰也维奇 Сорин, Владимир Гордеевич 1893~1944)—1917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볼쉐위크)에 가입. 1918년에 페르뿌호브현위원회 비서를 담임한 《좌익공산주의자》. 1918년후 동방전선혁명재판소 소장,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모스크바성위원회 위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모스크바위원회 위원, 상설위원회 위원 등 직을 력임. 1924년부터 신후로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레닌연구원과 맑스, 엥겔스, 레닌연구원에서 사업함. —527, 546페지

쑤하노브, 엔(苏汉诺夫, 尼·Суханов, Н. 1882~1940)(본명은 김메르, 니끌라이 니끌라예위치—吉姆美尔,尼古拉·尼古拉也维奇 Гиммер,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로씨야의 경제학자이며 정론가. 초기에는

인민파분자였고 1903년부터는 사회혁명당 당원이였으며 1917년부터는 멘쉐위크. 잡지 《로씨야의 부》, 《동시대인》에 기고함.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국제주의자. 1917년 2월혁명후 자산계급림시정부를 지지하였으며 《신생활》지의 편집의 한사람. 뻬뜨로그라드쏘베트집행위원회 위원. 제1기전로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등 직을 담임. 10월혁명후 쏘베르경제기관에서 사업함. 1920년이전에는 멘쉐위크국제주의자에 속함. 1922~1923년에 《혁명수기》를 발표하여 로씨야에 사회주의를 실현할 경제적전제가 없다고 설교함. 1931년에 멘쉐위크의 비밀조직에 참가한 관계로 도형을 받음. —560, 562, 765, 766페지

쑤와린, 보리스(苏瓦林, 波里斯 Souvarine, Boris 1895~1968)—프랑스사회당원이며 기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중간파분자. 1921년에 프랑스공산당에 가입. 1924년에 뜨로쯔끼파분파활동을 한 관계로 당에서 제명됨. 후에 프랑스뜨로쯔끼파수령의 한사람. 1929년에 뜨로쯔끼주의와 관계를 끊고 정치무대에서 물러남. —679, 686, 687, 695, 775페지

ㅆ

쩨레쩰리, 이라클리 게오르기에위치(策列铁里, 伊拉克利·格奥尔基也维奇 Церетели, Ираклий Георгиевич 1881~1959)—로씨야멘쉐위크수령의 한사람. 1907년에는 제2기국회대표이며 사회민주당의원단 수령. 스똘르삔반동시기에는 취소파분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중간파분자. 1917년 2월혁명후 뻬뜨로그라드쏘베트집행위원회 위원, 제1기전로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등 직을 담임. 1917년 5~7월에 림시정부 체신부 부장을 담임하였고 7월사변후에는 내무부 부장을 담임하였으며 볼쉐위크를 탄압한 주모자의 한사람. 10월혁명후에는 립헌회의에서의 쏘베르를 반대하는 동맹의 수령이였으며 후에는 그루지야멘쉐위크반혁명정부수반의 한사람. 1921년에 국외로 도주하였고 1923년에 사회주의로동자국제당의 조직에 참가. 만년을 미국에서 보냄. —307페지

ㅇ

아들레르, 프리드리히(阿德勒, 弗里德里希 Adler, Friedrich 1879~1960) —오지리사회민주당우익수령의 한사람으로서 《오지리맑스주의》의 리론가이며 파우. 아들레르의 아들. 1907~1911년에는 쮜리히대학교 부교수였고 1910~1911년에는 스위스사회민주당기관지 《인민의 권리》의 편집을 담임하였으며 1911~1916년에는 오지리사회민주당 비서

를 담임.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중립을 취함. 1918년후부터 개량주의를 로골적으로 설교함. 1921년에 제2반국제당 창건에 참가하였으며 1923~1940년에 사회주의로동자국제당 집행위원회 비서를 담임. 철학에서는 마호의 신봉자. —796페지

아들레르, 빅토르(阿德勒, 维克多 Adler, Victor 1852~1918)—오지리사회민주당의 창시자 및 수령의 한사람. 19세기 80년대중기에 로동운동에 참가. 1886년에 《평등》지를 창간하고 1889년부터 오지리사회민주당 중앙기관지 《로동자》의 편집을 담임. 1889~1895년기간에 엥겔스와 서신거래를 함. 엥겔스가 서거한후 얼마 안되여 개량주의로 넘어가 제2국제당의 기회주의의 수령의 한사람으로 됨. 1905년부터는 의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중립을 취하고 《계급의 평화》를 고취함. 1918년에 오지리정부의 외교부 부장직을 한시기 담임함. —213, 214페지

아우에르, 이그나쯔(奥艾尔, 伊格纳茨 Auer, Ignaz 1846~1907)—독일사회민주당의 지도자의 한사람. 1874년부터 독일사회민주로동당(아이제나호파)의 비서를 담임하였으며 1875년에 이 당이 라쌀파와 통합한후 독일사회주의로동자당 비서를 담임. 수차 의원으로 피선됨. 후에 개량파로 넘어가 독일사회민주당의 기회주의파 수령의 한사람으로 됨. —648페지

악셀로드, 파웰 보리쏘위치(阿克雪里罗得, 巴维尔·波里索维奇 Аксельрод, Павел Борисович 1850~1928)— 로씨야멘쉐위크의 수령의 한사람. 19세기 70년대에 인민파운동에 참가. 1883년에 로동해방단의 창건사업에 참가. 1900년부터 《이스크라》지와 《서광》잡지의 편집위원을 담임.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후 멘쉐위크사상가로 됨. 스똘르삔반동시기에는 취소파의 수령의 한사람. 1912년에 반당적8월동맹에 참가.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1917년 2월혁명후 페뜨로그라드쏘베트 집행위원회 위원을 담임하고 자산계급림시정부를 지지함. 10월혁명후 국외로 망명하여 쏘베트정권을 반대함. —36, 37, 63, 65~69, 71, 174, 225, 228, 339, 347, 634페지

안(阿恩 Ан 1869~1953)(본명은 조르다니야, 노이 니콜라예위치—饶尔丹尼亚, 诺依·尼古拉也维奇 Жордания, Ной Николаевич)—로씨야 그루지야멘쉐위크의 수령의 한사람. 19세기 90년대에 남부깝까즈의 최초의 사회민주주의단체인 《메싸메다씨》에 가입.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는 이스크라지소수파분자. 1906년에는 제1기국회대표이며 사회민주당 의

원단의 수령. 1907년에 멘쉐위크를 대표하여 중앙위원으로 피선됨. 스톨늬삔반동시기에는 취소파를 지지함. 1914년에 뜨로쯔끼의 잡지《루체》에 기고함.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사회배외주의자. 1917년 2월혁명후 찌플리스쏘베트 주석을 담임. 1918~1921년에는 그루지야멘쉐위크반혁명정부의 주석. 1921년에 국외로 망명. —36, 37, 45, 50~61, 131~136페지

알리스끼, 아르까지 오씨뽀위치(阿尔斯基, 阿尔卡季·奥西波维奇 Альский, Аркадий Осипович 1892~1939)—1908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0월혁명후 위로네쥬, 미뜨와, 배로씨야와 모스크바 등지의 재정부문에서 지도사업을 하였으며 후에 로씨야공산당(불쉐위크) 중앙등록배치처 처장을 담임. 1921~1927년에 선후하여 로씨야련맹 및 쏘련재정인민위원부 부인민위원과 부무위원을 담임. 그후 경제사업에 종사함. 1923년부터 뜨로쯔끼를 옹호하여 뜨로쯔끼파의 골간으로 됨. 1927년에 출당되였다가 1930년에 재입당하였으나 1933년에 다시 출당됨. —211페지

야겔로, 에브게니 이오씨포위치(亚格洛, 叶甫盖尼·约瑟佛维奇 Ягелло〔Jagiello〕, Евгений Иосифович 1873년에 출생)—뽈스까로동운동의 활동가로서 뽈스까사회당(좌파) 당원. 1912년에 제4기국회대표로 피선되여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단에 참가함. 제1차세계대전이 끝난후 뽈스까로동운동의 좌익에 가담하였다가 후에 정치무대에서 물러남. —150페지

야로슬랍스끼, 에멜리얀 미하일로위치(雅罗斯拉夫斯基,叶梅利扬·米哈伊洛维奇 Ярославский, Емельян Михайлович 1878~1943) —쏘련공산당의 활동가로서 력사학자이며 정론가. 1898년에 입당. 10월혁명기간에는 모스크바군사혁명위원회 위원으로서 모스크바무장봉기의 지도자의 한사람. 1918년에 모스크바군구 정치위원을 담임. 1919~1922년에 빼름성위원회 주석, 로씨야공산당(불쉐위크) 중앙씨비리국 위원을 담임하였고 1921년에는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담임하였으며 1923~1934년에는 중앙검열위원회 비서를 담임. 쏘련중앙집행위원회 위원, 베닌연구원 원무위원을 담임. 1919년부터 선후하여 후보중앙위원, 중앙위원, 중앙검열위원으로 피선됨.—704페지

야끄블레브,야끄브아르까지에위치(雅柯夫列夫, 雅柯夫·阿尔卡季也维奇 Яковлев, Яков Аркадьевич 1896~1938)(본성은 에프슈떼인—爱泼斯坦 Эпштейн) —1913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불쉐위크)에 가입. 페뜨로그라드 등지에서 당사

업을 함. 10월혁명후 선후로 하리꼬브, 에까쩨리노슬라브, 끼예브 등지에서 당파쏘베르의 지도사업을 함. 1918~1920년에는 우크라이나공산당(불쉐위크) 중앙정치국 위원으로서 우크라이나지역의 지하공작을 지도함. 1920년후에는 정치교육총위원회 회무위원, 로씨야공산당(불쉐위크) 중앙선전선동부 부부장, 부로농검사인민위원, 농업인민위원, 쏘련공산당(불쉐위크) 중앙농업부 부장 등직을 력임. 1924년후에는 쏘련공산당(불쉐위크) 중앙검열위원 및 중앙위원으로 피선됨. —559, 562, 564페지

어키르, 존 베슬리(厄克特, 约翰·莱斯利 Urquhart, John Leslie 1874~1933) —영국의 금융가, 산업가 및 광산기사. 1896~1906년에 로씨야 바꾸유전에서 기사로 있다가 후에 로씨야에서 운영하는 일부 영국회사의 리사, 로씨야-아르메니야련합회사의 리사장, 일부 대규모 채취기업의 기업주. 10월혁명후에는 쏘베트로씨야에 대하여 무력간섭과 경제봉쇄를 감행한 책동자의 한사람으로서 로씨야채권자협회 주석을 담임. 1922년에 제노아와 헤그회의에 참석한 영국대표단 고문. 1921~1929년에 그의 이권의 산업의 임차권문제에 대하여 쏘련정부와 담판하였으나 성사하지 못함. —705페지

오페부(吴佩孚 1874~1939) —북양직계군벌. 일찌기 육군 제3사 사장대리, 직예-산동-하남순찰부사, 호남-호북순찰사를 담임. 1922년에 봉계군벌을 전승한후 북양군벌의 가장 주요한 인물로 되여 영, 미 제국주의의 권력적인 지지를 받음. 1923년에 경한철도로동자들의 대파업을 탄압하고 2.7참안을 빚어낸 괴수. 1924년 제2차직계-봉계군벌전쟁에서 패배하여 도주하였으며 후에 또 봉계군벌과 결탁하여 풍옥상의 국민군을 공격. 제1차국내혁명전쟁기간에 그의 군대의 주력은 호북성에서 국민혁명군에게 격파당하였으며 잔여부대는 하남성남부에서 철저히 소멸됨. —618, 620페지

오꾸네브(奥库涅夫 Окунев)—602페지

오쏩스끼(奥索夫斯基 Осповский)—쏘련공산당(불쉐위크) 당내의 반대파분자. —677, 775페지

오엔, 로버트(欧文, 罗伯特 Owen, Robert 1771~1858)—영국의 위대한 공상적사회주의자. —2페지

우란겔, 뽀뜨르 니꼴라에위치(弗兰格尔,彼得·尼古拉也维奇 Врангель, Петр Николаевич 1878~1928)—짜리로씨야의 장군이며 군주파분자. 1918~1920년의 외국무력간섭 및 국내전쟁기간에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남부로씨야 반혁명두목의 한사람. 1920년 4~11월에 반혁명적《남부로씨야

무장력》 총사령관을 담임하였으며 홍군에게 격파당한후 국외로 도주. —618페지

우스뜨랄로브, 니끌라이 와셀리에위치(乌斯特里亚洛夫,尼古拉·瓦西里也维奇 Устрялов, Николай Васильевич 1890~1938)—로씨야의 법학자 및 정론가이며 립헌민주당의 저명한 활동가로서 목표전환파의 사상가. 1913년부터 모스크바대학과 뻬름대학에서 교편을 잡음. 1916~1918년에는 《로씨야의 사상》잡지와 《로씨야신보》에 기고함. 1918년에 립헌민주당 중앙위원회 동방부 주임을 담임. 끌챠크비도가 분렬된후 하르빈으로 도주. 1921~1922년에 《목표전환》 문집과 잡지에 기고함. 1935년에 귀국. 1937년 6월에 체포되여 도형에 처함. —698~701페지

울라지미르, 일리이치(弗拉基米尔,伊里奇) —레닌, 웨.이.를 보라.

유제니치, 니끌라이 니끌라예위치(尤登尼奇,尼古拉·尼古拉也维奇 Юденич,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1862~1933)—짜리로씨야의 장군. 1917년에 깝까즈전선 총사령관을 담임. 10월혁명후에는 반혁명적《서북정부》의 성원이며 백파서북군구 총사령관. 외국제국주의의 지지하에 1919년에 뻬뜨로그라드를 무차별 공격하였으며 실패를 당한후 에스또니야로 퇴각함. 1920년에 영국으로 망명. —618페지

이완뢰제(伊万雷帝 Иван Грозный 1530~1584)(즉 이완4세 와실리에위치—伊万四世·瓦西里也维奇 Иван IV Васильевич)—모스크바와 전 로씨야 대공(1533~1584), 로씨야의 최초의 황제(1547~1584). —588페지

일리이치(伊里奇) —레닌, 웨.이.를 보라.

에렌부르그, 일리야 그리고리에위치(爱伦堡, 伊里亚·格里哥里也维奇 Эренбург, Илья Григорьевич 1891~1967) —쏘련의 작가이며 정론가. —349페지

엔, 즉 죠르다니야, 엔.엔.(饶尔丹尼亚, 诺·尼·) —안을 보라.

엥겔스, 프리드리히(恩格斯, 弗里德里希 Engels, Friedrich 1820~1895) —2, 43, 44, 48, 53, 59~61, 64, 179, 213, 238, 244~246, 250, 256, 257, 282, 297~299, 309, 314, 320, 637, 638, 640, 713, 714, 717~722, 724~728, 741, 779~785페지

에고로브(叶哥罗夫 Егоров 1873년에 출생)(본명은 레윈, 에프렘 야꼬블레위치—列文, 叶弗列姆·雅柯夫列维奇 Левин, Ефрем Яковлевич)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로서 남부지방로동자동맹의 지도자의 한사람. 19세기 90년대에 하리꼬브사회민주주의자소조에 참가. 일찍 《남부지방로동자》지의 편집부에 들어

감.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중립을 취하였으나 대회후에는 멘쉐위크로 됨. 같은 해 9월에 하리꼬브에서 체포되였으며 후에 정치무대에서 물러남. —141페지

예브도끼모브,그리고리 예레메에위치(叶夫多基莫夫, 格里哥里·叶列梅也维奇 Евдокимов, Григорий Еремеевич 1884~1936) —1903년에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 10월혁명후 제7집단군 정치부 주임을 담임. 1919년부터는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중앙위원. 1922년부터는 뻬뜨로그라드직업동맹리사회 주석,뻬뜨로그라드집행위원회 부주석을 담임. 1925년에 로씨야공산당(볼쉐위크) 뻬뜨그라드정위원회 비서를 담임하였으며《신반대파》와 뜨로쯔끼-지노위에브반당동맹의 골간분자. 1927년에 당에서 제명됨. —584페지

위떼, 쎄르게이 율리에위치(维特, 谢尔盖·尤利也维奇 Витте, Сергей Юльевич 1849~1915) —로씨야의 관료. 1892년 2~8월에는 교통대신, 1892~1903년에는 재정대신, 1903년 8월부터는 대신위원회 주석, 1905년 10월~1906년 4월에는 대신회의 주석을 담임하였으며 1905년 혁명을 탄압한 살인귀. —175페지

월헬름2세(威廉二世 Welhelm II 1859~1941) —독일황제이며 프로씨아국왕(1888~1918년). —312페지

와네크, 까렐(瓦涅克, 卡尔 Vaněk, Karel) —체스쯔사회민주주의자이며 오지리의회 의원. 로골적인 배의주의와 분리주의 립장을 취한 체스쯔분리주의자들의 수령의 한사람. —128페지

와이틀링, 윌헬름(魏特林,威廉 Weitling, Wilhelm 1808~1871) —독일의 초기로동운동의 저명한 활동가이며 공상적평등주의적공산주의리론가. 1836년에 빠리에서 정의자동맹에 가입. 1841~1843년에 스위스에서 평등적공산주의사상을 전파함. 1842년에《조화와 자유의 담보》라는 주요한 저서를 출판. 1846년에 브류쎌공산주의련락위원회에 가입. 1846년에 미국으로 망명. 1848년독일혁명이 폭발된후 귀국하였다가 1849년말에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였으며 후에 로동운동에서 물러남. —43페지

웰스, 오토(韦尔斯, 奥托 Wels, Otto 1873~1939)—독일의 우익사회민주주의자. 1912년부터는 의원. 1913년에 독일사회민주당 집행위원회에 피선되여 들어감.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호국파분자로서 독일정부의 제국주의정책을 지지함. 1918년 독일 11월혁명후 반혁명활동을 애써 책동하였으며 1919년초에 베를린 로동자와 해병들의 봉기를 탄압하는데 참여함. 1922년에 독일사회민주당의 주석의 한사람으로 피선됨. 1931년부터는 이 당의 공식적수령. 일찌 제2국제당 집행위원회 위원을 담임. —400, 796페지

本书根据中共中央马克思、恩格斯、列宁、斯大林著作编译局翻译，人民出版社1979年12月出版的汉文版第1版本翻译出版。

이 책은 중공중앙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저작편역국에서 번역한, 인민출판사 1979년 12월 제1판(한문판)에 의하여 번역출판한다。

斯大林选集

上 卷

（朝鲜文）

中央马列著作毛泽东著作
民族语文翻译局翻译
民族出版社出版　新华书店发行
民族印刷厂印刷

开本：850×1168毫米 1/32　印张：28
1982年4月第1版　1982年4月北京第1次印刷
纸面布脊精装本印数：0001—1,000册　定价：1.95元
书号：M 1049（6）299